

발 간 등 록 번 호
52-6260000-000301-10



부산구술문화총서 2

동부산 문화권 설화(Ⅱ)

남구·수영구·해운대구 편

박경수·황경숙 편저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13

일 러 두 기

1. 구성과 체제

- (1) 이 책은 『부산구술문화총서』의 일환으로 간행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동부산문화권, 서부산문화권, 중부산문화권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별로 설화 2권, 민요 1권의 체제로 전체 9권을 발행하기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추가로 보유편을 발행한다.
- (2) 이 책은 『부산구술문화총서』의 제2권으로 동부산문화권 중에서도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설화만을 모아서 엮은 것이다.
- (3) 이 책은 총 3편으로 구성되었다. I. 현장조사 설화를, II. 기존 현장조사 설화를, III. 문헌 소재 설화를 구별 단위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 (4) I은 이 책의 집필자들이 중심이 되어 부산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현장조사한 자료를 수록한 것으로, 각 설화 자료들을 제목, 제보자(이름, 성별, 출생년도), 채록 시기, 조사 장소, 본문의 순서로 정리하였다.
- (5) II는 김승찬(전 부산대 교수), 박경수(집필자)의 현장조사 자료다. 전자는 김승찬이 1992~1996년에 조사 녹취한 자료로 집필자의 서술체계와 서술방식을 그대로 따랐으며, 일부 보고 출판된 자료의 경우 주에서 서지 정보를 밝혔다. 후자는 박경수가 2010년도에 별도의 사업과제로 현장 조사한 자료이며, 당시 원전의 서술체계와 서술방식을 그대로 따랐다. 각 설화 자료의 끝에 출처를 밝혀 두었다.
- (6) III은 기존에 발행된 문헌에 수록된 설화를 엮은 것으로, 동일한 설화의 경우 가장 먼저 출판된 설화를 저본으로 수록했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설화라도 이야기 전개 방식이나 표현이 다르면 출판년도와 상관없이 별도의 자료로 보아 함께 수록하였다. 각 설화의 출처는 자료 끝에 밝혔으며, 동일한 설화가 여러 문헌에 수록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보를 각주를 붙여 알 수 있도록 했다.
- (7) 이 책의 끝에 제보자 색인과 제목의 사항 색인을 붙여 자료의 활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2. 표기 원칙

- (1) 모든 자료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였다.
- ① 현장조사 설화의 경우, 지역 방언을 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방언에 대한 표준어나 뜻풀이는 소괄호 ()에 넣어 표기하였다. 뜻풀이가 길거나 별도의 주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주 처리하였다.
- ② 한자, 외국어, 숫자 등을 별도로 밝히는 경우에는 소괄호 ()에 넣어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2) 책 이름은 겹낫표 『 』, 작품명은 낫표 「 」, 혼잣말은 홑따옴표 ‘ ’, 대화는 겹따옴표 “ ”로 표시하였다.
- (3) I. 현장조사 설화의 경우, 조사자와 청중의 개입 부분과 구연 상황은 대괄호 []에 넣어서 제보자의 구술 내용과 구분되도록 표기하였다.
- (4) II. 기존 현장조사 설화의 경우, 원전의 표기 원칙을 그대로 준수하되, 단락별 들여쓰기만 별도로 했다.
- (5) III. 문헌 소재 설화의 경우, 원전의 표기를 충실하게 따르되, 현행 한글맞춤법에 어긋난 표현은 수정하였다.

각/권/별/편/제

- 제 1 권 동부산 문화권(I) -기장군편- / 2012년 발간
- 제 2 권 동부산 문화권(II) -남구·수영·해운대구편- / 2013년 발간
- 제 3 권 동부산 문화권 민요 / 2014년 발간 예정
- 제 4 권 서부산 문화권(I) -강서구편- / 2015년 발간 예정
- 제 5 권 서부산 문화권(II) -북·사상·사하구편- / 2016년 발간 예정
- 제 6 권 서부산 문화권 민요 / 2017년 발간 예정
- 제 7 권 중부산 문화권(I) -금정·동래·연제구편- / 2018년 발간 예정
- 제 8 권 중부산 문화권(II) -부산진·동·서·영도·중구편- / 2019년 발간 예정
- 제 9 권 중부산 문화권 민요 / 2020년 발간 예정
- 제10권 부산광역시 설화·민요(보유편) / 2021년 발간 예정

목 차

일 러 두 기

I. 현장조사 설화

1. 남구 설화

은혜 값은 두꺼비	3
내 방귀 고시지요?	3
하늘도 진심을 안다	4
몽당 빗자루가 변한 도깨비불	5
상객 가서 사돈 가래 먹은 사돈	5
과부를 만나 황재한 소금장수	6
과부 때문에 망한 웅기장사	7
염라대왕께 복을 빌려 산 나무꾼	8
도둑 며느리를 들인 시어머니	10
눈치로 돈 버는 선무당	11
개똥으로 시어머니 봉양한 효부	12
시집에서 쫓겨나 중이 된 딸	13
장화와 홍련	14
자식 죽인 후처를 징계한 사명대사	17
동시에 효자와 충신이 되는 법을 묻는 과거시험	20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1)	20
원혼이 된 아랑	21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1)	23
고부 갈등을 해결한 아들	24
홀어머니를 잘 모시도록 찌를 낸 아버지	25
지렁이가 환생한 아들	26
죽어 자식으로 환생한 전우	28
나무꾼과 우렁각시	28
강피 훑는 팔자의 여인(1)	30

팔자대로 살아야 하는 운명	31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2)	32
중국 사신이 낸 문제를 푼 노모	32
피 많은 박문수	33
왜군에게 죽은 아기장수	34
제삿밥을 못 먹은 친부모	35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1)	36
구렁이로 환생하여 아버지의 한을 풀어준 아들	37
구렁이로 환생한 스님	38
당산나무를 베어 동티 만난 사람	40
도깨비를 물리친 할머니	41
이야기하다 쫓겨난 며느리	41
부모 때리던 아들을 효자로 만든 아버지	43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2)	44
밤마다 무를 훔쳐 먹은 며느리	46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2)	46
길경이 기름으로 죽은 남편을 본 아내	47
생쥐로 변하는 사람의 혼	48
죽었다 다시 살아난 딸	49
무덤에서 태어난 아기	50
이장해서 망한 집	50
사윗감을 찾아 나선 쥐	51
은혜 갚은 까치	52
강피 훔는 팔자의 부인(2)	53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3)	54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4)	55
강피 훔는 팔자의 여인(3)	56
호랑이보다 무서운 곳감(1)	56
형제 싸움에 깨진 쌀 나오는 돌	57
밥을 토해서 어머니를 먹인 효자	57
풀국새가 된 전처 딸	58
욕심 많은 윗동서와 착한 아랫동서의 밥 구걸	59
강아지 때문에 죽은 각시와 각시당	60

처녀 허깨비가 나오는 쉼자리	61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5)	62
며느리가 가르쳐준 염불	63
술이 만포장이네	65
다리 털어 복 나가는 병	65
꼬부랑 이야기(1)	69
호랑이보다 무서운 꽃감(2)	70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6)	70
꼬부랑 이야기(2)	71
남편 기다리다 죽은 각시와 각시당	71
닭 먹다 지네 독에 죽은 사람	72
강피 훑는 팔자의 여인(4)	72
돌이 말을 하면 말해라	74
객귀 물리는 소리	77
손자를 삶아 먹은 치매 걸린 할머니	77
강피 훑는 팔자의 여인(5)	78
지렁이 반찬으로 시어머니 봉양한 며느리	79
내 방귀 먹어라	79
시집가서 도둑질 멈춘 며느리	80
내 복에 산다	82
딸로 변신하여 가족을 잡아먹은 여우	83
욕심 부리다 망한 나무꾼	84
자식 죽여 부모 살린 효부[산삼동자 이야기]	85
강피 훑는 팔자의 여인(6)	86
며느리의 방귀 힘	87
시아버지 몰래 떡 먹다 죽은 며느리	87
강피 훑는 팔자의 여인의(7)	88
계모의 구박을 이긴 본처 딸	89
이야기를 사서 도둑 물리친 영감	91
호랑이보다 무서운 꽃감(3)	94
부인의 나쁜 행실을 고친 남편	95

2. 수영구 설화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1).....	97
구렁이로 보이는 제삿밥의 머리카락.....	97
단칸방에 손님 자기.....	98
단칸방에서 일어난 수난.....	98
장거리를 가져다 준 도깨비.....	99
도깨비에 홀려 돌아다닌 사람.....	100
단칸방에서 일어난 아버지의 수난.....	100
단칸방에서의 부부 합방(1).....	101
풀국새가 된 머슴.....	101
강피 훑는 팔자의 부인.....	102
도깨비에 홀려 눈에 빠진 노인.....	103
현풍의 효자 꺾거매자.....	103
도깨비와 싸워 이긴 장사.....	105
이퇴계 선생을 이긴 어린 이율곡 선생.....	106
고려장 하러 갔다 돌아온 사연.....	106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2).....	107
며느리의 방귀 힘(1).....	109
처갓집도 못 가는 바보 신랑.....	110
동생 생기지 못하게 한 다섯 형제.....	110
이를 키워 팔아 부자된 사람.....	111
임금을 이긴 백성.....	112
누워서 봐도 다 보이더라.....	113
우리도 막 끝났다.....	113
은혜 값은 두꺼비.....	114
욕쟁이 사위와 바깥사돈들.....	115
개 씹하는 것도 모르나.....	116
단칸방에서의 부부 합방(2).....	117
썩나발 불기는 처음이다(1).....	117
지네가 된 아들.....	118
자기 새끼 이뻐하는 것을 아는 호랑이.....	119
밤길에 호랑이를 만난 아이 업은 엄마.....	121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3).....	122

호랑이도 감동한 효부.....	122
송장 빠로 남편을 살린 열녀.....	123
남편 문둥병을 고친 열부.....	124
어머니를 위해 다리를 놓아준 네 아들의 효심.....	125
아버지를 잘 모신 양아들 부부.....	126
죽어 구렁이가 된 구두쇠 어머니.....	127
곡소리도 못하는 바보 사위.....	128
비 오면 일만 하던 바보의 대답.....	129
썩나발 불기는 처음이다(2).....	129
못된 며느리의 말대꾸.....	132
뒤늦게 효도하는 법을 배운 아들.....	132
사람 간을 빼먹는 여우.....	134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4).....	135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136
언니의 꿈을 사서 김춘추와 혼인한 김유신의 여동생.....	136
욕심 때문에 명당 자리 잃은 창녕 성씨.....	138
김삿갓이 지은 파자시(破者詩).....	139
후손을 살린 이퇴계의 유서.....	140
재치로 자기 집 배를 지킨 아이.....	141
시아버지의 궁색한 변명.....	142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5).....	142
안사돈에게 잃어버린 갓을 찾아달라는 바깥사돈.....	143
쫓충에 놀란 호랑이.....	144
음부로 들어간 이의 수난.....	145
남근으로 손주를 돌 본 할아버지.....	146
단칸방에서의 부부 합방(3).....	147
신식으로 합방하려다 겪은 수난.....	148
아들 내외와 한 방 쓰는 시아버지의 수난.....	149
바보 부인의 애교가 부른 수난.....	149
썩나발 불기 처음이다(3).....	150
서울 신랑각시의 말을 흉내낸 대구 신랑각시.....	151
며느리의 방귀 힘(2).....	153
구렁이로 보이는 제삿밥의 머리카락.....	153

닭소리로 몰래 만나는 노인 부부	154
아빠가 엄마 배 위에서 자요	155
작은 별 하나 비뚤어진 칠성 별	155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6)	156
똥을 씻어 지은 밥으로 시어머니 봉양한 며느리	156
이상하게 생긴 입 보고 도망간 호랑이	157
고려장 가도 자식 걱정	157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7)	158
지렁이 반찬으로 시어머니 봉양한 며느리	160
방이 뜨거워 아빠가 엄마 배 위에 있어요	162
장사하다가 낭패를 당한 게 장사	162
도깨비에 홀려서 일찍 죽은 사람	163
배 그림을 보고 자기 성을 아는 바보	164
누나 제사 지내러 가다 죽을 뻔한 동생	165
구렁이가 된 스님을 사람으로 환생시킨 상좌	167
마당에서 변보다 도깨비에 홀려간 아이	169
명당자리를 빼앗겨 망하게 된 집안	170
홀아버지를 새 장가 들인 효자 부부	171
천년 먹은 술값을 갚은 구렁이 혼	176
새 남자 들인 엄마 위해 하늘로 간 딸	180
호랑이가 둔갑한 배 짜는 할머니	182
금덩어리로 은혜 갚은 두꺼비	185
아버지 빛 독촉에 시달린 아들과 구렁이	197
내 복에 산다	199
환생하여 허물 벗은 본처 자식	204
죽어 뱀이 되어도 쌀독을 지킨 구두쇠 시어머니	207
죽어 개가 되어 효도한 자식	208

3. 해운대구 설화

질투 많은 토끼와 녹두영감	209
남편을 잃은 여자의 혼이 변한 매미	209
효자에게 내린 쇠북(1)	210
홍시를 구해 어머니를 봉양한 효자	211

효자가 만든 의령읍의 부모다리	212
풍수의 유언대로 관을 넣지 못한 자식	212
여자의 입방정 때문에 자라기를 멈춘 바위	215
처갓집도 겨우 찾아간 바보	215
지령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1)	216
고지산의 묘 파는 기우제	217
스님을 넣어 만든 보(洑)	218
도깨비에 홀린 사람	219
장님과 병어리 부부의 대화	220
고부 갈등을 풀게 된 개구리 고기	221
새끼를 예뻐한 사람에게 보답한 호랑이	222
지네장터 이야기[은혜 갇은 두꺼비(1)]	222
병 세 개로 여우 동생에게서 도망친 오빠	224
구렁덩덩 신선비[뱀신랑 이야기]	227
천년 묵은 돼지에게 잡혀간 여동생을 구한 오빠	234
서로 모르고 결혼한 곰보 신랑과 곰보 신부	241
산 부처가 된 호식될 팔자의 아들	243
하느님 덕에 저승 갔다 온 후 회개한 사람	246
염불만 하던 시어머니와 못된 며느리	249
수탉이 된 복바위	251
자신을 쫓아낸 주인을 피로 양갓음 한 하인 가걸이	253
나라에서 죽인 아기장수	258
죽어 구렁이가 된 시어머니	259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260
집안을 지켜 준 지킴이 구렁이	260
효자에게 내린 쇠북(2)	261
욕심 탓에 막혀버린 쌀바위	262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263
지킴이 구렁이가 죽어 망한 집	263
지령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2)	264
풀국에 원한이 져서 죽은 전처 딸과 풀국새	265
성주대왕 병을 고친 바리데기	265
부자집과 가난한 집의 제사	267

손각시가 아기 땃줄을 끊고 승천한 시랑대.....	269
죽은 사람 혼이 된 도깨비.....	270
상객 가서 실수한 친정아버지.....	271
메밀나무 밑이 빨간 이유.....	272
손님을 내 아들이라 하는 처녀 뱃사공.....	273
남근으로 손자 병 고친 할아버지.....	273
십층 가려다 봉변 당한 할머니.....	274
신식 말고 구식으로 하소.....	275
도깨비불이 되는 몽당 빗자루.....	275
거짓 죽음으로 못 된 딸을 혼낸 아버지.....	276
며느리의 방귀 힘(1).....	277
주인과 스님이 주고받는 이상한 염불.....	277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3).....	278
글을 잘 몰라 쓴 편지.....	279
이상하게 생긴 입 보고 도망간 호랑이.....	279
저승 갔다 살아온 사람(1).....	280
호랑이보다 무서운 곳감.....	281
호식을 면하게 한 삼정승의 딸.....	282
엄마 말을 안 들어 과거 못 본 아들.....	283
효심에 감동한 산신령[산삼동자 이야기(1)].....	284
아들을 구한 죽은 아버지.....	285
술이 나왔던 술바위.....	285
부자 과부를 사촌에게 양보해서 병이 난 사람.....	286
오누이가 넘다 동생이 죽은 달래고개.....	288
보동덕 집에 놀러간 조동양반과 부동양반.....	289
과부 집에 웅기 팔러 갔다 낭패 본 웅기장사.....	289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4).....	291
닭지 않는 인가죽 신.....	292
구렁이로 보이는 제삿밥의 머리카락.....	292
도깨비와 씨름한 사람(1).....	294
며느리의 방귀 힘(2).....	295
장군이 아들 태를 끊은 장산의 제왕판 바위.....	296
은혜 갠 두꺼비(2).....	297

주인 살린 충견.....	297
물이 들지 않은 산꼭대기 상여바위.....	298
지령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5).....	299
며느리의 방귀 힘(3).....	300
줄 지어 다녔던 구청 자리 도깨비불.....	301
도깨비와 씨름한 사람(2).....	301
죽은 영감 따라 다닌 할멈.....	303
곡소리도 못하는 바보 사위.....	304
여자 입방정 때문에 가다가 멈춘 섬.....	304
처녀 귀신이 된 몽당 빗자루.....	305
두꺼비와 결혼한 충각.....	305
임씨가 심은 청사포 당산나무.....	306
조난 때 본 헛배.....	307
파선 배에 바가지를 달라 하는 도깨비.....	308
장사가 아이를 낳은 용궁사 바위.....	308
혈이 끊겨 인재가 나지 않는 청사포.....	309
산 정상에 광어가 앓은 광아산.....	310
처녀 귀신을 태워준 택시 기사.....	310
호랑이 덕에 목숨 구한 아이와 할머니.....	311
죽은 노인을 제삿날 태워준 뱃사공.....	313
처갓집도 못 찾는 바보.....	314
혀가 짧아 내는 보리타작 소리.....	316
자식 죽여 부모 봉양한 효자[산삼동자 이야기(2)].....	316
우물에 빠져 죽은 여우.....	317
재생한 여인과 결혼해서 왕이 된 사람.....	319
도깨비와 씨름한 사람(3).....	323
지령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6).....	324
자식 죽여 부모를 봉양한 며느리[산삼동자 이야기(3)].....	325
날씨를 미리 아는 며느리.....	325
저승 갔다 살아온 사람(2).....	327

II. 기존 현장조사 설화

1. 김승찬의 현장조사 설화

친정 부친 묘터를 빼앗은 딸	331
개좌산 전설	332
운봉산 광주 김씨 묘터	333
두꺼비가 정승 사위된 이야기	334
호식할 총각과 세 정승 딸의 결연	340
쫓겨난 딸	345
고시네 설화(명풍수 도선)	349
숙종대왕의 목숨을 건져준 신	352
숙종대왕과 풍수	352
죽은 남편을 저승에서 보고 재혼한 이야기	354
못난 사람 이야기	355
죽은 남편 묻어주고 부부 인연 맺은 이야기	356
둔갑한 여우	358
개와 고양이의 보은	360
죽은 부친 세워 묘 쓰고 부자된 이야기	365
천벌 받은 며느리	369
꼬리 따기	371
장수 이야기	371
빈대로 폐사된 운봉사	372
파평 윤씨의 시조	372
여동지 전설	373
조월천과 상사뱀	374
신립(申昶) 장군의 죽음	376
부자된 선비	380
권관목과 이무기	382
의상대사의 출생담	384
매구 이야기(1)	385
온천물 나오는 구멍	387
토끼에게 놀림 받은 영감	388
용두각시 땃줄 끊은 자취	388
홍시를 구한 효자	389

산고동을 구한 효자.....	391
장산 당산신의 영험.....	391
김한림의 꿈과 과거급제.....	392
송정 지명 유래.....	393
천마산 용굴 전설.....	394
도둑을 죽이고 살아난 자매.....	395
까치의 보은.....	398
도둑 죽이고 부자된 고동각시.....	399
갓을 쓰면 소로 변하는 사람.....	402
뱀술로 죽인 뱀.....	404
인신공희(人身供犧) 설화.....	405
복 타러 간 충각.....	406
도둑을 죽인 비단장사.....	410
호랑이와 남매.....	412
죽은 초립동이의 해원.....	414
귀 어두운 사람들의 말들.....	417
재치 있는 아들.....	418
묵은 빛 갇고 햇빛 놓는다.....	420
저승왕 심부름한 신대장.....	421
정묘(鄭墓) 이야기.....	422
아내 덕에 똑똑해진 제갈공명.....	423
은혜 갇은 삼죽구.....	426
해인사 이무기와 정인홍.....	427
물명당.....	430
업을 모셔 부자된 이야기.....	431
매구 이야기(2).....	432
개 무덤.....	434
병 주둥이가 깨지는 꿈.....	435
여우에 홀린 숙종대왕.....	437
두꺼비의 보은.....	440
시신을 매장해 주고 급제한 이야기.....	441
시집가는 신부를 따라나간 업.....	443
해운대 온천 개척담.....	444
도깨비 배(1).....	444

청사포제당 할매 전설(1).....	446
아들 잃은 과부를 웃게 한 정만서.....	446
청사포 주변의 산명·지명 유래담.....	447
청사포의 풍수지리설.....	448
청사포제당 할매 전설(2).....	449
동상례(東床禮).....	449
도깨비 불.....	451
도깨비 배(2).....	451
쌀과 낭신(囊腎).....	452
낭신을 찍어 죽은 오래비.....	454
피로 어머니 원수 갚은 아들.....	454

2. 박경수의 현장조사 설화

1) 남구 설화

가난한 강태공의 출세와 복 없는 부인.....	459
첫날밤 일을 말하게 한 눈깔사탕.....	461
무엇이든 도와준 아치섬 도깨비.....	464
신이 나고 혼이 나는 신혼여행.....	466
코 풀 때 질식사망.....	467
방귀쟁이 딸의 호각소리.....	468
조치원의 유래.....	469
부인이 준 담치 가지고 과거 보러간 사람.....	470
동냥 귀는 어두워도 좇 귀는 밝은 부인.....	472
길이만 좀 더 길게 해주소.....	473

2) 수영구 설화

도깨비와 씨름한 영감.....	475
고려장하려다 되돌아온 부자(父子).....	476
자식 죽여 부모 봉양하려다 부자된 효자 곽씨.....	478
친정아버지 챙기다 손해 본 며느리.....	480
배 고파 과식한 남동생의 노래.....	482
호랑이를 속여 호식을 면한 아이들.....	483
배가 고파 죽어 풀국새가 된 사연.....	485
도깨비와 씨름한 장사.....	487

용왕의 아들을 살려 부자된 어사.....	488
스님에게 풍수, 의학, 약학을 배워 부자 된 고아 삼형제.....	490
구렁이를 죽여서 어렵게 된 집안.....	499
두꺼비로 변신하여 부인을 구한 죽은 신랑.....	500
해골 모습의 죽은 남편 보고 그리움을 접은 부인.....	502
사주 책을 사서 부인을 살린 남편.....	503
병어리와 봉사 부부가 살아가는 방법.....	505
시어머니를 내쫓고 별 받은 며느리.....	509
머슴과 사는 과부의 말 둘러대기.....	512
가난한 집 머슴과 몰래 결혼한 부잣집 처녀.....	513
자신을 골리는 부인을 혼낸 봉사 남편.....	515
계모 구박에 죽은 아들 원수 갚은 부인.....	516
선생을 장가 보낸 어린 학동.....	525
결혼하자 신랑 죽은 신부.....	528
바지 벗고 물구나무 서서 뱀을 물리친 노인.....	530
아버지가 어머니 배 위에서 자요.....	531
꼬끼오 하면 빼악빼악 하고 오너라.....	532
호랑이를 물리치기 위해 돌로 쌓은 서낭당.....	533
사자 모양의 백산과 사자 먹이의 담비[담비탈의 유래].....	535
동래에 귀향 온 정서와 정과정.....	536

3) 해운대구 설화

자식 죽여 부모 봉양하려다 쇠북 얻은 효자.....	538
여름에 어머니께 홍시를 구해준 효자.....	539
도깨비불이 올라온 구청 자리.....	541
도깨비와 씨름한 사람.....	543
바보 형님을 골탕 먹인 똑똑한 동생.....	545
부인의 기를 꺾고 순종하게 한 남편.....	546
곡소리도 못하는 바보 사위.....	549
죽은 여치를 자기 아이로 알고 통곡한 바보 남편.....	551
첫날밤 이불에 절하는 바보 남편.....	552
가죽 외투를 물고 간 호랑이.....	554
아이를 함께 낳은 며느리와 시어머니.....	555

Ⅲ. 문헌 소재 설화

1. 남구 설화

각시당(아씨당) (1).....	559
각시당(아씨당) (2).....	559
제석골 산신제.....	559

2. 해운대구 설화

운봉산(雲峯山)의 효녀(孝女) 김씨(金氏) 설화(說話).....	561
운봉산 효녀 전설.....	562
운봉산의 효녀 김씨 설화.....	563
무지개산의 연못.....	564
와우산(臥牛山) 대보름달 전설(傳說).....	565
와우산 대보름 전설.....	566
개좌골(開佐山)에 얹힌 전설(傳說).....	567
범바위 전설.....	568
한 자루의 금침(金針).....	569
해운대 인어상에 얹힌 전설.....	570
재송동의 고당신(高堂神).....	571
장산 춘천의 애기소.....	572
동백섬에 솟아난 여인 뉘의 동백나무.....	573
범골 호랑이와 바구니.....	573
몰리못 너럭바위의 애기장수.....	574
도채비 영감과 솔리방.....	576
좌동의 등바우.....	576
장산 선바위.....	577
도둑골 전설.....	577
석대동(石埧洞)의 느티나무.....	578
청사포 망부송 전설.....	579
안적사(安寂寺) 창건 설화.....	580
석대 장사.....	581
여우 이야기.....	582
의적 정봉서와 마누라.....	583

박권농의 아들.....	585
동백꽃 사연.....	587

참고문헌.....	588
제 보 자.....	589
찾아보기.....	593

I . 현장조사 설화

1. 남구 설화
2. 수영구 설화
3. 해운대구 설화

1. 남구 설화

[남구 설화 1]

은혜 갚은 두꺼비

원선희(여, 1925년생) 구술
2013년 2월 19일 채록
[감만1동 장수경로당]

뚜끼비가(두꺼비가) 항상 처녀가 밥을 퍼몬, 뚜끼비가 어디서 나온지 술 뒤에, 술에 기 나오거든. 나오면 밥을 요리 조금 주문 인자 그거 묵고 이랬는데.

그 처녀한테 밥을 만날(매일) 그래 얻어무서러(얻어먹어서), 그 인자 천장에 지네가 천 년 무운(먹은) 지네가 있는 거라.

천 년 무운 지네가 그 뚜끼비 잡아물라고 안개로 푸, 푸웠는데(피웠는데), 그래 처녀로, 처녀가 인자 죽게 돼. 뚜끼비가 그 처녀한테 밥 얻어 문 그 은혜를 갚는다고, 그 뚜끼비가 안개로 푸가 지네를 널짜(떨어뜨려) 죽인 그런 이야기라.

[남구 설화 2]

내 방귀 고시지요?

원선희(여, 1925년생) 구술
2013년 2월 19일 채록
[감만1동 장수경로당]

옛날에 사람 천 명 모아야 그 고개 넘어 가는 기라. 어찌 화적떼가 거 뿔고 모이가지고.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다 보따리 다 들고, 과거하러 가도 그 질로(길로) 가야 되는데, 다 뺏고 이래서 그게 사람 천 명 모아야 넘어

간다고 천지고개라.

그래 그기 인자 육로로 갈라 카몬 저 도로, 저 신작로로 멀고, 그리 가면 질러 가이 가까웠거든. 이래가 인자 신랑각시 처가 가고 친정 가고, 이래 간다고 가다가, 마누라가 얼라를(아기를) 업고 앞에 가모 방구를 뽕 짚거든.

뒤에 인자 신랑 오다가 소변 보고 쪼어 소변본다고 처지가(처져) 있고, 뒤에 탄 사람이 인자 자기 뒤에 따라 오거든. 거 모르고 자기 신랑인 줄 알고,

“아이 여보, 내 방구 꼬시지요(고소하지요)?”

이러카이꺼네,

“당신 방구 뽕았는교?”

커더라. 돌아보이꺼네 탄 사람이거든. 이래논카이,

“아, 난 알라 저거 아부지라고.”

카이,

“알라 저거 아버지걸으면 똥 싸주겠네.”

커더란다. [일동 웃음]

[남구 설화 3]

하늘도 진심을 안다

원선희(여, 1929년생) 구술

2013년 2월 19일 채록

[감만1동 장수경로당]

메느리가(며느리가) 시오마이로(시어머니를) 얼마나 밍어가지고시는(미워서는), 이래 저기 카이, 뭐라고 카이께네, [잠시 생각하다가] 아이, [생각이 나서] 아! 스님이 탁발로 오셨는데, 그래 그카이,

“뭐로, 무슨 소리로 해야만 죽어 좋은 데 가노?”

카이, 그래,

“나무아미타불.”

그 인자 가르쳐 주는 스님 가고, 할매가 마 잊아뻘거든. 잊아뿌가,
“야야, 아까 스님이 뭐라 카더노?”
카이,
“뭐라 캐요. 뒷집에 저 김노인 봉알이 달랑. [웃으며] 뒷집에 김침지
봉알이 달랑.” [웃음]
메느리가 심술져 고래 갈차줬는데, 그래 놓이(놓으니),
“뒷집에 김침지 [웃으며] 봉알이 달랑.”
자꾸 켜거든. 하늘에서 자기 직심(直心)으로 카거든. 허욕(虛慾) 내 카
는 것도 아니고. 이러나이 죽고나이 하늘에서 큰 이런 뚜루박이(두레박
이) 추루룩 내려오더란다. 내려 와 거 송장 담아 추루룩, 그래 그 천당을
가더란다.

[남구 설화 4]

몽당 빗자루가 변한 도깨비불

김경화(남, 1943년생) 구술

2013년 2월 19일 채록

[대연1동 대연1동노인정]

옛날에 그 저 도깨비불 봤다, 봤다 카는 거는. 옛날에 인자 그 여인들이
맨스를(월경을) 하고 나면, 옛날에 뭐 다른 거 없고. 그 몽당 빗자루 그
놈을 닮고는 아무데나 집어던져 놓는다고. 그러면 인자 오늘같이 구름이
끼고 비가 올라 하고 이라면은, 삼박자가 맞아져야 돼. 그라면은 술을 한
잔 잡숫고 이래 저녁으로 이래 가다 보면, 거기 인이 번쩍번쩍 왔다갔다
한다구요. 그래서 그게 도깨비불이라 한다는 거라.

[남구 설화 5]

상객 가쉬 사돈 가래 먹은 사돈

권기숙(여, 1930년생) 구술
2013년 2월 19일 채록
[대연1동 솔밭노인정]

옛날에 딸집에 상각(상객) 간다고, 부잣집으로 상각 간다고 갔는데, 그 집에는 해변가래 가지고 굴이 많거든 석화. 그게 많이 있다 카는 소릴 듣고, ‘가서 요번에 상각 가가지고 석화, 굴이나 좀 실컷 얻어먹고 와야겠다.’ 싶어가지고 상각을 갔는데, 이놈의 석화가 안 나오는 기라.

그래 자다가 가만히 나갔어. 나가가지고, 그래 뒀안에 가가지고 이래 더듬어 보니까네, 단지가 요렇게 요렇게 물렁물렁한 게 있더라. 그래 실컷 건지(건져) 먹고, 그래 드가가지고(들어가서) 누워있은께네, 아침에 사돈이 나가더니만은, 뒀안에 자기 가래 뱉어 놓은 걸, 단지 옛날에 돌아가면 오줌단지도 있고, 뭐 이래 있으니까,

“그걸 누가 다 파내 갖다.”
고.

[남구 설화 6]

과부를 만나 횡재한 소금장수

김순이(여, 1930년생) 구술
2013년 2월 19일 채록
[대연1동 솔밭노인정]

저 과부가 혼자 사는데, 남자만 얻으면 죽고, 남자만 얻으면 죽는 기라. 그래서 이제 이 과부가 소문을 냈어. 그래가 하도 많이 죽으니까네, 자기 자러 아무도 안 오거든. 그러니까네,

“서과부 집에 자러 오소. 서과부 집에 자러 오소.”

칸께네, 어느 소금 장사가 지나가다가 가만 보니까, 이 소금 팔아봤자 아무것도 없고, 이거 뭐 집도 절도 없고 마누라, 온 저녁에 여자 구경이나 한 번 하자 싶어서 자기가 갔어. 가니까네 이 옛날에 조선바지를 입으면 이

고마 짜매는 끈이 있었다고. 허리끈이. 그 놈이 새까맣게 반질반질 한 거야. 평생 안 씻어노니까. 그래 이 여자가 목욕을 시키갖고 그 남자랑 하룻밤을 자는데, 하다 보니 또 남자가 막 빨럭 죽어뿐 기라. 이 여자 상대만 되면 남자가 죽는 기라. 그래 이 여자 급해가지고 물로 떠다왔는데, 이 고말 있제? 남자들 묶으는 고말 안 있나? 그거를 물에다 적셔가 이래 허리끈으로 물로 짜매니까(묶으니까) 남자가 살더라. 그러더만 그 남자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거를 딱 거머쥐고, 인자 그래 하자 여자가 자고나서로,

“저, 저 건네 저 산도 당신 거고, 저 건네 저 논도 당신 거고, 이 집도 당신 거고.”

그래 하자, 이 남자가 이래 가지고, [다리를 벌리고 음부를 손으로 두드리며]

“저 건네 저 산도 니 덕이고, 이 건네 이 밭도 니 덕이고.” [일동 웃음]

[남구 설화 7]

과부 때문에 망한 송기장사

김순이(여, 1930년생) 구술

2013년 2월 19일 채록

[대연1동 솔밭노인정]

서과부 집에 또 송기 장사는, 이 여자가 남자가 그리워서 오면 죽고 오면 죽고 하니께네, 이 남자가 왔는데, 이래 가만 본께네,

“아무것도 난 필요 없고, 하룻밤 자는 초만 내 달라.”

는 기라. 그래 인자 몇 밤 자고 초로 열 자루 구했어. 그래가 인자 방에다가 짹 이래 깔아 놓고, 깔아 놓고 불로 딱 꺼뿌고(꺼버리고) 인자 촛불로 콕- 썬놓고, 그 여자 바라시고(보라고) 대자로 이래 누가(누워서) 있으이 이래가 누워 있으니까네 [일동 웃음], 그래 그 여자가 문구녕으로 이래 보이 막 불은 환한데, 연장이 너무 좋거든. 마 꺼떡꺼떡 해쌌거든.

그래 여자가 드갔어. 그래 그날 밤에는 못 드가서 낮에 해가 거뭇, 이제 점심 걸령할 때 드가서 일로 치는데, 마침 치는데 송기 장사가 왔어.

그래가 인자 한참 고개 넘어가니까네,

“쑥 들오시오, 쑥 나가시오.”

한께네 가만 배곶에서(밖에서) 웅기장사가 들으니까네, ‘쑥 들어오시오.’
하니까 쑥 드갔다가, ‘나가시오.’ 하니까 나갔다가. 처음에는 들오시오 나
가시오 이래가 이 사람이 드갔다가 나갔다가, 난중은 들오시오 나가시오
들오시오 나가시오 이러니까네, 막 남자가 막 빨리빨리 하라고 ‘들오시오
나가시오’ 하니까네, 배곶에(밖에) 웅기장사가 한 짐 바지게 지고 들으니
까 들어오라니까 들어왔다가, 나가라니까 나갔다가 낸주는(나중에는) ‘들
오시오, 나가시오.’ 뿔이 깨뿔어.

그래 이리 본께네 여자가 밖에서 뭐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나서 그
래 보니까네 웅기장사가 다 켜어.

“이보시오. 당신 왜 녀의 집에서 웅기를 그래.”

“와 당신들이 들오시오 나가시오 들오시오 나가시오.” [웃음]

[남구 설화 8]

염라대왕께 복을 빌려 산 나무꾼

김순이(여, 1930년생) 구술

2013년 2월 19일 채록

[대연1동 솔밭노인정]

노부모하고 같이 사는데, 나무를, 옛날에 나무를 하면 등치 크게 나무
썩을 해요. 그래 나무 썩을 해가지고, 세 썩만 해가지고 한 썩을 갖다 팔
면 어머님 고기를 한 번 사다 드릴라고 해놓으면, 한 동이 없어지는 거
야. 밤에. 또 한 동이, 두 동이는 맨날 있는데, 세 동이만 해 놓으면 한
동이 없어져뿌려. 그래 참 이상하다. 어머니 고기를 평생 못 사주는 거
야. 노부모를 갖다가.

그래갖고 한 번은 바람이 되게(세게) 부는데 그 나무 동 속에 탁 들어
앉아 있었대. 그래 있었더만 바람이, 호드락 바람이 불더만 바람이 휩 날
라 가더만은 그래 하늘에 가갖고 툭 떨어져가, 그 하는 말쑤이 그래 거

기가 염라대왕 그랬다 카네.

“그래 그놈이 지는 복이 나무 두 동치만 해 놓고 살지, 세 동치는 못 해 놓고 산대. 그 두 동을, 세 동을 하면 되나?”

이러더래. 그래서 자기 나가가지고 인사를 하니,

“야, 이놈 니 어디서 왔느냐?”

그래,

“내가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무만 해 놓으면 세 동만 해 놓으면 한 동이 없어지니까네, 세 동이 있으면 한 동을 팔아가 어머님 고기를 사드리는데, 고기를 못 사드려가, 어째서 이게 없어지나 싶어가 나무 동 속에 들었더만 내 여 왔다.”

고.

“그래.”

그러니까,

“넌로 복을 좀 주이소. 우리 노부모님 고기 사 줄 돈만. 내 나무를 해 가 팔면 좀 해달라.”

이러니까네, 그 책을, 이만한 책을 이래 넘구더만은,

“니 줄 복이 없다.”

그라더래.

“니는 복이 없기 때문에 니는 나무 두 동치만 해야지.”

옛날에는 나무를 해가 팔거든. 옛날에는 모르지만 우리 시절에는. 그래 자꾸 몇 번 들썩더만(들추더니만),

“아, 그래 10년 동안에만 니가 가지고 있을 복을 주꾸마. 10년 후에는 차복이란 아가 날낀데 차복이가 나오들랑 이 복을 주라.”

이람서,

“인제 가서 10년 동안에 니가 열심히 하면 산다.”

참 그 질로 내려 와가지고 열심히 하니까네, 막 나무 열 두 동이도 팔 아가지고 마 논밭을 사가지고 기와집을 크게 지어놓고 사는데, 한 십 년 채 되니까네, 지나가는 아지매가 임신부가 와가지고,

“미안한데, 해는 지고 저문 날에 내가 이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가 그래,

“자고 가라.”
하니까네, 자더만은 마 배가 아프다고 못가더만은, 거서 애를 놔뒀는 기
라. 그 집에서. 그래 애를 놓으니까네 한 일주일 있더만은,
“그래 어디로 가실랍니까?”
이러니까네,
“집도 절도 없는데 마 아무데나 갈께요.”
너무 고맙다면서, 그래 애기 이름은 뭐냐고 한께네,
“하, 애기 이름도 마 그냥 뭐 차복이라 지어야지요.”
이러더란다. 그러니까네 이 남자가 깜박 생각하기에, ‘아, 10년 후에는 차
복이가 나거들랑 니가 이 복을 주라 카더만은 아 이 사람이, 집 임자가
이제 왔구나’ 싶어가,
“아줌마, 가족이 아무도 없으면 이 집에서 내하고 같이 삽시다.”
이카니까네,
“아이, 이렇게 고마분(고마운) 일이 어딴냐?”
고 하고 남자 생각에는 10년 후에는 딱 집 임자가 찾아올 끼라 하더니
그 애가 집 임자, 차복이라. 그래 옛날에, 그런 지 복대로 사는 기라 그
러니까네.

[남구 설화 9]

도둑 며느리를 들인 시어머니

김순이(여, 1930년생) 구술
2013년 2월 19일 채록
[대연1동 솔밭노인정]

저 며느리가 이웃집에 저 집에 처이가 도둑질을 그리 잘해. ‘하이, 저
며느리를 봤으면 우리가 얼마나 잘 살겠나’ 싶어가지고 혼사를 할라 하
니 저 집에서 이 집에서 할라 하께네 처녀를 대박(단번에) 줄라거든. 그
래가지고 이 집에 시집을 왔어. 시집을 왔는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
도 도둑질로 안 해가 오는 기라. [웃음] 그래서 시어마씨가,

“야 야, 니가 그리 손재주가 좋대서 내가 니를 며느리로 봤는데, 니가와 시집을 오더만은 손재주를 안 부리노?”

카니까네,

“어머니, 내 손재주 부리는 거는 문제 없는데 뒷감당은 우찌 할랍니까?”
이라거든. 그러니까네,

“아이고 야야, 뒷감당이야 내가 하고말고.”

그래 금새 나가더만은 금새 명주 두 필을 훔쳐 오는 기라.

“인자 곧 이거 찾으러 올 기라고 어머니 이거 숨기라고.”

시어마이 덜덜덜덜 떨고,

“아이고 야야, 내 이 못 숨군다.”

“어머니 뒷감당도 못 할구마.”

마 서말치 술에다가 명주 두 필을 싹 영고, 쌀로 한 되 폭 넣어다가 밥을 한끼, 마 밥이 불불불불 끓으니까네, 찾으러 오더란다. 명주 찾으러 오더란다. 다 찾아보니 뭐 밥술에 명주 들었는지 누가 알 끼고? 그러더만은 시어마씨가,

“야야, 니 인제 앞으로 손장난 하지 마라. 내 뒷감당 못한다.”

하더란다. 그런께네 그래 옛날부터 도둑질도 손이 맞아야 하는 기라. 훔치는 사람이 있으면 감추는 사람도 있어야 해. 그래 시어마시가 앞으로 절대 하지 말라고 못 한다 하더란다.

[남구 설화 10]

눈치로 돈 버는 선무당

김순이(여, 1930년생) 구술

2013년 2월 19일 채록

[대연1동 솔밭노인정]

옛날에 인자 옛날에는 무당을 데꼬(데리고) 곁을, 오구를 하거든요. 오구로 하면, 죽고 나서도 하고 집에서도 하거든요. 한번씩 이래 하는데. 인자 이 무당이 내만치 밀천이 없어. 밀천이 없는데, 눈치로 하는 기라. 눈

치로 하는데, 저 상을 하나 차리 놓는데, 명태 한 마리 얹어 놓고 과일 좀 얹어 놔는데. 그 저 옛날에는 속곳이 내려와서 앉으면 다 벌어져 바람이 다 들어가고 그래. 그 사람이 저 앉아서 상을 다 차려놓고. 와이당(농담)이다. 앉아갖고 저 사람 뒤에 앉아서 벌썬고(벌리고) 앉아가 있거든. 근데 무당이 밑천이 없는 기라. 그래서 뭐라 카냐면 오구를 하라 카니까네, “네.”

카고,

“다디여~ 저 명태 게 묵으러 간다 다디여~.”

이카거든. 이 여자 가만히 들으니까 희안한 이 무당치는 오구를 하는데 희안하게 한다 싶어가지고. 마 밑천이 없어서 그렇다 아이가?

“저 명태 게 무러(먹으러) 간다. 다디여.”

그래 속곳에 마 쪼글썬(쪼그려) 앉아 있으니, 오구하는 영감쟁이가 명태 한 마리한테,

“저 명태 게 무러 간다. 다디여.”

거 보이 좀 이상하거든.

“시퍼런 쪽쪽 조황새 다디여, 궁기 빠꿈 조황새 다디여, 터러게(털) 뽀뽀 조황새 다디여.”

[일동 웃음] 눈에는 그게 보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기라. 그래가 돈을 벌어 먹더랍니다.

[남구 설화 11]

개똥으로 시어머니 봉양한 효부

김태연(여, 1931년생) 구술

2013년 2월 19일 채록

[대연1동 솔밭노인정]

옛날에는 먹을 게 없으니 개똥을 주워가지고 개가 보리쌀 먹고 나만, (나면) 똥을 싸고 나면 보리쌀이 그냥 하얗이(하얗게) 있거든. 있으이 시어마이 아무것도 안 줘 놔놓으니, 개똥을 씻거 가지고(씻어서) 밥을 해가

지고 시어머니 갖다 드리니께네. 지 한 숟가락 먹고, 죄 많다고 어른을
갖다 드렸는데. 그래 마 해놓고 모심기 하러 가이, 모두 모 숨구는데 마
벼락이, 하늘이 울고 마 변덕이(벼락이) 치고, 벼락을 칠라고 마 이래싸
이(하니), ‘아, 우리 어머니, 내가 개똥을, 보리쌀로 씻어가 밥 해 드렸더
니 마, 그 내가 죄 많아 이런갑다. 이 사람 다 안 직이고(죽이고) 내 혼
자 떨어저가 죽는다’ 카메, 벼락 맞아가지고 이러더래. 신작로 쫓아 나가
섰으니, 금똥그리가(금덩어리가) 툭 널찌(떨어) 지더란다. 그래가 참 부
자가 돼가지고 잘 살더라네. 옛날에 그런 이야기도 있어.

[남구 설화 12]

시집에서 쫓겨나 중이 된 딸

김태연(여, 1931년생) 구술

2013년 2월 19일 채록

[대연1동 솔밭노인정]

쌀로 주니께로 이걸 쌀 아니고. 시집살이 하다가 머리 깎고 중이 돼
가지고 자기 친정 부잣집 있는 데로 가가지고 동냥 돌려 카니 쌀로,

“아이고, 저 딸 우리 딸 겐다.”

이카이,

“사람, 똑같은 사람 있겠지요.”

카고 덮어 씌고 그래 쌀로 주니,

“이거 말고 좁쌀로 돌려.”

카더란다. 좁쌀로 주니, 젓가락 가지고 좁쌀로 주니 마 자리 밑에 뚫버저
가 주주룩 쏟기니까(쏟아지니까), 젓가락 가지고 하나하나 주워가지고 주
우니 그거 해가 빠지지. 그래 빠지니까 고마 잘 때가 돼서,

“요 헛간에 딱 날 좀 채워 달라.”

카이, 그래 자기 딸 겐다 캐샀고(하고) 그리 카더만은 낸중에(나중) 자고
나서 아침에 보니까는 저거 딸이라. 그래 시집 가 몬 살고 그래가 쫓기
나가지고 그래 만났다 카대.

[남구 설화 13]

장화와 홍련

김옥환(여, 1930년생) 구술

2013년 2월 18일 채록

[대연6동 부연경로당]

장화, 홍련이가 성은 배가가. 성은 배씨데, 자기 아버지 이름은 배제수고, 이름이 큰 거는 장화고 둘째는 홍련이고 그래 장화홍련전이다 소설책에 이래 돼 있거든. 그러믄 내나 성은 배씨고.

장화 홍련이를 놔놓고 일찌감치 엄마가 돌아가셨어. 돌아가시고 이래 크는데, 그러니까네 인자 자기 아버지가 인자 혼자 못살 거 아닌가베? 그래 인자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해가지고 계모가 들어왔는데, 그 계모 밑에서 아들을 하나 낳고 아들이. 근데 이 장화를 지기야(죽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지기야 되느냐? 죽으나 새나 그게 걱정이고 하는 중에 쥐가 한 마리 나타났어. 쥐가 나타나더만은 매일 밥 때만 되면 딱딱 오는 기라.

그래서 밥을 쥐서 자꾸 키웠다고. 키아가꼬 쥐가 상당히 컸어. 커가지고 인자 물건이 될만한 기라 낙태물건이. 그래 하자 인자 스님이 인자 시주하러 왔거든. 왔는데 그래,

“스님, 내가 시주는 많이 드릴 테니까 사람이 뭐로 묵고 잠만 자고 정신을 잃었다가 깨나느냐?”

이래 물었어. 물으니까,

“돌메물 열매로 따다가 묵을 해가 묵으면 고마 요새 같으면 수면제대로 잠을 마 스물 네 시간 정도 잔다.”

이래된 기라. 그래 묵을 딱 해놔 놓고, 장화홍련이 보고,

“이 귀한 기다. 묵어라.”

고 장화한테 주고, 그 귀한 거라고 묵으라니까네 묵을 거 아닌가베? 주고는 쥐로 딱 잡아가지고 뺏겼는 기라. 뺏기가지고 인자 딱 요래 장만해 놔놓고 장화가 인자 잠이 들어서 깊이 자는데, 속곳 안에다가 여놔는(넣어 놓았는) 기라.

그러니 장화가 실컷 자고 일어나니까네 온 옷에 피고 엉망이거든. 엉망이

니께네, 고마 마 이 계모가 마 번개춤을 추는 기라.

“양반 집안에 뭐이 낙태가 뭐이나?”

쿠고 굉장하지도 안 하는 기라. 아까처럼 얘기 들을 때 그때 그 저 옛날에는 그 진사라 카는 벼슬이 있었던 모양이야 진사. 자기 아버지가 배제수가 진사벼슬을 했는 모양이라. 쪼그만한 거. 지금 같으면 군수도 안 될 끼고 지금 뭐라 쿠꼬? 부군수쯤 될랑가 모르것어. 진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 인자 퇴근하고 오는 걸로 이리이래해서 장화가 이리 낙태를 했다. 그거를 비야고(보여주고),

“저거로 양반에 집안에 그냥 두면 안 된다. 저걸 지기야 안 되겠느냐?”
이래 하니께네 제수가 고마,

“저거 외갓집에 다니리 가는 척 하고 가다가 못에 그 마 빠지라고, 죽이는 게 안 낫겠나?”

그래가지고 고마 그 명이 떨어지자, 말로 태아가지고 외갓집에 떡 가는 기라. 가는데 그래 인자 계모에서 난 아들로 보고,

“아무것이야, 내 요게 외갓집이 올매(얼마) 안 되는데, 내 외갓집 갔다 와서 죽으면 안 되겠나?”

이러니께네,

“아버지, 엄마가 그건 안 된다고, 꼭 누님 죽으라고 명을 내렸다.”

그래서 인자 그런 거 같으면 할 수 없이 신을 벗어서 차미를 둘러쥘고 못에 빠졌는데, 빠져가 죽고 나니까 이내 산에서 마 범이 내려와서 팔(팔) 다리 한쪽을 요리 끓어 못 쓰게 된 거지 근께네. 말은 놀래가지고 집으로 뛰 오고 우짤 일인가 싶어서 뛰나가니께네, 이 여자는 대충 관철한 기지? 생사람을 그리 직이다 보니께네 무신고(무엇인지) 싶어서 본께네 지 자식한테 화가 다왔는 기라. 다왔는데, 죽으나 새나 인자 우는 기라 흥련이가. 언니가 같이 있다가 언니가 죽었부고 나니께네 죽으나 새나 울고 저녁으로 되면은 저거 언니가 와서,

“니는 어쨌든 간에 말이지. 모함을 입지 말고 잘 커서 좋은 데 시집 가라. 난 사실 이래이래 억울하게 이리 죽었다.”

하면서 저녁마다 와서 이리한께네,

“나는 언니 못 살겠다. 내가 살면 머하졌노. 언니 따라 갈란다.”

그래가지고 언니 따라 죽었는 기라. 죽었는데 그 이 처녀 둘이가 모함을

벗어야 되었는데 어테가 얘기할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네 고을 원이 제일 큰 어른이니께네 그 어른한테 찾아갈 밖에. 그래 인자 저녁만 되면, 자정이 넘으면 가는 기라. 가면 마 처녀 둘이가 들어오는 거 보고 기절해가 죽어 빠는 기라 고을 원이. 그래가 몇이 죽고난께네 그 고을에 아무도 고을원으로 갈 사람이 없는데, 뭐한 분이 내가 가겠다고 지원을 했는 기라. 지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움서로(오면서) 경문도 외우고 복숭나무 회초리 한다고 가져왔어. 갖다 놔놓고.

왜 제사를 안 지내느냐? 복숭나무를 안 놓느냐? 복숭이 구신을 쫓는 기라. 구신 쫓기 때문에 그 과일을 안 놓는 기라. 제사지낼 때 그놈 놓으면 귀신이 못 온다 아이가? 복숭을 놓으면. 옛날에 그 독한 사람들은 산소다가 복숭나무를 심어 그 집에 망하라고. 복숭나무로 산소다가 심으면 안 되는데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 하거든 옛날에.

그래 인자 고을원이 부임해가 떡 와가 있으니까, 함부레(‘미리’의 뜻으로 말함) 처녀 온다는 걸 알고, 처녀가 둘이 밤중에 숙 들어서는데 말이야. 대단하던 모양이지 이 어른이.

“너거 어떤 소문이 있어서 왔느냐?”

복숭나무 회초리로 방바닥을 때리면서로 딱 고함을, 호령을 지르니까네 모함을 입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기라.

“그래 그러면 내가 조사를 해가지고 너의 소원을 풀어줄꾸마 원수를. 그래 돌아가라.”

하니께네. 그래 절을 너부시하고 돌아가는 기라. 갔는데 그래 인자 한날은 불렀어. 부르니까네,

“낙태를 해서 그래 사실 양반에 집에 그런 우사가 없어서 그래 직있다. 그리고 장화는 그래 직였지만, 흥련이는 지 언니따라 자발로 가서 죽었다.”

얘기를 하거든. 그러믄,

“그 증거가 있냐?”

이라니까네 그 쥐 거 뺏긴 거, 낙태한 거를 바싹 말라서 딱 준비를 해놔어. 이 여자도 보통 켜 기라.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뵈우니까 영관 낙태한 거거든. 그러니까네 돌려보냈어. 돌려보내니까네 그날 와서는 대성통곡을 우는 기라 처녀 둘이가.

“인자 음해로 못 벗겼다. 이걸 우째야 되노?”
쿠면서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니께네 고을원이 있다가,
“울지 말고 좋은 단서가 없나 얘기를 해봐라.”
얘기하니께네,
“원님, 그 칼로가 배로 한번 따보이소.”
이러 쿠거든.
“아 그래 알았다.”
그래 돌려보내고 나서 그 안날 또 불렀어. 불러가 그거를 가져 왔는 거로
“칼로 배를 따개 봐라.”
고을원이 이러니께네 이 여자가 죽은 썸 아니겠나? 그래 따니께네 쥐
똥이 팍 쏟아진 기라 쥐똥이. 계모지만은 그리 독하게 해야 되것냐? 그
래가지고 그 여자는 거서 사형을 받고, 아바이는 몰라서 그러니께네 아
바이는 살려주고 그래가 끝이라.

[남구 설화 14]

자식 죽인 후처를 징계한 사명대사

김옥환(여, 1939년생) 구술
2013년 2월 18일 채록
[대연6동 부연경로당]

사명당이 임진사거든, 사명당 아요? 사명당이 임진산데, 그분이 원래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전처 아들을 낳아가지고 있고 본마누라는
돌아가시고 그래 전처 아들이 장가로 가기로 떡 됐는데, 그래 장가를 보
냈는데, 며느리되는 성씨가 청주 한씨라. 한나라 한(韓)자, 청주 한씨네.
그래가지고 장개로 보내니까 첫날 저녁에 목이 떡 집에 왔는 기라.
목이 왔으께 기도 차지 않을 거 아니요? 그러니께네 계모가 막 이기 똥
이냐 하고 춤을 추고 야단을 지기는데, 사명당이 가만히 보니께네 기도 안
차는 기라. 아들을 보니께. 그래서 아들로 두를(頭를, 머리를) 갖다가 큰
장독에다가 소금을 엷어가지고 여났어. 그러믄 그 여자가 우애 되겠어?

첫날저녁에 남편이 그리 됐으니까네.

그러면 남편 따라 사명당 집으로 왔단 말이야. 집으로 왔는데 계모가 구박이 오죽하겠어? 남편을 죽였는데, 굉장히 막 구박을 해도 억지로 참고 견뎠는 기라. 견뎠는데. 그래 하루 저녁에 자기 남편의 두(頭)가 꿈에 나타난 기라. 처음에는 색시가 몰랐는데, 나타나서 꿈에 눈을 떠 보니 깨네, 옷에 피가 묻어있는 기라 그 색시옷에. 그래서 그 피 제죽을(자극을) 툭 가니까 큰 독안에 자기 남편 두가 있단 말이야 두가.

그러니 인제 여자가 마 보통 세던 모양이지. 그러니 사명당이 술로써 세월을 보내고, 그 전처에서 아들이 둘이나 있었는데, 사명당 아들이. 그 래 인자 여자가 장사(방물장사)라 카는 기 뭐냐 하면 옛날에 바늘하고 실하고 가지고 정처 없이 땡김스로(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항울 장사라 나섰는 기라. 이 며느리가 남편 원수 갚을라고.

그래 인자 주인을 정해 놔놓고 인자 거서 장사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 깨네 수상하는 기라. 옛날에 종놈 짓을 부잣집이 한 그런 행태 고지게란 게 있거든. 그래서 인자 이상해서 거서 인자 이 아버지 이 엄마로 삼고 남자는 집에 있고 여자는 만날 나뎡기는 기라.

그래 종놈이 그 끼가 있으니까네 만날 돌아뎡기겠지. 돌아뎡기는데, 그 래 하루는 아주 친절하게 하면서로 아버지 엄마하고 지내는데, 술로 하루는 제일 독하게 담아가지고 이 영감을 먹었던 말이야. 먹었는데 가만히 들으니까네 잠꼬대를 하는데.

“아이고 마님. 나는 논 스무 석도 싫고 돈 얼마도 싫고 나는 그것 못 하겠다.”

고 이라는 기라. 그러니까네 못하겠다고 하니깨네 그 힌트를 챜기라. 그 래서 계속 주문을 해가 여자는 어데 뎡기느냐? 뒤로 살피는 기라. 살피 니깨네 큰 부잣집 잔치 하는데, 그런데 가서 일 봐주고 얻어오고 딱 이 라는 기라. 이라는데,

“웁지 인자 알았구나.”

그래가지고 며칠로 공간을 두다가 하루 저녁에 또 영감을 술로 대게 독하게 먹여가지고 한숨 실컷 자고 일어나는데, 칼로 가지고 목에 들이 댄 기라.

“네 이놈 바른말 해라. 그 니 아무데 어데 그 진사 집에 몸종으로 있으께”

“있었다.”

고. 그 마님이 시켜서 첫날밤에 남편은, 처음부터 이야기를 다했는 기라. 그래서 시아바이한테 전부 이야기를 다한 기라. 내려와 가지고 얘기를 다한께네 시아바이가 있다가 뭐라 카노 하면,

“니 저년을 갖다가 씹어 먹든지 뜯어 먹든지 니 맘대로 하라”

쿠면서, 대추나무에다 당그러 매가지고 며느리한테 인계로 하고 아들 둘이로,

“너거가 무슨 죄가 있느냐? 천지 몸썰 년 속에 나기 때문에 너거도 이 세상에 살았어는 안 된다.”

하면서 그 진사 부잣집에 한 지동에다가 아들 둘이를 이래 밧줄로 묶아 놔놓고 집에 불을 지른 기라. 불로 지리고 그 길로 절로 떠나서 사명당이 된 기라. 서산대사 밑에 가가지고. 그래서 일본 향소 받으러도 가고 말이요.

사명당이 그래 일본 가서 그 향소 받으러 떡 간께네, 왜놈들이 말이야 저거로 직이야 되겠는데, 어찌 직이노 싶어서 말이야, 그래 마 돼지집에다 너나놓고(넣어 놓고) 전기로 여어가지고(넣어서) 무쇠 가마같은 데다가 마 달았는데, 달았는데 아침에 죽었지 싶어서 가본께 쉬엄에(수염에) 고드름이 얼어 있거든. 그래서 이래가는 안 되니께네, 그래 창을 맨들어가 가지고 이거로 갖다가 무슨 밑에다 불로 넣으니까 원체 어딴노? 한날에 비가 어떻게 쏟아지든지 갖다가 일본이 떠내려 갈 판이거든.

그래서 사명당이 일본서 향서를 받는데, 한 달에 불알 서 말 썩을 썰어 바치라고 향서를 받을라 쿤께네. 임진왜란 전이든가 그 책이 그런데. 일본서 우찌 사람 불알을 갖다가 한 달에 서 말썩은 너무 무리하고 다른 거로 해달라 한께네, 일 년에 귀로 비가지고 삼백 장썩 바쳐라 해가지고 일 년에.

그래 부사 어디에 창고에 왜놈들이 들어 왔을 때 창고에 뼈 가죽이 있었다 해. 그래서 인자 서산대사 밑에 가서 그리 공부를 해가지고 사명당이 원래 그래 떠난 사람이다. 지금 밀양 어데 가면 비석이 있지요? 사명당이 임씨 출신이라.

[남구 설화 15]

동시에 효자와 충신이 되는 법을 묻는 과거시험

김옥환(여, 1930년생) 구술

2013년 2월 18일 채록

[대연6동 부연경로당]

옛날에 과거 시험을 보는데, 임금하고 저거 아버지하고 같이 물에 빠졌는데, 단 한 사람뿐이 못 구하는 기라. 한 사람은 죽어야 돼. 근데 거서 효자충신이 될라 카면은 누구를 건져야 되느냐? 그게 과거시험에 나온 기라.

눌로(누구를) 건지야 효자충신이 되겠느냐? 눌로 건지야 되겠노? 충신도 되고 효자도 되어야 되는데, 둘이 다 건지면 되는데 한 사람밖에 못 건지는 기라. 한 사람을 결국 죽는 기라. 그기 과거 시험에 나왔는데, 임금을 건지고 살리고, 자기는 아버지 따라 죽는 기야. 그러믄 임금을 건지니 충신 됐지. 아버지하고 같이 죽으니께네 효자가 된 거 아니야? 그기 과거 시험에 나온 기라.

아버지 구하고 임금 죽으면 그러면 역적 아니가? 효자는 되지만은. 임금을 구해서 충신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같이 죽으면 거 효자 아니가? 그기 시험이 옛날에 과거에 나왔다 카대.

[남구 설화 16]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17)

여순이(여, 1936년생) 구술

2013년 2월 21일 채록

[문현2동 문범경로당]

그래 그 지계에다가 쏘어지고 가는데, 그 손자가 따라 갔는 기라. 아가(아이가) 따라 가면서 가서 할배를 내려서 그 놓고 올라 한께,

“지계를 가져 가자.”
한께, 아버지가,
“내빼리고(내버리고) 가자.”
한께,
“어허, 다음에 나도 아버지 지고 가야지. 내빼리면 되냐고.”
그래가지고 가져 오더라 하잖아. 그래 참 법도 그 법이 잘 고쳐졌지,
그기 뭐.

[남구 설화 17]

원혼이 된 아랑

박정희(여, 1935년생) 구술
2013년 2월 23일 채록
[문현3동 박정희 집]

옛날에 저 부사가 오면 첫날밤에 마 부사가 놀래가 죽어뿌는 기라. 하
도 죽어싸서러 그래서 간담 신(센) 사람을 갖다가 와서러 마 무식해도
좋으니께네 있어보라 했던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인자 그 고을원 아니가?
그 원님이 왔는데, 이 사람이 참 간 큰 사람이 와가지고 버티고 앞뒤로
쫓βολ로 키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네, 난데없는 처녀가 나타나더라. 그래
뭐 다 놀라 자빠질 거 아닌가베? 근데 이 사람은,

“귀신이면 물러가고, 사람이면 여기 앉거라.”
이카니까네 그래,
“나는 한이 맺혀서 왔으니까네, 그래 좀 내 원을 들어 돌려.”
랬는 기라 처녀가.

그래 이야기를 하라 카니까네. 아주 옛날에 어느 부사가 왔는데 처녀가
아랑이라 카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 선비들이 그 아가씨를 보고 탐을
냈는 기라.

탐을 냈는데, 근데 인제 영남루에서 동고개 넘어가는 고갯길 있거든,
거기서 유모를 시키가지고 이거로 바람 씨러(쇠러) 달구경하러 가자 카
면서 유모가 델고 나오는데, 고 남쪽을 보니까네 달이 환하게 비치거든.

바로 밑에 남천강이고 그러니께네 그래 글로(그곳으로) 데리고 왔는데, 인자 유모는 살 피해주고 이 선비가 이 여자를 갖다가 아랑을 좋아하니께네 이게 뿌리쫓는 기라. 그래놓으니께네 뿌리치고 지 말을 안 받아 주니께네, 칼로 가지고 쭈셔가 죽이뿔고 대밭에다 집어 던지뿔는 기라. 근대 아무도 모르지.

아버지는, 부사는 딸을 못 찾아가 마 남부끄러워서러 퇴직해뿔고. 궁께 인자 영혼이 하도 원이 맺혀서 인자 부사만 오면 원 들어 돌아꼬 나오면 죽어뿔고, 나오면 죽어뿔고 하니께네, 그렇다고 우짜다가 그 부사로 만나 가지고 그래가,

“니 시체가 어디 있노?”

물으니께네,

“대밭에 있다.”

쫓는 기라 그래 배밭에 가보니께네 대 십 년이 흘렀는데도 안 썩었더라. 원한이 맺혀가지고. 그래 그 시체를 대밭 우에다 그 묻어가지고 아랑각을 세워놔거든. 그래 그 처녀가 한다는 말이,

“내 원만 들어주만.”

“우찌 해야 원을 들어주겠노?”

하니께네,

“내일, 오늘 부사가 왔으니께네 내일은 인자 하룻밤 자고나면 전부 다 선비들이 모일 것 아닌가베. 그러믄 영남루 대마루청에서 보만 사람이 탁 보이거들랑 내가 흰나비가 돼가지고 그 사람 갓 우에다가 불을 꺼니께네 그 사람을 잡아가 처리를 해라.”

이쫓는 기라 처녀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항복을 받으니까네, 그 사람이 이제 시체 있는 데까지 실토해봐 놓으니까네, 그래 그 사람 아가씨 원을 풀어줬지. 그 남자는 영창 보내버리고, 그러니께네 아랑각이 생긴 거라.

그래 그 밀양에서러 언제든지 봄에 음력 오월인가 사월인가 아랑제를 지내거든. 아랑제를 지내되, 거는 처녀가 지내지 남자는 못 간다. 그게 와 그렇노 하면 옛날에 왜놈들이 우리나라 쳐들어 와가 살 때, 그 아랑각에다가 제사를 지내고 나면 밀양군이 편안하고 지내야 한다 카니께네, 왜놈이, “그러믄 너거는 하지 마라.”

왜놈군수가, “내가 지낼꾸마” 카는 기라. 남자가 제사를 지내러 갔는 기라. 제사를 지내러 갔다가 축을 만내가 배가 아파가 떼굴떼굴 굴러가 남천강에 떨어졌는 기라. 그만큼 처녀가 정조를 지키는 처녀라. 그래가 왜놈이 십겁을 해가지고 그래가 절대 남자는 안 했구마.

[남구 설화 18]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17)

박정희(여, 1935년생) 구술

2013년 2월 23일 채록

[문현3동 박정희 집]

시어무이가 장님이라. 장님이 왜나 놓으니까네, 아들은 인자 과거를 보고 딴 데로 가고. 며느리가 모시고 사는 것도 어렵고 이러니까네, 시어마이 공경은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네, 고기라도 사다 고아 줄라 카니 고아줄 건 없고, 지렁이를 캐다가 씻어가지고, 지렁이 캐가지고 씻거가지고 소금을 흩어 놓으면 춤(침) 같은 게 질질 나오거든. 그래 씻어가 폭 고아가지고, 지렁이 고아놓으면 국물이 뽕얕다.

그래가 그걸 갖다가 시어머니를 한 그릇 썩 갖다 주는 기라. 그러니 먹다가 먹다보면 지렁이가 어찌 한두 마리 들어간다 아이가. 그 기름에다 두글두글 튀어가지고 그래 물을 넣어가 폭 고아놓으면 뽕얕거든. 그리 갖다 주니까네, 구수해나 놓으니까네, 맛있다고 묵고 건더기는 옛날에 자리, 살자리, 갈대가 한(만든) 자리 밑에다 내놓는 기라. 아들 오면 보여줄라꼬. 모다 봤다 보니까네.

그래가 아들이 저 몇 달로 인자 딴 데 가서 살다가 떡 오니까네, 엄마가 허여이 살이 찌가지고 똥똥해가 있거든.

“하이고, 엄마가 내가 돈도 제대로 못 버는데 엄마가 우찌 이렇게만 들어놔서 고맙다.”

캬는 기라. 우리 엄마 공경 잘해 줬다고 고맙다 캬는 기라.

“엄마 뭐로 이래 잘 자셨는꼬?”

카이,

“며느리가 곶을 자꾸 해주는데 어찌나 꾸시고(구수하고) 맛 있던지 니 오른 비(보여) 줄라고 이 건더기 놔났다.”

하믄서 가더니 자리를 들썌니(드니) 지렁인 기라. 그러니 즈그 아들이,

“아이구메야(아이고) 이기 뭐꼬?”

해 놓으니, 즈그 엄마 놀래가지고 눈이 떨어져뼘다 안 카더나.

[남구 설화 19]

고부 갈등을 해결한 아들

박정식(여, 1935년생) 구술

2013년 2월 23일 채록

[문현3동 박정식 집]

어떤 사람은 시어마이가 계란을 참 좋아 했는 기라. 계란찜도 좋아하고 계란구이도 좋아하고 이라는데, 시어마이가 미워서 못살겠는 기라. 그래가 시어머이를 갖다가 ‘우째 가지고 시어마이를 없애뿌꼬?’ 카고 며느리가 자꾸 인자 연구를 하니께네, 아들이 볼라 카이 기가 찬다 아이가? 그래서러,

“우리 엄마가 노망끼가 있어서러 마 니를 자꾸 귀찮게 하니께네, 우리 엄마, 그 올키 못 먹여 났으니 엄마가 비쩍 말랐을 거 아니가? 그러니 우리 엄마 살로 좀 찌워가지고 장에 가져다 팔자.”

팔자 하니,

“장에가 누가 사나?”

이카니,

“그 살을 찌야가지고 몸뚱이 실패지면 엄마도 일을 잘 한다. 그러니께 네 우리 엄마를 살로 찌야가 장에 갖다 팔면 우리끼리 살면 안 편하겠나? 그래 하자”

하믄서러,

“뭐까 살을 찌우노?”

“우리 엄마가 계란을 좋아하니까네 계란을 자꾸 먹이자.”

아들이 인자 마누라 보고 그래 꼬시는 기라. 그러니까네 며느리 가만 생각하이, 팔면 돈도 되고 싶어서러 계란을 때마다 해주는 기라. 그러니까네 시어머니가 밥을 잘 묵거든. 계란에 지 좋아하는 걸 주니까네. 그래 가지고 먹다보니 살도 찌고 몸도 건강해지고 하니까네, 눈으로 보고 있을 수 없다 아이가? 인자 빨래도 씻까주고 걸레도 빨아주고 마루도 청소도 해주고 손자도 업어주고 이라니까네, 며느리 지가 수월거든.

그래가 인자 큰 일 년을 그라고 나니, 즈그 엄마가 살이 찌가지고 건강해서 일도 잘하고 이라니까네, 아들이 그때 가서 됐다 싶어가지고,

“오늘 장에 가서 우리 엄마 갖다 팔자.”

이라카니까네, 며느리가,

“아이고 안 된다. 어무이 없으면 아도 봐야 되고 살림도 살아야 되고, 나는 뭐 들판에 일 해야 되고, 안 된다.”

카며, 시어머니를 안 팔라 하더라. 그래서 효부가 됐대.

[남구 설화 20]

홀어머니를 잘 모시도록 피를 낸 아버지

박정식(여, 1935년생) 구술

2013년 2월 23일 채록

[문현3동 박정식 집]

아들이 서인데, 용호동에 그런 사람 있었다. 서로 부모를 안 모실라 한 다 아닌가베? 그 영감 할마이 둘이서 살다가 영감이 죽을 때가 되나 놓 으니까네, ‘내가 죽으면 그래도 잘나께나(잘 낳거나) 못나께나 아버지한테는 그래도 효도를 하러 오고, 와보러 오고, 해다주고 이라니까네, 내가 죽으면 할머니 고생하겠다’ 싶어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그 차돌 반들반들 한 그거를 주어다가 딱 싸가지고 맨날 이불 속에 묻어놓는 기라.

그래가지고 한 번 내다보고 들다보고 또 접어가 넣어놓고 접어 넣어놓고 그래,

“이거를 자꾸 아들 며느리 절대로 못 보그로 감춰 놔라. 거 니 혼자만 보고 그래 말없이 있으라.”

고 영감이 당부를 했는 기라. 그게 무슨 금덩거린 줄 알았는 기라 자식 들은. 그 놈을 보다가도 소리 나면 얼른 덮어가지고 이불 밑에다 감춰버 리고 농 밑에 갖다 감추고 이러니께네, ‘틀림없이 우리 엄마가 금덩거린 가 뭐 있다’ 싶어서 서로 모실라 카더라. 금덩어리 차지하려고 서로 잘해 줄라고 애를 쓰다가 죽고 나서 가보니께네, 돌맹이더라 안 카던가베. 그 거는 영감이 머리를 잘 써서 그런 기라.

[남구 설화 21]

지렁이가 환생한 아들

박정쇠(여, 1935년생) 구술

2013년 2월 23일 채록

[문현3동 박정쇠 집]

옛날에 어떤 사람이 밭을 매다가 지렁이를 갖다가 쪼사뼀는 기라. 그래 마 지렁이를 쪼스면 대가리는 대가리대로 꼬리는 꼬리대로 구부러서 지 혼자 기 가거든. 지렁이는 앞뒤가 없거든. 지렁이는 앞뒤가 없어. 거머리 도 그렇고. 거머리도 잘라 버리면 지거꺼정 떨어져 살거든. 근데 조디 다 가 머물면, 딱 훔아버리면 딱 디비지(뒤집어)뽀면 죽는데, 동가리(조각) 낸 거는 세 동가리 내도 살아. 근데 지렁이를 딱 쪼사뼀는 기라. 쪼사뽀 나니께네,

“아이구, 미안하다.”

물이 질 나니께네 막 구불뜨리쫘거든(구불고하거든).

“아이구 미안하다 내가 못보고 니를 갖다가 이래 쪼사서 니가 이래 물 을 흘려가 우짜겠노?”

하면서 흙에다 묻어 뒀는 기라. 묻어 뒀는데, 이 사람이 항상 그거를 마음속에 뒀던 기라. 이 지렁이가 죽어서러 자식으로 태어났는 기라. 그러 이 ‘하이고 내가 니 피를 흘리도록 맨들어서 내가 미안하다 맨날 미안하

다’ 이런 마음을 가져 놓으니까네 자식으로 태어났는 기라.

그래 자식이 되나놓으니까네 실컷 젓 빨아먹고 컸는데도 어른이 돼도 젓을 빨아 먹는 기라. 엄마한테 달라들어 빨아 묵고, 빨아 묵고 엄마가 마 늙으서러 힘이 없는 데도 내놔라 하면 내면, 빨아 먹고 이라니까네, 그래서러 이 할매가 기가 차 죽겠다 아닌가베? 장승같은 다 큰 아들이 마 젓을 자꾸 빨라 하니까네.

그런데 한 날은 스님이 인자 시주를 하러 왔는데,

“스님, 시주 주는 건 문제가 아닌데 내가 지금 저 이 자석이 붙어가 떨어지지 않으니까네 우짜겠노?”

하면서,

“우짜겠냐?”

고 근근히 달래가 자석을 떼놓고 동냥을 시주를 하고,

“우째서 이러는지 모르겠다.”

하니까네 스님이 카더래. 가만히 보더만은 관상을 보더만은,

“당신이 너무 그걸 갖다 원을 삼고 내가 너무 미안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게 원수로 태어나서 그러니까네, 원수로 태어나서 그러니까네 어쩔 수가 없다.”

커면서러, 그래서,

“그 한을 풀어주라.”

카면서러,

“그 한을 풀라면 우째 푸노?”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가서 천도를 해라.”

카는 기라. 그 영혼을 인자 잊어뿌고 가라고. 그래 천도를 하라 해서 천도를 하고 나니 그래 자석이 물리서는데, 물리서는데, 인자 안 달라 들고 자석이 힘이 빠지뿌니까네, 그게 지네가 되더래. 지네가 돼서 기 나가더래. 천도를 자꾸 하니까네.

사람들이 이 원한 쌓이고 원을 사면 그게 죽을 때도 죽는 부모가 마음을 열고 ‘그래 인자 너희 잘 살아라 난 갈 끼다’ 이래 생각하고 가면 괜찮은데, 부모가 자식한테 한대 받거나 그래가지고 요노무(요놈의) 새끼들 보자 이카면, 그 집구석 망해. 저거 엄마 죽고는 틀림없이 망해.

[남구 설화 22]

죽어 자식으로 환생한 전우

박정희(여, 1935년생) 구술

2013년 2월 23일 채록

[문현3동 박정희 집]

6.25 사변 나고 군에 가가지고 인자 전우하고 같이 막- 전투를 하다가 전우가 죽어뻘는 기라. 저 옆에서 총 쏘던 전우가 죽어뿌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노? 그 시체를 끌어안고 마 울면서는 그래 그걸 갖다가 즈그 부모한테 시체를 돌려주고 그래 했는데, 이 사람이 인자 오래 있다 보니 께네, 장교도 되고 뭐 이래가지고 장개를 가서 자석을 낳았는데, 아들로 형제를 낳았는데 하나는 그 사람이 태어났는 기라 말이야.

그 사람 영혼이 너무 마음 아프게 사니께네, 그 죽은 사람 안타깝게 여기면 내한테 벌이 돌아오는 기라. 그래가지고 그 모른다 아이가? 근데 이 자석이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는 기라. 잘 해서 인물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대학까지 들어가가지고 졸업할 때가 되서러 교통사고가 나서 죽어뻘는 기라. 그래 아버지가 너무 원통해서러 절에서 그걸 천도를 하면서 막 울어싸면서 답답해서 그래싸니께네, 순전히 아버지 눈에 보이더라. 그 군인이, 전우가.

“니가 내한테 와 애착을 그래 갖노?”

인자 물러서라 카더라. 그카며 나가더라, 천도를 하니께네. 사람이 누구한테 애착을 가지면 영혼도 못 가는 기라. 그래서 좋은 데를 못 가는 기라.

[남구 설화 23]

나무꾼과 수렁각시

박정식(여, 1935년생) 구술

2013년 2월 23일 채록

[문현3동 박정식 집]

옛날에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가서러 산에 가서 나무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게 뭐꼬? 도시락이 아니라, 푼방하게 만들어가지고 베로 이래 만들어가지고 드는 게 있었거든. 거다 도시락을 담으면 밥이 뜨시. 그래가 묵고 나무해가지고 인자 고랑(개울)가에 가서 물 마시고 또 집에 오고 이러는데, 고랑 가에 고동이 이래 큰 게 있었는 기라. 고랑 가에 인자 물이 있으니까네, 고동이 민물 고동이 있으니까네, 거 또 함 쳐다보고 그래가 또,
“아이구, 니 인자 마이(뎡이) 켜네.”

하고, 또 오고, 또 오고 이란다. 그러다가 한번은 인자,

“그 우리 집에 가서 물도우에(물둥이에) 가서 살자 내캉 살자.”

카면서는 그 우렁이를 잡아 왔는 기라. 잡아가 옛날에는 물 살라가 이런 더무가 있었거든. 도우에다가 물 길어다 갖다 부어놓고 퍼 쓰고 이랬는데, 물더무에 담아나 놓고 인자 아침에 자고 나면,

“우렁아, 잘 잤나?”

하고 인사하고, 나무하러 가고, 그래 인자 즈그 엄마는 죽어뿌고 ,그래가지고 인사를 하고 또 가고.

“우렁아, 잘 있었나?”

카고 이래 오고 이랬는데, 그 한 날은 마 나무를 해가 오니까네, 밥을 딱 해가 채려가 났더라. ‘이상하다 우리 엄마도 죽고 없는데 누가 해놨노?’ 그래가 또 채려 논 거 먹고 아침에 자고 나면 또 밥을 딱 채려놓고. 이상하다 카고 자꾸 그래가 난중에는 ‘이게 아무래도 누군지 알 수가 없다.’ 싫어서러 지붕에 올라가지고, 몰래 지붕에 올라가지고 가만히 내다 보고 있으니까네, 우렁이가 나와가 화해가 사람이 돼가지고 밥을 해놓고 또 더무에 드간다 하대. 그래가 붙잡으니까네, 얼른 내려와서 붙잡으니까네,

“내캉 살자.”

하니까네, 아직 때가 멀었으니까네 안죽 얼마를 기다리라 한다 하대. 그래 그 얼마만큼을 기다리고 나니 사람으로 화하더라 하대, 옛날에 이야기 하더라고.

[남구 설화 24]

강피 훑는 팔자의 여인(17)

박정식(여, 1935년생) 구술

2013년 2월 23일 채록

[문현3동 박정식 집]

남자가 선빈데, 날이 새나 공부만 한다고 들어앉아 있어서는 이 여자가 녀의 방아도 찼어주고, 그래가 덩개도(딩겨) 얻어오고, 시래기도 얻어와가지고 그래가 신랑을 끓이 주고, 그 공부하는 뒷담음을(뒤바라지) 했는데. 과거를 몇 번을 해도 낙방을 했는 기라. 낙방을 해서 그라믄 여자가 포기를 했는 기라. ‘이렇게 이래 공을 들이고 해도 안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살아가지고 내 복이 없어가 그런가 본데, 내가 없으면 저 사람이 출세를 할란가? 하고 그래가 마 돌아섰는 기라.

돌아서가지고 혼자 살다가 보니까네, 옛날에는 집도 없고 뭐 할 게 없으니께네 천상 신랑을 얻어가야 되는 기라. 그래야 죽이라도 얻어 목을 깔께네. 지금은 맛벌이 하니 지 맘대로 살지만은. 그래가지고 살려가니 것도(그곳도) 역시나 못 사는 기라. 못사니까네 옛날에 저 벌판에 가만 여게서는 피, 그 피를 훑아다가 그거를 인자 찌가지고 피살이 좁쌀보다 더 약하다. 그걸 가지고 죽도 끓이 묵고 마 이래가 살았는데, 그래 내나 못살아가지고 그 피를 훑아았는데, 원래 신랑이 참 과거를 해가 출세를 했는 기라. 장원급제를 해가 말을 타고 이리 오니까네. 그전 마누라는 인자 쟁피 그걸로 훑아냈는 기라. 그러니까네 신랑이,

“저 피밭에 서서 쟁피 훑는 저 아낙네야, 우짜면 지지리도 복이 없어서 다시 그거를 해도 또 그 팔자 그 모양이고?”

그래 그 신랑이 그래 노래를 부른다 안카든가베? 불쌍한 이 여자야 카면서, 그래서 그렇게 복이 없는 여자는 어데 가도 또 그런 기라.

[남구 설화 25]

팔자대로 살아야 하는 운명

박정식(여, 1935년생) 구술

2013년 2월 23일 채록

[문현3동 박정식 집]

어떤 사람이 옛날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시래기죽을 못 면하는 기라. 자식은 올망졸망 있는데. 그래가 마 아무리 남자로 새끼들 맥이(먹여) 살릴라고 남의 집에 머슴살이 하고, 여자는 녀의 방아 찧어주고 품팔이 하고 그래가 해도 아무리 해도 만날 그 조시(정도)인 기라. 그러니께네 남자가 ‘내가 얼마나 죄가 많길래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되노? 차라리 내가 마 죽고 없으면 내가 복 없는 사람이니께네, 내가 죽고 없으면 자식들은 좀 필랑가’ 카고, 저 지게 꼬랭이를 가지고 저 뒷동산에 올라가서는 나뭇가지에다 톱 걸어가지고 목을 톱 맬라 하니께네, 목을 톱 걸치니께네 어데서 난데없이,

“우거지 석 동은 남았는데, 그거는 어쩔라노?”

하더래. 그래 무슨 소린가 싶어서 돌아보니 사람도 없는데, 또 이래 목을 거니께네 또,

“우거지, 시래기 석 동 남은 거 어쩔래?”

이카더래. 그래 그 소리 듣고 두 번째(두 번째) 듣고 나니 어떻게나 싶더래. ‘아 시래기 석동만 먹고 나면 끝이 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목을 풀고 다부(도로) 와가, 그 질로 옛날에 짚동 이래 이래 묶아논 짚동 있거던. 시래기도 이래 묶어난 거 많이 해가 석 다발을 묶아 왔다 아이가. ‘그 석 다발만 먹으면 끝났는데’ 싶어서 그 뒤로 삼년으로 시래기죽을 먹고 나니께네, 마 형편이 피더래. 그기 사람이 한도가 차야 되는 기라. 참을 것도 참아야 되고 기다릴 것도 기다리야 되는 기라. 내가 억지로 한다고 되는 건 절대 안돼.

[남구 설화 26]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2)

박정희(여, 1935년생) 구술

2013년 2월 23일 채록

[문현3동 박정희 집]

옛날에는 칠십 목으면 고려장 했다. 옛날에는 칠십이 넘어서러 아버지를 지고 아들이 산에 가서 땅을 파가지고, 그래가 아버지 인자 다문 한 달도 목을 식량하고 준비해가지고 굴을 파가 덮어가지고, 여기 공기 구멍을 딱 내놓고. 그래가 아버지를 묻고 나서러 지계를 짊어 던지뿌고(던져버리고) 돌아서니께네, 손자가 지계를 얼른 주워가 쉼을 지더래. 그래서,

“야 이눔아, 지계 그거 내빼리고(내버리고) 가자.”

하니 아버지가.

“아버지가 이거 할아버지 지고 와서 지고 왔는 지겐데, 아버지 늙으면 내가 지고 와야지.”

하더래. 그 소리 듣고 어떻게나 싫어가지고, 파가지고 아버지 바로 텔고 갔다 안 카든가베. 그래가지고 고려장이 없어졌다 카더래.

[남구 설화 27]

중국 사신이 낸 문제를 푼 노모

박정희(여, 1935년생) 구술

2013년 2월 23일 채록

[문현3동 박정희 집]

옛날에 그 카대. 중국에서 무슨 그기 지금 걸으면 사신이 와가지고 구름다리를 타고 뭐로 건니라 한다고. 옛날에 들은 소린데. 그래가지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연구를 해도 ‘구름다리를 우째 건니노?’ 카는 기라 구름다리를. 그러이께네 그 고려장 하러 간 할매가 그칸다 안카

는가베.

“그기 뭐가 어렵노? 뭐가 어렵노?”

하이,

“우짜면, 그러면 되는교?”

하이 아들이 선비가 돼놓으이께네, 나라에서 그거로 풀어가지고 올리라 하이께네, 걱정될 거다 아니가 그러이께네,

“걱정하지 마라. 지금 가을 아니가? 목화 천진데, 목화 가지고 사방을 가라(가리고) 가는 길만 태아 놓고 하늘만 안 보이면 구름다리 아니가.” 하는가베. 그래서 그 사람이 임금한테 모가지 안 찢리고 살았다.

[남구 설화 28]

피 많은 박문수

박정희(여, 1935년생) 구술

2013년 2월 23일 채록

[문현3동 박정희 집]

이 집하고 저 집하고 담이 붙었다 아닌가베? 담이 한 담인데, 우리 집에도 감나무를 심어놔는 기라. 감이 주렁주렁 열어가 저쪽 집에 가지가, 한 가지가 넘어가지고 감이 주렁주렁 달리가 있거든. 그니까 박문수 집은 못 살고 저 집은 잘살고 하니께네, 그 감을 갖다가 그 집에서 따 묵는 기라. 그러니 박문수가 어린 기,

“그래 아저씨.”

할 말이 없으니까네,

“그래 아저씨, 양쪽 팔을 함 피 보소.”

이카니,

“어린놈이 뭐할라고?”

“우리 담에다 걸치 보소.”

이켰는 기라. 우리 담에다 걸치 보라 켜는 기라. 그래 걸치니께네,

“이놈이 뭐할라꼬 이라노?”

하면서는 ‘함 걸치 보소’ 하니 요 담에다 툇 걸치니 이쪽은 넘어갔다 아
닌가베. 그래가 쫓아가가지고 손가락을 마 뿌지르고 하고 이러니께네 아
프다고 내 죽는다 하거든.

“야 이놈아, 어른을 갖다가 이러는 놈이 어딴노?”

하니께네, 그래,

“우리 감나무 가지가 아저씨 집에 넘어 갔는데, 우리 나문데 와 아저
씨가 와 따 묵노?”

이러니께네,

“그럼 우리 담 넘었으니 팔 이것도 내 거 아니냐고. 우리 거 아니냐?”
고 따지니께네, 할 말 없다 한다.

[남구 설화 29]

왜군에게 죽은 아기장수

박정식(여, 1935년생) 구술

2013년 2월 23일 채록

[문현3동 박정식 집]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한 여남은 살 먹었을 때, 왜놈들이 들어왔대. 들
어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밀양에 저 읍에서러 한 십리 떨어진 고 임천
이라는 동네가 있거든. 철도 밑에 있는데, 그 동네에서러 장수로 낳았는
기라.

장수로 낳았는데, 아가, 아를 낳아 삼 일 되니께네, 이 어깨에 뿔이 나기
시작하더라. 뿔이 나기 시작하니께네, 이 무식한 부모들이 아무 소리도
안 했어야 되는데, 그 아가 나고 나니께네, 그 임천 앞에 그 늪이 있었거
든. 늪가에 저 천마가 와서 막- 돌며 울더라. 한 삼일로 막- 날개 달린
말이 하얀 말이 와가서 막- 늪가에 막- 돌면서는 울어쌌더라.

“저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고?”

그래싸니께네, 부모가 아무 소리도 안 했으면 될 낀데,

“아이고, 우리 집에 아를 나 놓으니께네, 지금 날개가 돌치는데 우리

아 태우러 왔는 갑다.”

이케나놓으니께네(이렇게 하니까) 그게 소문이 나뻤는 기라. 그래가 왜
놈들이 그 소릴 들어가지고, 그 세상 한 치레로 겨우 지낸 아로 갖다가
끌로 가지고 이 파뻤대. 양쪽에 날개 나는 부분을 파뿌니께네, 아가 안
죽을 수 있나? 생사람을 모음도(마취도) 안 시키고 끌로 가지고 파뿌니
께네. 그래가 마 아가 죽어뿌니(죽어버리니) 백마도 안 오더래.

[남구 설화 30]

제삿밥을 못 먹은 친부모

박정식(여, 1935년생) 구술

2013년 2월 23일 채록

[문현3동 박정식 집]

옛날이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어서러 친구가 아들이 많으니께네, 친구인
아들 많은 집은 자식이 사는 게 가난하고, 이 쪽 집은 자식 없는 친구는
돈이 많은 기라 재산이 많은 기라. 그래가지고 한 재산 떠 주고 아들 하
나 얻어 왔는 기라. 그래가 자식같이 키웠는 기라. 다 친하게 지내고 큰
아버지 작은아버지하고 그래 땡기고 친했는데, 그래 이 집에 얻어가 키
운 집에서는 제사를 지내니께네,

“음복을 묻하고 간다고, 만날 배고프다.”

한다 하는 기라, 꿈에서 꿈에서러. 그래가,

“배가 고프다, 음복을 못해서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프다.”

맨날 배고프다 하고, 아들 꿈에 며느리 꿈에 한 번씩 보이는 기라. 그
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우째 해야만 저 귀신을 볼 수 있노?’ 카면서는 그
래 구석구석 땡기면서 나 많은 사람한테 물어싸니께네, 저 빼뿌쟁이, 질
갱이(질경이) 씨를 훑어다가 지름을 짜가지고 제사상을 채려놓고 거기다
가 불로 키면 귀신이 눈에 보인다 하더래.

그래서러 이 아들이 며느리하고 마 질갱이 그 씨, 까마이 쪼깨커든. 그
거를 훑어다가 얼마다 훑어다가 지름을 짜가지고 제사지내면서 딱 갖다

놓고 불로 키 놓고 보니까네, 채리 놓고 보니까네, 지 키아 준 엄마 아부지는 문 앞에 와가 기다리고 있고, 지 낳아 준 엄마 아버지가 묵더래. 묵고 나오고 난 다음에 들어오니, 지꺼정 음감 다 했는데 못 묵는 기라. 눈에 보이더래 그게. 그래서 귀신을 달개가지고(달래서),

“제발 좀 하지 말라.”

고, 굿을 하고 그러니까네 배 고프다 소리 안 한다 카대.

[남구 설화 31]

아이를 낳어 만든 에밀레종(17)

박정희(여, 1935년생)구 술

2013년 2월 23일 채록

[문현3동 박정희 집]

스님들이 시주를 하러 왔는 기라. 종을 맨들라꼬. 에밀레종 맨들라꼬. 그래가 시주를 하러 마 천원도 주고, 백 원도 주고, 십 원도 주고, 곡식 주고 이라면 그걸 가지고 돈을 만들어가 무쇠로 사가 종을 만드는데. 어떤 사람이 아들을 안고 어르고 하다가 스님이 시주를 하라고 염불을 하니까네,

“아이고 시주할라 해도 아무 것도 없다. 우리 아무것이 이것이나 주면 줄 게 없다.”

이랬는 기라. 그게 원한이 돼뿔는 기라. 그래가지고 시주를 해가 스님들이 종을 맨들어 놓으니까네, 소리가 안 나는 기라. 그래가 스님들이 기도를 하고 백일기도를 하면서 제발 좀 종 올려달라고 기도를 하니까네,

“줄라 하는 걸 못 다 넣었기 때문에 안 된다.”

하더래. 그러니 시주 하러 땡기는 스님들 보고 모두 물으니까네,

“누가 줄라 하는 걸 못 받았노?”

하니,

“어느 동네, 어디 가니까네, 어떤 여자가 우리 아무것이나 줄까 줄 게 없다. 이 카는 그 소리는 들었다.”

해놓으니, 강제로 뺏어 와서는 종 놓고 쇠 녹후는데(녹이는데) 넣어가지

고 종을 만들어 놓으니까네,
“둥~.”
캐나 놓고,
“에밀레~.”
칸다고, 그래서 에밀레종이라 안 카나.

[남구 설화 32]

구렁이로 환생하여 아버지의 한을 풀어준 아들

박정희(여, 1935년생) 구술

2013년 2월 23일 채록

[문현3동 박정희 집]

밀양에 저 그계 남포리라는 동네에서러, 그 참 효자가 있었는데, 너무 없이 살아가지고, 즈그 아버지랑 아들랑 녀의 집에 살면서는 그래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밭을 사고 논을 사고 살림살이가 살기가 좀 됐는데, 아버지 만날 밭에 가서 대밭에 가서 살고, 그래가 살고 하다가 아버지가 죽어뻬는 기라. 그러니 아들이 얼마나 한이 맺혔던지 ‘아버지 참 남강 같이 (남과 같이) 맛있는 것도 몬 묵고 구경도 몬 시키고 죽어서러 어짜노? 됐는데.

옛날에는 삼년상 낸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몬 삼 년을 빈소로 모시놔 놓고 아침 저녁 밥도 놓고 국하고 이랬거든. 그렇는데 이 우패(위패) Ying어는 상자에 아침 날 세면 여만큼 벌씨(벌려) 놓고, 해 지면 닫아뻬고 이라거든. 우패 요만치 요래 열어 놓으면 무자석(무자치, 뱀의 종류) 한 마리 앉아가지고 요래 해췌는 기라.

무자석, 물에 땡기는 뱀, 그 무자수 쪼겐 게 노랗거든. 무자석 거기가 해 썩니께네, 아들이 기가 찬다 아닌가? 그래가지고 강에 갇다 집어 던지 뻬면 또 와가 앉아가 고 앉아 있는 기라. 그래가지고 ‘허 이상하다 와 아버지 저 혼백에 와 이래 뱀이 와가 있노?’ 싶어서러 하도 답답해서러 여기저기 물어 보고 하이께네, 그래 난중에는 모두 옛날에는 무당 잘 찾았다 아닌가베?

“무당한테 가서 물어봐라. 저 용하다 카는 데 가봐라.”
캐.

“그래 아버지가 한이 맺혀서러, 평생을 녀의 집에 살고 평생을 일하다가 죽어 놓으니까네 한이 맺혀서러, 그래 갈 데를 못가고 혼백에 들어가 있다.” 카는 기라. 그래서러 그 아들이 요런, 옛날에 여 싸릿대로 만들어가 놓은 도시락 걸은 기 있거든. 거기다가 혼백을 넣어가지고 구리채로(구렁이채로) 넣어가지고 끓어지고 동서남북의 절이라 카는 절은 다 찾아 댕겼는 기라. 어텔 가면 이렇게 안고 댕기며

“아버지 여기는 무슨 절입니다. 여기는 법당입니다. 여기는 어택니다.” 카고 그래가 일 년 내- 돌아댕겼어, 남포리 사람이. 그래가 돌아댕기고 인자,

“우리나라 남한에서 좋은 데는 다 찾아 댕겼으니까네, 인자 아버지, 원도 한도 없어 구경했으니까네, 인자 좋은 데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갖다 놓으이카네 없어지더라. 그거는 바로 내가 그거 하는 사람을 봤거든.

[남구 설화 33]

구렁이로 환생한 스님

박정희(여, 1935년생) 구술
2013년 2월 23일 채록
[문현3동 박정희 집]

통도사 주지가, 통도사 주지, 합천 해인사 주지, 동래 범어사 주지, 서이가 그 금강산 유람을 하러 갈가고 의논을 했는 기라. 옛날에는 축지법을 하니까네, 도사들이 축지법을 하니까네, 축지법을 해서러 갔는데 통도사 주지가 안 왔는 기라. 그래 금강산에 딱 가서 보니까네 둘이뻘이 안 왔는 기라. 금강산에서 만나자 했는데. 그래서 ‘우째 된 건고?’ 싶어서 인자 둘이서 그 카고 있는데, 통지가 왔더라. 통도사 주지가 죽었다고.

“그럼 그렇지.”

하고 금강산에서 내려와서는 통도사로 내려가이께네, 죽었더라. 그러믄 상좌들이 막 염불하고 이래쌌더라. 그래서러 죽은 걸 우짜겠노? 그래 니가 욕심이 많아서.

아, 같이 가다가 저 통도사 주지가,

“마당에다가 저 우캐를 많이 넣어놔는데, 옛날에 곡식을 재풍시킨다고 넣어 놔는데, 이기 하늘을 보이께네 소나기가 오겠다. 양산 쪽에 소나기 오겠다. 저 뒷설거지하러 가야 된다.”

하니 갈라 카더라. 그래서 이 두 스님이,

“상좌들이 있는데 알아서 할 낀데, 뭇 하러 갈라 하노?”

이카이께네,

“아, 안 된다. 내 없으면 안 된다.”

하면서 다부 돌아가뵈데. 그 질로 가서 죽어뵈는 기라. 그래나 놓으이께네, 인자 두 스님이 와서러 인자 염불을 해준다고 와가 있으이께네, 한 열 댓 살 먹은 초립쟁이가 하나 팬하케(빠르게) 오더라. 오더만은 그래 스님들 한테,

“팔죽 한 동이하고 술 한 동이하고 좀 대령해 달라.”

하더라. 그 사람 죽으믄 팔죽을 끓이가지고 입관하기 전에는 팔죽을 묵 거든. 그래가 그 갖다 놓으이께네, 덕석을 짹 피나놓고 이 초립쟁이가 대청 마루 밑에다가 이놈 모가지가 비틀어지가,

“스님, 스님, 빨리나오라.”

고 고함을 지르더라. 그러이께네 시켜면 먹구리가 한 마리가 실 나오더라. 나오가지고, 나온께네 그 초립쟁이가,

“스님, 여 눕으라.”

카더라. 그래 눕으라 캐서러 구렁이가 모가지 푹 쭈구리가(숙여) 이래가 옆드린 걸 갖다가,

“팔죽하고 술하고 다 묵으라.”

하니께네 그 구렁이가 다 마시더라. 딱 빨아먹고 뉘이까네 초립쟁이가 스님보고, 저 구렁이 보고,

“배 디비가(뒤집어) 눕으라.”

했는 기라.

허연 배를 허떡 뒤비가 구렁이가 휘떡 뒤집어진께네, 집게칼로 하나요

내더니만 똥구멍 있는 데 딱 잡아 쪼가(쪼서) 기름 주머니 하나 뚝 따니
께네 노란 새가 하나가 날라 나오더라. 그래가 조마니다(주머니에다) 새를
넣어가 엉덩이에다 끼 차고, 그래가,

“시체는 처리하라.”

이카고,

“처리하라고. 우리 스님은 내가 모시고 갈 거이께네, 남은 스님들이 처리
잘 해달라.” 고, 마 초립쟁이(초립동이)가 새 한 마리 잡아 열어가 저 어디로
갔부더라. 그래 욕심 많으면 그렇다 안 카나? 구렁이가 된다 안 카는가베?

[남구 설화 34]

당산나무를 베서 동티 만난 사람

박정쇠(여, 1935년생) 구술

2013년 2월 23일 채록

[문현3동 박정쇠 집]

밀양에 상남에 가면 구심리라는 동네 앞에 느티나무가 확 있어서 지금도
이렇거든. 근대 왜놈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쳐라 했는 기라. 도로 뚫는
다고. 여름에 강가에도 느티나무가 확악 있었는데, 지금 이런 다리 절에
(옆에) 가면 이런 게 하나 있거든.

그걸 왜놈들이 다 처리했는 기라. 처리하는데 우리 아버지 외사촌 동
생이 면에 있었는데. 상남면에 있었는데 면에서 쪼끔 거(작은 직책)
하게 있으니까네, 왜놈들이 시키는 기라 하라 하면 안 할 수 있나? 왜놈
한테 꿈쩍도 못하는데 그때.

그래 모실(마을) 앞에 도로 뚫을라고 느티나무 그거를 베라 했는 기라.
그 아저씨가 사람들 시켜가 그 나무를 몇 나 몇 그루 비뚤다 하대. 그
질로 막 한기로 집어 놓고 사흘도 못가서 죽어뻤는 기라. 그게 목신이라.

[남구 설화 35]

도깨비를 물리친 할머니

안두임(여, 1940년생) 구술

2013년 2월 21일 채록

[문현3동 은혜경로당]

우리 할머니가 이거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화라. 우리 할머니가 내 열네 살 묶어 세상 비렸는데, 우리 친정 엄마가 시집을 오서러 손님을(마마, 즉 천연두를) 했다는 거야. 손님을 하다 보이께네 할매가 정성을 드리다가 드리다가 저 냇물 내려가는데, 그 가(가서) 손님 하는데 정성 드리러 가이까네 말 모라(말을 몰아) 낸다 카메, 정성 드리러 가니까, 건니 갈라꼬(건너가려고) 저쪽 다리로 건니가. 물고 건니갈라고 카이 키가 팔대 중 곁은 기가 탁 섰더라 카는 기라.

불로 해서 들고

“쫓아 못 간다.”

카메 길로 막고 서는데, 우리 할머니가 워낙 담이 크이께네 탁 때리면 서러,

“이놈아, 나가거라. 이놈, 내가 손님을 모시고 왔는데, 손님을 모시고 이렇게 오는데, 내 정성을 우짜고 이런 놈이 나쁘구로 눈 앞에 서노?”

때리갓고 물에 처박아뒀다 카는 기라, 우리 할매 말씀이. 처박아뒀고 ‘그거 참 이상하다’ 싶어 집에 가서 고마 생각해보니, 그 이튿날 자고 나서 쫓아 오이 빗자루가 두 개있더라. 그 고랑 가. 거기 도깨비란다. 할매 처박아뒀데. 그 그런께네 옛날에 어른들은 ‘빗자루 씨다 모지러지몬 부석에(부엌에) 놓지 내빌지(내버리지) 마라’ 그러카는 기, 거기(그것이) 그 말이다.

[남구 설화 36]

이야기하다 쫓겨난 며느리

안두임(여, 1940년생) 구술
2013년 2월 21일 채록
[문현3동 은혜경로당]

옛날 옛적에 시어마이가 어찌 좀 벨라거든 . 그래 벨나는데 자꾸 머리,
비가 오고 하니께네,
“머리 이 잡아라.”
카는데, 예전에는 이 잡아쐈거든. 이로 잡아야 하면서러,
“야야, 옛날께이야기 좀 해봐라.”
이카йка네,
“어머니는 이야기고 나는 새 얘기(‘애기’를 일부러 이렇게 발음함) 아
닙니까?”
이러카거든. 그러카이께,
“옛날 이야기 좀 해봐라.”
카이,
“저 진시황 만리성은 고담이고, 저 건니(건너) 저 담은 새 담이랍니다.”
이라거든.
“아이고, 똑똑다(똑똑하다) 니가.”
카이께,
“저희 친정은 앞집에도 대밭 있고 뒷집에도 대밭 있습니다.”
이러카는 기라.
“아, 요년이요!”
카매,
빗자리를 가 내가йка네,
“앞집 방아 찼일러(찼으러)로 가꼬(갈까요)? 뒷집 방아 찼일러 가꼬?”
고래 당돌하거든. 방아 찼으러 가몬 씹자리(짚 자루. 짚으로 만든 자
루) 가(자져) 가거든.
고렇게 하러 갑니더. 마 꼬징개이로(가는 작대기, 회초리) 훔차내니까네
(쫓아내니까),
“얼싸 좋다.”
카고 마 티(뛰어) 나가더라네.

[남구 설화 37]

부모 때리던 아들을 효자로 만든 아버지

안두임(여, 1940년생) 구술

2013년 2월 21일 채록

[문현3동 은혜경로당]

이전에 한 놈이 그 골짜기에 살면서러,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솥을 이래 해갓고 끓어가 팔고 묵고 살았거든. 그리고 그 아들이 그거 가지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솥 한거씩(많이씩) 해가 저께 가서 팔고 오몬, 아버지 혈떡 벗어놓고 애릴 적에 좋다고,

“너거 엄매 한 차례 때리라. 너거 아버지 한 차례 때리라.”

이래 놔놓이, 이놈이 습관이 돼가지고 지게 탁 벗어놓으면, 저거 엄매를 가서 한 차례 툭 때려 주뿌고. 또 즈그 아버지 한 대 툭 때리고, 이놈이 커도록 그라거든. 나가(나이가) 많아 크니께네 얼마만치 대노(힘드노)? 그러니께 ‘저놈 저래갓고 참 안 되겠는데,’ 저거 아버지가 한 문(한 번)은, “아무거야”

“예.”

카이, 내가 니 고기를 한그씩(많이) 사가, 저큰 동네 저리 가서 팔고 온나.” 이래 했거든, 이거는 이야기다이 “팔고 오너라”, 카모, 그래 어느 골목에 쭤어지고 갔거든. 그래 살라카йка 아무것도 살게 없는 기라, 지가 보йка. 살살살살 기는 기(게)가 있제? 기, 기 그거를 사가 떡 쭤어지고 간다. 그래,

“고기 사소.”

카고 외이께네(외치니까), 사람들이 와- 나오고도 이름을 몰라갓고 마 고기라 칸다. 와 나오니께네,

“아이고, 이게 기네, 기네.”

이카거든.

“웁다. 기, 기 사소.”

캐 놓고 또 머 저 건너가다 머 도랑을 건너다 잊아뻘다 그거로. ‘이거로 또

머라 카꼬?’ 그리 지가 기를 한 바리 딱 요기 기다 들고 가만히 보니까
데. 그리 기가 앞에는 발목이 두 개고 뒤에는 팔 죽이고 이렇거든. 그래
‘예따 됐다’ 모르겠으니까네, 이거를 이름을 지었다.

“소죽은 두 죽이요, 대죽은 팔 죽이요, 두 눈 깜짝, 버끔(거품) 뿔짝,
앞은 만학 천봉하고 뒤는 차암절벽(기암절벽)하는 거 사시오.”

그래 카더란다 글마가(그놈이) 지어내가지고. 그기 딱 맞는 기라. 가만
히 보이게네. 기를 들고 봐 바. 그라이게네,

“말간(전부) 기로 가와가 무슨 이름이 이래 많노?”

하니까,

“옳다 기.”

인자 또,

“옳다 기.”

하면서 그래 팔더란다. 그라고 나서 또 어른 줄라고 산다, 누 준다고 산
다 캐서 그 장사를 갖다가 오서는 마 지게고 뿔이고 다 째어 던지고 마,

“어머니 아버지, 내가 참 죽을 죄를 지서 잘못했습니다.”

고만에 이래 마, 키대로 엮어져갖고 절 한다 카는 놈이, 키대로 엮어져가
일나도(일어나지도) 안 하더란다. 그래갖고 죽을 죄 지었다고. 만날 툭
때려쫓다가, 그거 안 그렇겠나? 그래서 아버지가 효자로 맨들었다 카는
기라.

[남구 설화 38]

아이를 넣어 만든 세밀레종(2)

안두임(여, 1940년생) 구술

2013년 2월 21일 채록

[문현3동 은혜경로당]

절에 시님(스님)이, 어느 시님이 저게,

“이 아이를 갖다가 중에다 그거로 그 불법을 많이 하라.”

카더란다. 하라 캐도 안하고 하이게네, 그래 그 시님이 가만히 놔둬. 요

동냥하러 오니께네, 어마이가 카는 게,

“뭘 주꼬?”

좋다고 아가 어란다(어룬다) 카는 기,

“니를 갖다가, 니를 우리 아무개나 줄까? 뭘 주꼬? 아무것도 줄 꺼 없는데.”

이카거든. 그러키이 시님이 듣고 갔거든. 갔는데 어느 절에 가이께네, 종을 맨들어가 치니께네, 소리가 안 나.

“이거 와 이렇노?”

하니께네, 그래서,

“저 시님, 어데 절에 시주 가이께네 어느 보살이가 아들을 주까 안 카더나고. 그래서, 거 아들로 받아와서는 뚜드려 뿌사갖고(부수어서) 종에 넣어 야만 소리가 날 것이니까. 거 가시라“

고. 참 난감스럽거든, 자기 들어봤는데. 그리 그 집을 우째 가니께네,

“왜 왔느냐?”

고 묻더란다.

“보살님, 내한테 헨(한) 말이 안 있느냐?”

“내가 무슨 말을 했냐고?”

카이께네,

“그 애기를 나를 주세요. 나를 주면 온 세상을 다 울릴 겁니다.”

그래 안 줄라 캐도 안 되는 기라 이거는 인자. 지가 입을 그래 열어놔 놓으니께네. 그러니께네, 이 여자가 입이 요물이라 축새같이 씨부리면(말하면) 안 되는 기라. 그리 할 수 없어서 뺏겼다. 그 아를 강제로 댕고(데리고) 가뿌거든. 뺏기가지고 발바리 뜯어서러 그 아를 갖다가 종에다 열어갖고 종을 다시 맨들었는 기라. 그래가 툭툭 치이께네 그 종이 울기로 뭐라 열어갖카몬,

“에밀레~ 에밀레~.”

경주 불국사 절이가? 어데고? 에밀레종이 있다고 하지요? 그렇게 되더라, 그렇기 하더란다, 불국사 절에. 그 에밀레는 그렇기 전설에 내려 오는 긴갑대.

[남구 설화 39]

밤마다 무를 훔쳐 먹은 며느리

문수연(여, 1935년생) 구술

2013년 2월 21일 채록

[문현4동 문현4동경로당]

옛날에 하도 묵을 게 없어가지고, 그 색시들이 밥을 저녁밥을 뭉는데 (먹었는 데), 밥을 항상 작게 줘. 내가 해도 그 할매가 밥을 이래 쪼깨만 쌀로 내 주니까네 어른들 대접 다 하고 식구들 대접 다 하고 나면 자기 먹을 게 없어. 그러면 인자 가을 되면 무를 뽑아가지고 마당에 갖다 놓으면, 그거를 살짝 물리(물래) 방에 가져 와가지고 그놈을 깎아가지고 묵는 기야. 문께로(먹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시어머니가 구박을 하는 기라.

“니는 밥을 철통걸이 묵고도 그 저녁에 무우 뭉나?”

카면서더 막 뭐라 카는 기라.

그래 이 사람이 볼 때, 내가 볼 때는 우리 시어마가, 이게 내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 시어마니가 우째 내가 무시 묵은 걸 아는고?’ 싶어가 다음날 또 안 묵으면 배가 고파서 못 살아.

그래서러 인자 또 묵을라꼬 저녁 먹고 무를 숨카가(숨겨) 방에 들라놓고 지 귀로 막쌌는(막았는) 기라. 그 귀로 딱 막하 놓고 묵고나이 또 뭐라 카는 기라. 그 다음 날. 그래 ‘귀를 막하가(막아 놓고) 묵었는데, 우째 시아부시로 알고 그라는고?’ [웃음] 그 할매가 그 사람들이 인자 생각할 때는 지 귀만 막후면 할매가 못 듣는 줄 알고, 귀로 막하가지고 또 무웠는 기라. 그런께네 그 다음날 또 시어마가 뭐라 카는 기라. 그래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는 어째서 못 훔치(훔쳐) 묵지 인자 마.

[남구 설화 40]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2)

문수연(여, 1935년생) 구술
2013년 2월 21일 채록
[문현4동 문현4동경로당]

신랑이 어데 먼데 일하러 가고 없을 때, 할매가 막 아파가지고 지금 말하자몬 중풍으로 해가 늙어 있고, 밥 줘도 안 준다 해쌌고, 막 이래가. 그래 마 원기도 없고 이런데. 그래 시어머니가 밍어가지고(미워서), 줄거는 없고 지렁이 굵은 거 땅 파몬 나오거든.

그래가 물에 인자 붓고, 물로 폭 붓고 고와놓고, 그기 국물이 뽀야니 그게 보약이라 그게. 그거 먹고 난게, 할매가 눈도 어둡아 눈이 퍼득(빨리) 떨어지가지고, 눈도 밝아가지지고 살도 찌고 그래 눈도 떨어지고 눈이 떨어지니 땡기고. 그래 아들이 어디 갔다오이께네, 그래 말하자몬 오래 일하고 왔는데(왔는데),

“엄마, 우째 건강해졌네요.”

그카йка네,

“아이고 야야, 애미가 날로 갖다가 보약을 해줘가 내가 건강해지고 눈도 밝아지고 그래 이제 좋아졌다.”

그때 못 무서도(먹었어도) 그런 병이 있었어. 눈이 어둡고 귀도 어둡고. 귀도 들리고, 그래 그런 것도 있더라.

[남구 설화 41]

길경이 기름으로 죽은 남편을 본 아내

문수연(여, 1935년생) 구술
2013년 2월 21일 채록
[문현4동 문현4동경로당]

우리 엄마, 그러니께네 우리 엄마의 오촌, 오촌이 인자 열차 타고 땡기면서러(다니면서) 인자, 쌀을 전라도 가서 사가 오알 갑대, 아주 옛날에.

그때는 인자 묵을 게 없으니께네 쌀로 사가 오다가 그 인자 쌀을 없었는데, 이 할매가 탈 자리고 없어. 그래 이순자리(이어놓은 자리) 그 타가지

고, 저기 기차가 가다가 서면 퍽퍽 받치가, 그래 인자 이순자리 퍽퍽 받치가지고 서고, 갈 때는 또 땡기가 가고 이라이께네 그 사이가 벌어지고 그래가 죽었는데, 그 집 할매가 영감님이 보고 싶어가지고 원을 원을 해가.

그래,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 말하자면 빼뿌쟁이(길경이)씨, 빼뿌쟁이 씨를 그거 짜가지고, 기름을 짜가지고 제사를 지내면, 그 얼굴로 본다 하더라. 그래서려 인자, 그래서려 인자 그 기름을 짜가지고, 그 옛날에는 기계에 안 짜고 손틀에다가 짜가 접시기에다가(접시에다가) 그걸 담아놓고, 조선종이로 갖다가 비비가지고, 그 접시에 딱 붙여 놓고 제삿날 제사를 지내니께네, 얼굴이가 톱톱 붓고, 붕대로 감아가지고, 그때 시체도 못 찾았거든. 시체로 못 찾고 인자 붕대로 감고 이래 났는데, 본께네, 그래가지고 정이 떨어져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도 안 보이더라. 그 젊은 새각시가. 그래가 신랑이 없어졌는데, 그라고부터는 안 보고 싶더라. [조사자 : 빼뿌쟁이가 뭐입니까?] 말하자면 지금 저저게 여름 되면 들판에 질가에 피는 거. 납작납작한 거. 와 배추맨쿠로 줄기가 질고. [청중 : 질갱이.] 질갱이.

[남구 설화 42]

생쥐로 변하는 사람의 혼

문수연(여, 1935년생) 구술

2013년 2월 21일 채록

[문현4동 문현4동경로당]

새앵쥐 새앵쥐, 그거는 다 우리들 짚에 세 바리가 있어. 꿈 꾸몬 그기 나와가지고 천지를 헤매는 거야. 막 왔다갔다 하고 마 이라다가 인자, 내가 잠이 어느 정도 깼 때 될 시간이 다 되면 다부 콧구멍으로 쑥 들어가뿐단다. 그게 혼이라 혼. 내 혼이 쥐가 돼가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어떤 어른들이 가마 자는 걸 보이께네, 쥐가 나오더니만은 천지를 헤매고 드가더라. 그라고부터는 인제 할매가 자기는 몰라. 거 판(본) 사람이 있다 하대.

[남구 설화 43]

죽었다 다시 살아난 딸

문수연(여, 1935년생) 구술

2013년 2월 21일 채록

[문현4동 문현4동경로당]

우리 엄마가 그래 아들 서이, 딸 서이, 육남매로 태어났는데, 우리 엄마가 둘째라. 아, 셋째라. 셋째네, 첫째 큰이모 있고, 둘째 인자 오빠고, 셋째 우리 엄마고, 셋째네. 홍역을 하다가 열세 살 때에 죽었는 기라. 죽으니까네.

우리 할배가 옛날에 서당 접장 그거 이래 마 글 가르치는 그런 접장인데, 그 할배가 저게 할매는 귀가 어둡고, 영감님은 글이 좋아가지고, 인자 아들로 가르치는 서당에 선생이고 이렸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 저거 할매는 억수로 키도 크고 꿈보고 늙었고 이랬는데도, 열 세 살 묵는 기 죽어봐논께네 그거로 못 하라 해. 초상을 못 치르게 해.

귀는 어둡고 그 집안 어른, 접장 할배가 꽤나놓으니께, 밑에 종들도 아예 시체에 손을 못 대. 그래도 인자 영감님이 호령을 하고, 전부 집안사람들이 와가지고 초상을 쳐야 된다. 이래가지고 관을 안 맞추고 그냥 마 이래 자리 같은 거 이래 감아가지고 그래가 인자 담요로 덮어, 담요는 없지마는 훌이불 덮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떡 초상을 찻는데 큰 저게 개가 따라 왔어. 그래 구더리고(구덩이를) 파가지고 우리 엄마를 영은라 카이께네, 저 저게 우리 그 할매가 하도 원통해가지고 얼굴로 이래 깔아 보니께네, 요마이(요만큼) 빨가이 얼굴에 돌아 나더란다 혈이. 그래 가지고는, “그라몬 이 시체를 묻지 마라.”

그라고 안 묻고는 따라간 개로 묻었다 하는 기라. 개를 묻고 그 아를 덕고(데리고) 왔는데, 집에 데리 달라는데 눈은 떴는데 사람을 보께네 알겠는데, 말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 이름이 태복인데,

“태복아, 태복아.”

해싸이께네, 그래가지고 귀에도 안 듣기고, 말도 안 나오고, 그래 불러쫓고 그라더란다. 그래가 깨가지고(깨어서) 묻는데 그래 이야기로 하대.

[남구 설화 44]

무덤에서 태어난 아기

문수연(여, 1935년생) 구술

2013년 2월 21일 채록

[문현4동 문현4동경로당]

우리 친구잘에(친구한테) 들었는데, 저게 고성에서 시집 왔어. 그래가지고 저거 동네 임신을 해가 아로(아이를) 놓을 낀데, 아 놓다가 죽었는 거야. 그래 나 그거 듣고 너무 놀랬어. 아를 놓다가 죽어봤는데, 이 사람이 인자 그거 죽어뿌께네(죽어버리니), 그때는 화장 안 했잖아? 마 이불에 싸가지고 마 그양 초상을 찻는데, 그래 하도 하도 집안이 시끄럽고 아픈 환자도 많이 나고 꿈에 나타나가,

“내 목욕 좀 시키주고. 좀 살리 거 아가야도(아기도) 좀 이래 따로 이래 해 달라.”

해싸서러, 그래가 점을 해가지고, 굿을 하면서로 그 뿔등을 파 보이게네, 아가 있제 틀다가 죽어 놓으니까네, 엄마가 죽으나노이 아가 밑으로 빠지가, 아가요 젖에 가서 입에 젖을 딱 대가 있더라. 그래 나 그거 보고 디기(많이) 놀랬거든. 그래가 그 좁은 데서 아무리 흠이불 덮어 써아도 그자. 거 아가 우째서 올로(요리로) 아가 머리가부터 나오는데 요(여기)와가지고 젖에 입을 대가 옆으로 돌이 눕우가(누워) 있더라. 그래 아를 갈라 세우고, 갈라가 그래 초상을 따로 시켰다 하대. 어마이 옷 갈아 입히고.

[남구 설화 45]

이장해서 망한 집

문수연(여, 1935년생) 구술

2013년 2월 21일 채록

[문현4동 문현4동경로당]

그 그걸로 뒤통을 파고 나면 그 사람 부자되고, 부자되고 뭐 보몬 자식들이 잘 되고 판검사가 나고 이런 사람들 집에. 그래가지고 그래도 무녀들이 이걸 파가지고 머 이장을 하게 되고 막 이래 자꾸 말로 만들어가 파이까네. 막 먼데 사람 볼 때는 뒤통 근처에 아무도 못 가거든.

그래가 금지해나 놓고 파는데, 동네 사람이 볼 때는 안개 같은 기 꼭 올라 오는 기야. 그게 짐이(김이) 나가면고 나이 그 짐이 망하더라. 그래가지고는 이장해도 소용 없고, 요새 같으면 화장 하면 되는데, 그때는 이장할 짓뻘에 모르지.

[남구 설화 46]

사똥감을 찾아 나선 쥐

이석임(여, 1931년생) 구술

2013년 2월 21일 채록

[문현4동 지계골경로당]

쥐가 딸로 탁- 하나 낳았는데, 너무 자기 눈에는 예쁘는 기라. 예뻐가지고 ‘오데다(어디다) 시집을 보낼꼬’ 싶어서 생각을 하다가 하다가, 턱마 제일 높은 데 인자 하늘에 햇님한테 갔는 기라. 햇님한테 가갖고,

“햇님, 햇님. 우리 딸이 너무 예뻐는데, 햇님한테 우리 딸로 줄끼마.”

“아이구,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햇님이 아이고,(아니고), 내가 아무리 이리 비차가 있어도 구름이 깔키면(가리면) 내가 못 비차준다고(비취준다고). 구름한테 가서 물어봐라.”

구름한테 찾아갔는 기라. 구름한테 갔다. 구름한테 찾아가갖고,

“아이고, 구름님.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한테, 우리 딸이 너무 멋진데, 그래 내가 줄라꼬 인자 생각하고 있다.”

칸께,

“아이고, 이 세상에서 내보다 높은 사람 천지다.”

이카며,

“그래, 누가 그리 높으냐고?”

하이카,

“바람이라.”

카는 기라.

“바람은 내가 아무리 구름이 끼가 있어도 바람이 확 불어뿌몬(불어버리면) 마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이기라. 나 못 이긴다.”

하는데, 그래갖고(그래가지고) 또 구름한테 찾아가고,

“아, 구름님.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구름님인데, 구름한테 내가 우리 멋진 딸로 줄라 카는데 그래 하자.”

칸까네 아, 구름도 안 할라고,

“내보다 더 높은 사람 있다.”

커거든.

“아이고, 높은 사람이 누냐고?”

컨이까네,

“백(백) 이다.

카는 기라. 백. 그래 또 백한테 또 찾아 갔는 기라. 백한테 찾아가가 그래,

“백님, 저게 우리 딸이 너무 멋진데, 우리 딸로 백님한테 드릴라 카는데.”
고 함께,

“아이구 내카마(나보다) 더 높은 사람 있다.”

카이,

“아이고, 우째 그라몬 누가 그래 더 높으냐고?”

칸께네, 그래,

“쥐다.”

카더란다. [웃음] 쥐가 쥐한테 가야 되는 기라. [웃음]

“이 세상에 내가 벽을 아무리 해도, 쥐가 짹아 무몬 백도 허물어지뿐다. 나도 허물어지뿐다.”

결국 그 잘난 딸도 쥐한테 갓부는 기라.

[남구 설화 47]

은혜 깊은 까치

이석임(여, 1931년생) 구술
2013년 2월 21일 채록
[문현4동 지계골경로당]

뱀이 사람을 갇다가 딱 감고 직일라고(죽이려고), 딱 잡아 목을라꼬(먹으려고) 딱 그카고(그러고) 있는데, 그게 거 뭐꼬 종이 올리몬은 뱀이 그거로 못 하는 기라. 그래,

“주꾸마.”

이라는데, 시간도 아이데, 그 종이 딱 올리뿌는 기라. 그래 뱀이 그 사람을 못 잡아 목고 놔 줘뵈는 기라. 놔 줬는데, 저게 뭐꼬? 아침에(아침에) 저게 사람이 ‘이 우째서 그 시간도 안 났는데 이 저게 뭐꼬, 종이 올렸노?’ 싶어서, 그게 종각에 가 본께네, 까치가 머리가 받치갓고(받혀) 머리로 갓고 쳐가지고, 그래 종이 그래 그 사람을 살렸다고. 천번이나 그라모 뱀, 하여튼 까치가, 까치가 저게 뭐꼬 그 사람을, 그 사람이 까치로 많이 살려줬겠지. 우째 해갓고(해서) 은혜로 입었는 기라. 은혜로 입어 놓으까네 그 까치가 그 은혜 갚는다고 머리로 쳐가지고 종을 쳐가지고 그렇다는, 나는 다 잊아뵈다.

[남구 설화 48]

강피 훑는 팔자의 부인(2)

김순금(여, 1934년생) 구술
2013년 2월 18일 채록
[용당동 미연경로당]

전에 옛날에 신랑이 과게(과거) 보러 갈라고, 천날만날 공부만 하고, 나락 덕시기(덕석, ‘명석’의 방언) 보러 덕시기 들어와도 소내기가 오도 안 딜놓고(들여다 놓고).

어찌어찌 몸세리가(몸서리가) 나서, 만날 그 여자는 어데 가노 카모 목고 살 기 없어가이고, 그거 피, 피, 피 훑으러, 눈에 피 훑으러 갔는데,

피로 훑어가이고, 오도, 비가 오도 공부한다고, 덕시기로 나락 덕시기 보리 덕시기 비가 암만 오도 다 떠내려가도 마 손도 안 대고 있어.

어찌 여자가 막 보굴이(골이, 즉 화가) 나가이고 마 그 질로 가뻘거든. 갔는데, 신랑은 인자 공부를 많이 해가이고 뭐 어사 사똥가 급젠가 뭐시 해가 오가이고, 그래 어데 가는데 즈그 마누래가 딴 데 살러 가가이고, 알라, 그 또 내내 [말을 더듬으며] 저저 뭐꼬 수시(수수) 그거, 그거로 몬 살아가 또 수시로 훑더란다.

그거 피 껌데기 그거로 훑으이카네, 피로 훑으이카네, 양식(양식) 할라고 훑으이카네, 그래 청상감사(경상감사)가 가맨서로(가면서), 아 차꾸 훑으이카네, 청상감사가,

“아 저 저게 가는 저 부인, 훑던 쟁피 다시 훑더라.”
카더란다. 그라더란다. 나는 그거만 들었다.

[남구 설화 49]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3)

엄남선(여, 1937년생) 구술

2013년 2월 18일 채록

[용당동 미연경로당]

아들이 과거 보러 갔는데, 외동아들인데, 과거 보러 갔는데, 고부질에(고부간에) 정이 그래 없어갖고 내 다투고 이래 했는데, 어 자기 인자 부인을 어머니잔테(어머니에게) 맏기(맏겨) 놓고 과거로 보러 가이 걱정이 될 꺼 아이가 [조사자 보고] 그지요.

그런데 아이 메느리가 밍다꼬 지렁이를 파가지고, 반찬을 안 해주고 지렁이를 파가지고 국을 끓이가 내 그거로 드렸대. 어 시어머니로 드렸디마는 그기 보약이 돼가지고 얼굴이가 허연(하얗게) 마마 살이 찌고 허여지더란다.

그래, ‘아이구, 시상에 우리 며느리가 우째 아들 없이 날로 이래 잘해주노.’ 이래가 목을 때마다 그 고기 그거 하나씩 자리 밑에 넣어놔데. 그래

와가지고,
“아이구요, 어머니가 우찌 이래 얼굴이 이리 좋은교?”
카이까네, [칭중 : 아들이 과거 보고 왔다.] 어어. 와가지고,
“어머니.”
“참 아이구, 이 사람아 내가.”
아들보고,
“자네가 없으니까, 그래 무슨 고긴지 그렇게 맛있게 해주더라.”
이라이까네,
“그래, 그림 이거 한번 봐라.”
카민서, 이래 내니까네 지렁이거든.
“아이구, 어머니 이거 지렁이 아인교?”
하이께, 눈을 펴뜩 떴뿌더란다.

[남구 설화 50]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4)

이문순(여, 1934년생) 구술

2013년 2월 18일 채록

[용당동 중부녀경로당]

남편이 돈 벌이러 가고, 호불시어마이로(홀시어머니로) 모시는데, 돈은 없고 자꾸 고기는 사달라 하고, 고기 사줄 돈이 없어서 지렁이를 잡아가지고 할매로 해드리고.

그거를 갖다가 인자 자리 밑에 말라갓고 놓고 그리 해드리고 이랬는데, 그래 인자 아들이 오니까, 엄마가 되기(매우) 자기 갈 때보담 살도 찌고 건강하고 이래서,

“엄마 뭐로 묵고 이래 건강합니까?”

이라니까,

“아이고 저 너거(너의) 처가 고기를 내(매일) 해줘서 내가 묵꼬 살이 이리 찼다. 그래 내가 한 개 니 오몬 줄라꼬 신카났다(숨겨 놓았다).”

이라면서, 이 자리 밑에서 내주는데 그게 지렁이라서,
“아! 엄마 지렁이다.”
이라게네, 봉사 엄마가 눈을 번쩍 뜨더라. 이런 말은 들었습니다. [웃음]

[남구 설화 51]

강피 훑는 팔자의 여인(37)

이문순(여, 1934년생) 구술
2013년 2월 18일 채록
[용당동 중부녀경로당]

너무너무 몬 사는 집에 가갖고, 갱피만(강피만) 훑어가 묵고 살았는데,
남자는 과거에 한다고 공부만 공부만 하고, 아무 살림을 안 도와줘서 자
식들하고 부모들하고 먹고 살라고 갱피를 훑어가 묵고 그랬는데, 마 남
편은 과거 하러 간다고 가뿌리고 너무 살 길이 없어서 살리 갔는데 그
집구석도 너무 몬살아 갖고예 그서도(그곳에서도) 가서 또 갱피를 훑으
니까네, 신랑이 말을 타고 오면서 마누래가 갱피를 훑으니까,

“저기 저 부인, 갱피 훑는 저 부인, 간디(가는 데) 족족 갱피 훑나.”
이라더라고,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할매들의잘에(할머니들에게) 옛날에
촌에 할매들잘에 들었심더. [조사자 : 팔자가 그것백에 안 되네.] 예, 예.
사주팔자가 그거뿌이 안 되이 할 수 없는거.

[남구 설화 52]

호랑이보다 무서운 꽃감(17)

이문순(여, 1934년생) 구술
2013년 2월 18일 채록
[용당동 중부녀경로당]

애가 암만 울어, 너무너무 울어갖고, 달꺅라(달래려고) 달꺅라 해도 안 달개고(달래지고), 호랭이 온다 뭐 범 온다 뭐 해도 안 끄치는데, 꽃감을 주꾸마 하니께네,

“꽃, 저 농 위에 꽃감(꽃감) 하나 내줄게.”

이런께, 아가 그치니께, 호랭이가 왔다가, ‘와 내보다 더 무서운 것도 있는갑다’고 도망갔다는 이런 얘기, 그런 얘기 많이 들었다 아임니꺼.

[남구 설화 53]

형제 싸움에 깨진 쌀 나오는 돌

이문순(여, 1934년생) 구술

2013년 2월 18일 채록

[용당동 중부녀경로당]

옛날 얘기 하나 하께예.

형제간이 살았는데, 형제가 살았는데, 어 저 그거로 이런 돌이 하나 있는데, 돌 밑에서 쌀이 참 자꾸 나오니까, 그 형제 간에 서로 할라고 싸움을 했는 기라.

그러니까네, 그래 서로 할라고 싸움을 하다가, 저 높은 산 몬댕이(산만디, 산 꼭대기의 방언)에서 그 돌을 구불러갖고(굴러서),

“행님(형님) 산은 이 산이고 내 산은 저 산이니까, 저 산으로 가면(가면) 내 끼고(것이고), 행님, 요쪽으로 가면 행님 거다(것이다).”

이래갖고 구부니께네, 그 욕심을 거둘, 욕심이 그냥 거 쌀로 묵었이몬(먹었으면) 돌이 저거 평생을 묵을 쌀이 나올 낀데, 구불러가지고 그 욕심을 감한다고, 그 쌀이 안 나오고, 거 바위가 깨져 어디 숨어빠리고 없더랍니다.

[남구 설화 54]

밥을 토해서 어머니를 먹인 효자

이문순(여, 1934년생) 구술
2013년 2월 18일 채록
[용당동 중부녀경로당]

저 자기 집은 뗏거리(끼니)가 없는데, 녀의 일하러 가니께 밥을 주문 내 쪼끔 묵고 엄마 모가치로(뭇으로) 남갔는데, 그래 인자 그래싸니께(그렇게 하니까) 인자 일하러 간 집에서, 언제나 엄마 모가치를 따로 담아 놔다 주는 기라. 주는데, ‘오늘도 따로 담아와서 주겠지?’ 하고 그 밥을 한 그릇 배가 고파 다 뭇는(먹었는) 기라. 다 묵고 집에 갈라 하이 밥을 안 주더래요.

밥을 안 주니 인자 저그 엄마는 굶고 앓았으이, ‘어짜겠노?’ 싶어갖고, 니 또랑에 가갖고 냇물이 줄줄 내려가는데 가서, 손가락을 열어갖고 그 걸 토해갖고 씻거가지고 그래갖고 엄마로 갖다 먹일라고. 그 밥을 씻, 토 하니께네, 그래 그 토해가지고 밥이 이래 나와갖고 씻으니께, 그게 밥이 한거(많이) 돼갖고 소쿠리에 밥이 한 소쿠리 차갖고 엄마로 갖다 먹이고, 또 뒷날 가몬(가면) 또 엄마 먹일 만큼 나오고, 그래갖고 그 호자(효자)라고 옛날에는 소문이 났더랍니다. [웃음]

[남구 설화 55]

풀국새가 된 전처 딸

이문순(여, 1934년생) 구술
2013년 2월 18일 채록
[용당동 중부녀경로당]

범아사(범어사) 거 나무 많이 있거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뽕국새가(뽕꾸기가) 내 뽕궂 뽕궂 이리 우는 거라. 그래서 아 저 뽕궂새는 뽕 꺾궂새는 내 뽕궂 뽕궂, [말을 바꾸어]

“와 저 풀궂 풀궂 저리 우노?”

이라니까, 다신에미가(의붓어미가) 풀하고 풀국 그기라도 그 전처 딸이 좀 달라니까 그걸 안 주고 마다아(마당에) 탁 좀 쏘아빼나노이(쏘아져버리고 나니), 그래 그게 딸이 죽어갔고 풀국새가 돼갔고 풀국풀국 그리 울었다는 이런 얘기에요.

그래 절에서 할매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들었어요.

[남구 설화 56]

속심 많은 윗동서와 착한 아랫동서의 밥 구걸

김정옥(여, 1935년생) 구술

2013년 2월 14일 채록

[용호1동 새마을경로당]

옛날에, 옛날에 저 두 동시가(동서가) 살았는데, 직심이 강심이(강심이) 살았는데, 그래 인자 두 동시가 어찌 곤란이라서 밥을 인자 떡 얻으러 갔는데, 두 동시가 얻으러 갔는데, 그래 인자 이 새이가(큰 동서) 인자 많이 얻으라고, 인자 저녁을(저녁을) 먹고 막 저 굶불(군불) 영는다고 막 연개를(연기를) 푸고(피우고) 하는데,

“동승(작은 동서) 너는 저 건니(건너) 저 동네, 밥 한다고 막 연개를 푸사이카네(피우니), 저 많이 얻어오이카네, 저 동네 가가 얻어오라.” 카이, 그래 인자 이 동승은 인자 언니, 행님 말하는 소리를 듣고 마이(많이) 얻어오가 행님강 얻어 묵을라고 가이카네, 동승은 가이 다 저녁 묵고 굶불 영는다고 막 꼬랑 연기를 푸고, 인자 새이는 인자 지 마이 얻어와가 그거 할라고 가이, 그 집에는 가이카네 밥 다- 묵고 설것이 다 해놓고 말끔(모두) 치아뿌고(치워버리고) 없는데, 그래 인자 동싱가(동생이가) 동승도 배불리 못 얻고, 새이도 밥을 못 얻고.

그래 인자 그냥 인자 떡 오이,

“행님아 오는 도중에 어떤 집에서 잔치로 해가지고 많이 음식을(음식을) 해했는데, 그래 그 음식으로 한거(많이) 얻어 와가지고, 행님아 행님 니시키는 대로 갔더마는 전부 다 밥 다 먹고 굶불 영는다고 막 꼬랑 연기

푸는데, 그래 한 집에 한 등집에 오йка네, 잔치로 해가지고 마이 음식을 그거한테, 이 잔치 음식을 얻어왔다.”

이라йка네,

“아이구, 너는 참 잘 얻어왔네. 나는 연기 안 나고 마이 얻을라고 갔더 마는 말끔 밥을 다 묵고 다 치아놓고 다 눕어자뿌서 나는 빈손으로 왔는데, 너는 음식을 이래 마이 얻어왔으이 내가 영 잘 못했구나. 나는 내 마이 얻을라고 그랬는데, 너는 마이 못 얻고 하라고 연기 나는 동네로 보냈더마는 그렇더나.”

카문서, 그래 동싱가, 새이가 그래 말해가, 그 음식을 얻어 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살더란다.

[남구 설화 57]

강아지 때문에 죽은 각시와 각시당

김정옥(여, 1935년생) 구술

2013년 2월 14일 채록

[용호1동 새마을경로당]

옛날에 인자 아가씨가, 좋은 아가씨가 인자 전장을(전쟁을) 만나가지고, 전장을 만나 피할 데가 없어서러(없어서), 용호동 여 떡 한 고을에, 용호동 들우이(들어오니), 그래 인자 동산이라 카는 동네 산에.

그래 가йка네 자그마한 굴이 하나 있어서로, 그 굴에 가가지고 피헬라고(피하려고), 피헬라고 인자 굴 안에 드갔더마는(들어갔더니), 그 인자 아가씨가 그 굴 안에 드갈 때 강안지가(강아지가) 한 바리(마리) 따라왔는 기라.

[조사자 : 강아지가?] 야. 강안지가 한 바리 따라 오가지고, 그래 막 전장을 치가 난리가 나고 하는데, 그 강안지가 쫄랑쫄랑 오가지고 배곶에(밖에) 나갔다가 굴 안에 드가지고 그 마 각시당 있다 카는 굴에, 마 그 아가씨가 그 강안지 때밀에(때문에) 마 죽아뻘는 기라. 그래 각시당 각시당 한다.

산신당으는(산신당은) 그 제당 모시러 갈 때, 오새는(요즈음은) 차가 있어가 타고 가고 마 다 가지마는도, 옛날에는 그 각시, 그 제당에 제사 지내러 갈 때 할배들이가 가는데, 여자들도 못 가고 아재씨들(아저씨들) 가는데, 지게도 새 거 사고, 언자 또 바지기(‘발채’의 방언) 그거 새로 사고, 인자 그릇도(그릇도) 새로 사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다가 제사 지내러 가는 그 집에다가 기우로(건구로, 즉 금줄로) 딱 치놓고, 절대로 부정한 사람은 못 가고, 그래가 인자 그 제사로 그래 지끔도(지금도) 지내요.

지금도 9월달 되모, 9월 9일날 되모 우리 다 지내러 가거든. 그거가 그-래 영검이(영험이) 있더라. 그거 하다가 제사 지내러 가가지고 아무 데나 부정한 데 가모 대반에(대번에) 마 사람을 포를(표를) 내고 그레더라.

[남구 설화 58]

처녀 허깨비가 나오는 쉼자리

김정옥(여, 1935년생) 구술

2013년 2월 14일 채록

[용호1동 새마을경로당]

우리 두채(둘째) 오빠가, 세채(셋째) 오빠가 비가, 인자 우수가 마이(많이) 끼가 비가 올 때가 됐는데, 막 구름이 한겨(많이) 끼가 있는데, 옛날에 쉼자리 거 살았는데.

인자 배에 간다고, 배에 인자 뱃머리 옳기 땔라고 간다고 가йка네, 아가씨가 하나가 마 너무 이쁜 아가씨가 머리로 질밤같이 땅아 내루고 옷도 예쁘기 입고 그래가지고, 앞에 서가 찰랑찰랑 가더라 카는 기라.

그래 인자 우리 오빠가,

“아가씨, 아가씨. 어데 아가씨가 이렇치 인물 좋고, 이래 좋은 아가씨가 뭐 하러 간다고 이래 가느냐고? 이 밤에 밤중에 비로 맞고 어데 간다고 이래 가고, 비도 안 오고, 어데 간다고 이래 가는교?”

카이, 그 뭘 암만 해도 그 말도 대꾸도 안 하고 찰랑 찰랑 찰랑 앞에 가더라 카네. 그래 가는데, 인자 우리 오빠는 그 질로 따라서, 그 아가씨

질로 따라 자꾸 가йка네, 바당을(바다를) 보고, 저 수대(수산대, 현 부경대) 그거랑 옛날에는 여 쉼자리 바당이라고, 막 한테(함께) 남천동강 한테 영글라져(엮어져) 있었어, 그래가 바당을 보고 마 출랑 출랑 출랑 가더라 하는 기라. 물로 찰벅 찰벅 찰벅하고 걸어가더라.

‘아, 이거가 학, 허깨비구나. 내가 잘 몬(못) 봤구나.’ 카고, 우리 오빠가 그래 돌아서가지고 즈그 집에 고 짚에(겉에) 뒀놓으니까 짚에 집에 가지고 문 열고 싹 드가йка네, 마 언제나 창대걸은 비가 오는지 감당도 몬 하겠더라.

그래가 한분(한번) 허깨비를 만났다 캐요. 그래 그거 옛날에 그거 쉼자리, 가마술 있는 그거가(그곳에) 헛기(헛것이) 마이 난다 캐. 우리 오빠가 그래 만날 얘기로 해. 헛기 가마술 있는 거어 헛기가 난대, 헛기. 처희 헛기가 언제나 예쁜 처희 헛기가 난다고.

[남구 설화 59]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57)

박순봉(여, 1933년생) 구술

2013년 2월 14일 채록

[용호1동 새마을경로당]

그래 해주는데 너무 맛있어서,

“예 이게 무슨 고기요?”

카йка네,

“어무이요, 마 잡수이소. 돈이 없어 허른(헐한, 값싼) 고기 샀다.”

이러카멘서러, 근데 그기 하도 맛있어서러 켜데기를(건더기를) 하나 켜지가 자리 밑에다가 물어놔다가, 그래 아들이 오면 비준다고(보여준다고). 그래 아들이,

“엄마 그 동안에 어찌 살았노?”

카니깐에,

“아이구야, 메느리 반찬을 잘 해줘서 내가 묵고 살이 찌가 보하이(보양게).”

아들이 보이 참 어마이 살도 찌가 있고, 그라이카네 그래,
“뭇이 그래 맛있든교?”
카더란다.
“내가 하도 맛있어 여 넣어놔다.”
카메 자리 밑에 들쳐보이 거시랭이더래요(지렁이더래요), 거시랭이. 거시랭이 그것도 보(補, 즉 보신)가 땀더래요 그래. 그래가 인자 메느리 효자상을 탔다 카대.
[청중 : 해줄 거는 없고.] 해줄 거는 없고, 그래가 인자 그것도 지 혼차(혼자), 할매 할매가 지 혼차 묵었이몬 모를 낀데(것인데), 거 하도 맛있어서 아들 오몬 비준다고 갖다 숨키놔어. 그기 얘기가 땀다 그러 켜다 거기.

[남구 설화 60]

며느리가 가르쳐준 섬불

이준연(여, 1925년생) 구술
2013년 2월 14일 채록
[용호1동 새마을경로당]

옛날에 젊은 청춘에 홀로 돼가지고, 어무이가(어머니가) 혼차(혼자) 돼가지고, 아들을 하나 보고, 인제 살았는데, 한양에 과거 보러 가기가 돼가, 그래 어무이보고 시험, 아들이 어머이보고,
“내가 한양을 가몬 아무래도 2~3년 걸린 끼카네, 메느리(며느리) 하고 잘 지내고 사라.”
고, 이래 따둑거리놓고(다독여놓고), 또 인제 자기 마누래한테 가서러,
“그래 어머이 모시고 부양하고 살몬 오겠다.”
고, 그래 그리 뭐 3년만에 오йка네, 메느리가 그리 있으йка네, 인자 저 위에 동네 거게 성이 김가라 카는 영감쟁이가, 홀로 있는 영감쟁이가 하나 있었던 모양이지. 그런데 이 할매는 그 할배 아무것도 모르는데, 메느리가 알고,

“그럼 어무이요 내 좋은 염불 하나 갈차주끼요(가르쳐 줄게요).”
카더람더.

“그래 갈차주이소.”

그래 갈차준 기 뭐라고 부르노 하몬,

“저 건네(건너) 김침지 조타불, 저 건네 김침지 조타불. [청중 웃음] 어
무이 아들 올 때꺼정만 글 노래만 그 염불만 자꾸 하이소. 그라몬 극락
에 갑니더.”

이라더람더. 그래 놓이 이 할매가 직심으로 아들 올 때꺼정 뗏 년이 걸
리, ‘저 건네 김침지 조타불, 저 건네 김침지 조타불.’ 날마정(날마다) 그
래 부르거든.

불러가지고 그 질로 인자 아들이 과거 보고 급제해가지고 인자 떡 피
리 불고 막 이래 나발 불고 들오이(들어오니), 그 들와가지고 인자 아들
엄마한테 인사로 하이까네, 엄마가 하는 말이,

“아이구 이 내가 좋은 염불로 많이 해가지고 아들이 이리 좋은 과거를
보고 온다.”

카른서, 그 또 저, ‘저 건네 김침지 조타불’로 말로 하이까네, 아들이,

“어무요, 거기 무슨 노래, 무슨 염불입니까?”

카이,

“아이구! 메느리가 내가 심심하다고 좋은 염불을 갈차줘서러, 그래 내
이리 좋은 염불을 한다.”

카메, ‘김침지 조타불’을 그래 부르더람더. 그래 저녁에 인자 내우간에(내
외간에) 앉아서 그래 일하이, 아니 앉아서 얘기로 하는데,

“어무이는, 무슨 여보, 무슨 염불로 갈차쫘길래 저리 좋은 염불, 이상
한 염불로 한다.”

이라이,

“쫘-다. 이간에저간에(이만저만해서) 어무이가 당신 한양에 가고 나이
까네, 바램이(바람이) 나가지고, 저 건네 김침지 호부래비 영감한테 반해
가지고, 날마중(날마다) 가는 날 그 날부터 오는 날까지 ‘저 건네 김침지
조타불. 저 건네 김침지 조타불.’ 하고 저래 노래 부른다고. 이 양반의 집
안에 큰 우세(우사) 거리라고.”

이래 마 말로 하거든요. 그래,

“어무이요. 이런 노래로 그래 잘 배웠습니다(배웠습니다).”
카고 있다가, 그러구로 병이 났는데, 시어마이는 하늘에서 연꽃걸은, 연
꽃이 오디만은 탁 싣고 올라가고, 메느리는 그래 그래 살다가 난중에는
지옥 가더람더.

[남구 설화 61]

술이 만포장이네

이준연(여, 1925년생) 구술
2013년 2월 14일 채록
[용호1동 새마을경로당]

촌에 가면(가면) 단칸방에서 안 잡니꺼. 단칸방에 아들 다섯이 여섯이
비좁은 방에 자고, 탈상은 많고 제사는 많고 하이까네 인자, 참 사는데,
단칸방에 가는데, 뭇 일 있으몬 제사가 떡 다가오는데, 술로 옛날엔 술이
없이(없으니) 술로 단지에다가 해 넣어놓고 자는데.

그날 저녁에는(저녁에는) 할마이 생각이 얼마나 났는지, 술 도오(동이)
야불떼기(옆구리) 인제 영감이 자고 이쪽에(이쪽에) 자는데, 할마이 찾아
간다고 캄캄한 밤에 가다가 땡기다가, 마 이래 이제 아는 여럿이제, 술뱅
이 거 술 판지(단지, 즉 항아리) 모르고 이리저리 더듬다가 마 술배이 술
로 쏟아붓는 기라요.

술로 막 탁 쏟아이까네, 허 큰아들이 그 며 술 도오, 술통 야불떼기 잤
는데, 일어나더마는,

“술이 만포쟁이래(만포장이네, ‘아주 혼하고 넉넉하다’는 뜻의 경상도 방언).”
이카더란다.

[남구 설화 62]

다리 털어 복 나가는 병

이준연(여, 1925년생) 구술
2013년 2월 14일 채록
[용호1동 새마을경로당]

한 집에 촌에 사는데, 애들은 안 많고, 이래서 사는 기 항상 사는 기 가난해가지고, 돈은 버리가(벌어서) 들와도 나가는 줄도 모리게 나가뽀고, 만날 묶는 기 바빠가지고.

아- 만날 가난에, 가난에 쌓이고 가난에 쌓이고, ‘그 이우제는(이웃에는) 내카마(나보다) 못 벌이는(버는) 사람도 잘 묶고 잘 사는데, 어찌 되서러 이래 이러는고’ 싶어.

떡 어느 하리는(하루는) 시골에 어느 절에 가서 시님한테(스님한테) 물어봤는 기라고요.

“내가 어찌 돼서 내가 넘카마 많이 작기 벌지는 못하는데, 사는 기 이렇노?”

카이까네,

“당신 관상을 보니, 이이 그 발로 한분(한번) 내보라.”

이카더란다. 그리 발로 툅 내이 이 사람 발로, 항상 발로 터는 기라고요, 발로. [조사자 : 아, 복 나간다 카는.] 야. 발로 털고 앉아있으니, 시님이 발로 터이까네,

“아하, 당신 그것 때미로(때문에) 문제이카네, 이 발로 곤쳐야(고쳐야) 된다.”

고, 떡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이 발로 곤칠라 카모 우째야 곤쳐지겠노?”

카니,

“이 나이에 이제 곤칠 수가 없고, 이거 끊는, 발을 끊을 수백에 없으니 까 끊겠느냐?”

이라이까네,

“암만 몬 사는 것도 좋고 하지만은, 내 발로 끊고, 내 발 끊고 하몬 어찌 먹고 살겠느냐.”

고 이라면서, 그라이까네,

“당신이가 저 어데 땡기다 보면은 좋은 수가 생기기까네, 과거맨거로

(과거처럼) 붓짐을 지고, 옛날 김삿갓맨거로 보따리 쥐고 나가라.”
카는 기라고요.

“나가 땡기보몬 좋은 수가 생긴다.”

이거라. 그래 텅 인제 이 동네 가서 밥 얻어 묵고, 저 동네 가서 밥을 얻어 묵고 살다보이, 하루 저녁에(저녁에) 텅 그 집에 가서 하루밤 묵기(묵게) 됐는데, 인자 하룻밤 묵게 됐는데, 가마 보이 그 사람들은 거서 하룻밤 묵고 이틀밤 묵기 됐는데 보이, 일엽짜리는 돈을 안 벌어도 돈이 들고, 부자로 살고 밥도 쌀밥 묵고 잘 사는 기라고요. 그래서,

“어제서러 그래 이래 참 잘 사느냐고?”

이래 물으니까네,

“잘 사는 기 문제가 아이고, 부지런이 하몬 밥 묵고 깰바시몬(게으르면) 굶는다.”

이라이까네,

“그래 나는 어는 중이 하는 말이, 내 다리로 이래 툰다고, 복이 없어서 툰다 카는데, 이 다리로 안 굶고 살 재주가 없느냐?”

이라이까네,

“그 재주는 없는데, 내가 좋은 수로 갈차 줄 낀카네, 내 시기는(시키)는 대로 할라느냐?”

물더라민서,

“그래 시키는 대로 한다.”

카이,

“온(오늘) 지역에는(저녁에는) 우리 집에서 묵고, 널 지역에는 저 이 동네 큰 부잣집을 갈차줄 기 그 집에 가서 하룻밤 묵기 되면은, 그 집에서 청춘과부가 하나 있는데, 과부로 과부 그 과부로 업고 우리 집에 데려다 주몬, 내가 평생(평생) 무을(먹을) 거로 주겠다.”

이래, 그래 그캐서러,

“그기사 애럽지(어렵지) 않은 일이지 뭐.”

‘청춘과부 혼차 사는데, 그 뭐 없는 기 문제가.’ 싫어. 습기(습게) 생각하고,

“그라몬, 그래 그라몬 우리 묵고 살 거 주겠느냐?”

이래.

“주겠다.”

고 약속을 해가, 그리 떡 그날 저녁에 거 갔다 인자. 큰 부잣집인데, 참 청춘과부 중 뗏이 거느리고 사는데, 그날 저녁에 인자 아래채 거서 떡 묵기가 됐는데예, 그래 있으이까네, 종들이 인자 오가지고, 그리 우리 한 중년이 하나 그래싸이카네,

“아, 여보 당신은 어째서 이래 과거 땡기느냐?”

카이,

“그래 내가 밥 얻어 무려 땡긴다.”

고 이라이카네,

“아이구 글캐(그렇지) 당신 밥을 얻어묵고 땡기는데, 관상을 보이 [웃으며] 비루 묵을 관상이다. 비루 묵을 관상이다.”

이카는 기라.

“야, 그래 와 그러냐?”

이라이까네,

“다리 몸에 그 종들, 종들도 무시 못하는 기, 당신 몸에 저저저 터는 몸 그기 성질이 있기 때미로(때문에) [칭중 : 안 된다.] 안 된다.”

카는 기라.

“그럼 우찌 하면 좋노?”

“다리를 끊어야 되지. 안 끊으몬 안 된다.”

고 이라거든.

“그래 내가 이 다리로 끊으몬 땡기도 몬 하고, 우리 식구 다 먹이 살릴 수가 없다.”

이카이가네,

“좋은 수가 있다.”

고. 그래 갈차 줄라 카는 기라. 또 거서 가이 갈차 줄라 카거든. 야, 갈차 줄라 카이,

“그래 우째면, 우짜면 알겠느냐?”

이러카이께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부잣집을 하나 갈차 주이, 그 집에 가서러 당신은 그 집에 가가지고 주인 행사를(행세를) 하고, 주인은 나그네 행사를 하기 되면은, 어 나그네 행사를 하면은, 그래 이 다리가 터는 기 없어진다고. 그래 한분 해보라.” 캐서, ‘그기 과부 업고 땡기는 카는카마(것보다) 더 수월겠다’ 싶으거든.

그래 그래서 그날 저녁에 또 따라가서러 거 가서러 인자 주인, 좋은 요 이부자리 밑에 턱 가가 놓여가 있고, 그 주인은 인자 거 그 집에 가서 인자 또 나가가지고 한, 나가 있는데, 그리 새벽이(새벽이) 되이까네 주인이 오디만은 이 사람을 묶아내, 묶아낼라 카는 기라. 묶아낼라 카이, 오새(요새, 요즘) 같으면 사기꾼이지 그때는 도둑놈이라고, 그래 묶아낼라 카는 기라요.

“내가 댄 죄가 없고, 이래이래 해서 이런 사람이 날로 시기서(시켜서) 했다. 시기서 했으이까네 이거로 우째 나는 잘못이 없다.”

이라이까네,

“야 이 양반아, 당신 평상에 터는 발로 어데 간다고 곤칠 수가 없지. 그러이까네 앞으로 인지라도(이제라도) 안 턴 연구나 하지 댄 연구는 하지 마라.”

이카더란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다부(도로) 오더람더(오더랍니다). 야, 그런 얘기도 있었어예.

[남구 설화 63]

꼬꾸랑 이야기(17)

이준연(여, 1925년생) 구술

2013년 2월 14일 채록

[용호1동 새마을경로당]

어떤 사램이(사람이) 꼬꾸랑 길로 가이, 꼬꾸랑 할매가 꼬꾸랑 똥을 놓았거든요. [웃으며] 꼬꾸랑 똥을 누이까 어데서 꼬꾸랑 개가 와가지고 그 꼬꾸랑 똥을 조와(주워) 먹더람더. 그래가 그래 꼬꾸랑 할마이가,

“와 꼬꾸랑 똥, 내 똥을 와 묵노?”

카이까네, 개가 하는 말이,

“꼬꾸랑 껌, 꼬꾸랑 껌.”

카더람더.

[남구 설화 64]

호랑이보다 무서운 꽃감(2)

이준연(여, 1925년생) 구술

2013년 2월 14일 채록

[용호1동 새마을경로당]

호랭이 온다 캐도 겁을 안 내고, 늑대가 온다 캐도 겁을 안 내고, 누가 온다 순경이 온다 캐도 겁을 안 내고 있다가, 꽃감이(꽃감이) 꽃감 온다 카이, 꽃감 묵겠다고 좋아가지고 이거로 울음을 딱 그치더라.

그래서 꽃감 노래. 호랭이가 늑대하고 야 자무러(잡아 먹으러) 였다가 (왔다가) 야가 꽃감이라 카이 딱 그치이까네, ‘와이구 우짜꼬? 우리카마 더 높은 짐승이 있는가’ 달라빠더라.

겁나는 짐승이 있는갑다 싫어가 울음을 딱 그치이까네, 꽃감 준다 카이 묵는다고 딱 울음을 그치거든. 그라이까네 그 노래, 그런 얘기가 있었어.

[남구 설화 65]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6)

강신이(여, 1925년생) 구술

2013년 2월 15일 채록

[용호1동 영시경로당]

아들이 저 오테(어디) 돈 벌로 감서, 돈을 자기 마누라로 줌서,

“어무이 구완 잘 해라.”

이러카이, 이 떤우리가 돈 그 놈이 욕심이 나서 시오마이를 맛있는 거를 못 사주는 기라.

그래 살살 수채 구녕에(구멍에) 가 디비가이고(뒤집어서) 지렁이로 잡아 가이고 소금을 령고 썰거가이고(썰어서) 때마침 그 놈을 국을 끼리 주는 기라.

어따름(얼마나) 시오마이가 맛이 있던지,

‘이 아가 뭐로 이로 해 주는가’ 싶어가, 벌건 거 쥐어서 자리 밑에 [청중: 삶자리 밑에 웅었다.] 졸- 건지가 자리 밑에 웅었거든.
아들 돈을 벌어가지고 인자 몇 달만에 온게, 어마이가 마 살이 찌서 보하이(보양게) 이래가 있네.

“아이고, 어무이요. 이 자부이(자부가, 즉 며느리가) 이렇게 좋은교?”

“야야 메누리가 뭐로 해주는지 때마장(때마다) 그래 맛있는 걸 해조서 내가 묵고 살이감서, 그래 니 오거든 비이줄라고(보여주려고) 여 엉어났다.”

자리를 본께, 지렁이가 빼짝 말라가 있는 기라.

“엄마, 이기 지렁이다.”

“아이고!”

깜짝 놀람서 눈을 뺨뺨(번쩍) 떴빠더란다. [웃음]

[남구 설화 66]

꼬부랑 이야기(2)

손명금(여, 1935년생) 구술

2013년 2월 15일 채록

[용호1동 영시경로당]

꼬부랑 할매가 꼬부랑 낭게(나무에) 올라가서로, 꼬부랑 똥을 똥더니 꼬부랑 짹대기로 가이고, 꼬부랑 개가 조아무서로(주워 먹어서,) 꼬부랑 짹대기가 딱 때린 게 꼬부랑 깡깡 꼬부랑 깡깡.

[남구 설화 67]

남편 기다리다 죽은 각시와 각시당

송명식(여, 1928년생) 구술

2013년 2월 15일 채록

[용호1동 영시경로당]

옛날 일제시대 때, 군에 갔는데, 껄흔(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껄흔하고 머리 얹고 그냥 갔던가배. 군에, 일제시대 때.

그래 갔는데, 거 그래 가고, 진작 거 각시당 거 가가지고 동지선달 치 받아 머리 감고 목욕하고, 저 신랑 돌아오라고 기도하다가 얼어죽어뻘다는 기라. 그래 얼어죽었다.

[조사자: 그래서 각시당이 됐구나.] 예. 그래 각시당이 됐어.

[남구 설화 68]

닭 먹다 지네 독에 죽은 사람

김남이(여, 1946년생) 구술

2013년 2월 14일 채록

[용호1동 용친경로당]

저 살다가 몬살아갖고 다른 데 시집을 가가 살았는 기라. 사는데 본신량이 찾아왔는 거라. 그래갖고 해줄 켜 없고 닭을 한 마리 삶아갖고 부뚜막에 놔놓고, 물 질으러 신랑 보고 무라(먹으라) 카고, 물 질으러 갔다 온 새이(사이) 인자 신랑을 줬는데, 닭을 묵고 죽어뻘는 기라, 신랑이.

[조사자 : 아아 와 글노?] 그래 와 죽었는고, 저저 옛날에 어딴니꺼, 고을에 가서 인자 침에는 여자가 남자를 죽었다 이래 됐는데, 그기 아이고 닭 우에 지네가 지내가서 인자 죽어.

그걸 무어갖고(먹어서) 남자가 죽어뻘는 거라. 그서(그래서) 그런 거 밝혔는 거 그런 것도 있대예. 그런 얘기도 들었어. [청중 : 지네 독이 널 찌갖고(떨어져서).]

[남구 설화 69]

강피 훑는 팔자의 여인(47)

백대남(여, 1937년생) 구술
2013년 2월 14일 채록
[용호1동 용친경로당]

비가 너무 마이(많이) 와서, 들에 일하다가 집이 날아가노 어찌되는가
싶어서 들엿일 대강 해놓고 집에 들어온께네, 나락 덕시기 둥둥 떠서 방
에서 내다 보도 안 하고 있더라 카나 신랑이.

그래서 지가 한단 말이, 너무 억울해갖고,

“그놈의 글귀가 그렇게 좋아서 이놈의 쟁피 덕석 다 떠내려가도 모르
겠느냐.”

이러고 달라들었는 기라요. 본께,

“그 있어 보소. 내가 요고 하고 나면 나중에 당신 호강을 시킬란지.”

“그때 돼서 나 죽을라요.”

카고, 그 쟁피(강피) 덕석을 떠내려 보낸 걸 전부 건지더라 안 카요, 여
자가. 혼자 건지서 다 해놓고 나중에 한단 말이,

“이 쟁피를 혼자 잡수소. 나는 못 사. 죽어도 못 사니께 갈라요.”

이런께네 한단 말이,

“이적지도(이때가지도) 살았는디, 석 달 더 살다 가라.”

고 [웃으며] 신랑이 잡더라 안쿠나. 잡아 이제 몬 가구로. 또 그 말에 몬
이겨서 쳐져갖고 또 해보이 또 [청취 불능] 그래 나중에 안 돼, 과거를
(과거를) 했어요.

그런께 과거를 해갖고, 과거 강원급제를(장원급제를) 해가 떡 내려온께네
말끼를 떡 판게 마누래 가고 없어요. 가고 없어서, 가고 없은께, 신랑이,

“내가 과거 급제해가 오면(오면) 뭐 하노.”

그럼서(그러면서) 자기 혼자 방에 착 접어 누운 걸 병이 나, 아무것도
안 먹고 뱅이(병이) 돼뿌거든.

그래 왜 그러냐 해서 마누래가 갈 데가 옛날에 없이이 절에 갔는 기
라. 절로 떡 가고 기별은 솔솔 들은께네,

“병이 나갖고 집에가 누웠다. 한번 가봐 주라.”

“자기가 나인데 그렇게 했는데, 내가 뭇 허러 가봐 주겠습니까.”

이랬는 기라.

“그래도 그게 아이다.”

칸께, 절에(겇에) 어른들이 뭐라 해서 갔어. 떡 갈 끼라고 몇 만 마음을
뚫고 한께네 마 당상거리 상부가 덩덩 떠내려 오더라 안 카나. 그래 상
여가 내려온께,

“자기가 나는 그만이라도 기다리고 살았는데 단 몇 년도 못 기다려서 죽
었느냐.”

이기라. 그런께네 당상거리 상부가 몬 가고 돌아. 돈께네 인자 현단 말
이, 절에 어른들이,

“상부 가구로 속적삼이나 하나 벗어 걸어주라.”

이랬는 기라. 그런께 인자 자기 한 쪽에서 속에 옷을 하나 벗어갖고 떡
쟁가(끼워) 영이께(넣으니까), 상부가 호루루루 가더라 안 카나. 지 냄새
를 맡으이까. 그마이 그런 세상이 있어요, 옛날에는.

[남구 설화 70]

돌이 말을 하면 말해라

백대남(여, 1937년생) 구술

2013년 2월 14일 채록

[용호1동 용친경로당]

장롱 짜서 줄 때, 저그 엄마가 돌을 두 동이 딱 Ying 쫘는 기라. Ying
주면성,

“니는 시집을 가몬 어른이 뭐라 해도 옳은 말이 대척이고 옳으쿵 그르
쿵 말로 하지 말고 돌이 말을 허면 말을 해라이.”

그랬는 기라. 일 년 살아도 돌이 말을 안 하고, 이 년 살아도 말을 안 하
고, 돌이 말을 안한께네, 참 시아바이가 채리 보고 ‘야야!’ 카모 ‘예.’ 캐야
되는데, 고마 그것도 안 허는 기라.

그런께 시아바이가, 집안은 훨씬 너른 집안에서 메느리가 말로 안 해,
3년이 됐는데 말로 안하거든. 그래 작은집 머슴들 다 부르고 저그 집 머
슴들 다 부르고.

“예, 오너라. 안 되는 기라. 실고 가, 친정으로. 친정으로 실고 가자.”

이제 이래 댜는 기라. 소박이라. 실고 가자 이러이께네, 온 집안 들썩 들썩 지가 가서 또 돌을 떠서 이래 왔는 기라.

“돌아 돌아 니가 와 말로 안 하노? 니가 말을 해야 내가 말할 낀데, 어째야 되겄노? 어째야 되겄노? 내 신세도 낭패고 니 신세도 낭패다.”

이제 이랬는 기라. 그러고 떡 와서 본께, 시아바이가 일꾼들 다 챙기고, 마 요새는 차가 있지만은 그때는 가매 아이요, 가매. 가매를 태아가 (태워서) 시아바이도 어른이께 태우고 사인교 태우고, 메느리는 사인교 태우고, 시아바이는 앞에 가매 기냥 태우고, 큰절 떡 챙겼는 기라. 챙기가 저리 인자 일꾼들 뒤에 다른 사람들 있고 앞에 가고 산 만데(꼭대기) 저 동구말에 산, 여기서 걸으몬 독수산 만데 여쭙 올라가서 떡 올라갖고 일꾼들 댜께(대니까, 즉 힘드니까) 툅 내라놓고 있는데, 지가 하도 기가 차갖고 쫘이(쨍이) 툅툅 킅킅 하고 달나거든(달아나거든). 그런이까 지가 하는 말이, [손뼉을 치며] 손뼉을 탁 뚜드린께, 가마 안에서 ‘와 손뼉을 치는고?’ 쳐다보더라 안 카나. 하인 보고,

“오보소(와 보소). 오보소. 세상에 내가 이래갖고 어찌 우리 집으로 그냥 갈 건교?”

그런께 이 말 한 개도 못하는 기 그 소리로 한께, 손뼉을 치면서 그런께 기가 차거든.

“그러몬 어찌 해야 되노? 내가 이래가 우리 집엔 절대 몬 갑니다. 저 산 만댜이 쫘 올고 가는 거 들어보소.”

칸께, 그래 들리더라 이렇게,

“털털 터는 저 쫘지는 시아바이를 주야 된다.”

하더라. 시아바이가 다 덮어준께네, 콕콕 쫘는 주당이는 시누이 쫘야 되고, 그께 노래가 돼노이 엄청 잘하는 기라.

“콕콕 쫘는 저 주당이는 시누야시 주고 쫘고(쫘고), 털털 터는 이거는 시아바이 주고 쫘고, 짹짹 헤빈 이거는, 시어마이는 만날 메느리 헤빈께, 짹짹 발 요오는 시어마시 삶아줘야 되고.”

그래 인자 그걸 다 하거든요. 그래논께 절에서 이 메고 가는 사람들이,

“어르신 이거 아닙니다.”

칸께,

“와?”

캐.

“아가씨가 역수로 얘기를 잘 해요. 오보이소.”

칸께 떡 오거든. 시아버지가,

“야야 뭘 소리고?”

“아이구 아버지 죄송합니다. 우리 엄마 시키는 대로 해서 내가 지금 이리 댔습니다.”

칸께, 소박 맞네 카다가 그래,

“을 엄마 시키는 대로 해서 그렇심더.”

칸께,

“엄마가 어떻게 시키더노?”

“내 장롱 안에 돌 두 개 말하든, 내 말할 수, 말을 3년이나 안 했다.”
그러거든. 시아버이가,

“진작 그러몬 내 보고 얘기를 하지. 왜 안 했노?”

카더라 안 카나. 아이구 이이. 시아버이가 진작 내 보고 얘기를 하지 그렇게나 말하면, 옛날 클 때는 엄마 말로, [청중 : 그래 병어리 삼 년.] 그리 인자 시아버이가,

“돌리라. 돌리라 인자.”

가매 돌리서 저그집 도로 들어오는 기라. 자기 집으로 들어온께네, 문 앞에 들어온께네, 시아버이 한다는 말이,

“이 사람들아 이런 갱사도(경사도) 있다. 우리 메느리가 벽수(‘말을 못 해 답답한 사람’의 뜻)가 아이고 시아버지가 벽수라.”

하더란다. 그러이까,

“왜?”

카이,

“내가 멍청이라서 이걸 몰랐다.”

함서(하면서), 돌을 두 개 갖다 놔.

“아버님, 이거 우리 어무이가 돌이 말을 하거든 말을 해서 못했습니다.”
그러니께 인제 자기는 클 때 원만한 가정교육을 배웠는 기라. 옳은 말이 대청인께 평상 말하지 마라 카고, 그래 살아갖고 너무너무 미안타 칸께, 시아버이도 너무너무 메느리 보고도 고맙다고. 먼지 인자 딸 보낸다고 사났던 걸 보냈잖아, 그 사돈집이.

[남구 설화 71]

깍귀 물리는 소리

백대남(여, 1937년생) 구술

2013년 2월 14일 채록

[용호1동 용친경로당]

할배는 근게 인자 엄나무 저 내나 손님잡구(손님 잡귀) 구신을(귀신을) 불러놓고, 엄나무, 엄나무 밭 까시거든요. 까시 거게다가 말아갖고,

“대동강에다 던지낄께네 썩 물러나가거라 썩 물러나가.”

그리 물리더라 카요. 하러(하루) ‘허시사’ 딱 밥을 들른. 그 인자 구신 부르는 기라. ‘허시사 허시사’ 두 번 부르거든요. 세 번만은 ‘동네방네 삼대왕님네, 대원국 손님네 유두 손님 둘 손님’ 다 모아 불러요.

불러 놓고, 이거이 탄 기 아니고 어느 사람이 이리 안 좋으니까네, 이 한방이 이바지하고 좁방이 이바지 하고 다 받았으니, 용을 잡숫고 다 물러나라 이기라. 다 물러나야 되인께네 마이 잡숫고 가세요. 그럼서 인자 ‘허시사 허시사’ 하고 불로 쫓아냈어.

[남구 설화 72]

손자를 삶아 먹은 치매 걸린 할머니

김양자(여, 1940년생) 구술

2013년 2월 14일 채록

[용호1동 용해경로당]

닭이 묵고짚아가지고(먹고 싶어서) 할매가 마 손지를(손주를) 갖다가 마 인자 쪼깨니까는 그랬지.

손지를 솥에 열어가(넣어서) 닭이라고 삶았어. 삶아가 뜯어 묵었어. 묵고 메느리 오이카네,

“아이구 야야, 닭이 어찌 묵고짚어서 한 마리 사가이고 잡아가이고, 노

망이 들렀던가 봐, 잡아가지고 술에 삶아놔는데,

“니도 좀 무봐라(먹어 봐라). 참 맛있더라.”

이래서, 메느리 술을 딱 열어보니까 아를 술에다 삶아 넣었어. [청중 : 그래 그거 모 송구러 가가 아들 메느리 모 송구고 오가이고.] 그렁더라 대. [청중 : 알라를 보라고 시어마이 맬기 왔는데.] 그래 아를 그래 닭이라고 인자 술에 열어가 삶았어. 묵고짚아갖고. 눈은 어둡고 [청중 : 치매다. 치매가 오고.] 그래가 맛있더라면서,

“니도 한번 무봐라. 좀 묵고 놔놔다.”

이래서, 문을 열어보니 아로 똑 술에 삶아갖고 뜯아먹고 놔놔다.

[남구 설화 73]

강피 훑는 팔자의 여인(5)

김양자(여, 1940년생) 구술

2013년 2월 14일 채록

[용호1동 용해경로당]

쟁피로(강피로) 훑어가지고 늘어났는데, 비가 오가 마 다 떠내려가뻘어. 그런데 남자는 마 책만 읽고, 마당 다 떠내려 갔는지 그것도 모르고 마 기양(그냥) 놔놔어.

오몬 너무 보굴(‘골’의 방언) 나가지고 마 탄 데로 가뻘어. 가뻘어마는 이 남자가 과거(과거) 공부한다고 지는 그렸던가 봐. 공부를 마이(많이) 해가, 과거 해가 과거 걸렸어. 걸리가지고 인자 머리에다가 마 꽃을 꽃고 이래가 인자 그거로 떡 말로 타고 이래 오이카네, 그 여자가 탄 데 갔는데도 또 그 쟁피를 또 훑고 있더라. 그래 지내가면서,

“저게, 저게 있는 저 부인은 한번 돌아보라.”

카더라.

“옛날에 훑던 그 쟁피 또 다시 훑구나.”

이라더라. 지 팔잔가 봐. 거 가도 그런데 또 갔는가 봐. 그래 또 그거를 훑고 있더라. 남자는 인자 과거에 걸렸고.

[남구 설화 74]

지렁이 반찬으로 시어머니 봉양한 며느리

전봉식(여, 1933년생) 구술

2013년 2월 14일 채록

[용호1동 용해경로당]

옛날에 못살아서러 아들이가 인자 군에 가고, 인자 메느리가 인자 마-
고기가 묵고짚아서 이라모, 지렁이로 잡아다가 탁 밑에 그래 끓여가지고
반찬을 요래 해주이까네, ‘어찌 없는데, 무슨 요래 맛있는 거로 해주는가’
싫어가지고 아들 오모(오면) 준다고, 하나씩 하나씩 자리 밑에다가 열었다 카대.

열놓으이까네, 아들이 군에 갔다가 오이까네,

“하이 이거 니 줄라고, 어찌 메느리 이래 잘해조서 이거 묵고, 묵으이
[칭중 : 눈이 안비던갑다.] 눈 안질이 안 좋아가 맛있어서 나왔다.”

카메 아들을 주더람더. 그래 효자라고, 그래 잘 사더라 카네.

[조사자 : 아 그 안자 며느리가.] 우리 옷것에 거기 그래가지고,

“엄마요 이기 다른 기 아이고 아무 거 무슨 곰탕.”

카이까, [놀라는 시늉을 하며] ‘어!’ 카면서 눈을 펴뜩 뜨더란다. 지렁이가
그래 맛있더라요.

요래 그래 끓여가지고 고래 반찬을 해주는데, 돈은 없고 옛날에 못살
아서러, 그래 나만 노인네라 안질이 안 좋고 그래가 메느리 그거로 인자
파다가 해다가 내 고거로 끓여가 주고, 그래 어찌 맛있어서, 아들이 들으
몬 준다고 하나씩 하나씩 자리 밑에다가 열었더라 카대.

열어왔는데 오이까네 그러카이까네 마,

“엄마 이기가 아무 무슨 고긴데, 우찌 이랬는교.”

카이까네, ‘응!’ 카매 눈을 편쩍 뜬다 카대. [웃음]

[남구 설화 75]

내 방귀 먹으라

최정숙(여, 1933년생) 구술
2013년 2월 14일 채록
[용호1동 용해경로당]

옛날에 시어마니가 있고 시아바시가 있는데, 참 방구를 몬 꿇어예. 그
래가 오줌 똥을 톱 이래 인자, 옛날에는 [조사자에게] 와 이리 동이 안
있습니까?.

오줌 똥을 시아바이는 장군이를 지고 가고 앞에, 밭에, 메느리는 오줌
그거 통을 이고 가는데, 참는다 하는 기 마 앞에 인자 시아바이를 보내
놓고 방구를 마 펄펄펄 펄뻘리끼네, 그래가 꺾가지고 뭐라는고 하이께
네, 즈그 신랑이라고,

“이거 니 까무라.”

이러겠거든. 이 돌아보이께네 시아바이거든예.

그래가지고 이 메느리가 미안해서 부끄러바서러 마 그 이튿날 가가 밥을
안 했는 기라예. 아침에(아침에) 밥도 안 하고 눕어가지고 ‘하- 우찌 하고
나가겠노’ 이러하이께네, 시어마이가 요술을 부렸어예.

“하- 영감 영감, 니가 귀 어둡은 요랑(‘요령’의 방언) 하라.”

하라 카더라 카네. 그래 인자 그 이튿날 시어마시가 가가지고,

“[애타게 부르듯이] 영감- 영감-.”

카이께네, 또 덤덤. 찼어요. 또 그 이튿날까지,

“영감- 영감.”

캐도 덤덤. 또,

“영감- 영감.”

캐도 덤덤. 사흘로 그렸는 기라요. 그라고 나이끼네, 아- 메느리가 ‘우리
시아바이가 귀가 어둡아서러(어두워서) 안 들었구나.’ 카민서러 그 뒤에
부텅 나아가(나와서) 정지에(부엌에)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그래 해
주더랍니다. [조사자 : 아, 할매 얘기 재밌네.] [웃음]

[남구 설화 76]

시집가서 도둑질 멈춘 며느리

김경순(여, 1923년생) 구술
2013년 2월 15일 채록
[용호2동 백운노인회]

옛날 한 마을에 살았는데, 살았는데 뒷집에 아가씨가 하나 있어요. 메느리(며느리)로 봐야 되는데, 메누리 도둑질로 잘 한다 캐서로 시아바이가 그 사람을 메누리로 맞이했어. 맞이했는데, 마 시집 와갖고는 도둑질로 안 하는 기라. 통 안 하는 기라. 뭇 달이 지내가도. 그래 메누리로 불러놓고 물었어.

“야야, 니가 며 그걸로 잘 한다 캐서 내가 봤는데, 불렀는데, 메느리로 봤는데, 왜 그래 못 하노?”

카이,

“내 하긴 하겠어요. 하겠는데 뒷감당을 하겠냐고?”

시아바이보러 따지운다(따진단) 말이야, 메누리가. 따지우이카네,

“오! 내 뒷감당한다.”

이래 돼쫓는 기라. 그래 인자 앞집에 맹주(명주), 맹주 그거는 물에 적시 놓으론 열매 안 되거든. 그래 인자 죽- 늘어났는데, 다 주섬주섬주섬 걷어가 왔어, 메느리가. 걷어와 시아바이 맏겼어. [조사자: 몰래?] 몰래 걷어와 갖고 인자 시아바이가 안 한다 캐사서, 시아바이로 줬다 말ियो. 와이고! 뒷집에서 추러(숨겨놓은 것을 찾으러) 나오는 기라. 추러 나오니,

“아이고, 메눌애야 우짜꼬? 우짜꼬? 우짜고? 이거 우짜꼬?”

감당을 못 하는 기라. 뒷감당을 못 하는 기라. 그래가 메누리가,

“못 하면서로 왜 가져 똥쳐오라(흠쳐오라) 카느냐고?”

그래 시아바이한테 그래 놓고, 이 맹주를 갖다가 물에 적시오. 물에 적시문 이렇게 많던 것도 요래뻘에 안 되거든. 밥술에다 딱 까는 기라, 깔아. 쌀로 한 바가치로 퍼다가 마 씻거(씻어) 안치와 놓고 불로 땀다 말ियो. 뽕덕뽕덕 끓을 거 아인교? 그럼 밥이 되지, 맹지 거 타기나 말았기나. [웃음] 그렇더라요.

[남구 설화 77]

내 복에 산다

김경순(여, 1924년생) 구술

2013년 2월 15일 채록

[용호2동 백운노인회]

한 집은 딸만 서이라요. 서인데, 이 딸이 딸 복을, 딸하고 잘 사는 기
라. 잘 사는데. 이런 양영이가 낫았어. 아바이라 카는 놈이 낫았어. 큰딸
로 불러가지고 물었어.

“야야, 너는 누구 복으로 사노?”

이러카모,

“아버지 복으로 사요.”

이러카이 좋다 하거든. 둘째 딸 하이까(하니까) 또 그라거든. 또 좋다
하거든. 막내보고, 딸보고 그라이카네,

“나는 내 복으로 사요.”

이라거든.

“에이 이년아.”

카고 후둑가내뻘어(쫓아내버렸어). 쫓가내뻘어. 그래 인자 그 질로 갔어.
산을 산을 땡기다가 숯 끊는 데 드가이 이 주춧돌(주춧돌)이 전부 금이
라요. 금인데,

“그래 숯 끊지 말고.”

충각보고,

“이거 빼라고. 빼가지고 집에 지고 가자고.”

하이까네, 어마이하고 둘이 살거든. 요래 샀는데, 똑똑 요마이 떼가지고,
“장에 가서 팔아오라.”

카더라요.

“그래 이거로 얼마로(얼마나) 둘라 카꼬?”

이래 카이까네, 돌메인데(돌맹이인데). 즈검마도(자기 엄마도) 돌메이라.
저거 마누래도 돌메이고, 그 사람 눈에도 돌메인데, 이게 지 복이까네,

지 복이니까네, 금띠(금덩이)라 금띠라 말이야. 그래가 그래가지고 인자,
“가서 돈 얼마 받아 오꼬?”
이러카이,
“가서 딱 깔아놓고 었어, 딱 채리, 종이 거 었어 놓고 얼마냐 묻거들랑,
지 금만(그것에 알맞은 비용만) 다 주소 이러 카라.”
카거든.
“지 금만 다 주소.”
아, 돈을 술해게(술하게, 즉 많이) 주거든. 돈을 이렇게 주거든. 돈을.
그래서 ‘아하, 그럼 집에 두 덩거리 빼다난 저기 얼마나 돈이 많겠노’
싫어 마 참 좋거든, 이 총각이. 그래 인자 처이(처녀)는 마 그 집에 있다.
그 집 어마이하고 살고 있고, 고기 사고 쌀 팔고 마 모든 걸 전부다 마
한 짐 사가 집에 가 드갔단(들어갔다) 말이야. 가 드가 묵는데, 그놈을
좀 떼가 반쯤 팔아가 집을 날라가는 듯이 지왔는 기라.
그래 인자 그 사람하고는 겔혼(결혼)을 할라고 약속을 해놓고, 그래 인
자 집을 지왔는데, 그게 지 복이란 말이야. 대문을 해가 달기로 어찌 해
가 달았노 하모는 열모는(열면) ‘내 복이요~!’ 소리가 나도록. 그래 달으
모는(달으면) 또 ‘내 복이요~!’ 소리가 나도록.
그래 인자 저 아바이가 기가 차, 마 망하는 기라, 그 집은. 그 딸이 떠
나고 나िका네. 그래가 딱 망해서러, ‘아무데 거는 부자가 됐다 하는데,
우리 거 아무것이 아인가? 한 번 가 봐야되겠다.’ 싫어서 가보이, 문을
여이까네, 딱 마리(마루) 끝에 서가 있는데, 딸이 서가 있는데, ‘내 복이
요!’하고 감(고함)을 질러 문이.
그래 하더라고요.

[남구 설화 78]

딸로 변신하여 가족을 잡아먹은 여우

김경순(여, 1924년생) 구술
2013년 2월 15일 채록
[용호2동 백운노인회]

부자로 사는데, 하룻밤 자고 나йка네 소가 한 마리 죽어뿌고, 또 하룻밤 자고나이 또 개가 한 마리 죽어뿌고, 돼지도 한 마리 죽어뿌고, ‘아, 이거 큰 일 났다’ 싶어서 즈그 제일 큰아들이, 큰아들이 도망을 가뵈어요.

도망을 가가 뗏 년 후에 오йка네, 말끔(모두 다) 저거 엄매 저그 아배 다 잡아 묵고, 야시라 야시. 딸이, 딸이 여우라. 소 다 잡아 묵고, 집구석 바짝 말랴가(말려서) 쑥대밭이 돼가지고, 눈이 빨가이(빨갛게) 해가지고 들앓아 있어.

“[노래조로] 오래비한테 말한테 두 뗏거리 생긴다.”

카더라요. 즈그 오빠 잡아 묵고 또 한 때, 말 그거 또 한 마리 잡아 묵고 또 한 때. 그래 그러카더라요.

[남구 설화 79]

욕심 부리다 망한 나무꾼

박판시(여, 1929년생) 구술

2013년 2월 15일 채록

[용호2동 백운노인회]

저 산골에 스님이 한 분 살았는데, 옛날에는 그 먼 데서 내려 와가지고 석불로 쪼개 얻어가 갈라몬 너무 힘이 들어서, 고마 산에 마 내려왔다 올라가다가 쓰러져 있는 거라.

쓰러져 있는데, 그래 누군고 모르고 인자 옷을, 스님복을 입어난께로 알고, 나무꾼이 그래 도랑물로 떠다 먹이고 자기 도시락 싸가 간 거로 스님을 먹이난께네 일났는 거라.

그래서 인자 그 스님이 일어나지고,

“내가 아무것도 공이 할 것도 없고, 이 사람아, 내가 꾸부러져서 기절로 했는데, 자네 덕에 살았는데, 요 요 등 너메 가몬 산삼밭이 있는데, 거 가갖고 그거로 큰 거로 캐지 말고, 작은 것도 캐지 말고, 중간 거로 두 뿌리를 캐가 가몬 자기 평상(평생)을 잊어뵈거네(잊어버릴 것이네).”

그라는 거라. 그래 턱 가본께 산삼밭이 꼭 있는데 마, 큰 기 이런 게 있는데, 작은 기 그기 중간 기 눈에 안 보이서 마 큰 놈을 두 뿌리로 빼 난게네 마 한 짐인 기라. 그래 지고 시장에 팔로 떡 가본게네, 고마 그거 썩은 장작이 댔뻤더라. 썩은 나무가 댔뻤더랍니다.

그란게네 욕심을 너무 부리난게네, 도이 스님이 자기 살아 은공으로, ‘중간 것만 두 뿌리 빼갔이모 자기 평상은 잊어뻤거네.’ 그랬는데, 욕심을 부리가 마 큰 놈을 빼가지고 가난게, 시장에 팔로 간게노 마 나무가 댔뻤더라.

[남구 설화 80]

자식 죽여 부모 살린 효부[산삼동자 이야기]

박판시(여, 1929년생) 구술

2013년 2월 15일 채록

[용호2동 백운노인회]

스님이 시주 하러 왔는데,

“스님, 저 시어머이가 병이 났으니까네 약이 없습니까? 스님 좀 걸차 (가르쳐) 주이소.”

이래 쿠는 거라. 그란게,

“약이 한 가지 있기는 있는데 어렵습니다.”

이라는 기라.

“그래 암만 어렵아도(어려워도) 스님 좀 걸차 주이소.”

삼작에 따라 나감서로 매달리니까,

“그래 인 고기를 먹으몬 낫는데 한 가지 딱 약이 있다.”

이라는 기라. 어렵다 카는 기라. 그라몬 자기 아가 네 살인가 다섯 살 인 가 묵는, 걸어댕기는 아가 있는데, 그래 가를 보고는,

“가를 삶아 먹이몬 낫는다”

하는 거라. 그래 남편한테 의논을 하니까 어름(어림)도 없더랍니다.

“부모는 질서대로 가야지. 나는 새끼로 안 된다.”

이라는데, 그래가 아무도 모르게 가매술에 물로 폴폴 낚이가 왔는 거로, 아를 살 꼬아가지고(피어서),

“이 잡아 주꾸마.”

쿠고, 꼬아가 빨기가이고(벗겨서) 그 물에다 잡아 여뻐다(넣어버렸다) 쿠네.

그 스님이 이 메느리가 정성이 너무 고맙아서(고마워서), 동삼을 딱 아를 맨들어가 걸리가 딱 드리보내고, 고 아는 자기가 싹 잠깐 심꿔다가(숨겼다가), 그래 인자 절에 데꼬 가가 좀 키아가지고, ‘그래 그 부모님 인자 공경을 얼마나 잘 하노.’ 싶어가 보이께네, 어두운 눈도 낮고, 얇은 뺨이도 낮도 다 낮아서 그래 그 아를 보냈더랍니다.

“내 아들 아이다.”

쿠고 이란께네, 그래 스님이 그래 이야기를 다 해주더랍니다. 그래 됐다.

[남구 설화 81]

강피 훑는 팔자의 여인(6)

박판시(여, 19259년생) 구술

2013년 2월 15일 채록

[용호2동 백운노인회]

그 인자 겔혼은(결혼은) 했는데, 남편은 내- 공부만 디다 보고, 여자는 온갖 농사를 다 지아도 비가 억수같이 와가 논이 다 떠내려가도 모르고 있어서, 그래가 남편하고 살다가 마 남편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혼을 하고 갔다 카네. 여자가. 딴 데 살러 갔는데.

그래가지고 인자 농사 짓는다고 앞드려가 있으께네, 말로 타고 가며 인자 성공을 했는 기라, 이 남자가. 베실로(벼슬을) 했는 기라요.

베실로 해가이고 말로 타고 가이께네 여자가 눈에 앞드려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래이께네 인자,

“저기 있는 저 마누래 옛날에 훑던 강피 다시 훑고 있네. 저 한번 데리고 와 바라.”

인자 그거 뭐라, 뭐라 캐야 되노. 종이라 캐야 되나?
[조사자 : 종보고 시켰네?] 야. 종보고 시키이께네, 그럴 때사 잘 못했
다고 절로 하고 그라더라 카대.

[남구 설화 82]

며느리의 방귀 힘

김술화(여, 1925년생) 구술
2013년 2월 22일 채록
[우암1동 제2노인정]

옛날에 딸아 이렇게 시집을 갔는데, 저저 집에서 얼굴이 노래져서, 그래,
“야야, 와 니 얼굴이 그리 노래?”
“내 집에서 하던 버릇을 못 해가.”
“그래 집에서 하던 버릇은 뭐, 해 봐라.”
그런게네,
“그럼, 하모 아무 문책이나 안 하겠습니까?”
그래.
“아, 그래 해 봐라.”
이러니까,
“그러모 시어머님이 가매(가마솥)쫼 붙잡고 시아바님이 쇠고시(쇠고리)
붙잡고 그래 있으소.”
그래서 그러니까 방귀로 어찌 쫼는지 방귀 바람에 시어마이 가마솥 넘어
갔다 넘어갔다 넘어갔다 하고, 시아바이 쇠고시 넘어갔다 넘어갔다 하고,
“메눌(며느리) 메눌 고만 고만. 메눌 메눌 고만 고만.”
그랬답니다.

[남구 설화 83]

시아버지 몰래 떡 먹다 죽은 며느리

김술화(여, 1925년생) 구술
2013년 2월 22일 채록
[우암1동 제2노인정]

옛날에 시어마이, 저 며느리하고 시아버지 살았는데, 하루는 이래 시아버지가,

“막내딸이 떡 해 오는지 택이(택이) 배랍다(‘가렵다’의 옛말).”
이러거든.

[조사자 : 뭐 한다고?] 막내딸이 떡 해 오고 있는지 택이 배랍다 이러거든. [조사자 : 아, 택이 배랍다.] 택이 배랍다. 시아버지가 그러거든.

그니까 며느리 하는 말이, 그니까 아들이 저 서울 공부하러 갔거든요. 그래,
“아이구 아버님은 막내딸이 떡 해오겠다 택이 배라워도, 나는, 서울 갔던 신랑이, 두덩(여성의 생식기 둘레의 볼록한 부분)이 배랍소.”
이랬어.

[조사자 : 두택이 배랍다?] 에. 그런데 신랑이는 안 오고, 막내딸이 떡 해 왔거든요.

그래 시아버지가 밍다고, 밍다고 혼자 먹었어. 시아버지가 혼자 먹으니까,
“시아바이 저저 보리밭에 말이, 말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달개(달려) 나간 시간에 그 떡을 먹고, 떡 먹다 시아버이 들어오는 바람에 변소간에 가, 변소간에 가서 떡이 걸려가 죽었더랍니다.

[남구 설화 84]

강피 훑는 팔자의 여인의(77)

백복도(여, 1920년생) 구술
2013년 2월 22일 채록
[우암1동 제2노인정]

이전에 하도 남자가 참 집안, 집안 일은 우찌되거나 마 우찌 글빠이

(글밖에) 모르는 기라. 비가, 비가, 옥혜(위에) 늘어놓고, 비가 와도 생전에 거 걷어 들을(들일) 줄 모르고. 옥혜, 참 채 덮을 줄도 모르고 글만 보는 기라. 그래 비가 억수로 따라도 그냥 나뒹눕고(놓아두고).

그래 여자가 하도 없어서 인자, 저 김해 너른 들에 대이면서(다니면서) 피로 훑어가지고 인자 묵고 사는 기라. 피로 훑어가지고 묵고 살아.

그래이 참 남자가 그러구로 과개를(과거를) 해가지고, 그리 여자가 마살다가 복지(복장이) 타 못 살겠다 카고 고마 가뻘어.

[조사자 : 탄 테?] 야. 탄 데로 가뻘는데, 가도 또 그런 기라. 또 남자 또 그래 못 살고, 그래 못 사는 기라.

그래 남자가 참 이전에 참 정승을 해가지고 말로 타고 오이컨데(오니까), 김해 들 너른 들에 가서 또 갱피를(강피를) 훑는 기라. 훑어. 그래,

“갱피 훑는 저 부녀는 무슨 팔자 저리 좋아 훑던 갱피 다시 훑노.”
이러카이까네,

그래 갱피를 훑다가 보이, 저거 본 남잔기라. 그래 내빼리뿌고, 마 인자.

“내가 말죽을 끼리 주고 소죽을 끼리 주도 내가 따라 갈라.”

카이컨데, 그래 물로 도오다(동이에다) 한 도오 내 놓으면서,

“이 물 부어가지고 마다아(마당에) 부어가지고 다부(도로) 담으몬 한 도오 되몬 오가 있고, 한 도오 반, 한 도오 안 되몬 못 있는다.”

하거든. 그래 물로 참 한 동우 부어가지고 마당에서 부우컨데 반 도우밖에 안 되는 기라. [조사자 : 아무리 줄어 담아도?] 다 줄어 담아도. 반 동우백이 안 되더라. 그래 참 그 집에서 종질로 하고 있더라 카네.

[남구 설화 85]

계모의 구박을 이긴 본처 딸

백복도(여, 1920년생) 구술

2013년 2월 22일 채록

[우암1동 제2노인정]

이전에 다신애미가(의붓어미가) 어찌기 독한지 밑궁 뚫어진, 집에 놀로

가민서, 달아가지고 놀러가민서,

“밀궁 떨어진 그룩(그릇)에다가 물로 한 동우(동이) 여다 놓아라.”
카더라. 암방 여다 부도 안 되는 기라. 암방(암만, 아무리) 여다 부도, 밀
궁 뚫어진 데 물이 갹히나(고이나).

그래 뚜꺼비(두꺼비)로 한 바리가 있는 거로, 한 바리씩 나오는 기. 나
오몬 만날 그 뚜꺼비로 밥을 퍼몬, 밥을 쪼깨금 주고, 밥을 쪼깨금 주이
전데, 그래 뚜꺼비가 말로 하는 기라.

“그래 내가 이 드문(두멍) 밀구녕에 들어가 엇디리 있을기전데, 물을
여다 부우라.”

그래 뚜꺼비가 두무 밑에 엇디리 있을꺼네, 그래 인자 물로 여다 부우
꺼네 물이 한 독 되는 기라. 한 동우 되이꺼네, 그래 인자 오디마는,

“오늘은 우째 물이 한 동우큼 되노?”
이커카거든. [조사자 : 그 계모가?] 계모가.

“그래 모르겠다.”

이카이커네,

“그래?”

그래 뚜꺼비가 가민성(가면서),

“이래 하지 말고.”

그래 또 하리는(하루는) 인자 또 뭐라 카는 게 아니라,

“동지선달에.”

지금은 오만 기 있지만, 이전에는 참 미나리같은 그런 기 동지선달 어
데 있나 그래. 그래 인자 동지선달에 가가지고 인자 계모가 상추하고 미
나리하고 구해 오라 카면서 본처 딸로 훗는(쫓는) 기라. 후쳐까네, 본처
딸이 인자 후득히서 나갔는 기라.

이전에는 서모가 하도 벨라이, 그래가지고 인자, 그래 해는 다 지고, 저
산골짜기 가가지고 방구 밑에 가가지고 어매야고 짜다라 우이꺼네 그래,
방우 돌문이 와르르르 열리더라.

[조사자 : 방구에 돌문이?] 돌문이. 그래 열리는데, 그래 나오디, 선비가
하나 나오디마는,

“그래 와 우느냐고?”

그래.

“동지선달에 날로 미나리하고, 그래 없는 거로 구해 오라 캐서 아무리 봐도 없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이러카이, 그래 미나리하고 그 인자, 그래 수박 수박 외하고 그래 주거든. 그래 주는 거로 가지고 그래 오이꺼네,

“그래 이거 어데 가서 가 왔노?”

이카더라. 놀래거든.

“그래 줄어, 줄어 왔다.”

이카이,

“그래요. 내일 또 가서 까지(가지)하고 호박하고 해가 온나.”

[조사자 : 하따 그참.] 그래 인자 거 가서 또 인자, 그래 인자 그 카거든.

“다음에는 오거들랑 수영버들 청정 버들잎하고 어이 왔다 문 열어라 이카모 문을 열어 줄 기라.”

이카거든. 그래 인자,

“수영청청 버들잎하고 어이 왔다 문 열어라.”

물이 와르르 돌문이 열리더라. 그래 인자 뒤따라 뒤따라 가봤는 기라, 계모가. 가이카네 문이 왈- 열리거든. 지는 인자 활 가서, ‘수영청청 버들잎아 오이왔다 문 열어라.’ 캐도 암만 캐도 안 열리거든. 안 열리. 그래,

“니는 가서 그 돌문이 열리는데, 나는 와 안 열리노?”

이카이,

“아, 그 시기는 대로 하몬 된대요. 내 하는 대로 하라.”

해. 그래 해본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기라. 그래 인자 한분은 가이,

“수영청청 버들잎아 어이왔다 문 열어라.”

카이, 문이 확 열리는 기라. 그래 열리디마는 안에 마 딱 가되뿌고(가두 어버리고), 마 안내놓더란다. 그래 그서 마 죽어뻘는 기라.

[남구 설화 86]

이야기를 사서 도둑 물리친 영감

심동석(남, 1945년생) 구술

2013년 2월 22일 채록

[우암2동 산수경로당]

거 촌에, 그 옛날에 산골짜기 두 영감 할멈이 계셨는데, 이 영감 할멈이, 아주 산골짜기라 인적도 없고 그런 골짜긴데, 둘이 진짜 저녁만 먹으론 고냥 마주 쳐다보고 코만 쳐다보고 이래 있다 보니까, 할마이가 인제 하루는 영감보고,

“영감, 이렇게 둘이만 이렇게 눈만 쳐다보고 있으니 심심하니까, 저어 그 뭐 마을에 내려가가지고 허다 못해 이야기라도 어디 가서 돈을 얼마든지 주고 좀 사오라고.”

인제 이런 기라 인제. 그러니까 영감이,

“그래 보까.”

그러고 그 행낭을 인제 준비해가지고 마을로 내려왔어. 내려와가지고 어느 한 동네에 와가지고, 정자나무가 이렇게 우거져 있는데, 정자나무 밑에 이렇게 있으니까, 거 인제 그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요게 쫘 이야기 쫘 살 수 없느냐고?”

어, 그러니까 이 인제 처음 들어보는 소리거든. 뭐 이야기 사러 다니는 사람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거든.

“돈은 얼마든지 줄 터니까 이야기 쫘 팔아라.”

는 기라. 인제 그러니까, 어느 농부가 가만히 있다 생각하니까, 아무꺼라도(아무 것이라도) 전해가지고 인제 해주고 돈만 챙길 예산으로, 그러고 이 사람이,

“해주겠다.”

고 해놓고 고민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인제 그 기러기 한 마리가, 저 백로 한 마리가 인제 휘얼 날라오는 기라 인제. 오두마(오더니만) 인제 눈에 인제 이 뭐 눈에 거 달팽이, 우렁 같은 거 잡아먹을라고 앓을 거 아임니까. 턱 앓으니까 고걸(그것으로) 저가지고(지어가지고) 인자 이야기를 해 주는 기라.

“휘얼 날라온다. 당신은 내 허는 대로 따라 오소.”

인제 해놓고, 그러니까 이 영감은 허는 대로 따라 한 기라.

“휘얼 날라온다.”

그러니까 또 이 사람, 영감은 또 따라 해. 그 인제,

“턱 앓는다.”

인자 그러거든.

“턱 얹는다.”

인제 또 따라 한 기라. 그래 인자 학, 백로가 인자 우렁이나 뭇 봤던 모양이제. 그러니까 쿡 찍으니까,

“쿡 찍는다.”

인제 그런 기라. 그러니까,

“쿡 찍는다.”

그래,

“이제 두르번 두르번 한다.”

인제 그런 기라. 인제 그래 그것도 또 따라 한 기라. 그 인제 이야기 끝이라고 인제 영감한테 돈만 챙기고 인제 영감을 보낸 기라.

그래 인제 이 영감은 인제 좋다고 이야기를 샀다고 인제, 할마이하고 와가지고 인제, 들어서 저녁만 되면 인제 그 얘기만 허고 있는 기라.

“휘얼 날라온다.”

인제 그 얘기만 하고 있노라니까, 한 날은 이 도둑이 그 집이 인제 그 영감 할마이 들어 사는데, 돈이 많다 소리를 듣고, 도둑이 인제 그 집에 도둑을, 도둑질하러 온 기라 인제.

오다 인제 거 마당에 딱 들어서니까,

“휘얼 날라온다.”

인제 그러거든. 이제 그래도,

“두르번 두르번 한다.”

인제 그러는 기라 또. 그러더만 인제 이 보니까 방안에는 영감 할마이 자니까 못 들어가고, ‘기왕에 온 길에 술단지라도 빼 가자’ 싶어가지고,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술을 뺄라고 호미 가지고 푹 찍으니까,

“쿡 찍는다.”

인자 그러거든. [일동 웃음] 그러니까 영 인제 이 도둑이 그거 뭐 완전히 보고 있는 기라 인제. [조사자 : 마치 보고 있는 듯이.] 어응. 그러니까 뭐이고 뭐 도둑이 막 싸 쫓어지고 그냥 도망가버린 기라 인제.

인제 도둑이 가가지고 인제 가마이 생각을 하니까 요묘하거든(오묘하거든. 이상하거든). 그 영감 할마이 안 보고도 지 오는 걸 다 알으니까(아니까). 일사천리로 아르니까. 그러니까 그 이튿날 이제 다시 계획을 짜가지고 인제 땀 뎀을 그 집에 인제 또 보낸 기라.

만 도둑을 인제 보내니까, 또 가이 또 그 짓을 하는 기라 인제. 그러이 그러고 의논하니까, 또 영감 할멈끼리 또 인제 주고받고 그 소리뻑이 안 하는 기라.

“휘얼 날라온다.”

인제 또 그러는 기라. 그러더만 그 할마이가,

“영감 잠깐만.”

그러더마, 홍시를 인제, 이 홍시가 있던 모양이제, 홍시를 뗏 개 갖다 놓고 이렇게 이바구로(이야기로) 하니까, 홍시를 까먹을라고 요렇게 쭈물러보니까 말랑말랑 하거든. 그이 할마이가 하는 말이,

“엇저녁에 그거 같으네.”

인제 그러는 기라 인제. 홍시로 맨져보니까 말랑말랑허니, 그 인제 자다가 그 자기 영감 그 인제 뭐 그 불알을 맨졌던(만졌던) 모양이제. [일동 웃음] 그러니까 도둑이 막 이 기점을 하고 도망가버린 기라. 인제 막 엿저녁에 그놈 같으다 하니까 인제. 그래가지고 도둑 안 맞고 잘 살더랍니다. 예. [청중 박수]

[남구 설화 87]

호랑이보다 무서운 꽃감(37)

심동석(남, 1945년생) 구술

2013년 2월 22일 채록

[우암2동 산수경로당]

이 여 거 영감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무리 달게도(달래도) 안 듣거든. 그러니까,

“꽃감 하나 줄게. 이제 딱 해라.”

그러니까 꽃감 준다고 울음을 딱 그치는 기라.

그러니까 호랑이가 저기서 오다가, ‘이놈의 꽃감이 그리 무서운가. 내보다 더 무서운 게 꽃감이구나’ 싶어가지고, 오다가 다보(도로) 도망가더라. 이 그 얘기제.

[남구 설화 88]

부인의 나쁜 행실을 고친 남편

심동석(남, 1945년생) 구술

2013년 2월 22일 채록

[우암2동 산수경로당]

한 마을에 아주 자기 부인이 억수로 행실이 나쁘거든 인제. 행실이 나쁘니까 그 여자를 이 뭐 의심할래 의심하는 게 아니고, 사시로 의심을 하게 된 기라 인제.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자기 부인을 인제 그 한 번 밟아볼라고, 뒤를 살피볼라고,

“내가 오늘은 저 저 뭐 한양 가가지고 한 2~3일 있다 올테니까, 그동안 집단속 잘 하고, 도둑이 들을지 모르니 문단속 잘 하고 좀 잘 있어라.”

인제 해놓고 가니까,

“예 예.”

대답을, 인자 좋다고 꼬리를 사랑살랑 흔들고 좋아하는 기라 인제. 그러고 인제 한양 갔다고 준비하고 나가가지고 밤 느지감치(느지막하게) 자기 집을 다부(도로) 돌아와가가지고, 자기 집 뒤에 대나무밭이 이렇게 우거져 있는데, 대나무밭에 딱 숨어서 자기 부인 행동을 보는 기라 인제. 그러니까 날이 인제 그 뭐 저녁 한 열시나 되니까, 누가 찾아오나 뭐, 그 동네 뭐 이장이라는 사람이 하나 이제 찾아오는 기라. 이장하는 이라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들어서 인자 막 그 멋지게 인제 놀아나고 인제 피곤하니까 인제 둘이 잠이 끓아떨어진 기라 인제. 그 인제 그 자기가 다 보 대나무밭에서 나와가지고 집에 들어가보니, 자기가 들어가는지 뭔지도 모르고 인제 둘이 인제 끓아떨어진 기라.

그 인제 이 사람이 머리를 써. 어떻게 쓰느냐면, 그 인제 그 그렇다대 옛날에, 옛날이 아니라, 이 자는 사람 귀에다가 참기름을 팔팔 끓여가지고 귀에다 이렇게 부우몬(부으면), 뭐 몸부림 하나도 못치고 그냥 바로 가빠린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부엌에 가가지고 참기름을 한 종지 따

라가지고 되게 끓여가지고 들고 들어가서 자기 부인 나놓고 그 이장 귀에다 대고 인제 살 푼 기라. 그러이 꿈쩍 못하고 그냥 가빠리는 기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인제 그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 기라. 죽여놓고 인제 자기는 다보 나가가지고 문을 막 흔들며 자기 부인을 깨우는 기라 인제.

“내 이저 한양 갈려다가 지금 차 뭐뭘뭘, 예를 들어 차가 놓쳤다는가, 인제 이런 핑계를 대면서 못 얻어 타고 왔다.”

그럼 막 문을 흔들으니까, 이 여자는 이제 황당할꺼 아닙니까. 옆에는 그 뭐 이장놈이 하나 자빠져 자제, [일동 웃음] 그래 이 사람이 어쩔 술, 어쩔 줄을 모르고 아지매가 마 그냥 웃은 이렇게 이불로 덮어놓고, 자기 남편을 이제 맞이했어. 그래,

“와 한양 간다더니 바로 오느냐?”

그러니까,

“이러구 저러구 해서 한양을 못 갔다. 근테, 그 니 옆에 자는 사람은 누고 인제? 밤 늦었으니까 빨리 깨워서 집에 보내라 인제.”

남자가 그런 기라.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이,

“아, 이 남자가 와 여기와 자노? 이상하네.”

그라고 막 흔드는 기라 인제.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일어나나 인제. 안 일어나제. 그러니까 이 자기 남편이 하는 말이,

“니가 와 그 남의 남자를 데려가지고 저기 재미를 봤으면 재미를 봤지, 와 그 사람까지 죽여놓나. 이거 그나저나 이거 동네에 소문 나면 너는 살인죄로 인제 묶여가고 큰일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 막 이 여자가 새파랗게 질릴 거 아입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거 좋다. 내가 이 니 뒤통리를 해줄 테니까 내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인제.”

이래가지고 자기 부인 보고 심부름을 다 시키고, 이장이라는 사람 죽은 시체를 뭐 덕석에다 말아가지고 자기 부인 머리에 이어준(이게 해준) 기라. 이어주고,

“어느 어느 그 산을 어느 고개를 넘어가지고 어느 산에 가며는 꼴짝이 있으니까, 그 꼴짝에 가서 분명히 버려야지, 딴 디(데) 버리고 오면 큰일난다 인제. 그래가지고 가되, 고기 가서 인기척이 있으믄 절대 버리지 말고 다부 이고 온나.”

2. 수영구 설화

[수영구 설화 1]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1)

마일녀(여, 1930년생) 구술

2012년 3월 1일 채록

[광안1동 광안1동경로당]

옛날에 그래 인자 거 어머니를 고래를 시키, 고래장을 할라고, 인자 아들이 지게에다 지고 갔는데, 그래 인자 손지가 따라갔는 갑지. 그래갖고 인자 엄마를 물어놓고 지게를 내빼리거든(내버리거든) 거따가(그곳에다). 그러니까,

“아부지, 지게를 와 내빼립니꺼? 가(가져) 가야지.”

“아이구 인자 머 필요없다.”

한께,

“난중에 우리가 커갖고 아부지도 거 지고가야 될 거 아입니꺼.”

[청중 : 그 말이 나대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수영구 설화 2]

구렁이로 보이는 제삿밥의 머리카락

유봉화(여, 1926년생), 마일녀(여, 1930년생) 구술

2012년 3월 1일 채록

[광안1동 광안1동경로당]

[유봉화 : 예전 어른들 애나 저게 멀끄덩이(머리카락) 있나 봐라 이케 썼대.] [마일녀 : 그런게 조심을 하라 카거든. 제삿날은 머리로 항상 수건

을 매고 머리가 안 흐르구로(흐르도록) 해야 되지, 머리가 들어가기가 숨
어요(쉬워요).] [유봉화: 머리 들몬(들면) 인자 구신은(귀신은) 구러이라
(구렁이라) 칸단다.] [마일녀: 그라모 응감을 안 한답니더.] [유봉화 : 밤
에 쌀에 나락 안 까고 들오모 방구라(바위라) 킨다 하대.] [조사자 : 나락
을 안 까몬 그거는 방구가 들어있다 하고.] [유봉화 : 그래 응감을 한다
하대요. 그 소리 들었어요.]

[수영구 설화 3]

단칸방에 손님 자기

유봉화(여, 1926년생) 구술
2012년 3월 1일 채록
[광안1동 광안1동경로당]

옛날에는,
“아, 이 집 하릿밤(하루밤) 자고 갑시더.”
컨이까네, 저 아가,
“아이고 우리 집에는 방이 비잡거마는(비좁지만), 마 방이 비잡아도 마
울 아버지 울 엄마캉 동개(포개) 자는 때문에 자도 쾌안심더(괜찮습니
다).”

[수영구 설화 4]

단칸방에서 일어난 수난

유봉화(여, 1926년생) 구술
2012년 3월 1일 채록
[광안1동 광안1동경로당]

옛날에는 호불이불(홀이불) 그거, 이불 하나 덮는다 아이가. 덮어. 아를

멧이로(멧 명을) 놓어(놓았어). 그래 하이고 인자, 인자 마 즈그 아버지
캉 할매 찾는다고 찾아댕긴까네(찾아다니니까), 이놈우 아들만 내-, 이런
저 깨가지고,

“이놈우 손아 가마이 있가라. 다 큰 놈 모가지 떨어진다.”

커더란다. [조사자 : 목anzi 떨어지? 음, 음.] 그거로 호불이불 떨어지
도록 해노이카네 마, 아느(아이는) 거 쟁기가(끼워져) 있고, 저그 아버지 댕
긴카네 마,

“야 이놈의 손아.”

아버지 엄마캉 저게 찾는다고 이라이카네,

“다 큰 놈 모가지 떨어진다. 가마이 있가라.”

카더란다. [조사자 : 아 이거 자꾸 실키고 하니까.]

[수영구 설화 5]

장거리를 가져다 준 도깨비

서인수(남, 1932년생) 구술

2012년 3월 1일 채록

[광안1동 광안1동경로당]

그 어무이 집 앞에 그 사던 분이 성이 안썸데, 안썸데 밤에 거 도깨비
가 나타난 기라. 나타나가지고,

“안썸 안썸.”

이래 부르는 기라.

“안썸 집에 계시오?”

이래 자꾸 인자 부르는 기라. 이래 밤에 부를 사람이 없는데, 자꾸 인
자 부르는 기 언자 성령이 나타나는 기라. 들리는 기라.

“그래 오늘 장날에 장을 봐가지고 장거리로 안 가져가고 그래 그냥 갔
는교?”

“그래 장거리가 거(거기) 있으모 그 대문에 놔두, 대문 앞에 놔두고 가
거라. 가세요.”

이라니까, 그 이튿날 자고난끼네(자고나니) 피래미로(피라미로) 지푸래이
(지푸라기) 끼가지고(끼워서) 그래 때문에 달아났더랍니다.

[수영구 설화 6]

도깨비에 홀려 돌아다닌 사람

서인수(남, 1932년생) 구술

2012년 3월 1일 채록

[광안1동 광안1동경로당]

그 사람이 홀챙이한테(도깨비에게) 홀켰어(홀렸어), 하문(한번). [청중 :
그래 죽는 사람도 있다.] 밤에 불러내는 기라. 밤에,

“을수야, 이름이 을수구만은, 을수 집에 있나? 내 아무것이다.”

그런께 그기 지 눈에 그 사람으로 보이는 기라. 아무것이라 칸께네. 그래,

“내 따라 가자.”

카더라.

“내 어데 좋은 데 구경시켜 주께. 내 따라 가자.”

카더라. 그래 밤에 밤새-도록 마 [청중 : 그래 죽은 사람 더러 있음더.]

거 물가로 돌더란다. 물가로, 물가로 늪에(늪에) 물가로. 늪, 늪이 있는데,

늪 늪 늪이지. 늪가로 죽 늘 돌더라. 그래 밤 새벽까지(새벽까지) 그래

돌다가 인자 어 눈에 인자 그 사람이 안 나타나더라 카네. 갔버리고 없

어. 그래 정신을 차리분께 홀챙이한테 홀킨 기라.

[수영구 설화 7]

단칸방에서 일어난 아버지의 수난

서인수(남, 1932년생) 구술

2012년 3월 1일 채록

[광안1동 광안1동경로당]

애, 애들로 모두 이 저 한 바아(한 방), [청중 : 그렇지 한 바아 잤지.] 옛날에는 많이 한 바아 모두 안 재웠습니까(재웠습니까). [조사자 : 그렇지. 그렇지.]

그래 인자 거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밤에 마 그 일을 시작했 모양이지. 일을 한창, 썩썩거리싸이카네, 즈그 아버지가 아 저 저, [말을 바꾸어] 아가 저그 아버지가 저그 엄매 때린다고, 올리타가(올라타서) 때린다고 마, 이 새끼 니, 그때 인자 뎃살 묵었던 모양이지. 아버지로 마 빼말떼기로(뺨을) 썰리주는(때려주는) 기라. [웃음] 그래 일도 하도 못하고 주먹이 와서 내리왔어.

[수영구 설화 8]

단칸방에서의 부부 합방(17)

서인수(남, 1932년생) 구술
2012년 3월 1일 채록
[광안1동 광안1동경로당]

아들이 한 방에, 이거 며 아들이 수북하이 일찍 재아놓고(재워놓고) 한 바아서(방에서) 사는데, 이 마누라 구경할라 해도 다시 기회가, 시간이 안 나는 기라.

그래 하리(하루) 저녁에는 일찍 안 오고 늦게 인자 온 기라. 늦게 사탕을 봉다리(봉지) 인자 사가지고 주루룩 머리 우에 흘치준(흘어준) 기라. [청중 웃음] 흘치준께네 아무도 주우(주워) 묵는 놈이 없어. 그래 인자 무난히 그날 저녁에는 일을 잘 못 마쳤다요.

[수영구 설화 9]

풀국새가 된 머슴

이선희(여, 1934년생) 구술
2012년 2월 21일 채록
[광안1동 광일아랫땀경로당]

풀국새는, 옛날에 저 얼마나 배가 고프 시절이던지, 전기 땀살이 (‘머슴살이’의 방언)로 살면서, 개가 인자 풀국을 무웠는데(먹었는데), 전기 땀살이 그거로, 그 종을 갖다가 그 풀국 묵었다고, 그래 막 매질을 하고 가학하게(가혹하게) 해놨는께네.

그래 인자 풀국풀국 개개개. 풀국은 개가 묵었다 카는 뜻인데, 죽었어. [조사자 : 풀국풀국 개가 먹었다고.] [조사자 : 아, 그런 얘기도 있네. 그 머슴이 죽었는 모양이제?] 예.

[수영구 설화 10]

강피 훑는 팔자의 부인

이선희(여, 1934년생) 구술
2012년 2월 21일 채록
[광안1동 광일아랫땀경로당]

얼마나 선비든지 그 쟁피를(강피를) 훑어다가 넣어놓고 또 훑으러 갔더만은, 소내기가(소나기가) 와가지고 그 떠내려가도 홍태공이 그걸 안담고 다 떠내려 보내고.

그래, 복장이 차서 몬 살아서러 저 영감을 얻어갔더만은, 또 저 얼떨떨 너른들의 홍태공, 저 쟁피 훑는 저 할망구 또 훑는 쟁피를 다부(도로) 훑었는기라. 그 가도 별 수 없어. 그래 영감이 벼실(벼슬) 해가 오민(오면서) 쳐다본께네, 저거 마누래거든.

“얼떨떨 너른들에 쟁피 훑는 저 할마이, 훑던 쟁피 다시 훑네.”
카더란다. [웃음] [청중 : 훑던 쟁피를 또 다시 훑는데.] 쟁피, 쟁피 거.
[청중 : 옛날에 쟁피라고 있더라. 술, 술.]
[조사자 : 그 저그 낭군이 왔으몬 다시 따라갈라 안 할란가?] 아이 신을

둘러 봤는데 갈 수가 있는가요. 그 영감을 데리고 몬 살아서러 판 데로 갔는데, 만날, 만날 이는 선비라 나온게 공부한다고 안 돌보고 있다가. 그래 어죽하면(오죽하면) 그기 노래가 아이고, 우리 뭐 그 하면, 아이고 저 흥태공 마누래가 인자 하는 일 다시 하면 그러거든. 안 한다 카디 또 하네. [웃음] [조사자 : 아, 그런 말이 있네요.] 예.

[수영구 설화 11]

도깨비에 홀려 논에 빠진 노인

박상진(남, 1935년생) 구술

2012년 3월 1일 채록

[광안4동 노인정]

내가 경북 영주거든. 이 노인네가 참 그 쫘, 참 유식한 노인네데, 술도 좋아하시고 연세도 많고. 별명이 안영감이라 별명이. 이런데 이 노인이 하도 오일장에 갔다 오면은 술이 취해가지고 헛깨비에 잘 걸린단 말이야. 이 한번은,
“놔-라 땡기라. 놔-라 땡기라.”

그래가, 젊은 청년이 ‘아- 저 노인네가 오늘 또 장에 갔다 오다가 오늘 또 토채비(도깨비), 그 토째비라 그런다고. 토째비한테 홀키 가지고 (홀려서) 저 따가 저런다.’ 가보니까네 혼자 논에서,

“놔-라 땡기라. 놔-라 땡기라.” [일동 웃음]

그래 빠져가지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 노인네를 건져가지고 와가지고. 그래 오래 못 살더라고. 그런 게 있어요.

[수영구 설화 12]

현풍의 효자 괄거래자

이창우(남, 1931년생) 구술

2012년 3월 1일 채록

[광안4동 노인정]

경북 현풍 달성군에, 현풍에서 그 저 콧거매자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살았는데 하도 가난해가지고, 자기 모친이 항상 저거 손자가 할매 상에 올라가서 밥을 앓아(빠앗아) 묵고, 또 지 묵고 나쁘다고 자꾸 이래사이께 네(이렇게 하니까), 할매가 자기는 밥을 배가 줄어도 적게 묵고 손자로(손자한테) 덜어주고 이라이. 그 내우간에 보다 보다 보니, ‘이라다가는(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아들 때문에(때문에) 우리 어무이(어머니) 배가 끓는다’ 싶어서, 그게 걱정이 돼서, ‘이 아를 없으면, 손자가 없으면, 우리 어무이가 배를 안 끓을 낀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날은 가장이 자기 안양반한테 하는 말이,

“여보, 우리 자식은 또 놓으면(놓으면) 또 자식인데, 부모 배 끓는 거 너무 안타깝다. 이러니 다음에 자식은 또 놓으면 되이, 어무이 밥을 저래 뺏아가지고 앓아가 먹는데, 어무이 배 끓는데 아를 하나 직이가, 아들 마 생무덤하고 없애뿌자.”

자기 처한테 그래 하니, 자기 처가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진작 어머이 배끓는 게 아쉬워서 당신한테 칼라 췌는데(하려 했는데), 당신이 그런 말을 하이 역시 아이고 참 좋은 말씀이네요.” 카고, 두 부부가 합의가 돼가지고, 저녁을 묵고, 아 에미는 자기 아를 업고, 가장은 바지개다가 팽이 삼을 엮어가 짊어지고, 저 뒤 산에 고요한 데 갔는 기라. 가서 그 아를 파묻을라고, 생매장 할라꼬. 자기 부모를 위해서 그래 하이 말이지.

그래 인자 가서 참 아를 내려놓고, 팽이로 가지고 땅을 이리 파는데, 이미 파는 짐에(김에) 참 불쌍한 내 자식 좀 깊이 묻어 주고 가자 이런 뜻에서 파니까, 그 밑에서 깊이 떡 파니까 췌소리가 나는 기라. 곡팽이로 찍으니까. 그기 인자 가마술 뚜껑이라. 가마술 뚜껑에 보니, 이 가마술 뚜껑에 글귀가 새겨 났는 기, 그 ‘콧거매자의 보물’이라고 써 났는 거야. 효도가 지극하니께네 써 났는데, 그 가마술 뚜껑을 떡 들씨니(들어 올리니) 황금보화가 나오거든.

그 인자 써났는 기 뭐라 카면, ‘인부도 탈이오, 금부도 도치라. 권력에서도 앓아가지 못하고 다른 이도 몬(못) 가가고 이거는 콧거매자의 보물’이라고 써이가(쓰져) 있더라.

그래가 그거 참, 거 보물이 나왔으니, 아는 안 물어도 된다 아이가. ‘이

거 가지고 가면 어무이 봉양 잘 하고 아 잘 키우고 잘 됐다' 싶어서, 효성이 지극하니까 그런 보물이 나왔더라는 그 광거매자의 그런 전설이 있어. 지금도 가면은 현풍 술밭이 그, 효자 열너비가 확 있어요. 그 뭐 책에다 다 있는데.

[수영구 설화 13]

도깨비와 싸워 이긴 장사

이창우(남, 1931년생) 구술

2012년 3월 1일 채록

[광안4동 노인정]

그 여 우리 고향에 한 사람이 참- 힘이 장사라. 옛날에 촌에는 오일장에 가는데, 오일 만에 장에 한 번씩 가거든. 가면 쌀 한 말 끓여지고 그놈을 시장에 가 팔아가지고 고기 한 근 사고 생선 한 마리 사고 이래가, 그래 모처럼 시장에 가놓으면(가면) 거서 막걸리 한 잔 먹고 오다 보니까 술이 다뽕(잔뜩) 취해가 오는 기라.

요새는 전깃불이 들어와도 그는(그때는) 불도 없고, 캄캄한데 오니까 재로 하나 요런 작대기로 넘어 오니까, 자기 눈에 뭐시(무엇이) 하나 달라 들거든. 이래가 씨름을 하고 싸웠는 기라. 불이 번쩍번쩍하고. 거기 인제 토깨비인(도깨비인) 모양이라. 그래 힘이 좋아가지고 씨름을 하고 싸웠는데, 얼마나 싸움을 하고 이랬는지, 결국 이 영감이 힘이 좋아 가지고 가당찮아가지고 자기 옷에 허리끈을 풀어가지고 그놈을 자빠트려가지고 소나무에다가 뽕- 꼭꼭 이리 돌리 가며 [손으로 묶는 시늉을 하며] 묶어가지고(묶어서) 그래놓고 왔는 거야.

집에 와 가지고 이튿날 아침에 이제 술이 깨서 인자 이 놈 죽었는 갑다 싶어가 가보니까, 모지랑 빗자리(몽당 빗자루) 이거를(이것이) 딱 묶이가(묶어져) 있더라. [웃음] 거기 인자 헛깨비라. 눈에 술이 취해, 거기 무서우면은 얼렁얼렁 토깨비 불매로(불처럼), 정신이 홀리가(홀려) 그런 기라.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거기 보니 모지랑 빗자리 이기 묶이가

있더라. 확실히 2일 날 아침에 가니까.

[수영구 설화 14]

이퇴계 선생을 이긴 어린 이율곡 선생

이창우(남, 1931년생) 구술

2012년 3월 1일 채록

[광안4동 노인정]

이율곡 선생 어무이가 이율곡 선생 일곱 살 때, 칠세 아동을 텔고(데리고) 모를 심었는 기라. 논빼미 그 너른 논빼미에. 모를 풍당 풍당 이래 심으니까, 이퇴계 선생이 말로 타고 지나가면서,

“여보 부인 말이지. 그 모자간에 현재 모를 몇 평이나 꽃았느냐?”

이래 묻더라. 그 율곡 선생 저거 모친이 그 답변을 못해가지고, 모를 심는데 뭐 세아려 보고 심었나? 아침 묵고 와서 늘 그 너른 밭에 두 모자 모를 심었는데 못 세아려 보고(헤아려) 답변을 못 하고 있으니까. 칠세 아동 이율곡 선생이 말이지 하는 말이,

“샌님은 집에서 요까지 오면서 말 제죽(박자국) 몇 제죽 뛰었습니까?”

그기 벌써 이인 아니가? 그러이 그럼 퇴계 선생이 졌지. 자기도 말 제죽 몇 제죽 뛰고 왔는고 모리면서 엉? 모자 모 몇 평 숨갔는가 물으니까. 그 답변은 머리가 그만큼 대인은 비상하게 잘 돌아가더라 그런 뜻이라.

[수영구 설화 15]

고려장 하러 갔다 돌아온 사연

이창우(남, 1931년생) 구술

2012년 3월 1일 채록

[광안4동 노인정]

그 옛날에는 인간 칠십 고래해라. 칠십만 되면 나라 임금님이, 그때는 못 살아가지고 늙은 사람은 먹이(먹여) 살릴 돈도 없고 양식도 없고, 칠십 되면 고려장 하라는 법이 생겼어. 이래가지고 저거 아버지가 칠십이 됐는데, 뻔뻔이 눈을 뜨고 살았는데 고려장 하러 갔단 말이야.

그래 이런 이야기가 있어. 그 인자 부자간에

“야야, 너는 삼하고 들어라. 아버지는 내가 짊어지고.”

바지개(발채) 자기 아버지를 짊어지고 쌀 몇 되 해가지고 냄비 한 솥하고 숟가락 몇 개 하고 이래가 짊어지고 참 고려장 하러 갔다. 가가지고 고려장 떡 하고, 인자 다 마치고 내려오미, 그 저거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들한테,

“인자(이제) 집에 가자.”

이카이, 그 저거 아들이,

“아버지, 저거 바지개하고 연장 가(가져) 가야 안 됩니까?”

“야야, 그거 내빼려뿌고(내버려두고) 가자.”

“아이, 바지개하고 연장하고 가(가져) 가야 다음에 또 아버지 칠십 되면 여 짊어지고 와야지요.”

이카이께네,[웃음] 그 말이 자기 아버지 죽일, 고려장 할 때는 한심 안하고 ‘아이고 내가 당하면 나도 이렇구나 이래 당하구나’ 싶어서,

“아이고 마, 아버지 모시고 가자.”

카더란다. [웃음] 그런 이야기가 있어. 자기 아들 말 듣고.

[수영구 설화 16]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2)

김판윤(여, 1931년생) 구술

2012년 2월 23일 채록

[남천1동 남촌경로당]

옛날에 참 자기 어마이를 고려장을 나라에서 시이게(시키게) 돼가 있어. 인자 지금 아들이 요만하이 따라갔는 기라. 지고 가는 사람 아들이 할때

따라 갔는 기라.

그래 할매를, 고려장을 구디(구덩이) 파났고, Ying(영)어낭고(넣어 놓고) 온꺼 네 지게를 떤지(던져) 애빠리뿐꺼네(내버리니까), 그래 그 손자가 하는 말이,

“아버지, 저 지게 가(가져) 가입시더.”

이칸꺼네, 그래 아들이 드는게(‘생각이 드는게’의 뜻으로 말함),

“와?”

이러칸꺼네,

“후제(후에) 아부지도 할매맨치 저다 애빠리야지예.”

이리카거든. 그래 아들이, 뜨끔 아바이가 뜨끔해서러 그 어마이를 그 지게에 다부(도로) 짊어지고 그래 왔는 기라. 오가지고 청(대청마루) 밑에, 마루 밑에 구디를 파갖고 놔놓고, 인자 아직저녁으로(아침저녁으로) 밥을 갖다주고 이랬는데.

그래서 나라서 소 새끼 애미를 구별로 못 했어. [조사자 : 뭘 구별 못 했어예?] 애미하고 새끼소하고 똑같은데 구별로 못 했어. 그래 인자 쪽 내리오는데, 그 어른이 그 동네 이장이라. 이장인꺼네, 자기가 알아맞힐 차리가(차레가) 자기 차리라, 인자 오늘은. 그래 떡 아침을 가(가져) 드 간꺼네, 그래 어마이가 아들로 본께 상이 죽은 상이라. 마 걱정이 돼서 그리,

“야야 니가 무슨 걱정이 있노?”

칸꺼네,

“어머이, 나라에서 소 새끼하고 어마이하고, 참 애미하고 구별로 해야 되는데, 그래 오늘 내 차례다.”

칸꺼네, 떡 그리거든.

“소 죽을 끼틸(끓일) 짝이(적에) 콩을 많이 Ying(영)어갖고 끼리갖고, 딱 보면 어마이 여물하고, 자기 큰소는 여물로 묵고, 큰소가 새끼 지(자기) 새로(혀로) 갖고 새끼 쪽으로 콩을 미라(미루어) 준다. 콩을 미라 준다.”

이래 됐어. 그래 참 나라서 무슨 감사 나을 짝에, 소죽 콩을 많이 Ying(영)어 끼리칸께, 참 소가 여물은 지 앞으로 새로(혀로) 갖고 이래 땡기고, 저 새끼, 새끼 줄 콩을 미라주는(밀어주는) 기라.

“그래 이기, 이기 새끼다.”

이란꺼네, 그래 그 나온, 참 감사 나온 사램이,
“우째 그렇노?”
칸께, 그래 그때사 자기 어마이가 참 사실은 저다 내빠린 그 이야구를
(이야기를) 하고,
“그래 엄마가 그러카던(그렇게 하더냐)? 엄마가 어디 있냐?”
칸께,
“참 마루 밑에 저 구디를(구덩이를) 파 해놓고 아직저녁으로 밥을 주
고, 엄마가 있다.”
그때 시적부터(시절부터) 시작해가 ‘아, 나 많은 사람이 있어야, 어이
뭐 되겠다.’ 싶어서, 그래 인자 그 뭐시기 없어지(없어져). 고려장 그때부
터 없어졌다 카대예.

[수영구 설화 17]

며느리의 방귀 힘(17)

김판윤(여, 1931년생) 구술
2012년 2월 23일 채록
[남천1동 남촌경로당]

저게 좀 심통 궂은 기 있는데. 하나 뜨몬(뜨내면),
“누야.”
칸까네,
“와?”
카만, 옛날에,
“누야 니는 시집 가거든 방구를 툭툭 끼라.”
칸께,
“미천님아 내가 와?”
이런까네, 그래 옛날에 시집오 방구를 참아서 사람이 얼해서,
“와 그렇노?”
칸꺼네,

“그래 참 방구를 못 끼서 내가 그렇습니다.”

칸꺼네,

“그럼 한 번 끼바라.”

칸꺼네, 그래 인자 자기 시아바시는 이 쪽 큰 지둥을(기둥을) 아듬고(보듬고) 있어라 카고, 자기 신랑은 또 요쪽 지둥 안고 있으라 칸께, 낀꺼네 집 뜨말레이(꼭대기) 홀랑 날라뿌고 쥘 이- 난(쥘으로 이어 놓은) 게 마구 날라가뿌더라 카대. [웃음] 그런께 인자.

[조사자 : 아, 옛날 초가집이었으니까.] 예, 초가집 날라 가고, 그래 인자 메느리는 옳은 얼굴로 돌아오고 이렇더라 카대. 옛날이 나 많은 사람이 얘기 그래 해삐대.

[수영구 설화 18]

처갓집도 못 가는 바보 신랑

김판윤(여, 1931년생) 구술

2012년 2월 23일 채록

[남천1동 남촌경로당]

바보가 참 장개로(장가를) 갔는데, 그래 인자 처갓집을 참 가는데, 저게 개 그 집에, 자기 처갓집,

“너저 처갓집, 개가 있으니까 개 따라 가거라.”

이래. 저거 부모가 시있어(시켰어).

옛날에는, 이 요새는 대문 있고 이렇지만, 옛날에는 수숫대(수숫대) 갖고 이래 집 울로(울타리로) 해놔는데, 개 따라 ‘가자’ 카이, 개는 놀래서 감서, 개가 인자 수숫대에 썰리(잡자기) 쭉 들가뿐께(들어가버리니까), 지도 그 새로 따라 들가더라네.

[수영구 설화 19]

동생 생기지 못하게 한 다섯 형제

김판윤(여, 1931년생) 구술
2012년 2월 23일 채록
[남천1동 남촌경로당]

옛날에 얘기가 논이 닷 마진데(다섯 마지기인데) 아들이 다섯이라. 근
께 하나 더 나며는(낳으면), 저 하내이(한 사람) 논이 한 마지씩(마지기
씩) 못 돌아오는 기라.

이런꺼네(이러니까) 인자 주우매(자기 엄마) 즈그 아버지 인자 참 요
새 연속극 말이다 합방을 못 하구로 아들이 지키는 기라. 지켜가 인자
아바이가, 낮에 비는 와썹고, 아바이가,

“니는 이 소 몰고 가라. 니는 저 논에가 물꼬 보고 온나.”

어디 하디, 그래 썻디마는 그판에(그러는 사이에) 아를 참 하나 땡글었
으면(만들었으면) 될 긴데, 뭐 이렇고 저렇고 산께네, 시간이 가뿐께네,
큰놈이,

“이라 자라.”

함서 소를 몰고 들어온께, 고마 마 소를 몰고 들어온께네, 그래갖고 그
아가, 밑에 동생이 안 생기서 논을 닷 마지, 하내이 한 마지씩 갈라 하디
랍니더.

[수영구 설화 20]

이를 키워 팔아 부자된 사람

김판윤(여, 1931년생) 구술
2012년 2월 23일 채록
[남천1동 남촌경로당]

이래 요새는 옷에 이가 마이(많이) 안 있습니까? [조사자 : 그래, 그지
예.] 이를 한 마리 잡아갖고 딱 접시 이래 종우(종지) 얹이놓고 밥뚜꺼리
(밥풀떼기, 밥알) 쪼개 얹어주께 날람(날름) 묵거든.

고기 재미나서 또 주모 또 날람 묵거든. 또 주고는 난중에는(나중에는)

마 접시 주께 다 묵거든. 어버(제법) 한(큰) 소아치(송아지), 어버 한 소아치만치 키웠어(키웠어).

[조사자 : 이를?] 응. 그래 키웠는데, 하루는 머리가 그 할매 그러구로 머리가 하얗이 마 나가 많아, 이거를 자아(장에) 팔로(팔러) 갔는 기라.

[조사자 : 이를 갖고.] 아무도, 아무도 저게 해가 다 저도 머시고 소리도 안 하는데, 해가 다 저가이까네 머리 하한(하얀) 할매가 자아 오더만 머라(뒀라) 카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가, 이가 자아 왔네.”

이러카거든. 그 장꾼이, 아무도 모르는데, 고마 이 할매, 이 그건 애빠리 뿌고(내버리고) 할매 따라 올라간께, 산으로 짚은(짚은) 산으로 올라간께 네 크다란 애무시가(애무우가), [조사자 : 애무시?] 응, 무시가. 자기 눈에 애무시가, 이래 무시 사러 불루모,

아 그래 그 무시를 빼갖고 온게, 그기 동삼이라. 동삼이라. 그래서 인자 그 동삼 그거로 팔아갖고 자기 때만 부자가 아이고 몇 대 내려간 부잔(부자인) 기라.

[수영구 설화 21]

임금을 이긴 백성

김관윤(여, 1931년생) 구술

2012년 2월 23일 채록

[남천1동 남촌경로당]

눈이 이래 참 마이 왔는데, 그래, 그래 참 나라에서, 요새는 하우스가 있어서 딸기 이런 기 마이 있지마는도, 또 그래 이,

“산딸기를 따고오며는 참 큰 상을 준다.”

이래 됐어. 이런까네, 그래 한, 그거 한, [청중 : 옛날에 산딸기 많이 있었다.] 그렇지만 눈 구디(구덩이에) 있나? [청중 : 눈 구디는 없제.] 한 백성이 하는 말이,

“그래 나라님, 그래 산딸기는 산에 있는데, 독새가(독사가) 겁이 나서

못 가졌습니다.”

이러칸께,

“야 이넘아, 이 눈 구디 독새가 어있노?”

이칸꺼네, [청중 : 그라모 딸기는 어딴노.]

“나라님, 이 눈 구디이 딸기는 어디서 купи꺼?”

칸꺼네, 그래 백성이 이기.

[수영구 설화 22]

누워써 봐도 다 보이더라

장정순(여, 1939년생) 구술

2012년 2월 23일 채록

[남천1동 남촌경로당]

머스마가 딱 같은 게 두 개라요. 두 개고. 한 방에 자는데, 영감 할매 요래 누(누워) 자고, 아무래도 작은 기 좀 그렇던갑대. 큰 거는 누우 자는데. 그래 인자 영감 할매 참, [말을 바꾸어] 이거 우습다, 이래 인자 누워 자고 이란께, 어마이가 떡 걸어 누우 자고 일난께, 쫑구만(동그맣게, 오뎅 하게) 앉아있거든, 작은 기.

“야이놈의 자식, 누워 자도 안 하고 뭐 쪼금해 앉아 있노?”

“봐 바라.”

큰 기,

“내사 눕어서 봐도 다 비더라(보이더라).”

[수영구 설화 23]

우리도 막 끝났다

장정순(여, 1939년생) 구술

2012년 2월 23일 채록

[남천1동 남촌경로당]

머스마들 또 키웠는 기라. 키아갓고, 아무리 영감 할마이 누워 잘라 쿤
께, 못 자졌는 기라. 작은 거로 인자, 큰 건 하도 순해.

“저 저 집에 가가지고 아무개 집에 가가지고 소시랑을(쇠스랑을) 얻어
오라.”

캬는 기라. 소시랑 얻으러 갔다 인자. 가논께네,

“엄마.”

쿠고 오거든.

“저 저 집에는 인자 끝났더라.”

“우리도 막(방금) 끝났다.” [웃음]

[조사자 : 아 누가 앓아 있다가, 딴 집에 가니까?] 하도 작은 기 앓아
서 기다리고 있은께네, 저 어매 저 아버지 자고 싶어가지고 심부름을 보
냈는 기라. 가서, 가서 그래 오이라 이래 됐는데, 그래,

“행님아!”

쿠고 온께네,

“그 집에는 내 드간께 끝나더라.”

이러쿤께,

“우리도 막 끝났다.”

카더란다. [웃음]

[수영구 설화 24]

은혜 갚은 두꺼비

장정순(여, 1939년생) 구술

2012년 2월 23일 채록

[남천1동 남촌경로당]

시집을 오니까 밥을 각시가 안 하나, 하몬 쪼깨난(조그만) 두꺼비가 기
(기어) 나오더라. 밥만 퍼면 나오는 기라. 접시다 밥을 줌 주고 주고
이래, 엄청시로(엄청나게) 컸어.

인자 고기 뗏 년 커논께네, 인자 신랑이 병이 났어. 병이 나가 마 딱

죽게 됐는 기라. 그래 방에 중단 이래 갖고, 촌에는 썩까리(서까래) 요래 안 있나, 큰 요 요, 큰 큰방에 썩까래, 썩까래 말고 있다 지단한(길다랗게). 썩까래 잔잔하이 있고, 또 가운데 또 하나 있다.

그 뭐니라? [조사자 : 상냥(상량) 카는 거 뭐 그런?] 예. [청중 : 그 인자 뭇을 얹어 놓고 썩까리를 착 지어난.] 어 그래.

그래 영 죽게 돼가 인자. [청중1 : 그거는 대들보라 칸다.] [청중2 : 대들보 몰라.] 죽는다고 마 문을 열어놓고 이랬는데, 마 죽는다고 이래산께네(이렇게 하니까) 인자, ‘와 이라노?’ 싶어가 쳐다보이, 지네가 착- 그리 그 딱 고거매이로(그것처럼) 뻗치가 누갖고(누워서), 그거로 인자 신랑을 인자 독을 주는 기라.

독을 주고 이란게, 뚜꺼비 그기 슬슬 기이 들와갖고 그게 은혜 하는 기라. 밥을 얻어 무싯까(먹었으니까). 기 들와가 그따가 마 고마 둘이 서로 마 독을 쫓는 기라.

그래 지네 이기 마 톱 널찌갖고(떨어져서) 신랑이 살았어.

[수영구 설화 25]

옥쟁이 사위와 바깥사돈들

윤옥순(여, 1924년생) 구술

2012년 3월 1일 채록

[남천2동 남천삼익아파트노인정 북분회(상락정)]

사우가 일 년만에 처갓집에 온께네로, 자부(子婦)가 하는 말이,
“이 사람아 다 편는가(편한가)? 사돈네도 다 편코, 우리 딸도 편는가?”
하이,

“편코 어짜고 말고 쫓 꺼티로 쫓리갖고 배가 불러서 지금 굉장토(굉장하지도) 안 하요.” 이라거든. [일동 웃음] 그라거든. 그란께도로 하도 기가 차서,

“그라몬 나도 가볼라네. 딸네 가서 기궁도(구경도) 하고, 와 쫓 꺼티이 쫓렸는공 배가 부왔는공(부웠는지) 가볼란다.”

이러카이, 그래 인자 딸네 집에 갈라하몬 이래 내가 있어. 건니야 돼.

“하 그래, 장모 내한테 오히쇼.”

그래 오히라 카이,

“뒤로 오히쇼.”

등어리로 요래 오히거든. 그래 인자, 저게 사우가 장모로 이리 등허리로 오히갓고 요래가 이래가 안께네로(안으니까),

“참 손집 하나 좋다.”

하거든. 장모가 어찌 꽤심튼지 딸네 집에 가서, 가가지고 사돈, 배꼐사돈이(바꼐사돈이) 있어서 배꼐사돈잘에,

“그래 사우가 저게 저 물로 건네주는데 뒤로 오히라 캐서, 뒤로 오히디마는 요래 잡골랑 손집 좋다고 함디다.”

그래 꽤심해서 내가 사돈, 배꼐사돈잘에 얘기로 하이,

“그놈 참 망할 녀이다. 어찌 집던 씹을 놓아주노.”

이라거든, 배꼐사돈이. 똑 꽤심는 기라. 또 사돈 그라는 게 꽤심는 기라. 그래 또, 아주 또, 늙은 사돈이 사돈 아버지가 있어. 그래 또 그게 가가지고,

“아이고 저게 사돈이 그래 이만코 저만코 이런 소리를 함디다.”

이란께,

“아이구 그놈 참 나(나이) 묵는 기 원수다. 백수 내가, 백수가 원수다. 들은 씹을 내주다이.”

하더란다. [일동 웃음]

[수영구 설화 26]

개 씹하는 것도 모르나

윤옥순(여, 1924년생) 구술

2012년 3월 1일 채록

[남천2동 남천삼익아파트노인정 북분회(상락정)]

개가 핵교(학교) 마당에서 헐레가(짹짹)의 방언) 붙여가지고 이래 해

쫓았는데, 아들이 마 짜다라(매우 많이) 디다(들여다) 보고 막 그걸 기경이라고 막 이래 서다가 디다보고 있거든. 그래 교장이, 교장 선생이 와서 보니 아들이 우- 그 개를 디다 보고, 그래가 마 웃어쑤고 그래가 디다 보고 있거든.

“야 이놈들아, 그기 뭐꼬? 뭇인데 그래 디다 보고 그라노?”

카이,

“교장이 되가지고 개 씹하는 것도 모르노.”

[수영구 설화 27]

단칸방에서의 부부 합방(2)

윤옥순(여, 1924년생) 구술

2012년 3월 1일 채록

[남천2동 남천삼익아파트노인정 북분회(상락정)]

다 누우(누워) 자는 기라. 살림살이가 없으께, 옛날에는 다 못 살고 할적에는 한 방 거처로 안 하요? 쪽- 열 둘을 높히 놓고, 마누래는 저쪽에 자고, 인자 아바이가 요쪽에 자는데, 마누래 생각이 나는 기라. 저녁에 자다 보이, ‘어찌 해서 마누래 잘으로(겉으로) 가꼬?’ 그래 살-살 안자 옷을 해서 벗고 마누래 잘에 간다고, 아들 넘어서 가야 되지, 고 갈 데가 없는 기라. 저 그 끝에 넘이,

“누고? 누가 이라노?”

칸께,

“가만 있거라. 지금 열, 아버지가 열 땃 바꾸(바퀴) 채 돈다. 열 땃 바꾸로 도는 중이다. 가만 있거라.” [조사자 웃음]

카더란다.

[수영구 설화 28]

썸나발 불기는 처음이다(1)

윤옥순(여, 1924년생) 구술

2012년 3월 1일 채록

[남천2동 남천삼익아파트노인정 북분회(상락정)]

끼가(게가), 끼 오덕에, 저게 끼 구덕에다가 오즘을 쫓거든. 끼가 나와
갖고 여자 말강지로 짝 물어빠렸다. 그란께네, 내 죽는다고 괸(고함)을
지르거든.

그래 중님이 바랑을 짚어지고 그 고을에 동냥을 하다본께, 여자가 밥
강주리를(광주리를) 이고 올라강 내루지도(내리지도) 얹아고, 내 죽는다
괸을 지른다. 죽을 요랑 하고 디다(들여다) 봤다. ‘와 그라는고?’ 싶어 디
다 보이, 끼 다리가 나와 보이 중놈 조디로(주둥이를) 짝 물어빠렸다.
[조사자 웃음] 그래 인자 중놈은 내 죽는다 고함을 지르고, 여자는 내 죽
는다고 엉거주춤(엉거주춤) 해가지고 고함을 지르고, [조사자인 학생들
을 보고] 너거는 귀 막으래이. 그래 괸을 지르이 내 죽는다고 중놈은 내
죽는다고 괸을 지르고 디다 보고, 여자 여겔 디다 보고 내 죽는다고 괸
을 지르고, 또 여자는 밥 강주리 어리절절 해가 고함을 지르고.

그 고을 사또가 그 고을에 사또질 하러, 벼슬질로(벼슬 길로) 해가, 사
또질로 하러 오는데, 이상하거든. 막 나발로 불고 이래가 오이께네, 가만
이 보이 그렇거든. 그래서 마,

“넌 대고 중침을 해라.”

해가지고, 나발로 대볼라 카이, 디다보고 나발로 딱 불어뿔었다. 사또질로
사또가 나발로 부이 끼가 마 놀래가지고 다 떼가지고 마 갔부리고, 여자
는 여자대로 나오고 중놈은 중놈대로 마 입을 떼고, 그래 사또가 하는
말이,

“사또질로 십 년을 해도 썩나발 불기 처음이다.”
하더라.

[수영구 설화 29]

지네가 된 아들

장정순(여, 1939년생) 구술
2012년 2월 23일 채록
[남천1동 남촌경로당]

아들로 엄청시리(엄청나게) 그 집에 못 낳았어, 아를. 못 낳아서, 저 산 뒤에다 집이 있는데, 산에 공을 엄청시리 들었어요. 거 가가지고 아들, ‘아들이나 머이나 태이(태어나게) 주라’ 절로 이래 하고, 공을 마 뗏 십년 했어요.

그래갖고 그래 참 아가 하나 생겼어요. 생기갖고(생겨서), 거기 인자 터덕터덕 인자 디비고(뒤집고), 디비고 이래 할 땐데, 눕우고 커가 인자 디비고, 배밀이 하고 막 디비고 하고 이랄 땐데, 커갖고.

그래 안자 스님이 딱 하나 오더마는,

“오늘 저녁은 물 다 끄고 니가 저 밖에 가가 있다가 어덱하모(어두워지면) 함 들와봐라.”

이래 된 기라. 그래 참 어덱어니네 살살 온께네, 불이 마 흰 불이, [조사자에게] 전에 문주(문종이) 안 발랐는교? 흰 불이, 불이 빨건 불도 퍼떡 걸고 푸른 불도 퍼떡 걸고 이리 일렁일렁 하더라.

문구녕(문구명) 살 쳐다본께, 지네가 인자 이라몬 빨겡고, 배띠가(배때기가) 빨겡고, 등더리는(등어리는) 시퍼렇고 지네더라요. 그래갖고 막 지넹께, 그 집에 이사를 가빠고(가버리고) 그는 고마 아가 아이고 지네가 돼뻘어(되어 버렸어). 너무 공을 들여도 안 된단다.

[수영구 설화 30]

자기 새끼 이뻐하는 것을 아는 호랑이

노태순(여, 1944년생) 구술
2012년 2월 24일 채록
[망미동 안나경로당]

시골에서, 시골에서 저 밥해 먹을라고. 밭에 가서 가지 같은 걸 따오라고

며느리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고 가니까 거 호랑이 새끼 있잖아요. 호랑이 새끼를 딱 봐가지고 그 있으니까 너무너무 이쁘잖아. 찌꺼난 기 (조그만한 것이) 왁왁 이라니까.

그 인자 새댁이가 모르니까 그걸 소쿠리에다가 담아가지고, 가지 같은 걸 따는 건 안 하고 소쿠리에 담아 가지고 집에 왔답니다. 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시어머니가 보니까 이게,

“어머님, 개 같은 게 너무 이뻐가지고 가져왔다.”

이러니까, 아이고 그래 시어머니가,

“아이고, 빨리 쌀을 담가라.”

고, 쌀을 담그라고 그래.

“어머님, 뭐 하실라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쌀을 담가라.”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떡을 만들었대요. 떡을 만들어갖고 떡시루에다가 떡을 한거(가득) 해가지고 그걸 담아가 이고 따라 오라고 하더랍니다. [웃음] 그래갖고 며느리는 멧도 모르고 따라갔는데, 가니까 그 호랑이 새끼 아입니까? 호랑이가 저 우에서(위에서) 딱 내려다보고 가만히 있더랍니다. 자기 새끼가 없어졌으니까. 요래 내려다보고 있더니만은. 그래 시어머니가 새끼를 막 쓰다듬으면서.

“그래, 아이고 이 철 없는 며느리가 몰라서, 너무 이뻐가지고 귀여워서 이리 데리고 왔다.”

고 카면서 막 쓰다듬으니까, 멀리서 요래 보고 있더랍니다. 그 밑으로 내려다보고. 그래가 인자 그 떡시루를 내려 놓고 왔다는 거라요. 그래 호랑이가 볼 때는 자기 새끼를 해칠라고 그런 게 아니잖나? 그걸 다 알아듣는다 아이가. 그래갖고는 내려놓고 집에 왔답니다.

집에 와가 있으니까, 그 떡시루에 있는 떡을 싹- 다 먹고, 다 먹고. 그 떡시루를 그 누구네 집인지 모르잖아요? 근데다가(그런데도) 자기 집 마당에다가, 딱 대문 앞에다가 떡시루를 갖다 댔더라나. 옛날에는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수영구 설화 31]

밤길에 호랑이를 만난 아이 업은 엄마

노태순(여, 1944년생) 구술

2012년 2월 24일 채록

[망미동 안나경로당]

옛날에 교통이 참 불편했잖아요. 그 어테를 갈라몬은 그 재를 넘어갓고 가야 하는데, 거기가 길이 아주 좁다란 오솔길인 거예요. 오솔길이니까 그러니까 뭐라 해야 할꼬? 그러니까 하늘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오솔길인데, 그 젊은 마음에 ‘아이, 내 요만하면은 해 지기 전 안에는 그 동네 마을까지 재 넘어서 산에까지 가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이고 가다 보니까 숲속이니까 빨리 어두워지잖아요. 이걸 실화예요.

그거는 아 우리 친정 엄마가 아기 때 나를 업었는데 가다가 보니깐, 호랑이가 커다란 호랑이가 앞에 딱 오더만은, 이걸 진짜 우리 친정어머니가 나를(나를) 업고 가면서 실지로 겪은 그 얘기예요. 앞에 딱- 와갓고 탁 버티고 앉아 있더랍니다. 앉아 있는데 눈에서 밤에 어두우니까 눈에서 불이 투룩 투룩 나온다 아닙니까? 그래갓고 내가 지금 생각해도 우리 엄마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나 싶으더라구요.

그래갓꼬 얘기를 갓다가 등어리에 업은 내지 그러니까. 앞으로 썩 돌려갓고, 잘못하다 이거 물리가든지 뺏기면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썩 돌리가지고 앉아갓고는 정신을 팍 차리가지고는 젓을 맥이면서 앉아가지고,

“아이고, 그래 내가 이래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어린 것을 데리고 가는데 밤에 길을 안내해 줘야지. 이렇게 앞에 막으면 나를 어쩔라고 그러는 거냐?”고 그래가 이리 사람한테 말하듯이, 내 자신도 모르게 당황하니까 막 구시렁구시렁 했더랍니다. 했더니 듣고 앉아 있더라네. 가만히 앉아 듣고 앉았더니만은 슬그머니 일어나더만은 호랑이가 숲속으로 슬 가빠리고(가 버리고)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길로 아를, 내지(나지) 그런께, 업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갔는데, 가니까 재를 넘고 가니까, 그 때 시골에는 저 뭐라 그래야 하노? 전깃불이 없으니까 호롱불을 켜 놔놓고. 지금으로 우리 이때 같으면 열

시나 안 되었겠나? 가보니까 사람들이 오순도순 도론도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가니까 깜짝 놀라더라는 거라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시간이 혼자 왔냐고? 그 위험한 산길을 잣길을 넘어 왔냐고?”

그래 떡 가보니까 옛날에는 이 치마가 끈이 안 달린 치마잖아요.

“허리에 질러가지고 이렇게 했다 아이가. 다 그지? 가니까 치마끈이 여 내려와가지고 다 내려와가지고 엉덩이에 걸쳐가지고 있고, 땀이 나갓고 몸이 흠뻑 젖어갓고 물에 빠진 것처럼 그리 있더라”

면서, 그 이야기를.

[수영구 설화 32]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37)

지석순(여, 1931년생) 구술

2012년 2월 24일 채록

[망미동 안나경로당]

고래장은(고려장은) 옛날에, 우리 옛날에 우리 선조 때 그 만당 칠십 고래장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고려장 하는 거는 엄마를 업고 굴로 파가가 밑에 여놓고, 먹을 것 좀 여가 놔다가 그거 다 먹으면 죽는, 죽으러 가는 길이지 그제? 그런 옛날에 우리 법이 그래 했는데. 그때 그 아들이 엄마로 업고 갈 때 손자가 떡 업어다 놓으께네, 자 내루맨서 아버지 지계를 다부(도로) 가 오이까,

“왜 가오노? 이거 내버려라.”

하이까,

“내 저 아버지가 거 죽으몬 고래장할 때 쓸라 그런다.”

카이, 그래서 고래장 법이 없어졌다 답니다.

[수영구 설화 33]

호랑이도 감동한 효부

지석순(여, 1931년생) 구술
2012년 2월 24일 채록
[망미동 안나경로당]

메느리가 아들로 업고 할매가 길로 못 걷는데, 걸어가다가 할매는 근근히 걸어가다가 중간에 목지에(목적지에) 가다가 길이 저물었어. 그래 아를 업고 오몬, 그거는 호랭이 밥이 되는데, 아를 업고 오몬 할매가 죽을 끼고, 할매로 업고 오몬 아가 죽으니까.

그래 이 사람이 호랑이가 으르렁 으르렁 하는 데서, ‘나는 자식을 놓오몬 되고, 우리 어머니를 업고 가야 돼’ 어무니를 업고 집에 갖다가 돌아서 호랑이가 업어다가 문 앞에 갖다 주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대가리 꼬리가 있지만은 중간에 갓만 딱 짤라 하는데, 그래서 효부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나라 상을 받았답니다.

[수영구 설화 34]

송장 뼈로 남편을 살린 열녀

지석순(여, 1931년생) 구술
2012년 2월 24일 채록
[망미동 안나경로당]

어떤 열녀는 또, 남편이 아파 아무것도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벌어가 밥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만날 이러는데. 그래 인자 병이 들어가 눕어(누워) 있는데, ‘어떻게 하든 살리겠나’ 싶어가 맨날 불쌍하이 꽤한다고 댕기다 보이. 그래 어디가 누가 그 카길래,

“니 가가지고 어는 산골에 가몬 송장 뼈를 갖다가 묵으몬(먹으면), 묵으몬 살안다.”

캐서 그거로 파러 갔는데, 그게 영창(위낙) 열녀가 돼놓으니까네, 하늘에서 복을 줬어. 그래가 그거 인삼이었어. 그 다리를 떼가지고,

“내 다리 내놔라.”

고 따라 오는데, 오다가 기절하고 넘어졌는데, 낮에 보이게네, 집에 와 그 딸이가(달여서) 먹었는데 인삼이 돼서 남편을 살렸답니다. 열녀는 그렇게 또 목숨을 거 하고, 도와주고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어.

[수영구 설화 35]

남편 문둥병을 고친 열부

지석순(여, 1931년생) 구술

2012년 2월 24일 채록

[망미동 안나경로당]

어떤 가문에, 저그 외아들이 나병에 걸려 있었어. 문디가 걸렸는 거라. 그때는 문디병 못 고치잖아. 그런데네 이 집은 대감 집이 돈이 많이 있고, 이 딸은 못 사는 집의 딸인데 돈을 주고 샀어.

“우리 아들이 아프다.”

이런데, 대신 해가지고 결혼해가 왔는데, 별장에(별당에) 앉아 놓고 메느리로 남편을 안 보여 주니까 한 번은 메느리가 시아버지 불러

“아버님, 내가 시집을 왔이몬 어떤 사람인가 남편을 봐야 안 되겠느냐?” 이라이께네,

“그래, 니가 보면 안 된다.”

이라이께네,

“어떤 짐승이라도 봐야 된다.”

칸께네, 뒤에 저 해메방 저 가니까 산 밑에 전데(그곳인데). 문디가 돼가다 죽어 가는데, 그래 저 메느리가 그랬답니다. 뭐라 했냐 하면은,

“아버님, 저 저 방에 저거 남편하고 한테(함께) Ying어주되, 불로 담아가 화로에 불로 별정게 담아가 두어 되 들라주고, 칼로 두 자루 들라주고 맹주로(명주로) 맹주가 얹잖아. 모를꺼야 명주? 옛날 우리가 찌는 거, 그 맹주로 한 필하고, 그래 칼하고 불하고 딜라 달라.”

칸께, 그래가지고 사람고기 먹으면 옛날에 그 문디병 고친다 안 했는가 배? 그제? 아 잡아먹는다 카고 그랬거든. 옛날에 그런 말 있거든. [조사자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안 날 때 그랬을 거요.

그래가 인자 그 사람이 그걸로 자기 넙덕살을(허벅지살을) 꿰어가 남편을 먹있어. 먹이 인어 고기 사람고기로 먹이 놓으니 쓰러져 죽어가 있는데, 보이 버러지가 몸에서 다 그러이 다 나오는 기라. 문디, 그 나병균이 나오니까, 그리 실컷 삼일을 차고난께 그 병이 낫고. 병세가 나아가고 인세를 받았는 거라. 그래 그거 열녀 아입니까. 그런 일도 있고.

[수영구 설화 36]

어머니를 위해 다리를 놓아준 네 아들의 효심

지석순(여, 1931년생) 구술

2012년 2월 24일 채록

[망미동 안나경로당]

엄마가 혼자 사는데, 그 부부가 제일 낫다 이 말이겠제 그제? 할머니 혼자 사는데 만날 방을 뜨사 쥐도(따뜻하게 해줘도) 어머니, 아침에 인사할 때,

“어머니, 방이 뜨시게 잘 주무셨습니까?”

카몬,

“뜨시긴 뜨시더라.”

이 말만 하고 끝티가(끝이) 만날 섭섭거든. 그래서러 엄마가 와 저래 보이, 밤으로 늦어 대인께네(늦으니까) 엄마가 없거든. 그리 저 다리로 건네가지고, 물로 건네가지고 밤중 되면은 아들네 모리구로(모르게) 호불영감 사는 집에 노다가 새벽에 오더랍니더 엄마가. 그러이께네 옛날에는 그래몬 욱 되지 그자? 그랬는데 그래 오이께네, 욱 되는데 아들이 그걸 받들었으니까. 아들네끼리 모여가,

“이러지 말고 우리 엄마가 이래 밤으로 그 영감 친구 찾아서 저 건네 호불 할아버지 집에 가니까, 우리가 다리를 놔 주자. 엄마 가는 시간 되몬 아들 다섯 명이 자 물에 엮드려가 다리가 되자.”

이랬는 거라. 그래서 그 엄마가 아들네 등을 딱 밟고 넘어가는데,

“하이고, 오늘 하늘이 도왔다. 어찌 다리가 이렇게 좋은 게 있노?”

하고 건너갔답니다. 그것도 효자가 되더랍니다.

[수영구 설화 37]

아버지를 잘 모신 양아들 부부

지석순(여, 1931년생) 구술

2012년 2월 24일 채록

[망미동 안나경로당]

아들이 없고 딸뿐인데, 그런데 그 요새 시대하고 다르제 그제? 아들이 효자다. 딸은 소용없다 이 말이제. 근데 딸이 너이가(네티) 있고, 아들이 하나 양자로 했는데, 메느리를 봤는데, 양자가 너무 착하고 좋은데, 딸네들이 서둘러가 재산을 아버지가 재산을 딸잘에(딸에게), 엄마는 죽고 없고, 재산을 딸 너이잔테 다 뺏기뿐 기라.

그래 메늘은 딴 데로 그 양아들 메느리는 갓부고. 옛날에는 양자 아들이라도 그만큼 효자였답니다.

그래가 그래 인자 할아버지가 다 털리고 없이니까, 저게 어디 부질없이 이래 가는데, 그 이 사람들도 먹고 살게 없으니까네, 쫓기 가가 저 산골에 농사를 짓고 사는데, 넷가 빨래를 이래 씻으니까, 할아버지가 올라오니, 그 저거 시아버지가 양아들이, 메느리가 보이까네, 그래 인자 저거 아버님이다. 막 빨래 방망이로 내쫓리고 아버지로 모시가 왔어.

“아버님, 어디 가셨냐?”

카이, 아들 메느리, 그 양아들잔테 면목이 없잖아 그제? 그런데,

“그래서 내가 어디 거처 없이 간다.”

“왜 그랬냐.”

카이,

“내가 마 너거잘에도(너희들에게도) 면목이 없고 아무데 도 갈 데가 없다.”

카이,

“아버님, 집에 가입시더.”

하고 빨래랑 두고 갔어. 빨래를 넷가 놔놓고 아버지로 모시가가지고 밥을 해먹이가지고 술로 사먹이가 채워놓고, 쪼맨한(작은) 애기로,

“아버님 애기만 좀 보고 있으라.”

했는데, 애기를 보다가 보니 밥도 먹고 술도 먹어 놓으이 힘이 없으니까, 자다가 애를 쟁가(눌러) 죽여뵈어. 메느리가 빨래 씻거가 오이께네 아 소리가 안 나가 들봐다. 보이께네 시아버지가 아를 쟁가 죽여뵈어. 죽여뵈었는데, 시아버지가 죽은 걸 보고도 면목이 없어서 모른 척하고 눈을 감고 있으아께, 메느리가 딱 빼가 나가디만은 저 어데 갖다 감차(감추어) 놓고, 그래 남편이 오이께,

“여보, 아버님이, 애기가 이리 됐는데, 아버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서글프겠느냐. 이것을 어떻게 비밀로 하꼬?”

이라이께네,

“그래 걱정하지 말고 우리끼리 치우고.”

아버님이 일나,

“야야, 애기는?”

카이까네, 아버지가 알면서 모른 척 하고,

“애기는 이부지에(이웃에) 있습니다.”

옛날에 못 사는데 이부지 어딴노? 그래 그런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 그걸 숨쿠고(숨기고) 그라거든. 그라이께네 이 영감이 나라에 올라가서 이 이야기를 하거든. 임금잘에 가서,

“우리 양자 아들, 메느리가 이렇다.”

그래 효부라고 상을 받아가 그 재산도 딸네 거 많이 뺏어다 주고, 나라서도 상도 받고, 그래 효자가 그래 복을 많이 받더랍니다.

[수영구 설화 38]

죽어 구렁이가 된 구두쇠 어머니

지석순(여, 1931년생) 구술

2012년 2월 24일 채록

[망미동 안나경로당]

엄마가, 아주 엄마가 찐돌이었어 그 엄마가. 못 사는 집에 찐돌인데, 그러니께네 천날 만날,

“쪼깨(조그만) 해라. 쪼깨 해라.”

카고, 아주 거 좀 할마이가. 요새 같으믄 가죽꼬리지(깐죽거리지). 그래니까 그래 아무데도 구경도 안 가고 집만 그래 놓으니까, 죽어가 구렁이가 돼뿔는 거라. 구렁이가 돼가지고, 죽어 구렁이가 돼가지고 쌀도가지에다(쌀독에) 붙어가지고,

“쫓개. 쫓개.”

살 때때로(때처럼) 그라거든. 그랬는데 하리(하루) 스님이 떡 와가지고 이제, “이 집에는 조상이 아주 못되게 풀리가지고, 아주 집안에 항상 고민거리가 있다.”

“그거로 풀 수는 없느냐?”

하니께네,

“그거로 등질에다(등짐을 져서) 메다 싣고, 아버지가 아들이 곳곳을 땡기면서 여기는 뭐 하는 데다 뭐 하는 데다 구경을 시켜 주라.”

카더래. 그래 아들이 인자 그 업고 등지로 싣고 석 달 녀 달 땡기다 보니까, 어디로 갈 곳을 갓부고 괜찮더랍니다.

[수영구 설화 39]

곡소리도 못하는 바보 사위

이두임(여, 1934년생) 구술

2012년 2월 24일 채록

[망미1동 삼성아파트경로당]

옛날에 바보 아들로 키왔는데, 쟁인이(장인이) 죽었다고 부고가 왔는 기라. 그래 엄마가 하루 텔고(데리고) 왔아가 꺾쌌는(가르쳤는) 기라.

“처갓집에 가거들랑 아이고 아이고 하지 말고, 마 절 두 번만 하고, 어이 어이 해라.”

하고 시기 보냈는데, 마 가다가 잊어뻘어(잊어 버렸어). 저만치 가다가 잊어뻘갓고. 뭐라고 뭐라고 배왔는데 고마(그만) 잊어뻘어.

저 가니 고랑이 하나 있더란다. 고랑에 마 들어서서, 마 뒤 더듬왔는 기라. 더듬으께네 미꾸라지가,

“찍.”
하거든. ‘아, 옳다! 인자 이 소리다.’ [일동 웃음] 가서 고마 마 늘,
“찍, 찍”
싼께네, 찍 [일동 웃음] 하모 찍찍을 싹께네 처남 되는 사람이,
“야, 이 사람아. 그이 무신 소리고?”
“아, 엇저녁에 우리 엄마가 실컷 께차주서 그 비운(배운) 갑니더.

[수영구 설화 40]

비 소면 일만 하던 바보의 대답

이두임(여, 1934년생) 구술
2012년 2월 24일 채록
[망미1동 삼성아파트경로당]

“아무거시야. 너 형 내일 장개(장가) 간다매?”
“예, 비가 오몬 내가 가고요, 날이 좋으몬 우리 행이 갑니더.”
이러더란다. 만날 그 바보로 날만 좋은 거는 저거가 하고, 날 안 좋은 거
는 바보를 시키싼케네(시키니까),
“아무개야, 너 형 내일 장개 간다매?”
“예, 비가 오몬 내가 가고요, 날이 좋으면 우리 행이 갑니더.”
이러더란다. 그래, 그런 이야기가 있다.

[수영구 설화 41]

쌈나발 불기는 처음이다(2)

최석규(여, 1940년생) 구술
2012년 2월 24일 채록
[망미1동 삼성아파트경로당]

옛날에 시아바시가(시아버지가), 시아바시가 논에 일을 하러 갔는데, 그레 논에 일을 하다가 메느리 만날 때때이 되면 참이고 점심이고 새참이고 해가 오는데, 가만이 오늘은 있으니까 점심시간이 다 돼도 메느리 안 오는 기라.

배는 고프고, 우짜꼬 싶아서로, 또 논에 일을 하다가 쳐다봐도 메느리 안 오고 하는데. 그레가 한 시나, 그 인자 시계도 없고 옛날에는, 한 시 넘어가, 열두시가 넘어가 한 시나 되이(돼서)까네 오는 거야. 보니까 저 둥천에, 저 독에 메느리 밥을 이고 오거든. ‘아이고, 인자 오는가 보다.’ 카고 기다리고 있이까네,’ 아 기다리도 오지 싶어가 옳디리가 일을 해도 아무래도 안 오거든. 그레,

“거 이상하다. 아가 오는 걸 내가 봤는데 와 이래 안 오노?”

이래 카며, 등을 넘어서러, 또 들을 넘어서러 이래, 둥천을 넘어서, 촌에 길이 그레. 그레 오는데 그레서로,

“왜 안 오노.”

카고 시아바시가 암만(아무리해도) 이상해서러 나갔어. 일을 하다가 떡 나가이카네, 메느리 이 둥천을 넘어가 곁(내(川), 거랑메) 하나 건너가 이래 오는데, 곁에 이래 떡 지고, 밥 거 반티를 이고 앉았는 기라.

“야 야, 니 그 뭐하노?”

쿠이(하니),

“아버님, 큰일 났습니다.”

이카거든.

“그레, 와?”

카이카네, 시아바시한테 얘기도 못하고,

“아이고, 마-”

영개벌춤하이 앓아가 인상을 쓰고 있거든.

“그레 와? 야야 와?”

이카이까네,

“아버님, 켜가(게인가) 뭔가? 내가 하도 오다가 소변이 누려버가지고 저게 가 오줌을 똥터만은, 마 여 뭐가 무네요.”

이러카이까네, 시아바시가 기도 안 차거든. 그레 메느리 그라는데 참 내려가 볼라 캐도 그렇고, 안 볼라 카이 아파 죽는다 캐샀제. 그레도 우얍

끼고(어떻게 할 것이고). 자식인데 싫어서 딸처럼 그래가 내려가 이리 디다(들여다) 보이까네, 이리 디다 보이까네, 께가 콧 물고 있거든. 그래가 시아바시가 께를 등드리로 돌로 가지고 들고(들고) 쳐도 께가 안 놔 주는 기라.

“아이고, 큰일났다.”

카고, 인자 밥 소쿠리는 인자 내려(내려) 놔 놓고,

“야야, 이거 우야노? 우야노?”

카다가 하이께네, 어디서로 마 나발을 붙고, 옛날에 그 나발 붙고 어사가, 사또가 그거로 하는 기라. 그래가 어사출두로 해가 오는 기라. 오는데 시아바시가,

“하이고, 이 사람들, 저기 사람들 많이 오는데, 한번 이야기 될란가 우짚란가 함 보자. 우야꼬?”

쿠고, 시아바시가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이께네, 그 어사출두라 카민스로(하면서) 막 나발로 붙고 오거든. 오이께네, 시아바시가 그 임금이지내가는데 앞에 떡 이리 막으니까네,

“그래, 왜 그러느냐?”

카이까네 그래 임금이 거 인자,

“내라라(내려라). 나를 내려주라고.”

그카이께네 그래,

“왜 그러냐?”

카이께네, 그래,

“우리 자부가 여차저차해서 저기 있다.”

하니께네, 임금이 하는 말이,

“허허, 그런 일도 괴이한 일이 있구나.”

카민서로 내려가가지고는, 내려가가지고 보이, 이리 디다 보이께네 그렇거든. 그래갖고 임금이 턱 돌아서가, 이리 돌아서민서로 그 밑에 뭐 사또 그 인자 똥이 나발 붙고 따라 오는 사람 보고, 그 나발 이름이있더라고. 나는 나발이라 카지.

“그 나발 이리 가와(가지고) 봐라.”

이라 카이께네, 그래가지고 왔어. 가 와갖고는 거다 대놓고는 콧 부이께네, 끼가 깜짝 놀래가 떨어졌비거든. [일동 웃음] 그래 카이까네 그 똥이

새댁이가,

“아이고 인자 살았다.”

캄시 벌떡 일어나거든. 일어나йка네 그 사또가 하는 말이, 턱 쫓직게로(작대기로) 쫓고 올라 오민서르(오면서),

“내가 사또 생활 십오 년 동안 했지만은도, 요번 썸나발 불기는 처음이다.”
[일동 웃음]

[수영구 설화 42]

못된 며느리의 말대꾸

최석규(여, 1940년생) 구술

2012년 2월 24일 채록

[망미1동 삼성아파트경로당]

시어머니가 하도 메느리가, 메늘로를 봐 놓으니까네 못됐고, 시어마신 데 말대꾸만 하고 되안이져서도(되바라져서), 그래 시어마시가 한 집에 이리 사는데, 옛날에는 촌에 이 물로, 공동샘이가 저기 있잖아? 집에 안에 샘이가 없고. 그래 물 디리러(들이러) 가는데, 시어마시가 가만 방에 앉아 본께네, 며느리가 부엌에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더만은 적쇠(석쇠)에 다 고기를 얹어 놔놓골랑 물도오로(물둥이를) 이고 살래살래 나가거든. 시어마시가 해딱해딱 보며 나가는데,

“야야, 니 물 길러 가몬 고기 저거 다 탄다. 디벼 놓고(뒤집어 놓고) 가라.”

칸께네,

“어무이 걱정하지 마소. 뜨거우몬 지가 돌아 눅겠지요.”

카더란다. [일동 웃음] 그래 못된 메느리가 있다 이거라.

[수영구 설화 43]

뒤늦게 효도하는 법을 배운 아들

박은수(여, 1933년생) 구술
2012년 2월 24일 채록
[망미1동 장미경로당]

산골에 인자 영감할마이가 늦둥이를 낳았어. 아들을 하나 낳아갖고, 심심하니까 뭐 동네 마을에 사람도 없고,

“아무거시아, 엄마 패라. 아무거시아, 아빠 패라. 인자 아버지 패라.”
이래갖고 자꾸 때리라 캐갖고, 이 사람 때리고 엄마 때리고 아빠 때리고, 인자 그리 자꾸 때리게 하면서 그것밖이 못 배웠는 기라.

그렇게 컸는데, 그 아버지는 인자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있으면성, 아들이 인자 목을 게 없은게 소금장사, 등짐 소금장사 하러 가갖고, 하리(하루) 종일 소금 팔고, 인자 그 어느 부자 마을에 인자 떡 그 사랑채에 들어가 갖 잠자게 됐는데, 가만히 들앓아 있은게네, 그 집 앞마당에서 그 주인집에서 인자 참기름을 짰는 기라.

옛날에는 참기름을 짜면은 이런 참기름 통을 이리 해가지고 짰는데, 하리 종일 짜갖고 그거를 부란다고 하다가, 고마 잘 미끄러지가지고, 고마 마 그 기름 봐당 사발도 깨뿌고 할마시도 다치고 고마 이리 됐는데, 할매도 다치고 이랬는데, 그 기름 없앤 거는 말 안하고 모두 다,

“아이고, 어무이 안 다쳤습니까?”

카고, 아들이 마 방으로 모시고 가고 이라이께네, 그 소금장사가 가만히 생각한게네, ‘하리 종일 짬 지름을 다 쏟아 붙는데 그거는 아깝다 소리 안 하고, 어째 엄마만 방에 보시고 가노’ 싶어가,

“그래, 어르신. 그래 어째 그 하리 종일 짬 지름은 땅에 다 부어가 못 먹게 됐는데 그는 우야노?”

“야, 이 사람아. 기름은 다시 짜면 되지만은, 부모님은 다치면은 큰 일 난다.”

인자 이라이께네,

“와이고 그렇습니까?”

사람이 인자 그 효도를 하자면은 부모한테 잘해야 된다는 그 교훈을 배웠는 기라. 그 밤에. 그래갖고 ‘아이구 나는 여태까지 살민성 엄마 두드리패몬 좋은 긴가 해갖고 뻘었는데, 나도 인자 집에 돌아가면은 부모한테

엄마한테 잘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소금 팔은 돈 가지고 커다란 가무치로(가물치를) 한 마리 사가지고 그래 이제 집에 돌아갔어요. 돌아갖고,
“어무이-.”

참서 오이께네 ‘저놈이 또 내 때리러 온다’ 싶어갖고 엄마가 인자 가만 앉아 있으이께네, 아 절을 너부시(넙죽이) 하거든. ‘내가 마 절 받고 맞아 죽으나 안 받고 맞아 죽으나 절이나 받자’ [웃으면] 싶어갖고, 절 받고 있는데, 그래 가무치를 또 고와갖고 주는 기라. ‘아이구 마 내가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마 묵으나 보자’ 주는데 싶어가지고 묵으니께네 그래 아들이 애기로 하더랍니다.

“엄마, 나는 너무 본 게 없고, 견문, 보고 듣고 해야 되는데, 너무 본 게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이때까지 엄마한테 내가 불효하게 했는데, 앞으로는 나도 인자 어머니한테 효도하겠다.”

하민서 그 후로는 그래 효도 하더라고요. [웃음]

[수영구 설화 44]

사람 간을 빼먹는 여우

박은수(여, 1933년생) 구술

2012년 2월 24일 채록

[망미1동 장미경로당]

인자 할아버지가 시장에 갔다가 떡 술이 취해갖고, 흥건하이 짹대기를 질질 끌고 오다가 고마 술이 취해갖고 이래 절 가에 탁 밟고 잤는 기라. 그래 여우가 딱 그 비가 많이 와갖고, 물이 와 옛날에 와 모 심어 났는데 물이 처럭처럭 내려 간다 아입니까? 그래 여우가 딱 와가 보이까네, 할아버지가 딱 이래 눕어 있응께, 요래 요래 보디만은 꼬랭이에다가 물을 딱 추가(적셔) 와갖고 할아버지 뺨아리를(뺨을) 착착 때려보는 기라. 때리봐도 그냥 딱 눕어 있거든. 술이 취해논께나 일어나? 딱 글타고(그렇다고) 고마 간을 딱 내 묵어뻘어.

그래 아들이 인자, ‘아, 이기이기 틀림없이 여우가 이랬는데, 울 아부지

잡아먹은 여우를 잡아야 되겠다.’ 싶어갖고, 지도 인자 탁 그게 가서 딱 벗고 눕어가(누워) 있으니까, 아들이 딱 벗고 있으니까, 여우가 딱 오더니만은 꼬랭이 물을 딱 추가 오더니만은 탁탁 때려 본께네 그냥 딱 눕어 있거든. 그래 궁둥인테로 와갖고 마 이래 냄새를 맡아서이, 방구를 뽕 낀께네, 냄새가 난다 아이가? 방구 끼만 냄새가 ‘아이고, 이거 죽었는갑다.’ 싶어갖고 여우가 딱. 여우는 딱 걸터 앉으몬 사람인데 이래 마지(마주)안 앉고 딱 돌아앉는단다. 간 빼물 때. 딱 돌아갖고 딱 걸쳐갖고(걸쳐이) 앉아갖고 시작는 기라 인자 그거 할라고. 그때 고마 여우 다리 두 개를 탁 잡고 탁 빠트리갖고(넘어뜨려가지고) 그리 직있다 카대.

[수영구 설화 45]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4)

박은수(여, 1933년생) 구술
2012년 2월 24일 채록
[망미1동 장미경로당]

그 고려장이라 카는 그거는 그 고려 시대에 칠십만 되면은 인자 그 고래장을 했는데, 어떤 효자 아들이 어무이로 인자갓다 고래장을 해놔 놓고 있는데, 중국에서 사신이 왔는데, 문제를 내놔는 기라.

“나무 와 요 똑같이 요래 깎아가지고. 이게 어느 쪽이 뿌리고 어느 쪽이 위쪽인가 그거로 문제를 알아내라.”

이라는데, 그 나라에서 인자 그 문제를 인자 해결을 문해갖고 인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자기 엄마한테 가서,

“어머니, 사실 이래갖고 이런 문제가 지금 나라에 나가 있는데, 그거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한께네, 엄마가 하는 말이 소 주는 구실 있지요?

“소 여물 주는 거 큰 통에다가 물을 가득 차가지고, 그 나무를 딱 담가 보만(보면은), 저게 많이 까라얏는 데가 뿌리고 적게 가라얏는 데가 위다.”

인자 고 문제를 해결했어. 그래갖고 그 아들이 인자 가갖고, 인자 그 문제 답을 하이께네,

“니가 거 우째 알았노?”

인자 임금님이 그러니께네, 사실상 그때는 국법이 인자 고래장 시키라 카몬 고래장 시키야 되지 안 시키몬 안 될 땐데.

“사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를 고래장을 해놔는데, 지금 내가 몰래 이기 안 돌아가시게 해 놓고 만날 밥을 갖다 주고, 그렇게 해가 있는데, 그래 죄를 짓고 있다.”

카인께 그때부터 고래장을 없앴다 카대.

[수영구 설화 46]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박은수(여, 1933년생) 구술

2012년 2월 24일 채록

[망미1동 장미경로당]

에밀레종은, 그 저게 엄마가, 이 애기는 줄라몬 줄까 아무 것도 줄 게 없다 해갖고, 종을 만들어 놓으께네 종이 소리가 안 난다 안 카더나. 그 래갖고 논께네,

“이거 어째서 소리가 안 나노?”

해갖고 보니까,

“그 줄라 카던 애기를 안 넣어서 그렇다고.”

그래 그 애를 같이 영어 녹하갖고 종을 만들어 때린께네 ,

“에밀레~ 에밀레~, 엄마 때민에~ 엄마 때민에~.”

그래 그런, 옛날에 들었는데 잊아뻘다.

[수영구 설화 47]

언니의 꿈을 사서 김춘추와 혼인한 김유신의 여동생

박은수(여, 1933년생) 구술
2012년 2월 24일 채록
[망미1동 장미경로당]

김춘추 인자 그하고 김유신하고 친구간인데, 김춘추는 왕자고 김유신은 인자 그 화랑도 생인데, 둘이서 마 장난하다가 고마 김춘추 옷고름을 떨어뵈어 김유신이가.

그래 인자 그 김유신 동생이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 큰 여동생이 꿈을 딱 꾸게네(꾸니), 자기가 막 높은 산에 딱 가갖고 오줌을 싹 싸뵈게네, 천지 마 싹 알로(아래로) 다 내려가뵈는 기라 개복(개벽)하듯이. 그래,

“하이고, 꿈도 요상하다. 내 꿈이 참 이상하다.”

이카이께네,

“언니 뭐 어떤 꿈인데 그렇노?”

카이께네, 꿈이 인자 이렇더라 카이께,

“언니 그라몬 내 이 은반지 주께 그 꿈 내한테 팔아라.”

동생이 이래갖고 이제 그 언니가 그래 인자 꿈을 갖다 반지 받고 팔았는데 기라 꿈을. 팔았는데 김유신이가 김춘추 옷을 가갖고 옷고름 좀 큰 동생한테 달아 주라 카이께,

“아이고, 내가 우째 남의 저 총각 그 옷고름을 달겠느냐? 왕자님 참 옷고름을 내가 왜 달아, 못 단다.”

이래가, 큰 동생이 거절을 했는 기라. 그런께네 작은 동생 요기,

“오빠, 내가 달아 주겠다.”

하고 달아줬는 기라. 그래 달아줘가지고, 자기끼리 좋아가지고 그 김춘추하고 사귀 그 작은 동생이 얘기를 가져뵈는 기라. 그 얘기를 가져 뵈는께네, 처녀가 애 가지몬 그때는 안 되지 그 시대는.

그래 뵈는께네, 그래갖고 인자 마 저 뭐라 카노? 화형식인가? 딱 그거 했는데, 그 인자 김춘추가 인자 기가 차는 기라. 자기 애인이 인자 불에 타 죽을 판인데 우째 되노? 그래갖고 자기 아버지 임금님하고 떡 인자 사냥 하로 가는데, 떡 그 골짜기로 탁 김춘추하고 의논을 했겠지. 그래갖고 나무는 이래 앞에 거 해갖고 거 해뵈놓고, 사람은 뒤에다가 이래 세와 놓고, 불에 태자(태워) 죽인다고 떡 세와 뵈놓고 불로 앞에 마 연기가 나

싸이카네,

“저게 무슨 연기가 저래 나노?”

임금님이 그래 딱 물으이께네,

“저 저께 처녀가 애기를 가져서 화형시킨다.”

고 카이께네,

“그라모 그 처녀가 어떠한 처녀공?”

물으니까네, 김춘추가 그때 하이 이때다 싶어 가지고,

“아부지, 저 지금 거하는 당하는 처녀가 내가 좋아한 처녀데, 애기를 가지서 그래 살아(태워) 죽인다.”

고 그카거든. 그러니까네,

“그라면 어서 가서 불 꺼라. 끄고 그 사람 죽이지 마라.”

해갓고 그래갓고 왕비가 됐다대. 그래 그런 말이 있더라.

[수영구 설화 48]

욕심 때문에 명당 자리 잃은 창녕 성씨

박은수(여, 1933년생) 구술

2012년 2월 24일 채록

[망미1동 장미경로당]

저게 우리 고향에 거게는 창녕 성씨가 그 본 그기거든예. 그런데 서울에 과거 하러 갔는데, 과거 하러 가갓고 마 과거 못 보고 돌아가시뻘어. 그 아들이 인자 아부지로 갓다가, 옛날에는 차도 없고 이래 논께네, 꺾에다가 열어갓고 지고 오는 거라 거울에.

내 지고 오다가 인자 오다가 쉬고, 오다가 쉬고, 자고 오는데, 눈이 마겨울이 돼논께 눈이 많이 오갓고(와서) 그래 인자 관은 밖에 놔 놓고 안에 자고 나온께네, 관이 없어지뻘는 기라. 시체가 없어지뻘어. 가만히 논께네 눈이 포래(가득) 와가 있는데, 호랭이 발자국이 이래 있는 기라.

그래 그 사람이 호랑이 발자국 따라 딱 오인께네, 자기 고향에 뒷산에 고개, 딱 호랑이하고 호랑이도 죽어갓고 눕어 있고, 그 아버지 죽은 관도

고 왔는데, 그 자리는 눈이 딱 녹아가 있는 기라.

‘아, 이 자리가 명당인 갑다.’ 싶어갖고, 그 호랑이도 물어 주고 아부지도 물어 주고 이래고 뉘께네, 그 후로부터는 마, 그 맥산에 그게 성씨가 뭐걸이 살림도 일어나고 잘 되는 기라.

그냥 고대로(그대로) 살았시몬 될 낀데, 호랑이 자리가 더 좋은 자리 아이겠나 싶어갖고, 인자 자리 바꿀라고(바꾸려고) 인자 왔는 기라. 파이까네, 막 짐이(김이) 마 뭐걸이 올라오더라 카대. 그래갖고 마 밖에서 일 하던 사람이,

“퍼뜩 덮어라.”

막 감을(고함을) 질러도, 이미 짐은 나갔부고, 그래갖고 바까(바꾸어) 쓰고(묘를 쓰고) 나서는 창녕 성씨가 안 되더라고.

[수영구 설화 49]

김삿갓이 지은 파자시(破者詩)

박은수(여, 1933년생) 구술

2012년 2월 24일 채록

[망미1동 장미경로당]

김삿갓이 인자 어느 집에 떡 갔는데, 김삿갓이 인자 내- 돌아다니면서 시 한 수 지이주고 술 한 잔 얻어 묵고, 이래 인자 그런 참 명물이었는데. 김삿갓이라 카몬 다 알지? 우리 다 안다 아입니꺼 들어서.

그 어느 집에 가서 인자 하룻밤 떡 갔는데, 아침이 떡 뉘께네 메느리가,

“인냥(人良) 보기를 하오리까?”

카거든 이 알지예? 이 이야기?

“인냥 보기를 하오리까?”

카거든, 메느리가. 그러니께 시아버지가,

“월월(月月) 산산(山山)커든.”

카는 기라. 글자로 말하면 밥 ‘식(食)’자 하고, 우(위) ‘상(上)’자 하고, 고래 식상 하겠습니까? 밥을 들놀까(드릴까). 손님이 있는데, 밥상을 들놀까

이래 물은께네, 시아바시가 벗 ‘붕(朋)’자가 와 달 ‘월(月)자’ 두 자가 벗 ‘붕’자 아입니까? 그래고 산산커든거던 나갈 ‘출(出)’자. 그 기 산산(山山), 두 개 산산커든 이라거든. 그런께네 김삿갓이 가마이 들은께네, 참 우습 거든. 그래 김삿갓이 하는 말이,

“정구축전이로구나.”

‘과연 우습다. 과연 우습다.’ 그라면성,

“아심(亞心) 토백(土白)이라”

하더랍니다. 아심 토백이는 왜 ‘악(惡)’자 안 있습니까? 요 마음 ‘심(心)’자 밑에 그 우에 ‘아’ 밑에 마음 ‘심’자. 그 놈 ‘자(者)’자, 흙 ‘토(土)’, 흙 토 하고 요게 ‘백(白)’자 안 있습니까? 그래논께네 ‘아심 토백이’로구나.

“과연 니는 악자(惡者)다.”

[웃음] 과연 우습다면서, 김삿갓이 그래 시를 읊고 나가더랍니다.

[수영구 설화 50]

후손을 살린 이퇴계의 유서

박은수(여, 1933년생) 구술

2012년 2월 24일 채록

[망미1동 장미경로당]

그 이퇴계가 안자 사는 동안에는 편안하게 살았어예. 위낙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어질고 이래가 살았는데, 유서를 갖다가 딱 아들한테 주면서,

“이 유서를 갖다가 갖고 있되, 니 대(代)에 가서 아무 일 없으면 그냥 니 밑에 자손한테 또 돌리 주라.”

이러카고, 유서를 남기 놓고 갔는데. 자기 대에는 무사히 넘어 갔는데, 고 밑에 아들이 인자 딱 돌아가갓고 여름에 인자 물끼 가갓고 인자 서로 물 델라고 이라다가 이제 고마 사람을 죽이뻘어. 이래 수군포(삽) 갖고 마 때린다고 때렸는데, 마 사람이 죽어뻘어.

그래갓고 이 사람이 갇히갓고(갇혀서) 있는데, 그때 인자 마누라가 ‘아, 아버님이 유서 준 기 있다.’ 싶어가지고 유서를 갖고 그 인자 고을에 가서,

고을에 가갖고,

“이 우리 부모님이 주는 유서라.”

카매 내 밀었는데 보인께네,

“정하지견(庭下之見).”

뜰 정(庭)자, 아래 하(下)자, 갈 지(之)자, 볼 견(見)자. 요거 딱 녀 차만 써가 있는 기라. 그 다음에 넘가도(넘겨도) ‘정하지견’, 그 답에 넘가도 ‘정하지견’, 마지막까지 인자 한 장 남가 놓고 다 넘가도 ‘정하지견’ 그것만 딱 써 났는 기라. 그런께네 그 고을 군수가,

“아, 이기 아이다(아니다). 우리가 전부 뜰 밑에 내려가갖고(내려가서) 함 보자 글마(그러면).”

그래갖고 인자 그 안에 그 사람 사형 시키는 날인데, 그 사람 인자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뜰 밑에 내려와갖고 다 내려와 서이께네, 그기 대들보가 탁 널찌가(떨어져서) 탁 내려앉았부는 기라 집이. 그런께네 인자 그 답에 뭐라고 써 있겠어요? 옛날 글 잘 모르는데.

“아 만인을 인자 살렸으니까, 우리 인자 자식의 죄를 사해 주세요.”

선처해 돌려 카는 그기 쓰여가 있더랍니다.

[수영구 설화 51]

재치로 자기 집 배를 지킨 아이

박은수(여, 1933년생) 구술

2012년 2월 24일 채록

[망미1동 장미경로당]

어떤 인자 사람이 살았는데, 옆집에 요래 인자 배나무가, 인자 배나무가 딱 이래 인자 요쪽으로 넘어와와 논께네, 그쪽에서 인자 저거 집에 넘어 왔다고 자꾸 따먹는 기라. 그랬는기 이 아가 인자,

“왜 우리 낭개에서(나무에서) 달린 그 밴데, 왜 자꾸 아저씨가 따 자십니까?” 이러카이께네,

“우리 집에 넘어 왔으몬 우리 끼지(것이지), 왜 너거 끼냐?” 이라거든. 그러이께네 야가인자 탁 가갖고 주먹을 갖고 문을 탁 이렌께

네(이렇게 하니깐), 문이 마 뚫비갓고(뚫려서) 손이 쑥 드갔거든.

“아저씨, 이기 내 손입니까? 아저씨 손입니까?”

“그거 임마, 그 니 손이지.”

“그라몬 우리 낭개서 열린 과일 우리 과일인데, 와 아저씨가 따묵습니까?”
그카더란다.

[수영구 설화 52]

시아버지의 궁색찬 변명

박은수(여, 1933년생) 구술

2012년 2월 24일 채록

[망미1동 장미경로당]

메느리가 인자 시아부지 인자 여 딱 앉혀 놓고, 마당에 앉혀 놔 놓고.
머리를 인자 이래 깎아 주는 기라. 깎아 주는데, 머리 깎는다고 요래 싸이카네
(하니깐), 옛날에 치마 입고, 요래 마 말치마 입고 적삼을 입어 놔논께네,
젓꼭지가 쑥 나왔다가 드갔다가 이쐈거든. [손으로 흉내를 내며] 시아바시가
고 딱 며느리 앞에 고 딱 머리 대갓고 있는께네, 마 자꾸 그래 싸 놓인
께 고마 쪽 빨아뵈어. 메느리 젓꼭지로 쪽 빠인께네, 그때사 마 아들이 일
하고 떡 오매 본께네 저거 마누라 젓꼭지로 빨아뿌거든.

“에이, 아버지 그게 뭐입니까?”

이라이께네

“야, 이놈의 자식, 너는 우리 마누라 젓 삼 년이나 빨아 쳐 먹고, 내
너거 마누라 젓 한 문 빨았는데 뭐라 카나?”

이카더란다. [일동 웃음]

[수영구 설화 53]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57)

윤재희(여, 1933년생) 구술
2012년 2월 24일 채록
[망미1동 장미경로당]

마 옛날에 모두 고래장 할라 카몬, 나이가 차면, 칠십이 되몬 고래장 산에 그 싣고 간다 카대. 아버지 지게 싣고 산에 간다 아이가? 산에 가몬(가면) 산에 구디를(구덩이를) 파가지고는 열흘이나 일주일 묵을 양식을 여 놓고 고래장 없어지는 이야기라 그기.

그 아들이 손주가, 머스마 아들이제? 아들이 할아버지 갖다 옹고 오이카네, 오민서 가마 보이까네 갔다 와가지고 지게로 지고 오거든. 그 놈두야 되는데. 그래 저거 아부지가,

“야야, 와 그리 지게를 지고 오노?”

이카йка네,

“집에 갖다 놔야 낸중(나중) 아버지도 칠십 되몬 또 아부지도 갖다 고래장 시키지요.”

해가 그래가 고래장이 없어졌다 안 카더나? 그 말이다. [웃음]

[수영구 설화 54]

안사돈에게 잃어버린 갓을 찾아달라는 바깥사돈

김삼례(여, 1945년생) 구술
2012년 2월 23일 채록
[망미2동 희망경로당]

옛날에 한 사람이 사돈네 집에 간다고 갔는 기라. [웃음] 사돈네 집에 간다고 가다가, 중간에 가다 보이, 똥이 누랍은(누렵은, ‘마려운’의 방언) 기라. 변이 보고짚어가지고, 오데 녀의(남의) 콩밭에 들어가서 변을 불라 쿵께, 큰 짹대기 하나 서 있더라 카네. 옛날에는 사돈 의관을 써야 돼. 그래 그 갓 그거를 해가지고 그따(그곳에) 짹대기 우에 집에 걸치게, 이게 황새라. 모가지 쪽 빼가 있는 거. 황새데, 이기 놀래가 하늘로 도망을 가

뻘네(가버렸네).

그래 저거 집에 올라 카이커이까 저그 집이 멀고, 사돈집에 불이 뵈 보 이사서(보여서), 그래 살살 의관이 없이 사돈집에 찾아갔어. 찾아가니, 식구들이 앉아 저녁밥을 인자 식사를 하는데, 미안해갖고, 잣이 없지 딸 망신시킬까 싶어서, 사돈네 사랑채에 가서 구석에 가만이 서있으니까 [웃으며] 사돈이 영감 할마이가 밥을 묵고 내리와가지고, 요새 그 거시기 있제? 거시기, 영감 할마이 거시기로 인자 한참 신나게 하더라네.

그래나노쨌서노, 인자 영감이,

“좋나? 좋나?”

“좋다. 좋다.”

한께 [웃음],

“얼매만큼 좋노?”

하니까네,

“하늘만큼 좋다.” [웃음]

한께서는(하니까), 구석에 서가 있던 사돈이, 바깥사돈이,

“아이고 이 안사돈요, 하늘나라 가거들랑 내 잣 좀 찾아오라꼬.”

[일동 웃음]

[수영구 설화 55]

쫓총에 놀란 호랑이

김삼례(여, 1945년생) 구술

2012년 2월 23일 채록

[망미2동 희망경로당]

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갔는 기라. 올라가이께, 갑작스레 큰 짐채만한 호랭이가 한 마리 나타나갖고, ‘어흥’ 자아(잡아) 물라 카이, 이기 뭐 총이 있나 아무것도 없어 크일났다(큰 일 났다) 싶어가 연구를 해. 이 사람도 머리가 참 비상이 좋은 사람이기 때مین에. 옷을 할딱 벗었어. 옷을 활짝 벗어가 거시기 그거로 살살살 마 이롭게 딱 섰거든.

“호랭아, 내 쫓총 함(한번) 받을래.”

카민서 각 썬께, [일동 웃음] 호랭이 눈에 전부 푸리죽죽 꾸중물 같은 푸리주구루 눈에마 걸리가 있는께, 요리해 봐도 칙침이 불제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기라. 그래가지고 인자 이 사람이 이 남자를 몬 잡아 묵고 마 뺏기고, 이 남자는 도망을 티뻐어(가버렸어).

그래갖고 지 혼자서 이리 문대삼시로(문질러) 살(조용히) 더듬어 내려옴께, 할매가 옛날에는 한 오십 살 되몬 지푸장이(지팡이)를 짚고 대니는 갑데. 요새는 세상이 좋아 안 짚어도. 꼬부랑 꼬부랑 지팡이 짚고 따박따박 올라온께, 호랭이가 이야기인께 그렇게,

“할매요, 할매요, 내가 다 총은 에무십육총 따발총 다 봤는데, 좇총은 처음인데, 그기 그리 겁나요?”

하니까,

“아이고 이 사람들아, 그기 겁나는지 인자 알았더나?”

옛날에 할매들이 풍채 중의(풍차바지), 그 앞뒤 터진 그 거를 입고 살았는데, 딱 벌리가지고,

“내는 좇총을 30년을 맞고나이 요롱타(이렇다).” [일동 웃음]

요롱다 이러캐논께(하니까), 보니까 푸르죽죽이 구멍이 벌꼼 해가 있으며 놀래가 호랭이가 그만 도망을 가빠더란다. 그런께 그 할매도 살고, 이 남자도 살고, 사람이 둘이가 살았다 카대.[일동 웃음]

[수영구 설화 56]

음부로 들어간 이의 수난

김삼례(여, 1945년생) 구술

2012년 2월 23일 채록

[망미2동 희망경로당]

이가 세 바리(마리) 살았어 이가. 뱃구정(뱃구멍, 배꼽) 안에 이가. [일동 웃음] 이가 세 바리가 살았어. 이 세 바리가 의논을 했어 서이가(셋이).

“오늘 우리 바깥 구경 좀 가자.”

이러캐서, 한 바리는 나와서 살살 기서(기어서) 져트랑(겨드랑) 밑에 트럭

(털)에 그 붙어 있다가 나오고, 한 마리는 또 머리로 올라가고, 한 마리는 밑구녕 내리갔다고 간께 솔밭이 하나 있더라 카네. 그 솔밭에서 쪼깨 (조금) 더 내린카네 굴이 한 개 있더라네. 그 굴에 들어가가지고 가마이 (가만히) 구경한다고 있으니까네, 큰 방마치가(방망이가) 하나 들오더니 마는, 요래 패고 [웃으면] 조래 팬게 개 패듯이 이로 뺏는 기라. 쪼깨 있은카네 땀물걸은 물을 팍 찰케(싸니까) 온 몸에 물로 덮어 썻고, 몸에 푸른 단지 얹아 그래 살살 기 나온께, 두 바리는 보고 뺏구녕 와가 기다리고 있어.

“니는 와 이가 오데 갔다 이리 늦노?”

이러캐서,

“너그는 오데 갔더노?”

“내는 저트랑(겨드랑) 밑에 가고”

또 한 마리는,

“내는 머리 위로 올라갔는데, 그래 니는 오데 갔더노?”

그라니까네,

“내는 뺏구녕 밑으로 간다 한께 솔밭이 하나 있고 솔밭 밑에 굴이 한 개 있어. 굴에 들어가가지고 방마치가 들와가 얼마나 내 몸디 푸르단지가다 았았다.” 이래쿠더라네. [웃음]

[수영구 설화 57]

남근으로 손주를 돌 본 할아버지

김삼례(여, 1945년생) 구술

2012년 2월 23일 채록

[망미2동 희망 경로당]

어찌 아가 별난지 손주 머스마(남자 아이) 별나도 못 말기(말려). 못 말기는데, 이 아를 어찌 잘 보고 이 아가 할배를 줄 잘 따라(따라) 땡기고 울도 안 하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하리는 망을 봤어. 저 아들이 일을 나가면서, 직장에 나가면서. 그날도 밥을 묵으면서,

“할배, 내놔, 내놔.”

자꾸 고 말을 자꾸 하더라 카네.

“그래 뭘 내 줄라 카노?”

“그래 가만 있거라, 쪼께(잠깐) 있다. 너거 아버지 넘어가면몬 내 주께, 주께.”

그래 인자 밥을 묵고 아들 메느리는 직장 간다고 가고, 아들은 뒤에서 숨어서 인자 봤어. 본께, 큰방을 데꼬(데리고) 들어가 더란다.

아로(아이들) 데꼬 들어가더만은 옷을 착착착 벗드라 카네, 할배가. 그래 반듯이 누웅께, 손주 머시마 그기, 참 장난감인데, 마 세상 안 보던 장난감이 시커머이(새까맣게) 축 처지갓고, 물렁물렁해가 있웅께, 그걸 쪼물락 쪼물락 주무르고 앉아가지고, 그걸 갓고 점도록(저물도록, 즉 하루 종일) 잘 놀더란다. 그래 놓으니까네 아들이 그 질로 아 저거 아버지 얼마나 불쌍히 하고, 돈을 잡비도 마이(많이) 주고 맛있는 거 해주고, 메느리가 시아버지로 그리 좋게 하더라 카네. 손지 잘 봐줬다고.

저거 할배가 얼마나 머스마가 고집이 세고 별났든지 오만 걸(것을) 해도 다 안 하는데, 그 할배 할딱 벗고 옷을 벗고 반듯이 누워 있으니까, 봉알로 꼬치 만진다꼬. 그기(그것이) 지 땀엔 참 신기하고 좋아논께 안 보던 걸 봐논께. 이제 이야기 다했는데.

[수영구 설화 58]

단칸방에서의 부부 참방(3)

김삼례(여, 1945년생) 구술

2012년 2월 23일 채록

[망미2동 희망경로당]

아들이 한 여섯 명이나 돼, 옛날에 아를 놔놓은께. 한 방에 자몬 영감 할멈 같이, 그거 같이 잘 수가 없거든. 그래 저녁에 인자, 촌에 보통 보면 남자들이 저녁밥 먹고 모실을(마실을) 가는데,

“오늘 저녁 니 문 앞에 있거라이.”

이랬어.

“야, 알았소.”

이람서 갔어. 지금 같은 한 10시 반이나 돼서 모실을(마실을) 한 두바꾸(바퀴) 돌고, 집에 와서 보니깐, 문 앞에 보니 쭈루루 눕우가(누워) 있거든. 그래 인자 마누란줄 알고 막 아들한테 치덴께서로,

“아부지 내요.”

하면서 탁 돌아눕고, 제일 가에 있는 기, 제일 큰 아들이라. 아들이 다섯인데, 가만이 쳐다보이 저- 안 구석에 저 마누라가 읍기가 차거든. 그래 고마 앓은 김에 그마 실실 머스마들 그마 앞이마를 타고 올라강께, 거서 일로 다 보고 요쪽으로 나오께, 두채(둘째) 머스마가 일어나더니,

“아부지요, 온 저녁 내 앞이마 이 좇댄 자리가 갈 땐 뜨시더마(따뜻하더니만) 와(왜) 올 땐 찹소.”

하고 일어나더란다. [일동 웃음]

[수영구 설화 59]

신식으로 함방하려다 겪은 수난

김삼례(여, 1945년생) 구술

2012년 2월 23일 채록

[망미2동 희망 경로당]

신가다(신식)나 구가다(구식) 그거는. 머스마 그도 한 너댓 명 되는 기라. 너댓 명 되는데. 그래갖고 인자, 남자가 오데서 신가다를 봤는가? [조사자: 신가다가 뭔데예?] 신가다는 세아 놓고 하는 기고, 구가다는 눕히 놓고 하는 기라. [일동 웃음]

“온(오늘) 저녁 우리 신가다 함(한번) 하자.”

그래가 선반 우에 냄비도 있고 소쿠리도 있고 막 이래 있는데, 옷을 활딱 벗고 각시를 벗기서 딱 벽에다 붙이 놓고,

“용이~ 땅.”

하면서 옆으로 팍 영을라(널을라) 카니까, 그 영도 못하고 대가리만(머리만) 찢어 가지고, 우에 마 동구도(동이도) 냄비도 막- 떠내려오고(‘떨어지

고'의 뜻으로 말함) 이런께서는, 머스마들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놀래가지고,

“아부지요, 아부지요, 그 구가다 좀 하지, 신가다 하지 마소. 잠도 못 자겠소.” [일동 웃음]

[수영구 설화 60]

아들 내외와 한 방 쓰는 시아버지의 수난

김삼례(여, 1945년생) 구술

2012년 2월 23일 채록

[망미2동 희망경로당]

호부(홀) 시아버하고 메느리하고 한방에 자는데, 아들이 참다가 참다가 안 돼서 둘이서 인자 그날 저녁에 일을 벌리가(벌려) 신나게 한게, 밑에 이불이 없어가 밑에는 깔고 위에는 새 덕석을 덮고 있는데, 우에서 꼴리(굴려) 제치겠서는 이게 덕석이 밀리갓고 할배 텍을(텍을) 탁 꼬아. [일동 웃음]

[칭중 : 덕석을 덮고 잤내.] 응, 덕석을 덮 잔게, 그래 신랑이,

[목소리를 낮추어서] “좋나? 좋나? 좋나?”

대답을 안 하거든. 할배 절에서(옆에서) 미안해가지고. 보다 보다 안 돼가꼬 할배가,

“아이고! 아가 좋으면 좋다고 이야기 좀 해라. 내 모가지 빠지는다.”

해서 보이, 불로 켜서 보이, 덕석이 요 세계 텍을 꼬아나서이 얼마나 아팠겠노?

[수영구 설화 61]

바보 부인의 애교가 부른 수난

김순년(여, 1931년생) 구술

2012년 2월 23일 채록

[망미2동 희망경로당]

저 옛날에 참 바보 비슷한 두 신랑각시가 인자, 께혼을(결혼을) 해가 사는데, 그 신랑한테 인자 막 애교 지킨다꼬, 저 한테(밖에) 가서, 저거 오데 가다가 인자 똥을 누러버가갖고, 똥을 눈다고 이래가 앉아가 똥을 눕서(누면서) 이래 하고 있는께네, 요래가 치다봄서,

“아 여보, 여보. 저 하늘 별님이 뽀짝뽀짝하네요.” [웃음]

이래 쿠거든. 그랑께,

“뽀짝뽀짝하네요.”

한께, 또,

“여보 저 달님도 뽀짝뽀짝하네.”

“오데? 오데?”

이래쌌서 신랑이 이래쌌거든. 그랑께 하도 같잖시러바서(같잖아서) 어떤 놈 이 이만- 한 돌멩이로(돌맹이로) 갖고 마 썰리 둘이 그래쌌는 데다 때리 뻘어. 때리놔께, 신랑이,

“아이고! 달님은 달님이라 쿠고, 별님은 별님이라 쿠는데, 달님달님이라 쿠고 별님별님이라 쿠는데, 와 그만 일에 벼락(벼락) 치노. 그만 일에 벼락 치노.” 쌌서 마누래를 똥치(둘러) 업고고만 갔비더라카네(가더라네).

[웃음]

[수영구 설화 62]

쌌나발 불기 처음이다(3)

염정순(여, 1931년생) 구술

2012년 2월 23일 채록

[망미2동 희망경로당]

들에다가, 그날 논에 모를 마이 승구고(심고) 일을 하거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집 메느리(머느리) 인자 참을 해가 가야 된단 말이다. 참을 해가 일라를(아기를) 업고, 통에다 참을 해가 이고, 인자 우에다 비가 오이 샷갓을 덮고, 그래 가다가 보이 오줌이 너무 매렵는(마려운) 기라. 어-찌 오줌이 매라바 못전디서러 어쨌 수가 없어서 보이, 요래 두름(두렁, 논두렁) 밑에 보이 요래 구멍이 하나 뚫이가(뚫어져) 있었어. 그 구녕 거다

대놓고 오줌을 이래 누이카네, 그 기가(게가), 똥끼가 그놈이 들어가 있고, 마 보지 그거 끝티 고거로 짹 몰아뺐네(몰어버렸네). [일동 웃음]

각 물으뿌노이(몰어놓으니), 마 죽을 지경이라 인자. 이놈은 무겁제, 아는 업았제(업었지), 치마는 내라(내려) 놓고 있제 마.

“동네 사람, 날 살리주.”

괘을(고함을) 질러이카네(지르니까), 언(어느) 놈이 오야 말을 하제. 그 래 어떤 한 남자가 나발로 가지고 나발 불리 땡기는 기라. [일동 웃음] 마 어떤 여자가 마 사까시 구불고, 처메가(치마가) 너불거리고 마 죽는 짓을 하거든. 이래 가가지고 그래, [일동 웃음]

“아주무이. 아주무이. 와 그라능교?”

이라이카네,

“아이고 우짜꼬 내 죽겠다. 내가 여게 오줌을 누다가 기가(게가) 나와 가지고 내 보지를 물았는데, 이를 우짜노?” [일동 웃음]

“아, 그라모 치매 들치소. 내가 곤치(고쳐) 주끼요.”

이래. 곤치 줄라 카이까네, 마 좋아가 치매 떠드이(들어서 올리니), 텍 나발로 마 텍 부이카네 마 기가 마 딱 떨어졌부거든. [청중 웃음]

“삼십년을 나발 불리 땡기도(다녀도) 씹나발은 처음 불어봤소.”

이란다. [일동 웃음]

[수영구 설화 63]

서울 신랑각시의 말을 흉내낸 대구 신랑각시

염정순(여, 1931년생) 구술

2012년 2월 23일 채록

[망미2동 희망경로당]

저 대구 사람 신랑각시하고 서울 사람 신랑각시하고 제주도로 여행을 갔거든. 가서 떡 인자 찻집에 가서 차를 한 잔씩 마실라 카이까네(하니 까), 생잔에 모르는 사람이 같이 한 판에 앉았는 기라.

이 짝 사람은 서울 사람이고 이 짝 사람은 대구 사람이거든. 대구 사람이 말이 좀 뻗대다 아이가 그제? 우리 부산이라 똑같거든. 그래가 인자

그 사람이 인자, 서로 인사를 하고 이랬는데, 그래 인자 마시고 이래쌓고,
그래 뭐 묵고 이라이 카네, 서울 사람 여자가 하는 말이,

[낮은 소리로 애교 있게] “여보, 배가 좀 아파요.”

이라면서 막 요래 애교를 지기거든. 지긴카네,

“알았어.”

카면서 약을 사가 였더란다. 약을 사와가 막 자시라 하고 마시고 이라는데,
하도 서울 사람이 너무너무 잘해서로, 이 또 대구 아지매가,

“보소, 나도 저 먹고 나이 배가 아픴니다.”

“짜다리(많이) 집어 처먹드만 내 알아봤다.” [일동 웃음]

그라거든. 그래가이고, 또 인자 그 사람 두 쌍이 바닷가에 놀러를 갔거든.
바닷가로 놀러를 가йка네, 가을쫘 늦은 가을쫘 되이 마 바람도 불고 춥고
이렇다 아이가. 이런카네 그래 인자 서울 사람은 또,

“아이고, 여보 추워 죽겠어요. 추워요.”

카이, 우와기를(윗옷을) 답씩 벗어가 턱 덮아주거든. 덮아주는데, 그래 또 이
대구 사람은 그것을 보이 또 부럽거든.

“보소.”

이래.

“와?”

이라이카네,

“나도 출십더.”

이라이까네,

“그렇지. 귀때기가 시-퍼렇다. 함 봐라. 저 봐라.”

카더란다. 그래 인자 그래 해나 놓고, 어찌 보굴이(화가) 나는지. 또 인자
서울 사람이,

“여보 하이고, 참 별이 좋아요. 우리 서울도 다 보고 있겠제.”

하미(하며) 애교를 지기거든. 이라이카네,

“그래 맞다. 참 보겠다.”

이라이카네 이 사람도 또 그 애교 말 한 번 들을라고, 지가 쪼금 여자가
높은데 쪼개 있었던 모양이야, 남자는 낮은 데 있고. 그 지도 그 말을 했
거든. “보소. 저 별이, 저 보소. 우리 아들도 다 안 보겠나?”

이라이카네,

“그 대가리(머리) 좀 치아라 보구로.” [일동 웃음]

[수영구 설화 64]

며느리의 방귀 힘(2)

배옥순(여, 1928년생) 구술
2012년 2월 20일 채록
[민락동 민락경로당]

며느리가 하도 얼굴이 노-란해서 시아버지가,
“얘야, 와 니 얼굴이 왜 그리 노랠노?”
카이까네,
“아부님, 내가 방구를 못 끼서 그렇습니다.”
이라더라요.
“그럼 니 함 끼바라.”
카이까네,
“어머이는 가서 부엌에 가서 솔뚜껑을 들고, 시아버지는 성주 지동을
(기둥을) 쥐고 있으라.”
하더란다. 그래 마 며느리 방구를 그러니까네 풍- 끼이 지동이 흔들흔들
하이까네, 시엄마가 놀래가 솔뚜껑이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웃음]
시아버지는 지동을 잡고,
“인자 고만! 인자 고만! 고만!”
그라더라.

[수영구 설화 65]

구렁이로 보이는 제삿밥의 머리카락

배옥순(여, 1928년생) 구술
2012년 2월 20일 채록
[민락동 민락경로당]

어떤 영감결은 사람이 술이 취해가 오다가, [조사자가 녹음을 좀 더

가까이 하려고 제보자 가까이 다가가자] 와 이래 바짝바짝 들어오노? 저 만치 나가라. [웃음] [조사자 : 그래예.]

술이 진득 취해가 오다가 어데 쓰러져 눕었는데 뒷등이라. 뒷등에 가만히 눕어서 잠이 들어 깨йка네,

“친구야 친구야, 내 우리 아들네 집에 오늘 내 제삿날인데, 내 며 마이 얻어가 오꺼마. 가만히 있거라.”

이라고 가더마는 좀 한참 있다 오는 사람이,

“멧밥을 들어보이 구렁이가(구렁이가) 있었어. 손자 아를 부엌에다 탁 차영어뿌고(차넣고) 왔다.”

그라더라요. 그리까네,

“구렁이가 머리카락이 들어갔는 기, 인자 정성이 니가 부실하이 너거 자식을 부엌에다 차영어뿌고 왔다.”

그래 하더라꼬. 그래 저거(자기) 집에 오йка네 저거 집이더래. 술 취헤 사람이, 뒷등에 눕엇던 사람이 오йка네, 즈그 집 제사를 모라고(모르고) 그래 돌아댁기는데, 마느래가 저 멧밥에다가 머리카락을 넣엇던(넣엇던) 모양이지. 그래 인자 구신에(귀신의) 눈에는 그게 뱀이라 하데. 그러йка네 네 정성이 부실하다 해가지고 손자를 부엌에다 차영어뿌고 왔다. 그래 지가 저거 집에 가이 저거 집이더래요 그기.

[수영구 설화 66]

닭소리로 몰래 만나는 노인 부부

백남순(여, 1930년생) 구술

2012년 2월 20일 채록

[민락동 민락경로당]

노인 할배 할매가 있고, 둘이 내우간인데(내외간인데), 아들 때미(때문에), 둘이 인자 그걸 만나지를 못하는 기라요.

그런께 영감이 아랫방에서 ‘꼬꼬-’ 하면 나오라고 그런께, 그것도 잊어 뿌렀다. 썩 뭐 ‘삐약삐약’ 소리가, 아 뭐라 쿠고 여자가 나간께, 저그 아

들이 잠을 깨갓고 ‘삐약삐약 삐약’ 인자 빼가지(병아리) 소리를 하고 따라 나가더라.

[수영구 설화 67]

아빠가 엄마 배 위에서 자요

백남순(여, 1930년생) 구술

2012년 2월 20일 채록

[민락동 민락경로당]

신랑각시 요리 인자 그걸 풍자를 했는가 봐요. 그래 손지가 보고, 아들이 보고, 할배를, 할배를 보고,

“할배 할배, 저 작은방에 고구마 줌 치아주소(치위주소). 고구마 가마이(가마니) 줌 치아주이소. 속아, 줍아서 아빠가 엄마 배 위에서 자요.”

[수영구 설화 68]

작은 별 하나 비몰어진 칠성 별

백남순(여, 1930년생) 구술

2012년 2월 20일 채록

[민락동 민락경로당]

아들을 일곱을 낳는 기라. 일곱을. 일곱을 낳는데 묵고 살 기 없어요. 영감도 없고, 인자 혼자 됐는 기라.

그래 묵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 강을 건너가 그 추운데 마 보신발을(버신발을) 벗고, 강을 건너가 영감을 하나 얻어놓고, 묵을 걸 갖다가 아들 먹이(먹여) 살리고 인자 그러는데, 아가 하나 큰아들이, ‘울 엄마는 밤만 되면 어디로 가는고?’ 싶어갓고 뒤를 따랬는(따라갔는) 기라요.

뒤를 요래 따르니까 그 마 물을 강물을 건너가더라요. चु은데. 그래 인

자 큰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가 저렇게 강을 건너가서 우리를 먹여 살리니까 다리를 하나 놔 주자.”

큰아들이 그랬어요. 그래 다 좋다 쿠는데 막내이가 싫다 카더라요. 그래 별이, 별이 있잖아요? 일곱 개. 별이 있는데 하나가 싫어해논게 하나 별이 한 개 쪼갬하다고(조그만하다고).

[수영구 설화 69]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67)

백남순(여, 1930년생) 구술

2012년 2월 20일 채록

[민락동 민락경로당]

법에서 몇 살만 무면 안 갖다 내뺄면 그것도 법에 걸린가 봐요. 옛날에. 그래갖고 아들이 엄마씨를(어머니를) 인자 지고 지게에다 지고 저 산에다 갖다 내뺄고(내버리고) 왔는 기라. 그래,

“아부지 아부지, 나도 지게 맞차죠.”

“말라고(뭐할라고)?”

“아버지도 엄마 갖다, 엄마 갖다 내뺄린께, 나도 아버지 늙으면 나도 갖다 내뺄리야 될 끼요.”

그리가지고 그기 없어졌대요. [조사자 : 아 고래장이.]

[수영구 설화 70]

똥을 씻어 지은 밥으로 시어머니 봉양한 며느리

백남순(여, 1930년생) 구술

2012년 2월 20일 채록

[민락동 민락경로당]

흉년이 그리 저갓고 묵고 살기 없어저갓고, [조사자 : 옛날에 옛날에?] 예. [조사자 : 흉년이 들어가지고?] 예. 시어마시 밥을 해줘야 되는데, 양식이 없는 기, 식량이 없어갓고, 옛날에 그 왜 소똥인가 말똥(보통 ‘개똥’으로 구슬된다)인가 그거 삶으면 막 그대로 보쌀(보리쌀) 그대로, 보쌀 묵으면 보쌀 그대로 나온 걸 [조사자 : 보리쌀 나온 거.] 예. 그걸 주다가(주워서)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천 번도 만 번도 씻어갓고 그걸 밥을 했더라.

[수영구 설화 71]

이상하게 생긴 입 보고 도망간 호랑이

오동주(여, 1934년생) 구술
2012년 2월 20일 채록
[민락동 민락경로당]

옛날에 그래 호래이가(호랑이가) 있어가지고, 그리를(그곳으로) 못 넘어가는데, 그리 가지 마라 카는데, 갔는데, 호래이가 인자 나타났어요.

그러이 도저히 우짤(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게 치마를 꺼꾸로(거꾸로) 폭 덮어쓰고, [치마를 뒤집어 쓰는 흉내를 내며] 이래 꺼꾸로 이래가지고 있으니까는, 호래이가 고만 그 저게 여자들 꺼꾸로 이래가 있는게, 놀래가지고 도망을 갔다고 그 이야기.

[청중 : 입이 희안하게 생겼다고(생겼다고).]

[수영구 설화 72]

고려장 가도 자식 걱정

오동주(여, 1934년생) 구술
2012년 2월 20일 채록
[민락동 민락경로당]

나 많은 사람을 지고, 저게 고래장(고려장) 한다고 지고 갔는데, 인자 지게를 니루고(내리고) 보니까는 자기 부모가, 엄만가 아부진가 모르는 데, 부모가 손에 피가 줄줄 흐르더라고. 그래서,

“어째 해서 그래 이래 피가 납니까?”

물으니까,

“나는 이왕 가만 죽지마는, 니가 너무 꼴작으로(꼴짜기로) 왔기 때문에 질(길) 못 찾을 가 싶어서 짜리 앞으로 이래 길 오는 데마정(데마다) 이래 흔쳐났은께(흐트려 놓았으니) 고리로(그곳으로) 가몬 된다.”

이라더라고요.

[수영구 설화 73]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77)

조계 향(여, 1933년생) 구술

2012년 2월 20일 채록

[민락동 민락경로당]

옛날에 대감의 집에서, *○○○* 인자 말하자면 저거 집 나오듯이 나와가 사는데, 못 살았어. 밥을 먹고 산다 캐도 참 시아바시 시어마시 밥 떠주고 쌀 한 줌 엇어놓으몬, 보리밥 엇어놓으몬 이래저래 갈라 밥 함(한 번) 떠주고 나면, 신랑 떠주고 새끼 줄 끼 없는 기라.

그래가 먹고 사는데 너무나 힘이 들어가 억지로 남의 밭을 매주고 참 고구마를 캐주고 이래 살았대요, 옛날에. 그래 살았는데, 칠십이 고려장 아입니까? 고려장인데 나이가 됐이(되었으니) 엄마를 갖다가 내빼리야 될 거 아인교?

그래서 이 아들이, 아들은 효자라. 효잔데, 지게로 다독거러(다독여) 보고 다독거러 보고, 이래 함 만쳐보고(만져보고) 또 생각하고 또 한문(한 번) 그 하다 와가 또 생각하매 눈물을 흘리는 기라. 엄마를 갖다 내빼리야 되는데 먹을 거는 없지만 그대로 살 수 있는데, 거기 법적이 요새 법걸으면(법같으면) 인자 안 되는 기라. 안 갖다 내빼면 소문이 나면 안 돼.

아무리 산꼴짝이라도 연결이 다 있잖아요.

그래 산촌에 사는데, 그래 한 번은 할 수 없이 참 요만한 나무 저 그 거 톱배이(토막) 타는 바가치에다 밥을 담고, 그래 인제 그걸 엄마로 지게다 지고 갔대요. 그래,

“엄마, 안으로 지지 말고 뒤로 져라.”

이랬대요. 그래,

“와?”

카인께네,

“엄마가 길을 알고 가면 더 안 되이.”

뒤로 지게를 부뜰면 요래 앉잖아요. 그란테,

“요 바탕을 놔놓고 짚을 해야 엄마 궁디가 안 받친다.”

카이 궁디에다 짚을 요렇게 묶아 놓고 뒤로 앉았대요. 뒤로 앉고 가이께네, 눈을 껌아가 갈 거 아인교? 차도 뒤로 타모 어지럽잖아요?

“눈 감고 가라. 그래 엄마가 짚을 모린다.”

그래가 인자 모시고 갔는 기라. 그래 어느 골짜 한 구석 가면 옛날에 고려장하면 알곳게 미를(피를) 파냈잖아요. 하모 사전에 굴을 파냈는 거라. 그래 그 가다 영고나이 자식이 부모 정이라는 기 그렇잖아요.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그래가 돌아 나오는데, 그래 오는데, 요 손자놈이 살살 따라 왔어요, 뒤로. 할매 오는 대로. 따라 와가지고, 그래,

“아버지요, 그 지게를 놔놓고.”

어구야꼬 안 올겠는교? 부모를 놔두고 가이. 아무리 언제까지 살다 죽을지는 몰라도 그래서 눈물로 흘리고 있으이, 돌아 서이,

“아부지요.”

카이,

“야야, 와 니가 와 이꺼정(여기까지) 왔노?”

카이,

“난도 배아야(배워야) 안 되는교.”

카더란다. 그래서 무릎팍을 치면서,

“그래 내가 잘못이 아이고 이기 내려오는 조선 참 시족보로 내려오는 당대로 이르니까 도리가 없어 하는 일이지, 이기 효가 없어 그런 건 아

이다.”

그라이께네,

“그러나 저나 아버지 내가 배아야 안 되겠는교.”

카미,

“그 지계를 가지고 가자.”

카더라요. 그 지계를 지면서 아들로 불들고 올었다 카는 그런 역사가, 애기가 있대요.

[수영구 설화 74]

지렁이 반찬으로 시어머니 봉양한 며느리

조계 향(여, 1933년생) 구술

2012년 2월 20일 채록

[민락동 민락경로당]

옛날에 처자 총각을 만났는데, 결혼도 모하고(못하고) 머슴살이하고, 옛날에는 요새 파출부매로(파출부처럼) 일해 주는 여자가 아(안) 있나? 남의 집에 종도 아이고, 그거는 가만 있는 종도 아이고, 고마 못한 집, 없는 집 딸이 와가지고 머슴살이 하든도가(하는 듯이) 붙어 그 집에서 또 인자 머슴살이 했는 기라.

같이 하는데, 대감도 아이고, 그제 인자 사는 기 그대로 밥은 먹고 사는데, 일을 모하이(못하니) 머슴을 디렸고(들였고) 딸아를 열라(아기) 불라고 하나 디렸는 기라. 그래가 둘이 사는데, 열여덟 살 스무 살 두 살 차이로 됐는 기라.

그래 그 머슴 사는 머시마가 이 딸아를 꼬았는(피었던) 기라. 둘이 살 자고. 그래 결혼도 모 하고 둘이 가가 살았어. 사는데, 아로 놓고 사는데, 없으니까 또 머슴살이로 가야 되는 기라. 등념이 이십리 백이나(밖이나) 되더라. [제보자 자신에 관한 이야기로 말을 바꾸어] 한 몇 시간 걸린다 카는 거 보이, 그리 가가지고 할마이가 담배 꼭지를 물고 이야기로 하대. 그때 내가 열 네 살인가 그때 들었는 게 아직 있어.

그래 그카는 기라. 그래가지고 가가 있는데, 인자 일을 하고 밤에 되면
와야 되는데, 여자한테 와야 되는데 모오는(못 오는) 기라, 이 남자가. 일
을, 점토록(저물도록, 즉 종일) 일을 하고 나마(나면) 그 일을 하다보면,
늦게 머슨 뭐 소 밥 주고 뭐 하다 보몬 늦어가 모오는 기라.

그라이까 혼차 있는데 어느 한 인제 가을이 됐던 모양이라. 팔월달이
됐는데 그 올라 카이 저 쪽 인자 콩이야 뭐야 껌고, 이래 수시(수수), 촌
에는 수시가 마이 하잖아요?

그래 비가(베어서) 떨가가(털어) 모와가지고(모아서) 근 두 달을 모왔
다요. 모오는데, 머슴살이 일 년, 쌀 한 가마이 보리쌀 한 가마이 이런 거
받으며는 일 년을 먹고 살아야 된게, 못 먹고 살잖아. 그래 너무 없어서,
“야야, 닭을 포동포동 삶았는 그기 먹고집다(먹고 싶다). 뭐가 먹고집다.”

내- 그래사도(그렇게 해도) 모해쥬는(못해준) 기라. 그래서 이 성님 말따
나 인제 이거 이런 따는(땅에는) 팔마(파면) 거시가(지렁이가) 빨긴(빨
간) 기 나오잖아. 이거 수채 있는데 파면은 시커머이 이래 거기 있어. 티
가(테가) 매여 있는 게 있어. 패이면(파면) 붉은 기 있어.

그거를 가래이(고랑을) 파가지고 몇 말씩(마리씩) 몇 말씩, 옛날에는
냄비가 없었잖아요? 요 툇추바리(툇사발, ‘툇배기’의 방언) 아이가? 툇추
바리로 부어가 뜰지름을(들기름을) 열어가(넣어서) 꼬았더라고요.

삶아가지고 쥬는데, 그기 꼬시다고 소금을 열어가 주면, 그기 장이 없
어 장도 모 열었대요. 소금을 열어가 꼬아주면 그렇기 맛있다고 먹고,

“내가 이래 맛이몬(맛있으면) 아들로 비야(보여야) 된다.”

고. 이런 자리가 아니잖아, 초석자리잖아요, 한 동가리 먹고 주 열어놓고,
요는 대가리로 한 동가리씩 먹고 주 열어났는 기 에범(제법) 마이(많이)
모였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인자 아들이 석 달만에 오이께네, 엄마가 마 영판
얼굴이가 좋아져. 촌에 할마시들 개지리하이(찌죄죄하니) 이런데, 그래
좀 뽀했던 모양이라. 그래서,

“엄마, 어째 이렇게 얼굴이가 영 달라졌니더?”

카이,

“아이고 야야, 아 어마이가 날로 뭐로 해주는데, 그 국 맛있는 국을 그래
나날이 끼리쥬다. 뗏 달 이래 먹고나이(먹고 나니) 내가 기운이 나고 소

변이 잘 나온다.”

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그 고기가 그렇게 맛있던교”.

“아. 그런데 니가 여기 와바라.”

카면서, 손을 떡 들고,

“이걸 함 들서봐라(들추어 보아라).”

카이, 거시(지렁이) 대가리가 줄줄이(줄줄이) 있더래요. 거시 굶으이께네, 에범 굶잖아요. 티 감아난 거 굶거든요?

그래가지고 놀래가 엄마한테 카몬 안 될 기고, 그래 인자 나와가 마누래 손을 잡고 저 산 밑으로 디루고(테리고) 갔대요. 가가,

“울 엄마를 직일라고 그랬나? 니가 어짤라고 그래.”

“거기 아이고 어느 한의원에 가이께네, 이기 그리키(그렇게) 보신이 되고 좋다 캐서 해미있다(해서 먹었다).”

카이, 그래가 열녀상을 받았다.

[수영구 설화 75]

방이 뜨거워 사빠가 엄마 배 위에 있어요

유종선(여, 1940년생) 구술

2012년 3월 1일 채록

[민락동 민락희촌노인정]

저그 아버지가 인자 엄마 배 위에 있었던 모양이제.

“아이고- 이쪽에 와봐, 엄마 엄마.”

저 보일러 저거, 그때는 연탄을 땀어.

“연탄방이 뜨겁다고, 엄마가 저저, 아빠가 엄마 배 위에 올라가가 있다.”

[수영구 설화 76]

장사하다가 낭패를 당한 게 장사

김복리(여, 1932년생) 구술
2012년 3월 1일 채록
[민락동 민락희촌노인정]

예전에 남자가 아내가(한 사람이) 바지기다가(바지게에다가) 인자
기로(게로) 이래 담아가지고 팔러가는데, 기 사라고 외고(외치고) 땡기는
데, 이기 뺨꿈을(거품을) 북극북극 내놓거든. [청중 : 기가 그란다.] [조사
자 : 아, 아 거품이지.] [웃음] [청중 : 녹음 하이소 어서.] [조사자 : 아
예, 돼 있습니다.] [웃음]

그래 여자들이 기 사러 왔거든. 기 사러 와가지고, 뺨꿈을 내놓으이께
네,

“하이고 자가, 기가 뺨꿈을 내놓는다.”

그래 기 살라 카거든 돈 내 노라(놓아라) 이 말로 갖다가,

“[웃으며] 기 사고짚거든 돈 내나라.”

이기라. 뺨꿈을 부글부글 내놓으이카네 그래 우시개(우스개) 말로 하이
께네, 여자들이가,

“아이구, 말도 무슨 말로 그래 하노. 건방지게 한다.”

참서, 고래 마 마 기 장사로 마 두드리(두드려) 펄라고 달라드이께네, 마
기 장사가 놀래가지고 마 바지기도 내빼리고 달라뺨는(달아나버렸는) 기
라. 달라뺨부가지고 인제 어덕(언덕) 밑에, 이래 었디리가지고 [숨이 가
쁜 듯이 흥내내며] ‘허어허어’ 막 숨이 가빠 달라띠이 와놔놓이까네 막
숨이 가빠가지고 ‘헉헉’ 이래 하고 있으이께네, 그 깨구리가(개구리가),
깨구리가 어덕 밑에 거서로(그곳에서) 가심이 ‘빨딱빨딱’ 하이, 지강 같이
‘빨딱빨딱’ 하고 있거든. 이래논께,

“하 니도 기 팔로 갖더나? 날강같이 가심이 팔딱팔딱 하더나.” [일동
웃음]

[조사자 : 거 깨구리로 보고.] 응.

[수영구 설화 77]

도깨비에 홀려서 일찍 죽은 사람

최낙규(여, 1936년생) 구술

2012년 3월 1일 채록

[민락동 진로비치아파트노인정]

연을 부리는데, 연 그기 눈 오고, 허현(하얀) 눈이 왔는데, 씨래기를 삶
아가 씨래기 빨리 갈라 쿠더란다.

“야 이년아, 해가 다 지고 어둡는데 말라고(뭐 하려고) 갈라 카노?”
쿤께,

“빨고 오꿈께(올께).”

하며 나가더만 다시 안 오더란다 이년이. 그래가이고 우리 저저 할배가
저 우마로 카는 데 서자아(서장예) 가가이고 공부를 하고 올라온께네, 나
막신을 떡 신고 온께네, 이년이 감시러(가면서) 늘,

“삼작삼작 서방서방.”

쿠는 기라. 요 삼작 가면 요 서방 쿠고, 저 삼작 저 서방 쿠고, 서방꼬
(서방 하고) 부르는데, 그래 거거 어른이 움시러 본께, 서방서방 부르고
내-(계속) 집에 종이 그래 가거든. 본께,

“저년이 와저래 쿠노.”

팜(고함)을 지른께, 고마 고목나무 밑에 가가 콕 찝가빠더라 카대. 뺨
을 썤리가이고 텍고(테리고) 왔는데, 멍청하니 해가이고 한 삼 년 사다가
죽었다 쿠대. 죽었는데, 그래 지가 그러쿠더란다.

씨래기를 판께, 키가 팔대장 같은 놈이 오디마는, 나막신을 떡, 참 알
꽃이 뿔이 신었는데, 밑은 쳐다본께 안 비이고(보이고), 쳐다볼수록 자꾸
크더란다. 그라디마는 뭐로 작 설치고 고마 꼬고(끌고) 가더라 카대. 그
라이 멍충하이 해가 삼 년 살고 죽었다 캐. [조사자 : 아하, 거 안자 머
어찌 보몬 도깨비를 만나고 귀신을 만난 셈이네.]

[수영구 설화 78]

배 그림을 보고 자기 엇을 아는 바보

최낙규(여, 1936년생) 구술
2012년 3월 1일 채록
[민락동 진로비치아파트노인정]

그래,
“자네 성이 무엇인고?”
쿤께네,
“배감니다(배가입니다).”
캐서, 배를 기려놓고 꼭디기로(꼭대기를) 안 그렸는 기라. 그 이튿날 그
주인이 머슴을 부림시러(부르면서),
“공서방, 공서방.”
하고 불렀거든. 그래 주인이, 머슴이 와가이고,
“제가 공가가 아이고 배갑니더.”
쿤께, 주인이 무릎을 탁 치면서로 꼭지로 안 줬구나(주었구나).

[수영구 설화 79]

누나 제사 지내러 가다 죽을 뻔한 동생

강도윤(여, 1934년생) 구술
2012년 3월 3일 채록
[수영동 상춘경로당]

우리 진주 있을 적에 저 앞마을이라 쿠는데, 수박밭을 숨가갓고(심어
서) 수박막을 지어났는데, 하루 저녁 밤에 이 수박막에 떡 있응께네, 강
가서 고마 내 죽는다고 울어쌌거든. 움서러(울면서),
“아이고, 내 좀 봐 도라. 살리 도라. 내일이몬, 내일이몬 저 우리 동생
이 올 낀데, 그 자 오면 내가 저 그석해 주꾸마. 대책 세워 주꾸마.” 이
러쿠거든. 가만 이 사람이 듣고 본께 이상하다 아가. 그래서 대책을 세워
주꾸마 이러카는데. 인자 물에 빠진 사람은 하나 밀어 넣어야지 지가 나
오고, 인자 또 차 사고 난 데도 하나 밀어넣어야 그 먹인다(먹인다) 쿠

대. 그래 이 사람은 인자 저거 누나라. 저거 누나가 물에 빠져 죽었는데, 그 저 깨고리(개구리)바우, 거 진주 깨고리바우라 쿠는 데(하는 데) 거게서 저거 누나가 죽었는데, 그래 인자 동생이 저거 누나 제사 지내러 간다고 인자 올끼라고 그래서 인자,

“내일 저녁이른 저 저 내 제산디, 올끼게네.”

그자 인자 밀어 열어준다 그 뜻이지. 동상을 밀어 열어 준다고. 그래 마이(가만히) 수박밭에 있응게네, 저녁 때 해가 설핏한데 아이 참 청년이 하나 헐레벌레 오더란다. 와서,

“이 가는 청년, 이리 좀 와보라.”

이러쿤께, 그래 왔더라네.

“그래 수박밭에 올라오라.”

고,

“수박 한 덩어리 목 추자(축여) 줄 낀게 올라오라.”

쿠더래. 갖다놓고 조금 있응게네, 고마 이 게거품을 내놓고 이게, 안 가도 물에 안 빠져도 죽는기더랍니다 그기. 그 시(時), 때가 되게네. 그래 고마고 와서 딱 동상이 올 때 되께, 그 사람 귀에는 그래 쿠더라 캐,

“인자 왔다. 너거 멋대로 해라.”

이렇게 됐던 모냉이지. 그란게네(그러니까) 고마 그서(그곳에서) 마 기거품을 내놓고 눈을 짝 감더라 캐. 그래서 고마 신작을 들고 뺨(뺨)을 썰리(때려) 줌서 마,

“어데 여서 이런 행사 하느냐.”

고 마,

“오데 와서 마 또 이런 행세로 여와가 할라 그러쿠느냐.”

고, 신작을 벗어가 마 뺨을 썰리줬는(때려줬는) 기라. 뺨을 썰리 주 때 좀 있으이게네 살살 깨어나더라 캐. 그래가 죽을 끼리갓고(끓여서) 총각한테다 딜루고(넣어 주고),

“그래, 어데 갔냐?”

쿤께,

“오늘 누나 제사 지내러 간다.”

“누나고 뒤희고(뒤희고) 치아뿌라(치워버려라). 그래 당신이 오늘 내 아니었이몬 당신은 오늘 목숨 떨어졌다. 근게네(그러니까) 내가 들었인

깨네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시간 넘긴다고 당신이 잠가졌다(쓰러졌다) 깨어났다.”
쿠면서로 그래 쿠대. 그러 쿠더라고. 우리 참 진주 그 앞마을이라 쿠는데 거기서 그랬어.

[수영구 설화 80]

구렁이가 된 스님을 사람으로 환생시킨 상좌

강도윤(여, 1934년생) 구술
2012년 3월 3일 채록
[수영동 상춘경로당]

저 스님이 옛날에 난리 때, 스님이 어찌 욕심이 많은지. 욕심이 많아갔고 그래 인자 스님이 피란을 가야 되는데, 소가 농사를 지은게 소가 많고, 스님 눈에는 집이 저 들에 있는 게 소가 누러이(노랑게) 소가 전부 자기 소거든. 그랬는데, 난리가 지금 나서 그 스님은 갈라꼬, 저기 그서(거기서) 지리산을 피란을 갈라고 떡 절로 나선게, 강이 고마 딱 갈라 절이(길이) 돼빠거든. 아무리 스님은 가자 캐도 스님은 안 가는 기라. 스님이 욕심이 많아서, 들에 소가 많아갔고 안 갔어. 그래가,

“에라이, 치아빠라(그만두라).”

이 상좌스님만 쏙 건네간게 물이 떡 오뭇(오무려)부거든. 고마 스님 내뻤다 아이가. 그래 상좌스님 지 혼차서(혼자서) 저 지리산 참 먼 데 가갔고(가서) 도(道)로 틈났는 기라. 도로 틈아갔고 거서 한 마 이십 년 도로 틈아갔고, 떡 절에 온다고 온게네 스님이 죽었어. 스님 죽었는데, 구렁이가 됐는 기라,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 탁자 밑에가 구렁이가 돼갔고 탁들어앉아 있거든.

가만히 도를 틈운 이 상좌가 생각을 하기로, ‘어떻게 하몬 저걸 구할까?’ 이리 생각을 했는 기라. 그래서 에라 그래 인자 아줌마들로, 밥해먹는 아줌마들로 인자 시키서, 팔을 한 가마니 내 주민서,

“죽을 끼리라.”

죽을 끼리갓고 마 다래이에다가(다라에다), 마 요새 같으면 다래이지 뭐. 옛날에는 버지긴데, 녀적 버지긴데. 축담 끝에 거따(그곳)에 쪽 내서 몇 버지기(바가지) 퍼내 왔는 기라. 퍼내놓고, 저녁에 퍼내놓고 인자 누워 잤는데, 그 욕심쟁이가 돼놓은께 그 구렁이가 고마 그 죽을 다 퍼먹어뵈는 기라. 다 퍼먹어뵈까, 배가 툭 터진께네 그서(그곳에서) 나비가 한 마리 날라 오는 기라.

그래 이 상좌가 인자 자꾸 훌차서(후쳐서, 쫓아서) 가는 기라. 소한테 가서 붙으론 또 소를 때리 주고, 개한테 붙으론 또 개를 때리주고, 또 인자 저 저 무슨 짐승한테 가서 붙으면 짐승을 때리 주고, 인자 또 날라대니는 짐승한테 가서 붙으면 날라대니는 짐승을 때리주고. 자꾸 훌차서 몇 날 며칠 훌차 가는 기라.

자꾸 훌차 간께, 가만히 이 참 상좌가 본께네 한 군데 여자가 도(道)로 띄우는 기라. 저 저 애 놓을라고 인자 공을 디리는 기라. 그래서 ‘저는 (저기는) 가면 되겠다’ 싶어 앉아서 빨래를 켜는데, 가만히 본께 도를, 인자 참 공을 드리는 여잔가 싶어 그 가(그곳에 가) 딱 붙더라 캐. 붙어서,
“아! 됐다.”

그러쿠고(그렇게 하고) 인자 왔는 기라. 왔다가 딱 손가락을 짚었어. 짚었어. 짚은께네 참 열 달이 딱 됐는 기라. 열 달이 돼서 간께네, 배 아프다고 디리 구불고(뒹굴고) 마 그래싸. 그래서 ‘인자 배 아프다고 구불면 사람 받아 놓겠다’ 싶어서 근방서(근처에서) 있었어. 있다 보이 아를 낳는데 아들로 낳았어. 아들로 낳아갓고, 그래갓고(그래서) 인자 아들 놓은 거 보고 왔어. 참 며칠 있다가 한 삼 사일 있다가 또 갔는 기라. 가갓고 간께네 가갓고는,

“이 애로 날로 주소.”

그 인자 상좌스님이,

“이 애로 날로 주소.”

쿤께,

“아이고, 그 애로 어떤 아라고 내가 저 저 스님을 드릴 꺼냐고? 택도 없다 쿠면서 그거는 안 된다.”

쿤서, 아무리 꼬아도 안 되거든. 그래서러,

“그러커당 키우소.”

고마(그만) 나와뻘는 기라. 나와 여 거리, 독 밖에 나무 밑에, 정자나무 밑에 떡 나온께네,

“아이고, 저 가는 스님요.”

쿠면서 막 따라 오거든. 그래,

“와요?”

“그래, 아까 애 돌려 났는데, 애가 죽었이요. 살려주소.”

쿠거든. 그래서 다부(다시) 갔어. 다부 가갖고 그래,

“그 애로 스님이 모시고 덩고(데리고) 가소. 애로”

그러쿤께, 그 자리에서 그래 쿠더란다 스님이.

“애는 내가 텔고 갈 터이니, 내가 텡고 가 잘 키울 낀께네, 잘 키아 스님을 만들 끼고, 이 아 덩고 가고 나몬 뒤에 삼 형제 나올 끼라.”

쿠더란다. 그래가 잘 살더란다. 인자 스님은 인간으로 환생을 시키고 그 래 된 기라 네나.

[수영구 설화 81]

마당에서 변보다 도깨비에 홀려간 아이

유동순(여, 1934년생) 구술

2012년 3월 3일 채록

[수영동 상춘경로당]

아인 게 아이라, 저게 우리 그석에 우리 고향에서는 우리 엄마 또랜데. 아가 밤에 똥 누러 나갈라 캐서,

“저놈의 가스나가(계집애) 호랭이가 물어가빠리라(물어 가버려라).”

즈엄매가(자기 엄마가) 그랬던(그렇게 했던) 모냥이라. 그런데 아가 저 마당에 앉았는데, 담으로 히떡 넘어가더란다. 그래 갖고 밤새도록 마실에서 (마을에서) 찾았는데, 새벽에(새벽에) 가서 찾았는데 덩불새에 가서 있어. 그래 그 저게 뵈이고 토깨비가 홀까다가(홀려서) 거 가서 실컷 싸우고 그따가(그곳에다가) 뱀두고(뱌두고) 갔다 카대. 그랬는데 그 사람이 살았는데, 시집 가갖고(가서) 아들 하나 놓고 신랑이 무단히 나가갖고 간 곳도 없고 혼차 살았어.

[수영구 설화 82]

명당자리를 빼앗겨 망하게 된 집안

유동순(여, 1934년생) 구술

2012년 3월 3일 채록

[수영동 상춘경로당]

저 어떤 영감이 원두막에 있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한 군대가 무지개때이로(무지개처럼) 뽀하이 빛이 나고 있더라. 원두막에서 쳐다본게 그렇더라. 그래서 거기다가 비 끈치고(그치고) 나서 가본게, 그 자리에 비가 안 왔더라네. 그래 아무한테도 안 카고(하고) 아들한테만 얘기를 해 갖고,

“나 죽거든 고 갖다 써라.”

그러고로 인자 며느리 봐 놓고, 그래가지고 참 영감이 죽었어. 그 자리에 가 미(피)를 쓸라 칸께네 아무리 해도 괍을 낚히지를(놓히지를) 못하겠는 기라. 그래 괍을 세워가지고 썼거든. 그래 쓰고 난까네, 그 집에 아들도 과거를 하고, 집안도 살림을 자꾸 이루고 그래 잘 피었는데(뒀는데).

산 임자가, 쪼매 벼슬(벼슬), 높은 사람이 고마 저거 산이라고 그걸 파내라 켜는 기라. 그래 파내라 캐서 파내고 난께, 고마 신랑도 화병에 죽고, 집안 살림도 자꾸 망하는 기라.

그래가지고 저게 마누라가 하루는 물에 빠져 죽을라꼬(죽으려고), 저-깊은 물가에 가서 참 울고 있었었거든. 그래 ‘아무리 둘러봐도 여게 사람이 올 데가 아닌데 이상하다. 사람이 여 온 사람은 죽을라꼬 온 거지 그 외에는 올 데가 아니다.’ 싶어서, 그래 살살 둘러 찾아 가본께네, 그게 그래 소복을 하고 앉아 울고 있거든.

그래 인자 그 살살 달개 가지고(달래서) 말을 물어본께네, 그래 그런 이야기를 해. 그래서,

“그라몬 좋은 수가 있다.”

고. 그 자리에 고마 밀리라 카나? 밀장이라 카나? 그거를 하자 켜거든. 합장을 하자 켜거든. 그래가지고 그거 저 사람이 인자, 그 여자하고 시아

바이(시아버지) 머리빼(머리빼)를 하나 가지고 가서 그 자리에다가 합장을 했비렸어(해버렸어). 합장을 해빼리고 표도 없이 잘 왔는데, 고마 비가 와서 발제죽이(발자국이) 표가 났는 기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찹히고(잡히고) 또 이 사람은 파내지고 그라대.

[수영구 설화 83]

홀아버지를 새 장가 들인 효자 부부

이복순(여, 1936년생) 구술
2012년 3월 3일 채록
[수영동 상춘경로당]

옛날에 내가 얘기를 할께.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그때는 우리가 안 난 세상이라. 옛날에 안 난 세상인데, 내가 우리 할매잘에 얘기로 듣고 고대로 한분, 빠자묵었는가는(빠먹은가는) 몰라도.

그래 인자 할매 둘이가 나이 한 육십 대일곱 되겠더란다. 인삼 광주리를 이래 담아가지고,

“인삼 사소. 인삼 사소.”

하매서 둘이 왔더라네, 늙은이 둘이, 늙은이도 아니지. 그래 그 집이 참-부잣집인데 참 부잣집인데, 집이 양반집이고 집이 네 채라 기와집 있는데. 그 집에 안 할매가 세상을 배리뻘어(버렸어). 배리놓이 노인네가 이 할매 인삼 사라고 드가이, 이 노인네가 이 할매 둘이가 마 반하는 기라. 그래서 저게 할배 하는 말이,

“인삼 이거 두 광주리 내가 다 도떼로(도떼기로, 물건을 한꺼번에 흥정하여 팔아넘기는 것으로) 해줄 터이니 그래 우리 집에 내강 좀 자자.” 이카거든. 그래,

“인삼 두 광주리, 세 광주리를 팔아도 잘 수는 없다.”

이카거든. 밤중이라도 집에 가야 된 이다 카거든. 그몬 못 가리(사) 주겠다. 그래가 인자 그 집에 아들이 저거 인자 회사 갔다가 요새 시간 따지몬 한 일곱 시나 났지. 그래 아들이 떡 가방 들고, 참 양반 자석이라꼬,

떡 오이 인사를 하이, 그래 인자 아들이 하는 말이, 신을 벗고 인자 방에
앉았는데,

“그래 할매들이 뭐 팔러 왔습니까?”

이카이,

“그래 인삼 이거 두 광주리로 팔아야 되는데, 아즉 마수밖에 못했다.”

이카거든. 그래 아들이 하는 말이 그 아들 말도 그른(잘못된) 말이 아이라.

“그러몬 그래 삼 이거를 두 광주리 내가 도떼로 해 줄 테이께.”

아들이, “울 아버지 저렇게 원을 해쌍은 울 아버지를 한 번 들어주몬
내가 손해배상도 줌 주고, 이 물건도 내가 가려 줄 텐께, 울 아버지 하룻
밤만 그라면 자 줄라요?”

이카거든. 그래 아들이 딱 깨놓고. 할마이가 없으놓이, 메늘은(며느리는)
있지. 그래 며느리 인자 시아바이 하는 말이,

“아가, 그래 니도 인자 들어와 들어봐라.”

이카거든, 어른이.

“그래, 아버님 뭐요?”

이카이, 그래 신랑되는 양반이,

“그래 니 들와 얘기 들어봐라. 니 들을 소리는 애이지만은 그리 함 들
어봐라.”

이카거든. 그래가 참 인자 며느리 한바퀴(한 바퀴) 우리 앉아 있는때로
우- 앉아 있었다. 있으이,

“그래 다른 게 아이라, 아버지가 저렇게 그리 할매도 불쌍타 하고 방도
너르고 하이.”

군불 때면 촛에 뜨시잖아? 나무 때면 방이 찢찢 뚫거든. 이불 없이도
자는데. 그가래 참 하도 그래싸서 그러몬 할마이 둘이가 거서 말이 나오
더라하대,

“그럼 우리 자줄 터이이꺼네, 그래 내가 그럼 할매 소원대로 해줄 테이,
인삼 이거 다 갈아주고 돈 손해배상, 물리줄라?”

카이 아들이,

“좀 주겠다.”

이카거든.

“그러몬 그라지 말고, 둘 쪽 중에 하나이 우리 아무지 엄마로 삼자. 하

나는 내가 일당 품 주고, 내 인삼도 다 가리주고, 내가 안 섭섭케 해가 보내 줄 터이 한 사람은 가라.”

이카는 기라. 가가,

“한 사람은 그래 저게 할아버지 있는교? 아저씨 있는교? 없는교?”

커이,

“없다.”

카는 기라.

“세상 베리고 없다.”

카는 기라.

“혼자 산다.”

카는 기라. 아들도 인자 짝에 있지마는. 그라몬 며느리가 한 마디 하는데,

“우리 아부님 혼자 저리 있으이 마 내가 이런 소리 할 소리 아이지만은 어른 앞에 저렇게 우리 아부님이 원을 해췌는데, 그라몬 마마 우리 시어마이, 어무이 합시더. 마 그리 하자.”

이라이, 이 할마시가 좀 생각은 있어. 생각은 있는데 확실하이 이거를 안 드러내는 기라. 그래가 며느리 하는 말이 그래,

“참, 그래 하자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여 있을 테이께네, 그래 이리 하자 카거든. 그래 인자 그날 저녁에 불로 때가 이 할마이 둘이가 자게 댔어. 삼은 그 집 원체 부자집이 돼놓이, 삼은 다 사고, 빈 광주리 인자 돌리 냈는데(돌려 내놓았는데), 누가 모두 흥부하다고 카나? 영감이 할마이 맛을 못 봐 놓으이 환장을 하는 기라. 한 방에 자도. 안 건드린다 캐나 놓고는 그만치지가 영감쟁이가 다짐을 받았는데, 그래도 한 방에 자이 안 그렇거든. 마 영감쟁이가 이 할마이 둘을 건드리뵈는 기라. 건드리뵈놓으니 그래도 포(표)를 내나? 그래서 영감쟁이가 하는 말이,

“아따 참나 내가 마음먹은 대로 만족하이, 참 내 속 마음 묵은 대로 참 잘 댔다.”

이카거든. 인자 아들강 며느리강 듣는 소리는, 그런 소리는 안 하고 그런데,

“그래 내 할마이 하몬 돈도 많이 있고 재산도 억백대 되는데, 그 내 죽고 나몬 이 재산 니 앞으로 다 되지. 자석도 암만 재산 많아도 자석

다 하겠나?”

할마이를 앓하 놓고 이라거든. 우야다가 그래 할마시가 자고, 할마시 하나는 갈라 카는 거로 하루 재웠어. 그래 영감쟁이가 할마이로 그 안 건드리겠나? 건드렸지. 건드렸다 캐도 그 소리는 안 하고, 그래 인자 그 할마이 삼 거 다 갈아주고, 돈 일당 자기 인자 많이 받았지. 그 잤는 그 대신에 돈도 많이 받고, 이래가 인자 할마이로 갔다 아이가. 가뻘는데 영감이 그날 꿀 비고 소풀로 비고 인자 할마이 집에 안 갔거든. 아들 듣는 데는 가가지고,

“너거 엄마가 인삼을 털 팔고 그리 있으이, 좀 남아 있으이 팔고 간다 캐라.”

이래 인제 말로 전해 돌라 카거든. 인자 여서 산다 소리는 안 하고, 그래가 인자 할마시가 마 가마솔에 인자 여물 쌀아(쓸어) 놓은 게 있는데, 소죽을 끓인다고 불로 땀다고 때이 영감이 꿀로 한기(많이) 베가 오거든.

“그래, 여보 그래 여물 쌀아 놓은 거 있어요?”

카니까네 그래,

“뭐하는교?”

“소죽 끓인다.”

이러카거든. 그래가 인자 영감 좋다고 그 인자 소 풀 빈 거 인자 여물을 썰이가 거 놔놓고 인자 할마이 있는데, 좋다고 내 씨담거든(쓰다듬거든). 불 때는데 잘에 앓아가 내 할마이 머리 쫓쫓 그라더니만. 저녁을 잡술라고 저녁 때가 딱 났는데, 참 영감 할마이 며느리 접상을(겸상을) 채렸어(차렸어). 접상을 채리가 영감 방에 들어가 있는데, 자는 방 뜨시다가 우리매로 이리 누버 자는 듯이 마 죽었더라 안 카나

죽어뿌리가지고 우예 났나 하몬 이왕 하룻밤을 자도 참 만리장이라고 참 우야노? 뗏 일 갔다 아이가. 잤는데, 원창 있는 집이 놔놓으이 인자 5일장 했다든가 6일장 했다든가 장이 인자 장사를 하는데, 그래 그 늙은 이로 집에 갔다가 다시 삼을 가 오놓으이 초상이 났거든.

그래 인자 그 집이 있는 집이 돼이 상복을 해가지고 인자 상주 그래 인자 테 두리고(두르고) 인자 삼베 처매저고리 입고, 인자 부잣집이 하는 택이지. 이래가 우알끼고? 그 집에 이자 할마이가 났는데, 그래가 인자 누런 삼베를 갖다가 하루는 인자 입고 테두리 두르고 짹지(작대기) 대짹지

짚고 있으니 보기 좋다 아이가. 그래 인자 아들캥 며늘 인자 그 집에 딸 네들도 다 왔어. 인자 이래 했는데, 그래 인자 5일장인가 했다. 하고 나이 할마씨가 하는 말이 있을라 카이 자기가 좀 그랬는가,

“나도 자식이 다, 영감은 없지만은 야 이 사람아, 내가 집에 천상 한번 갔다 와야 된다. 내가 오래 있지는 못하이 갔다 올 테이 그래 어쨌래?”

이카네, 아들이 하는 말이,

“뭇하러 가실란교? 마 요 편안하이 여기 있지. 집에 가몬 뭇할란교?”

카이,

“나도 안죽 새끼가 있는데, 끈도 안 불힌 새끼가 둘이 있단다. 있는데, 새끼 끈도 불이고, 집이 우에 돌아가는 그것도 봐야 되고 이러이 내가 갔다가 오몬 좋겠다. 보내주모.”

이카거든. 그리 인자 아들이 하나 안 올까봐 그라는지,

“마, 가지 마소.”

이카거든. 그래 뭇 어쨌끼고? 안 보내주는 거를. 그래 인자 그 집에 인자 떡 살았다. 안 보내줄라 카이 그 집에 내 주장을 했지. 하고 나이 아들이 상주 그 거 날 벗고 초상 치고 날 벗었는가 안 벗었는가 그건 나 모른다. 마 다 잊어뒀다.

그래가 장에 가가지고 쌀 한 가마니 가나가가 촌 장에 쌀 한 가마니 내가 할마이 옷 한 불 사고, 베를 떠 와가 옛날의 양단 저고리 치매저고리 파닥파닥 많이 안 나왔나? 흰 거 많이 그래 그거 한 불 뜨고, 인자 시계 하나 하고, 패물 하고 마마 일절히 따른 거 다 사 왔거든. 저거 엄마 줄 끼라고. 옛날에 쌀 한 가마니 내몬 돈이 컸다고. 그것도 옛날 돈 가치가 있었고. 그래가 인자 거거 내가 엄마 오이카네 일절 마 한 개도 없이 다 해 왔거든. 그래 재워주고 옷도 해 입히고 참 엄마겘이 잘 지냈다. 그래 지내고 마 할마시도 자꾸 그래 갈라 카이,

“그라몬 니가 날로 못 믿으몬, 그러몬 같이 우리 집에 좀 가자.”

아들로 보고,

“그라몬 갑시다. 내가 차가 있으이 그라모 같이 가자.”

이라거든. 같이 갔다가 당일 같이 오만 안 되나 캐가 아들하고 할마이도 그거 하거든.

이래가 옷을 싹 양단 치매저고리 해 입고요, 패물 마 반지가 번들번들 하다 아이가. 이래 찌고 참 집이라꼬 인자 아들 땀고(데리고) 가이 참 사는 게 형편 없거든. 그래가 할마이 데리고 가서 할마이 집이라고 갈케주는데, 애나 초가집인데. 아저씨가 돈이 얼마나 있는가는 몰라도 당장 가가지고 아로 먹고 사라고 돈 좀 주고. 집이 초가집이라도 구두 한 거 사줬다 아인교. 돈 가지고 가가 아들 사라고. 그래 저거 엄마가 하는 말이, “내 이미 이래 된 거 내 팔자 피고 갔는데, 나를 원망하지 말고. 그래 너거는 이래 해 주거들랑 그래 동상들 데리고 잘 살아래이.”

이카고,

“나는 두 번 다시 엄마 바라지 마라. 엄마는 멀리 가랬다.”

이카이, 그래 그 집 아들이 딸하고 뭐러 카는 기 아이라,

“엄마는 우리들 놔두고 말없이 우째 그래 날래 그래 가랬나?”

고 울어쌌거든. 그래도 울기는 말기나 마, 아들이 그 집 아들이 엄마씨를 원참 잘해주고 말이지 차에 좌우장 태아고 가니까네 있는 집 포가 난다 아이가? 그랬다. 그래 인자 거 하고는 왔다. 와가 우알끼고? 안자 살았지 뭐.

그래 오자마자 영감 있으면 재미나게 살 낀데, 마 그래 영감 죽어도 부한 집에 했제. 와가 영감 방에 거 사랑 전부 말아가 다 하제, 뭐 우알끼고? 그래 소죽 끼리고 뭐 다 했다 아이가. 했는데, 인자 젊을 때 글 때는 어쨌노고 한테 살았는가는 살림이 나갔는가는 몰라도, 옛날 그래가 그 할마시가 부자 됐다 안카나? 그 집이 인삼 팔러 가가지고, 거 가지고 다 팔고 그래 성공했다 안 카나. 옛날 그랬단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할마시도 팔자 잘 뒀고, 또 그 집에도 옛날에는 못 살았는 모양이라. 그래 그거 팔아가지고 옛날에는 그래 묵고 살았다. 살다가 뜻밖에 영감 잘 얻어가 그랬단다.

[수영구 설화 84]

천년 먹은 술값을 갚은 구렁이 혼

이복순(여, 1936년생) 구술

2012년 3월 3일 채록

[수영동 상춘경로당]

옛날에 저 주막에, 옛날에는 주막에 술로 팔몬 그것 안찰아(하지 않느냐)? 주막, 주막에 주막이라고 부리거든(부르거든). 그래 인자 남자 하나 모자리에서 물로 대 놓고 목이 말라서 일단은 주막집으로 갔어. 가이,

“주막, 주막.”

부르리카네, 술값 있다고 술로 안 줄라고 삼작을 안 열어주더란다. 그래가 이 영감쟁이가,

“안 열어주면 너거 대문 다 뽀와뽀다고(부셔버린다고), 저 삼작 다 뽀와뽀다”

이카거든. 그래가 또,

“주막, 주막. 안 나오나?”

카이, 할마이가 나오며 뭐라 카는 기 아이라,

“저게 천년 묵은(묵은) 술값도 있는데, 만년 술값, 만년들 가도 천년 묵은 술값이 있는데, 무슨 암채에 술 달라 카고 왔노?”

이 카거든. 그 인자 안에 그 사람이 그래서,

“그라몬 니 술 안 줄라 카몬 나는 너거 집에 차고 들어가 내가 퍼물란다(퍼먹을란다).”

이카이,

“그래 오소, 주께.”

이 카거든. 그래 인자 드갔다. 드가가 참 막걸리로, 인자 이런 우(동이)에 담는, 동동주 담아가 팔거든. 그래 인자 그걸 한 양편이(양푼이) 푸가 주이 무며(먹으며) 뭐라 카는 게 아이라.

“내가 천년, 지방 먹은 술값은 못 쥐도 천년 묵은 술값은 내가 갚으이 걱정하지 마라.”

이라든. 그래,

“갚아주세요.”

이라거든. 그 인자 안에 술 파는 사람 그 사람이. 인자 그래가 줬다. 퍼가 실컷 먹고는 이 영감쟁이 또 논에 뭐하러 갔겠노? 논에 물을 인자 빼러 간다든가 췌어러 간다든가 또 들에 나갔어. 들어가 그예가 저하는 양구리쟁이가 하나 술 파는 여자가 하는 말이,

“그라몬, 천년 묵은 술값은 언제 갚을라요?”

이카이,

“그래 좀 있어 봐라. 내 쏘 있다 해 지몬 가 오께.”

이라거든. 그래 기다리다 기다리다 애원한꺼네, 이 인자 술 파는 여자가, 주막 여자가 그 들에 영감 찾으러 갔어. 가이 구렁이가 마 커다-란 구렁이가 논둑에 척 걸어져가 있거든. 인자 못 건네 가라고. 삼은 쏘아 댔는데, 삼으는 쏘아 댔는데 영감이 없더라.

“하이고 이, 천년 묵은, 만년 묵은, 천년 묵은 술 값 값아 줄라 됐는데, 삼을랑 이리 쏘아 놓고 어디 가뵈노(가버렸노)?”

찾거든. 찾을라 카이 뱀이가 큰 뱀이가 논둑에 턱 걸터져가(걸쳐져) 있으니 건네 갈 수가 없잖아. 저-저 허연 노인네가 하나 있으이, 거기 지눈에 허깨비를 봤는가. 그 영감이라고 가이까네, 가다가 중간에 다부 와 뵈거든. 설마 다라 갖다 주겠지 카고. 그래 집에 인자 들왔다.

들올라고 가마히 생각해 보이 안 되겠다 싶어가 다분 왔는 그 자리 가이까네, 구렁이로 탁 짜개가지고(쪼개서) 뿔이 쪼갬더라. 피가 한강같이 논에, 나락논에 모 숨가 뉘(놓은) 논에 물로 대는데, 피가 한강같이 있고, 구렁이가 딱 걸어져가 대가리는 우에 떨어지고, 꼬랑대기는 밑에 떨어져가 있거든. 피는 한강같이 논둑에 이리 있는데. 삼은 그대로 있는데, 와 그랬는고 신기하지? 아이고, 그래 지가 와가 보더만은,

“만년 술값 받을라 됐디, 내가 어리숙지(어리석지) 집에 가야지.”

이카때 인자 그 여자 저그 집으로 가는데, 옛날에 주막 여자라 커거든. 옛날에 주막 주막 카모 이래 부르는 데 같다. 가이꺼네 그래 인자 참 집에 왔는가 싶어 안 왔거든. 안 오고 있으니 이제 해가 꾸름하이 영감이 왔더라. 그래 만년 묵은 술값을 주더라. 그래가 술값 값으러 온다 컷는 사람이 그래 인자 그 술집의 여자를 보고,

“주막, 주막.”

불러이까네 문은 안 열어주거든. ‘내가 뭐 술 둘라 카면은 겁이 나가지고, 들에 가이 없던데 이게 아매(아마도) 무슨 혼인가?’ 싶어가 무섭어가 문을 안 열어주더라. [(웃음)] 그래 안 열어 주가지고, 에라이 낸장 안 되겠다 싶어가 고방문을 잠가 놓은 걸 갖다가 이 할아버지가 누가 찾아올까봐, 저거 집 식구는 누가 찾아올까봐 고방문을 마 열쇠로 열어뵈다. 그거로 뉘로가 끼라뵈어(열어버렸어). 낄아가 고방으로 마 들어가뵈는 기라 할배가.

그 래놓이 그 집이 양몰이 여자 술 파는 주막 여자가 못 뵈지. 어덕으

로(어데로) 드갔는고. 그 드갔는가, 저거 집에 갔는가는 확실히 오는 거는 들어오는 거는 봤는데, 사람이 흔적이 없거든. ‘야, 이상하다.’ 싶어가, 그 주막 여자 하는 말이,

“아, 내 암만 생각해도 눈에 허깨비를 봤는 갑다.”

이카고 자꾸 무심심이(무서우니까) 있도록 방에 있거든. 담배를 뽕뽕뽕 뽕 뿜고 요래가 텍을 꼬고 있으이, 해는 실실 그거 하제 이래가,

“에라, 내가 이래 앓았을 기 아이다. 고방에 인자 보쌀, 보리쌀을 쪼까 내가 앓히야 되겠다.”

싶어가 바가치를 가지고, ‘고방 문을 잠가 봤는데, 분명 고방문을 잠가 봤는데, 누가 끼랴는고?’ 싶어가 자기가 수상하다 아이가 그제? 그래가 인자 바가치를 가지고 고방에 갔는데, 카- 안에 그 옛날에 도가지(독) 안 있나? 도가지 요강 단지 매이로 있거든. 거게 이래 넘봐다 본께네 물이 시퍼러이 한 도가지 있더라. 있고 보리쌀도 떠내이 보리쌀도 없더라. 없고, ‘이상하다. 이기 와 이러노? 사람이 이 세상 끼랴했는데 이기를 드가가지고 어째 이 단지에 물이 이마이(이만큼) 많노?’ 물이 한 해 천 석매이로 새파란 물이 한 도가지. 그래 이래 보이께네 그 영감이 혼이었던 모양이라.

그 영감이 거 드가(들어가) 빠져가 다 녹아뿌고 뼈만 밑에 하야이(하얏게) 비더라(보이더라) 안 카나. 물이 시퍼러이 다 녹아가지고. 사람이 그런께네 죄 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맞아.

그래가 이상하다 싶어 이 사람이 이래-가 까꿀로(거꾸로) 보이, 거기 인제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 물이 돼뻗는 기라. 물이 되고 뼈는 고 단지 밑에 거 가라 앓아가 있더라 안 카나. 그래가 ‘하이거 참 오늘 내가 똥이 이상하다’ 싶어가 인자 그 주막 여자가 있다가 인자 그 집에 갔거든. 그 인자 영감 집에 찾아갔다. 가이 할마이 있거든. 그래 할마이 소죽을 끼리더라. 그래,

“보소, 야.”

이카이,

“저 당신 그래 저게 아저씨 집에 들왔어요?”

이카이,

“아죽(아침) 묵고 눈에 물 대러 간 사람이 안죽(아직) 아이 왔어요.”

이라거든. 영감쟁이 저 할마이가,

“그럼, 어데 갔노?”

이카이,

“모림더(모릅니다).”

이카거든. 그래 그 카이 이상하다 커고 그 여자도 그 앞아가이 ‘모르고 죽겠다.’ 하이 인자 집으로 왔다. 집에 오이 할마이 뒤따라 오더란다. ‘이상하다, 이 놈의 영감쟁이 아주 잘 먹고 눈에 물 대러 간 사람이 어데 가랬노?’ 이상하다 그라고 자꾸 찾거든. 찾으이(찾으니) 있나? 단지에 드가가 죽어가 물이 돼뿌렸는데. 그이 반다시(반드시) 그 집 영감인 기라.

그러이꺼네 인자 그 사람이 주막 그거로 보고 주막 그기 이 할마이를 텔고 와가 단지를 비 줬어. 고방문을 열어보이 신기하다 카거든. 물이 된 거 신기하잖아? 그래가 인자 낸중에는(나중에는) 그 이튿날인가 그냥 나났됐지(놓아둬버렸지). 놔 놓고 고방에나 해나 이상하다 해서 할마이를 마 곡석도 안 냈지. 안 내고 고방문 자기가 망치로 가지고 다부 뚜드려 막아뺐는 기라. 막고 이튿날 아죽에 보이 물도 빼짝 말랐고, 빼가지도(빼도) 없더라 안 카나. 없고 끝나뺐지(끝나버렸지) 뭐.

[수영구 설화 85]

새 남자 들인 엄마 위해 하늘로 간 딸

이복순(여, 1936년생) 구술

2012년 3월 3일 채록

[수영동 상춘경로당]

옛날에 어마이(엄마) 혼차 살았다. 청춘에 딸 하나 텔고, 똑 외동딸 하나 텔고, 어마이가 내 아파가지고 시룩시룩 아팠거든. 그래도 그렇게 딸이 그리 어마이한테 왔다 갔다 해도 영감 데리고 사는지를 몰라요. 그 딸이, 모르는데 딸이 그때 당시에 학교 땡기는데, 인자 영감이 왔다갔다 해싸놓으니, 이상하다 싶어가 야가 인자 집에 잘 안 들올라 카거든. 친구 집에 가 자고 이랄라 했는데.

그래 한 번은 저거 집에 간다고 가이, 마당아고 방아 마 뱀이가 엄마 누운 자리에 뱀이가 와글와글와글 하더라네. ‘이상하다 우리 엄마가 절에 내 댕기다가 절에 안 댕기노니 그게 뭘가 충돌을 받았는가?’ 뱀이가 어찌 뱀이가 그리 와글와글 하겠노? 방이고 마당이고 전신에(전부) 뱀이거든. 이상하다 뱀이가 와 이리 많이 있노 싶어가, 야가 마 저거 방아도 안 들어오고,

“아무거야, 아무거야.”

딸로 이름 부르거든. 그래가지고 야가 대답을 안 했어. 그래 안 하고 있는데, 인자 저거 엄마 절에 가는 대신에 지는 물에 갔는 기라.

큰 서천같은 물에 가가지고 큰 방구에 툅 얹아가 이래 있으이, 하늘에 옥황선녀가 마다리로(자루를) 열 개로 한 똥치로 떨차(떨어뜨려) 주더란다. 야가 물에서러 이래 절로 하고 있으이. 물이 서천같이 쿵쿵쿵 내리 가는데, 그로 절로 하고 있으니 옥황성제가 그 마다래로(자루를) 갖다가 글로 쓰가 속에 넣어 논(넣어놓은) 그 글로 보고 글로 아인께네 요 글로 보고,

“물로 열두 자리만 재어 놓으면 한 가지 소원을 주겠다.”

이라거든.

그래 그 인자 그 자리 열두 개를 갖다가 지가 받았는 기라. 니라 주는 거로. 선녀가 니라주는 거도 받았가 요 언지(언여) 놓고 첨에는 물을 받으니까 물이 새더란다. 그래 새는 거 또 놔놓고 다른 자루에 물로 받으니까네 물이 고이 지거든. 그래 그거로 꺼잡아 땡기가 물로 해가 재 놓고, 그 열두이 겹으로 그거 다 받아야 지인테(자기한테) 뭐 그거를 준다 아이가. 그래가 또 한 자리 받아가 또 물 안 새거든. 또 묶아 요 갖다 놓고, 또 받아서 갖다 놓고, 그 무슨 마다리가 물로 안 차노 말이다. 회안 하제?

그래 그 물로 갖다가 열 한 자리로 받아다 산티같이(산같이) 재 났거든. 방구에 재놓으이, 그래 인자 재놓으니 이제 델거(힘들거) 아이가 그제? 얹아 이래 있으면 또 무슨 선녀가 소리 있을까 싶어가 이래가 있으이, 눈을 딱 뜨가 보이, 왜 세상 그 자리(자루) 열한 자리가 물 담은 마다리가 거기 부처가 돼뵈겠노? 거기 돌부처가 났더란다. 부처가 나리하이(나란이) 나리하이 이리 서가 있는데, 하이고 내싸, 그래가 한 자리는 물이 새서 고거는 전부 물 받아논 긴데, 고 양얹에(옆에) 놔났는데, 그거는 선녀가 내려와 담아

왔는가는 몰라도. 그래가 얘기가 그렇더라. 전설이 그것도 얘기라.

그래가 부처님이 우째 미륵부처님 쪼르르 와났는데 부처가 났더라네. 하이고 그거 신기하다 싶어가. 그래 또 그 앓아가 이래가, 또 그리 그 너른 방구에 앓아가 눈을 살 앞눈으로 떠보йка네, 우에 무슨 내려 오더라네. 내려 오길래, 참 지 마다리 떨어 준 선녀가, 옥황선녀가 저 앞에 봉태기(봉지)로 떠라(떨어뜨려) 주길라, 구름 속에 드가뵈단다.

그래 지가 그만침 열녀를 하이 엄마는 아파 눕었는데 저그 엄마 아이라고, 영감이 하나 들락날락 해놓이 그거 보기 싫다고. 야가 양반집에 가신난데(계집안데), 그래 우예(어떻게) 영감쟁이 지 눈에 벗어나 짓을 했는가? 내가 올 엄마 올 아버지 저래 사는데, 그기 소원인갑다 싶어가 지가 인자 저거 엄마 소원 풀어 줄라꼬 가가 물에 가가 절로 하고 나이 선녀가 내라 주거든. 그 두 자리로 물로 내라 주길라, 한 자리는 받아가 여 놔 놓고 다 미륵부처라. 돌부처가 쪼르르룩하이 마 이쁘게 해가 세아(세워) 났더라. 그래가 그 인자 지는 올라고 안에다 이리이리 돌 우에 앓아 있으이 선녀가 타라 이 말이지.

이만한 봉태기 같은 거 하나 내라주가(내려줘) 타고 마 구름 속으로 올라 가뵈다. 마 선녀 뒤에 따라 가뵈다. 그래가 마 저거 엄매사(엄마야) 죽도 밥도 되는가? 뭐 쑥대밭이 되는가? 저거 엄마 아니라고 내빼리고 뭐 지는 지대로 가뵈다 아이가. 그리 옛날 전설이 그기 끝이라.

[수영구 설화 86]

호랑이가 둔갑한 베 짜는 할머니

이복순(여, 1936년생) 구술

2012년 3월 3일 채록

[수영동 상춘경로당]

옛날에 다른 게 아니고. 어마이가 저게 말이 퍼뜩(빨리) 안 된다. 얘기 이것도 할라 카이 이기 원체 누구 말마따나 알아야 꺼잡아 내지, 모르면 꺼잡아 내나? 근데, 그래 옛날에 내가 얘기로 할께.

옛날에 모시로, 마당 모시로 질쌘을(길쌘을) 했거든. 모시로, 하얀 할매가 돌이 앉아 가지고 모시로 베를 땀다 아이가. 베를 매고 있으니께네 허연 할아버지 하나 오디,

“이 삼베, 이 모시 삼베 곱게 삼아 누구 줄라고 이리 삼 삼는교?”
이러거든. 할아버지가 와가,

“그래, 옷 해 입을라고 그래 앉아가 삼 삼는다,”
이카이, 그기 인자 말하자면 호랭이 그기, 할아버지가 호랭이라 말로 하자문. 그래서 옛날 전설이 그기라. 그래서,

“그래 곱게 해가지고 누구 줄라고?”

앉아 그리 담배를 품메(푸며) 할아버지가 그러거든. 그래 인자 삼을 삼았다.

삼을 삼고 나니 그 이튿날 베틀에 인자 맨들어가 인자 베틀 우에 인자, 그 질쌘 매는 할매가 하리에(하루에) 베로 하루 스물 자씩 짚단다 할매가. 그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래가 떡 베를 짜고 나이 이상하이 그래 하기 싫더라. 그래 이제 짚에 같이 이부제(이웃집) 할매가, 그 할매도 베로 잘 짜는 기라. 그래 인자 베로 다 짜고 나이, 이 할매가 가만 베로 짜고 나이, 와 그 이튿날에 와 그기 되노? 범이 돼뻬노? 호랭이가 돼뻬는 기라. 삼 삼는 그거는 어데 갔노 간 곳도 없고.

그래가 인자 목을 한 반티로 그 이부지(이웃) 사람이 그거를 가지고 가면 호랭이한테 안 물린다 카메, 목을 한 반티 메밀묵으로 해가 이 반티로 안에다 주거든. 그래 이 할매가 가지고 집에 가기는 가야 되는데, 이게 하루 점도록(하루 종일) 베맨 품삷택이라. 그래가 인자 메밀묵을 한 반티 해가 주는 거로 요래 인자 안고 갔다 카지?. 집이 짚엔데(옆인데) 안고 가이 그 할매가 거기 늑대라. 참 짚에 오는 건 사람인디 왜 그기 할매가 늑대가 돼가지고 그래,

“여봐라, 여보.”

그러이께네,

“당신 뉘로 그리 가 가요?”

카이,

“그래 인자 일해주고, 그래 베도 매주고 그래 누 집 우리 아들 먹으라고 주라 캐서 그래 얻어간다.”

이카이,

“그래 쫌 찢라주고 가라.”

쿠거든.

“안 주면 할배가 해코지 한다.”

고 그래가지고

“그럼, 쫌 주지.”

켰어. 그래 그래서 묵을 반티에서 한 덩배기(덩어리) 끓어 주이,

“가라.”

쿠더란다. 그래가 인자 주고 또 갔다. 또 인자 떡- 가이 또 나타나거든.

이기 뭐 조금 얻은 거 중간중간 가다가 다 뺏긴다 아이가? 그래 가다가 또 한 뭉탱이 저래 앉아 있는 사람한테 또 준 기라. 또 주고 나이.

“아따 잘 묵겠다.”

이카고, 그기 늑대 되다가 사람 되다가 그기 둔갑을 하는 모양이라 말로 하자면. 그래 주고 쪼매 남아 있는데, 가지고 저거 집에 갔다. 뭐라 켜는 게 아이라, 야수같은 인간들이, 그기 인자 사람이 아이고 여우택이라,

“[간드러진 목소리로] 아이고, 일해 주고 이틀이나 사흘이나 일해 주고 묵 받았다.”

카면서,

“요것뿐이가.”

요 지랄하거든. 오다가 하는 말이,

“그래 오다가 중간 중간에 쫌 안 주문 못 가라 캐서, 그래 중간 중간 가다가 이걸 빼앗기뿌고 쪼게 가 왔다. 그래 맞이나 봐라.”

이카거든, 저거 엄마가.

“헤헤헤헤~.”

쿠고, 큰- 샘에 고목나무 있는데, 마 낭게 마, 그 고목나무에 올라갔부더란다.

“너거야 뭐 쳐 먹든가 말든가, 갖다 준 이상은 모린다.”

이카거든.

그래 낸중에 보이 저거 엄마가 아이고 그기 호랭이라. 저 술 저거, 샘 있는 고목나무에 올라가,

“내 잡으라 헤헤헤-. 내 잡으라 헤헤헤-.”

요카거든. 그 올라 가가. 그래 거기 잡아지나? 그 샘이 있는데, 옆에 커다란 고목나무가 있는데, 그래가 요쪽에 낭개(나무) 건너가다가 저쪽 낭개 가다가 인자 아들이 엄마를 찾거든.

“아이고, 올 엄마 여어(여기) 금방 있었는데, 우리 엄마 어디 갔노?”
카이, 아 하나 보더마는,

“올 엄마가 저 낭개에 있네. 올 엄마가 아니고 호랭이네.”
이카더란다. 그리 그 호랭이가 둔갑을 해가 아들을 갖다가 본지도 못하고 아들 갖다가 다 잡아 몰라 카거든. 난중에 보이 그 아들이 아이지 그 호랭이 택이라 지 새끼라.

그래 낸중에는(나중에는) 이 할마시가 타닥타닥 타 내려 왔는 기라. 그 낭개 올라간 줄도 몰랐는데, 샘이(샘을) 보이 그렇지가(그림자가) 알랑알랑 비이거든(보이거든). 그래 그거를 보고 저거 엄마가 천장에 있는 걸 찾았다 아이가. 낭개 있는 거로 찾아가 우쨌나 하든 아들이,

“그래, 엄마 엄마. 올 엄마, 우리 먹여 살리라고 캐놓고 둔갑을 직이네(부리네).”

아들이 이라거든. 그래가 저거 엄마는 호랭이가 돼가 집에 안 들어오고, 마 산에 어디로 가뻘다. 가뻘고, 그 새끼들은 어디로 갔는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리지(모르지). 그러고 뭐 끝났분는 거지.

[수영구 설화 87]

금덩어리로 은혜 갚은 두꺼비

이복순(여, 1936년생) 구술

2012년 3월 3일 채록

[수영동 상춘경로당]

그래가지고 어때 시어머니가 별나가 시집 안 살라고, 내 정지에 앉아서 그란다 아이가. 쌀로 내려가도 쌀도 쪼매 주거든. 밥도 마이 안 주고. 이래가지고 마이 하면 지 마이 묵는다고 쌀도 쪼매씩만 내 주고. 어른들 밥도 서넳씩 담아 주고 이랬는데, 밥을 이래 해가 해가 실 빠지몬 밥을

하몬 뚜꺼비가 커다란 뚜꺼비가 금겉은 옥겉은 뚜꺼비가 대문 뒤에 옛날에 저저, 대문 안 있었나? 뒤편에(뒤뜰에). 그래 탁 밥을 안치고 나무를 하면 뚜꺼비가 난데없이 와가지고 눈이 굴단해가지고(커다랗게) 해가지고 입에 오물딱 오물딱 쿠며, 밥 하면 밥술에 그 독담에 부뚜막에 앉아가지고, 내- 그 나무 때가 불 때는 그 집 어마이를 보고 내 뚜꺼비가 내- 뭐라 카고 뭐라 카고 죽겠거든. 역세게 컸다. 금뚜꺼비라.

그래가 내 죽게샀더만 그리 인자 밥 풀 때 되면, 원창(위낙) 시어마이가 독하게 해 놓으니까네, 쌀독 내 놓은 거에 지 밥이 없거든. 밥을 푸다 보이. 그래가지고 상밥으로 좀 나불나불 담고 그 밥을 들어 내가 뚜꺼비 줄라고 지 먹는 게 아이고. 그래가지고 밥을 세 그릇, 시어머이 밥, 저저 시아버지 밥, 인자 가장 밥 다 뜨고 나이 지 밥이 없는 기라. 없어가지고 그래 인자 이 밥을 다 퍼매, 송늬을 푸매 젓으매,

“뚜껍아, 뚜껍아. 니하고 내하고 밥이 없어서 어짜노?”

카이 뚜꺼비가 앓아 울거든 밥이 없다 카이. 그래가 울거든. 그래서 인자 반찬이 이래저래가 인자 신랑이 인자 밥상을 들러 오는데,

“그래, 당신은 밥이 우엇노?”

카이,

“밥이 솥에 있는갑다. 덜 쪄다.”

인제 거짓말로 하거든.

“마자(마저) 퍼면 된다.”

이카이꺼네, 신랑이 밥술을 열어 보더란다.

“밥도 없으매 밥이 있다 카노. 물뿐이구만은.”

그카고 인자 밥을 들고 갔는데, 뚜꺼비가 밥을 줘야 하는데, 뚜꺼비가 밥을 먹을라고 그 앓아 있는데, 뚜꺼비 밥이 없는 기라. 그래가,

“여보, 여보.”

카이까네,

“나는 안 무도(먹어도) 사이까네. 누룬밥 굶어 먹어도 살아도. 이 뚜꺼비는 내 집 왔는 거는 굶기 안 된다.”

이라이,

“그럼 내가 좀 덜 먹고 뚜꺼비 밥 덜어줄께.”

이라거든. 그래 밥을 접시기에다가, 옛날 접시기 요만한 접시기에다 덜어

주이께네, 그 뚜꺼비가 밥을 다 먹고 온데간데없이 이 정지에 그 어마이를 보고 눈물로 또다-또다- 흘려 썼더만은, 마 언제 보йка 뚜꺼비가 없어졌거든. 그래 없어져가 가장이 하는 말이 밥상을 들고 나오매,

“저게 엄마, 엄마. 저 우짜면 밥을 그리 작게 해가지고, 그래 정지에 그래 어마이 밥도 없고. 뚜꺼비도 난데없는 뚜꺼비도 우리 집에 와가지고 뭐 이라(일구워) 줄라고 들어 왔는데, 와 뚜꺼비 밥도 없고 밥떼기고 밥도 없고, 와 둘이는 밥 없노?”

이카이,

“양식도 없는데 허리끈 쭈라라(줄이라). 그래야 논밭을 사지. 내 묵고 짚은 거 다 묵으론 논밭이 사지나?”

요 카거든. 아들 듣는데. 그래가 영감이 하는 말이 받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양은 못 차도(채워도) 요구(요기)라도 해야지. 그렇다고 쭈라가꼬 논밭을 사나?”

이라거든.

“그래도 묵을 것 좀 묵어야지.”

아들이 이라이까네, 그래 시어마이가,

“그라든 밥 하지 말고 죽 끼리라. 아죽 저녁으로 밥을 잊어뿌고 죽 끼리가 무야 논을 하나 더 이룬다.”

이카거든. 그래 아들이 하는 말이,

“내사 그 짓 못하겠다. 죽 먹고 못 살겠다. 한 손갈을 묵어도 밥을 묵우야지, 죽 묵고 우예 사노? 그래 엄마 양식 어땠노? 고마 내 쌀 내러 내 갈란다.”

이카이, 저거 엄마가 눈에 불을 켜고 설치거든. 아들이 쌀 내러 간다 카이.

그래가 인자 기가 차서 쌀 쪽백가(바가지) 뭔가 아들이 쥐고 서 있으면 저거 엄마가 삭 빼앗더만은,

“도(다모), 쌀 내 주꾸마.”

내 주거든. 내 주니까네 전에카마 쪼깨 더 왔더란다. 쌀이 좀 더 많더란다. 그래 또 밥을 씻거가 밥을 안치이 불로 땔라 카이 뚜꺼비가 또 들어왔거든. 그 집에 못 사는데 뚜꺼비 덕택으로 어찌 부자가 됐단다. 뚜꺼비 덕블로(덕택으로). 그 금뚜꺼비 들어와서 도와주러 들어 와가.

그래가 인자 밥을 했어 밥을 인자 쌀을 씻어 밥을 하이, 참 이 어마이가

밥을 해 보이 주개가(주걱이) 한 주개 더 있더라. 밥을 떠 보йка네, ‘아이고, 이 속으로 우리 시어마시가 저래 무이(먹으니) 날로 아까분데 우째 쌀로갓다 더 내 쥐가지고 밥이 한 주개가 더 있노?’ 속으로. 이리 있으이, 그래 인자 그것도 가장 덕택이라. 인자 아들이 뭐로 쪽쪽거려 놓으이 인자 할마시가 쌀을 선낫 더 내 났겠지. 또 뚜꺼비도 와가 있다 카이. 그래가 밥을 다 퍼가 채리가(차려서) 인자 들라주고. 시어마이 받더라. 정지 문 열고,

“그래, 오늘은 뚜꺼비 밥 여유가 있제?”

카이,

“예, 있습니다.”

이카이케네, 그래,

“금두꺼비, 금뚜꺼비 다 주지 말고 금두꺼비 선낫 주고 니도 한 순갈 묵고 해래이. 금뚜꺼비 다 주지 말고.”

이라거든. 그 뚜꺼비가 뭐라 카는 게 아이라, 버끔버끔하매 그 방에 할마이 그거를 보고 속으로 인자 욕을 하는가 입을 검뽕검뽕 하거든. 그래가,

“어머이, 문 닫으소 마. 제가 알아 하께요.”

그래 인자 밥을 다 들라주고, 밥으로 퍼가 바가지에 밥 퍼보이 제법 많거든. 뚜꺼비 인자 이런 접시기에 수북히 주고, 인자 지도 정지칸에, 여자라고 정지에 부적케(부엌에) 그 바가지다가 밥을 인자 쪽바가지 많이 안 있었나? 그 바가지에다가 물로 말아가 묵고 있으이, 뚜꺼비 그기 내- 뭐라뭐라 주께고(지껄이고), 이 정지에 여자를 보고 참 인정스럽게 뭐라 말은 못해도 내 입을 뭐라고 입을 벌리 뭐라 하더라네. 눈을 이리 뜨가. 그래가지고 저게 가장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 집에 뭐 물꺼(먹을 것) 있다고, 부잣집으로 가지.”

아들이 그카거든.

“그래, 이리 못사는데, 그래 뚜꺼비요, 뚜꺼비요, 하 있는 집에 가야 잘 얻어 묵고, 그거를 하지, 성공을 하지 왜 없는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래 없는 집에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 있냐?”

고 하이, 입을 탁 닫고 눈도 감고 안 뜨거든. 저 사람이 말로 하이. 없으면 또 이 사람이 밥 한 사람이 마주 앉아가 뽀뽀를 하고 입에 요리 합하고 있는데, 어두워가지고 인제 떡 인자 이리 있으йка네, 해가 그름한데,

뚜꺼비가 어느 거는 금뚜꺼비라, 마 금땡어리를 어데가 물고, 이런 금을 갖다가 어데서리 가 왔는고 황금을 갖다가 그자? 황금을 갖다가 싸가지고 뚜꺼비 그게 물고 왔더라네. 그기 큰 기. 똑 요런 요런데다가 황금빠리 뽀한데 싸가지고. 그래가 이기 그 거로 물고 와 우야노(어떻게) 하이 그 사람 보고, 밥 하는 그 사람보고 물고 이리이리 물고 툭 던져 주더라 불 앞에로. 그래 던지이 뵈고 싶어,

“아이고, 뚜껍아 고맙구로. 뚜껍아, 뚜껍아. 니캉 내가 인연인갑다. 니캉 내캉 인연인갑다. 우째 날로 물어다 요래 물어다 주노? 고맙어요- 고맙어요-.”

인자 어마이가 뚜꺼비보고 절로 하고 앓아가 내 손으로 비비거든.

비비싸이 어느 거로 금뚜꺼비라 금을 갖다 순금을 갖다가 물어다 준게네, 할마이 말마따나 논밭이 사고도 남지 그 팔몬. 그래도 그래 그거로 뚜꺼비가 물어다 주는 거로 아무데도 안 알캬어. 그거를 어데 넣어 뵈노? 정지에 빈 단지에다가 여 뵈거든. 여 놓고 인자 지 마음이 돌리면 인자, 시어마시하고 시아바시한테 알룰라고(알리려고) 캬는데, 아직 안 알구고 내 단지 넣어놓고 있었는데, 그래 인자 시아바시 하는 말이,

“아가, 그래 배 고프제?”

이카이,

“그래 너거 시어마이 말 듣지 말고 니가 고방에 가서 쌀 내다가 밥을 낮게 해라. 그래 배 고프 우예 사노? 사람 묵고 살라고 이 세상 태어났지, 밥 그거 안 묵고 할빠사(할바에야) 꿏고 할빠사 말라고(뭇할라고) 그라노?”

영감이 떠느리보고 그라거든. 그래,

“예, 아버님 시키는 대로 하께요.”

이랬거든. 그래가지고 인자 점도록 인자 가만이 있나? 밭에 농사도 많이지니 밭에도 낮에 아츰에(아침에) 가서 미영(목화) 따러 가야제, 또 갔다 오른 소죽, 여물 쓸이가(쓸어서) 소죽 꿏여야 하제, 밥 할라제, 그리 이 뚜꺼비가 낮으로는 없는 기라. 꼭 해만 지몬, 해만 지몬 해가 어두둑하몬 밥이 다 돼 간다 싶으몬 뒤에 뒷문으로 갔다가 들와가지고 훌쩍훌쩍 뛰어들어와 언제나 부뚜막에 그 술 거기 야풀떼기에(옆에) 앓아 있다고. 그래 앓으몬 땀 거 뭇 줄 기 있나? 뚜꺼비 한 상 밥 해가 뚜꺼비 그기만

밥 한 접시씩 주문 하나도 없이 다 닦아 먹거든.

그래가 인자 내가 아까도 안 그러더나? 그래 원창 이 어마이가 참 그 뚜꺼비인데도 여자로 자라 뚜꺼비가 말은 못해도 짐승이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눈물을 흘리이네, 이 어마이가 하는 말이,

“뚜껍아, 뚜껍아. 울지 마래이. 울지 마래이.”

이 어마이가 앞치마로까 눈물을 닦아 줬어. 눈물을 하도 흘리싸아 닦아 주이카네 그래 가만히 있더라. 눈을 감고 있으이, 그래 참 해가 지른 밥 그거를 묵고, 인자 밤으로 거(그곳에서) 안 자는 모양이라, 어디 지집이 있는 모양이라. 그기 자꾸 나가는 거 보든. 그래 나가 인자 밥 그거를 먹고 뚜꺼비가 폴짝폴짝 어디로 뛰이가몬 휘떡 돌아본단다. 어디로 갔는가 보든 없단다.

그래가 저기 하도 와 싸서, 뒤에 정지 문을 안 닫는다네. 한 쪽에만 닫고 한쪽은 안 닫는다. 밤에 자꾸 와서, 밤에라도 여 와 있을란가 싶어 가. 그래가 열어놓고 이래 있었는데. 그래 그 이튿날 아까도 그랬지만은 어디가 금을 갖다가 이마이(이만큼) 물고 와가지고, 어느 거는 금뚜꺼비에다가 금을, 금뚜꺼비가 들와야 집구석이 되고 복이 들어온다 안 카더나? 옛날에 나 많은 사람이 그라대. 그래 그기 요만한 거를 물고, 폴쩍폴쩍 뛰어가 이게 이 집에 힐딱, 그 밥하는 정지에 거따(그곳에) 던지주고,

“하이고, 이게 뭘고?”

싫어 불로 때다가 이리 풀어보이까네 금이거든. 금덩어리 이런 기 순금이 하나 있더라.

“하이고, 뚜껍아 뚜껍아. 니 이거 어디서 물고 날로 주나?”

이카이, 눈을 싹 감고 요래 돌아앉더라. 그래 인자 아무 소리 하지 마라는 뜻인가? 무슨 뜻인가 모리지. 그래가 인자 정지에 빈 단지, 자기만 아는 정지 빈 단지에다가 쥐 넣어 댔어. 여 놓고 가만- 정지에 밥을 하매, 불로 때며 생각하이, ‘이거로 시어마이한테 알루겠나?(알리겠나) 시어마이 미운 짓 하는 거 보면 안 알구지만은, 그래도 이 집 밥 먹고 평생 이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안 알굴 수도 없고,’ 하는 짓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는 짓을 보면 뱀어가 안 그거를 하지만은, 그래도 그걸 우야노 그쟈? 평생 그 집에서 살 사람인데.

그래가 내 밥을 해가지고 뚜꺼비 주고, 그래 쌀도 시어마이 떠내주다

가 시어마이 들에나 어디 가뿌몬 인자 미리 안 오면 지가 많이 하면 지랄 하거든. 그래가 할마이 주는 쌀로 자기는 그걸 다 정신을 멍심코(멍심하고) 있었던 기라. 얼마 내 주더라 카몬 자기 얼마 이게 작다 싶으면 선нат 더 넣거든. 그러면 밥이 딱딱딱 형편대로(형편대로) 된다고. 그래가 들에 떡 갖다가 시어마이가 오더마는,

“그래, 저녁 했나?”

이라이,

“예.”

이라거든.

“그래 그 밥을 얼마나 했노?”

이카니까,

“뭐 마이 안 했십니더. 어무이요. 뚜꺼비 밥하고 어른들 밥밖에 더 했는교?”

이카이,

“그래 너는 뭐 굶나? 니도 한 숟갈 더 하지.”

시어마이가 아들인테 쿠싸리(잔소리) 받고 쪼매 정신이 좀 깨치는가.

“그래 하는 질에 쪼개만 더 하지.”

이카이께,

“괜찮십더.”

이라거든. 그래도 할마이 하는 짓 보몬 잘하몬 이 금을 갖다가 받아서 호강을 받는데, 어따 할마이가 지독시리 해싸이카네, 말로 안 하는 기라. 그래 인자 한 뚜꺼비는 장 와가 그 부뚜막에 앉아 있는 거는 잘 알지. 뚜꺼비 밥도 주는 거 다 알고 이러는데, 그래 인자 신랑이 가장인테 한 달이 달로 보내놓고 나이,

“여보.”

이제 잘 때, 그리 인자 신랑이 저리 눕고, 지도 이리 눕고 같이 눕었는데,

“여보, 나는 금덩어리 같은 거 하나 있는데, 저거를 어무이한테 알가야 되나?”

뚜꺼비가 줬다고 안 하고,

“그래 금덩거리 같은 게 하나 있는데 나는 이 집 가문에 밥 묵어도 살고 안 묵어도 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노?”

이카이, 가장이 하는 말이,

“뭐 있는데? 함 보자.”

이라거든 자꼬. 자랑 치는데 보자고 할 밖에는. 그래서,

“내 다른 게 아이고, 두꺼비를 내- 밥을 주고, 밥을 주고 하이, 나는 우리 집에 잘란가 했는데 한 분도 자도 안 자고, 내 밥만 주만 딱아 묵어 뿌고 갈 때는 말도 없이 짐승이 돼 놓으니 말도 없고 갓부고 때만 되든 오고 이라는데, 그래 한 번은 불로 때йка네, 뚜꺼비가 여 억시 크거든”. 그런 뚜꺼비가 요만한 거로 풀쩍 뛰어와 부뚜막에 짹 앉더란다. 앉디만은 이래 물고이 엄마 불로 때는데, 그 물고 온 봉다리, 보따리로 마 이 집 부석에다가 척 던져 주거든. 발로 밀아(밀어) 빼거든. 그래 인자 밀아서 이 이제 불 때는 사람이.

“이 뭔데? 탈라.”

부지깡이로 끄집아내 이쪽으로. 끄집어내가 야불떼기로(옆으로) 이래 풀어본께네 순금이거든. 순금을 갖다가 이런 거 한 덩거리(덩어리) 물어 왔더라 안 카나.

‘아이고, 인자 팔자 고쳤다.’ 이카고 있었는데, 볼까 싶어가지고 장지 단지에다가 조나(주워) 열어가지고 술이파리(술잎) 있제? 술이파리로 그 걸 단지 우에다가 덮어 놓았는데 기라 누가 볼까봐. 그래 참 가장이라고 이불 밑에 한 가장이라고, 가장밖에 더 있나? 그래서,

“여보, 여보. 나는 다른 게 아이고 나는 이 평상을 평상을 먹을 거로 뭐가 생겼데이.”

이카거든. 그래,

“우째서?”

이러니께네 가장이,

“니는 우째서 평상 먹을 게 생겼노?”

카니께네,

“그래, 그 알아가 뭐할란교. 내 하는 대로만 따라 잡시다.”

이카거든.

“그래도 알고 넘어가야지. 니만 알든 되나?”

이카거든. 하도하도 가장이 물어싸서, 바른말 해뿌는 기라.

“그래 다른 게 아이고, 뚜꺼비를 내가 원창(위낙) 열심히 내가 안 묵

고 밥을 뚜꺼비 이래 거다(거두어) 맥이고 했더이, 또 어는 걸 금뚜꺼비가
금을 한 덩어리 물어다가 나를 주더라.”

이라거든.

“참말인가?”

이카네,

“그럼 내가 당신 짚에서 거짓말 하더나.”

이카이,

“가 보자.”

이러거든. 참 정지가 단지 뚜껍이 열어다가 술이과리를 건어뿌놓이(건어
버리니) 금이 번쩍번쩍하이 단지 안에 들어가 있거든.

“와이고, 이거 봐라 와이구 인자 우리 집구석 된다.”

남자가 정지에서 무릎팍 탁 치고 나오더라 안 카나.

“인자 우리집은 인자 팔자 뿔다.”

이카매 지 무릎팍을 탁 치고 나오더라 안 카나. 그래가 그래도 저거 엄
바잘에 머스마가 남자 하는 말이,

“절대로 엄마한테는 알굴치(알리지) 마라고. 우리 엄마고, 내가 자식이
지만은 우리 엄마가 너무나 지독해서 엄마한테 알굴치 마라고. 그래 니
만 알고 있고, 내만 알고 있고, 둘이만 알고 있자.”

이카거든. 그래도 메느리 말도 맞지?

“여보, 내가 당신 밥 묵고, 가장 밥 묵고 이 집에 가문에 죽어도 이 집에
죽고 말지, 죽어도 이 집 구신이 되고, 평상을 이 집에 사는데, 어무이한테
어찌 안 알긋노? 내가 당신 짚에도 안 알굴라 켜는데, 내가 참 죄 많을까
봐 당신을 가장이라꼬. 참 한 술에 밥을 묵고, 한 이불 가장이라고 같이
눕어자는데 어찌 안 알구쨌나 싶어가 알갔는데, 그래 어무이잘에도 알가
야 안 되겠는교? 어무이가 날 묵는 기 저리 아깝다 여기는데, 내가 저
금덩거리라도 줘야 내가 이 집에 시어마이한테 호강을 받을라 못 받을란
가는 몰라도, 이거 어마이한테 내가 알가야지.”

하이, 그리 가장이 하는 말이,

“절대로 알구지 마라.”

이라거든.

“우리 어마이 행사 질로 좀 뜯어 고치야 되겠다.”

이카거든. 그래 저거 어마이한테 하는 말이

“우예 고칠란고? 태생머리 그런데.”

“너무나 올 엄마는 허리끈 졸라가매 양식이 남아 있는데도 고방에 쌀
창 쳐재놓고도 밥을 자기 입에 드가는 것도 아깝다(아까워) 여기고, 참
그 아깝다 이기는데(여기는데), 우째 올 엄마라 카겠노? 내가 자식 올 엄
마지만. 너무 올 엄마 하는 짓이 밍다.”

이카거든.

그래가 한 번은 인자 또 저녁을 하는데, 저녁에 두꺼비 이게 훨 뛰어
오더만은 뭐라꼬 뭐라꼬 눈물을 흘리매 뭐라꼬 뭐라꼬 입에서 벌리매 입
에서 이리 벌리매 뭐라꼬, 그래도 짐승도 입을 벌리가 뭐라카몬 알잖아?
그래 불로 때고 내 뚜꺼비 입만 봤다네. 그래도 그 입만 봐도, 그 있어도
춤도(침도) 한 방울 안 흘리고. 거 참 뚜꺼비가 금뚜꺼비라. 억시기 크거
든. 그래가 거 턱 앓아 있으이 참 부잣집 아이가? 그 짐승이 거기 앓아
있는데.

그래가지고 앓았다 뭐라고 내- 눈을 뜨고 말이지 딴 사람 오면은 눈
을 감아뿌는데, 이 밥 때문에 정지에 들어갔다 하면 눈 뜨고 바로 앓아
있거든. 밥을 쥐싸니, 지를 거다샷고(거두고) 이래이, 눈물 흘리도 딴 거
안 닦고 똑 이 어마이 옛날에 광목 앞치매로 그걸가(그것으로) 때고 그
걸로 밥 하잖아.

그래가지고 그거로 가 인자 닦으이께네, 문을 살 닦고 요래 뚜꺼비를
닦아 주고, 다 닦으면 어마이만 쳐다보고 다른 사람은 안 쳐다보고 돌아
앓아 눈 감아뿌거든. 그래가 인자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결국에는
그래 한 방에 밥을 묵는데,

“그래 엄마요, 그래 우리 밥떼이(부인) 짬에 너무 그라 하지 마소.”

카니까.

“내가 뭐 잘못된 게 있나. 저 허리끈 졸라가매 내 목을 것 묵고 다하면
논밭을 못 산다. 내가 허리끈을 졸라가야 논밭이 있나? 밭이 있다 캐봤자
조금밖에 더 있나? 아도 덜 생길 때, 한 살림 논, 전지라도 이라놔야(일구
어 놓아야) 되지. 새끼들이라도 생기면 목을 것 없고 하몬 우야노?”

이카이, 그 저거 어매 말도 옳은 말이라. 그래가 가만~ 그것도 참 듣는 소
리고 그것도 귀에 드가거든. 이래놓이,

“그래, 엄마 말도 맞기는 맞는데, 엄마 절대로 뭐로 비(보여) 줄 테이
께네.”

그래 다짐을 하고 인자 말로 하거든. 아들이,

“절대로 엄마, 만에 하나 뭐로 내 놓으면 절대로 엄마 욕심 채리몬 안
된대이. 절대로 욕심 채리고 하면, 우리는 엄마 이거 없애가지고 밥떠하
고 내하고 따로 나가뿔 기다. 나가도 엄마 아버지하고만 살아라. 우리는
나가께.”

이카이,

“그리, 와?”

카이,

“뭐 있는데 자꾸 니 그런 소릴 하노? 말해 봐라.”

이카이까네, 아들이 자꾸 흐허허 웃어싸, 헛웃음을 웃으매 안 갈치 주거든.
인자 저거 엄마 맘 달아 불라고. 이리 있었었는데, 그래 낸중은 메느리 되는
사람이 방에 들왔다. 앞치매에 손을 닦고 들오이, 인자 나가는데 있거든.

신랑도 앉히고 시어마이도 앉히고 시아버지도 앉히고 다 앉아 있는데
불러가 앉혀놓고. 그래 지가 인자 그 정지에 나가가지고, 인자 누가 주더란
소리도 안 하고, 고 싸온 고대로 갖다가, 야 앉은 자리매로 그거로 갖다가
피 놓거든 복판에. 피놓으이 변쩍변쩍 하는 기 막 옥빛이 금빛이 나고
이렇거든. 하이고 시어마이가 뭐라 켜는 기 아이가 펄쩍펄쩍 방에서 뛰매,

“[노래로 부르며] 금도 옥이고, 옥도 옥이고, 금도 옥이고, 옥도 옥이
고, 인자 뚜꺼비 덕으로 우리는 벼락부자 됐다 인자.”

첫소리를 빼매 할매가 그래샀거든.

“뚜껍아 뚜껍아 니 덕에 인자 우리가 부자 됐다.”

이카매, 할마시가 춤을 너풀너풀 추이께네, 두꺼비 그것도 그런 기라.
팔세를 못하지, 어디서 물어왔걸랑. 그래서 잘 되라고 인자 물고 오고. 만
날 뚜꺼비가 보니까네, 참 이 사람이 먹을 밥이 없거든. 그래봐논께 그걸
어디서 물어다 췌는 기라. 그래가,

“[노래로 부르며] 옥도 금이요, 금도 금이요, 부자 됐다.”

우짤일이고, 할마이가 춤을 너풀너풀 추매, 인제 이 세상이 우짤 일이
가 싶었지. 자기는 복에 채있지. 그래 이제 금을 가 와가지고 갖다 주니,
이 금을 안고 알라같이 안고 내 그 금을 싸감아지가지고 안고 내 앉으마

초성을 빼며 앞아가 그거를 하거든. 노래를 하거든. 그래 인자 안고,

“그래, 아가 여 들어와 봐라.”

이카이,

“예,”

카이,

“내가 니잘에 죄를 지었는갑다. 내가 미안하데이. 절대로 이제는 앞으로 안 그럴게. 미안하데.”

이라거든.

“어머이, 미안할 것도 없습니더. 사다보몬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카이,

“내가 원채 안 먹고 니를 굶겨가 안 되는데, 내가 니한테 이걸 받아가 되겠나. 니끼라매.”

이제 며느리 듣는데 그라거든.

“그래, 이거 어디서 생겼노? 그래 내가 니인테(니한테) 죄를 지었는갑다.”

이카이,

“어머이요, 괜찮습더.”

이라거든. 그레가 아들이 하는 말이 한 마디 받으매,

“인자 앞으로 엄마, 마 털 목든지 목든지 고방 창고는 인자 메느리 땀기뿌라.”

카거든.

“열쇠도 인자 메느리 땀기뿌고. 인자 엄마가 옛날에 그 창고하고 살림에 가정을 살았지만은, 인제는 뚜깨비도 우리 식군데, 우리 뚜깨비 덕택에 우리가 이리 베퉼부자가 됐으이 그렁고, 인자 메느리 보고도 너무 뉼라카지도 말고 고방, 고방 열쇠하고 그 사람 주라.”

인계를 해라 썼거든. 그레가 참 며느리하고 영감쟁이하고 듣는데,

“오야, 좋다. 그래 인자 이 금을 팔아가지고는 쓰지 말고, 우리가 논을 사든지 밭을 사든지 이거는 없는 요량하고, 우리가 그레 재물사자.”

이라거든. 그러자 며느리 하는 말이,

“아이고, 어머니 알아서 하이소. 이양 갖다 드린 다음에는 나는 모르겠습더. 어무이 알아서 하소.”

이카거든.

“그럼, 오야 좋다. 내가 아무 장 촌장에 가가 팔아가지고, 논도 나가 있고 밭도 나가 있는데, 그래 이거 뭐 없는 요랑하고, 그래 우리가 이거 전지 사자.”

이라거든. 그래가인자 그 금을 갖다 촌에, 저 촌장 어디 가갔다. 가서 금방 가가지고 돈을 억시리 받았다. 거짓말 아니라 돈을 한 보따리 받았지. 그래 그 받아 오고 인자 그거 가 인자 그 집은, 참 그 못 사던 집에 그 뚜꺼비 들어가 부자 됐는 기라. 아나, 그래 옛날에는 옥뚜꺼비, 금뚜꺼비라는 노래가 안 있나? 클터니만은(그렇더니만) 그 뚜꺼비가 거 금을 물어가, 순금을 물어 입에 넣고 직접 깨물어지께네 오그려 드가뿌거든. 순금이 돼놓으니, 그래 부자가 되가 촌에가 팔아 와가 논 사고 밭 사고 손주도 머스마 낳아가 이 말 하고 잘 사더라 안 카나.

그래 뚜꺼비 덕에 잘 살았다. 그래가 뚜꺼비 그기 들와가지고 살림 일아 주고 잘 살았다 안 카나. 그래 그 집이 부자돼가, 뚜꺼비 들어와 그 못됐던 시어마이가 마마 메느리로 갖다가 금이야 옥이야 하고 그 집에 가정이야 살림이야 뭐.

[수영구 설화 88]

아버지 빛 독촉에 시달린 아들과 구렁이

이복순(여, 1936년생) 구술

2012년 3월 3일 채록

[수영동 상춘경로당]

이놈이 노름을 해가지고, 노름을 해가지고 녀의 빛으로 소 한 마리 값을 돈을 갖다 썼다. 이 새끼가 갖다 써가지고 빛을 못 갚아가 지가 자살해 죽어뻔거든.

죽어도 빚쟁이들이 가만 놔 두나. 팽이까(팽이와) 삼까(삼과), 아까 형님 말마따나 삼까(삼을) 가가 파 디비뿔라고(뒤집으려고), 그 해야 내가 돈을 못 받아 복수를 한다쿠메, 그 뽈을 갖다가 파뿔라 카거든. 이 새끼

가 지가 자살을 했다 아이가.

그래가 산에 가 파 디빌라 카이, 요런 돈 받는 사람 둘이가 갔거든. 삽하고 썰고하고 파 뒤집어가지고 조(집에) 던지뿔라고 갔는데, 그 집이 죽었는, 저거 아버지가 죽었는 아들이,

“그래 내가 살아가믄 갚아 줄 네이캐네, 올 아부지 선산에 묻어 놓은 거 손 대지 마쇼.”

이라거든. 아들이 와 가.

“그럼 좋다. 니가 언제까지그 그림 벌어서 갚아 줄래 응? 그래 갚아 줄래? 그라면 언제 갚아 준다고 계약서 쓰자.”

이카거든. 그래,

“계약서 쓸 것도 없다고. 내가 벌어가 안 되면 논이라도 팔아가 내가 빚을 갚아 줄 길 테이캐네 손대지 말고 가라.”

쿠거든. 그래 인자 이 사람들 둘이가 인자 올라고 이리 보이까네, 피를 팔라고 이리 보이 뿔등 밑에 이런 큰 땅 구녕(구멍)겘은데 껌껌한데, 굴이 하나 이래 쳐다본께네, 구렁이가 하나 그 앞아 있거든. 그래가지고 참 뱀이가 그게 나와가지고. 그 저거 아버지가 저 뱀이가 뿔던 모양이라. 아 그기 밑에 나와가지고 아기 품고 나올라 하는데, 이 새끼들이 눈에 봤거든. 그래가 마 내려왔다. 내려와가 인자 그 집 가문을 찾아간께네 아들이 있거든.

“그래 우야든지, 그래, 이 새끼야. 빚을 백만 원이든 이백만원이든 빚이 천만 원이 넘는데, 그래 우리 안 받을라 하겠나?”

카니.

“그러면 좋다. 우리 아버지가 저승에 있으니까네, 논 안 팔리믄 논이라도 내가 서 마지기 돈같이 넘가준다.”

카거든. 그래가 참 있어봐야 논도 내놓으니 안 팔린다이가. 꼴작(골작) 놀이 되놓으니. 안 팔리고 해놓니, 논이 돼 놓으니께 팔려야 돈이 되지. 그래가지고 논이 안 팔리니 이 머시마는 돈은 받으러 와쥔제. 논은 팔아 줄라고 내뿔는데 논은 안 팔리제 그래가지고, 그러믄 돈 받는 사람이 갔어. 가니 논이 참 들이 아니가. 들이면은 퍼뜩 나가는데, 논이 평달이 돼 놓으니 잘 안 나가는 기라. 골작 논이 돼 놓니까. 그래가 영감쟁이 두 돈 받을 사람이,

“너거 논이 몇 마지기고?”

카니께네, 그래 이 머시마가 갈키(가르쳐) 주거든. 그래가 그 논 서 마지기는 그 들에 큰 모심기도 하기 좋고 도로변 잘에 있으니 노니께네, 그래 계중 돈 많이 받을 사람이 이 논을 갖다가 잡았는 기라. 이제 잡은 것도 아이지. 돈을 갖다가 이 논을 가지고 온 택이지. 그래 인자 또 한 사람은 논 돈을 갖다가 오백만원, 그전 돈 오백만원 요새 같으론 그렇지만 옛날 같으론 컸다 아이가? 오백만원 걸으론. 그래가 그 사람이 오백만원을 받은 사람에다가 논 두 마지기를 주기로 하고, 그래 오백만원을 가지고 논을 가가면 인제 떨어진 거는 그 나머치기는 내가 어찌 갚아주던지 쌀로 농사 지어 갚아 주든지 할 껴이카네, 그래 계약을 쓰자 이 카거든.

그래 그 집에는 계약을 썼지. 계약을 쓰고 이 집에는 이제 논 서 마지기, 돈 대신에 돈캥(돈과) 주고 바꾼 택이지. 받고 논은 자기 앞으로 이전 돼뻬지. 되고 그래 인자 뭐 저거 아버지가 밤에 참 말인가 거짓말인가 애긴가? 그래 저거 아버지가 그기 원수를 갚을라고 그라는가?

그래 그 영감쟁이 와가지고 그 돈 받을 집에 마루 밑에 드가가지고 악의를 어찌나 품더란다. 그 구렁이 그게 와가지고. 그래 그게 혼이 났단다. 이 집 말마따나 뱀이도 말할 줄 안다 카디, 마루 밑에 대청마루 밑에 나와가지고 그 집에 이 나무도 안 때는데, 우짤지 그래 마루 밑에 연기가 이리 나나 보니께네, 구렁이가 시커먼 기 마마 마루 밑에 앉았거든. 그기 안개를 품더라 안카나. 그래가지고,

“내가 돈을 갚아 줄 터이니께네, 왜 우리 자손 잘에 가가지고 피해를 끼치노? 내가 저지른 걸로.”

구렁이가 그 와가 악의를 품고 지랄을 하거든. 그래 놓으니 내싸 그래가 인자, 이기 안개를 품더만은 밤에는 가는가 했더만 밤에도 안 가고. 이래 인자 등잔불을 가지고 마루 밑에 이리 보이 시커멓게 이래 감고 앉았거든 가도 안 하고. 그래 그기 건드리니께 안개를 품고 안개를 품고. 그게 악담하는 한 가지라. 그게 사람으로 치면.

[수영구 설화 89]

내 복에 산다

이정례(여, 1930년생) 구술

2012년 3월 3일 채록

[수영동 상춘경로당]

옛날에 벌도(벌이도) 안 하고 그냥 사는데 딸만 오 형제여 딸만. 아들이 없고. 딸만 오형젠데, 한날은 인자 저거 아버지가 딸을 다 불러 들였어 다섯을. 불러 들여가지고,

“아무개야?”

“네.”

“너는 누구 덕에 묵고 사네?”

“엄마 아버지 덕에 먹고 살지요.”

이래고. 둘째 딸 불러 들어서 그래도,

“엄마 아버지 덕에 먹고 산다.”

그리고. 딸 다 엄마 아버지 덕으로 먹고 산다고 그러는데, 요놈의 어린 막내딸을 불러가 그러니까,

“뭐 누구 덕에 먹어. 내 덕에 먹고 살지?”

지 덕에 먹고 산다고.

“요 망할 년, 어린 게 다 지 언니들은 다 엄마 아버지 복으로 먹고 산다는데, 쪼꼬만 게 이게 지 복에(내 복에) 먹고 산대.”

그래서 내 쫓았어 고만.

“어디 누 덕에 먹고 사나 보자.”

하고 내 쫓았어. 그 동지선달에 글썽 눈구덩이에. 아무것도 입은 옷자루 밖에 주지 않고.

“너는 니 복에 먹고 산다니까 나가거라. 필요 없다.”

내 쫓으니까, 참 그 소리 하나 했다고 엄마 아버지가 내 쫓으니, 동지선달에 논두렁 끝내 밭두렁 끝내. 막- 산길로 막 가는 기여. 가다가다 보니까, 산 넘어 훌쩍 넘어 가 보니까, 불이 뻥-하게 하나 있더라 산골에. 그래 चु기는 하지, 입은 옷차림 뭐 옛날에 쫓신작 신고 뭐 참 갈팡질팡 울고 짜고 거기를 찾아 갔어 인제.

찾아 가니까 총각이, 시커먼 총각이 불을 때서 화덕에다가 이걸 담아 놓고 뚝배기에다가 조밥을 옛날 좁쌀, 그걸 무수(무) 찐지하고 넣어서 인제

막 비비더래 인제. 그래 사람 기척을 하고 한테서 ‘흠, 흠’ 자꾸 이래 울고 짜고 있으니까 마,

“누구나?”

고.

“산에 신령님이면, 점잖은 산에 신령님이면 돌아가시고. 사람이면 들어오라.”

고 인제 총각이 외딴 데. 그러니까 참 바깥에서,

“아이 사람이라, 사람이라.”

고 울면서 그러니까. 인제 문을 열고 아가씨가 물골이 달린(다른) 게 와 있으니까, 고마 끌어 들어갔어. 화룻가에도. 들어가니까 막 후들후들 떨고 막 몸을 녹이라고 뜨신데 이불도 방바닥에 있는 거, 시커먼 거 미영(목화) 이불, 옛날에 그 이불이고 말고 마 그렇지 뭐. 갖다가 이리 끌어주고 뜨신 물을 갖다가 마시키고, 그 밥을 이제 둘이 먹었어. 둘이 먹고 인제 잤어 인제 한 이불 속에. 그러니까 총각은 나이가 많고 색시는 나이가 어리지 뭐. 그러니까 동상(동생) 같지 뭐.

그 인제 자고 그 이튿날에 인제 뭐 올 데 갈 데가 있어? 뭐 총각이 가라 소리도 못하고 처녀도 갈 데 올 데도 없고. 뭐 제 복에 먹고 산다는데 하늘만 치다봐도 먹을 게 있겠지 뭐.

그래 인자 머리를, 술에다 낭구를 해다가 불을 때면 뜨신 물에 머리를 감아서 빗고, 괜히 나와가지고 빨래도 이래이 그 총각 빨래도 해주고 도랑에 요래 나가가지고. 그래 그래 있더니 총각 보고, 만날 지게하고 툽하고 도구하고 날만 새면 지고 산구덩이로 가더래 만날. 이거 돈도 벌 줄 모르고 산골에서.

뒤에 한 번 저래 어디 가는가 싶어서 살살 따라 올라가 보니까, 아주 그 참나무 밭 복판에다가 솟가마를 걸어 놓고 솟을 굽는 거여. 막 참나무를 비다가(베어다) 막 해가지고 솟을 고아가지고 그거 인지 솟동치, 그거 인자 솟을 짚으로 이래 이래 한 거. 한 동 한 동 해가지고 이리 쌓아 놓고, 이리 가 보니까 그 솟가마가 전부 금덩어리더래 이 아가씨 눈에. ‘아이고- 금덩어리가 저렇게 있는데.’ 그래 인자 내려와서 가만히 보고. 내리고 와가 해가 넘어갔는데, 이 총각이 인자 솟을 팔아가지고 뭐 좁쌀도 사오고 보리쌀도 사 오고 뭐 이리 혼자 끓여 먹고 그러는데. 물을 한-

(가득) 가마솥 해 데워 놓고는,

“오늘 아침에 목욕을 좀 하셔야 되겠다.”

총각 보고 그러니까는,

“아이 뭐 몸 씻은 지도 얼마 안 돼서, 내 일하는 일이 그렇게 시켜매서 그렇다.”

고.

“그러냐?”

고. 그래,

“그래 장에를 가야 되는데, 솥을 팔아야 되는데, 그래 오늘은 가서 그 솥을 팔아 가지고 쌀을 사가지고 오시오.”

이제 쌀하고 새옹술하고, 소지 종이하고, 초하고 가르쳐줘 인제. 그걸 사 오라고 시켰어 인제 총각을.

“마 이놈 아가씨가 나이도 어린 게 그렇게 날 그런 걸 시키냐?”

하고, 인제 시키는 대로 했어 인제. 해니까, 그 전에는 뚝양푼 있잖아? 뚝 양푼 하나 사가지고 오라고. 그래 오니까 그 양푼에다가 물 퍼다 놓고 양푼 안에다가 쭉갓하고 고추하고 검정하고 넣고는, 자기 총각을 목욕 시키고 저도 목욕하고 둘이 인제 하늘땅에라도 행렬을 지냈어. 이제 말하자면 둘이 잔치를 했다고. 그러고는 이제 부부가 됐지 이제. 그래 있다가는 이제, 그래 있다가는 인제 시켰어 인제 총각을 또. 둘이 이제 부부가 돼가지고 있으면서,

“오늘은 목욕을 싹 하고 나 시키는 대로 오늘은 쌀 사고, 술 사고, 향 사고, 초 사고 그래 해가지고 오라.”

고. 그래 인제 부부가 됐으니 이제 해라는 대로 했지 총각이. 그래 가지고 왔어. 왔는데, 이놈의 색시가 솥가마 있는데 보키지도(보여 주지도) 앓았는데, 가만히 숨어가지고 봤거든. 가보니까 이맛돌도 금덩이, 전부 생금덩어리가 눈에 훤히더라.

그래 인자 쌀하고 새옹술하고 그 사온 거 해서 총각을 끓여지게 해가지고 그 솥가마 있는데 갔어. 가가지고, 거기 갔다가 밥 해가지고 술 채로 끼리 놓고 물 떠 놓고 촛불 키 놓고 향불 키 놓고 이라고는 총각보고 절 하라 그러고, 저도 절 하고 그라고, 이제 둘이 말하자면 치성을 드렸단 말이여.

그리고는 곡괭이를 하나 가지고 가자고 해가지고, 곡괭이를 쏴어지고 색시 하는 대로 해가지고 가니까, 아 그러고는 총각 보고,

“곡괭이 가지고 이거 파라.”

고. 아, 그거 파가지고 그거 가지고 밥을 해 먹고 하는데, 이놈 아가 그 솟가마이를 곡괭이로 파내라니, 그 총각이 고만,

“아이고, 그거 파른 우리가 굶어 죽는다고. 그거를 나는 그걸 참 팔아가지고 이렇게 먹고 사는데, 그걸 파면 어떡하느냐?”

고. 총각 눈에는 그게 시커먼 돌이고 이맛돌이고 전부 흙인데, 아 이놈의 저게 파라니 이놈이 그것을 못 파. 이맛돌부터 파라 하니까 곡괭이로 파니까, 이맛돌이, 솟가마 이맛돌이 마 이만하지 돌멩이가.

“자, 지고 이제 내리 가자.”

고. 그래 이제 그놈을 지고 집에 갔다가 이래 놓고 있으니까,

“내일이 장이니까 가 팔아라.”

고. 아 이놈의 돌멩이를, 시커먼 걸 갖다 괴놓고 팔아라 하니, 뭐 총각 눈에 그런데 아가씨 눈에는 그게 금덩어리란 말이야 그게 생금덩어리.

“가지고 가가지고 장날 시짓걸음에 가서 괴놓고, 이거 사시오. 이거 사시오 하지 말고 암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

고. 아이 저게 색시가 시키는 대로 갔어.

“시키는 대로 그러고 있으면 임자가 나설 테니까 임자가 나서서 이거가 얼마요? 하면은 제 값만 주면 됩니다. 그 소리만 하라.”

고. 그래 하루 종일 지키고 앉았어도 뭐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해가 다 넘어 가가니까. 옥갓을 하고 아주 참 점잖은 양반이 깨끗한 양반이 오더니,

“아, 젊은이 이게 얼마요?”

그러길래,

“예, 제 값만 주면 됩니다.”

그 소리 하니, 지고 가자고. 지고 가니까 참 뭐 큰 대감네 집에, 돈 많은 집인데 그걸 이제 팔았어. 팔았어도 뭐 솟가매니 매 금덩어리인데, 뭐 그거 하나 팔았다고 뭐 뭐 느긋하게 사는데 뭐. 그래 그거 팔아가지고는 집에 와가지고,

“아이, 얼마에 팔았노?”

“제 값만 주면 판다.”

그랬더니 가자고 해서 그 집에 가니 돈도 뭐 그 전에 엽전? 지고 오지도 못하게 돈을 쥐가지고 아주 부자가 되고, 네 귀에다가 풍경을 달고 뭐 뽀뽀뽀랄라 아주 큰 부자가 됐는데, 종을 두고 이래 뭐 참 ‘에헴’하고 부잣집 마나님이 돼가지고 있는데,

“밥 좀 주소, 밥 좀 주소.”

거지가 한 때거리 왔더라. 그래 인제 몸중이,

“아이고 마님이요, 한데 밥 얻어 먹으러 온 사람이 할아버지도 오고 많이 왔어요.”

“그래 먹던 밥이라도 해서 차리라.”

고. 그라곤 내다보니까, 저거 어머니 저거 아버지 동생들 거지가 됐더라. 그래가,

“있는 대로 잘- 차려서 주라.”

고 이려고는, 저기 돈, 돈하고 옷 해 입으라고 포백(포목)하고 짚어서 보내 잘 살더라. 아들 낳고 딸 낳고. [조사자: 그래 지 복에 지가 사는 거지예?].

그러니까 그게 지 복에 사는 거 그게. 그게 딸 복에 사는 거 살았는데, 딸을 내쫓았기 때문에 못 살아. 이제 그 집은 복이 나갔단 말이어. 그 복 댕이를 내쫓았단 말이어.

[수영구 설화 90]

환생하여 허물 벗은 본처 자식

이정례(여, 1930년생) 구술

2012년 3월 3일 채록

[수영동 상춘경로당]

옛날에 작은 마누라 큰 마누라, 옛날에 높으고 잘 살고 이런 한 나라 임금도 작은 집 두고 이렇게 살잖어? 그래 아 이놈아 작은 마누라가 애기를 가졌어 인제. 애기를 가져서 작은 집이 이제 낳았는데, 딸을 낳았단 말이어. 딸을 낳았는데, 인제 그 큰 어마이가 인제 작은 마누라 인제 애를, 옛날에 집에서 낳고 이런 거 전부 다 받아서 다 해고(하고) 산바라지

를 다 해주고 이랬는데, 큰 집도 이제 애기를 갖고.

근데 작은 মানুষ은 딸을 낳고 큰 মানুষ은 작은 মানুষ이 가가지고 산바라지를 해고 일라를 낳고 이랬는데, 아이 아들을 낳았어. 이제 큰 মানুষ은 아들을 낳았는데, 이놈의 아들이 고만 빼서 고마 치워버리고는 쥐를 잡아서 훌쩍 뱃기서(벗겨서) 낙태를 했다고,

“아이고, 성한 애를 안 낳고 애도 생기다가 만 거를 이렇게 낳다고.”

애 머스마(남자 아이) 낳은 거 고만 싹 다 치워 버리고. 그래 인자 옛날에는 참 아로 이렇게 집에서 낳으니, 고마 들어오는 새에 애 어마이가 피가 줄줄줄 나오고, 마 태도 이렇게 낳고 하니까, 작은 어마이 고마 싹 다 치워 버리고는 그 쥐를 가지고 애 쏘았다고 이제 그러고. 애를 이제 치워버리고는, 애를 갖다가 저 죽으라고 인제, 산에 낭구(나무), 소낭구에다가 밑에다가 인제 포대기에다가 현 누더기에다가 싸서 갖다가 낳는데, 그 집에 큰 암개를 맥였는데, 개가 인자 쫓라 쫓라 따라가서 보고는, 고만 개가 품고 인제 산에 그래 있어. 죽었나 하고 가보니까 꼬물꼬물하고 안 죽었더라. 개가 품고 그래가 있어가지고는 안 죽어. 아 이놈을 갖다가 치워 버린다고, 저 강변에 큰 바위 위에다가 갖다가 인자 땡벌에 갖다가 놓으이 하늘에 학이, 학이 내려 와가지고 이래가지고 있어서 또 안 죽었어.

“에이, 이놈이 죽으라고.”

그만 풀을 썩썩 깎아가지고 풀에다가 감아가지고 저 소를 먹였어. 애를. 뭐 이 소가 금방 낳은 애기 옥저고리하고 다 먹어 버렸지 소가. 그래서 소가 이제 새끼를 가졌어. 새끼를 가져서 열 달 뱃속으로. 소는 열 달 만에 낳거든 사람하고 똑같이. 소가 먹고 새끼를 낳았는데 수놈을 낳았어 인제. 송아지를 수놈이 낳았는데. 그 큰 어마이가 그 신랑이 아들도 못 낳고 뭐 애도 더럽게 낳아서 그래 저기 하다고, 옛날에 호밀 있잖아? 이런 호밀, 그거를 하루에 한 가마니를 다 갈으라고 그러더라. 땡돌에다가. 이놈의 송아지가 경충경충 뛰 땡기다가 이래 보고 다리가 이래가지고 그 놈의 한 가마니를 다 갈아주고 인제,

“엄메, 엄메.”

하고 이제 저거 어매이한테 젓 먹으러 가고 가고.

“아이, 아이고 송아지야, 송아지야. 너는 어째 나한테 그리 잘 하니? 내

가 이렇게 땀돌질로 손바닥도 다 벗어지고, 이렇게 난 이제 천덕꾸러기가 됐는데, 니가 우째 나한테 그리 잘 하니?”

이러니, 송아지가 이제 경충 뛰고, 코뿔을 때니까, 자꾸 치마를 꼬리를 끌고 자꾸 어디로 가자고 그러더라. 이놈의 소가. 그래서,

“아이고, 니가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지 그럼 가자.”

그래 송아지 물로 가는 데까지 천 리 만 리 그냥 따라갔어. 따라가니까 아주 큰 아주 큰 기왓집 아주 풍경을 달고 아주 큰 부잣집으로 인제 가가지고는,

“밥 좀 달라.”

그러니까 문을 열고 이리 보더니,

“아이 저 사람, 밥 좀 잘- 차려서 대접하라.”

고. 대감이 나와가지고. 참 상에다가 밥을 이래 차려 주는 거를 그릇 달라고 한데,

“송아지가 나는 송아지를 데리고 댕기니까, 우리 소하고 같이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대감이,

“저 한테 소도 아주 잘 해주라.”

고 그 대감이. 그래 소를 붙들어다가는 참 잘- 대접을 받고, 그러고는 거기 인자 데려 모시라 하고, 소도 방에 들어 모시고, 저거 어머니도 방에 들어 모시고, 아- 아주 말도 잘 듣고.

그기 인자 아들이 그제 소로 태어났는데, 고 아들한테 소가 먹은 게 인제 사람으로 태어났어 인제. 그래가지고 인제 딸이 있는데, 한 날 불렀어. 이제 그 대감이 아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 저 소한테로 시집을 가면 좋고 높은 사람이 된다.”

이래. 다 알고는 아버지가 인제 딸이 삼 형젠데 다 불러가지고 소한테로 가라고 하니까,

“누가 소한테로 시집을 가느냐?”

고 펄떡 뛰고 펄떡 뛰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꼬트머리 막내 딸 보고 그러니까,

“아이 엄마 아버지가 허락해주면 가겠어요.”

그래 가기로 했어. 그래가지고 소를 세워놓고 뭐 행렬을 지어가지고

아주 잔치를 크게 했지 인제. 소하고 사람하고. 잔치를 크게 하고는 첫날 밤에 참 그 뭐 뭐, 치다 보면 소라 반찬, 내리다 보면은 각종 장판에 셋 별같은 낫요강에 뭐 뭐, 참 잘 차리 났는데. 첫날밤에 소가 나가더니 부엌에 가더니, 그 뭐 부잣집에 없는 게 있어? 그 고기 쓰는 칼, 식칼, 그 거를 가져 와가지고 색시 손에 쥐키면서는,

“여 코 있는 데서부터 쪽- 짜게(잘라) 달라.”

고 그러더라. 그래서 아가씨가 인제 코 있는 데서부터 쪽- 한 세상에 껌 데기 훌쩍 벗으니, 이웃집 신사가 나오니. 아이고 들려다 봐도 예쁘고, 내리다 봐도 예쁘고, 뽀-얀 게 이뻐가지고. 이 색시가 인제 지 어때 불러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가마에다가 물을 해가지고 목욕을 시키고 그 바지 저고리를 갖다 싹 입히 가지고 또 잔치를 했어 인제.

그래고는 아주 그 소 가죽 그거, 그거를 아주 싸고 싸고 해서 색시 품 안에 아주,

“평생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고는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렇게 잘 살더라.

[수영구 설화 91]

죽어 뱀이 되어도 쌀독을 지킨 구두쇠 시어머니

주한조(여, 1934년생) 구술

2012년 3월 3일 채록

[수영동 상춘경로당]

시어마시가 옛날에. 옛날에 어찌 독한 시어마시가 독했거든. 그러니 만날 조석으로 쌀단지 구석에(구석에) 딱 놓고 옥 단지 놔두고, 옹기 단지 놔두고 쌀 퍼러 오면은,

“야야, 쪼매 해라. 쪼매 해라.”

이래쌌더만은. 내자 돌아가시고는 구렁이가 돼가 뒤에 쌀단지 거기 아웅 치고 들어 앉아가,

“제제제제제쩍 제제제제제쩍”

한다 안 카나? 옛날에 그리 독하게 했어요. 며느리 밥 줄 줄 몰라. [조사자: 그럼 구렁이한테 밥을 줘야 합니까?] 안 주지. 안 주지. 그래가지고 이제 인자 하도 ‘썰제제제’ 한다 안 쿠나. 너무 독하게 해가지고.

[수영구 설화 92]

죽어 개가 되어 효도한 자식

주한조(여, 1934년생) 구술

2012년 3월 3일 채록

[수영동 상춘경로당]

어마이가, 기경도(구경도) 안 가고. 아버지라 카더라, 엄마가 아니고 [말을 바꾸어] 엄마. 귀경도 안 가고 만날 집에만 있다가 이게 개가 된 기야 개가. 죽어가 개가 돼 놓으니까네, 고마 혼인가 싶다. 그래가지고 봉태기(봉지)에다가 봉태기에 예쁘게 메가 담아다가 짊어지고, 온- 귀경을 팔도성을 귀경을 다 시키는 기라. 귀경을 다- 시키고, 인자 좋은 명산자래(명산자리), 명산자리에다가 따뜻한(따뜻한) 데 앉아가,

“엄마, 이제 귀경 이만치(이만큼) 했으니까네, 이제 언간히(어지간히) 하시는교?”

한께네, 그래 인제 쉰다고 쉬니까네, 뭐 개가 아무것도 없더란다. 그 자석이 효자 짓을 하니까 없어지더라.

3. 해운대구 설화

[해운대구 설화 1]

질투 많은 토끼와 녹두영감

정재금(여, 1935년생) 구술

2012년 2월 16일 채록

[반송1동 송원경로당]

옛날 옛날에 녹디(녹두) 영감이 살았는데, 이 아저씨가 자식이 없어가 늦가
늦가서 아를 하나 쪼매난 거를 낳았거든. 낳아가지고 이래 금이야 옥이야
까부리고 키우다가 산에 뭘 뜯으러 갔어. 나물 같은 거. 뜯어러 갔다가 집에
오니까네 아가 없는 거라. 좋아서 아를 들다 보러 가이 아가 없는 기라.

아이고 영감 할마이 놀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우짜고?’ 아를 찾으이
까, 솥을 열어 보이 아를 딱 삶아 났는 기라. 물로 넣고 불로 때가. 그래
가 영감 할마이 앉아갖고 탄성을 하고 있으니까 토끼가 방에서러 지가
애기라고, 탁지가 호강 받을라고 질투가 나가, 이 아를 직이빼고 지가 탁
이불 밑에 누버 있다가 ‘응애응애’ 이래 애기 소리를 내이까네,

“그기 애기가 아닌갑다, 닭인갑다.”

이라면서 떡 방에 들어가니까, 토끼가 딱 일어나 앉아가,

“녹디영감, 즈그 알라 삶아 뉘다요(먹었어요).”

카매 애를 달구더란다.

“동네 방네 사람들아, 녹디영감이 즈그 애 삶아 뉘대요.”

이래. 그런 이야기가 있어.

[해운대구 설화 2]

남편을 잃은 여자의 혼이 변한 매미

정점열(여, 1936년생)구술
2012년 2월 16일 채록
[반송1동 송원경로당]

맨날 인자 공부만 하니까 이 아지매가 먹을 기 없어. 맨날 피로논에 가면 피가 있거든. 그걸 뜯어가 밥을 해먹으니까, 남편은 방에서 공부만 했거든. 그런게 과거할라고 공부만 한께, ‘내가 못살겠다’ 싶어가, 남의 집에 시집을 가뻬어. 갔는데 이 아저씨는 공부를 해가지고 탁 과거를 해가 말을 타고 오니까, 이 아지매가 그냥 살러간 데 가서 그냥 마 빌었더란다. 그러니까 복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이 여 있었으면 그 사람이 출세를 못했어.[제보자 옆에 있던 청중이 이야기를 이어]

그래 녀이가 그 말매미가 됐잖아. 남게(나무) 끝에까지 올라가, 가는 거 볼라다가 그러다 떨어져 죽어서 됐다 하데. 말매미가 그래 됐다데 그게 녀이돼가 말매미 만날 높은데 올라가 안 우나. 맴맴 안 우나 신랑 불라고.

[해운대구 설화 3]

효자에게 내린 쇠북[17]

홍제분(여, 1930년생) 구술
2012년 2월 16일 채록
[반송1동 송원경로당]

옛날에 명심보감에서, 그래 인자 하도 가난한데 부모를 모시고 살았는데, 자식이 들어가지고 밥을 빌어다가 밥을 부모를 봉양하는데, 자식이 자꾸 뺏어 먹는 거야. 그래가,
“자식은 또 낳으면 자식이고 부모는 두 번 구하기 어려우니까, 이 애를 갖다가 우리 갖다가 땅에 묻자”
이랬거든.

그래가 인자 꿩이를 가지고 하나는 애를 안고 산에 가서 땅을 팠는 기라. 파니까, 거기서 큰 돌 쇠북이 나왔는 기라. 그래가 ‘아이고, 이 애를 갖다가 묻으면 이게 안 좋은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 북을 가지고 와가지고 들보에 매달고 두드린 기라.

그래 인자 나라에서 알았는 기라 그걸.
“이게 무슨 소리고”
하니까, 그래 인자 효자가 부모를 밥을 뺏어 먹어가지고 자식을 묻을라 했는데 묻을라 하이 땅에서 북이 나와서 애를 갖다가 묻는 것이 안 좋은 가 싶어서 북을 들보에 매고 두드린 거를 임금님이 알았는 기라. 그래가지고 일 년에 쌀 오십 석씩 줘서 그 사람이 잘 살았다 이런 얘기가.

[해운대구 설화 4]

홍시를 구해 어머니를 봉양한 효자

홍제분(여, 1930년생) 구술
2012년 2월 16일 채록
[반송1동 송원경로당]

옛날에 그래 효자가 자기 어머니가 만날 홍시를 좋아하는 기라. 그래 오뉴월에 홍시가 없잖아. 지금은 냉장고가 있고 저장해 놓으니까 그렇지 옛날에는 없잖아. 6월 달 되면은 없잖아? 그래가지고 만날 홍시 같은 거를 몇 백 개를 땅에 묻어도 그게 한 개 아니면 두 개밖에 안 남는 거야. 다 썩어가지고. 그래 가지고 인자 자기 어머니가 오뉴월에 홍시를 먹고 싶다 하니까 아들이 구할 길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인자 자기가 마음을 당황을 하고 딱 나오니까 호랑이가 앞을 가로막는 기라. 그걸 타라는가 싶어서 탔는 기라. 타니까네 저 만치 산중으로 가는 기라. 가더니 불이 반짝 하는데 고 집이 불이 있더라. 호랑이가 거기 가, 딱 거기서 멈추는 기라.

그라더니 거기를 찾아 들어가니까 그날 저녁에 자기 어머니 제사라 그 집에서, 그래가지고 제삿밥을 내왔는데 홍시를 그냥 갖다가 한 쟁반을 내 왔는 기라. ‘하 이거는 우리 어머니가 홍시 좋아하는 거를 이 호랑이가 진짜 도왔는 갑다.’ 싶어서 사실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그냥 자기도 그전에는 많이 해봐도 다 썩고 하더니 올해는 많이 그게 안 썩어서 그대로 도와주라는가 보다 하면서 홍시를 많이 싸주더라.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봉양했다 뭐 이런 얘가지.

[해운대구 설화 5]

효자가 만든 의령읍의 부모다리

박이순(여, 1940년생) 구술

2012년 2월 16일 채록

[반송2동 송우정경로당(여)]

옛날에 옛날인데, 저 의령읍이라 카는 데 있거든요. [조사자 : 의령읍에?] 의령읍에 가몬, 이 어마이가 밤중 되면 담박에 나가는 기라, 한 세 시나 되몬.

이 아들이 암만(아무리) 보고 ‘어데 가는고?’ 싶어 본께네, 큰 내가 있는데, 내 그걸 갖다가 버선발을 빼고 건니가는(건너가는) 기라. 그 질로 그 아들이 보고가이고 그 다리로 놔, 다리로 놔줬어. 그 다리 이름이 부모다리라 켜어.

[조사자 : 부모다리.] 의령 가몬 부모다리가 있어. 부모 효자되자고 다리 놔줬다고. 의령 가몬 있어. 실제 다리 있어, 의령읍에 가몬. 우리 외가가 의령읍이거든. [조사자 : 아, 그 부모다리라고, 그래 이야기가 전해오네.]

[해운대구 설화 6]

풍수의 유언대로 관을 넣지 못한 자식

최호영(남, 1938년생) 구술

2012년 2월 17일 채록

[반송2동 송우정경로당(남)]

옛날에 최가라고 선비가 살고 있었어. 선비가 살고 있었는데, 이 분이 진짜 풍수지리설을 잘 아는 사람이라. 잘 아는 사람인데, 기술도 역수로 좋은 사람이라.

그래서 다대포 고 살고 있었는데, ‘왜놈들이 언젠가 조선을 점령을 할 기다. 침략을 할 기다.’ 이 분이 알았는 기라. 근데 그 분이 말로 하기를

‘이래가 안 된다. 이거 나라를 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조사자에게] 저 낙동강 안 있소? [조사자 : 예 예.] 낙동강 이 물이 일본 복천 북 쪽 빠졌다 쿠대. 빠졌는데, 언젠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할 기다.

그래 인자 그저 동래, 그 그때 그 뭐고, 부사가 뭐고? [조사자 : 송상현.] 부사가 제일 높으다 아이가? 그러이 가서,

“내가 이 강을 돌릴 터이니까 좀 허락을 해주소.”

동래부사가 말로 하기로,

“그런 건 못 한다.”

이기라. 그래서 이 분이,

“아이고 그라몬 할 수 없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안 되고, 머 머 여기 명석이(명색이) 고을 부사라 쿠는 사람이 인정을, 승인을 해줘야 내가 강을 돌리제.”

그래 인자 강을, 낙동강을 어덜로 돌릴고, 부산을 이리 돌릴라고 자기 힘으로 가지고 돌릴라 쿤께네,

“절대 안 된다.”

이기라. 그래서 이 사람이 저 나이가 많아져가 세상을 베리기(버리게) 됐는데, 자기가 죽는 걸 알았어. 그래 인자 아들이 한 사람이고 딸이 하나 있었어.

그래 남텐데, 자기가 인자 풍수지리설을 잘 안께네,

“내가 죽거든 저 밑에 다대포 산이 있는데, 그 밑에 가몬 바위가 이리 나와가 있는데, 고 내가 죽고 행위로 몇 날 몇 일날, 고 몇 시에 가모 고 바위가 확 들어내. 내가 터가 콕이 드갈만 한데 고 써라.”

그래 아들인데 유언을 헨 기라. 그래 죽었어 그 분이.

죽었는데, 그래 딸이 행인을, 행상을 해가지고 가는데, 집에서 바깥에서 따라가지는 안 하고, 옛날에는 고게 자꾸 바다로 가는 기라 행인이, 저 행상이. 자꾸 바다 가서, 아들이 가자 쿠는 대로 행상을 해 가는 기라. 그래 인자 바닷가에 거 행상을 세웠는 기라. 세웠는데, 유언을, 아들이 듣기로 유언을 어떻게 하기는,

“저 몇 시, 몇 시 되몬, 이 바위가 이래 벌어지끼께네(벌어질 것이니까), 콕이 딱 하나 드갈만치 있는데, 고게 내를 물어도라.”

이런데, 인자 행상을 거따다(그곳에다) 바다 갯에(가에) 놓고, 저 시간 되도록 기다린 기라. 그거 바위 벌어지되도록.

그래 딸이 가만히 본께네,

“아무리 그렇지마는 부모로 갖다가 물에 갖다 버릴 것가 뭐고.”

이러더라. 딸이 마 따라 내려간 기라. 집에, 집하고 좀 거리가 좀 가까웠던 모양이지. 그럼 한 사람은 바닷가, 물가 딱 갖다놓고 쉬고 있는 기라. 그래 인자 딸이 쫓아갔다.

“와 아버지를 물에 영어(넣을) 것가? 뭐 하러 바닷가다 여래 떡 세았노?”

그래 아들한테 물었어.

“아이 동상아, 아버지로 어데 묻으것고?”

이런께네,

“요 좀 있이모 바위가 들, 꼭 하나 들어만치 있는데 고 시간을 기다린다. 아버지가 유언을 하더라.”

이래 된 기라.

“그래 시상에(세상에) 불호(불효)같은 놈아. 아무리 글치만(그렇지만) 부모를 갖다가 물에다가 영을 것가? 못, 몬 한다.”

그래 인자 그러쿠고 있는께네, 이 바위가 싹 꼭이 딱 하나 드갈 만치 딱 있는데, 아들은 이래 행상꾼들인테,

“저 좀 써라. 써 들오도록 가자.”

쿤께, 딸이 어림없는 기라.

“시사(세상에) 아버지로 갖다가 물에 영어몬 되나? 그마 시체를 아듬고(보듬고) 마 몬 가간다(못 가져간다).”

몬 가가이, 아 그래 좀 한 두 시간 있는께네, 고마 시간에도 못 써고, 콕만 싹 거 헨 거 사람들도 ‘아이 시 부모부터 물에 옹기도(넣기도) 뒗하고, 그래 하자 쿠기도.’ 시간이 가빠서 바위가 딱 닫어뻘어. [조사자 : 도로 닫히뻘네?] 아, 닫히뻘어.

그래 그 자리를 뒗로 못 써는데, 그래서 다대포 가몬 지금도 있다 쿠대. 그런께 그 자리로 못 썩고, 고 바위 우에 산이 있는데, 그 바위 우에 산 우에다 지금 뒗을 써뻘어.

[해운대구 설화 7]

여자의 입방청 때문에 자라기를 멈춘 바위

김가(남¹⁾) 구술
2012년 2월 17일 채록
[반송2동 운봉경로당]

그 옛날에 좀, 마음 좀 이상한 사람 안 있는교? 구신(귀신) 들리가. 그 사람이 들우리카네(들어오니까), 저 방에 요만침 요래 생기가 있더라요.

그랬는데 여 드갔다가 불일 보고 나간카네, 방구가(바위가) 저마이 컸더라요. 그래서,

“아 이상하네. 방구도 크는 갑네. 저 방구가 어째 저처럼(저처럼) 컸노.”
카이, 고래가 딱 중재가 안 컸는 방구가 저 서가 있는 방구.

[해운대구 설화 8]

처갓집도 겨우 찾아간 바보

김가(남) 구술
2012년 2월 17일 채록
[반송2동 운봉경로당]

옛날에 아들로 장개를 보내나 놓으이, 인자 처갓집에 놀러 갈라 카이 동네 이름을 모른다 아이가. 그라이,

“머시라 카꼬 카며 찾아가꼬?”

카이,

“염통골이라고 카고 찾아가라.”

카이, ‘그래 옳다. 염통 염통’ 카매 가다가, 도랑이 하나 있어서 팔딱 건너다 보이, 오 염통 카는 걸 잊어뻘어.

1) 제보자가 ‘김가’라고만 하고, 이름과 나이를 밝히기를 거부했다.

잊어뿌고 가가, 지내가이 인자 머시라꼬 찾아가꼬 싶어 가이, 들에 인
자 할배들이 논을 갈거든. 가다가,

“할배 할배, 소 그기 뭐고?”

카이,

“이 놈아 소지 뭐라.”

“소 안에 들은 거는 뭐고?”

카이,

“창지지(창자지) 뭐라.”

또,

“할배, 그 안에 들은 거 뭐고?”

카이,

“에이, 마한 염통을 난 놈이 저런 짓 한다.”

카이,

“아, 옳다. 맞다. 염통.”

카매, 그래가 처갓집을 찾아갔다.

[해운대구 설화 9]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17)

김가(남) 구술

2012년 2월 17일 채록

[반송2동 운봉경로당]

눈 어둡은(어두운) 시어마이만(시어머니만) 있었어. 있는데, 남자가 오
데 가고나이, 시어마이 뭐 해줄 기 없어서, 지래이로(지렁이를) 잡아다가
장판지, 옛날 장판지 그거로 밑에다 깔아놔디 그기 빼싹 몰라졌다(말라
졌어). 몰라지이 싹싹 문대가(문질러서) 흠이(흠이) 좀 묻어가, 이래가 줄
기 없어서 시오마이를 먹었어.

시어마이를 먹었디마는, 한 일년 먹이(먹이니) 시어마이가 그게 보신
이, 약이 돼가 눈을 뜨고 보하이 살이 썩가 빼어나더라 해.

그래가 아들이 오이,
“아이고 야야, 너 엄마이가 뭘 해주는지 게 묵고 나이 내가 눈이 떠가 이렇다.”
“그럼 돈도 없는데 뭘로 해 줘노?”
카이,
“몰라”. 요 밑에서 꺼잡아 내가 이래 날로 준다.
카이, 보이 그 지랭이 새끼 그거로, 몰라 거 황토흙이 묻히쳐가 빼삭 몰라 그걸 내 줘어. 줄 기 없어 그거로 묵고 이래 눈을 떠가 있더라, 엄마가.

[해운대구 설화 10]

고지산의 묘 파는 기우께

모규일(남, 1931년생) 구술
2012년 2월 21일 채록
[반여동 삼화경로당(남)]

제일 높은 산이 고지산이라는 산이 있고, 더 높은 산은 비악산이라는 산이 있어. 근데 고지산에다 묘를 씌면 큰 부자가 되고, 자기네들이 잘 산다 이라는 기라. 그래서 그 고지산에 그 묘를 딱 썼다 하면 날이 비가 안 오는 기라.

비가 안 와가지고 농사를 못 지으니까, 온 동민들이 여름 되면, 비가 안 오면 그 고지산에 꼬챙이를(곡괭이를) 둘러메고 올라가는 기라 묘 파러.

비악산은 줄기가 우리말로 할 것 같으면, 비악산은 여기 장산처럼 큰 산이고 고지산은 고 밑에 비악산보다도 약 백메다(100m) 이래 낮은 산이라. 낮은 산에서부터 뻗어 나오는 기 있는데, 인자 동해바다로, 인자 이렇게 뻗어나가는데 그 밑에 갈 것 같으면 용산이 있고, 그 고지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줄기가 짝 있는데, 고지산에 묘 쓰면 그 고지박 줄기로 인 해가지고 사람도 좋은 사람 나고, 부자도 큰 부자 난다 이 카는 기라.

그래놓으니까 그 고지산에 묘 쓸라고 옛날에는 마 난리인 기라. 그 묘 쓸라고. 그래서 난 또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커가지고 산에 그래 올라가보니까, 그 산에 산이 요래 빼죽한데 올라가보니까 구덩이로 널

들어갈만한 구덩이로 이 마이 깊이 파놓은 기라. 거 돌인데, 순 돌인데 그래 파놓고. 그래 전에 어른들이 가서 묘 팔 때는 아주 밑창에다가 묻어놓고 시체를 묻어놓고 덮게이(덮개), 덮게이 말이지 못 파도록 말이지 아주 여물게(단단하게), 요새 같으면 시멘트가 있지만 시멘트 없어도 여물게 묻어가지고 놔뒀는데. 요새도 가보면 꼭 하나 들어갈 만큼 아주 깊이 파 놓았더라고 산 대벽에.

그런데 거기서 묘 쓰는 사람마다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임금이 나뉘는 거, 마 큰 벼슬하는 사람이 난다 이런. 그런데 오늘날까지 그런 전설이 있어가지고, 날이 가물었다 하면 올라가서. 파는 기라. 파면 묘 속에 사람이 나오는 거라 시체가. 그거 파내버리고, 인자 시체를 내버리고 나오면 그 사람들이 임자들이 그 시체를 딴 데다 갖다가 묻고, 이라는 전설이 내려오는 거 있어.

[해운대구 설화 11]

스님을 넣어서 만든 보(湫)

모규일(남, 931년생) 구술

2012년 2월 21일 채록

[반여동 삼화경로당(남)]

보(湫)라 카는데, 중보라 카기도 하고 애기보라 카기도 하고 그래. 왜 그러냐면은 여름에 인자 물이 많이 내려 가가지고 보가 떠내려가면, 그 보를 인자 높혀야 물이 들에, 여기 전부 들이라 옛날에 들에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데, 봄 되면 인자 요새쯤 되면, 그 보에 일로 하다 보니까 중이 지나가는 기라. 중이 지나가면서, 여는 옛날에 못이 안 말라 놓으니까 물이 사시사철 내려오는 기라 맑은 물이. 물이 굉장히 좋았어. 중이가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

“아, 거기 참 사람을 하나, 애기를 하나 갖다 묻어 놓으면 그 보가 안 떠내려 가겠구마는.”

이 카더라. 그래가 그 소리를 가만 들은 청년 하나가 가만히 들어보니 이렇게 마 이렇게 뽕떼기가(뽕따구가, 화가) 나가지고,

“에라이, 이놈 자석아. 니놈을 때리 죽이가 여기 넣어버려야겠다.”
가던 놈을 마 보따리를 붙들어가 두드려 패가 잡아넣어가 그다 만들었다
데. 그래가 중보라 카기도 하고, 애기보라 카기도 하고.

[해운대구 설화 12]

도깨비에 홀린 사람

송정숙(여, 1927년생) 구술

2012년 2월 20일 채록

[반여1동 중리경로당]

그때 좌동에, 신시가지 들어오기 전에, 왜정 시대에 그 기름땅꼬가
(기름탱크가) 그 동네에 들어왔거든. 왜놈이 집을 지어가 그게 그 기름당
꼬를 갖다 놓은 거야. 그게 그래가 인제 왜놈들이 손 들고 드가고 나니
까, 그 집이 전부 인자 판자로 지어 놓은 집들이 남았다 아이가? 남아
놓으니까 그거 뜯어간다고, 구루마(손수레) 있는 사람은 그걸 뜯어가 집에
제중 집에, 쓴다고 그걸 뜯어가가 집에 쓴다고 끌고 가고 이라는데.

한번은 우리 동네 사람이, 내캉 동갑일 끼구마는. 영도라고. 그게 구루마가
있어놓으니 그걸 뜯을라고 거기가 좀 멀어 우에. 머는데 거로 가서 뜯다가
그때 인자 헛치를 만났는 기라. 헛치를 [조사자 : 헛치가 할머니, 허채비 입
니까?] 도깨비. 그래 그걸 만나갖고 소는 어디로 지가 갔부고, 사람으는 어
두름(두둑) 두름이 이리 넘어가야 하는데 거기 전부 신시가지 논 아이가?
두름이 이리 높거든 거는. 이래 이래 등어리 등어리 넘어가는 데 있는데,
몇 등을 넘어가. 그래 집에서는 사람을 잃어뿌렸다고 찾으러 이 징 장구를 치고
올라갔는기라. 올라가니깐에 지금 부대 있는 그 골짜에서 그랬는데, 이쪽에
여게 여 그까지 올라갔는 기라, 그 허챙이가 사람을 끌고. 그래가 사람을
끌고 그꺼링 땡기다가 마 그 사람이 혼을 잃어가이고 그래가 마 못 크데.

살기는 살았는데, 살기는 안 죽고 살았어요. 인자 죽었는가 몰라. 키가 못
크고 키가 딱 요래. 아(아이) 때 우리가 고 때 해방 될 때 열 일곱 살 묵었
거든. 도깨비라는 게 그래 우리가 그렇게 알아. 그 이튿날 그 자리 가니까
진짜 빗자루가 있다 카대. 그래 빗자리 아무 데나 못 버린다 안 카나 옛날에.

[해운대구 설화 13]

장님과 벵어리 부부의 대화

김금순(여, 1936년생) 구술

2012년 2월 21일 채록

[반여1동 무정실경로당]

저 영감은 봉사고 마누래는 벵버린데(벵어린데), 오테서(어디서) 하리
(하루) 있으니까,

“불이야.”

쿤께네, 인자 벵버리는 다리 있은께 쫓아가고 영감은 봉사가 돼 몬 가는
기라. 그래 인자 갔다 온께네, 영감이,

“오테서 불이 났던고?”

쿤께네,

“저 등너메서 불이 났더라 말이다.”

“등너메 누집에 났던고?”

쿤께,[옆에 있던 할머니가 이야기에 끼어들며] 벵어리가 돼나 놓으니 말
로 못하고 뱃구녕을, 영감 뱃구녕을 꾸욱 누리(누르니),

“아이고 동네 복판에서 불이 났던가베.”

그래가 또,

“우찌 댜는고?”

카이, 그래 쫓아 가디만 또,

“우찌 댜는고?”

카이, 영감 꼬치를 떡 쿠며,

“아이고 우야꼬 기둥만 남았는가베.” [일동 웃음]

그게 욱이라 카이까네 [일동웃음] [제보자 : 그래가지고예?] 그래가이
고 그기 끝이라. [제보자가 끝이 아니라며 다시 이야기를 이어서]

“등너메 누집에 났던고?”

쿤께네, 그래 인자 남자 손을 대다가 지한테 지 사타새를(사타구니를) 툭
치거든.

“하- 등너메 심야집에 불이 났던가베.”
그래 또 인자.
“얼마나 탔던고?”
쿤께, 또 이리 툅 친께네,
“아- 다 타고 저 십만원어치 탔던가베.”
또 이라거든. 또,
“얼마나 탔던고?”
쿤께, 또 영감 사타새를 툅 친께네,
“아이구 다 타고 기둥만 남았던 가베.”
그래 쿠더란다. [조사자 : 두 사람이 툅툅 통한다 그지예?] 그래. 그래 버
버리하고 인자 버버리하고 봉사하고 그래가 그래가 그리 하더라고요. 그런
께 다 하고난께네, 사타새를 때리니께네,
“아이구 다 타고잉 기둥만 남았던 가베.”
남자 기둥만 그 남아있으께, 그다 때리니까, 그리 알고 그렇더란다. 좋
은 이야구(이야기) 오늘 들었네.

[해운대구 설화 14]

고부 갈등을 풀게 된 개구리 고기

김상복(여, 1936년생) 구술
2012년 2월 21일 채록
[반여1동 무정실경로당]

옛날에 고부간에 되게 못 지냈는데, 하도 싸움을 하고 이래사저러 아
들이 가만 생각하니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서,
“개구리로 많이 잡아다 묵으만 빨리 죽는단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그래 마 며느리가 온 동네 아들로 시켜가지고 개구
리를 짜다라(매우 많이) 잡아다가 삶아 맥였거든. 먹이 놓으니까 시어머
마씨가 살이 자꾸 찌는 거라. 살이 찌니까네 일도 잘 하고. 이래 놓으니
까 할마이가 살이 찌서러 툅툅해 놓으이 아들이,

“엄마로 갖다가 팔자. 오늘 장에 가서 팔아야겠다.”
카이까네 며느리가,
“팔아가 안 됩니다. 일도 많이 하고 밥도 해주고 살림 다 하는데, 어무
이가 안 계시면 우리는 우예(어떻게) 살 끼고? 빠 안 된다.”
카더란다. 그래가지고 마 안 팔고, 마 다 화목하게 키웠다. 아들도 손자도
봐주고 마 빨래도 해주고 한께네, 그럼 팔면 안 된다메 며느리가 문
팔구로 했어. 그래가 마 잘 살았다.

[해운대구 설화 15]

새끼를 세버한 사람에게 보답한 호랑이

조분수(여, 1933년생) 구술
2012년 2월 21일 채록
[반여1동 상리경로당]

옛날에는 진주 덕산에라 하는데, 호랑이가 그때는 있었는가 봐요.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진주 덕산저게 친정 모친이 처녀시절에 산에 고사리를
끓으러 가니께네 호랑이가, 저-산 속에 들어가서 고사리를 끓고 올라가는
데 우에서 고양이 새끼 같은 걸 몇 바리(마리)를 놔놔더라요. 에미는 없고.
이래서 ‘이 산 속에 무슨 고양이가 있노?’ 싶어가 종타고 이래 쓰담아
싼께네. 우에서 뗏이 ‘어흥-’ 하더란다. 좋다고 지 새끼네 쓰담으니께네.
그러니까네 고마 마 이 처이들이 나물 캐러 갔다가 소쿠리고 뗏이고
신이고 뗏고 다 벗어 내버리고 쫓아왔는데, 그 안날(다음날) 아침에(아침
에) 그 촌에 타작마당이 있다 카네, 인자 동사무소 같은 데 있는데, 타작
마당 가서 신하고 소쿠리하고 다 물어다 놔더라 호랭이가요. 짐승이 언
간하면(어지간하면) 짐승이 은혜라 카는 거라. 사람은 도와주도 그쟈?
말이사 양물을 한다 안 카나? 이래도 짐승은 도와주면 은혜로 한대요.

[해운대구 설화 16]

지네장터 이야기[은혜 깊은 두꺼비(1기)]

조분수(여, 1933년생) 구술
2012년 2월 21일 채록
[반여1동 상리경로당]

이거는 책에서 나온 긴데. 이거는 다 봤을꺼다 알 꺼다(최당처럼) 지레 이런 이야기에.

사람을 일 년에 하나씩 등구나루가 있는데, 등구나루 안에 초당팬기로(초딩처럼) 지어 났는 기라 그 동네에. 그 지네를 도와야 되지, 안 그러면 그 동네는 농사를 못 짓는 거야, 비도 안 오고 이래 놓으이. 일 년에 하나씩 제물로 바치는 거야. 사람을 처이로(처녀를) 사다가. 새택이도 안 되고 시집 안 간 처이로 사다가 하나씩 처이를 바쳐야만 그게 비가 와가 농사를 짓는 거야. 그래서 그래 인자 사람을 살라고 그래 하니까네, 어느 집 없는 집 처이가 너무 너무 없어 가난해서,

“내가 팔리 가겠다.”

고. 이래 하고 인자. 그래 사다가 제물로 바친 기라. 초당 지(지어) 났는데. 그래갖고 바치는데. 이 처녀가 아무리 없어도 저거 집에 부엌에, 옛날에는 와 뚜꺼비 안 있어? 두꺼비. 그래가지고 만날 부엌에서 나가지도 않는 기라 이놈의 두꺼비가. 안 나가고 부엌에다 밥을 주니까 밥을 묵고. 두꺼비가 어데 안 가고, 처녀가 없어도 자기 먹을 밥은 없어도 그 두꺼비는 꼭 한 숟갈씩 먹이는 거라. 두꺼비로 그래가 준께네 거기서 두꺼비가 많이 컸어. 많이 컸는데, 그래가 팔리가면서 두꺼비를 보고 저녁 되면 갈 긴데,

“그래 나는 가니까네, 우짜든지 잘 살아라.”

이래쿠고 갔는데.

그래 그 초당에는 인자 사람을 처이를 사 넣으면 녹칸다(녹인다) 카네, 녹하가 빼만 남는 거라 아츰에(아침에) 가면. 지네 그기 빨아 묵는 기라. 그래가꼬 밤중에 상을 차려놓고 참 처녀를 사 넣어가 그거를 하는데, 아츰에 가면 언제든지 빼가 남으니까네, 망을 보는거라, 사람을 사 넣어가 망을 보이께네, 마 참 시간이 다 되가니까네 ‘우루루루~’하더라 해. 막 소리를 내고 우루루루 하더라네. 그래서 지네가 인자 큰 기 내려 오가꼬 사람을 녹칼라 하는 거라 인자. 못 나오구로 문 딱 바깥에서 잠가놓고

이래 놓으니까 나오도 못하고 이랬는데.

그래갖고 한참 지네 그기 안개가 무섭다 카네, 사람을 녹하 묵는 안개를 피우니까네. 이 사람은 그거를 모리는 기라 인자 영판 마 죽어뿐 기라 안개를 피아난께네, 지네가 독을 피아 놓으니까네. 그래갖고 그거 하더란다. 이 처녀는 죽어뿐 기라, 상 차려 난데 그 앞에서. 안개, 독을 피아논께에 방에 김이 마이(많이) 서리겠지? 그런데 아측에 그걸 찾으려 가니까네 하나도 녹도 안하고, 빼가지도 없고, 사람만 이래 기절로 해가지고 처이가 살았더라 하네. 그래 이 이야기를 하더란다. 그래 고을 원님이 데비다(데려다)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

“어째 어째 해가 이래 됐는데?”

하니까 막 두꺼비하고 인자 지네하고 싸우는 거라. 두꺼비가 들어오서 지 부엌에 있던 그기, 지는 모르지. 그라니께네 두꺼비가 들어가서 마 지네하고 막 이리 안개를 피우는 기라 독을. 피우니까네 고마 지네가 죽어뿌린 거라. 두꺼비 그거 독이 참 무섭다 카네. 이래갖고 그래 아측에 가니까 그래 그 큰 지네가 빠드러지가 있었다대. 사람은 죽도 안 하고 그래가 두꺼비가 살려줬는데, 그 처녀는 재산도 많이 받고. 없는 집에 처녀네 딸 내미가 논도 많이 받고 잘 살았다 하대 이 책에 나왔어 우리 어릴적에.

[해운대구 설화 17]

별 세 개로 여수 동생에게서 도망친 오빠

임만용(여, 1921년생) 구술

2012년 2월 20일 채록

[반여4동 삼어할머니경로당]

딸이 다섯인데 그 집에. 그 중 막내딸이 매구라. 야시(여우), 매구라. 그래 우에는 다 치았는데(결혼시켰는데) 막내 그거는 치아도 모하고(못하고) 뇌뒀더니만은 매구가 돼 가지고. 이 저녁마다 나가. 저녁마다, 저녁만 먹으면 나가고 나가고.

하룻밤에는 오빠가 딱 지켰는 기라. 오빠가 하나 있는데, 오빠가 가만-

잠 안 자고 지키 보이, 밤중 돼서 짹 나가더만은 저게 공두산에 올라가. 공두산에 올라가더만은 뵈로, 마 뱀산을 휘딱 넘어가가지고. 매구가 돼 가지고.

[청중 : 너거 공두산이 어텐고 아나? 공동묘지.] 요새는 고양이라 캐야 되지(해야 되지) 고냉이라 카이 못 알아듣고.

그래 마 묘로 파더만은 염장(시체), 염장을 꺼내 가지고 염장 배로, 막 손톱이 이만큼 길어가지고 배로 까디비(갈라 뒤집어) 가지고 간을 내가지고 막- 묵거든. 막- 간을 내가지고 실컷 묵더만은, 그래 마 또 뱀산을 휘떡 넘으이 사람이 돼가 내려오거든. 오빠가 가만 보니 ‘인자 알았다.’ 되게 무섭거든. 오빠가 보니까네.

그래가지고 오빠가 못본 체 하고 집에 가 가만히 있으니까네, 사람이 돼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딱 누워 자거든. ‘하- 조거를(저거를) 어째 할꼬?’ 하룻밤 자고나니 동네 사람 자꾸 잡아먹네. 하룻밤 자고나니 동네 사람 한 집에 가니 하나 잡아먹고, 하룻밤 자고나니 한 집에 가니 하나 잡아먹고, 인자 이거 마 이걸 몇 달로, 몇 해 있으께네, 동네 사람이 없는 기라. 다 잡아 무뿌고(먹어 버리고) 간을 다 내 무뿌고. 다 잡아먹고 인자 오빠 하나이 남았는 기라.

인제 오빠 잡아 묵을 차렌데, 오빠가 인자 겁이 나가지고 어느 사주 잘 보는 사주쟁이한테 사주 보러 갔는 기라.

“어짜면 내가 살겠노?”

인자 오빠가 잡아먹히면 큰일인데, 사주 보러 갔는데 사주를 보니까네,
“당신이 도망을 가야 된다.”

카거든.

“도망을 우째 가노? 어디로 가겠노? 저게 막 야시가 돼 가지고 따라 올킨데, 우째 해야 도망을 가겠노? 도망을 가도 못 하는데, 우째야 하노?”

요만큼만한 빙이로(병을) 쪼께쿠만(작은) 빙이로 세 개를 주거든. 하나는 새파랑고, 하나는 빨강고, 하나는 노랑고, 고런 거 세 나를 딱 주거든.

“당신이 요거를 보캐뜨에(ポケット, 호주머니에) 넣어갖고 막 내빼라(도망가라) 카거든. 내빼민시롱 급하거들랑 막 따라오거들랑 급하거들랑 한 개 던져빼라(던져버려라).”

카거든.

그래가 그거를 보캐토에(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마 인자 그 집에 말

로 한 마리 있었는데, 말로 타고 내뺐다. 오빠가 마 그냥 내뺐 수가 있나? 다리가 아파여. 말로 타고 막- 내뺐는데 막 따라오거든.

“하- 오빠 어디 갔노? 하- 오래비 어디 갔노?”

옛날에는 오빠라 안 카고, 지금은 오빠라 카는데, 옛날에는 오래비 켜다. 오랍아, 오랍이 이켰다.

“하- 오래비 어디 가노? 하- 오래비 어디 가노? 오래비한테 말한테, 오래비한테 불고 말한테 불고 할 낀데, 하- 오래비 어디 갔노?” 하고 막 따라붙거든. 막 이제 강이 시퍼런 강이 있는데, 그 강을 막 말로 타고 건너가는데 막 따라 오거든.

인자 강에 안 건너 가가지고 강에 막 물로 물로 차고 들어오는데, 빙이로 한 개 썩 던지뿌이께네(버리니). 막 가시녕쿨이 돼가 가시가 막 짹~ 있고, 가시녕쿨이 이래 덩거리가(덩어리가) 되어 있으니 못 들어오고, 막 못 들어오고 이래 후다닥 이래썰거든 후다닥 그래썰거든. 그래썰더니만은 우썰우썰 해가지고 가시녕쿨을 해치고 또 따라오는 거라.

고단새에(그 사이에) 오빠는 저기 멀리 내뺐는데, 우썰 얼마나 날세게 따라 오는지 마 자꾸 따라가거든. 자꾸 따라 오는데, 말 꼬랑뎡이가(꼬리가) 가칭 가칭 하이 말꼬랑뎡이 붙들라고 또 따라오는데, 가만 생각하니 까 말 꼬랑뎡이 붙들면 죽거든.

또 빙이를 한 개 확 던지뿌이께네(버리니), 막- 불이 나가지고, 불이 막- 나가, 불덩이 돼가 못 오고 또 이래썰거든. 막- 그래썰더니만은 오빠는 또 저만치 내뺐다. 내뺐고, 이 여자 마 어썰 불덩거리(불덩이) 때때로(때문에) 못 오더니 어썰 왔든지 또 따라오거든. 또 따라오니께네, 오빠가 암만 내뺐도 또 말 꼬랑뎡이가 가칭 가칭 하거든. ‘와- 이거 큰 일 났다. 아무래도 잡아 먹히겠다.’ 싶어 가지고 막- 말을 달리고, 암만 가도 그냥 따라 오거든.

그래가 낸중에(나중에) 또 새과란 빙이 하나 남은 거 마저 던졌는데, 그때는 마- 물이 돼가지고, 마 강이 깊어서 이제 못 오는 기야. 바다가 큰 바단데, 못 오고 마 내뺐는데(도망치는데), 와- 그래가 인자, 그때는 큰 바다가 돼놓으니께네, 내뺐는데 오빠는 살왔고, 이거는 죽었는지 우썰는지 안 따라 와. 안 따라오고 오빠는 살왔어. 살왔는데 이거는 강에 빠져 죽었는지 마 우썰는지, 나무데썰더니(허우적거리더니) 그 뒤를 못 따라오고 이거는 끝 돼썰어.

[해운대구 설화 18]

구렁덩덩 신선비[뱀신랑 이야기]

임만용(여, 1921년생) 구술

2012년 2월 20일 채록

[반여4동 삼어할머니경로당]

또 쪼께(조금) 내가 짤막한 거 하나 할께. 또 옛날에 나이 많도록 살았는데, 자식이 없어. 영감 할마이 나이 많도록 살았는데 자식이 없어가지고, 늦게- 늦게- 늦까 그래 아를 하나 낳았는데, 뱀이로 낳았는 기라. 뱀이로 한 마리 딱 낳았어. 이 뱀이가 말을 하는 기라.

아이고, 뒷집에 그 사람들, 아(아이) 논(낳은) 뒷집에 정승이 한 집 살았는데, 정승은 딸이 다섯인데 정승집에, 딸이 하나,

“하이고- 앞집에 할매가 아 낳았다 카더이 기경(구경) 하러 간다.”

캄시롱(하면서) 나오더만은,

“아이고 무시라(무서워라) 뱀이를 낳아놔네.”

카고 또 작은 딸이 또 기경하러 오더만은,

“할매, 아 낳았다 카더만은 뭐 낳는교?”

방을 들다 보더만은,

“아이고 무시라 뱀이나 낳았네.”

카고, 딸이 다섯인데, 너이가(네 명이) 그 카더만은 나중에 다섯째 막내이가 오더만은,

“할매, 아 났다 카더이(하던데) 함 봅시다.”

카거등. 보더만은,

“아이고, 둥둥 신선배로 나왔네.”

이 카거등. 아이고 그래, 그래 인자 뱀이가 들었는 기라. 그카는(그렇게 하는) 걸 다 듣고, 인자 뱀이가 또 크는 기라. 크는데 크더마는 얼만큼 크더만은 하루는,

“엄마, 엄마.”

부르더란다. 지금은 엄마 카지만(하지만) 옛날 오메라 켜다. ‘오메~, 오

메-' 이 켜다. 그래,

“오메-, 오메-.”

“와?”

카이,

“뒷집에 그 집에 막내이딸한테 장개 보내 달라.”

칸다.

“하이고 이놈 아야. 누가 뱀이한테 누가 시집 올라 카더노(하더냐)?”

카이,

“한번 가보라.”

카거든. 하도 가 보라 캐사서(해서), 인제 정승 집에 삼작거리 가서 빙빙 돈다. 그 말로 할 수 있나? 뱀인데 누가 시집 올라 카겠노? 또 그 이튿날 아츰(아침) 먹고 가가지고 또 입이 안 떨어져가지고 삼작거리서 빙빙 돌고. 사흘로 가야 빙빙 도니께네(도니까), 정승 그 집에 정승 어른이 나오더만은,

“할머니, 할 말이 있으면 여게(여기) 들어와서 하지 왜 삼작꺼리에서 빙빙 돌고 있노? 할 말이 있거던 들어와서 하시라.”

고 이카이(이렇게 하니), 그래 인자 드가지고(들어가서),

“참, 내가 입이 안 떨어져서, 말로 할라 하니 입이 안 떨어져서 못 들어오고 삼죽거리에서 빙빙 돌았다.”

고.

“그래 무슨 말씀이라도 말로 해보라.”

고 카이,

“내가 하겠다.”

고 카이,

“그래 우리 집에 참 아로 낳아 놓으니 뱀인데, 그래 여기 정승님 딸이 너이가 와서 둘러 보더만은 ‘아이고 무시라 뱀이 나났네’ 이 카고 가더만은, 그 중 막내딸이 오디마는(오더니) ‘아이고 동동 신선배를 낳았네’ 그 카더라.”

고 그 카이까네,

“그래요?”

그 정승이 이제 딸로 다섯을 다 부르는 거라. 맏딸로 부르니께네,

“니, 이 집에 뱀이한테 시집갈래?”
카니까네,
“하이고 무시라, 누가 뱀이한테 시집간다 카던교?”
카고. 또 둘째로(둘째를) 부르니까네 둘째도,
“하이 무시라, 뱀이한테 우째 시집가는교?”
카고, 셋째로 불러도 그 카고, 넷째도 불러도 그 카고, 다섯째 막내이를 불러노이,
“니, 이 집에 뱀한테 시집갈래?”
카이 갈라 카거든. 그것도 회안하제?
“예, 갑니다.”
카거든.
“그래, 그러면 됐다.”
그래 인자 날로, 좋은 날로 받아가 뱀이를 간지깁이다가(긴 장대에다) 휘휘 감아가지고, 그래 인자 절을 시키는데, 절을 시키고 잔치로 했는데. 그래 인자 잔치로 하고, 색시하고 이 뱀이하고 첫날 방에다 들라 났다. 방에다 들라놓으니 그래 뱀이 하는 말이,
“너거 집에 삼년 묵은 간장하고 삼년 묵은 밀가리(밀가루)하고 그래 있나?”
카거든.
“있다.”
카이까네,
“도장에 가 보라.”
카이까네, 그래 문구녕을(문구멍을) 이만치(이만큼) 뚫버(뚫어) 놓고 문구녕을 술- 나가더니만은, 도장에 가가지고 간장이, 삼년 묵은 간장이 지금도 약 된다 안 카나 몇 년 묵으면. 간장 통에 풍당 빠지가지고 밀가리통, 밀가리에 가 돌돌 구부러니까네(구르니까), 마 일등한 동동 신선배 신랑이 돼가 나오거든.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이 돼가 허물로, 밀가리 구불러가지고 허물을 흘랑 벗고 사람이 돼가지고 그래 들어오거든. 마 색시가 보니 놀라겠거든. 아주 일등 신선배가 돼가 그래 오더라.
그래가지고 첫날밤 자고 나더니만은, 뭐 뱀이가 왔는가? 안 왔는가? 그거는 모르지만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먹골랑(먹고서) 뱀이가. 내

가 이 뱀이 허물 그걸로 색시 동전을 달아가지고,

“내가 어데 나가서 삼년 만에 올 끼니까네(것이니), 삼 년만 기다려주마, 과연 내가 이 사람의 허물을 덮어 썼는데, 아직 옳은 사람이 안 됐으니까 기한이 차야 옳은 사람이 돼가 잘 살 수 있으니까, 삼 년만 기다려주마 내가 삼 년 안에, 삼 년만 있으면 올 끼라.”

고 이카거든. 그래 인자 삼작거리에 감나무로 하나 숨가(심어) 주민서는(주면서),

“내가 기분이 나쁘면 이 감낭개를(감나무를) 쳐다보면 감낭개 시루하이 한쪽으로 기울 끼고, 기분이 좋으면 이 감나무가 이과리캉(옆이) 팔팔하이 팔팔하이 기운이 있어 산다.”

고 그래 카거든. 그래 감나무를 하나 심어주고 인자 뱀이가 그래 떠나거든. 그래 안죽(아직) 살라 카니 사람이 안죽꺼정(아직까지) 도가 덜 차서 옳은 사람이 안 됐다 카이 우짜노? 그래 이 색시가 보내줬는데.

그래 인자 어데-라고 이 사람이 이 색시캉 자기캉 살 원년이 안 됐는기라 안죽꺼정(아직까지). 나가가지고 저게 어느 동네 어느 고을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거서 살았는 거야. 살아가지고, 거서 한 집을 주인을 정해가지고 살았는데, 동동 신선배라 놓으니까네 인물도 잘 나고 참- 신랑이 좋거든.

그래 어느 고을에 가 살았는데, 그 동니(동네) 좋은 색시캉 결연을 했어. 결연을 맺은 기라. 인제 그래싸놓으니 인자 삼 년 이 년 지내고 일 년만 있으면 삼 년이 됐는데, 삼 년을 덜 채웠는데 아즉까정. 그래 이 뱀의 허물로 가지고 여 색시가 동전을 달아가지고 이래 있으니 삼 년까정 기다릴라 하이 뱀이가(뱀새가) 얼마나 나노? 췌지 마라 카거든. 췌으면 안 된다고. 그래 언니가 너이가(넋이) 아이가(아니가)? 언니가 너이니께네,

“아이고 더러버라.(더러워라). 그 뱀이 허물 그걸로 따 내빠리지(내버리지) 왜 이직껏(지금까지) 감아가 있노? 뱀이가(뱀새가) 나고 더러워서(더러워서) 절에(옆에) 못 오겠다.”

카고, 막 언니들이 뭐라(꾸중) 하거든. 그래도 꼭 참고 그냥 참고 그 사람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 어느 하루는 언니들이 막- 디게(심하게) 뭐라 하거든 용심을 직이 가지고(부려서).

“아이고 뱀이 그 허물 따 내빼리라고(내버려라고). 절에 녀이나 못 오겠다고.”

막- 언니들이, 막 언니들이 강제로 달라 들어 막 따뽀(떼어버린) 거야. 그래 놓으니까네 이 사람은 아는 기라 그서를(그곳에서). 삼작거리에 감나무가 보이실- 넘어가거든. 색시는 인자 알고 있는데, 그래 인자 이 사람이 본처 만나러 못 오는 거야. 그 허물로 따 내빼리서(내버려서) 기한을 못 채우고 따 내빼렸으니 파인 기라(안 되는 거라). 이제 못 오는 거야. 거서 장개를 가서 살아야 하는 기라. 그 장개 갈라고 날로 받아 났는데.

인자 이 허물 판 이 색시는 바랑을 중매러(중처럼) 머리 깎고, 바랑을 하나 짊어지고 신랑 찾아 간다고, 그대로 골골이 골골이 팔만 골골이 동네를 뱅기는 기라. 나갔는 기라. 나갔는데,

저-리 들로 인자 하루는 나락이 우묵하이(가득하니) 가실이(가을이) 다 됐는데, 들로 그리 인자 보따리로 해서 짊어지고, 저제 동네가 비이는데(보이는데), 그 동네로 갈라 카는데 아들이 쪼께코만(자그마한) 게 들에 가면 와 나락 까먹는다고 꼬장뱅이를(작대기를) 들고 새 홀는(쫓는) 거 알제? 새로 홀어사메(쫓으며),

“후여-, 오늘 까먹고 내일 까먹지 마라. 저 너매 동동 신선배 장가가는 데 귀경 하러 간다.”

이 카거든. 가만 들어본께, 자기 말이거든. 그래 절에(옆에) 가,

“야야, 동동 신선배가 여 어데 있나?”

“예, 있습니다. 내일, 내일은 장가 가는 날인데요.”

“하이고 야야, 그 니 금방 카던(하던) 소리 그거, 그 새보고 후여 소리 한 번 더 해봐라.”

“언데요(아니요). 한번만 카고(하고) 안 카요.”

야들이 피가 많아가지고.

“그럼, 내가 금가락지로, 은가락지를 끼고 있으니까네, 은가락지 빼 주꾸마(줄게) 한 번 캐(해)봐라.”

은가락지 빼주니까네,

“후여- 오늘은 까먹고 내일은 까먹지 마라. 저 건네 동동 신선배 장가가는 데 기경 하러 갈란다.”

카거든.

“그래 야야, 동동 신선배가 어땠노? 날 집 좀 갈차도(가르쳐다오).”

“저게, 저 동네 저 집.”

그래 아들이 갈차(가르쳐) 주거든. 그래 참 그 집에 가이(가니) 집도
넉넉코 참 좋거든. 그래 내일같이 잔칫날인데, 그 집에서 인자 밤인데,
이 사람들이 동네 삼작거리에 동냥을 돌라(달라) 카니까네(하니까), 중매
러(중처럼) 해가지고 바가지를 내 놓으니께 그래,

“동냥을 보리쌀 줄까? 뭐로 줄꼬?”

카거든.

“우리 절에 시주님은 보리쌀도 안 하고, 쌀도 안 하고, 좁이쌀로(좁쌀을)
한다.”

그라거든.

좁이쌀 아냐? 좁이쌀, 잘잘한 그걸로 몇 되짝이 팍 부어 주니까네, 이
바가지에 안 담끼고(담기고) 바가지에 밀구녕을 뚫버가리고 바가지 구녕
으로(구멍으로) 확 다 흘려버렸거든. 인자 그거를 일부러 그래 했는 기
라. 그 집에 자고 갈라고. 그래,

“아이고, 와 와 그래 바가지 뚫버진(뚫어진) 데다가 그래 받아요?”

카니까네,

“아이고, 내가 몰랐다.”

고. 그래,

“이거를 주워야 될 낀데.”

“아이고, 고거를 어떻게 다 줯느냐고, 손가(손으로) 씨리(쓸어) 담으라.”

고 카거든. 손가 안 씨리 담고 쇠 젓가치를(젓가락을) 하나 달라 카거든.

“그래 우리 절에 시주님은 쇠 젓가치로 해야지 손으로 안 씨리 담는다.”

카거든. 그래 쇠 젓가락을 갖다 준께, 이기 좁쌀이 어디 찹히나(잡히나)
? 밤새도록 찹어야 한 개 두 개도 못 찹히는 거. 좁해가(좁처럼) 안 찹
히거든. 어짜다가 하나 찹히지. 그래 인자 날로 새우고 밤중 넘었는데,
거서로 그래 인자 안 춥고 여름이지. 밤중쯤 됐는데 가만 보니까네, 문을
열고 나오는데 보니 동동 신선배가 인물이 어찌 잘났던지 막 세계가 휼
한 거 같거든. 아, 그리 그 이전에 날이 저문데,

“하이고, 이렇게 늦까이(늦게까지) 있어서, 내가 요 이 집에서 날을 좀
세우고 가겠다.”

고.

“우리 집에는 아무 데도 잘 데 없고, 저기 삼작거리 있는데 헛방 하나 빈대 끓고 벼룩 끓고, 옛날에 빈대 벼리(벼룩) 모르제? 그 사람 대기(많이) 물었거든. 빈대 끓고 벼리 끓는 방 하나 있는데, 거기 자라.”
카거든.

“빈대 끓고 벼리 끓는 방에 좋다고, 고맙다.”

고. 그 드가며(들어가) 잠을 자는데, 잠이 이제 잠을 자는데 잠이 오나? 가만 앉아가 빈대 끓고 벼리 기 올라 와쫘고 물어쫘고 잠이 오나? 그대가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는데, 문을 요리 빼쫘룩이 해가 달은 흰한테, 동동 신선배가 나오더만은,

“달도 밝다. 달도 밝다. 저 달 따러 나는 가마. 우리 봉두각시 보래만은(볼 것이지만).”

그래 문을 빼쫘고시(빼쫘히) 열고 그 카더만은 또 들어가거든. ‘아 참말로 이기 맞구나.’ 싶어서 또 가만히 앉아 있으니, 인자 날만 새면 결혼식 하면 그 사람은 파이거든. 이래가 또 나오거든. 또 나오는데 보니까네, 마 동동 신선배가 얼마나 잘났는지 마 세계가 흰하거든. 또 나오더만은 또 카거든.

“달도 밝다. 달도 밝다. 저 달 따러 나는 가마. 우리 봉두각시 보쫘구만은.”

하이, 그때는 문을 빼쫘롬히 열고,

“봉두각시 보쫘거들랑, 빈대 끓고 벼리 끓는 방 들오라.”

카거든. ‘이게 무슨 소린고?’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린공(소린가) 싶어가, 다시 몰라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해 봐야쫘다 싶어서 또 한 번,

“달도 밝다 달도 밝다. 저 달 따러 나는 가마 우리 봉두각시 보쫘구만은.”

카이,

“봉두각시 보쫘거든 빈대 끓고 벼리 끓는 방에 들어오라.”

카거든. 그래 문을 그때는 반만 열고 요래 보이, 그 인물이 어찌 잘나 났던지 마 세계가 흰한 기거든. 그래 문을 열어 보니까네, 참 자기 신랑이고 자기 남편인데, 막-붙들고 울고 악수를 하고 붙들고 글키(그렇게) 울고 그랬더란다.

그래 날이 췌는 거라. 날이 새이까네, 그래 인자 받아 논 날 이거는 큰

어마시는 결혼식 했잖아. 내일 이 집에 결혼식 할 색시는 작은어마신데, 그래도 결혼식은 했는 거라. 해가지고 머이(먼저) 한 사람은 큰어마시 하고, 뒤에 한 사람은 작은어마시 하고, 그래가지고 아들 놓고 딸 놓고 잘 사 더란다.

[해운대구 설화 19]

천년 묵은 돼지에게 잡혀간 여동생을 구한 소빠

임만용(여, 1921년생) 구술

2012년 2월 20일 채록

[반여4동 삼어할머니경로당]

옛날에는 해 다진데(젖는데) 처이들이(처녀들이) 머리 감아 빗지 마라 한다. 인자 처이가, 시집갈 처이가 옛날에는 머리가 질잖아? 궁디(엉덩이)에 철렁철렁 하거든. 지금은 머리가 없으이 그런 말 없는데. 옛날에는 머리가 기니까네, 산에서 늑대도 내려오고 야시도 땡기고 옛날에는 그랬거든.

그랬는데 이 처이가 해 다 진데 머리 감아 빗지 말라 했는데, 해 다 진데 질다란 머리로 물로 한- 다라이 갖다 놓고 추룩추룩 이리 감고 있으니까네, 늑대가, 늑대가 한- 마리 오더만은 처이를 덜렁 업고 가거든. 마- 업고 내빼거든.

저녁 묵고 밤인데, 밤인데 우짜노? 막 업고 내빼는데 저거 오빠가 수건 포를 가지고 [말을 바꾸어] 그 돼지 그 놈을 찍어뿔라고(찍어 버리려고) 막 따라가는, 오빠는 따라가고 돼지는 마 처녀를 물고 내빼거든. 막- 내빼는데, 그래 처이로 막 물고 가는데, 밤새도록 꼬랑데기 찍을라고 마- 가칭가칭 하니까네 마 짹- 내빼고 짹- 내빼고 늑대가.

옛날에, 지금도 손톱 발톱 깎아도 아무데나 내빼지 말라 안 카나? 손톱 발톱을 조와(주워) 먹고 천년을 살았는데 늑대가, 늑대가 아니고 돼지가. 돼지가 천 년을 살았는데, 인자 한 달에 보름은 사람이 되고 보름은 늑대가 되고. 이래가 늑대가 둔갑을 하거든. 둔갑 야시메이로(야시처럼). 그래 사는 늑대라.

그래 저거 오래비가 밤새도록 따라가도, 밤새도록 내빼고 못 붙들은 (붙잡은) 기라. 돼지가 어찌나 날샌지 못 붙들고. 인자 자꾸 갔는데, 해가 날이 다 썰라 카니까네, 안죽(아직) 어두분데, 어느 산중에 산중에 가더니만은 산중에 산중에 내뺐거든. 깊은 산중에 가더니만은 커다란 굴이 하나 있는데, 들다 보니 깜깜한데, 그 굴로 쭉- 드가뿌거든(들어가버리거든). 뭐 인제 찾을 수도 없는 기라, 어두로 갔는 둥. 찾을 수도 없고 오빠가 집에 왔는 기라.

집에 와서 인자 동네 사람들이 촌에는 마 다 일(일어나거든). 다 일 나가지고 그 굴 앞에 가서 포장 치고 인자 그 굴로 파기로 시작하는 기라. 굴로 드가뿌더니만은(들어가버리더니만은) 방구(바위) 돌로 따꿇을(뚜껑을) 딱 덮었는 기라. 이제 방구 돌이지 굴도 없는 거야. 따꿇을 딱 덮어뺐다. 와 이제 동네 사람을 데부다가(데려다) 방구로 뜯기를 시작하는데 뜯을라고 시작하는데 막 동네 사람이 다 나와가 거서러 나팔 불고, 쇠치고, 팽이 가지고 쇠시랭이 가지고 막 파고 야단이거든.

그래 파가지고 근본을 파니까네, 이 방구가 따꿇이 인자 얼추(거의) 뽕거든. 파가 보이까네 굴이 빠끔하거든. 굴이 빠끔한데 사람을 찾을 수가 있나? 그 누가 더(들어) 가겠노? 그래가 마 밧줄로 밧줄로 막 억수게 질구로(길게) 질구로, 드리는 사람 마 밧줄로 맨들었는 기라 밧줄로. 밧줄로 디 가지고 그따가(그기에다가) 큰 통을, 큰 통을 하나 끈티에(끝에) 띠매 가지고(메어서) 인자 저거 오빠를 들이보냈는 기라.

“이 밧줄로 타고 어디까지 내려가가 무섭거들랑 째랑째랑 흔들만(흔들면) 우리가 다부 올릴 테이니께네, 그래 안 무섭거들랑 내려가고 무섭거들랑 째랑째랑 흔들어라.”

카거든. 그래 이 밧줄로 갖다가 옛날에는 마 용왕국에 내리 가면, 이 우리가 용왕국 물 밑에 땅 밑에 용왕국이 있다는 말 안 들었나? 책에 안 그렇나? 용왕국에 가면은 참 뭐 좋고 캐셨더만은.

이 돼지가 땅 밑에 용왕국에 내려갔어. 그래 놓으니까 우리 민간들은 못 찾는 거야. 깜깜한데 얼마나 깊으거나 한 사나흘 내려가거든. 내려가더니만은 인자 안 내려갔다고, 이 줄이 안 내려 가거든.

그래 인자 동네 사람들은 올라오도록 바라고 있는데, 오빠는 그서르(그곳에서) 돼지가 무섭아가지고, 그 인자 가니까네, 환하이 동네가 참

중거든. 용왕국인데, 쪼깨난 웅담샘(웅달샘)이 밑에 하나 있는데, 요 바람남게 있는데, 여 커다란 바람남게가 있는데, 오빠는 바람나무 위에 앉아 있는 기라. 이 돼지가 나오나 안 나오나 망을 보는 기라 그 가갖고.

망을 보이께네 돼지는 안 나오고, 자기 동상이 하얀 바가지로 하나 가 나와. 그 밑에 웅담샘에다가 물을, 물을 한 바가지 퍼 놓고, 마 ‘오빠, 오빠 만나들라고.’ 빌거든. 그래 비니까네 오빠가 가만히 보고 그래도 보고 있어 보고 있었는데, 또 가더만은 두 번째 나오더만은 또 물을 한 바가지 떠 놓고 또 빌거든. 그때는 나무 이파리(잎) 떼 가지고 한 움큼 내려 뿌니께네, ‘하 내가 정신이 부실하나 안 이랬는데 와 이라노.’ 꼭 붓부고(부어버리고) 물을 또 새로 떠 가지고 또 놔두고 빌거든. 또 나무 이파리 가지고 한 움큼 떼 가지고 내려 뿌니께네, ‘하 내가 정신이 부실하나 와 이랬노?’ 카고 또 부우뿌고(부어버리고). 세 번째 물을 떠가지고 할라 카니까네 하도 이상하다, 색시가 ‘안 그랬는데 이상하다’ 함서 남기를(나무를) 힐끗 쳐다본께로 오빠거든.

“하, 오빠 지금 퍼뜩 내려오라.”

고.

“돼지가 보름은 돼지 되고, 돼지 돼가 사람 도둑질 하러 사회에 나가고 보름은 잠을 잔다.”

카는 기라.

“지금 보름 잠자고 내일은 일할 날잔데 빨리 내려오라.”

카거든. 인자 오빠가 내려 가가지고 막- 고방이 마 여러 갠데, 쇠대로(열쇠가) 한 움큼인데, 오빠로 줌시로(주면서),

“오빠요, 요 쇠대 가지고 땡기면서 고방고방 디비보라(뒤져봐라).”

카는데, 고방을 이리 훑어보니(열어보니) 한 고방은 마 처녀를 물어다가 시루하이 밥도 안 주놓으니까네, 살은(산) 것도 있고 죽은 것도 있고.

또 한 고방을 끼리 보니까네, 막 영감들로 물어다가 죽은 것도 있고 살은 것도 있고, 또 영감이 한 고방이고.

또 한 고방 끼리(열어) 보니까네 할매들로 물어다가 또 죽은 것도 있고 살은 것도 있고 또 한 고방이고. 그래 또 한 고방 끼리 보니까네, 거는 사람이 없고 옛날에 전장(전쟁) 치는 칼, 전장치는 입는 옷. 딱 전장 치는, 마 그 옛날에는 총칼이 있었나? 마 활 같은 거, 번뜩번뜩한 갑옷

같은 거 그런기 한 고방 짝 찻거든. 그래,

“오빠요, 제일 잘 드는 칼로 하나 가리가(골라) 오라.”

카거든. 그래 오빠가 보고 제일 잘 드는 칼로 하나 가리가 왔는데,

“그래 오빠요. 칼로 가지고 마 무조건 기운대로 짝 쏘시라.”

카거든. 돼지가 마 자는데, 숨을 수는데(쉬는데) 비늘이 펄떡펄떡, 손바닥 만큼한 비늘이 펄떡펄떡 이카거든. 하 천년을 먹었으니, 돼지가 천년을 묵었으니. 그래 마 칼로 가가지고 처음에 콧 찌르니까네, 벌벌 떨면시로,

“하, 이놈의 빈대가 와 무노?”

이카메 또 자거든. 두 번째 또 콧 찌르니까네,

“하, 이놈의 벼룩이 와 무노?”

이카고, 또 벌벌 떨고 또 자거든. 세 번째는 마 모가지로 콧 쏘시뿌니까네, 벌벌 떨며 휘떡 나뒤편지가(나뒤편어) 마 인자 죽어뻘는 기라. 인자 죽어뻘다.

“그래, 오빠요. 우리 이제 돼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 맘대로 해도 됩니다. 우리가 사회에 나갑시다. 나갈 도리를 합시다.”

그는 인자 마 사람도 짜다라(많이) 안 살고, 그 나라에 임금의 한 집 있는 기라. 사람은 짜다라 없고. 그 나라에 임금의 한 집이 있는데, 어디 기경(구경) 하러 갈라 카면 임금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그래 그 물에, 물에 참 그 용왕님이 있는데 그 물에 용왕님이 임금이라. 그래 임금한테 가서,

“오늘 오빠랑 사회에 나가고 쫓는데(싫은데) 오늘 밤 자고 내일 사회에 나가야 되겠는데, 그래 임금님한테 허락받으러, 오늘은 출장 좀 나갈라꼬 허락받으러 왔다.”

카이, 그래 허락 받아 주는데, 너거가 땡기다가 배가 고프만 천도복싱이, 마- 천도복싱이 막 가지가 막 땅에 짹- 깔리가지고, 마 부리부리한 복싱이(복싱아가) 마 주먹만큼한(주먹만한) 기 땅에 마 짜잘하이(잔뜩) 마 있거든. 복숭나무 높으지도 안하고 길어지가지고 천도복싱이 있거든. 그래 가 기경 하러 한참 땡기다가 그래,

“동상, 동상, 우리 배가 고프니까네 천도복싱 저거 하나 따 먹자.”

“천도복숭 따 무만 큰일 납니다.”

내 한 가지 빠져 먹었다. 그 임금이 쪼깨난(조그마한) 하꾸로(はこ, 상

자를) 반들반들한 하꾸로 하나 쥐.

“고거로 사회 나갈 적에, 나가 살아도 너거 평생 열어 보지 말고 살아라.”
카거든. 그래 아주 예쁜 쪼매난 하꾸를 주는데,

“그거를 몸에 단단히 징기고(지니고) 사회에 나갈 적에 단단히 챙기고
잃어버면 안 된다.”

고. 사회 나가서 잃어버릴 일이 있으니까네, 인자 그 사람들은 아는 기라.

그 고양이가 물에 거북이 있제? 물에 거북이라 물에 거북이. 우리가
그 거북이 그거로 잡아먹거든. 그 닭괴기(닭고기) 맛이라. 잡아먹는데, 큰
거는 못 잡아먹는다. 물에 용왕님 지킴이라 안 하나 큰 거는. 그래 그 거
북이 물에 용왕님인데, 용왕님이 용왕님 머슴이라 거북이가.

그래 난중에 그 거북이를 한 마리 줄 테니 그 거북이를 타고 나가라
카거든. 그래 하꾸로 단단히 준비하고, 가다가 가다가 단단히 잃어버지
말고 단단히 준비하라 하거든. 그래 땡기다가 또 그래 받아가지고 하루
기경 하러 오만데 땡겼는데, 아주- 마 좋은 것도 많이 있고, 이 사회서
우리 사회에서 안 보던 물건이 다 있고, 구경이 참 좋거든. 또 땡기니까
또 배가 안 고프나. 배가 고프니까네,

“동상아, 동상아, 천도복숭 저 우리 저거 하나씩 따 묵자.”

“오빠.”

그래 땡기면서 천도복숭 따 먹으면 못 나간다고 절대로 따 먹지 마라
고 그 임금이 시키는 기라. 이서(여기서) 천도복시를 따 먹으면 후상(후
생) 못 나간다 카는 기라.

“하, 오빠 우리 그거 따 먹으면 우리 못 나갑니다. 우짜든지 참고 있자.”
고. 그래 근근이 참았는 기라.

참고 그래 구경을 하고 들어 와가지고, 그래 인자 눕어 자고 그 이튿
날 사회로 나올 낀데, 까만 고양이를 한 마리 주거든. 그걸 타고 나가라
고. 인자 거북이. 거서는 고양이더란다. 우리 사회에 나오면 거북인데, 거
서는 고양이더라 안 카나. 그래,

“이 고양이로 타고 너거 집에까지 데비다(데려다) 줄 꺼니까네, 나가다
가 망간에 어데 가야 주막에 자다가, 이 하꾸로 잃어버거들랑 단단히, 잠
을 고다이로(교대로) 자고 들어서 다 자면 안 된다.”

카거든. 그래 인자 하꾸로 탁 짊어지고, 거북이 그거를, 침에 거서는 고

양인데, 이승 나와 보니 거북이거든.

인자 그 저거 오빠 들어오는데, 그 깜깜한 그 굴이 인제 그 놈을 둘이 타고 나오는데 깜깜하거든. 깜깜한 그게 굴 안에 그거라, 내려왔던 데, 그 굴이라. 깜깜한 데서 이 거북이가 얼마나 빠르게 잘 가는지 타고 막-사회로, 사회에 인자 나왔는 거라. 이승서는 밤새도록, 마 한 이틀 밤이나 한 사흘 밤이나 타고 나왔는데, 보이까네 환한 이승이라. 이승에 나왔는데, 저거 집에 갈라 카면 멀어서러 하룻밤 자야 가는 기라. 그래,

“고양이 니는 한얌(한쪽 옆에)에 고래 자고 있거라. 우리는 여 자고 일 날꾸마.”

카고, 거북이, 그래 인자 그 아, 내가 말로 거꾸로 했다. 거서는 거북인데 우리 이승 오니 고양이라. 이걸 내가 디비(뒤집어) 했다. 까만 고양이라, 까만 고양인데.

그래 가마 인자 눕어 잤다. 하도 고달프이, 그래 나오다보니 어찌 고달픈지(‘고단한지’의 뜻으로 말함) 마 고다이 잠을 자랬는데, 마 둘 다 잠이 들어빠렸다. 둘이 다 잠이 드니 그 주막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니 나이 많거든.

보니까네 저 사람들이 가방 안에 보니까네 이상한 하꾸가 참 예쁜 게 하나 있거든. 요 영감 할마이가 ‘저놈을 우리가 우예(어떻게) 뚝칠꼬(훔칠꼬)? 저놈을 우리가 뚝쳐야 되겠는데 저걸 어예가(어떻게 해서) 뚝치겠노?’ 싶어가지고, 잠을 안잔다 인자. 영감 할마이는 인자 저거 뚝칠라고 안 자는 기라. 안 자는데 이 사람 둘이는 고달퍼가지고 둘이 잠이 꼬빡 들어쁜 기라.

가만 고양이가 자다 보니까네 하꾸 그거를 뚝치 가거든. 영감이 오디만은. 고마 뚝치가지고 저거 방에 들어가버린 기라. 저거 방에 들어가서 어디 넣었냐 하면은, 숨쿨(숨길) 데가 없어가지고 이 비는 베개 밑에 여가 비고 자는 기라.

그래 고양이 그것도 인자 저것도 우리칸 틀리지. 용왕국에서 왔으니께네 용왕국에 그 선생님이 다 이 정기를 타가지고 고양이가 망간에 가 무슨 일이 있거들랑 고양이로 지키라 했는 기라. 지키라 했는데, 요게 잠안 자가지고 지키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나 보니까네 하꾸가 없거든.

“하, 큰일 났다 인자. 이제 하꾸를 잃어버렸으니, 우리 이제 나가 사회

에 살면서는 평상을 이거를 열어보지 말고 살라 했는데, 이 하꾸를 잃어버렸은께네 이제 우찌 할꼬.”

걱정을 하고 마- 이래 인자 있으니까네, 고양이가 마- 쥐로 부르는 기라. 고양이 앞에는 쥐 아이가. 쥐가 마 고양이 앞에는 겁을 내니. 쥐를 마 전부 다 부르는 기야.

“쥐야, 전부 다 온나.”

캐 놓으니까네, 쥐가 마 시골쥐가, 산에도 전신에 켜데, 마 쥐가 한 마당 모이거든.

“너거가 저 방에 자는 할아버지 비개(베개) 속에 예쁜 하꾸로 내가 온나.” 이카니까네. 쥐가 마 마 지붕을 뚫고 들어가는 놈, 꿀뚝(굴뚝)을 들어가는 놈, 꿀뚝 알제? 꿀뚝을 드가는 놈, 막 부엌을 들어가는 놈, 막 비리박을(벽을) 뚫고 들어가는 놈, 쥐가 한거(많이) 들어가거든.

그 밤에 몸뚱이 자고 자는 그 남기(나무) 쥐 뜯어가지고 내 오거든. 그래 쥐가 내 오거든. 하이고- 고양이가 얼마나 고맙는지,

“하이고, 고맙데이- 고맙데이.”

그래 인자 이 고양이가 이 사람을 태와가지고 인자 저거 집에 데비다(데려다) 주는 기야. 태와가 가는데, 그래 또 어느 주막에 가야 저녁 요기를 하고 하는데, 이 고양이가 자꾸 지키는 기라. 그래가 인자 딱-주막에 저녁 요기 하골랑, 그래가지고 저거 집에다 데리다주거덩.

그래 참 집에 가가지고 저거 오빠도 장개 가고 이 처녀도 시집가고 해가지고 행복하게 참- 잘 사는데, 인자 아들 낳고 딸 낳고 재미있게 이렇게 사는데.

하루는 이 처녀가 시집을 가면시로 하꾸를 딱 가지고, 지가 가지고 갔는데, 하루는 이 하꾸로 우리가 평상 열어보지 말고 살라 했는데,

“이 하꾸 안에 우리가 이제 나이 이렇게 많은데, 나이 이제 반팅이가(반평생) 넘도록 살았는데, 머리가 허여께 우리가 인자 다 살아가는데, 이 하꾸 안에 뚫이 들었는가 함(한번) 열어보면 어땡겠노?”

그래 의논이 돼가지고,

“좌우간 이거 함 열어보자.”

고 이리 열어보는데, 그거를 안 열어 봤으면은 이 사람이 평상 사는 거라 안 죽고. 이 하꾸를 탁 여니까네, 머리가 마 까똥거리가 좀 있는 게 하야

이 새가지고, 마- 마- 얼마 못 살고 죽어똥다. 거기 끝이야.

[해운대구 설화 20]

서로 모르고 결혼한 곰보 신랑과 곰보 신부

임만용(여, 1921년생) 구술

2012년 2월 20일 채록

[반여4동 삼어할머니경로당]

처이가 인물이 참 잘났는 기라. 이기 옛날에는 이랬다. 옛날에 정승 집인데, 옛날에 정승 집인데, 처이가 외동딸인데, 인물이 어찌 잘나 왔던지 나가면 세계가 흰- 하이. 치할(결혼할) 기한이 넘었는데 아는 데가 없어서 못 치우는 기야. 암만 치울라고 사람을 구해봐도 봐도 그 같은 사람이 없어. 없어가지고 그래 우째우째 구해가지고 처이로(처녀를) 치우기로 됐는데, 서울 총독부에서, 그때는 서울 총독부라 하면은 옛날에는 총독부라 안 카고 관가라 했다. 서울 관가서러,

“너거 딸로 우리한테 안 치우만 너거 모가지, 너거 친지캥 전부 다 날라간다.”

이래가지고 마 편지가 오거든. 인자 서울 관가로 치와야 되는 기라. 색시로 암만 가리도 없더만은 관가로 치워야 하는데. 그리 인자 서울 그 총독부 사람이라도 신랑이 쪼깨난게(조그마한 것이) 인물도 못 나고 짹 짹 었었어. 이 었어노이 장가도 못 갔는 기라. 저거가 암만 높이게 살아도. 그리 돼가 있어.

그래 인자 이 처녀도 치우도 못하고 턱 있다. 있는데, 그래 인자 잔칫날로 받았는 거야.

“아무날 너거 잔치한다.”

잔칫날로 받았는데, 그래 인자 한 일주일 있으면 잔칫날인데, 하 이 이 바꾸는 참 길고, 참 하기가 께끄럽다(까다롭다). 그래 잔칫날이 가까운데, 인자 딴 데 시집 못 가는 기라. 딴 데 시집 못 가고 날로 받아가지고, 막 서울서 마 돈이 있어 놓으니까네, 서울 나라 임금이 돼나놓으니 막 임금

이 잔치를 그웁히 끼미가지고(꾸며가지고) 막 가마 타고 뭐 타고 오거든. 끼미가이고 오거등.

그래 인자 마당서 인자 행렬하고, 절로 하고. 첫날밤에 색시하고, 첫날밤에 드가만 지금은 안 그렇지만 [조사자들에게] 너거는 모른다. 색시가 앓아가지고 인자, 첫날밤에 들어가서 앓아 있으면, 신랑은 선다 색시 드가면. 신랑은 돌아야 돼, 돌아서가 있으면 그래 한참 있다가 신랑이 바로 앓아가지고 신랑 무릎팍에다가 술로, 색시 무릎팍에다가 술을 부어 주거든. 이래 넘치도록 부으면, 넘친다 카면 색시가 겁을 내가 가질러(가지러) 가면, 신랑이 달랑 들어가 먹어뺏다. 옛날에는 그라거든.

그리했는데 인제 색시가 방을 이래 뜨겁고로(뜨겁게) 해 놓으이, 신랑 각시 자는 방이라고 좀 뜨시고로 해가지고 들라놓이, 이거는 아주 오래 안해 놔서 아습프레 하다. 그래가 인자 이 신랑은 인자 색시가 드가가 앓아 있으니 신랑이 돌아서가 있거든. 방에다가 뜨시게 촛에 불로 때나 놓으니, 색시가 가만- 앓아가, 이 색시도 색시도 엷었는 기라.

이 색시가 인물 잘난 그 처이는 이거 딱 기다(것이다). 색시도 엷어 가지고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이 구녕이 빠끔빠끔 한테 뭉티 하나씩 쳐 박아가지고 화장해가지고 연지 찍고, 곤지 찍고 그래 끼미가지고 족두리 썩고 그래 첫날밤에 안 드가나? 드가가이고 누가 아나? 색시는 가만 앓아 있고 이래 신랑은 서가 있는데, 가만 앓아 있으니 방이 뜨겁아가지고, 이 밀가리 이거 반죽이기 그 땀에(그 사이에) 말라가지고, 대가 뺨 돌아가지고 뿔이 방바닥에 풍당 널찌거든.

“저게 무신고(무엇인고)?”

신랑이 돌아서가지고 함 보니, 뿔이 색시 얼굴에서 뿔이 뭉통이가 툭탁 널찌거든. [일동 웃음] 신랑이 가만히 보고 있으니, 또 방이 뜨겁아 가지고 이놈 이 밀가리 이놈 뭉통이 대가 뺨 돌아가지고 또 한 뭉통이 똑딱 널찌거든. 툭탁 널찌거든. 보이까네 색시 얼굴에서로 그 놈 나오고 마 나니 까네 굼기(구멍) 빠꼼 하거든. 방금 저게 뵈고? 신랑이 쳐다본께 또 한 뭉통이 툭탁 널찌거든. 또 보이 색시 쳐다본께로 그거 널찌고(떨어지고) 나니 또 굼기 빠꼼하거든. 아이고 지카른(자기보다) 더 꼼보거든. 그래가지고 신랑이 그때는,

“숭악(협산곶은) 곱보를 갖다가 서울 총독부까정 소문이 왔다고, 숭악 곱

보구마는.”

그 옛날 색시는 입도 못 떼는 기라 드가면. 승악 곰보라 카는데, 지는 얼마나 잘났는가 싶어서 색시가 한번 히뻑 쳐다보니 신랑은 팍팍 얹은 곰보거든.

“지도 곰보더구만은. 신랑 지도 곰보구만은.”

인자 서로 곰보라 칸다. 또 신랑이 쳐다본께 또 팍팍 얹은 곰보라.

“지도 곰보구만. 지도 곰보구만.”

그러자 마 신랑이 소치가지고(화가 나서) 마,

“승악 곰보를 갖다가 서울 총독부까정 소문이 와가지고 속아서 장개를 왔다고, 지도 곰본가 속아서 장개를 왔다.”

고. 그래 인자 상각이(상객이) 먼 데서 오면은 자고 가거든. 저 사랑이나 어데 촌에서 자고 가는데 마 신랑이,

“아버지, 아버지, 갑시다. 집에 갑시다.”

“야 이놈의 자숙아, 오늘밤 같은 날에는 밖에 나오도 안 한다. 어떡(빨리) 빨리 못 드갈까.”

“승악 곰보를 갖다가 서울 총독부꺼정. 집에 갑시다.”

마 안 갈라 카니께네, 신랑이 막 확 골로 내가 올라 카거든. ‘아 이거 무슨 일이 있는갑다.’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밤에, 마 짐 싸가지고 저거 집에 말짱(모두) 다 가뻘다. 이 곰보 처녀로 이거는 치아도(결혼도) 못한 기라 너무 얹어가지고. 그래 마 처녀 이름 잘 알고, 마 그 곰보도 이름 잘 알고, 행렬해서니 이름 같았다 아이가?

그래 둘이 이름만 잘 같았는 기라. 그래가 이 처녀도 이름 같고 너무 얹어노니 시집 못 가거든. 그 총각도 마 이름만 같고. 지가 누가 장가오라 카나? 아무리 총독부지만은. 그래가 마 그리 돼뻘어.

[해운대구 설화 21]

산 부처가 된 호식될 팔자의 아들

임만용(여, 1921년생) 구술

2012년 2월 20일 채록

[반여4동 삼어할머니경로당]

그래 옛날에는 호식(虎食)이, 내나 그거든 범이 물어 가는. 옛날에는 아로 못 낚아가지고, 늦게 머스마를 하나 낚으니, 어데 가서 관상을 보니까네,

“야가 땃(땃) 살 먹어서 호식을 가겠다.”

카거든. 그래가지고 이래 이래 키왔는데. 그래 참 한날은 중이 시주 하러 왔더란다. 이거는 참말로 중인데, 시주 하러 왔다고 묵탁을 툽툽 삼작거리서 두드리는데, 그래 시주를 갖다가 가가(그 아이) 머스마가 한 여남은 살 묵었던가? 열 살 안쯤인가? 고래 먹었는데, 가를 갖다가 시주로 갖다 주라 카거든. 그래 야가 편-하게 가서 이래 부어 줬는데, 야로 가만- 쳐다 보더만은,

“아는 참 좋구만은.”

이카거든.

“아는 참 좋구만은.”

그래 야가 고 소리를 듣고,

“그래 야, 스님이 뭐라 카더노?”

“아는 참 좋구만은 이카더랍니다.”

“그래, 그 스님 불러 오라.”

카거든. 저 판 집에 갔는데, 야가 쫓아가더마는,

“우리 어머니가 좀 오시라 갑니다.”

카이 왔거든. 그래,

“아까 뭐라 켜냐?”

고 물으니. 그래 바른 말로 해 주거든.

“야가 좀 크만 호식해 갈 팔자라.”

고 이카거든. 그러면 그 스님은, 아주 원 스님은 오만 것 다 쫓으면 알거든.

“그래 우짜면 야가 호식에 안 가겠느냐고? 스님, 단디 좀 물어봐 달라. 고, 좀 알키(알려) 달라.”

카니까네(하니까),

“호식에 안 보낼라 카거들랑, 내 따라 보내라고, 우리 절에 가야, 절에 내 따라 보내라.”

카거든. 그래 할 수 없어 따라 보냈다. 따라 보내니까네, 절에 가만(가면) 인자 옛날에는 에밀레종이라고 말이 있었지? 에밀레종이라고. 그는 애

하나 뚜드리(두드려) 업쳐가지고(함께 넣어) 종을 맨들었다고, 인자 아들 영고 딸 영고 그 종을 두드리면 ‘에밀레’ 카고 표식을 내 준다 카대.

그래 종을 맨들었는데, 야로 인자 데꼬 가가지고, 요런 쪼매난 방에다가 자부동을(방석을) 깔고 독방을 딱 앉혀놔는 기라. 아무것도 일도 안 시키고.

밥을 처음에는 쪼깨끔(조금) 주고 낸중는(나중에는) 밥도 안 주는 기라. 요 문구녕에(문구멍에) 하나, 바늘 한 서넛 나(날) 들어갈 만치 문구녕을 큰 바늘, 큰 바늘도 아니고 큰 돛바늘이라고 하면 좀 굵지, 고런 문구녕을 하나 뚫바놓고,

“딴 데는 아무데도 보지 말고 고 문구녕만 보고 앉아 있으라.”

카거든. 그 한 군데만 쳐다보고 있으믄, 사람 정기가 딴 데는 안 가고 모이 가지고 그 한군데 고리만(그곳에만) 정기가 갈 끼거든.

자나 깨나 바로 앉아가지고 낸주는(나중에는) 야가 인자 밥도 안 먹는 기라. 밥을 못 먹는 거야. 이 정신이 한 군데만, 정신이 딱 배기(박혀) 있으니까. 춘하추동 고거만 딱 보고, 그 구녕만 보고 있으니, 이 온 몸의 정신이 구녕 고만 딱 가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가 산 부처라 안 카나. 산부처로 영어가지고 종을 만들었다. 그때는 그리 했다고.

그랬는데, 산 부처가가 돼뵈는 거라. 앉아가지고 탁- 몇 해든지 앉아가지고 고서러 앉아 가지고 아가 부처가 돼뵈는 거야. 밥도 못 묵고 영 부처가 돼뵈으니까, 그때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그래가지고 말이 그렇더라고. 그때 뭐 몇 해 뵈었다. 에밀레카는 에밀레 종을 맨들라 카믄. 이기 좀 오래 뵈었다. 어느 절에 에밀레종을. 아 그래가지고 야가 앉아 있을 짝에(적에) 그때는 정신이 조금 있을 짝에 인자, 밥을 못 먹고 앉아 있었는데 누가,

“아들 놓겠습니꺼?”

카만, 야가 고개를 끄덕끄덕.

“딸 놓겠습니꺼?”

카만 고개 잘래잘래 흔들고. 그래 고래(그렇게) 한 정신이 종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그런 말이 있대.

[조사자: 호식은 면했습니까?] 그게 호식에 관한 한 가지 아니가. 호식을 면했지. 범은 아가리 잡아먹어뵈다(잡아먹어버린다) 아이가. 잡아먹이

빠지만 호식에 갈 팔잔데, 야는 결국은 죽은 몸이다. 절에 가가지고 부처가 돼봤으니 죽은 몸이나 한 가지자 아이가 죽어봤으니.

[해운대구 설화 22]

하느님 덕에 저승 갔다 온 후 회개한 사람

임만웅(여, 1921년생) 구술

2012년 2월 20일 채록

[반여4동 삼어할머니경로당]

이 이바구는 통 몰랐는데, 그 생각을 하니 나오네. 이 이바구는 형제가 형님하고 동상하고 두 집에 살았는데, 형님은 예수를 믿고 동상은 예수를 안 믿은 기라. 형님 아가 몇친동(몇인가) 모르겠지만은. 동상은 딸로 하나 낳아가지고 살았는데, 너무너무 옛날에는 돈 벌이가 없었거든.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돈 벌이가 없어가지고서는 우짜면 어디 가서 누가 도둑질해 온 거 그런거 물건을 헐타고(싸다고) 사 와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마 경찰서 묶이가 드가는 기야. 또 어데 가 헐키 샀다고, 이 사람들은 그런 마음 검지는 았는데, 도둑질해 온 물건은 헐키 판다 아이가? 그거로 사가지고 묶여 들어갔는 기라. 몇 번, 서너 번 들어갔는데.

그래 인자 형님은 예수를 믿는다고 제사를 안 지내고, 이 사람은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도저히 돈이 없어가 제사를 못 지내는 거라. 그래가 있는데, 또 돈벌이가 없어가지고 만날 놀고 하니 돈도 없고, 돈벌이 할 것도 고, 근근히 근근히 참 그래 살아 나왔는데.

도둑놈 물건을 사가지고 한번은 창이(감옥에) 들어갔는 기라. 세 번째 창이 들어갔는데, 마누라가 면회 갈라 하이 돈이 있나? 돈이 없어 면회를 못 가고, 인자 마누라도 미워싸니(미워서) 그 도둑놈 물건을 말로(뭐하러) 사노 사지 말지. 안 사면 괜찮은데, 헐타고 인자 그 놈 사가지고 살라고 하다가 묶이 드가고.

신랑 묶이 드가 버렸다. 딸 하나 데리고 살라 하니 배가 고파 못 살겠거든. 서울 친정에 가봤다. 친정이 서울인데, 그 사람은 부산에 있었는데.

서울 천정에 가뿌고. 그래 이 뭐 6개월이나 8개월이나 살았는데 아무도 면회 오는 사람이 없거든.

그 구리(감옥)에 사는 사람들 고생 억시기(많이) 한다. 추워도 고생하고 더버도(더워도) 고생하고. 지금은 밥을 많이 준다 카더만은 그도. 옛날에는 배가 고파도 못 사는 기라. 밥을 쪼케끔 주니께네.

그래 살았는데, 아무도 면회 오는 사람이 하나 없으니께네, 이 사람이 거기서 독이 올랐는 기야. ‘내가 나가만 마누라하고 아하고 마, 서울에 가이 처갓집 식구하고 내가 칼로 갖다가 다 찢러 직이빠리지.’ 요런 독을 묵고 있는 거야. 지 나와야 또 돈도 없지, 기집도 없제, 잘 방도 없제. 독이 오를만 하이 돼가 있는 기야. 이리 있으니까네, 그래가지고 이제 6개월로 사는데, 내일 모레면 이제 나갈 기한이 됐는 기라. 그래 나갈 기한이 돼가 나와 보니 마누라도 천정 가뿌고(가버리고) 없고, 아하고 가뻘제. 돈이 하나 있나? 인제 방도 기한 돼서 비껴 내라카제. 망연자실 하거든.

인자 칼로 한 다라이 새파라이 갈아 났다. 서울 가마(서울가면) 다 찢러 직인다고. 마강 다 찢러 직인다고 처갓집 식구하고 마 저거 식구하고 다 찢러 직인다고. 다라이에다 딱 이리 숨가 넣고(숨겨 넣고).

이웃에 친구가 한 사람 있었는데, 친구가 인자 지가 불 일 보러 이제 서울 좀 간다 카거든.

“그래, 친구야 니가 차표 사러 가거들랑 내 차표 한 장 사도고(사 다오). 내가 돈이 없다. 차표를 살라 해도. 한 장 사가 온네이. 부탁하자.”

부탁을 해 났다. 부탁을 해 놓고, 친구가 차표 사러 간 뒤에 고때 해가 보리쌀 끼릴 때나, 촌에 보리쌀 끼릴 때나, 한 해가 넘어 갈라고 담갈에(담장에) 이리 걸치가 있는데, 동네 거렁지가(그림자가) 질 때는 거렁지가 지고 이랬는데, 이불로 이리 동가 놓고 비슷히 누웠는데 이 방이 환하거든 방이. 방이 똑 무슨 전깃불 켜 거 맹키고 환하거든. 이 사람이 눈을 떠 보니 방이 환하더니만은 마 죽어뻘어.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덩트려(쓰러트려) 버렸어 이 사람을. 그 차표 사 와가지고는, 차표 검어지고(손에 쥐고) 차 타고 가면은 저 일 나뿌거든. 그때 하나님이 알고 이 사람을 알고, 하나님이 내려와서 데리고 가서 마 그때 저승 가뻘는 거야. 예수님이 데꼬 가뻘는 거야. 그때 데꼬 가뿌는데, 친구가 표를 사가지고 오이께네 사람이 죽어가 있거든.

“친구야, 친구야.”

캐도 마 죽어 있거든. ‘참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옛날에 죽으면 가슴이 만지가 딱딱하면 안 갖다 묻는다. 살았다고. 깨난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섯 시간을 있는 기야. 다섯 시간 있는 기라. 그렇지 보리쌀 꿇임 때 있었으니 밤에 다섯 시간이 있는 거지. 다섯 시간인가? 일곱 시간이? 일곱 시간 있었는 기라.

그래 오래 있더만은 깨 나거든. 깨 나더만은, 요 입에서 마 거품이 한 입인데, 거품을 막 받아내고(빨어내고) 또 받아내고 하더만은, 거서는 말로 줄줄줄 하거든. 그때는 인제 예수님이 말로 하는데, 마 무슨 말이든지 하느님 말로 줄줄줄 한다, 하느님 오만.

그래 해가지고 이 사람이 목사가 돼뿔는(돼버린) 기라 그 질로(길로). 목사가 돼뿔는데, 그 케이스로(녹음테이프를 말함) 저승 가서 있었단, 저승 가니깐에 이 사람이 저승 가이까네 저승이 길이 환하대. 참- 길이 환하고 꼬꿀랑 꼬꿀랑 안하고 직선으로 환한 길로 이리 갔는데, 가니까네 막 꽃도 참- 좋은 기, 이승에 그렇게 좋은 거 없어. 꽃이 좋은 기 막- 가세(가예) 요래 마 있고, 죄 진 사람은 막- 불에 들어가서,

“아이고 뜨거버라, 아이고 뜨거버라.”

캐싸며 불에 들어가 뜨겁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죄 지은 어떤 사람은 독새가(독사가) 몸띠를(몸뚱이)를 확확 감아가지고 택(턱) 밑에 가 입을 탁 벌리고 독새가(독사가) 요래 있는 사람도 앉아 있고, 또 죄 없는 사람은 꽃밭 속에 앉아 있더라. 친구가 하나 꽃밭 속에 앉아 있는데,

“아무거야, 아무거야.”

죽은 사람이 말로 하나? 멍- 쳐다보는데 암만 불려도 말을 안 하더라. 그리고 저거 삼촌이 돌아갔는데,

“삼촌, 삼촌.”

캐도 다 그래 사람은 있는데 말은 안 하더라. 그래[녹음 테이프를 가리키며] 그 케이스로 만들어가지고 두 시간 나오도록 케이스로 넣어뿔는 기야. 날로 그걸 들어 보러 오라 카더라고. 한 시간을 듣는데, 자부름이(줄음)와 자뿐 기라. 그래,

“내일 저녁에 또 부르면 만날 보여 줄꾸마.”

그 이튿날 저녁에 또 갔는 거야. 또 가가지고 그때는 잠이 와도 두 시

간 다 들은 거라. 내나 이 케이스가 그긴데, 내 이바구 하는 그긴데. 그서는 복판에 말이 많이 있더만은 내가 다 잊어 먹었어. 두 시간을 들었으니께로. 그래 저승을 가니 죄 지은 사람 보겠고, 죄 안 지은 사람은 꽃밭 속에 그래 있고.

[해운대구 설화 23]

염불만 하던 시어머니와 못된 며느리

임만용(여, 1921년생) 구술

2012년 2월 20일 채록

[반여4동 삼어할머니경로당]

옛날에 너무 또 못 살아가지고, 옛날엔 뭐 돈 벌이가 없어가 다 못 살았지. 그래 할매하고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세 사람이 살았는데, 아들은 저게 북만주로 돈 벌로 갔분 거라.

며느리하고 둘이 살았는데, 며느리는 뭐 어데 가 념의 방아도 찌 주고, 싸래기 얻어 와가 죽 끓여 묵고 이리 며느리강 둘이 살았는데. 이 할매는 너무 심심해서 염불로 배왔는 거야. 염불로,

“나무에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에미타불.”

맨날 이것만 부르는 거야.

“나무에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거로 하다가 하루는 마 잊아무뻤어. 그래 잊아묵고 며느리한테,

“야야, 내가 염불 하다가 잊었다. 내 뭐라 카더노?”

“뭐라 캐요? 뒷집에 헌달래영감타불, 뒷집에 헌달래영감타불 그 카대요.”

뒷집에 헌새 들은 영감이 하나 있었어. 인자 할매가,

“그기 맞나?”

카니까,

“그기 맞다.”

카더란다. 인자 추우나 밥만 묵으마,

“뒷집에 헌달래영감타불, 뒷집에 헌달래영감타불”

만날(매일) 그 칸다. 그래 마 헌달래 영감이 마 골목에 들어와도 그 소리가 듣기고, 집에 와도 그 소리가 듣기고, 이 헌달래 영감이 몸서리가 나 죽겠거든.

그래 아들이 오이께네, 아들이 그래가 인자 북만주 가가 돈벌이가 기한이 돼서 왔는데 자꾸,

“뒷집에 헌달래영감타불.”

아들이 들어보니 이상하거든. 그래,

“어머이, 저거 무슨 소리고?”

그래 저거 어머이한테 물었어.

“어머이, 거 무슨 소린교?”

카니까네.

“몰라, 야야 내가 염불로 하다가 잇아먹어서로 며느리한테 물으니까네, 이기 맞다 카더라.”

그카거든. 그래 가만히 들어보니 ‘아 시어마시한테 나쁜 마음을 묵고 이랬구나.’ 싫어가지고 저거 마누라를 훔아내뿌렸단다(쫓아냈단다). 훔차내뿌고, 그래 ‘뒷집에 헌달래영감타불’ 캐사니깐에, 뒷집에 헌달래 영감이 몸서리가 나가지고 저게 강에 물 건네로(건너로) 이사를 가뻘다.

이사를 가뻘는데 그래도 또 ‘헌달래영감타불’, 밤으로 잠이 안 오니 밤새도록 ‘헌달래영감타불’ 해싼게(해놓으니). 아들이 옛날에는 아들이 전부 효자질 안 했나? ‘헌달래영감이, 엄마가 좀 마음에 좀 원한이 됐는 기, 그기 있건대 저래 자꾸 노래를 부르지 싫어가지고, 저거 엄마 원 풀어준다고 지게다 짚어지고, 저게 강에 물로 돌빠이가(돌맹이가) 있는데, 거 돌빠이에 지게다 지고 강에 저거 어매를 지고 가서 헌달래영감네 집에 지고 가니까네,

“아 지고 가라. 고. 왜 지고 왔냐고? 나 몸서리가 나서 피해가 왔는데, 와 지고 왔냐고? 빨리 가라”.

카거든.

“만날 ‘헌달래영감타불’ 해싼게 내가 귀에 딱가리가 얹아서 안 들을라고. 요 왔는데 빨리 지고 가라.”

카거든.

“하리만(하루만) 봐둡시다. 한 시간만 봐둡시다. 하리만 봐둡시다.”

캐도,

“필요 없다. 빨리 지고 가라.”

카거든. 막- 지고 가라고 난리거든.

“빨리 지고 가라.”

이 지고 온 거로 갖다가, 저거 엄매 원 풀어줄라고 지고 왔는데, 지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마 그 지게에다 저거 엄매 내라 주뿌고 지게를 놓고 물리(물래) 와뻘다(와버렸다). 이거 뭐 할 수 있나. 이 하룻밤을 자는데, 밤새도록 ‘헌달래영감타불’[웃음] 하도 캐싸서 시끄러워 죽겠거든. 헌달래 영감 잠을 못 자고.

그래가지고 또 마 빨리 지고 가라고 사람을 하나 떡 보냈다. 빨리 지고 가라고. 그래 몸서리가 나서러 사람을 하나 보내노니까네, 그래 와서 지고 가더란다. 그런 사람도 있었어 옛날에.

그거는 거짓말이 아닌지 싶어. 나 많은 사람이 심심하니까네 불렀는데, 이 며느리가 마음이 나빠가지고 나쁜 거로 겔차(가르쳐) 줘가지고.

[해운대구 설화 24]

수탐이 된 복바위

임만용(여, 1921년생) 구술

2012년 2월 20일 채록

[반여4동 삼어할머니경로당]

옛날에 또 늦가 늦가 아들로 하나 낳아 놓으니, 참 착해 야가. 어찌 착한지,

“복바우야.”

“예.”

“뭐 가이가(가져) 오너라.”

카면은 어데 가서로, 어부(대략) 쪼개 한 열댓 살 먹었는데, 산에가 낭게를(나무를) 해 가지고 와도 잘 해가 오고, 어찌 착한지 동네 사람들이 다 이르는 기야. 착해도 너무 착하니까네 우리 하나님, 이 예수 믿는 사람

이 우리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아이가? 하느님이 알고 계시가지고,

“복바우야, 복바우야.”

지 귀에 듣기거든.

“예.”

카니깐에,

“아무날 내가 무지개에다가 따래박을(두레박을) 내려줄 테니 그걸 타고 올라 오거라.”

“예.”

이게 꿈인가 생인가 정신이 없어 몰라가지고, 대답은 해놓고. 참 그 이튿날 가마이(가마히) 이래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께네, 무지개가 요즘에는 무지개가 없더라. 옛날에는 비만 오면 무지개가 착 섰는데. 무지개가 착 서더니만은 이런 따래박이 큰 게 탁 내려오거든.

“이걸 타고 올라 오거라.”

하거든. 그걸 타고 올라갔다. 타고 쪽- 올라갔다. 참 하늘에 가보니 없는 게 없고, 참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그래 거서 살다가 몇 달 살다가 그래,

“복바우야, 복바우야.”

“예.”

“니가 어머니 보고 싶제?”

“예.”

저거 엄마가 참 저거 늦게 낳아가지고 그래 올라가고 난께네, 얼마나 보고 싶은지 말로 다 못하거든. 그래가,

“오늘은 너거 어무이 뵈고 오너라.”

카미, 착 내라 주거든.

“아무 시에 아무 시에 올라오너라.”

그래 내려오니까네, 얼마나 저거 엄마가 반갑노?

“어무이, 시간 되면 가야 뵈니다.”

이카거든.

“하이고, 내 나가서 떡국 끓이(끓여) 줄 테니께네. 아들 떡국이나 한 그릇 묵고 가야지.”

“어무이, 끓이지 마이소.”

카니께네, 기어코 나가 끓이거든.

“하이고, 내 아들 떡국이나 한 그릇 먹이(먹여) 보내야지, 내 우에(어찌) 그냥

먹이 보내노?”

하이고 나가서 떡국을 끓이가지고. 시간은 간땅간땅한데 판에 채려가 왔는데, 뜨겁아서 퍼뜩 먹을 수가 있나?

“하이고 북바우야, 몇 번이라도 떠 묵고 가거라.”

“하이고 어무이, 묵을 여가가 없습니더.”

“몇 숟가락이라도 떠 묵고 가라.”

“어무이, 묵을 여가 없습니더.”

그래 캐도, 아이고 마 그 아로 마 꼬맹기고(끌어당기고) 이리 싸니께네 할 수 없어 묵었는데, 한 숟가락 떠먹고 두 숟가락 떠먹으니 두레박이 착 내려오는데, 떡국을 이거로 숟가락이 입에 드가는데(들어가는데) 내려오는데, 어떤 놈이 그 단새에(사이에) 꼭 올라가거든. 마 몬(못) 갔다.

얼매나 원통하고 이. 그땸으로 사람이 닭이 된 땸으로 닭이 시간을 다 아는 거라. [조사자: 그 사람이 닭이 됐어요?] 닭이 돼땸어.

그래 마 대반에 그 자리에서 떡국 한 그릇, 허 참 떡국 한 그릇 못 먹고, 떡국 한 그릇 몰라하다가(먹으려다가) 하늘에 못 올라갔네. 닭이 딱 돼갖고 고대로 ‘꼬꼬꼭~’ 하는 장닭이 돼땸다. 그래 요새 촌에 제사 지내면 닭이 울만 안 지내고. 닭이 안 우는 안에야 제사 안 지내나? 새벽 되면 닭이 똑 시간 봐가며 울거든.

[해운대구 설화 25]

자신을 쫓아낸 주인을 피로 앓았음 한 하신 가걸이

임만용(여, 1921년생) 구술

2012년 2월 20일 채록

[반여4동 삼어할머니경로당]

이 이바구는 제법 긴데. 그 동네 대감님이 있는데, 서울 과개(과거) 하러 세 번을 갔는데 과개가 떨어져뿔어. 떨어져뿔고 네 번째 과개하러 갔는데, 이 이름이 가걸린데. 이 가걸이라 카는 야는, 마 저거 부모도 일찍이 돌아가고 지 혼자 살았는데, 그 집에 머슴을 살았는데 기라 대감집에. 머슴을 살았는데. 머슴은 알제? 대감님 머슴을 살았는데.

인제 대감님이 세 번을 가가 낙방을 했으니, 요번에 네 번째 서울에 과개하러 가는데, 가걸이가 말로 물고 가는 기라. 옛날에는 서울 걸어 땡갔다 카대. 말로 물고 이래 가는데, 아츰(아침) 먹고 인자 가다가 배가 고프거든. 그래 인자 말로 매놓고,

“가걸아, 가걸아.”

“예.”

“저 가여(가서) 국시 한 그릇 사 오거라. 내가 배가 고프다.”

“예.”

그 옛날에는 와 두 그릇 사오면 가(그 아이) 한 그릇 줄 긴데, 그때는 마 돈이 없었는가 한 그릇만 사 가 오는 등. 떡국, 국시 한 그릇 사가 오다가 가만 보니까네 손가락가지고 휘휘 젓어쌌거든.

“가걸라, 가걸아. 이 놈 자숙, 니 왜 손가락 가지고 국시를 와 젓노?” 카니까네,

“아, 예. 오다가 코를 한덩이 흘렸는데 암만 찾아도 없습니더. 암만 찾아도 없습니더.”

카거든. [일동 웃음]

“애 이 놈 자숙아. 내 더러버서(더러워서) 안 먹을란다. 니 무라.”

인자 가걸이가 한 그릇 묵었다. 그것도 말을 물고 가니 얼마나 배가 고프노? 또 한참 가니까네 배가 고프. 당췌 대감님이 배가 고프여(고파서) 말로 못 타겠거든.

“가걸아.”

“예.”

“여 여 말 매 놓고, 저 가여 떡국 한 그릇 사가 오너라.”

“예.”

떡국 한 그릇 사러 돈 주가(줘서) 보냈다. 보냈더니만 또 떡국 사가 오면서는 또 손가락가지고 휘휘 해쌌거든.

“야 이 놈 자숙아, 와 떡국을 손가락으로 젓노?”

카니까,

“예, 또 코가 한 덩이 빠뜨렸는데 암만 찾아도 없십니더.”

하거든.

“야 이 놈 자숙아, 니 무라.”

이 놈 자숙 두 그릇이나 먹어 놓으니까 인제 배가 부르거든. 인자 또 대감님이 못 묵고 말로 타고 간다. 배가 와 고평 시 넘어가면 안 고평지 와. 한창 고평 적에.

인자 또 말로 타고 가니까네 아무래도 안 되겠거든. 인자 저녁 때가 되어서 저녁 묵어야 될 낀데,

“가걸아.”

“예.”

여서 인자 가걸이 안 시킨다.

“말 이거 단디 꼭 젊어지거라(움켜잡아라). 요새는 눈 빼 먹을 세상이 다. 말 이거 고빼 단디 젊어쥐고 꼭 젊어쥐고 있거라.”

“예.”

그래 인자 대감님이 요기 하러 갔다. 요기 하러 갔는데, 대감님이 요기 하 오니까네, 말 짝 비가(베어) 몸뚱이는 다 팔아 무뿌고, 대가리 이거만 풀곰, 눈 풀곰(꼭) 감고 있거든.

“가걸아.”

“예,”

“이놈 자숙, 말 우웬노?”

“예, 모르겠십더. 눈 빼 먹는 세상이라고 해서 눈 빼일까봐 눈 안 뜨고 감고 불끈 젊어쥐고 있었십더.”

이라니, 눈 빼 먹는 세상이라고 지 눈 빼일까봐, 불끈 눈 감고 있어서 지는 모릅니더, 안 봤십더 이거야. 지가 팔아 무뿌고. 그래가지고 인자,

“야 이놈의 자석아.”

인자 과개도 못 가고, 배가 고파가 못 가고 이놈을 때라 훑아뻘다. 때러 훑아뻘노이, 이거는 가야 누가 밥 주나? 어느 동네로 떡 가니까네, 아줌마가 떡보리, 떡보리 아나? 보리쌀 새파랗 적에 떡보리 그거 참 맛있다. 해 놓으면 쪄만(쪄면) 디딜방애다 쪄 놓으면 떡이 보에 딱 붙어서 올

라간다. 떡보리 보에 있는데,

“아지매요. 떡보리 내가 찢어(쓸어) 줄 끼요.”

찢어줄 사람이 없어서, 아줌마가 아를 이쪽에(이 쪽에) 앉아놓고 혼자 인자 방아를 찢어샐거든. 고마 앉아 떡보리가 딸려 올라가니까, 이 놈 자석 떡보리기 띠이가지고(떼어가지고) 보따리에 싸가지고, 마 지가 가져가고, 아는 호박 안에다가 넣어놓고 이 아줌마는 방아 놓으면 아가 칭거(치어) 죽일 끼고, 아도 못 놓고 마 가지고 되게 내빼거든. 그놈의 떡을 가지고.

“니 이름이 뭐꼬?”

카니까,

“가걸아.”

라 카거든.

“가걸아.”

“예, 갑니다.”

카고, 마 다망질을(달리기를) 해.

“아, 가걸아. 가거들랑 아나(아이나) 호박에 아나 내 주고 가거라.”

“예.”

“가걸아.”

“예, 갑니다.”

하고 막 다망질을 해. 아도 안 내주고, 막 떡보리 가지고 마 내빼뿌거든(도망치거든). 그래 그거는 뭐 누가 내줬는가 우웠는가? 모르지.

가걸이는 그 떡보리가 그게 참 맛있거든. 안 먹어 본 사람은 떡보린지 모른다. 이놈을 싸가, 보따리 싸가가지고 그 대감님 동네 드갔는(들어갔는) 기라. 대감님, 저만치 대감님 동네 떡보리 싸가 가니까네 대감님이,

“저놈의 자식, 저거 직이빠야(죽여버려야) 돼지, 저거 살려 놓으면 안 된다. 직이뿐다.”

고. 그 동네 복판에 못이 이거만치 깊은(깊은) 못이 있는데, 바람낭개 몇 나 서가 있는데, 바람낭개에다가 봉퉁이를(소쿠리를) 달아가지고 가걸이를 그따 안차가지고(앉혀가지고), 주루룩 땡기면 싹 올라가도록 해가지고, 그 안에 가걸이 올라가가지고, 아무날 밑에 가가 줄만 끊어 빼면 풍당 물에 빠져 죽고로 고래(그렇게) 했다.

가걸이가 이놈의 자식 가만 앉아 생각하니 영락없이 죽겠거든. 그래 그때만 해도 낫그릇 장사, ‘낫그릇 사시오.’ 카메 이고 땡기며 팔았다 춘에. 낫그릇 장사가,

“낫그릇 사세요.”

카미 동네로 들어오는데,

“아짐마, 아짐마.”

어디서,

“아짐마, 아짐마.”

카거든. 어테서 사람 소리가 나노 싶어가지고 아짐마 살펴보니,

“여게, 여 함 체리(처다) 보소.”

체리 보이께네 사람이거든. 떡보리 한 개 툭.

“이거 하나 먹어보소. 여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여 하늘에서 묵을 거 이리 마 내라주지요. 일 안 해도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마 참 좋소. 이 놈 다 무만(먹으면) 또 내라 보내고 자꾸 내라 보내요 아줌마.”

“그래. 아 그래?”

“아줌마 낫그릇 장사 안 해도 여 있으면요, 맛있는 거 다 묵고 오만 것 다 묵고.”

마 밑에 줄로 조르르 땡기뿌니 조르르 올라가거든. 고래가(그래서) 고래 놓고 지는 이제 나왔다. 나와가지고, 아줌마 그 올라가 앉았고, 지는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지는 그 순간에 나와가지고 어테 피해가 있다가, 대감님이 그 놈 봉태기 안에서 줄 끊어 뿌면 물에 빠져 죽일라고. 낫을 가 오더만은 줄로 탁 끊어뿌거든.

“아, 요놈 자숙, 인자 용왕국 갔다. 인자 직이뻘다.”

고, 인제 그래사면 그 아줌마가 빠져 죽었다 아이가? 빠져 죽어뻘는데, 인제 어이 놈은 어디 살아 있다가, 숨어가 있다가 대감 집에 쏙 드가니 께네(들어가니깐) 모두 식구들이 놀래가,

“죽었던 구신이 살아 왔다.”

고.

“저 놈 자식, 아레 물에 빠져 죽었는데, [말을 더듬으며] 어 어.”

식구들이 놀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어 어 어, 저 놈의 자숙 아레 물에 빠져 죽었는데, 저거 들온다. 살아

가 들어온다. 저거 우짜노?”

“아 내가, 내가 기술이 좋아가지고. 마 이거 무(먹어) 보라고. 하느님이 이거를 쥐가지고 내가 이거를 묵고 물에 빠져가 죽었다가 다부(다시) 살았다.”

카더란다. 죽었다가 살았다 하이 곧이 듣거든. 죽기는 죽었는데.

“이거 함 먹어 보라.”

고 떡을 한 덩이 대감님을 주니까네 참 맛있거든.

“아, 그래요? 대감님 그가 봉태기 안에 올라앉았다가 있으믄 이런 걸로 하나님께서 자꾸 내려 보내가지고 내가 살았다고. 이거 한 번 묵어 보라고.”

“그래, 용왕님 밑에 내가 드가니까네(들어가니까), 어찌 좋는지 참 좋다.”

고, ‘용왕이 이 참말로 참말로 용왕국에 이놈이 빠져 죽었는데, 갔다가 왔는가’ 싶어가지고 대감님이 물에 들어가니까네, [웃음] 인자 이제 물에 들어 가보라 캐서 물에 들어간다. 깊은데 팔로 이래 안 흔드나?

“저 봐라, 기쁘이 좋으니까네, 용왕국 가이 좋으니까네 지금 춤을 춘다.”

이러거든.

“함(한번) 드가 보라”

고. 또 참말인가 싶어가지고, 대감집 할마이도,

“할마이도 드가 보라.”

고. 할마이도 들어가더니만 깊은 데 들어가니 또 춤을 추거든.

“저 봐라, 또 춤 안 추나”

대감님 집에 전부 다 빠지(빠져) 죽고 처녀 하나 남았는데,

“니는 내캉 살자. 전부 다 직었다.”

그 카고, 처녀 그 집 처녀 데꼬 그 집 살림 말아가지고, 그 가걸이가 그렇기(그렇게) 잘 돼가 살더라 칸다. 대감님도 다 직이뿌고.

[해운대구 설화 26]

나라에서 죽인 아기장수

김복선(여, 1930년생)구술
2012년 2월 16일 채록
[석대동 석대동경로당]

이 동네에서 제일 큰 집이 있거든, 아랫마을에 옛날 집이 있는데. 거기서 어린애로 낳아가지고 인자 아를 방에 눕혀 놓고 있는데, 정지서 어마이가 밥 하러 가니까 밥을 하이까네 ‘토닥 쿵 토닥 쿵’ 소리가 나더라. 그래 뭐신고 싶어서 문구멍으로 살 들여다보니까 아가 날개가 나가지고 천장에 이래 날랐다가 훌 날랐다가 널찌고(떨어지고) 훌 날랐다가 널찌고 이라더라.

그거로 인자 장사라고 정부서 알아가지고, 그래 그 아가 좀 마이 총각이 크가 돼가지고, 대문에, 그 집 대문에 발로 매가지고 직있다(죽었다) 하대. 직이 노니까네 그서러 혼이 날으는데 말이, 백말이 저건니(건너) 절로 막 날라 가더라고 하대. 그런 이야기로 하더라 전설이. 그 집이 아직(아직까지) 있다. 집은 뜯어가 새로 지었다.

[해운대구 설화]

죽어 구렁이가 된 시어머니

김복선(여, 1930년생) 구술
2012년 02월 16일 채록
[석대동 석대동경로당]

저그 시어머마씨가 어찌 이양캐가(사나워서) 옛날에, 이양캐는데 그래 그 할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구렁이가 막 독에, 마 지금도 집이 있어,

아랫마을에 그 구렁이가 그래 독에 감고 있다마는, 그 구렁이가 삼짝거리고 어디고 마 주인이 마실갔다 오면 이래 척 삼짝거리에 척 늘어져가, 그래 그거를 뛰 넘고 올라하니까 그리 무서워가지고 훑으니까는, 슬 기나가, 아래채에 이전에는 굴뚝있거든, 불 때는 구덕이 있거든, 그 구덕에 타고 누워가지고 썰을 툐툐툐 이래 차더라 카대, 뱀이가 구렁이가.

그래가 그 사람들이 못 살고 도저히 무섭아 못 살고, 그 집을 팔고 나갔다대.

그라고는 뒤에 사람들은 없더라 카대 그 사람들 나가고 나니까네, 없다라카대,

[해운대구 설화 28]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김복선(여, 1930년생) 구술

2012년 2월 16일 채록

[석대동 석대동경로당]

에밀레종, 그거는 인자 그 집에서러 아로(아이를) 처음 하나 낳아놓으니까 어찌 좋아가지고, 이 어루면서로 그 아로,

“금자동아, 옥자동아.”

카면서러, 이래 어루다가, 그래가 스님이 동냥 얻으러 왔거든. 오니까네,

“아이고 금자동을 줄까? 마 옥자동을 줄까?”

저그 아로 줄라 하는 거라. 동냥 그거로 쌀로 쪼깨(조금) 쥐야 될 긴데. 쌀로 쪼깨 쥐야 할 긴데, 아로 줄까 해놓이, 그게 인자 씨가 돼가. 스님이 왔는데, 그래 마 종을 전부 쌀로 전부 동냥을 해가지고 종을 맨드는데, 그 종을 전부 각 처서 그거 얻어가지고 맨드는데, 암만 맨들어도, 치니까네 소리가 안 나.

그래가 인자 ‘와 그렇노?’ 하면서 그라니까네, 그래 그 스님이 그거 얻어로 가니까네, 그 아로 줄까 캐 놓이, 아 그거로 데꼬 가야, 그거로 잡아넣어야 된다 해서. 그래 그거로 아 그거로 데꼬 가가지고, 삶아가 종에다 넣어서 그래서 에밀레종이 생겼다 이라대. 그래,

“에밀레, 에밀레, 에미 때문에.”

그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는 기 아이라 이 말이다.

[해운대구 설화 29]

집안을 지켜 준 지킴이 구렁이

박명순(여, 1933년생) 구술
2012년 2월 16일 채록
[석대동 석대동경로당]

우리 고모 할매 집에 쌀 단지가 두지 단지가 한손 드는 단지가 있어, 이래 이만한 긴데, 그걸 뚜껑을 이래 덮어 놓으면 그 위에 뱀이가 뚝뚝 말아가 앉았는데 그 뚜껑과 같단다. 굶아가 워낙 굶아가. 할매는 인자 그 거로 밀고 쌀을 내가오고, 아침을 내가오고, 저녁을 내가 오고, 내- 내가 오는데. 새 며느리로 봐 놓으니까, 겹을 내가 마 거기 앤(안) 드갈라 하는 기라. 그래가 며느리를 보고,

“야야, 그거는 저 사람을 무는 기 아니다. 그러니까네 니가 ‘아침을 할라고 쌀 푸러 왔습니다’ 하고 손을 마주 대고 기도로 하고, 그래 밀쳐가 그래가 쌀로 떠라.”

카더란다. 그래가 참 그 말 듣고 겁이 나가 얼어가지고 들어가니까, 그래 인자 고개를 끄덕 들고 이래가 있더란다.

그래가 단지를 뚜껑을, 나무 뚜껑을 해가 이래 덮어놔는가 봐 크다랴게. 그래 그거를 슬 밀면서 기도를 하고 비니까네, 가만 있더란다 고개만 끄덕 들고. 그래가 밀고, 인자 쌀을 퍼가 와가 밥을 해묵고 내- 그랬단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 그게 없어져 뿌더란다. 없어져버리가 이기 어데로 갔는데, 고마 할매가 내- 그랬는데, 그 집 자손들이 우예됐거나(어쩔거나), 워낙 그 할매가 그 짐승으로 마 나쁘게 생각 안하고 저거는 우리 업이라고 그래 생각하고 자꾸 기도를 하고. 이래 같이 마 그거 하고 이래 해놓으니까네, 있디(있더니) 마 그래 갔부노이, 가뿌고 할매가 수심을 했어. ‘이기 어디로 가뻘는고? 와 눈에 안 떠노?’ 그 집에 아들네가 마 전부 잘 된 거라.

지금도 그래가 잘 살고 있다. 뱀은 그래 나갔는데 이 집에서 워낙 그 거로 이래노니까 도와주더란다.

[해운대구 설화 30]

효자에게 내린 쇠북(2)

박명순(여, 1933년생) 구술
2012년 2월 16일 채록
[석대동 석대동 경로당]

이놈의 자꾸 인자 나물을 해가 파니까네, 팔아가지고 이래 고기를 한 마리 사가 오면 손자가 자꾸 빼앗아 먹는 기라. 그래 인제 저 엄마캥 영감강, 인자 신랑각시 앉아가지고,

“이거로 아로 없애뿌자.”

이카니,

“없애뿌면, 그거로 어찌 없애노?”

이라니까,

“저 어데가 파 묻자.”

이카민시로, 그래가지고 파 묻을라고 이래 판다고 파니까네, 거기서 석종이 하난 나오는 기라. 쿵쿵 소리가 나. 파이 석종이 하나 나오는 기라. 종이 나오는데 그 종을 갖다가 아들이 달아놓고 막 뚜드리는 기라. 뚜드리니까네, 어떤 임금이 지나가다가,

“이상하다. 저기 한번 들어가 보자. 저 종이 소리가 틀린다.”

이카매, 그래 가니깐에 그 종이 금덩어리 한가진 거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그거를 팔아가지고 인자 나라에서 먹이(먹여) 살린 거라. 그래가 부자가 되고 아들도 크고 그랬다대. 부모한테 효자를 해놔 놓으니 그래 가리고.

[해운대구 설화 31]

욕심 탓에 막쳐버린 쌀바위

정춘자(여, 1931년생) 구술
2012년 2월 16일 채록
[석대동 석대동경로당]

전에 우리 외할매가 그라대. 미태암 절에 가면 인자 쌀이 이래 하내이(한명) 오면, 하내이 묵을(먹을) 만치 나오고, 둘이 오면 둘이 물 만큼 나오고. 그런데 어떤 스님이 와가 욕심이 나가지고 마 작대기로 쭈시뿌

노이 물이 널쎌단다 지금. 물이 또닥또닥 떨어진대.

[해운대구 설화 32]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정춘자(여, 1931년생) 구술

2012년 2월 16일 채록

[석대동 석대동경로당]

옛날에는 인간 칠십 고래장(고려장)이라 안 하나? 옛날에 고래장 하는데, 아들이 지게로 즈그 아버지를 짊어지고 갔다 하대. 그래 이제 지게를 즈그 아버지가 훌쩍 내버리니까네,

“아버지요, 그 지게를 왜 버리는교? 아버지도 나이 많으면 내가 지고 버릴 낀데.”

그래가 다시 그 전설이 없어졌다 이라대.

[해운대구 설화 33]

지킴이 구렁이가 죽어 망한 집

정춘자(여, 1931년생) 구술

2012년 02월 16일 채록

[석대동 석대동경로당]

뱀이가 질끔이(지킴이)라. 집안 질끔인데. 여자도 젊은 여자가 딸인데, 그거를 알았길래 그라지. 그라 슬 나오면,

“아이고, 사람 눈에 떨어 저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 슬 간다 카네. 그래 즈그 밑에 사람이, 옛날에 전쟁 때라 카든가 이 북사람이 내려왔는데, 그 뱀이를 막 잡아 묵을라 카더라대. 잡지 말라 하고 뭐라 켜는 갑더라. 그래 캐나놓으니까네, 뒤에 마 뱀이마 예감이 나가

있으니 이상하고 섬뜩해서 오니까, 벌써 잡아가 죽이가(죽여서) 고아쌌더라대. 그래 마 집안이 쫓딱 망하더라대.

[해운대구 설화 34]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2)

김봉화(여, 1930년생) 구술

2012년 2월 13일 채록

[송정동 송정경로당]

모친은 눈이 어둡고, 그래 인자 메느리하고 아들이하고 이래 사다가(살다가), 아들이가 인자 돈 벌러 어데 멀리 가고, 그래 메느리 인자 시어무이로 봉양을 할라 카이 돈이 있어야 하제. 돈이 없어가 그래가 다시 뭐 할매는,

“고기국을 묵고 쥘다.”

카고, 이래가 그래 인자 지렁이로 인자 땅을 파몬, 찌적한(질퍽한) 데 파몬 지렁이가 나오거든.

메느리가 그래가 지렁이도 큰 거 떠 떼는 거는 그기 보신이 안 되고, 고작은 거, 떠 안 떼는 고거를 파다가 씻거가지고, 매매 소금에다 빨아가 씻거가지고, 그거로가 삶아가 할매를 내 국을 끓이가 드렸는 기라.

그래놓이 할매가 먹으니 하도 맛 있어서, 고거를 요래 눈이 어둡어도 꺼데기로(건더기를) 꺼지가(건져서), 이전에는 삶자리 아인교. 삶자리 밑에다 요래 딱 아들 오몬 보일라고, 요래가 딱 요래 놔났는데, 그래 참 오래오래 돼가 몇 달 돼가 아들이 돈을 벌어가 와가 그래,

“엄마 와, 엄마 내 왔심더.”

카며, 엄마인데 가이까네, 그래,

“아이고 야야, 니가 왔나. 그래 메느리가, 내가 고기가 먹고 쥘다 카이, 만날 고깃국을 끓여줘가지고 어찌어찌 맛 있는지, 니 오면 비일라고 내가 요 놔뒀다.”

카매, 요래 내가 비이는데 보이, 아들이 보니까네 지렁이라.

지렁이가 꼬불랑하이 요래 있어가 깜짝 놀라가,
“아이고 엄마!”
카니까네, 마 눈을 펴쩍 뜨더랍니다. 그게 보신이 돼가지고. 그래가 지렁
이가 그마름 좋다 카는 기라.

[해운대구 설화 35]

풀국에 원혼이 저서 죽은 전처 딸과 풀국새

김봉화(여, 1930년생) 구술
2012년 2월 13일 채록
[송정동 송정경로당]

옛날에 계모가 전처에 딸이 있는데, 그래 인자 옛날에는 전부 면옷이
라가, 풀로 해야 옷이 이래 좀 빠닥하이(뽀뽀하게) 힘이 있고 이랬거든.
글는데, 그 풀로 저그 옷에 다 풀로 해가 짜가 넣고, 고 인제 전처 딸이
하나 있는 거, 그 옷으로 풀로 할라 카니, 풀로 안 해줘가 그 국물만 주
몬 적서가(적서서) 널 낀데(널 것인데), 그양 마 요래 쏟아뿔어. 그러니
원혼 이 저가 그게 그리 풀국풀국한다 하대. 그 새가 원혼이 저가지고.

[조사자 : 그래 어째 우는가요? 소리로 어째 우는가요?] 그래 들으몬
풀국풀국걸이, 들으몬 풀국풀국 이래하는 것 걸고, 또 인자 저 아까 할매
하듯이, ‘기집 죽고 자식 죽고 내 호무차(혼자) 어째 살고’ 카는 그거는
인자 흘애비혼이 저게 뉘이라 하거든. 그래 흘애비 뉘이 돼가지고 그래
하고.

안자 듣기대로, 사람 듣기대로 가는 기라. 풀국풀국 자꾸 고래 들으몬
또 풀국풀국걸이 듣기거든. 그래 그 새가 인자 그거 인자 원혼진 사람에,
그거 인자 한을 품는다고, 그래 인자 그런 노래를 한다 하는 기라.

[해운대구 설화 36]

성주대왕 벵을 고친 바리데기

김인학(여, 1926년생) 구술
2012년 2월 13일 채록
[송정동 송정경로당]

옛날에, 옛날에 우리가 초가상간(초가삼칸) 상칸을 집을 지을(지을) 적에, 그래 인자 박 대목아, 이 대목아, 머 저 김 대목아, 이래 서이 대목을 불랐어(불렀어). 불라가이고 그래 인자 집을 지올라 카이, 그 인자 그거 뭐 [생각이 잘 나지 않은지 웃으며] 근데 할라 카이 다 잊아뿌고 모르겠노.

그 대목을 불러가이고 집을 짓는데, 그 초가상간 집을 지아가이고, 그래 인자 자리 잡아 앉을 적에 성주님을 좌중해가 안추고(앉히고) 시주님도(세존님도) 안추고.

[조사자 : 아, 그 성주풀이하신다. 지금.] 야. 그래 인자 성주님을 안자 좌중 인자 대들보에 대성주, 집을 지오몬 대들보에 대성주로 안추고, 인자 세주님은 안자 세주님은 부처님이라, 부처님이라 안차가이고, 그래 안차놓고 안자 그러йка네, 그 성주 세주님을 안차가이고, 그 상칸 집을 지아가이고, 그러고 인자 성주님으는 우리 인자 집을 지오몬 제일 어요곤 탕이²⁾ 자리 잡는 성주님이고, 세주님은 자기가 인자 부처님 도술로서로 인자 그 부처님 좌정하는 곳 세주님을 안추는데.

그 성주, 그것도 마 일이 많다. 그래 할라모 성주님으는 그 뱅이(병이) 들어가이고 눕어가이고 참 있을 적에, 그 딸로, 딸로 칠공주를 낳아가이고, 저 전시마시(전신만신, 즉 모두 다) 별금아 달금아, 마 별금아 다 이름을 정해가 불라 놓고, 그래 아바이가 저 병이 들어가 있으йка네, 그래,

“새충국에(보통 ‘서천국’으로 구술된다) 약 지으러 가라.”

카니까네, 다 안 갈라 카는 기라.

다 안 갈라 카는데, 배리데기(바리데기), 늦가(늦게) 낳는 배리데기로 저 갖다 내빼리뿐다(내버린다). 딸로 마이 나놓이(낳아 놓으니) 마 하나 갖다 내빼리뻘어. 내빼린 기기가 저 가가 돌방구(돌 바위) 새이스러(사이에서) 커가이고, 커가이고 그기 인자 자라나가이고, 그기 저거 아버지 병 구하러 갈라고, 약물 질이러(길으려) 갈라 켜는 기라. 그 딸이가 막내이

2) 아버지, 주인의 뜻을 가진 일본어 오야지(おやじ)의 변형 어휘인 듯함. 가장 높은 존재라는 뜻.

딸이가, 그 칠공주 딸이가.

그래 인자 물 질이러 가는데, 참말로 뭐 눈밥을(누룬밥을) 꾸바가이고 (구워서) 한 짐 짊어지고, 저-어 금강산 물 질이러 올라갔어. 금강산 물 질이러 올라가가고, 거서러(그곳에서) 마 참 물로 질이러 갈라 카이, 언마나(얼마나) 언마나 고독하는지, 밭 가는 데 가가고 도와주고(도와 주고) 논 가는 데 도와주고, 온 마을로 일로 다 해주고, 그래 그 약물 찾아, 찾아 올라가 금강산을 올라가가고, 거서러 또 마 또 그 수체를 한나 만냈어.

만내가이고 거서러 인자 근 삼 년 사 년 몇 년 돼가이고 아들로 낳아가 삼 형제로 낳았어. 삼형제로 뉘가이고(낳아서) 그래 인자 그 삼형제 나아가이고, 인자 올 때가 돼가, 아바이 인자 약물 질러가 올라고, 질러가이고 오다가, 그래 인자 오자마자 이래 오이카네, 그 마 대왕님이 죽어가이고 저 초사아(초상에) 간다고 행상이 나오는데, 행상이 나오는데 그 배리테기가 내빠린 배리테기가 약물로 질러가 오다가, 그 행상을 잡아가이고 그 약물로 씻츠이카네(씻으니까) 그래 대왕님이 살아났어.

살아나가이고 그래가이고 그 배리테기, 칠공주 배리테기가 소자(효자) 열녀딸이 됐어. 딸이 돼가이고 그 대왕님 아부지로 살리고. 그래 칠공주가 그 다 그 소자 열녀딸이 돼가이고 그래 다 아바이로 구해고 그래. 그 도 뭐 성주님 성주풀이를 하고 세조풀이를 하몬 그기 다 나오요. 그래 되는데, 우리는 들어, 듣기만 들었지. 그래 기록을 몬 하고 다 외왔는데, 나도 잊아뿌고 안차 모르겠어.

[해운대구 설화 37]

부자집과 가난한 집의 제사

김인학(여, 1926년생) 구술

2012년 2월 13일 채록

[송정동 송정경로당]

그 옛날에 참 한 집으는(집은) 참 정승의 집에 잘 사고(살고), 한 집에

는 참 못 살았는 기라. 못 살아가이고 근근이 입칠만(‘입에 풀칠만’을 줄인 말) 하고 살았는데, 그래 저 잘 사는 그 집에서러,

“아 저 자네는 어째서 제사로 안 지내노? 웃대 제사로 안 지내노?”

카이카네, 그래,

“예 나는 제사를 지낼라 카모, 사흘 정신을(정성을) 덜어야(들여야) 제사를 지내지. 글(그렇게) 안 하몬 제사 몬 지낸다.”

고 이라거든.

“그럼 어째서 제사로 지내노?”

카이카네,

“그래, 내 제사를 지낼라 카모 저 돈이 좀 많이 들어야 된다.”

카더라. 그래서러,

“그라모 내가 니 제사 지낼 때 비용을 내가 당해 줄구마. 니가 함 해봐라.”

카이카네, 그래 마 사흘로 모욕을(목욕을) 하고, 마 질로(길을) 마마 불로 밝히고, 마 소지를(燒紙)를 하는데, 사흘로 꼽박(꼬박) 소지를 해놔놓고, 그래 불로 밝히 놓고 밥을 뜨놓는 기라. 밥을 저녁에 반 밤중에 달 뜨노이, 이 잘 사는 그 정승의 집에서는 ‘저 사람들 어찌 하는고?’ 싫어가 태도로 봤는 기라.

태도로 보이카네, 그래 사흘로 정신을 덜여가이고 불로 밝히 놓고 제사를 덜이는데, 그래 저 한다 말이가, 그러니까 정승이가 그 가마(가만히) 그 사람들 하는 거 보이, 그 사흘로 정신을 덜이더마는 제사로 모시는데, 그래 제사로 밤에 한 밤중에 제사로 떠억 지내이카네, 마 말로 타고 마 요랑소리로 내고 막 말로 타고, 막 아주 갓 썬(썬) 사람이가 마 말을 타고 마 이래가이고 그 집에, 못 사는 그 집에 제사지낸다 카매, 떠억 말로 타고 마부, 마부 끌고 막 이래 오는 기라.

마 하인을 덕고(테리고) 오는데, 그래 그 제사로 그래 착실히 잘 지내고, 정승의 집에 그 어른을 제사로, 그 몬 사는 사람이가 그래 그 제사로 그 어른들 구신을 제사로 지내는데, 그때는 그 사람들이가 잘 살았어. 잘 살고 아주 과거도(과거도) 하고 잘 살았는데, 마 지금은 꼴치가(‘꼴, 즉 사정이 달라져서’의 뜻) 몬 살았는 기라. 몬 살고, 그래 잘 살 때는 그래 잘하고 그 사람 저 조상이가 아주 참 다 베슬깨나(벼슬깨나) 헨 사람이라.

그래가이고 참 제사로 지냈는데, 몬 사는 사람으는. 그 해에 또 이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 뿐을(본을) 보고 또 제사를 지냈어.³⁾ 지낼라고, 즈그도 뿐을 보고 제사를 지내이, 그 사람들 잘 사는 집에 조상은 어째가 오노 카모, 소금짐을 짊어 지고 오더마는 저 축담에 탁 갖다 내루더마는 (내리더니만),

“아이고, 배 고파라.”

카더마는, 마 제사 상 채리놓이 막 얼찌이(거의 다) 묵고 막 일라거든(일어나거든). 이라이 그 아들이가 볼라 카이 하도 하도 기가 맥히서(막혀서), 다음에는 그 조상 제사를 안 지내더람더. 거 하도 보기가 싫바가지고(싫어서), 저거 조상이 하도 험하게 해고 오이(오니).

그래 몬 사는 그 사람들으는 제사로 지나는데, 그래 참말로 그 정승의 집안이라. 그 꼴치서 그렇지, 옛날에 다 베슬하던(벼슬하던) 집안이라. 그래가이고 거 딱 정신을 주이, 눈에서러 딱 다 비어더라요(보이더라요). 눈에 흰하이 다 비어더랍니다. 그래 그런 옛날에 거 다 전설에 다, 실지로 그리 있었는가 살았는가 우리는 그래 듣고 그랬습니다.

[해운대구 설화 38]

손각시가 아기 탯줄을 끊고 승천한 사랑대

김차금(여, 1935년생) 구술

2012년 2월 13일 채록

[송정동 송정경로당]

신각시가(손각시가) 인자 그 아로(아이를) 가이고(가져서), 그 물에서 나오면서 나오가이고, 그 가매(가마)걸은 기 이래, 가매 같은 기 이래 떡 있는데, 가매 거서러(그곳에서) 타고 오가지고 올라감서, 인자 아로 놓으매 진물을 흘리고 이래 올라갔는데, 거기 안탯줄이 줄- 이래 있대. 있는데, 거서 아로 낳아가지고 삼을 갈랐는데, 가세(가위) 난(놓은) 자리도 있고, 실패 난 자리도 있고, 그래 다 있대요 거기.

3) “정승의 집 사람들이 가난한 집 사람들의 본을 보고 제사를 지냈다”는 말이다.

[청중 : 어대고? 거기 어텐교 내나?] 거가 저 안교. 시장대. [청중 : 시랑대.]

[조사자 : 시랑대. 아아 그 바위, 시랑대 그 바위 옆에, 용궁사 옆에 그 저 넓적한 데 그 바위 나와 있는데.] 예, 예. 바위 나와 있는데. [조사자 : 아, 거 거가 용굴 있는 모양이지요.]

그래 인자 전설이 거기 인자 돌 타고 거기 가매라. 돌 타고 있는 가매 거기 복판에 이래 있대. 돌빅하니 있는 복겔은 데 가매가 나이놓고, 거서 인자 타고 아가 안태가 인자 나올라칼 때 인자 올라가, 갠 줄이 뻔 거이(빨강계) 똑 핏물겔이 줄- 이래 있대. 있는데, 거서 인제 삼을 가를 때, 인제 실패 난 자리 있고, 가세 난 자리 있고, 지 앓은 자리도 있고 이래. [조사자 : 음- 거기가.] 예, 예.

[해운대구 설화 39]

죽은 사람 혼이 된 도깨비

노차숙(여, 1929년생) 구술

2012년 2월 13일 채록

[송정동 송정경로당]

옛날에 배가 청햇배(청어배)가 지나가다가 요 다룻돌(다릿돌)이라 카는데 그 돌 우에 얹히가이고 배가 파산이 댘뻤는 기라.

파산이 돼뿌가이고, 그래 인자 그 죽은 사람 인자 혼이가 다 거서 해가이고, 우리 엄마가 인자 나부리(너울이) 치몬 미역 주으러 가거든. 저- 고드배기(고두말, 高頭末)라고 저 청사(靑沙) 우 고개 거 고드배기로 거 가가이고 미역을 이래 낀지, 장대를 가이고 낀지이카네 한참 해가 마 쫓뻤는 기라. 어둑 어둑해가 해가, 미역이 자꾸 오이카네, 그래 해질 때꺼정 마 이래 했는 기라.

이래 하이카(하니까) 막 다르배러 거서 마 해진들이 나가이고, 노로 젓고 마 ‘어사라 대리라 어사라 대리라’ 캐사며 이래 노를 젓고 오맨서러, 그래 우리 엄마가 그럴 때 억수로 장수에 시이(힘이 세). 그래 인자 세가이고 있어이 혼차서(혼자서) 그때는 무서운 점이 마 실 들어가이고 장대

도 다 내빼리뿌고, 미역도 다 내빼리뿌고, 몸만 마 집으로 오매 마 이래
피해온다고 집으로 오йка네, 거 읊는(왔는) 사람이 돌에 뛰내리는 소리
도 다 나더라 하대. 펄떡 펄떡 돌에 뛰내리맨서러,

“하이고 저년 저 간다. 간다. 간다.”

이래쫘더라 카대, 우리 엄마 귀이(귀에). [조사자 : 또깨비들이?] 또깨비
들이 나가이고. ‘저년 저 간다. 간다. 간다.’ 캐사면서러 뛰이내리니, [웃
으며] 그러이 얼마나 무섭겠노 그제. 이래가 뒤도 안 돌아보고, 거는 또
깨비는 뒤로 돌아보몬 마 태산길다 카대. 이라이(이러하기) 때메(때문에)
절대 뒤로 몬 돌아보고 앞으로 이로 오йка네, 그래 하는 그 우리 엄마
가 그래 우리인테 이야그로(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로 났다고.

그래 야 옛날에 그래, 그래 하더라고. 그래 우리가 그 소리를 들었거
든. 들어가이고 안 잊아뿐다 이 말로. 그래 하더람더. [조사자 : 아, 옛날
에.] 저 그래가이고 청어로 울 엄마가 얼마나 조와났는동 나오가이고, 배
가 얹어쫘어(얹어져) 놔노йка네 그래 다 주아가 팔아먹고 다 이랬십니
더 옛날에. [조사자 : 아, 옛날에.]

[해운대구 설화 40]

상객 가서 실수한 친정아버지

강말선(여, 1930년생) 구술

2012년 2월 15일 채록

[우1동 운촌여자경로당]

아버지가 딸네 집에 놀러를 갔는데, 땡기러 갔는데. 옛날에는 갓 쓰고
이라그든. 그러니까네 그 집에 침으로 가니까 팔죽이 그래 맛 있더라.
얹전 편다고 한 그릇밖에 안 자시고 나이께네, 자다가 생각하니까 배가
되게 고프거든. 그래서 딸한테 가서 살짝 가서, 저그 딸한테,

“야야, 팔죽 남은 게 있나?”

이라니까네,

“부엌에 가면 있습니다.”

이라더라. 그래가 그놈 갓은 짜메고 걸린다고, 밑으로 짹 벗고, 두라메

기로(두루마기로) 다 벗고, 훌쩍 벗고 갓만 쓰고 살살 도둑질 할라고 간 기라 죽을 목으러.

그래 죽을 이래 보니까 많이 남았거든 사발채 들고 나왔어. 방에 와서 먹을 끼라고. 떡 나오는데 갓 끈이, 옛날에 부엌에 가면 못이 짜다라(많이) 안 있나? 그게 갓이 탁 걸리뿐 기라. 그래놓으니까네 고함도 못 치고 며느리 아들한테,

“야야, 야야.”

캐사도 안 들리제, 이거로 들었레 사발로 내빼릴라면 아깝아서 깨지제, 갓은 우에 걸 리가 있대, 오도가도 못하고 딸 우사로 그래 시키더란다. 사돈이 인자 나와서, 새벽이 되서 나온게,

“사돈 와 그라고 계시는교? 변소를 가고 싶으면 딸한테 물어 보제”

그래 그 가다가 걸렸는가 싶어서 그라더라네.

[해운대구 설화 41]

메밀나무 밑이 빨간 이유

강말선(여, 1930년생) 구술

2012년 2월 15일 채록

[우1동 운촌여자경로당]

옛날에 그거 와 목 있제? 목 만드는 거 있다. 도토리 말고 요 목을 맨드는 거 있다 삼각형으로 생긴 거 쪼께난 게 있거든. 그게 나무가 밑이 빨강다. 밑구녕이 빨강다.

옛날에는 야시가 많았다. 야시가, 어마이가 아들을 재아 놓고 저그 엄마가 떡장사 하러 나갔는데, 그래가고 애기로 둘이로 남매를 놔두고 떡장사 하러 갔는 기라. 그래 집에 가보이까네 야시가 마 야들로 못 잡아 먹어서 밑에서 왕왕거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아들이 겁이 나서 뒤에 가가, 뒤에 할마이가 호랭이를 죽일라는 게 저그 아들한테 마 돌맹이가 떨어지가 죽어뿐 기라. 그래서 그 나무 이파리가고 밑에 뿌랭이가(뿌리가) 빨간 기 피란다. 전설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뿌랭이가 빨게. 그거 보

고 뭐라 카면 묵 만드는 것 안 있나? 묵? 도토리묵 말고, [조사자 : 메밀? 그 메밀] 메밀나무가 밑에가 빨장잖아? 그래 이유가 그래 빨장단다.

[해운대구 설화 42]

손님을 내 아들이라 하는 처녀 뱃사공

양복자(여, 1940년생)구술

2012년 2월 15일 채록

[우1동 운촌여자경로당]

처녀가 인자 뱃사공인데, 처녀가 처녀가 뱃사공인데, 배를 탔거든. 배를 탔거든 손님이 배를 탔는데. 처녀가 노를 저어가지고 갔는 기야. 이 손님이 인라 내리니까,

“내 배에서 나갔으니까 내 아들이다. 너는 내아들이다. 내 아들이, 내 아들이.”

카더라네. 그러니까 손님이 나이가 많을 것 아니냐? 처녀가 우에 아를 낳을 꺼고. 그래,

“내가 우에 당신 아들이?”

하니까,

“내 배에서 나갔으니깐에 내 아들이 안 맞나?”

[해운대구 설화 43]

남근으로 손자 병 고친 할아버지

양복자(여, 1940년생) 구술

2012년 2월 15일 채록

[우1동 운촌여자경로당]

인제 시아바이가 며느리 둘이가 있었는데, 인자 며느리 둘이가 옆집

옆집에 사는 거야. 옆집에 사는데, 근데 큰아들이 아들이 별복(황달)을 만나 그거로 앓았는데 기라. 며느리가 밭에 가 일을 해야 되는 기라.

“아버님, 우리 아를 좀 봐주소.”

이랬거든. 그러니까네 아가 그냥 막- 우는 거야. 아가 막 우니까네 할배가 할 수 없어가 지 물건을 떡 아한테 빨리 놓은 거라. [웃음] 그러니까 아는 안 울거든. 그래가지고 그 아가 나왔는 기라. [웃음] 그러니까 또 둘째 며느리가 그런 병에 걸린 거라. 그래 걸리가지고 저그 동서를 보고,

“행님요, 행님요. 우째 그 아무것이가 나왔어요?”

하니까,

“모르겠다. 아부이로 아를 맡기 왔드마는 나왔다.”

그라거든. 그러니까 둘째며느리가 가가(가서),

“아버님, 아버님. 우리 아도 좀 봐주소.”

이라니까는, 시아버이가 하는 말이,

“땡지, 그거는 한번만 하지 두 번은 몬 한다.”

그라더란다.

[해운대구 설화 44]

십층 가려다 봉변 당한 할머니

양복자(여, 1940년생) 구술

2012년 2월 15일 채록

[우1동 운촌여자경로당]

할매가 인자 톱 붓짐을 이고 인자 엘리베이터를 댔는 거야. 엘리베이터를 띄- 타고 인자,

“아이고 아저씨요, 저 십층 좀 놀리 주소.”

쿠거든. 십층을.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하는 말이,

“할메요, 내 썩도 못 놀리는데 어찌 십층을 놀릴 끼요?”

카더란다. 그러니까네 할메보고 욕을 하더라 카더라 안 카나. 할매는 보통으로 놀리줄라 하는데, 저그 딸이 십층에 사이까네, 십층을 놀리 줄라 카는데.

[해운대구 설화 45]

신식 말고 구식으로 하소

양복자(여, 1940년생) 구술

2012년 2월 15일 채록

[우1동 윤촌여자경로당]

메주를 딱 실경(선박)에다가 달아 놓고, 겨울에는 쪽쪽 달아났다 아이가? 그러니까네 마누라를 벽에다 붙이 놓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메주가 툭툭 떨어져가 대가리 내리오거든. 큰아들이 바로,

“아부지, 마 하던 구식이나 하지. 신식으로 해가 내 대가리 깨지겠네요.”
그라더란다.

[해운대구 설화 46]

도깨비불이 되는 몽당 빗자루

황연자(여, 1931년생) 구술

2012년 2월 15일 채록

[우1동 윤촌여자경로당]

큰 배가 차목선이나 큰 배가 향해 중인데, 불이 마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말처럼 해지비(허잡이, 도깨비) 불이다. 해재비 불이 막 배로 막 유혹하는 기라. 말하자면. 그 배가 그 불빛을 막 향해 안 하는 가배? 결국 향해해가 깔에 가면은 빗자루라. 부엌 빗자루.

여자들이 흔히 말하는 거는 맨스있을 때, 우리 옛날에 부엌 앞에 앉으면 빗자루 앉아가 불때거든 옛날에 그 수수빗자리 수수 빗자루 깔고 앉아가 부엌에 불로 때면, 맨스 있을 때 빗자루로 비면 거기 쓰레기가 돼서 바다 떠내려 가면 그게 인자 큰 불덩이가 되는 기라. 그래 그 화물선이 막 따라가자 추격해가 보면 그게 빗자루라 한다. 그래서 여자들 맨스있을 때 빗자루 깔고 앉지 마라.

[해운대구 설화 47]

거짓 죽음으로 못 된 딸을 혼낸 아버지

황연자(여, 1931년생) 구술

2012년 2월 15일 채록

[우1동 윤촌여자경로당]

옛날에 어느 사람이 할배가 딸네 집예를 갔다. 딸네 집예를 가니까네 그때는 인자 베를 짚거든. 베 짰다고,

“아부지, 베를 막 뒤비놔는데(뒤집어 놓았는데), 베를 짜야 되니까네 밥을 못 해 드린다.”

고 밥을 안 해주더란다. 굶골랑 베를 움켜쥐고 등 너메 며늘네 집에 갔어. 며늘네 집에.

이 베라 하는 거는 마당에 뻗치 놓으면 그거는 시간을 다투거든. 밑에 불이 있기 때문에. 며느리는 베를 매다가,

“아이구 아버님 오셨다.”

하면서 그 베를 놔두고 시아바이를 밥을 점심을 해드리더란다. 그래 인제 잡숫고, 집에 가서 가만 생각하이, 하도 분해서 분에 못 전디서,

“고마 내 죽었다고 며느리한테하고 딸한테하고 통개를(통지를) 해라.”

며느리하고 딸한테 통개를 하이, 며느리는 그냥 ‘아이고, 아이고.’ 하며 오고 딸은,

“아이고 아부지, 우리 집에 오셨는데 내가 베 짜다가 점심을 해드리이 잘 잡숫고 가디만도. 가시면서 앞들 논 서 마지기 날 줄라 카고 가디만도 왜 죽었냐고?”

이카드란다. 그래 아바씨가 벌떡 일어나가,

“야 이년아. 그제 니가 날 밥을 해줬나?”

하니까,

“아이고 아버지 죽음이 정죽음이요, 내 울음이 정울음이요.”

카며 도망가뿌드란다. [일동 웃음]

[해운대구 설화 48]

며느리의 방귀 힘(17)

김정금(여, 1931년생) 구술

2012년 2월 14일 채록

[우1동 장지부녀노인당]

며느리가 신랑이 저저 보도연맹인가 똥인가 갓부고. 남자가 보도연맹인가 갓부고, 그래 시아바이하고 둘이 사는데, 시아바이가 매느리가(며느리가) 밥상을 가오면 얼굴이가 노랑거든.

“니, 와 그래 얼굴이가 노랑노?”

이라이,

“빵구를 못껴서 노랑습니다.”

이라더란다. 그래 마,

“되게 끼뿌라 마.”

이래 카니까네,

“아버님 저 쪽에 가서 잡으쇼.”

카더란다. 기둥을 잡아라 하더란다. 그래서 거 가가지고 탁 끼뿌니까 집이 반이나 넘어가뿌거든. 그란께,

“아이고 야야, 집 넘어간다.”

카이,

“그럼 바라줄(바로 해줄) 끼요. 저쪽에 가서 또 잡아라.”

카더란다. 저쪽에 가서도 한방 탁 끼뿌니까네 딱 바라지더란다.

“아이고 야야, 방구 끼지 마라 클(큰일) 나겠다.”

하더란다. 방구가 그렇더라.

[해운대구 설화 49]

주인과 스님이 주고받는 이상한 엮불

김분필(여, 1940년생) 구술
2012년 2월 15일 채록
[우1동 장천경로당]

절에 이래 스님이 시주하러 땡기거든. 땡기는데, 이거저거 이거저거 한
집에 드가가지고 목탁을 암만 치고 이래도 내다도 안 보는 기라.
그래가지고 자꾸 치고 있으이 내다보고,
“아이고 우리는 저 교회 땡기요. 저 가소 가소.”
이카이,
“니기미 시발년 안 주마 가나봐라. [일동 웃음] 안 주마 가나봐라.”
이라거든.
또 인자 그서 인자 교인(‘기독교인’을 뜻함) 주인이,
[칭중: 스님은? 스님은 또?] 스님이 그래 안 주마 가나봐라 이래 하거
든. 주인은 교인은,
“시발년 주나봐라. 주나봐라. 주나봐라.” [일동 웃음]
“오늘 저물어 안 주모 가나봐라.”

[해운대구 설화 50]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3)

문명수(여, 1940년생) 구술
2012년 2월 15일 채록
[우1동 장천경로당]

집에 억수로 몬 살아가이고, 할매는 눈이 어둡고, 며늘은(며느리는) 똑
똑해도 억수로 못 살아봐노이께네(사니까), 그래가이고 인자,
“고기 반찬 먹고 쥘다. 먹고 쥘다.”
해싸йка네, 그래 하리는(하루는) 뒤에 하수도로 파йка네 꺼시래기가(지
렁이가) 항거(많이) 나오는 기라. 그놈어(그놈을) 가이고 국을 자꾸 끼리
가이고 할매로 자꾸 쥘는(주었는) 기라. 눈이 어둡으니까, 봉사니까 모르
고.

그래가 할매는 무슨 고기국인가 싶어가 자꾸 먹고 무이까(먹으니까), 난죽에는(나중에는) 마 할매가 살이 찌가이고 이마따이(이만하게) 똥똥하이 살이 찌가, ‘우리 메느리 소자라(효자라)’ 카맨서, [일동 웃음] 그래가지고 할매가 땡기면서 소문을 내더라 쿠대.

[해운대구 설화 51]

글을 잘 몰라 쓴 편지

문명수(여, 1940년생) 구술
2012년 2월 15일 채록
[우1동 장천경로당]

거 인자 시동생이 군에로 갔는데, 그래 인자 편지가(편지가) 떡 왔는 기라. 집에서 편지가 떡 오고, 인자 편지가 주고받고 인자 이리 하이, 글이 좀 찼라가이고, 그래 인자 편지로 떡 인자 저거 집에다가 보내는데, 그래가 인자, ‘앞집에 형수씨도 보고줬다. 인자 뒷집에 재수씨도 보고줬다.’ 이 말로 인자 그런 말로 갖다가 그래가이고 내도 새가(혀가) 찼라노이, 새-, 앞집에 행수씨도 [청중: 새가 찼라서 그런 기 아이고, 글로 모르게 받침을 안 붙이갈고.] [조사자 : 어. 아 아.]

‘뒷집에 행수씨 받 지도 새카맣고, 뒷집에 재수씨 보지도 새카맣고.’
[일동 웃음]

본 지도 새카맣고 이 말로 갖다가, 아 맞다 이 말로 갖다가 세가 찼라가이고. [조사자 : 고래 고래 썼는가? 읽는 기 읽는 기 그래.] [청중 : 그런게나 글로 보 자 밑에다 니은을 붙이가 그래 ‘본 지도’ 이래야 되는데, 그 저 하모 받침을 모르게 ‘보지도’ 그래 된 기라.]

[해운대구 설화 52]

이상하게 생긴 십 보고 도망간 호랑이

이말임(여, 1946년생) 구술
2012년 2월 15일 채록
[우1동 장천경로당]

산에서, 저-어 설악산에서 내려올 때는 ‘내가 새파란 아가씨나 새댁이나 잡아먹고 가지.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안 잡아 먹는다.’ 이라고 인자 내려 왔는데, 밤새도록 해타대도(해매고 다녀도) 새파란 사람도 없고 나이 많은 사람도 없는 기라.

그래갖고 인자 탁 올라갈 때는 ‘지나 개나, 지나 개나’ 하고 이리 가는데, 호래이가(호랑이가) 탁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 등을 어떻게 넘어야 되노?’ 이리 생각하고 넘은께, 도저히 안 되겠어서 삼베치마 그거로 갖다가 탁 거꾸로 덮어가 이래 옆쳐가(옆드려서) 있은께, 호랭이가 하는 말이,

“오만 짐승이 다 입은 가로 찢겼는데, 저 짐승 무슨 짐승이 입이 치(치켜) 찢겼노? 아이고 무시라.”

저 짐승을 보고는 겁을 내가,

“나는 못 잡아먹고 가겠다.”

쿰서 큰께, 새파란 것도 못 잡아먹고 나가 많은 것도 못 잡아먹고 그냥 올라가더라 하대.

[해운대구 설화 53]

저승 갔다 살아온 사람(17)

주삼순(여, 1935년생) 구술
2012년 2월 15일 채록
[우1동 장천경로당]

그 할매가 죽었는데, 초상을 삼, 삼일만에 초상을 칠라쿰께, 각(곽) 안에서 똥똥 해삿더라캐요. 거 상주들 울어쌌다가 펄떡 정신을 채리갖고 인나가고예(일어나서),

“이상하다. 각 안에서 뚝뚝 샐는다. 한분, 우리 한분 열어보자.”
이런께, 눈을 빠짝 뜨고예 있더랍니다. 그래가 살았어. 살았일 때,
“숙모 풀이 와 이래 잘로가지가 졌네?”
이런께,
“아이고 야야 내가 한번 죽었다 깨어났다.”
옛날에는 마 염(殮)할 때, 이리 마 손을 이리가 묶졌는갑대(묶었는가 보대). 매매 묶겨갖고 이거를 사흘이나 이걸 묶어와논께, 그기 포가(표가) 살아나도 안 나, 안 나타, 거기 안 없어지고 딱 잘로가지가 져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랬다 이런께,
“그럼 우찌 가라 쿠더냐?”
이리 또 물었다 카네. 그런께,
“아이 저 어떤 노인이 가라 쿠는데, 강아지로 하나 딱 앞에다 세웁서요 강아지 따라서 새이(얼른, 빨리) 가라 쿠더랍니다. 바쁘다. 바쁘다. 바쁘다. 빨리 가라 캐서 온다고 온께노, 강아지 따라 쫓쫓 오다 집.”
집, 옛날에 삼대 그거로 요리 [청중 : 재립.4)] 재립 놔놔대. 아 그기 고마 톱 빨라졌다. 그때 지가 깨났다 캐.

[해운대구 설화 54]

호랑이보다 무서운 꽃감

주삼순(여, 1935년생) 구술
2012년 2월 15일 채록
[우1동 장천경로당]

아가 하도 울어사서 아무리 달개도(달래도) 안 달개진께,
“호랭이 온다.”
캐도 안 달개지고, 오만(온갖) 소리 해도 안 돼.

4) 섬유작물인 대마. 즉 삼은 옛날에는 삼베를 만드는 섬유를 얻기 위하여 재배하여 섬유는 삼베 만드는 데 사용하고, 그 속의 재립은 초가지붕을 이는 데 사용하였다.

“아이고 저 꽃감이(꽃감이) 온다. 꽃감 한 개 주까? 그러면 니 안 올라
모 꽃감 한 개 주까?”

이런게, 호래이가 가마이(가만히) 듣고 있다가,

“와이고 호래이도 겁 안내고, 꽃감이 제일 무섭는갑다.”

쿵서, [웃으며] 호랭이가 도망을 가빠고 아도 안 울더랍니다.

[해운대구 설화 55]

호식을 면하게 한 삼정승의 딸

김복림(여, 1938년생) 구술

2012년 2월 15일 채록

[우2동 우2동경로회당]

옛날에 중이 목탁을 두들고, 옛날에는 목탁 두들고 구걸하러 땡겼거든.
어디로 가니까는 아가 하나 떡 있는데 삼대독자 외아들이더라. 아를 떡-
보이 호식갈 팔자라. 호랑이한테 물려갈 팔자라 아가. 그래 썸(허를)
쫓쫓 치면서,

“아이고, 그 놈이 안 됐다.”

이라고 간께네, 저그 엄마한테 가서 그랬거든.

“엄마, 엄마. 저 스님이 나보고 안 됐다 이래시면서 썸 치고 가네.”

그라더라. 그래가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물었어,

“왜 그라냐?”

고 물으니까, 몇일 날 되면은 아가 안 좋으니까,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그
전에는 정승이라, 그 전에는 김정승, 박정승, 이정승 정승들인데, 정승의
딸들을 그 전에는 물 복판에다가 초당집을 저놓고(지어놓고) 거기서 공
부를 하는 기라.

옛날에는 지금 국회의원들 딸네 같은 사람들은 옛날에는 바깥에 못나오
게 하고 정승 딸 아들은 못 가운데다가 집을 저놓고서는 거기서 공부를
하는 기라. 그 삼정승 딸한테 하루 저녁을 재이라 했는 기라 몇일 날 저녁에.
그래 재이라 했는데 그 정승들 딸네 집에를 우째 가겠노? 그래 이제 그

딸네 집예를 갈라른 그 처이들 공부하는 데를 갈라면 절차가 복잡한 기라.

그래가지고 그 정승 집 앞에서 팔죽장사를 하는데, 그 팔죽장사한테 꼬았어.

“삼정승 딸한테 하루 저녁만 우리 아를 살리면 삼대독자 외아들인데 목숨을 건진다는데 명을 이순다는데(잇는다는데) 어짜면 좋겠냐?”

한께, 그 사람이,

“내가 좀 해보꾸마.”

했는 기라. 그래 인제 누룽지를 싸가지고 뭉쳐가지고 치마를 배에 치마를 뺨 뺨하니 이래 해서 입고, 아를 이 배 치마 속에다가 이래 넣고 걸어가는 기라.

한 군데 걸어가면 거기는 정승들 딸이 있으니까, 가는 데마다 개를 중간 중간에 매놔는 기라 개를. 개 있는데, 한 군데 가서 개가 달라 들면 누룽지 하나 훌떡 던져서 가서 먹게 하고, 또 거기를 넘어가가지고 또 한 군데를 가면 또 개를, 누룽지를 몇 개를 뭉쳐가지고 갔는 기라. 가서 훌떡 던지면 그 놈 물고 갈 때 아를 테꼬 가. 그래가지고 그 서이 삼 정승 딸네 집에 저녁에 왔네.

거기서 인제 정승들 딸네들은 전부 지금도 부잣집에 가면 병풍을 딱 쳐놓는다. 바람막이. 그래 인제 정승 딸네한테 얘기를 벌써 해놔어. 그랑께 병풍을 딱 걷어 치면서 여기다 넣으라 하는 기라 정승 딸 서이가. 그래 거기에 넣고서는 인제 옛날에 공부들을 하면은 한문공부를 하면 그런 귀신들을 쫓는 그것도 있고, 호랑이를 쫓는 징인(진언)이 있어. 호랑이가 오면 그걸 막 읽으면 도망가는 그기 있어.

그래 열두 시 넘으니까, 새벽쫓 되니까 새벽이 되기 전에 마 담을 탁 하면서 호랑이가 오더란다. 탁 두 손을 걸쳐앉고서 소리를 지르더란다. 그런께 삼정승 딸이 셋이가 그냥 책을 딱 펼쳐놓고 읽어 재꺼어. 읽어 재끼니까 이 호랑이들은 날만 새면 못 있거든. 날이 희번이 새니까 마으르렁하면서 넘어 가더란다. 그래서 그 아들을 삼 정승 딸이 살렸는 기라. 거기서 옛날에 그런 전설도 있는 기라.

[해운대구 설화 56]

엄마 말을 안 들어 과거 못 본 아들

김복림(여, 1938년생) 구술
2012년 2월 15일 채록
[우2동 우2동경로회당]

그 전에 과거를 보러 갔는 기라.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데, 엄마가 과거를 보러 갈 때 먼눈을 팔지 말라 이랬는 기라. 먼눈을 팔지 말라고 했는데 이놈이 먼눈을 팔았어. 가다가 보니까 까치집에 딱 저났는데, 까치새끼가 있는데, 거기 구렁이가 들어가니까 까치들이 아우성을 치거든. 먼눈을 팔지 말고 고마 갔으면 괜찮은데 활로 그 구렁이를 썰서 죽였는 [죽였는] 기라. 떨어져 죽였는 기라.

가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서 하루 저녁 주막에 들어가서 자게 됐는데, 자다 보니까 구렁이가 와가지고 목을 칭칭 감고, 죽은 사람 각시, 그래가지고 과거를 못 봤는 기라.

[해운대구 설화 57]

효심에 감동한 산신령[산삼동자 이야기](17)

우연자(여, 1926년생) 구술
2012년 2월 15일 채록
[우2동 우2동경로회당]

옛날에 시아버지가 병이 들어가 있는데, 아픈(어떤) 약을 써도 안 돼. 그런데 어디 가йка네, “저제 뭐 사람고기를 먹으면 낫는다.” 카더란다. 그래가 부부간에 의논을 해서, “자숙은 또 놓으면 자숙이고 부모는 한번 가면 없다.” 그래가지고 그 아를 참 줄라고 술에 넣어서 고았어, 삶았어. 삶으니까 아는 다 삶겼는데, 아가 서당에 갔다가 책을 울러매고 들어 오더란다. 신령님이 하도 효도 하니까네, 산삼을 내려 보냈어.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더란다.

[해운대구 설화 58]

아들을 구한 죽은 아버지

우연자(여, 1926년생) 구술

2012년 2월 15일 채록

[우2동 우2동경로회당]

옛날에 어느 사람에 조실부모를 했어. 하도 부모를 일찍히 죽어뿌렸어. 너무 너무 부모한테 효를 못한 게 철천지 한이 돼가지고, 방 안에다가 이래 나무를 이래 모셔놓고 만날 어디 갔다 오면,

“아버지, 어디 가서 오늘은 장에 가서 오늘은 뭐 사고 뭐 샀습니다. 뭐 우웠습니다 뭐 우웠습니다.”

이카지. 만날 천날 그라고, 밥도 지 안 먹고 먼저 갖다 넣고 했는데. 이 사람이 고마 뭇이 잘못 돼가지고 억울하게 고마 관가에 잡히게가 됐어. 그래가지고,

“내가 암만 잡히기도 내가 참 아버지한테 인사를 드려야 한다.”

카이 나무거든. 나무에 가서,

“아버지 내가 이래 이래 억울한 일이 이래 이래 있어서 내가 이래 잡히 갑니다.”

하니까 그 나무가 돌 구부러지는데, 막 비가 펍 쏟아지더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원 시대 아니가? 원님이 보고 이렇게 이렇게 지극한 사람이 이럴 리가 없다 카면서, 그 무혐의가 되더라.

[해운대구 설화 59]

술이 나왔던 술바위

우연자(여, 1926년생) 구술

2012년 2월 15일 채록

[우2동 우2동경로회당]

영주 우리 친정 가는 동네에 중간에 그 동네 이름이 술바우라. 지금도

술바우라 카는 동네가 있어. 그런데 어떻게 호부아버지가(홀아버지가) 살았네. 딸 하나하고 둘이 사는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만날 천날 딸을 내쫓아, 술 사오라고. 그 아가 어린아거든.

그래 만날 산 밑에 가서 빌어.

“울 아버지 술 좀 달라”

고, 그래 참 그 뒷동산에서 술이 푹 푹 푹 푹 떨어져, 하루 한 되씩. 푹 그래 떨어져. 그 이상하거든, 아바이가 딸아를 보이게네. 생전에 돈도 없고 어디서 가져오는지 딸아 뒤를 밟았어. 밟은께 거 푹푹 소리가 들리거든. 아버지가 마이 물라꼬 가가, 망치로 갖고 두드리 뿌사빠니까(부셔버리니까) 다시는 안 나오더란다.

지금 그 동네에, 우리 친정 가는 영주, 어디 가는 길에 술바우라는 동네가 아직도 있어.

[해운대구 설화 60]

부자 과부를 사촌에게 양보해서 병이 난 사람

김상기(남, 1926년생) 구술

2012년 2월 18일 채록

[재송동 재송정경로당(남)]

그래 마 과계(과거) 보러 간다고 인자 갔는데, 기가할(귀가할) 직에(적에), 이전에 뭐 애긴데, 그러 마 아주 선비가 아니었던 모양이지. 오다가 보이카네, 모 어느 주막에 앉아서, 팽상에(평상에) 앉아서 이래 가이카, 소복을 입고 여자가 가족신을 신고, 비는 오는데, 그래 이래 가이카네, 그래 주모인데 물으니까,

“모 고 모 어데 사는 저 부잣집 메느린데(머느리인데), 신랑이 말이 각중에(갑자기) 풍병을 그 해가지고 돌아갔다. 이라니카네, 그래서 소복을 입고 간다.”

그래 인자, 그 한카네 시아바이가 외동아들인 카네,

“혼차서 몬 사이카네, 니가 어데 좋은 사람을 만내는데, 나가가지고 눈에 첫눈에 보이는 사람만 따라 가라.”

시아바시가 이리 시키이카네, 그래 인자 보석을 이래 사주면서, 뭐 시아바시 나이 다 됐고 마 이러이카네, 물려줄 그것도 없고, 그래 혼차 살기가 거해서(그래서) 보냈는 기라.

그래 대구썸 이래 오다가 보이카네, 열차가 내리, 어느 남자가 보이카네 내리는데 보이 눈에 탁 들고, 이래서 인자 뒤로 쫓아서 인자 따라 갔는 기라. 첫눈에 봐서.

따라 가이 어느 덕을(언덕을) 이래, 이래 넘는데, 넘는데 자꾸 여자가 따라오이카네, ‘수상하다’ 싶어서 자꾸 이래 보고, 보고 보고 따라, 그래 덕 넘어 따라가다가 저 자기 집 다가서 어데 드가는데, 뭐이 거 마을에도 주막집이 있어가지고 거 물으니,

“저 양반이 어째 사노?.”

“그 양반이 수한(순전히) 노름쟁이고, 그거 마 이것도 살림도 없다.”

마 이래 얘기를 해 줬어. 그래서 사람만 마 참 잘 생기고 이런데, 그래도 남편은 잃어뿌고 이러이 마,

“저 남자가 장개로 갔나?”

이라이카네,

“처녀 있다.”

이기라. 그래서 만네가지고 인자 거 했는데, 인저 사귀졌으이카네, 따라왔이이. 어째서 그렇냐, 그래 이 욕심 나가, 남자도 욕심이 나가 방을 하나 얻어 줬어.

“여게 있으라.”

고, 여자 모르게, 그 이자 저기지 연애 비슷하이 사꿘는데, 그래가 인자 거 하라 카고, 그러이 그래 해놓고 방을 조(쥐)놓고 가마 생각하이카네 말이지, 뒷일로 자기 마누래하고 뒷일로 생각하이카네 곤란하이, 그 저 사춘이(사춘이) 호불애비라(홀아비라). 호불애빈디, 사춘인데 가가지고,

“니 어데 그 방에 소복 입은 저 여자가 와있으니까네, 거 자이카네, 니가 밤에 거 드가라(들어가라). 드가몬 그 여자가 있을 기다.”

이래가 인자, 그래 인자 거 여자가, 그리 드간카네 인자 참말로 그래 있으이카네, 여자는 죽은 듯이 있지. 그래가 인자 하룻밤을(하룻밤을) 차고 인자 사귀기로 했는 기라.

그러이 이 사귀자 지가 하모 마 돈이 보석도 마이(많이) 있고, 돈이 마

이 있으노йка 자꾸,

“논밭을, 논밭을 나는마중(나을 때마다) 사라.”

카거든.

“집도 좋은 거 사라.”

카고. 이래노이 그 한 분 갔다, 대구 갔다 오더니만 돈을 갖다 이래 사고
이랬는데, 그래 인자 그이 저거 사춘이, 사귀도록 해준 사춘이 뱅이(병
이) 나가지고. 자기 복에 채인는 거 갖다가 그 전답 사고 이래 샀는 거
부자되는 거, 보고 마 뱅이 나뻐는 기라. 그래가 돌아가, 돌아갔다 하는
이런 소문을.

[해운대구 설화 61]

오누이가 넘다 동생이 죽은 달래고개

이상배(남, 1934년생) 구술

2012년 2월 18일 채록

[재송동 재송정경로당(남)]

이게 전설인가 확실히(확실히) 모리는데, 저 영덕(‘영동’을 잘못 말함)
가맨 저 다낭는 고개, 박달재, 박달재. [조사자 : 박달재, 예 예 그렇지.]
고개 가몬 다낭는 고개, 다낭는 고개. [조사자 : 다낭는?] 달랐는 고개,
달랐는, 줄랐는, 줄랐는 고개, 달랐는 고개. 그 뜻이 뭐냐 하몬, [조사자
일행 중 여학생들을 보며] 아가씨 들어도 할 수 없다.

어예 됐는가 하모, 남매가 안자 그 고갯 넘어가 인자 볼 일 보러 가는
데, 인자 여자는 누나고, 남자는 동생이고, 그래 가는데 비가 오는 기라.
고개 남매가 들어가고. 비가 오는데 아 누나 앞에 비단치마를 입고 옷들
다 젖으이 몸이 싹 나체 안 됐나, 나체. 그러이 마 신장이 일라는 기라.

그러나 누나, 누나는 고개 넘어가고, 동생이 그럼 팔분당(‘팔부 능선쫘’
의 뜻인 듯함) 가두 간께, ‘이거 도저히 내가 살 수 없다. 좀 참 달라기
도 모(못) 하고, 그래 고개 만다(꼭데기에) 가 방우에다 인저 목을 찍었
는데 죽어뻘네.

[조사자 : 아, 자기 그걸 잡고.] 음. 찍어 죽어뻘네. 그래 동생이(‘누나

가'를 잘못 말함) 야중에(나중에) 올라가보이 찍어 죽어뺏는 기라. 그래
가 그 누나 하는 소리가,
“야, 이놈아 달라는데, 한 분만 달라 켜이몬.”
이 달라는 고개 이름이 돼. [조사자 : 달라는 고개.] 예, 달나는.

[해운대구 설화 62]

보동댁 집에 놀러간 조동양반과 부동양반

강선이(여, 1926년생) 구술
2012년 2월 18일 채록
[재송1동 재송정경로당(여)]

옛날에 조동양반과 부동양반은 같은 동네 살고, 보동때기는(보동댁은)
좀 먼 데 살거든요. 먼데 사는데, 그래 인자, 조동양반이 그래 부동양반보고,
“거 부동댁이 집에 놀러 가자.”
카거덩.
“부동댁이 집에 놀러 가자.”
카니께. 그래, 인자 저 저 조동양반과 부동양반과 부동댁이 집에 놀러 갔
거덩. 놀러 가가지고 조동양반은 그래,
“부동양반은 밖에 서가 있으라.”
카고, 지는 어느 술밭으로 술 드가더란다. 술 드가가지고 암만 기다려도
안 나오더란다. 그래 난중에 보이께네 허연 뜨물로 한 바가치(바가지) 덮어
쓰고(덮어쓰고) 나오더란다. [조사자 : 뜨물을 덮어쓰고.] 야. 그래가지고,
“니는 여 그네 타고 있어라, 내 보동댁이 집에 드갔다 나오께.”
하더마는, 그래가지고 드갔다 나오디만 허연 뜨물을 한 바가치 덮어쓰고
나오더랍니다. 그기 끝입니더.

[해운대구 설화 63]

과부 집에 송기 팔러 갔다 낭패 본 송기장사

강선이(여, 1926년생) 구술

2012년 2월 18일 채록

[재송1동 재송정경로당(여)]

옛날에 인자 이 대감집에서 메느리를(며느리를) 봤거든요. 대감집에 아들 하나뿐인데 메느리를 하나 봐놔노이, 그래가지고 이 대감집에 인자 그 메느리랑 아들랑 인자 한 백일쯤 되이께네, 얼마나 좋을 땡고 그자. 한창 좋을 땡데, 마 인자 거 신랑이 턱 죽어뻘네. 신랑이 턱 죽어뻘는데, 한 백일, 결혼한 지 한 백일 됐는데, 한창 좋을 땡데, 신랑이 턱 죽었다. 대감 아들이 죽어뻘다. 죽어뻘렸는데, 그래 인자 마 이기 메느리가 마 메느리가 방안에서 활긱하고 마 죽을 때가 다 돼 가거든. 신랑이 너무 아까바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재산도 많고, 대감집인데.

그래가 웅기장사가 웅기를 한 짐 지고 이래 드간께네, 그래 인자 이 머슴이 있었거든. 머슴이 있는데 이 대감 마느라가, [말을 바꾸어] 이 인제 대감 메느리가 한 분은 머슴을 불렀어. 머슴을 불러가지고,

“온 저녁에, 오늘 목욕 싹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방으로 오라.”

카더란다. 방으로 오라 캐서 그래 인제 머슴이 ‘뭐 꺾일란가’ 싶어가지고 겁을 내가 쫄쫄 땀다. ‘와 이라는고?’ 싶어가이고. 그래 참 목욕하고 그래 대감 메느리 방아 드갔거든. 드가이 벌벌벌벌 떨거든, 지 꺾일라나 싶어가. 벌벌벌벌 떨고 있으이, 그래가 인자 옷을 한 벌 좋은 거를 착 내 줘가지고,

“입어라,”

그 머슴을 입어라 카더란다. 입으라 캐서 입고 앉아가지고 텅텅텅 떨고 있으이께, 그래 좋은 이불로 착 패디만, 비단이불로 턱 패디만,

“거 눕으라.”

카거든요. 눕으라 캐서, 아이고 지 꺾이까 싶어서 겁이 나서 내 떨고 있으이께, 지도 인자 마 턱 눕거든. 눕어가지고 인자 마 한창 재미 보는 기라.

재미 보는데, 웅기장사가 웅기를 한 짐 지고 지내가이께네,

“들오고.”

카이 드가고,

“나오고.”

카이 또 나오고, 이래쌓고, 뭇이 지 들오라 카는가 싶어가지고, 한 짜죽 (자국, 즉 발자국) 대문간에 덜놓으께네(들여놓으니),

“나가고.”

카더란다. 또 한 짜죽 냈다. 또,

“들오고.”

캐서 또 한 자죽 덜렀다. 웅기를 한 짐 지고, 대문간에서 들오고 카이께, 또 드갔다가 나가고 카이께 또 나갔다. 이러면서 웅기를 한 짐 지고 드갔다가 나갔다가 발로 덜렀다가 냈다가 하다 보이, 웅기가 마 작대기로 잘못 쪼여가서 짜-닥닥 마 웅구짐을 다 자빠러뜨렸췌거든. [조사자 : 아 이고 오오.] 절로(잘단) 났거든요. 그 웅기장사가 마 망해뿌렸어요.

[해운대구 설화 64]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4)

김복례(여, 1938년생) 구술

2012년 2월 18일 채록

[재송1동 재송경로당(여)]

아들이 과제로(과거를) 하러 가는데, 즈그 엄마가 봉사라. 그래가지고 인자 이 엄마로 놔놓고 갈라 카이, 아들이 인자 그게 해봐노이,

“엄마, 엄마. 뭐로 해주는강 항상 그거로 남가라.”

이래노이카네, 인자 메느리가 해줄 건 없고 신랑도 없는데 시어머니는 봉사제, 그래노이 꺼시(지렁이) 그거로 파가지고 매일 국을 끓이주놔놓이, 자기 눈으로 몬 보니까 인자, 꺼시를 한 바리씩, 거 그 옛날에 자리 깔고 잤잖아요, 지금 장판이 아이고. 이러이카네 고 밑에 여놓고(넣어놓고) 여놓고 했는데, 아들이 오이카네 살이 뽀-하이 찌가 있거든. 그래,

“어무이, 뭐로 해가 이리 먹였는교?”

이라니카네. 그래, 메느리는 말로 안 하는데,

“야야, 내가 이거로 이래 징거(증거) 할라고 이래 넣어놨다.”

카민서 자리로 이래 들더랍니다. 그래 보이 전부 꺼시더랍니다 그제. 그 래 그제 살이 통통하이 찼더랍니다, 어마이가. [청중 : 꺼시가 약 아이 가.] 그기 인자 옛날 역사 이야기지 인자.

[해운대구 설화 65]

달지 않는 인가죽 신

김복례(여, 1938년생) 구술

2012년 2월 18일 채록

[재송1동 재송정경로당(여)]

옛날에 예 인자 머심살이(머슴살이), 몬 살아가 머심살이로 많이 안 들어갑니까 그쵸? 머심살이를 하는데, 주인하고 약속하기로, 이 신발이 떨어져야 인자 이, 인가죽을 가지고 신발로 신었, 집어가 신었는데, 사람 살키(살) 이기 자고 일어나몬(일어나면) 이기 돌아난답니더. 야, 그래가 인가죽을 가지고 신을 삼아가지고 들어갔는데, 아무리 자고 일라몬 그기 이래 또 살이 찌가지고 안 달가지고(닿고), 안 달가지고 이라는 기라.

그래, ‘이 신이 떨어져야 니가 이 집에서 머심살이를 하고 나간다’ 이래 약속을 했는데, [강조하여]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놈의 신발이 안 떨어져가 못 나가는 기라, 그 집에서.

그래가 인자 하루는 누인데 물으이카네,

“그거로 그래 할 게 아이고, 모 패기 안 있습니까, 나락 비고 난 패기, 그거로 가가 밤새도록 뽀대라(‘문질러라’의 뜻). 뽀대며는 그기 떨어질끼다(뚨어질 것이다).”

그래가 그 사람이 그 밤새도록 뽀대가 신발이 떨어져가 나가더랍니더, 그 집에서.

[해운대구 설화 66]

구렁이로 보이는 제삿밥의 머리카락

김복례(여, 1938년생) 구술

2012년 2월 18일 채록

[재송1동 재송정경로당(여)]

옛날에는 이 사람이 죽으려는 갖다 안 묻고 이래 들켜마에로(너덜링 처럼) 이래 걸치놓는갑대예(걸쳐놓는 모양이지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는 그래 걸치놓는데, [조사자 : 저 바닷가 같은 데 가몬?] 아니, 산 속, 산에 가가 이래 안 묻고 나무에다 이래 걸치가 놔놓는갑대예.

그래가 인자 소금장수가 인자 소금을 팔라몬 재로 넘어가가 동네 하나 있고, 또 재로 넘어야 동네 하나 있고 이렇다 아입니까, 옛날에는. 지금 이사 이래 뭐 집이 많으이카네 그거하지마는.

그래가 가다가 가다가 해가 넘어가가 인자 잘 데가 없어가지고. 고 밑에 인자 들어가가 인자 자몬 그래 좋답니더. 야, 지붕 밑에. 고 밑에가가마(가만히) 눕어있으이카네, 그날 저녁에 제사가 돌아왔는가, 친구 하나가 오디마는,

“이보게, 이보게. 오늘 내 물 얻어먹는 날인데 따라 가자.”
이라이카네,

“나는 안 갈라네. 손님이 와가 있으이카네.”

그 사람이 있으이카네, [조사자에게] 손님 아인교 그쵸? 그래 인자,

“손님이 와가 있어서러 나는 몬 가이카네, 자네가 가가 마린(마른) 것은 싸가(싸서) 오고 진 것은 자시고 오소.”

이러 켜는데, 얼마 안 있으이 또 오더랍니더, 그 사람이.

“야 이 사람야, 마 마, 구리로(구렁이로) 삶아놔서러 마, 손지인데 마 부아뿌고(부어버리고) 왔는데 어째 됐는가 모르겠다.”

이러카더랍니더. 그래서러 그 사람이 날이 새가지고 인자 동네마당 이래 찾아가이카네, 인자 제사로 지내몬 인자 물밥을 해가 삼직거리(삼작거리, 즉 대문 밖 길거리) 안 놔놓습니껴. 고거로 보고 인자 들어갔는 기라. 들어가이카네 아가 디이가지고(테여서) 마 난리더랍니다.

그래 인자 그 사람이 그 이야기로 하민서러,

“제사로, 다른 날로 받아가지고 제사로 잘 모시주라.”

이리 하더랍니더. 야 그것도 역사라요. [웃음] [조사자: 그래 재미난 이야기네요.] [청중: 잘 하네] [조사자의 유도에 따라 청중들이 박수를 보냄] 그런 때문에 제사 지낼 때 이 멀카락(머리카락) 이거로 제일로 소중하게 여겨야 되거든요. 그런 때문에 암만 머 잘해보도 그런 기 들어가몬 운감을 몬 한답니더. 귀신은 머리로 갖다 구리라 칸답니더. [조사자: 머리를?] 야.

[해운대구 설화 67]

도깨비와 씨름한 사람(17)

김복례(여, 1938년생) 구술

2012년 2월 18일 채록

[재송1동 재송정경로당(여)]

우린 쪼겐해서(작아서) 나와서 몰라예. 다섯 살 무서(먹어서) 우리 저저 지금 전라도 내나 내장사 있지예. [조사자: 내장사.] 야.

마루에 이래 비 오고 이라면은, 마루에 인자 있으면은 해가 설빏-(설빏) 안 하는교 그쵸. 그라몬 도깨비가 불이 하나가 났다가 마 수무남(스물 여) 개 짹 났다가(났다가) 마 난립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예, [조사자: 아 그래예. 도깨비.] 야, 도깨비가.

그래가 인자 장에 인자, 장날 인자 어른들이 장에 가면은 술이 얼그리(얼근하게) 취해가 인자 뭐 쫄 장을 봐가 이래 온다 싶으면, 도깨비가 씨름을 하자 칸다 하대예.

씨름을 하면 도깨비는 왼쪽다리가 세답니더. [조사자: 왼쪽다리가요.] 야. 그러йка네 그걸 쪼개 아는 사람은 왼쪽다리로 먼저 들몬 이기는데, 한 사람은 인자 그거를 모르고 하다가 마 졌어. 지йка네 도깨비 이기 마 샘에다 갖다 빠차뿐는(빠트려 버렸는) 기라. 샘에다 갖다 빠치йка네, 막 사람 살리라 카이 인자, 사람들이 마 낀지(건져) 와도 그 사람의 혼은 반이 안 나갔겠습니꺼.

근데 우리 할아버지라 카는 사람은 참 힘이 좋아예. 그래 그 내막을 알아가지고 딱 씨름하자고 오더랍니더. 오는 거로 왼쪽다리 탁 들어가 찼는 기라. 도깨비가 저서러 자기, 춘에는 와 한복 입으йка네 허리끈 있다 아입니꺼? 그거로 가지고 마 나무에다 뽕뽕 묶아 놓고 그 이튿날 가йка네 부지깽이더랍니더, 그기. [청중: 부지깽이? 빗자리, 빗자리.] 야. 빗자리고. 그게 도깨빔니더. [조사자: (웃으며) 아, 맞아예. 진짜 호랑이 담배 쫄던 시절 이야기네.]

그러йка네 옛날에 어른들이 여자들 앉으며는 빗자리 그거 깔고 앉지

마라 이래쫘거든요. 불 때가 밥해 먹고 이라몬. 거기 뜻이 인자 거기거든요. 글는데 거기 도깨비가 돼가 그래 나간답니더.

우리예 쫘맨해서 마루에 요래 있으모예 마, 불이 팍 하몬 마, 뗏 개가 되는지 마 번쩍번쩍번쩍 합니더예. 밤에 보몬예. 그랬다가 또 하나가 됐다가 마, 열 개가 됐다가 마 막 그라고 땡기요, 도깨비가. 옛날에는 도깨비도 많았어예.

[해운대구 설화68]

며느리의 방귀 힘(2)

김추자(여, 1940년생) 구술

2012년 2월 18일 채록

[재송1동 재송정경로당(여)]

이저 메느리 저저 시집을 떠 와났는데 얼굴이 노란, 노랑탱탱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야야, 니가 어째 왜 저, 니가 와 그리 얼굴이 노랑탱탱하노?”

이라이카네,

“모르겠습니더.”

이러카더란다. 그래가 또 한 분 있으이카네 얼굴이 더 노랑탱탱해가,

“얼굴이 와 그래 노랑탱탱하이.”

“내가요, 방구로 몬 끼서 그렇십더.”

카더란다.

“그래, 방구를 끼라.”

이라이카네,

“그라몬 인자 신량은 이짝 모탕이 잡고, 인자 신량 시아바시는 저짝 모탕이 잡고.”

그래 인자 앞에서 방구로 풍- 끼니까 집이 뒤로 숨-. [일동 웃음] 그래 또 인자 뒤애가 끼이카네 집이 또 앞으로 쭈욱 밀리오고, 그래 방구로 갖다 네 찰로(차례를) 끼고 나이카네,

“아이고, 인자 시원하이 괜찮다.”
카매 집을 딱 바로 해놓더랍니다. [일동 웃음]

[해운대구 설화 69]

장군이 아들 태를 낳은 장산의 제왕판 바위

박문자(여, 1934년생) 구술

2012년 2월 18일 채록

[재송1동 재송정경로당(여)]

내 젊을 적에, 저저 뒤흔, 제왕판 밑에 거로(그곳으로) 찾아갔거든. 나 물 캐러 가갖고, 그 제왕판 밑이다. 제왕판 할매가 내 이바구로 하대. [청중: 거 가몬 포가(표가) 있다.] 말고 [청중: 제왕판 밑에.] 장산에 제왕판이라 하는 있어. 큰 방구가(바위가) 이래 있는데, 밑에 여게 납딱하이 요래 있어. 있어. 있고 요는 인자 다 막히뿌리고(막혀버리고), 여는 인자 머 전신에 나무가 이래 있고, 근데 내가 젊을 때 무슨 지랄로 거기 [웃으며] 기갔던고 몰라.

그래 인자 나는 궁금한 기라. [청중: 아들 놓을라 카모.] 거기 아니 그 생각도 없고, 제왕판이 있다 하는데, 그놈을 내가 봐야 되겠다 싶으니, 거 가모는(가면) 우리 할매가 이바구, 우리 할매는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는데, 가위 낀 것도 있고, 인자 장, 그라모 거기 [청중: 텃줄.] 장군이 아를 놔갖고(놓아서), 아를 그래 낳고(낳고), 태를 낳고 올라갔다는 포가 있다 이라대.

그래가 그놈 보러 갔는데, 거꺼정 가기는 갔는데, 여 인자 우묵한데 여러 들어가야 돼. 우묵한데 여 들어가야, [작은 소리로] 무십아(무서워) 못 들어가겠대. 그래서 다가갖고 거로 내가 못갔다 왔어예. [조사자: 아 하, 그랬습니까?] 예.

태산겜은 방애가(바위가) 이래 있는데, 백면이(벽면이) 이래 매끈하대. 매끈한데 여기가 넘떡한 방애가 있어. 고까지는 갔는데, 뭐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는 볼라 카이 무십아 안 되겠더라.

[해운대구 설화 70]

은혜 깊은 두꺼비(2)

박문자(여, 1934년생) 구술

2012년 2월 18일 채록

[재송1동 재송정경로당(여)]

이 인자 계모가, 계모가 너무 이 딸을 갖다가 밥도 안 주고 너무 구박을 하는데, 이 딸은 이거는 어디 의지할 곳이 없어갖고 인자, 참 부엌에 서러 인자 계모가 주는 밥떡거리만 주와 먹고 이래 있으니까, 하문(한번) 비가 오는 날에 두꺼비(두꺼비) 새끼가 한 마리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네 이 아가씨가,

“니도 어찌 내강같이 이렇게 쓸쓸하게 이렇게 생명을 태어났노.”

이라면서 이걸을 지가 치매 앞에 싸갖고 거 나무 무더기다(무더기에다) 거 놔놓고, 불 때몬 지가 안고 그거를 불을 때고. 이래가 지가 가몬 여다 영어놓고 그래 가고 이랬는데.

그래 이 계모가 이 딸로 죽이야 돼. 죽일라고 작정을 했는데, 인자 이거 머슨 약을 퍼먹어갖고 죽일라 했는데, 이 약을 갖다가 이 두꺼비가 다 빨아땡기뿔는 기라. 그 독을 다 빨아땡기뿔는 기라. 거 독을 다 빨아땡기뿌리고 이 두꺼비는 거서 죽어뿌렸어. 이 본여자 이 딸으는 실신을 해가 있고.

그래가 계모가 탁 가서 보이까네, 두꺼비를 턱 보이까. 두꺼비가 계모로, 계모 그거 저거를 갖다 싹 빨아땡기뿌리고, 계모가 거서 바싹 말라 죽어뿌렸다 안 하요. 지 독으로, 그래 마 두꺼비가 죽으면서 계모까지 다 잡아가갔는 기라. [조사자 : 음, 그 처이는 안자 다시 정신 차리고 살고.] 야, 정신 차리고 살고, 그런 역사가 있어라고요.

[해운대구 설화 71]

주인 살린 충견

박문자(여, 1934년생) 구술
2012년 2월 18일 채록
[재송1동 재송정경로당(여)]

이 선비가 친구 집에 간다고 개로 다리고(데리고) 갔는데, 산골로 산골로 넘어가다가 보이까네, 그 친구 집에 제사로 뭐 얻어 무려(먹으러) 갔다든가.

그래 갔다 오다가 술이 취해 갖고, 그 산을 넘어 오다가 거서 잠이 들어뻘다아인교. 잠이 들어뻘으이까네 이 얼어 죽을 거 아입니꺼.

이 개가 주인 이 심장으로 덮어갖고, 엎디리가 덮어갖고, 그래가 살리놓고, 살리놓고, 그 개가 날이 새갖고 즈그 집에 와갖고 기별로 해서 주인이 살았다 안 합니꺼.

[해운대구 설화 72]

물이 들지 않은 산꼭대기 상여바위

박문자(여, 1934년생) 구술
2012년 2월 18일 채록
[재송1동 재송정경로당(여)]

생우바우라고, 우에서 땡때이 말랭이(‘꼭대기’의 뜻) 넘떡한(넙적한) 방구 안 있는교. [조사자: 생우바위.] 그거 생이바우라 하대. 생이, 옛날 그거 행상 하나 놓을 만 [조사자: 상여.] 애. 놓을 만치 고만침 고기 물이 안 들었다 하대. 그래갖고 그 방구 이름이 생이방군데, 우리 어무이가 이야기 하더라고.

거 가서 보문은 그게 옛날에 거 와 조개 붙었는 거, 꼬배기 껍질도 있고, 뭐도 있고 있다 하던데. 예, 옛날 천지개벽할 적에. 우린 그런 거 못봤다. 거 붙어가 있다 카던데. [조사자: 생이바우가 인자 이야기가 그러네.] 야. 그만치 물이 다 들었는데 요 생이 하나 앓을 만땅(만큼) 요 물이 안 가갖고 그리 거기 생이바우라.

[해운대구 설화 73]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5)

이원룡(여, 1925년생) 구술

2012년 2월 20일 채록

[재송1동 재송시장경로당]

그래 옛날에 늙은이가 봉사가 돼가지고, 시어마이가. 메느리가 아들은 돈 벌러 가고 없고, 만날 시어마이가 봉사가 되어 들앓았으니, 메느리가 날수금(날마다) 뭘 해다 줘. 뭘 이 맛이 있는 기라. 맛이 있어놔놓이까로 그놈을 먹을 때매정(때마다) 한 마리씩 꺾지가지고 자리 밑에 열었어(넣었어).

자리 밑에 조열어놓이까, 그래 난중어는(나중에는) 인자 아들이 와서 보이까, 뭘신고 싶어서. 야야 내가, 얼굴이 좋거덩. 살이 찌갓고. 우째 어무이를 얼마나 근친을 잘 했는공 이래처력(이처럼) 살이 찌고 이랬는공 싶어. 그래가,

“어무이요, 어무이요. 뭘 자셔서 이렇습니까?”

카이,

“아이고, 모르겠다. 너 처가 뭘을 때마당 해주는데, 그래 먹고나이 그래 맛이 있더라.”

이런 기라.

그래가지고, 먹을 정마당(적마다) 인자, 뭘을 한 마리씩 갖다 이래 꺾져가지고 채리 밑에 열고, 열고 이래. 그기 말라 붙어서, 말라 붙어 놔놓이까로, 그래 인자 아들이 오이까.

“야야, 니가 이거 한번 봐라.”

그래 놔놓이까 인자, 자리를 들시(들쳐) 보이까, 꺼시(지렁이)가 뼈쩍 말라가지고 떡 붙어가 있거덩. ‘아, 이기 사람한테 그리 좋은가.’ 그래 마누래는 안 머리카고(나무라고), 그래 이해하고 말하더란다. ‘이기 사람한테 그리 좋은가.’ 그래, 그래가지고 인자 꺾저내 보이까, 전부 거시가 말라가지고, 뼈쩍 말라가지고 붙어가 있거든.

“저 이 어무이요, 어무이요. 이기 그리 좋습디까.”
카이,
“어야, 좋더라.”
그래가지고, 그 난중에는 알고 보йка 꺼시더라. 그래, [조사자 : 살도
찌고.] 살이 보 하이 해갖고, 그래 저거 하더라.

[해운대구 설화 74]

며느리의 방귀 힘(3)

조남순(여, 1920년생) 구술
2012년 2월 20일 채록
[재송1동 재송시장경로당]

메느리 이전에 시집을 와가, 다시 뭐 노란이 이래 뱅이(병이) 들어가
이래 있는데.
“그래 아가 아가, 니가 시집 와가 와 그리 얼굴이 노란병이 들고 그렇노?”
하이,
“아부요, 내가 방구로 몬 끼서 그렇심더.”
이러더만,
“음, 방구 끼라.”
그래,
“저 저 짹 모티이(모통이) 가서러 지둥을(기둥을) 잡으라.”
카거든. [조사자 : 아, 아버지 보고?] 어, 잡으라 카йка. 그래 이 짹에 가
서 잡고 방구를 툭 끼йка네 마 집이 이 짹을 자빠져. 또 저 짹 모티에
가서러 인자 또 있으йка, 또 거 또 잡으라 캐 잡고 있으이, 거 가이 또
방구를 끼йка네, 또 집이 뭐 자빠지고 [조사자 : 집이 또 바로 세워지
고.] 예, 그렇더라.

[해운대구 설화 75]

줄 지어 다녔던 구청 자리 도깨비불

구금자(여, 1928년생) 구술

2012년 2월 15일 채록

[중1동 7통경로당]

새복에(새벽에) 그래 일어, 인자 일어나이께네 구름이 끼어가 있고 요래 했거든요. 했는데 그래가 이래 내다보고 있으이께네, 이 구청 자리가 지금 옛날에는 요 일제시대 일본 사람 집입니다. [조사자 : 아, 옛날에 구청 자리가, 있었던 자리가?] 예, 일본 사람 집인데, 거가 인제 구청을 했거든.

했는데, 인자 거기서러 뭇이 불이 이래 막 올라오디만은 마 쭈루루 하이 마 줄로 놓는 거라예. 주루루루 해가이고 저 우1동에 저게 그제 인자 산이 지금은 말킴(말끔, 모두) 이거로 그해빼고 아파트를 지아놓이 산이 없습니더. 그 옛날에 산이 밑에 있고 우에 있고 이래 있었거든.

그 산을 갖다, 산인데로(산 있는 데로) 갔다가 왔다가 막 여서러 마 그 불이, 올라갔다가 인자 또 그해가이 또 그해가이 또 사그라져가 또 또 올라오가 또 쭈루루 내려오고 올라가고. 그래 그런 거로 그때 내가 이야기기를 했거든.

[조사자 : 옛날에 그 구청 자리에? 그래 그게 뭔가요? 그 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그 그럴 적에 거기 또깨비불이라 하대예. [조사자 : 또깨비불.] 옛날에는 뭐 그런 기 안 있었습니꺼.

[해운대구 설화 76]

도깨비와 씨름한 사람(2)

구금자(여, 1928년생) 구술

2012년 2월 15일 채록

[중1동 7통경로당]

저게 밀양 사람인데 이사를 오가 우리 집에 아래채에 살았거든요. 살았는데, 그래가 인자 시골 장에 가가이고 인자 보리쌀로 팔아가이고 지고 오는데, 인자 술로 한 잔 묵고 늦가 늦가 마 시골에는 오일장 아입니까? 옛날부터 오일장이께네, 인자 가서러 친구들도 만나고 이래가 술로 묵고 이래가 인자 지고, 인자 어둡아서 이래 올라오이께네, 그래 나오디만은, 할매 이름이가 금, 금 뿔이다.

“아무것이 아무것이 어데 갔다 오노? 자아(장에) 갔다 오나?”

카맨서러 땡 나오더랍니다. 이래가 인자 가을인데, 인자 나락이 이래 막 누루무리하이 해가이 있고 이렸는데, 그래 나오디만은,

“그래, 어 자아 갔다 온다.”

이러카이께네,

“그럼 내캉 씨름 한번 하세.”

이카더랍니다. 씨름 하세 카더랍더. 그래가이고 그놈 져던 보리 한 가마, 보리쌀 한 가마이로 져던 거로 내라놓았는 기가, 그 이튿날 아침에, [말을 바꾸어] 아 그래 내라놓고 씨름 했답니다. 씨름을 막 이래 하는데, 해가이고 인자 이 보리쌀 지고 갔는 사람이 이겼어예.

이기가이고, 그 질로 마 사람이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인자 꿈쩍을 못 하고 마 그양 놔놓고 갔는데, 가가이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인자 그 자리로 인자 보리쌀을 지러 내려오니께네, 그 눈에 그놈을 갖다가 얼마나 거기가 백히가(박혀서) 있었던지 사람이 둘이서 빼도 안 빼지더랍니다. 이래 빼가이고 마 근근이 빼노이 [청중 : 그래도 도둑놈이 안 가 갔던가 배.] 그 시골에는 어데 그런 기 있나 옛날에 뭐.

이래가이고 둘이서 빼가이고 인자 놔놓고, 그래가이고 칼로 가이고, 이래 그거로 해가이고 인자 찢러뺐는데, 보이까네 빗자리 몽덩이다가 칼로 꼽아 났더랍니다. [조사자 : 그때 아, 씨름해가지고?] 씨름해가이고, 이 편이(편이) 이겼는 사람이.

인자 칼을 옛날에는 시골에 가른 남자들 요래 짜깨칼(접이칼) 차고 땡기거든. 그런 거 차고 땡겼는데, 그래 그 놈을 가이고 하다가 마마 힘이 부치이 그놈을 가이고 칼로 가이고 쭈시뺐다 카대. [청중 : 옛날에 기운이 없은께 그런 기 비지(보이지).] 그래 쭈시뺐다, 쭈시뺐다. 그래가이고 가보이께네 빗자루 몽덩이 그 칼이 꼽히가 있고, 그 보리쌀 그거 짐으는

그래가 둘이서러 근근이 빼가이고, 그래가이고 지고 집에 올라갔더랍니다.

[해운대구 설화 77]

죽은 영감 따라 다닌 할멈

구금자(여, 1928년생) 구술

2012년 2월 15일 채록

[중1동 7통경로당]

옛날 그거 저저, 오씨 아저씨 저저 전에 친했던 여자 안 있나. 술 팔고 하던 사람. 전에 요요 도가(都家, 술도가) 여 있었제. 그 할매가 그랬다 아이가.

영감이 오가이고, 새벽에(새벽에) 영감이 오가이고,

“가자.”

카더래요. 가자 캐가이고 자꾸 가자 캐 따라갔단다. 영감 따라서. 영감이 죽고 없는데, 그래가 따라가서 자꾸 따라가이 온 산을 땡기매 마 덩고(테리고) 땡기면서러 얼마나 해매나이, 이 아랫도리 옷이가 전부 다 막 찢히고 막 이러더래.

[청중 : 전에는 그런 일 많아예.] 응, 그래가이고 가만 정신이 쪼깨 돌아오더라네. 마 글(그럴) 적에는 마 죽을 판 살판 내려옴단다. 내려오가고, 그때 여 도가이(도가에) 여서러(여기서) 술장사할 땐 갑다. 못 내려오고 철둑 너미 거서러 저저 아는 집에 드가가 문을 막, 시계가 네 신가 됐다 카대.

문을 막 두드리께네 놀래가 그 집이 듣고 개갯가이 사람이 물에 빠진 것더래. 그래,

“와 이라노? 와 이라노?”

칸까네, 말도 몬 하고 마 손만 잡고 이래썩고 그래썩대예. 그래 한-참 있다가 깨가,

“영감이 오가 날로 가자 캐서, 내가 영감 따라 갔디만은 날로(나를) 덩고 산을 해매고 땡기다가, 그래가 내가 우짜다가 보이 정신이 쪼깨 돌아오는 걸해서 온다고 오이 여꺼정 왔다, 오가이 다시 저 밑에꺼정 못

내려가겠다.”

카맨서러, 그럴 적에, 그래 해가 이야기를 하더라꼬예. [청중 : 그래 저저 저기 기운이 없고, 못 먹고 그런께 보이는 기라.]

[해운대구 설화 78]

곡소리도 못하는 바보 사위

신계선(여, 1938년생) 구술

2012년 2월 15일 채록

[중1동 7통경로당]

바보가예 [웃으며] 장래(장례)로 가거든예. 그래 저 엄마한테 쟁인이 (장인이) 죽어서 가는데, 어마이가 ‘어이어이’ 그래 우라 켜거든.

이놈의 마 [계속 웃으며] 옛날에 돌로가 요리 놔논 물에 노다리(돌다리) 건너다가 잊어뻘는 기라. [청중 : 건너다가 잊어뻘다.] [조사자 : 개울물 건너다가 돌다리?] [청중 : 돌다리, 돌다리 건너다가.] ‘어이어이’ 하고 가다가 고마 팔딱 뛰 건너다가 그러로 잊어뻘어예. 어이 소리를.

그서 인자 흘라쫄께네(잊어버렸으니까), 물에 들어가서 주올라 캐. 물에 들어가서 인자 건지가 가야 될 거 아입니까? 그걸 흘라뻘어쫄지, 이거 가다가. 막 주무께네(주물락거리니) 미꾸레이가(미꾸라지가) 빠- 잡히가 ‘빠야-’, 처갓집에 가가 내 ‘빠야 빠야’. [조사자 : 아, 그래가 아.] [청중 : 바보라께노 안자.] 건졌다고 거서. 옛날 어른들 그라대.

[해운대구 설화 79]

여자 입방청 때문에 가다가 멈춘 섬

신계선(여, 1938년생) 구술

2012년 2월 15일 채록

[중1동 7통경로당]

진주 사천에 그 인자 바다가 있거든예. 바다가 있는데, 비가 인자 오고 바닷물이 많이 하께네, 이런 산이 떠내려가더라 카대. 거가 그 여자가 보고, “어 저 산이 떠내려간다.”

이 소리 안 했으모 거가 좋은 데가 되긴데(될 것인데). 옛날 어른들 그라대. 좋으긴데, 산이 떠내려간다 쿤께, 여자가 방정시리 그 물에 떠내려가는 거를 그래가지고 거 강기섬이라고 있어예. [조사자 : 떠내려가다가 마 멈춰뻤네.] 거 바다 가운데 쪼깐커로 강기 있어.

여자가 그렇게 해논께네, 떠내려가뻤으몬 좋은 데가 되긴데, 그 여자가 방정시리 보고, 산이 떠내려간다 쿤께, 고마 그 섬이 쪼깨난 기, [조사자 : 멈춰뻤다.] 어, 사천 공사장 앞에 거 쪼맨해이(조그만하게).

[해운대구 설화 80]

처녀 귀신이 된 몽당 빗자루

김소학(여, 1933년생) 구술
2012년 2월 14일 채록
[중1동 미포경로당]

어떤 할아버지가 술로 자시고 인자 고개 너머 넘어오이까네, 어떤 색시가 마 막 끌어안는 기라. 끌어안아서, “야, 이놈의 손아 나아라.”

캐이까네 안 놓고, 뿔끈 가 안고. 쪼매난 칼로 내가지고 마 폭 찢라뻤어. 폭 찢리뻤고 색시가 오데(어디) 간데 온 데도 없는 기라.

그래서 아침에 인자 자고 깨가 색시가 죽았는가 싶어 가이까네, 빗자루 몽다리 하나가 칼에 꼽혀가 있더라요.

[해운대구 설화 81]

두꺼비와 결혼한 총각

김소학(여, 1933년생) 구술
2012년 2월 14일 채록
[중1동 미포경로당]

총각이, 없는 집 총각이 팔 밭을 인자 이래 떠지거든(뒤집거든, 즉 갈 거든). 떠지니까 총각이 혼찬데(혼자인데),
“이 밭을 떠져가 누캉(누구와) 묵고 사꼬?”
카매, 소리를 인자 하거든. 이라이까네 어데서,
“누캉 먹고 살아 내캉 먹고 사지.”
이라거든. 그리 이상하다 싶어가 또 그 이튿날 와 떠지모 또 그라모 또 그러고. 그래가 낸중예(나중예) 하루는 가마 보이, 뚜깨비가 이만한 기 돌 밑에서 나와가지고,
“내카 사지.”
카더랴요, 뚜깨비 그기. 그기 변해가지고 그 총각과 그래 그래 잘 사더랴요.

[해운대구 설화 82]

임씨가 심은 청사포 당산나무

김상옥(여, 1939년생) 구술
2012년 2월 13일 채록
[중2동 청사포경로당]

땅 생기고 여 들어가져 처음 들어가 사는, 살은 사람이 임씨가 제일 먼저 살아가지고, [조사자: 임씨가?] 임씨가. 임씨가 너무 먼저 들어가 살고, 고 다음에 장씨고 김씨고 요래 들어가지고 살면서 이 나무로, 그때 임씨 할배가 나무를 숨갸다(심었다) 했지.

임씨 할배, 이 임씨가 요 청사포 사는 임씨가 아니고, 저 나무 심은 임씨가 어디 있느냐 하몬 저저 문현동, 옛날에 거가 메축일 아이고, 저저 그 문현동 그로 뭐라 하더노, 농막이라 하더라, 농막. [조사자: 아 농막 아 농막.] 문현동 저 먼디 거, 옛날 군부대 이래 있었던 문현동 사거리

거게 군부대 있었지요? [조사자: 그렇지. 맞아예.] 군부대 있었으면서 저 안으로 쪽 들어가이니까, 꼴짜기 들어가이 동네가 있는데, 그게 농막이라 하네. 문현동 꼴짜구로(꼴짜기로), 인자 바닷가 이쪽으로 밑으로 말고.

거게 임씨가 인자 살았는데, 그 임씨 할매네 집에서, 그 이 나무를 심 었는 사람들 글로 이사를 가 거서 살았다 하대.

[조사자: 근데 아까 전에 안자 그 남편이 고기 잡으러 나가가지고 요서 바로 이 자리에서 기다렸던 모양이지예?] 아마, 이 바윗돌 여서 그랬는가 싶어. 여 돌이라 캐야 여어뻘에(여기밖에) 없었거든.

[해운대구 설화 83]

조난 때 본 첫배

김상옥(여, 1939년생) 구술

2012년 2월 13일 채록

[중2동 청사포경로당]

옛날에 거 일본 다니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 뭐야 그 저 무슨 배고, 그거 여 밀선하는 배. [조사자: 밀선.] 밀선배로 타고, 인자 옛날에 일본에 많이 댕겼는 갑대. 밀선배를 타고 왔는데, 그 저 차술 할무니 집에, 부산에 영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저는 그때 가는데 일본을 들가는데, 배가 한 대, 배가 인자 마 기름이 떨어지고 기계 고장이 나가지고, 배가 몬 가고 중간에 머물고 있었는데, 배가 하나 풍풍풍 오서,

“아이고 저 배 온다. 배 오몬 인자 물도 좀 얻어먹고, 좀 뭐라도 곤치 줄다고 하겠다.”

이라고 인자 기다리고 있었는데, 배 짚에(결에) 오면 평 카매 마 사라지 뿌고, 허재비 불이라. 사라지뿌고, 또 배가 한 대 어데 만치 또 떠내리 가 다보면 또 배가 한 대가 풍풍풍 온다 하네. 소리로 탕탕 내면서 오몬, ‘아이고 저 배 오는데 저 배는 우리가 좀 살리주겠지.’ 이라고 인자 짚에 딱 오몬 평 카매 사라지뿌고, 옛날 그라더라네.

[해운대구 설화 84]

파천 배에 바가지를 달라 하는 도깨비

김상옥(여, 1939년생) 구술

2012년 2월 13일 채록

[중2동 청사포경로당]

이 동네 사람은 인자 옛날에, 옛날에 이 쪼매는(조그만) 배에다가 노 젓는 배거든. 옛날에는 기계가 없고. 노 젓는 배를 저기 저 먼 바다에 나가고 나뭇, 혹시 인제 배가 인제 배가 배 밑이가 뺑구가 나가주고 물둥, 물이가 통통 들온다 카네.

들오몬, 그래 인자 바가치로(바가지로) 퍼내는데, 헛깨비가 한분씩(한 번씩) 들온다 하네. 마주친다네. 그러면 즈그 배도,

“물이가 담았으니까 바가치 좀 줄라.”

한다네. 바가치, 물 퍼낼라고 바가치를 줄라 한 대. 허재비가 아예 말로 한 대.

바가치 줄라 해가지고, 바가치로, 그 경험 있는 할배들은 경험이 있어가지고 바가치 밑으로 탕탕 깨가지고 준다네. 주모, 아무리 퍼도 바가치 밑게(밑으로) 빠졌뿐이까네 물로 몬 퍼고, 배도 치파를 안 당한대.

모르고 인자, 바가치, ‘아이구 저 배 가서 저래 고장이 났으께 물로 조야(주어야) 되고 바가치를 주야 되고.’ 싫어가 인자 선(성한, 멀쩡한) 바가치 주모, 그 배가 이 배로 물을 퍼여가지고 배로 물을 담아가이고 내리안차뿐다(내려 앉혀버리다) 하대.

[해운대구 설화 85]

장사가 아이를 낳은 용궁사 바위

김상옥(여, 1939년생) 구술

2012년 2월 13일 채록

[중2동 청사포경로당]

용궁사 앞에 거는 가몬 또 용궁사 바윗돌이가 물에 쭉- 있는데, 바윗돌이 좀 불그무리해.

그기 인자 옛날 장사가, 장사가 거서 인자 애기를 거서(그곳에서) 낳았다 하는데, 애기를 거서 낳았다 하는데. 이리 애기를 놓으면서 장사가 이래 무릎을 이래 꿇고 이래 낳았는데, 이 무릎 드갔는, 무릎 꿇았는 자리가 있고. [조사자 : 아아, 고기가.] 예. 애기 낳은 자리가 있고, 애기 땃줄 꿇으면서 인자 가위 가이고 났던 자리가, 이리 가위 자축들이(자국들이) 있고. 가위 가이고 땃줄 꿇어가지고.

근데 그 애기가 장사가 났는데, 그 장사 엄마하고 애기하고 하늘로 올라가뵈다 하대. [조사자 : 아, 거기서 낳아가지고?] 응. 그래서 거 용궁사 거 바윗돌 밑에 거 가몬, 거기 그 전설이 있지.

[해운대구 설화 86]

혈이 끊겨 인제가 나지 않는 청사포

김상옥(여, 1939년생) 구술

2012년 2월 13일 채록

[중2동 청사포경로당]

이 산이 저저 달맞이 산 있지요. 이 산이가, 전부 이 산에서, 여 뒷산 여기 여기 여 구덕을(구덕포를) 넘어가는, 송정 넘어가는 바윗돌 있는 요 까지가 황소거든 황소. 이 황소등이란 말이다. [조사자: 아, 황소가 누어 있는 산이네.] 응, 황소등인데, 미포는 꼬리 미(尾)자를 붙여가지고, 개포(浦)자를 붙여가지고 미포(尾浦).

여여 구덕포는 황소 머리니까네, 머리 두(頭)자를 붙여가지고 인자 구덕포(실제 한자는 ‘九德浦’임)라 카는 동네가 났고, 우리 청사포는 뭇뭇 맑을 청(淸)인강 모래 청인가, 맑을 청을 붙이고 모래 사(沙)자를 붙여가지고 청사포(실제 한자는 ‘靑沙浦’임)라 붙이고 그랬는데. 여여 다리 넘어가는 데, 뭐야 신세계(‘신도시’를 말함) 넘어가는 길 있지요? 길 그게 황소 목인거라 이게.

근데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나와가주고 인자 우리 조선 온 팔도조로 다니면서 인자 이 산 줄기 인자, 장산(장사가) 나기나 머리 천재가 나기나 이런데, 산 혈만 땀기때 좋은 혈만 땀기때 다 끊었는 기라. 그때 이 도로로 끊었거든.

그라고부터 이 동네가 인자 나이가 좀 남자가 좀 생기가, 태어나몬 한 쪽 머리가 좀 영리하고 좀 굵기 생기날만 하몬 삼십대를 못 넘구는 거라. 삼십을 못 넘구고 젊을 때 다 죽고, 그렇다 하대.

[해운대구 설화 87]

산 청상에 광어가 얹은 광아산

김상옥(여, 1939년생) 구술
2012년 2월 13일 채록
[중2동 청사포경로당]

송정서 쪽 넘어가몬, 저 꼭대기 산 높은 데 있습니다. 그 산이가 강가 먼딘데(광아산 꼭대기인데), [조사자 : 광아산, 광아산?] 강가먼디라 하대. 강가산 먼딘데, 그 산에 어찌 물이 그까지 찻을고? 옛날에는 모르지. 그 광아가(광어가) 한 마리 얹혔다 카고, [조사자 : 강아, 산꼭대기에 광어가?] 응. 그래서 강가먼디라 말은 이라대.

[해운대구 설화 88]

처녀 귀신을 태워준 택시 기사

김상옥(여, 1939년생) 구술
2012년 2월 13일 채록
[중2동 청사포경로당]

거 처이가 손을 들고 차 태아줄라고(태워달라고) 손을 들어서러 그 택시기사가 차로 세아가(세워서) 인자 아를, 처이를 태았는데, 어테만치 오다가

큰집도 크더란다. 큰 기와집이고 대문이 이래 있는데, 차를 이래 세아놓고,
“기다리라.”
카더라네. 집에 가서 돈 가온다고. 그래서 기사가 암만 앉아서가 있어도,
처이가 드가긴 드갔는데 안 나오거든. 다만 기다려도 안 나오는, 이 기사
로서 가야 되겠는데, 그 집 들어갔는 거라.
들어가이까네 아무도 없고 마, 저거 식구들 뗏이만 이래 있는데, 그래,
“방금 여게 조금 전에 아가씨, 처이 한 명 안 들어오더냐?”
고 하이까네,
“안 들웁다.”
카거든. 그래서,
“와 그라나느냐?”
카이까,
“아무아무 고개서러(고개에서) 아가씨가 손을 들어가 여 태아가 집에
들웁는데, 저저 차비가 없어가지고 차비 받아 가온다는 사람이 안 나온
다. 그래서 따라 들웁다.”
카이까네, 그날 처이 죽은 날 제사더란다.

[해운대구 설화 89]

호랑이 덕에 목숨 구한 아이와 할머니

김상옥(여, 1939년생) 구술
2012년 2월 13일 채록
[중2동 청사포경로당]

어는 동넨고는 모르겠는데, 학생강 장꾼들강 전부 한 차례 뺄스에 실
었는데, 신고 가는데 마 큰 호랑이 하누(하나) 도로 복판에 턱 앉아 있거
든. 이 크라션을 암만 뺑뺑 해도 저 호랑이 안 비끼주고, 불로 캐도 안
비끼주고 아무리 아무리해도 안 비끼주거든.
그러이까네 이 기사가 인자 정험(경험) 있는 기사라,
“이래가 도저히 안 되겠다. 저저 할매요, 이 도저히 안 되이까네, 이

차에 탄 사람이 전부다 자기 옷을 한 가지씩 벗어가이고 저 산신령한테 함 편지보소(던져보소).”

이라거든. 그러니까네 인자 할매가 옷을 하나 벗어 편지이까네, 탁 받아가 이쪽에 들어 내놓고, 또 따른 사람 옷을 벗으니까 탁 받아가 또 들어 내놓고. 학생 하나가, 머스마 학생 하나가 가방을 들고 오는데, 그 학생이가 옷을 벗어 편지이까 탁 받아가 딱 궁디다(궁둥이에다) 딱 요래 깔고 앉더란다.

그래가 인자 그 기사가,

“학생은 혼자 참 안 됐거마는 학생은 내리라. 다른 사람 타고 내리라.” 그랬어. 그러니까네, 그래 학생이 가방을 들고 마 울매 내리지 인자. 아가 겁을 내, 호랑이는 있제 겁을 내가지고 울매 내리고 있으이, 할매 하내이가(한 사람이) 그 아를 내리가는 걸 보고, 가는 걸, 내리는 걸 보고, ‘차만(차마) 혼차(혼자) 어찌 저거로 호랑이 밥 되는 걸 보고, 우리가 보고 있겠노? 늙은 기 내가 살몬 얼마나 살겠노.’ 싫어가지고 그 아로 겁먹는다고 그 할매가 인자 그 아를 학생을 인자 마음 저거한다고 같이 내렸는 거라.

같이 내리고 나이까네, 같이 내리고 나이까 호랑이가 싹 피해뿌거든. 학생도 잡아 묵지도 안 하고, 차고 가지도 앓고. 할매캉 학생캉 딱 내리이까네, 마 차가 호랑이 싹 피해빠까네 차는 지나갔다 인자.

지나가는데 고 너머에 딱 지나가다가 마 큰 높은 낭떠러지가 있는데, 차가 거서 튕굴러가 마 그 차에 있는 사람 전부 몰살해 다 죽어뼉더라네. [조사자: 아이구, 그 할매 학생하고만 살았네.] 학생하고 할매하고만 살았는 거라.

할매는 직심(直心)이 감천(感天)이라. 그 학생으로 이쁜(이편) 손지처럼 못 봐가지고 내리노이 할매는 그 덕에 살았고, 그 학생은 난주게(나중에) 알고보이까네, 그 집 귀한 손주가 되나놓으이, 그 집 할매캉 엄마이캉 절마정 절마정 어는 절에 저저 뭐 돈이든 곡식이든 안 올라간 절이 없더란다. 그 아 이름 안 얹힌 절이 없더란다. 얼마나 공을 많이 들어왔는지. [조사자: 아, 치성을 많이 들었네.] 야, 그래 놓으이카네, 야는 그래가이고 그 산신령이라. 호랑이가 아이라. 그래가 인자 그 아하고 할매하고 그래 살고, 탄 사람은 다 절단해 다 죽더란다.

[해운대구 설화 90]

죽은 노인을 케샷날 태워준 뱃사공

김상옥(여, 1939년생) 구술

2012년 2월 13일 채록

[중2동 청사포경로당]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갔는데, 한 밤중 이래 고기 잡으러 갔다가, 요새는 아침 갔다가 저녁 들어오고 이리하는데, 옛날에는 밤에 잘 안 들었던(들어왔던) 모양이라. 그래 인자 밤에 이래 해가 다 저가고 밤이 이래 돼가는데, 바닷물이 [소리를 내며] 쉬- 막 쉬- 돌더란다.

바닷물이 돌아서로 이상하다 싶어가 가만 보이까네, 어떤 인자 배 물에서 할배 하내가(한 사람이) 이 상투를 꽂이고 상투 여게 머꼬, 꼽는 이 거 머 상투에 꼽는 비네겔은(비녀같은) 거 뭇이고? 머라 카노 그로? [조사자: 상투 우에?] 상투 우에 비네로 이래 꼽아가, 이래가 비네 꼽는 비네 같은 거 꼽는 거 안 있나? 이래 꼽는 거. 그를 뭇이라 하더라? 그거로 꼽고 이랬는데, 그게 뭇이 뭇이라더노? 그래가 인자 그 할배가 쑥- 올라, 배에 올라 오더만,

“지(자기) 좀 태아줄라(태워 달라).”

하더라네.

“태아가 육지로 좀 내려 줄라.”

하더란다. 그래서 그 뱃사람들이가 ‘이상하다’ 싶어 타라고 해가, 태아가 올리가(올려서), 태아가 인자 그 육지 나가가지고, 그 할배 역시도 그날 저녁에 자기 제사라. 물에 빠져 죽었는데 제사라. 이래가 또 거 잘 살더라네.

아주 아주 잘 사는 부잣집인데, 그래 인자 대놓고, 배를 대놓고 인자, 즈그 집에 같이 가자 하더란다. 그래 같이 가자 해가 있는데, 같이 가자는 뱃사공들은 인자 삼작에다(사립문에다) 세아(세워) 놓고, 자기가 드 갔다가,

“내 조금 있다 나올끼йка네, 같이 가자고. 서가 있어라.”

하더라네. 그래가 인자 서가 있었는데, 그래 드갔다 나오더마는,

“아이고, 오늘 내가 밥을 배가 고파 밥을 무려 갓는데, 다른 건 다 잘 먹었는데, 나물로 먹을라 하йка네, 나물에 뱀이가 칭칭 감겨 있어가 나물로 못 먹었다.”

카더란다. [청중 : 머리카락.] 그래가지고 인자 왔다. 오가지고 그 자리에 다부(도로) 실라(실어) 줄라 하더라네.

그래 한 문 나오고 나몬 안 나가몬 될 건데, 지 자리 죽은 자리는 또 혼이 들어가야 되는가봐. 그래 그 자리 태아 줄라 해서 태아 줬다네. 태아 줬는데, 그래 이 뱀사공들이 그날 그 집에 다부 오가지고 그래, 이래 이래한 할배가 아무짝 물에 거서 이래이래 했다고 이야기를 쭉 하йка네,

“그래요?”

카매, 제사 지내고 난 음식으로 우리도 옛날에 그랬다. 청이(대청, 즉 대청마루가) 있으니까 제사 지낸 음식으는 고 상 고대로 놔놓고, 대충 고기만 좀 내가 밥 먹고 이라지, 그 음식 고대로 놔뒀다 뒷날 치우대. 이라는데, 그 집에도 그래 했는 모양이라. 그렇다 하йка네,

“그래요?”

카매, 나물로 까내가이고(끄집어내어) 보йка네 머리카락이 칭-칭 감기가 있더라네.

그래 제사 지내는 사람이 머리카락 제일 조심을 하는 거라. 음식 하는 사람들이. 그래 인자 머리카락 칭칭 감겼으니 그래 그거로 보고 그렇다고. 그래가이고 그 자식들이가 참 고맙지 효자지, 그 뱀사람들로 살림으로 한 삼분의 일로 줬다든가, 뭐 줬다 이래가이고 쥐가지고 그 사람들이 부자로 살았다 하더라.

[해운대구 설화 91]

치갓집도 못 찾는 바보

김상옥(여, 1939년생) 구술
2012년 2월 13일 채록
[중2동 청사포경로당]

바보가 장가로 갔는데, 인자 옛날에는 색시집에 해로 주로 마이(많이) 먹혔잖아(묵히잖아). 해 먹히가지고 오는데, 그래 인자 장가를 갔다가 안자 저거 껄흔식을(결흔식을) 마치고 신랑은 집으로 가고 마누라는 집에서 인자 저거를 하는데, 쟁인걸음(장인걸음)이라 캐가 또 신랑이 처갓집에 가는 길이 있거든.

그래 가는데, 인자 이 아들이 온캉(원체) 바보라노йка네, 인자 배씨네 집이라고, 그 처갓집을 모르거든.

“배씨 집을 찾아가라.”

했는데, 이 배씨로 말하는 것조차 잊어뿌고 몬 하거든. 배로 한 개 주면서,

“배 잊아뿌거든, 배씨네 집 잊아뿌거든 배를 보고 배라고, 배씨 집을 찾아라.”

고 배를 하나 주났디마는, 처갓집을 간다고 배 꼭대기를 감아쥐고, 얼마나 돌리가매 가났는지, [웃음] 좋아가지고 배 꼭대기로 잡고 [강조하여] 막 흔들고 돌리고 가가이고, 마 이기 마 배가 어데로 떨어져 가빠고, 꼭지만 손에 쥐고 갔거든. 손에, 꼭지만 손에 쥐고 갔거든.

그래가지고 그 집에 인자, 그 동네 떡 가기는 가가지고 배씨네 집으로 잊아뿌가지고, 배로 보йка 배는 어데로 가뿌고 없고, 꼭지만 손에 쥐고 있으이, ‘아! 이진 꼭지는 꼭진데 무슨 꼭진지 모르겠다. 옛다 모르겠다’ 하고 마,

“꼭지네 집은 어딘교?”

이라고 찾아 갔는 거라. 꼭지가 뭔지도 모리고. [웃음] [조사자: 아-, 배는 떨어뿌고?] 배는 좋다고 마 뒤 흔들고 가이 배는 어데 떨어져 가뿌고.

“꼭지네 집이 어딘교?”

이라이까네,

“꼭지네 집요?”

꼭지네집 저 아들 노는데 거 가서 물으이께네,

“꼭지네 집 모르겠는데요.”

이라면서, 아 하나가 여기 앵간 좀 똑똑한 아가 하나 있었던 모양이라.

“야 아무거시야, 니(너) 아래 너거 누나 껄흔한 너거 자형 아이가? 너 자형이다. 집에 데꼬(데리고) 가라.”

이래 됐어. 그래가 데꼬 가더라네. 그래가 찾아갔다.

[해운대구 설화 92]

혀가 짧아 내는 보리타작 소리

김상옥(여, 1939년생) 구술

2012년 2월 13일 채록

[중2동 청사포경로당]

삼 형지가(형제가) 살았는데, 인자 새이 돌이는 돌아가고, 막내이 동생만 인자 시동생만 살아있거든.

그러이까네 작은형수도 과부제 큰 형수도 과부제 이러이까네, 인자 큰 형수도 이런 보리타작이고 일로 전부 시동생이 다 해주야 되제, 작은 형수도 다 해주야 되제, 저거도 해야 되제 이러이, 시동생이 마 대 죽겠거든.

그래 타작을, 보리타작을 하맨서러,

“[혀 짧은 소리를 내며] 형쭈씨도 내쪼만 바래고 제쭈씨도 내쪼만.”

내 손만 바랜다 이거라.

“형쭈씨도 내쪼만 바래고 제쭈씨도 내쪼만 바래고, [노래하듯이] 웅~해야 웅~해야 잘도 한다 웅~해야.”

“제쭈씨야 디비(뒤집어), 마 형수씨야 디비 주소.”

인제 이래 해치이, 이거 디비줘야 또 뚜디리야(두드려야) 되거든. 근데,

“형쭈씨요 발리(벌려) 주쪼, 제쭈씨요 때리 주쪼. 저기다 톱보지 나온다.” [일동 웃음]

이래 인자 디비이카네 톱보리가 막 나온다 아이가 인자. 우에 맞안(맞은) 거는 다 털어졌지마는 안 맞안 거는 톱보리가 나오거든.

“여기도 톱보지 나온다 때디라 때디라.” [웃음]

[해운대구 설화 93]

자식 죽여 부모 봉양한 효자[산삼동자 이야기](27)

김상옥(여, 1939년생) 구술

2012년 2월 13일 채록

[중2동 청사포경로당]

엄마가 몸이 마이 아파가지고 영 다 죽게 됐는데, 효자 아들이가 엄마로 병을 고칠라 카이 약을 도저히 돈은 없어가 약을 못 구하고, 그래가 인자 저게 누가 하는 말이,

“약은 좋은 약이 있는데, 그 약은 혼코도(혼하고도) 귀하다.”
카거든.

“그럼 무슨 약인데?”
하이께네,

“자기 아들로 저게 하나 삶아 먹이몬 엄마가 병을 낫겠다.”
하거든. 그러йка네 아가 외갓집에 가고 없는데, 그래 외갓집에 가가이고 인자 아를 데꼬(테리고) 옴는(왔는) 거라. 데꼬 오가지고 아로 마 삶아가 이고 엄마로 약을 먹었다.

먹이고 나йка네, [청중 : 살라고 지랄이다.] 아들이 엄마로 고아 먹일라고, 지가 살라고 하는 기 아이고. 그래가 인자 고아 먹이고 나йка 엄마가 나쌌다.

낮고 인자 보йка네, 그래 난죽에(나중예) 보йка네, 아가,
“엄마, 엄마!”
카면서 외갓집 갔다 오거든. 아를 삶아 먹이고 먹었는데, 어째서 아가 또 오노? 그래가이고 들어서 열어보йка 동샘(동삼)이더란다.

[해운대구 설화 94]

우물에 빠져 죽은 여우

김상옥(여, 1939년생) 구술
2012년 2월 13일 채록
[중2동 청사포경로당]

엄마가 묵 장사를 하는데, [조사자 : 묵 장사, 묵 장사.] 묵 장사를 하는데, 그래 묵을 한 점 팔고 이래가 이래 오йка네 인자 그래 여우가 인자,

“할멈 할멈, 묵 한 덩거리 주문 안 잡아묵지.”

이라거든. 그러니까네, ‘아이고 우짜고! 저 놈이 날 잡아먹을라 하는갑다. 날 잡아 묵으로 우리 아들 어짜겠노.’ 싫어가 인자 묵을 한 개 훌쩍 떼지 주고는 그양 묵 다라이 이고 쫓아 도망을 갔는데, 가고보이 이놈이 금방 다 묵고 또 저만침, 여우 그놈 얼마나 빠르노? 금방 또 오가지고 또,

“할멈, 할멈, 여어 무 한 덩거리 주문 안 잡아먹지.”

자꾸 그래놔논께, 그래 그 난주 여우한테 다 빼끼뿌고, 거 집에 오이까네, 이놈의 여우가 아(아이) 잡아몰라고 떡 읊는데, [말을 바꾸어] 그래 잡아묵자니, 집에 오기 전에 여우가 먼저 읊는 거라 집에.

먼저 오가지고 애들 보고,

“문 열아 주지 말고 문 잠가 놓고 집에 있으라.”

캐나놓으이카네, 요새맨치로(요즘처럼) 세월이 좀 별났는 모양이라, 옛날에도. 그래 문 잠가 놓고 있어라 캐 문 잠가 놓고 있는데, 하도,

“문 열어줄라.”

해사이카네,

“눈교?”

하이까네,

“내가 엄마다.”

“우리 엄마 음성이 아인데요.”

이라이까네,

“맞다.”

카이카네,

“문 구멍으로 손 한 분 열어봐라.”

이라이까네, 손을 내미이카(내미니까) 털이가 시커머이 나가 있거든. 즈그 엄마 손이 아니다 말이야. 저거 엄마 손이 아이라노이(아니라서), ‘아이고 이거 우리가 여우한테 흘렀다.’ 뒷문으로 튀 나가가지고, 아 서이가 뒷문으로 나가가지고 인자 뒤에 웅달 샘이가 이래 있는데, 샘이가 좀 깊은 모양이라, 두레박질 하는 샘이가.

그 감나무가 인자 나무에 이래 있는데, 그 둘이서 서이서 그 감나무 타고 꼭대기에 올라가가 딱 숨어가 있는데, 엄마가 요 올파나(올 때까지) 숨어가 있는데, 이놈들이야. 여우가 하다가 안 되이까, 문을 열어가 들어보이까 아가 서이가 하나도 없거든.

그래 나가보이 마 뒷문으로 나간 흔적이 있으니 뒤로 나갔는데, 아는 산으로 나무는 안 쳐다보고 우물가로 이래 보니까, 그림자가 나무 우에, 감나무 그림자가 우물가에 이래 있으니 아가 세이 고 앉아있거든.

“아이고 너저 어짜다가 여 빠졌노? 조금만 더 올라온나라. 조금만 더 올라 온나라. 내 켜지주꾸마(건져주마).”

저 물 밑에 그림자로 보고,

“거게서 조금만 더 올라온나. 내 켜지주꾸마.”

이래 손을 뻗히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라다가 마 지가 풍당 빠지가 죽어뻘어.

[해운대구 설화 95]

재생한 여인과 결혼해서 왕이 된 사람

김옥순(여, 1928년생) 구술

2012년 2월 14일 채록

[중2동 화목경로당]

옛날에 한, 한량도 아이고, 이 사람이 결혼할라고 실패로 마이 헨 사람이 인자, 시(세) 번이나 결혼할 남자가 났는데, 날로 잡아노모 죽어뻘고 죽어뻘고 이래논께, 마 과객, 과객이라고 안 있임니까, 옛날에. 개나리꽃 짐(괴나리꽃짐) 짙어지고 팔방을 나설라고, 인자 바람이(바람이) 속에 바람이 들어가지고, 그래 나서가지고 가도 아무 희망이 없거든.

그래 어느 고을에 어느 봉사가 때를 잘 뻘다 캐가지고, 돈 인자 옛날 엽전 안 있십니까? [조사자 : 엽전.] 그 칠 십원을 가지고 올리미고 배낭을 올리미고 나서니까, 참 거 자리 찾아갔어. 봉사가 거 때 잘 본다 카는데 거 찾아가니까 보더래요. 떡 가서 그래,

“불쌍한 과객 함 봐줄란교?”

“그래 돈 칠백냥 내놔.”

칠 백냥이라 카든가, 지금은 도 저 뭐고, 구멍 난 돈 거 일 곱개, 그뿐 인기라. 그래,

“그 돈뻥이 없다.”

“그래 그 돈 내놓고 봐라. 임금님도 내가 다 봐줬는데 내 니를 속이겠나? 임금님도 내한테 본 기 백 가지 다 맞았는데, 니를 속이겠나? 그래 니 재산 전 재산 니 얼마 있다이 다 내놔라.”

얼마 보면 있는꺼정 다 아는 기라, 그 봉사가. 내나라 카매 내 보이니까, “그래 니는 인자 됐다. 아무데 길로 내 시키는(시키는) 대로만 가거라. 가만 니가 앞길이 열린다.”

그래 참 그 사람이 인자 그 길로 가니까 막 몸부림을 마이 쳤어 마마. 그 옛날 산적한테도 걸리고, 걸리갔고 마 낭게도(나무에도) 매달리보고 이러니까, 그 산 주령 시님이(스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가 풀어주가 그래갔고, 그 사람이 가라 카는 대로 가니까, 어느 산골뚝에(산골짜기에) 가니까 각이(괭이) 하나 들썩들썩 걸터랍니더(하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 인자 치다보니까, 정신을 지아 치다보니까 처녀가 그 고을원 딸이 그 나쁜 병에 죽어가지고 갖다버린 기 살아났는 기라. 살아나가 각이 털꺅털꺅거리싸서, ‘이상하다’ 정신을 깨가 치다본께, 아주 예쁜 색시가 또 히떡 일나다 또 히떡 넘어가고, 그래 또 이상하다 싶어 가보니까, 너무 예쁜 색시가 또 벌떡 일나다,
“좀 손 잡아 달라.”

카는 기라, 그 사람 보고. 손 잡아 주이, 그래 참 그 사람 일배키보니까(일으켜보니까) 아주 참 예쁜 처년기라. 그래 물었는 기라.

“그래 어데서 어찌케 해서 이래 이래가 했노?”

그래,

“내 나쁜 병이 죽어가지고 이래 갖다 부모가 있는데, 아무데 아무데 우리 부모가 아무데 아무데 고을 왕인데, 내가 이래 몸실(몸쓸) 병에(병에) 걸려가 죽어서 갖다 버린 거 갖다가.”

인자,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참 거 찾아갔는 기라요. 문 앞에 가가지고 어는 주막집에다 그 처이를 맏기놓고 뜨신 물로 끼리 미이고(먹이고) 뜨시게 해놓고 인자 찾아갔는 기라, 찾아. 종이 있다가,

“스님 저, [말을 바꾸어] 왕님, 배꼐(바깥에) 누가 손님 찾습니더.”
하니께,

“누가 날 찾는가? 나는 거 무남독녀 잃고 아무 정신도 없는데, 누가

날로 찾는가? 필요없다. 가라 캐라.”

돌리보내거든. 그래가지고 돌리보내난께 또 한 번 더 만나자 카는 기
라. 그래 그 집 부인이 인자,

“함 딜라보라(들여 보아라). 딜라보몬 함 물어보자.”

“이 집 이동딸이(외동딸이) 죽었는데, 아무데 아무데 선산 밑에 거 있
더라. 그러니까 함분 만대봅시다.”

그래 알곳이 험악하게 해가 절을 하매 거하니까, 자기 딸 이름을 부르
니까 마 그 집 부인이 혹을 하는 기라.

“우리 아무씨가 죽었는데, 우째 살아 있겠노? 갖다 묻었는데 살아 있겠노?”
카니까, 그래도 이상해가지고,

“그럼 마 그 사람을 텔고(데리고) 올끼니까(올 것이니까), 당신의 딸인
가 안 되는가 확인만 하몬 될 것 아이가.”

데리고 온께 맞거든. 그런께 마 왕하고 그 왕 마누래하고 딸하고 그
과객된 그 사람하고 기도 안 차거든. 진짜거든. 그래 그 인연이 돼갖고
그래 마 닐어.

“그래 니 원이(소원이) 뭐고?”

인자 그 사람 보고, 과객 그 사람을 보고 왕이,

“니 원이 뭐고?”

“내가 이 나이에 안주 께혼도(결혼도) 못 했습니다. 께혼할라고 당사가
나몬 죽어뿌고 죽어뿌고 서이나 죽어뿌서. 께혼해도 살, 내강 살 사람이
죽으니까, 그 질로 내가 과객 짓을 하다가 우찌 우찌키 해가지고 그래
참 이 사람을 만냈다고.”

그래 인자 처이도 절에 갖다놓고 서이 너이 앓아서 그래 인자 토론을
하니께, 그 왕은,

“그래 마 우리 집에서 살아라. 어 우리 집에 사람도 마이 있고, 종도
마이 있고 하니까 우리 집에서 살아라. 그라몬 께혼을 해야지.”

그런께,

“아이 께혼하면 안 됩니다. 나는 께혼할 사람만 나타나몬 죽어뿌니까
내 께혼은 몬 합니더.”

그래 처이가 있다가,

“나는 한 분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이 사람이 살렸으니까 께혼하겠다.”

카거든. 그런까 그 집 왕 할매도,

“싫다.”

카고, 마 그 왕도,

“싫다. 그래는 안 된다.”

카고,

“그래도 나는 인연을 인자 이 사람 때민에 나왔으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시집가겠다.”

그래 참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그래 한테 사는데, 그 과객 그 사람이,

“아무데 고을에 거 옛날 부잣집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사람만 다 가문 죽어뿌고 죽어뿐다.”

그런께 공부를 많이 했는 기라. 한께, 하다하다 자불고(줄고) 하는 청(척) 하다가 자불고, 자불어사도 그 집 처이가 자꾸 공부를 시기는(시키)는 기라. 자꾸 공부를 시이고 시이고 하니까, 참 머리가 늦터져가지고(늦게 터져서) 오십에 과개꺼정 다 하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 인자 왕한테,

“내가 살림을 나갈랍니다.”

“그래 왜 살림 나가모 왜 옛날 거 묵은 집, 빈 집에 그런 데로 갈 끼고?”

“아이 그 집이 좋은 집이 있다 카는데 우리가 살랍니다.”

“그라마 살림을 나갈라 카마 내가 좋은 집을 해가 살림을 내 주꾸마.” 카니까, 그러몬 그 집에 갈라 살라 카거든. 안에 드가본께 참 어마한 새 집인 기라.

그래 인자 처이가 인자 처이하고 인자 결혼해가지고 인자 거 가가지고 보금자리로 잡았는 기라요. 보금자리로 잡아 있으이까, 어느 날 밤에 색시가 바느질로 뜨니까 뗏이 나타나가지고 헛개비 곁은 기 나타나거든. 그래 그 처이가 바느질하다가 바늘로 웃고리다가 꼽아왔는 기라.

“니가 뗏인고? 이상하다.”

그런께 높은 사람은 다 머리가 이상한 기라. 바늘을 꼽고 이 사람은 달라빠뿌고 없는 기라. 그래 인자 거 신랑 각시하고 불로 써가지고 실따러 갔는 기라. 실따러간께 아무 그것도 혼도 없는데, 큰 보물 상자가 하나 있더랍니다. 옛날 왕들 가있는(가지고 있는) 보물, 보물 꿔짜이 항

그(가득) 들어가 있더랍니다.

그 인자 헛개빈기라. 거는 헛개비 눈에 비있는(보인) 기라. 그 자릴 가리키주더랴요. 그래가 그 보물 상자예, 마 지금 말하자몬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 있는 기라. 금은보화가 거 다 들어가 있는 기라. 그 가지고 인자 고을이 들썩들썩하도록 잘 살고, 오십에 과개해가지고 그 고을의 왕이 되더랍니다.

[해운대구 설화 96]

도깨비와 씨름한 사람(37)

김옥순(여, 1928년생) 구술

2012년 2월 14일 채록

[중2동 화목경로당]

어릴 때, 우리 친정집에서 인자 우리 엄마 시이모 딸이 시집을 갔는데 좀 못 살아요. 그러이께 인자 우리 엄마 시이모가,

“그라면 너가 어짜피 머심을(머슴을) 델 것 아이가? 그런게 우리 사우로 좀 머심을 델고(데리고) 있어라.”

우리 친정집에서 머심, 작은 머심 큰 머심 있었거든. 그래 인자, “이 사람하고 일도 잘 하고 없이 사니까 품팔이도 잘 해먹고 하니까 댕고 살아라.”

그래가 인자 그 사람을 데리고, 그 길이 한 십리 길 되는데, 밤으로 마, 낮으로 일하고 밤으로 자고 새벽에 오고 이랬어요. 밤, 인자 잘 때 돼서 가니까 거 좀 외졌거든. 헛개비가 있더랍니다.

그 아재가 우리가 아재라 켜어. 키가 억수로 크고 이래 신체가 좋았어. 우리 어릴 때. 가니까 밤중에 시상에 그 밑에 늪이 있는데 늪에서 불이 퍼쩍 퍼떡 올라갔다 질에서 올라갔다 올라갔다 이래썰더랍니다. ‘그래 저 토째빈갑다. 토째비한테 내가 못 이기겠나.’ 카고 갔는데, 진짜 토깨비가,

“씨름하자.”

카더랍니다.

“그래 하자. 씨름하자.”

그래가 씨리(‘매우 세게’의 뜻) 쫄치가지고 질까(길가) 와 찐디폴 안 있
십니까? 쫄갱이(질경이) 거 폴 있거든. 그거로 딱 모간지로 확 훌치 마
지 매가, 불끈 쫄글어(당겨서) 매놓고, 자기 집에 갔는 기라. 아직에(아침
에) 오매 보니까, 인자 우리 집에 날 새모 우리 집에 오야 일로 할 거
아입니까? 오니까, 빗자루 몽탱이가 이래 거꾸로 매달려가 있더라요.

[해운대구 설화 97]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67)

김옥순(여, 1928년생) 구술

2012년 2월 14일 채록

[중2동 화목경로당]

그래 참 몬 살아가지고 아들이, 엄마는 눈이 어둡아가지고(어두워가지
고) 너무 없이 살고 그랬는데 그래 참 어디 나가가지고 돈을 벌이고 율
는데, 이 눈 어둡은 시아마이를 갖다가 공양할 기 없는 기라요.

그래 참 메느리되는 사람이 지렁이를 잡아가지고 매매 씻거뿌고, 참
국을 끼리가지고(끓여가지고) 봉양을 했는 기라요.

그러면 그 눈 어둡은 할매가 볼 수는 없고, 너무 맛있고, 너무 자기 몸이
너무 마 양분 있는 거로 무니까 배도 부르고 물 때마장(때마다) 한 바리
자리 밑에다가 열어 놓고 우리 아들 오면 비알끼라고(보일 것이라고).
‘우리 메느리가 아무것도 없는 살림살이 날로 뭐로 이래가지고 봉양을
하노?’ 싶어가지고, 이 할매가 너무 무면서도 너무 감동을 받고 이래가지
고, 어떤 재론고(재료인고) 싶어가지고 아들 오면 비안다고 놔뒀는 기라.
그 봉사된 메느리고 아들이고 약을 썰(썰) 수가 없는 기라. 약이 없는 기
라요. 그래,

“야야 메느리가 우리 애기가 니 없는 날 이래 날로 봉양해서 내 얼굴
살이 찌가 이렇다.”

카매, 수비(수북하게) 꺼자바(꺼집어) 내논께, 아들이 껌쩍 놀래뿌는 기
라. 그란께 마 엄마이 눈이 퍼떡 떨어져뻘어. 아들은 마,

“엄마 이기 뭘요?”

카매, 아들이 놀래뿌난께, 마 그 봉사된 엄마가 마 ‘엄마 이기 뭘요?’ 카는 소리에 눈을 펴떡 떠뵈는 기라. 그래 소자(효자) 낫다고 소자문도 시아고(세우고), 그래 그 메느리하고 아들하고 복을 타가지고 많이 복을 타더랍니다.

[해운대구 설화 98]

자식 죽여 부모를 봉양한 며느리[산삼동자 이야기(37)]

김옥순(여, 1928년생) 구술

2012년 2월 14일 채록

[중2동 화목경로당]

너무 몬 살아가지고, 그 집에도 너무 몬 살아가지고, 그런데 인자 그 메느리되는 사램이 시오마이로(시어머니를) 봉양을 해야 되는데,

‘자식은 낳으몬 자식이다. 부모는 한 분 가몬 못 만낸다. 다시는 못 만낸다. 나는 자식을 또 나면(낳으면) 또 자식이 있다.’

그래가지고 물로 펼 펼 끼리가 가마솥에다 아를 영었는 기라요. 여어가 지고 띠경을(뚜껑을) 열어보니까, 산삼 다리가 사람매이로, 산삼 우짜몬 똑 사람겘이 다리가 있다 카대. 아겘이 돼갓고 산삼이 고여가 있더라. 그래 그거로 묵고, [조사자 : 그래 좀 있으니까 그 아가 또 ‘엄마’하고 또 들온다.] 그래가 아는 배꼐에 놀러 나갔는데, 놀러 나갔는데, 그 아라고 삶안 기 산삼인 기라.

[해운대구 설화 99]

날씨를 미리 아는 며느리

이말순(여, 1930년생) 구술

2012년 2월 14일 채록

[중2동 화목경로당]

옛날에는 나만(나이 많은) 사람, 그 저 머라 카모 그기 있다 아입니까?
나만 사람 손님들 오몬 들어가는 데, 사랑방. 사랑방에 나만 사람 할아버
지가 계셨는데, 메느리가, 사랑방에는 아무라도 못 드가고 아주 거게서
중요한 손님이라야 사랑방에 들어가거든요.

메느리가 딱 사랑방에 들어갔어예. 그래가 보니까 머슴은 밭에 일하러
가고 어테 눈에 일하러 나가뿌고 없고, 그런카네 지가 엄두가 안 나이께,
그래 사랑방에 아부님 방에는 못 들어가는데,

“아부님, 한 말씀이 있습니다.”

절로 하니까,

“그래 말씀이 있으면은 들으시라. 들으라고.”

그라이까네, 사랑방, 그래서 인자 허락 받고 사랑방에 드갔어요. 들어가
절을 하йка네,

“머슴도 저 눈에 일을 하러가고 없고, 지금 저 비가 지금은 해, 아 지
금 비가 막 소나기가 올건데, 머슴도 없고 저는 엄두도 안 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라이께, 그래 아버님이 사랑방에서,

“야야, 해가 이렇게 구름 한 점 없는데, 니가 어째 비가 오는 거로 알
고, 비가 온다 카노?”

어, ‘에이’ 캄서,

“나가라고. 무식한 짓.”

캄서, 그라이까네 말을 하자마자 그마 바람이 부디이 천둥을 하더마는 비
가 [강조하여 말하며] 쫄- 따라채끼네. 그 나락 걷어난 거 치아야(치위야)
되는데 비가 다 맞았지요. 절단 났는 거라요. 예, 옛날에 머 창고가 있습니
까, 다 밖에 나안데(놓았는데), 빗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못 했으니까. 예.

[조사자: 거 메느리가 무슨 선견지명이 있네. 그지요?] 그래가지고 인
자 메느리 말이 지나고보이카(지내고보니) 맞거든요. 메늘 밭 끝에 구름
도 한 점 없는데,

“저 소내기가 온다.”

카이께, 그래 메느리를 불러드렸어요, 사랑방에. 가만 아버님이 가만 생
각하이께네, 이상한 일이거든요. ‘처음에는 구름 하나 없었는데, 왜 비가
온다고 빨리 빗 설거지를 하라 이기라.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하문,

“아가, 사랑방에 오너라. 올라오라.”
고, 그래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그래 말씀을 하라.”
카는데,
“말을 하라.”
카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캄서,
“옛날에 저가 못 살아가지고, 너무 너무 못 살아가지고, 시집 올 때,
이 집에 시집 올 때 옷을 몇 가지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 입을 거를
해가, 준비로 해가 와야.”
시집 옛날 시집 옷 해주는 사람 있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즈그 친정 어머니가 하도 못 살아가지고 소금장사를 했답니다. 소금장사
를 해 소금 자리가(자루가) 많이 있어가 그거를 가지고 팬티로, 옛날에는
팬티가 사리마다거든. 이마이 오는 거. 그것만 녹으머는(녹으면) 비가 온
답니다. 비 올라 카면 그게 녹는답니다. 옷이 녹는답니다. 왜 글냐면 소
금 자루가 돼가지고, 아무리 빨고 씻거도 비가 올라 하몬 소금 자루가
돼서 뽀뽀하이 녹는 기라요. 축축하이 간간한 옷이 돼가지고.

[해운대구 설화 100]

저승 갔다 살아온 사람(2)

이말순(여, 1930년생) 구술
2012년 2월 14일 채록
[중2동 화목경로당]

우에 사는 집 주인이 아파가지고, 예 아파가지고 젓을 먹이고 어린애가 있
었어 인자. 그래 놔놓고 돌아가셨어요. [조사자 : 아이구, 어린애를 하나 두
고?] 예, 두고. 돌아가셨는데. 젊은 사람인데. 저하고 친구, 얼마 안 된 친구라.
깨어나서 한 집에 살다가 대화로 하다가 너무 싫지, 우리도 친군데. 그

래 깨나가지고 하품을 함서 일어, 잘 자고 있났다 카면서 멀쩡하게 해가 일어났어요. 똑 우리 낮잠 잔 거거치(것같이).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는 좋아가지고, 한 집에 사이(사니) 좋아가지고 애도 막 젓이 불어가 이래가 있고 마, 젓을 미이분서(먹이면서) 이야기 하이까네, 자기가 꿈을 꿔다 이기라.

근데 잠깐 쓰러졌는가 봐요. 아마 옛날에는 못 먹었잖아요? 애는 통통이 남자로 낳았는데, 머시만데 막 살이 쪼터라고. 그래 있는 거 없는 거 묵다가 보이께 애가 빨아 먹고 하이 마 너무 허약해가지고 쓰러져뵈어. 여자가.

그래 쓰러져가지고 깨나가지고 하품을 막-, 한 다섯 시간 잤습니다, 그 아줌마가. 그래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마마 한 집에 맨날 한 형제같이 살았다 아입니까? 그런께 너무 안타까워 깨어나길래 하품을 살- 하고 다섯 시간만에 딱 깨나더라고요.

“잘 잤다.”

캄서러 일어나가 우리가,

“꿈 이야기로 해보라.”

하이까네, 그래 자기가 죽었다고 기차 역, 기차 역거튼(역같은) 데로 갔답니다. 어 갔는데, 요리는 드가모는(들어가면) 포(표) 타고 나가는 데고, 차 타고 나가는 데고. 요쪽으로는 손님이 내리가 나오는 구멍이고 그렇더래요. 그라면서로 가는데 가니, 그게 포를(표를) 안 주고 빨간 보따리 파란 보따리로 그래 주더랍니다.

이런 파란 보따리하고 두 개로 놔놓고, 죽은 사람은 빨간 보따리로 주고, 인자 말하자며는, 살안 사람은 살아가 나올 사람은 파란 보따리를 주는 기라요. 그래 인자 자기는 파란 보따리를 사라 그라면서 보따리로 가지고 죽었다고 막 가져가는데, 그래가 차 타러 나가는데, 나갈라 카이께네,

“당신은 나가몬 안 된다. 빨간 보따리는 나갈 수 있어도. 나가몬 인자 죽는다.”

이 말입니다. 죽은 사람이 나간다.

“당신은 파란 보따리 사람이기 때문에 이리 드가라.”

고 카더라. 이리 나가라 이카더랍니다. 그래 파란 보따리로 가지고 나왔는데 켜답니다.

Ⅱ. 기존 현장조사 설화

1. 김승찬의 현장조사 설화
2. 박경수의 현장조사 설화

1. 김승찬의 현장조사 설화

1) 해운대구

[해운대구 설화 1]

친정 부친 묘터를 빼앗은 딸

구 연 자 : 김금전(여, 77)

구 연 일 : 1996. 6. 15.

구연장소 : 해운대구 반송본동 경로당

옛날에 어느 집에 아들 딸을 낳아서 결혼을 시키고 이리는데, 큰 딸이 시집을 가서, 너무너무 돈 살아 가난에 쪼달려서 ‘언제나 나도 부자가 돼가, 잘 살고 사람구실을 해 볼까’ 이런 거를 마음 먹고 있었다가, 친정 부친이 세상을 떠나셨더라고요.

세상을 떠나시서, 그래 풍수가 오고, 땅 지리 보는 사람들이 오고 모이서, 친정은 먹고 살만한데 와서, 모두 주고 받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친정 아버지가 지금 가시는 그 자리는 너무너무 좋은 자리라네. 거기다가 뽕을 쓸 거 같으면, 삼년 안에 부자가 되기 시작하고, 훌륭한 아들 딸들을 낳고, 아들이 전부다 급제를 하고 이리 된다고 말하더라네요.

그래, 그 소리를 듣고, 이 큰 딸이 ‘아이구 내가 이리 가난한데, 우리 집도 이래 됐더라면 오죽이나 좋겠나’ 싶어서, 살짝 나가서 문전에 가서 숨어서 그 얘기를 일일이 다 들었어요. 듣고는 ‘과연 참 그리 된다며는 내가 참 불효의 딸이 될지라도 내가 한 번 해보겠다. 친정은 잘 살고 나는 못 사이까, 내 한 번 포원을 갚아 보리라’ 생각을 하고, 자기 집에 간다고 말을 하고는 나셨더라고요.

그 길로 나가 가지고, 물둥이를 하나 들고, 아버지 뽕 더 잡아 놓고 파 났는데, 그 자리에다가 밤새도록 날이 밝을 때까지 그 절에 하천에 물을 길어다가 부엌입니다. 물을 길어다가 부엌이, 처음에는 한 번 붓고 두 번 붓고, 물은 다 그냥 흘러 가빠리고 하다가, 넉중(나중)에는 차차 차차

물이 고이기 시작했더랍니다. 그래서 ‘하이구 이만 했으면 이제 물 나는 곳이라고 뿔터를 안 쓰겠지. 나는 물이 안 나는 곳인 걸 아이까, 우리 시부를 이장해다가 여기다가 산소를 써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부자가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돌아올라 하이까, 자기가 물을 길른다고 밤새도록 왔다갔다 한 자욱이 수백 개 수천 개의 발자욱이 나서, 하늘을 쳐다보고 ‘아이구 내 발자욱이 이래 났으니, 나는 틀림없이 붙들리고 말겠다. 친정 형제하고 적이 되고, 친정 부모한테 내가 악녀가 되고 말 기이, 이것을 어찌할까’ 하고 걱정을 했더이, 하늘에서 스르르 구름이 끼기 시작하면서 눈이 오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발자욱은 다 메꾸어졌더랍니다. 그래 자기는 집으로 돌아가고, 그래 친정에서 행상을 가주고 인자 산소를 쓴다고 올라와 본적 그 물이 나가 있어.

“이런 줄 모르고, 우리가 뿔터를 좋다고 잡았네. 안 되겠다.”

카고, 부모를 물 속에다 영을 수는 없다 카고 땀 데다가 썼더랍니다. 땀 데다가 쓰고, 그래 인자 그 자리는 남아 있는데, 그래 이 큰딸이 시부를 인자 이장해다가 그 자리에 썼더랍니다.

그러이 말 그대로 부자가 되고 좋아지는데, 이 사람 가슴이 한없이 따갑고 아파서, ‘내가 내 종을라고 내 아버지를 속이고, 형제를 속이고 했다’고 이것이 두고두고 후회가 돼가지고 말이 나기 시작했더랍니다.

“저 집에는 큰 딸이 이만저만 해서러 시부를 거기다 쓰고 친정 아버지는 못 쓰게 했단다.”

해서 친정 집에는 삼대에 딸을 놓으면 옆에서 죽있답니다.⁵⁾

[해운대구 설화 2]

개좌산 전설

구 연 자 : 김성복(남, 83)

구 연 일 : 1996. 6. 8.

구연장소 : 해운대구 반송2동 운봉마을

5)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223-224쪽에 수록.

예전에 동래서 추접한 노인이가 하나 철마에 불 일 보러 가는데, 집에 개가 인자 따라와 개로 던고(테리고) 갔던 모양이라. 가가주고 불 일 보고, 아는 사람이 있어서 술로 많이 자셨던 모양이라.

그래가 개자골이라는 높은 고개에 와가지고, 술 취해놓이까 담뱃불로 뎡기가 담배를 푸다가 불도 안 끄고 내빼리고 눕어갔던 모양이라.

그래 어째 그만 불이 났던 모양이라. 불이 나놓이까네, 증생이라도 저 집에 권속이고 밥 주고 하는 그 주인이 되다보이까네, 어째꺼나 그 주인을 살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개가 골짜에 내려가가지고 물로갓다가 자기 몸에고 꼬리에고 묻히가지고 불 끈다고 그래 하다가 안 돼놓이까네, 개가 죽었던 모양이라, 사람은 괜찮고.

그 때문에 개자산이라고 이름이 났던 모양이라.⁶⁾

[해운대구 설화 3]

운봉산 광주 김씨 묘터

구 연 자 : 김상욱(남, 67)

구 연 일 : 1996. 6. 8.

구연장소 : 해운대구 반송2동 운봉마을

광주 김씨 처자가 경주 김씨네 집에 시집을 갔어. 시집을 갔는데, 시아즈바이 되는 사람이 세상을 버렸는 기라. 버리서(죽어서) 운봉 뒤에 뽕을 썰라꼬, 그 집안에서, 사전에 일꾼을 시기가주고 구디이를 뽕는 거라. 파놓고, 내일 뽕 씨겠다고 말이여 준비를 하고 집에 와서 밤에 눕어(누워)갔는 거라. 눕어 자는데, 시집갔는 광주 김씨 메느리가 살짝 나와 가주고 밤 새도록 물을 여다 그 구디기다가 들어 부왔는 기라. 그러이까 물이 흥거이 고여 있는 기라.

그 이튿날 아침에 뽕을 썰라꼬 보이까. 물이 짝 채어 있어. 그래 여는 못쓰겠다. 이래가주고 거기 안 뽕는 거라. 그라고 뽕 데 가 뽕을 뽕어.

6) ‘개좌고개의 의구(義狗)’ 전설을 구연자 나름으로 구연한 민담.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148-149쪽에 수록.

세월이 흘러 뒤에 그 메느리 되는 사람이 죽을 날 다 돼갈 때,
“지금 아무데 고 가면, 뗏터가 있으니까, 고 나를 죽거든 갖다 써라.”
이렇게 해가주고 고계(거기에) 지금 뗏을 써놓았어. 그 보면 ‘유인광주김
씨지묘’라고 써 놔거든.
그 뗏터가 명산이라고 해.⁷⁾

[해운대구 설화 4]

뚜꺼비가 청송 사위된 이야기

구 연 자 : 김인환(남, 79)

구 연 일 : 1996. 6. 15.

구연장소 : 해운대구 반송본동 경로당

옛날에 영감 할마이 살았는데, 농사도 안 짓고 만날 고기만 잡아먹고
사는데, 한날은 고기 잡으러 가가주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래
빈 길로 오다이게, 언덕 위에 뚜꺼비란 놈이 한 마리 배가 벌름벌름 하고
앉았거든.

그래 뚜꺼비가 그 때는 말을 했던 모양이라.

“할아버지요, 할아버지요, 오늘 고기 얼마나 잡았습니까?”

“야,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러면 나 할아버지 따라갈까요.”

이러거든.

“따라온나. 따라오는데, 우리 집에 아무것도 먹을 기 없다.”

이러거든.

“먹을거 없어도 나 따라잡니다.”

이러거든. 그래 같이 갔다. 가이 할마이 혼자

“고기 얼마나 잡았습니까?”

7)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145쪽에 수록. 반송향토지 편찬
위원회, 『반송향토지』, (주)국제신문, 2011, 403쪽과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천년의 향기 해운대
이야기』, (주) 디알, 2011, 320쪽에 정서하여 수록

“오늘 고기 한 마리도 못잡았다. 오늘 저녁 굶는다.”
카거든.

“쌀을 털어가지고 아침에 다 해 먹어뿌고 없다.”
이라거든. 그래 뚜깨비가 있다가 하는 말이

“할매요. 할매요. 저녁 하러 안 가세요.”
이러거든.

“저녁을 할라고 하이 쌀이 없다.”
이러거든.

“쌀단지에 가보라.”
이러거든.

그래 인제 쌀단지에 가보이께네, 아침에 다 끓여 해 먹었는데 거기 쌀이 또 서이 먹을 만치 있어. 그래가지고 끓여 와 밥을 해와가지고서 먹었다. 먹고나이 뚜깨비가 하는 말이,

“이 집에 아들도 없고 딸도 없는데, 내가 이 집 아들같이 하믄 안 되겠습니까?”

카이
“하라.”

카거든.
“딸도 없고 아들도 없는데, 먹을 거 대 주이, 그래 아들 하라.”

켰다. 언제나 쌀이 없다 카른 쌀독에 가보라 카거든. 쌀독에 가보른 꼭 서이 먹을 만치 있는 기라. 그러구로 영감이 뚜깨비를 델꼬 살아가는데, 한 번은

“아부지, 아부지, 서울 가가지고, 정승 집에 가서 저 막내이 딸한테 중신을 뺏아가지고 오라.”
이카거든.

그래 정승집에 딸이 안직 시집 안 가고 있는데, 그 막내이 딸한테 중신들고 오라 이라거든. 그래 영감이 가마이 생각하이 ‘뚜깨비가 날 죽일라고 카나’ 싶었거든. 그래도 뚜깨비가 시키이 할 수 없다. 그래 인자 말을 한 필 얻어가 타고서 서울 올라 갔다. 서울 가가지고 정승 집에 가가지고설랑 그래 지침(기침)을 하이, 정승이 이래 보이께네, 영감 아주 점잖아 비거든(보이거든). 그래,

“돌오라.”

이라거든.

드갔다. 드가가지고 그 소리 못한다 말이야. 그래 정승 집에서 진수성찬으로 해주는 저녁을 얻어 먹고, 하룻밤 자고, 아침이 일라가, 또 아침 잘 해주는거 먹고, 한 번 죽기나밖에 더 할 거나 싶어서,

“내하고 사돈하자.”

이랬거든. 정승이 있다가,

“여봐라”

카이, 그래,

“불러 계십니까?”

“이놈 잡아다가 내다 짝두로 목을 끊어뿌라.”

이라거든. 그래 불러 계십니까 하던 놈들이 오더이, 붙잡아가지고, 짝두를 꺼내 벌리놓고 있으이께, 정승이 있다가,

“끊어라”

이라거든. 짝두를 콕 눌러가 목을 끊으이 머리가 넘어가 다부(다시) 딱 붙어뿌러. 또 찰라뿌이께네 넘어가가 또 다부 붙어뿌거든. 그래 정승이 있다가,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 집이 이제 망하는구나. 그 분 방으로 이제 굽게 모시 디리라.”

그래 그제야 인제 방으로 들어갔다. 그래 영감 하는 말이,

“이래도 사돈 안 하겠나?”

카거든.

“내가 아들이있는데 그래 사돈 하겠나?”

정승이 가마이 보이, 저놈이 뭐 요술이 있으이께네 안할 거 같으믄, 이거 집이 망하겠다 싶어. 그래,

“하자.”

고 캐.

“메친날 신랑을 데리고 오라.”

이랬거든. 그래 영감이 내려갔다. 내려가이, 뚜깨비가 하는 말이,

“우째 댔습니까?”

“아무날 니 올라 오라 카더라.”

그래 그날이 돼서 뚜깨비를 가매 태워가 올라 갔다. 올라 가가지고 가매

문을 열어 놓으니까, 뚜깨비가 한 마리 툭 티 나오거든. 나와서 뚜깨비가 마당에 인제 벌름벌름 섰다. 그때는 대신들이 모두 와가지고는,

“야, 이 정승이 뚜깨비 사우 잘 봤다.”

고 모두 다 안 비꼬겠나. 그래 신부가 나와가지고 행례를 치루고서 신방에 떠억 드갔다.

그래 인자 신방에 드가이 구경꾼이, 지금이나 옛날이나 구경꾼이 있잖아요? 그래 뚜깨비 보고 어찌하는가 싶어 말캉 문구멍을 뚫고 드리다 본다. 보이, 뚜깨비는 배가 벌름벌름 하고 웃목에 앉았고, 색시는 아랫목에 고개 푹 숙이고 앉았다.

그래 밤에 구경꾼들이 떠억 보다가 저기 뭐 장난치겠나 싶어가 구경꾼들이 가뿐 뒤에, 밤이 야심하니까, 뚜깨비가 벽술을 넘디 아주 일등 신랑이 돼가주고, 천하 일색이라. 그래가주고,

“여보, 여보, 날 한 번 돌아보라.”

이라거든. 이래 돌아보이, 그 뚜깨비가 사램이 천하 일색이라. 불 안 켜나도 흰하이 비치거든. 그래 들이 인제 자고서는 아침에 일라이(일어나니) 또 뚜깨비가 돼 있다.

그래 각시가 지판에(자기판에)좋다고 막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이라이, 지 형들이 다,

“에이그으 동생이 뚜깨비 신랑 맞아 그리 좋아가 일한다.”

할 거 아이가? 그래 또 이웃에 정승이 사우를 보는데, 모두 인제 구경하러 가는데, 뚜깨비가 갈라 카이 몬 가구로 하거든. 그래도,

“나는 기어코 놀러 간다.”

고, 혼재 인제 엉금엉금 기어갔다. 가이께, 이 늙 뚜깨비 왔다고, 아모 정승 사우 왔다고 모 떨어진 판에다가 콩지름 대가리 메르치 대가리 같은 거를 한 판 채리가 준다. 그래도 하나 안 남기고 싹 다 먹어뿌렸다. 먹고 설랑 인제 행례 지낸 뒤에,

“내가 새신랑 구경 하고 간다.”

이러거든. 그래 몬 가구로 하거든. 모두 있다가,

“아이구 새신랑한테 뭐 하러 갈라 카노?”

캐도,

“기어코 간다.”

카고 있는 기라.

그래 인제 해가 저물어가 밤이 되이, 이놈 뚜깨비가 결국 안 가고 신방 앞에 가서 문을 탁 여이께, 저 새신랑이 고마 벌떡 일라더마는,

“선생님 오셨습니까?”

인사를 딱 하거든.

“야 이놈, 니가 이 집 지금 망할라고 왔지. 저 바깥에 물나는 수채구영 거게 가 서라.”

이라거든. 그라고, 나와가지고,

“남우 정승 두깨비 사우 봤다고 뭐라 카디마는 구미호 사우 봐가지고 이거 되나?”

카거든.

새신랑이 구미호가 돼가지고 나가뿌렸어. 그래가 지 집에 왔다. 그래 또 메칠 있다가 장인영감 환갑이 떠억 다가오는데, 그 처남네들이 서이 있는데, 서이가 다 활을 가지고 산에 돼지랑 토끼랑 꿩이랑 잡으러 갔거든. 가서 한 마리도 몬 잡았어. 이틀을 땡기보이, 한 마리도 몬 잡으이, 뚜깨비가 있다가,

“처남들 뭐하러 땡기나? 내가 오늘 갈 땡인께, 아무도 오지 마라.”

이라거든. 그래,

“니가 뭘 잡노?”

이라이께네,

“내가 갈 땡인께 오지 마소.”

이라거든. 그래 뚜깨비를 가매를 태아가지고 저 깊은 산중에 떠억 드가이, “가매 내라나라.”

이라거든. 그래 내라노이 인자 가매 놓고 쪽지를 하나 써 주면서,

“너 걸음 잘 걷는 놈 하나 있나?”

카이께,

“잘 걷는 놈 하나 있다.”

카거든. 그놈 보고,

“저 짹(쪽) 물 따라 가른 중이 하나 앉아가주고 옷을 벗어 이를 잡고 앉았는데, 거기에 쪽지를 던져 주고 빨리 와야 되지 늦게 오면 죽는다.” 이라거든.

그래 인자 이 놈이 참 쫓아 갔다. 그래 가인께, 참 중이 옷을 벗어 가지고 이를 잡고 앉았거든. 그래 쪽지를 던져주고 쫓아 오이, 가매 있는데 다 오이께네, 뒤에서 ‘쌔~’ 카는 소리가 나는데, 보이 지네가 채찍 같은 기 막 따라 오거든. 따라오이, 그래 가매 문을 떠억 여이, 지네가 절을 넘적 하고,

“선생님 오셨습니까?”

카거든. 그래 뚜깨비 하는 말이,

“내가 부른 것은 산짐승을 돼지나 토끼나 닥치는 대로 잡아 달라.”

이라거든. 그래 지네가 무슨 조화를 부렸는지 돼지랑 토끼이랑 산짐승을 다 잡아가 왔어. 그래 뚜깨비가 지네를 보고,

“가라.”

이라거든. 지네가 가쁜 뒤에, 뚜깨비가 걸음 잘 걷는 놈 보고,

“집에 가가주고 장골 시무 명만 뽑아 오라.”

이라거든. 그래 인제 집에 가서 말하이, 집에서 거짓부리라 카거든. 그래,

“참말로 잡아왔으이 장골 시무 명만 뽑아달라.”

캬거든.

그래 장골 시무 명을 뽑아줘. 그래 데리고 가서 집을 지어보이 똑 맞아. 시무 짐 똑 맞아. 그래 환갑 잔치를 잘 해먹고나이 이 뚜깨비가 하는 말이, “이 집 식구 다 모여라.”

이라거든. 그래 다 모아 놓고 벅술을 넘드이 사람이 돼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이 세상 사람 아이고, 하늘서 죄를 짓고 내리왔는데, 인자 집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라거든. 그라고,

“나는 인제 아버지한테 가겠습니다.”

그래 인자 집에 내리와서는 메칠 있다 아들 삼태를 낳았어. 아들 삼태를 낳고,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아버지, 어머니, 편안히 계시고, 내 입에다가 엽전을 물라 돌려.”

이라거든. 엽전을 입에 물라노이, 입에서 엽전이 쌀 나오듯이 찰찰찰찰 나오거든. 나와가지고 그 엽전을 막 주어서 성을 쌓았다. 성을 쌓아 놓고, 그래 인자 또 벅술을 넘드이 사람이 돼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내가 인제 이 지하 사람 아이고, 하늘 사람인데, 죄를

지어가 내려왔다가 인제 죄를 다 벗어으이께 올라 가겠습니다. 내가 일년에 한 번씩 내려 오겠습니다.”

이래 카고나이, 뭐 하늘이 우르륵 뚜르륵 허더이 고만 하늘로 올라갔부렀어. 그래 그 영감은 잘 됐더라.⁸⁾

[해운대구 설화 5]

호식할 총각과 세 청승 딸의 결연

구 연 자 : 김인환(남, 79)

구 연 일 : 1996. 6. 15.

구연장소 : 해운대구 반송본동 경로당

옛날 촌에 정승이 살았는데, 삼대 독자 외동아들을 낳아 왔는데, 한날은 중이 동냥하러 왔어. 동냥하러 와가지고, 그래 동냥을 쫓 달라고 하이께네 동자 아가 나가설랑 쌀을 한 말 퍼 줬어. 퍼주이께, 중이 하는 말이,

“참 도령님 나기는 잘났다마는.”

크카거든. 그래 이 아(아이)가 저 아바이 정승 한테 와서 이야기를 했다.

“중이 동냥을 주이께, 도령님 잘났다마는 카고 갑디다.”

“그 중을 불러 오라.”

그래 저 가는 것을 쫓아 가 불러 왔거든. 그래 중이 그 대감 방에 들어갈 수 없거든. 청 밑에서,

“저는 아무 죄도 없으이 고이 죽여 달라.”

카고 절을 하고 엎드려 있다. 그래,

“대사 대사 그러지 말고, 방에 들어오라.”

이라거든. 그래 중이 들오지 안 드갈 택이 있나? 그래 떠억 드갔다.

드가이,

“대사 아까 우리 자(저 아이) 한테 한 말이 있제. 다른 말은 없고 도령님 잘났다마는 캬는데 그 마는 소리 뭐냐?”

물었거든. 물으이께,

8)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189-195쪽에 수록.

“예 참 자이(매우) 애랍습니다. 이 도령님이 서울 가가주고 삼 정승 딸 춤(침)을 먹어야 삽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호식할 팔잡니다.”
이라거든. 삼 정승 딸 춤을 먹어야 살지, 그러면(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 카거든.

“그것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라거든. 그카고 가뿐다 말이야.

그래 정승이 가마이 보이 삼대 독자 외동아들 저거 어째노 싶어가지고 있는데, 나이 열 너덧살 먹은 게, 그래 뭐라는 것이 아이라,

“아부지 아부지 내가 서울 한 번 가볼밖에 없습니다.”
그래 명주 옷을 한 벌 해가지고 입혀가지고, 인제 돈을 싸가지고 서울 보냈다. 인제 책도 보따리에 싸가지고 서울에 올라갔다. 올라가가지고 보이, 큰 대성가 큰 집이 있는데, 큰 집 앞에 보이께 오두막집이 하나 있거든. 그 드갔다. 드가이께 할매가 하나 있는데,

“할매요, 할매요, 여 쫘 쉬어갑시다.”
이랬거든.
“아이구, 저 잘난 도령님이 누추한 집에 어이 잡니까.”

“괜찮습니다. 여 하룻밤 유하고 갑시다.”
카인께, 그래,
“들오라.”

이라거든. 그래 드가인께네, 자리도 없고 맨땅이라. 그래 돈을 쥐가 초석을 사오라 해서, 초석 자리를 떠억 피놓고,
“이 집 아들 하든 어떠요.?”

묻거든. 그러이 노구 할마이가 아들도 없고 딸 하나뿐이라, 그래 하라 카거든.

그래 그 집에서는 ‘엄마’ 카고 사는데, 그래 선달 그믐날이 딱 다가오는데, 한날은 지녔 밥도 안 먹고 한숨만 푸욱 쉬고 있다. 그래 엄마가 있다가,

“야, 니 밥도 잘 먹더이 오늘 밥은 와(왜) 안 먹고 그래 있노? 니 뭘 근심이 있나?”
카이,

“예, 근심이 있습니다. 내가 영남 아무데 사는데, 내가 선달 그믐날 저녁에는 죽습니다.”
이러거든. 그래,

“왜 그러노?”

그라이께,

“삼 정승 딸 춤(침)을 먹어야 산다.”

카고,

“내 선달 그믐날 내 호식한다.”

카거든. 그러인께 이 노구 할마이 가마이 생각해보이, 저그 딸이 정승 집에 가 있거든. 김 정승 집에 가 있는데, 그래,

“그거 아이다. 가마이 있거라. 내 이야기 들어봐라. 내가 뭐 하는 수가 있다.”

그라고 인제 이 할마이가 저 딸한테 갔어. 정승 집에 가서,

“야야, 선달 그믐날 지녁에는 니가 집이 온나. 와가지고 내 이야기 들어봐라.”

그래 참 선달 그믐날 지녁에 딸이 왔거든. 와가지고 보인께 도령이 하나 앓았거든. 문을 열어 보다가 나가뿐다.

“야야, 들어온나. 여 내가 아무 연분에 아들 하나 주와 났지만, 이걸 니 오래비다. 들어온나.”

그카인께 드갔다. 그래,

“오빠”

이카른서 인사를 하이 어마이가 이야기를 하거든.

“오늘 지녁이 선달 그믐날인데, 오늘 지녁에 오래비가 호식한다 카이 삼 정승 딸 춤을 먹어야 산다 카이 니가 뭐 쫓 데려갈 수 없나?”

그거 난처한 일이거든. 그러나 어마이가 그라이,

“저 누른밥을 세 뭉탱이를 뭉쳐 놓으라.”

이라거든.

그래 그 누른밥을 해가, 세 뭉탱이를 해가 지녁에 오빠를 데리고 나가 가 정승 집에 드가는데 청삼살개가 세 마린데, 짓을까봐 그 누른밥 세 뭉탱이를 찼다 말이야. 그거 묵고 다 짓지 않아. 그래 별당에 들어가가지고 문 앞에 가서,

“오빠가 인제 죽든 살든 나는 모르인께네 오빠 마음대로 하라.”

그카며 가뿌거든. 그래 가마이 보이, 환하이 촛불을 켜놔는데, 문고리를 쥐고 내가 여 드가서 죽나 호랭이한테 물려 죽나 시방 자제를 하고 있

다. 그러다가,

“에라, 내가 호랭이한테 물려 죽는 거보다 여(여기) 들어가 맞아 죽는 게 낫다.”

카른서 문을 땡기고 드갔단 말이야. 드가이께네, 처자가 처매 다 벗고 속 곳만 입고 앉아 있는데, 보이, 썩 잘났어. 그래 드가이께네, 처녀가 보이 도령님이 잘났거든. 그래 처녀가 돌아 앉아가지고서는 주역을 내놓고서 경문을 외고는,

“귀신이나 사람이냐?”

그카인께,

“사람인께 여 들오지, 귀신이 우째 여 들어올 택이 있나?”

이러인께,

“앉으라.”

이라거든. 그래 앉았다. 어째 돼가 이랬나 물었다. 물으인께, 그래 사실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다. 이러거든. 그래 이야기 듣고 도령님을 평풍 너매 주아 넘가뿌거든.

그래 그 집이 정승 가운데 맏인데 삼 정승의 딸이 그 집에 다 모여. 그래 인제 이 정승 딸이 첫 번째 들오거든. 들오면서,

“형님 자나?”

카이,

“안직 안 잔다.”

캐. 그래 들오인께,

“들어와 앉거라. 내가 오늘 사랑에 올라갔더이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거 하더라.”

“이야기 하라.”

이라거든. 그래,

“시골에 우리같이 이래 사는데 삼대 독자 외동안데, 오늘 저녁에 호식 하는데, 삼 정승 딸 춤을 먹어야 산다카이, 외동 아들을 살리야 되나 안 살리야 되나? 이래 묻는 이야기를 하더라.”

캬어. 그라고,

“그래 그 처녀가 안 살려 주더라.”

이랬거든. 그카인께,

“에이 그놈의 처녀 나쁘다. 우리 같으면 살리 준다.”
이러거든.

“그래 그러면 여기 약조 써라.”

그래 쓰인까네,

“평풍 너매로 들어가라.”

그러이, 그리 얘기를 해놔으이 할 수 없거든.

그래 또 쪼끔 있으이 막내이 박 정승 딸이 또 들어온다. 또 그런 이애
기를 하인께, 또 그것도 역시 그카거든. 그래 또 평풍 너매로 들어갔다.
그래 셋한테 장개 들었지.

장개 들어가지고 과게보는데, 만날 이놈이 세 처녀하고 있으인께, 잠을
못 자. 과게장에 나가서는 꼬박꼬박 자불고 있다. 자불고 있으인께, 처녀
들이 담장 너매 쳐다보인께네 자불고 앓았거든. 그래 흙덩이를 던지이
콧대 맞아가 잠을 깼다. 그래 인제 과게장에 가서 저그가 써 줬거든. 저
그 아버지가 과게를 보인께. 그래 써가 올리인께 참 과게에 알성급제를
했는데, 김 정승이 있다가 무릎팍에 탁 주어 떨어뿌거든. 그래 이 정승이
있다가,

“아 형님 그거 뭐가 나 쫓 보자.”

카거든, 떠억 보이, 알성급제 답안지거든, 삼 정승이 다 보더이 서로 사
우 본다 이라거든. 사우는 벌써 봐놔는데, 사우를 본다 이라거든.

그래 인제 세 정승이 모여가지고 임금 있는데 갔다. 가서,

“우리 셋이 다 사우를 본다이 이거 어떻게 하든 좋겠습니까?”

물었거든. 물으인께,

“그럼 경들이 가가지고 상을 잘 채리가와가지고 먼저 먹는 상에 정승
이 사우 보라.”

이랬거든.

그래 셋이 같은 차반상을 채리는데, 셋이 다 아주 뭐 없는 게 없이 채
리가 상을 갖다 놓고 그래 불러놔다. 불러놓기 전에 정승 딸이 있다가
뭐라는 게 아이라,

“가서 먹는데, 그 상에 하나씩 주아가지고 한입에 떨어 떨어뿌라.”

이라거든. 그래 가서 시기는 대로 했다. 그래 죽죽 주워서 한입에 떨어떨
었다. 그라이 임금이 보고,

“그놈 욕심도 많다. 서이한테 다 장가 가서 사우 보라.”
고. 그래가 서이 다 사우를 봐가지고 저 집에 내리오는데, 광대를 앞세우고, 말 타고 가매 세나 타고 내려오는데, 그 영감 할마이 있다가,
“어떤 사람 팔자 좋아 저런 가매 타고 내리오고, 우리 아들은 죽었나 살았나.”
카른서 막 우는데 저그 마당에 떠억 들오거든. 그래 들어오는데 보인께 저그 아들이거든. 그래 인사를 하고, 그 인제 매누리 서이는 뒤에 아들 둘 딸 하나씩 삼태를 낳았어. 하나이 삼태씩 낳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인제 대대로 정승질하고 잘 살더라고요.⁹⁾

[해운대구 설화 6]

쫓겨난 딸

구 연 자 : 김인환(남, 79)

구 연 일 : 1996. 6. 15

구연장소 : 해운대구 반송본동 경로당

옛날 정승이 아들 서이를 낳고 막내이 딸 하나를 낳았거든. 그래 명절에 맏아들을 보고,
“니는 누 덕으로 사나?”
“아버지 덕으로 사지요.”
나가라 하고, 또 둘째 아들을 불러,
“니는 누 덕으로 사나?”
“아버지 덕으로 산다.”
거든, 또 셋째 아들을 불러,
“니는 누 덕으로 사나?”

9) 『호식당할 총각과 세 정승 처녀의 결연』 유형의 광포설화. 이 설화에는 연당 앞에 호랑이가 등장하지 않는 모티프와, 또 세 정승의 상 위에 있는 음식을 한입에 넣는 화소가 있는 것을 보아 이 유형의 변형이라 할 수 있다.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195-200쪽에 수록(‘삼태독자가 호식 면한 이야기’).

“지는 아버지 덕으로 사지요.”

카거든.

“너희들은 말키(모두) 나가라.”

그래 막내 딸을 불러서,

“니는 누 덕으로 사나?”

“나는 내 덕으로 묵고 사지요.”

그래, 깊은 산중에 없는 데 시집보내야 되겠다고, 그래 산중에 솥굽쟁이 모자 있는데 거기에 시집보내놓이, 그래 하리는 저그 신랑한테,

“우리 집에 가믄, 백말이 좋은 것이 있다.”

카거든.

“백말인데, 아버지가 좋아한다.”

카거든.

“아무도 모르게 훔쳐가 몰고 오라.”

카거든.

그래 사우가 갔다. 가마이 가 보인께 백말이 마당에 노는데 아무도 모르게 몰고 왔뿌렸거든. 와설랑 솥경 끝는데, 솥경 검정을 가주고 백말을 칠했다. 그래가주고 검정말을 맨들었다. 맨들어 놓고, 시집에 간께 마굿간에 말이 없어져뿌렸네.

아이구 말을 잃아뿌이 정승 한심하고 이 말을 어디 가서 찾노?, 그래 며칠간 말 때문에 걱정을 하고 밥도 안 묵고 있으이, 한 사흘 지나, 사우가 와서,

“장인 어른요!”

“와?”

“저 말 한 필 살랴요?”

묻는다.

“말이 어디 있나?”

“집에 솥막하는데, 검둥말이 한 필 있는데, 검둥말 한 필 살랴요?”

이카거든. 그래 살라 하거든.

“파는 데는 돈은 안 받습니다. 나를 평양감사를 하나 주면 내가 주겠습니다.”

“그래지.”

그래 몰고 왔다. 검둥말이 돼놓이 털이 반들반들 하거든. 그래 말이 좋다

말이다. 그래 사우를 평양감사를 줏거든. 그래 평양감사를 조(주워)놓고 말을 마판에 매놓이 소낙비가 와서 검정말이 백말이 돼뿌렀다. 백말이 돼뿌린께, ‘야, 사우놈한테 속았구나’ 그래 막내아들이 우에(어찌) 보고 그러느냐고 잡아야 된다고, 그래 잡으러 평양을 간다. 가인께 어마이가 하리 전에 떡 와서 미리 공작을 했다.

“니 막내오라바이가 잡으러 가이 조치를 해라.”

막내오라바이가 기박(棋博)을 좋아하거든. 기박을 좋아한데, 큰 바위 위에 임시로 근사하게 집을 짓고 사람들을 신선으로 꾸며 바닥에 이레 앉차 놓고 기박을 놀게 하였다.

지(막내오라비)가 좋아한께, 바위 위에 올라가 본께, 신선들이 바닥에 앉아 바둑을 두는데 옆에 앉아 구경을 하다가 바둑을 다 두고 술을 한 잔 먹는데, 그래 여기 손님이 왔으이 ‘손님 한 잔 주라’ 그래, ‘신선술’이라 카거든. 먹어보인께 맛이 얼마나 좋나. 그래 주는 대로 받아 먹어놓이 술에 얼마나 취했는지 한 사나흘 자뿐기라. 자뿌리고 나이께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렇거든.¹⁰⁾ 야 이놈 신선놀음에 몇해가 되었는가 싶어 그래 한 곳에 나온께, 허연 노인이 밭을 갈고 있더라.

“영감님, 영감님, 그 전에 신선들이 바위 위에서 놀던 데인데.”

카이,

“내가 쪼매날 때 들었는데 나는 신선들이 노던 데를 모릅니다.”

이카거든.

그래 ‘내가 집에 가면 몇대 고조할배가 되겠다’ 카며 집에 갔다. 간께, 저 아바이하고 형들을 보고,

“내가 몇대 조상인데 저거 뭇인고?”

이러거든.

“저놈 미친 놈이라.”

그래 에이 속았다 카고, 둘째를 보냈다. 둘째는 가는데는 책을 좋아하거든. 평양에 좋은 기생을 불러서 방안에 책을 많이 구비해 놓게 하고 평양에 감사를 보러 오는 사람이 있거들랑 집으로 꼬아 접대를 하고 하룻 밤 자라 시켰거든, 그래 평양을 간께 기생이 썩 잘 났거든, 그래 들어가 술도 먹고 책들을 보며

10)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나’라는 속담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상기하라.

노니까 기생이 하는 말이,

“당신이 오늘 저녁 자고 가라.”

이라거든. 그래 마음대로 자라 카이, 그래 술을 먹고 자는데, 자다본께,
문이 덜커덩덜커덩 하거든. 그래,

“문 열게, 문 열게.”

“아이구, 우리 신랑이 왔습니다.”

이라거든. 그래 궤에 남자를 열어놓고 잠갔부고,

“문 열게, 왜 문 안 여노?”

“예”

그래 문을 열어놓인께,

“야, 이 사람아! 내가 오늘 가다가 점을 해보인께, 저 궤를 사라야지
안 된다네”

“궤가 무슨 사달(邪毒)이라니요?”

“아이라, 궤가 사달이니 집안이 안 된다 하니, 궤를 내일 대동강 물에
떨가뿌리야 된다.”

“안 된다.”

이카거든.

“내가 시집을 때 가져온 하나인데, 그건 안 된다.”

이라거든. 그래 두 내우간에 싸운다. 싸우다가 그래 여자가,

“그래지 말고 감사에게 물어보자.”

이래거든.

“둘이 궤를 가져가서 감사가 물에 떨루면 떨룰까, 감사한테 해결을 들
어보자.”

“그래 하자.”

그래 이튿날 지고 갔다. 가가설랑 감사한테,

“감사님 판결을 내주십시오.”

“무슨 판결이냐?”

“궤가 사달을 낸다 하여 강물에 떨구자 하나, 아내는 결코 못 한다 하니
어찌면 좋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강물에 떨가뿌라.”

그래 인제 궤에 담아 들어 온 처남은 인제 꿈쩍없이 죽었구나 싶우거든.

그래 물에 떨가뿌리러 지고 가는데,
“여봐라! 켜를 가져오너라. 그 뭐가 들었는지 열어봐라.”
열어보이, 들썰 처남이 들어 있거든.
“아이고, 우에 처남이 들았아 있습니까?”
그래 처남을 옷을 입히가 보내뵈다. 그래 감사를 못 잡아서 마지(만이)가
있다가,
“이번에는 내가 잡아 오겠습니다.”
그래 온다. 온께, 동생이 마당에다가 끓는 물을 뿌리다가 저그 오빠 도
포에 물을 덮어씌었어. 그래가 패해가주고, 그래 모면해가주고, 그래 잘
살드립니다.

[해운대구 설화 7]

고시네 설화(명풍수 도선)

구 연 자 : 정영시(남, 87)

구 연 일 : 1996. 6. 15.

구연장소 : 해운대구 반송본동 경로당

우리나라에 지리학사 도선이 알쥬? 도선이가 원래 여주 사람이래요.
도선이가 고개를 하나 넘어 땡기면서 공부를 하는데, 아침에 그 고갯 넘
어 갈라른, 이쁜 처녀가 나와서 입을 맞추다 이거야.

그래 나이 열나믄 살 남짓했는 아이가 넘어 땡기는데, 아침마다 그런
다 말이야. 그러이까 시방 사람 같으믄, 여자가 그러이까 호기심에도 좀
더 친할라구 했쥬지만, 옛날 사람은 그기 아이니까. 그 여자가 대들어서
입을 맞추고 하이까, 미안하기도 한데, 입을 맞추면 그 여자 입에서 뭐가
도선이 입으로 굴러들어왔다 도루 나갔다 이래.

그러다 보이까 그럭저럭 아마 일년 났던 모양이지. 그 아이가 얼굴 빛
깔이 적어지고 이러이까, 하루 아침엔 글방엘 가이까 그 선생님이,

“너 요새 우째 얼굴 그 색이 좋지 않은데 왜 그러냐?”
하고 물었단 말이야. 그래 도선이가 사실대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내일 아침에는 오다가 입을 맞출 적에 뭐가 굴러들어오거든
니가 그걸 샘키구서 하늘을 치다봐라.”

이래 시켰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가는데, 처녀한테서 여전히 굴러들어 오는
걸 샘키긴 샘켰는데, 하늘 치다볼 생각은 안 하고, 땅을 내리다 봤어. 그
래서 그 도선이가 지리학사가 되었다는 거지. 도선이가 지리는 훤히 봤어.
그래 선생님이,

“하늘 치다봤느냐?”

하이까,

“하늘을 안 보고 땅은 봤다”

고 하이까,

“그럼 내 산수지리나 하나 잡아다오.”

“그래 선생님은 어딜 정하시고서 산수지리를 하나 잡아 달라고 그러십
니까?”

그래,

“여주 금계포란형이라는 데가 있다.”

그래 도선이가 거길 가 보니까, 선생님 묘자리가 아이었다 이거야. 임
자가 따로 있다 이거야. 그러이 가서 묘자릴 못 잡았다고 할 수도 없고,
선생님 자리가 아인 걸 잡아줄 수도 없고, 그래 도선이가 그 질로 중국
가서 지리 공부를 더 하고 이러구 왔는데, 도선이가 중국 가서 지리 공
부를 하는데 중이 됐다 이거요.

근데 어머니 한 분이 살어. 그래 그 어머니를 뵈시고 사는데 인제 어
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래 중이 자기 당대는 어머니 제사를 지낼 수가
있지, 자기가 죽은 다음에는 중이니까 자식이 없잖어? 그럼 골절이다 이
거여. 그러면 어머니를, 어떻게 제삿밥을 굶지 않을 자리에다가 쓰느냐?
그래서 자기 어머니 백골을 해 쪼아지고서, 조선 천지를 다 돌아댁기는
거야. 그래 한 군데를 가서, 한 집에서 자려고 하는데, 그 집을 가만히
보니까, 그 집 부엌 바닥에다 묻으면 제사 밥은 굶지 않겠다 이거야. 부
엌이니까 항상 거기 밥상 놓고 밥상 차리는 건 사실 아니여. 그래서 인제
자는데, 집에 노인이 한 분 있는데, 그 노인하고 같이 자다가, 살그머니
나가서 부엌 앞에 가서, 자기 어머니 백골을 묻을라고 파내니까, 노인이

“이놈”

이러거든.

그래 들켰다 이거야. 그래 할 수 없이 들어왔잖어. 그래 들어오이까 그 노인이 하는 말이,

“이놈아, 거기다가 너 어머니를 모시른 제사밥을 계속 얻어 자실 것 같으냐? 집터라는 거는 사람이 살다 빌 때도 있고 그런 거지. 몇 백 년 이나 그냥 이 집이 유지된다고 보느냐?”

이런 얘기야. 그래 또 생각하든 그렇거든. 집이라는 게 없어지든 거게 어느 놈이 밥해 놓고 있을 거야.

“너 그러지 말구 시방 전라북도 김제 평야 거기 가든, 들 복판에 흙모 아 논 곳, 흙더미도 있고 돌도 모아서 있고 정자나무도 심어논 거기다 갖다 어머니 모시른 너희 어머니 제사밥은 안 끊어진다.”

그래서 그 노인 말대로 짊어지고 거기 가이까, 과연 들 복판에 둥구런 흙더미가 있는데, 정자나무도 옆에 있고 그래. 그래 도선이가 자기 어머니를 게다 써 놓구서 왔는데, 말이 도선 어머니 성씨가 고씨다 이거야. 그래 한 사람이,

“이거 어떤 사람이 묘를 갖다가 썼나? 자식이 없나?”

이래.

그래 거기서 인제 풀이 나이까 벌초도 해 주고, 그라든 그 들판에서 농사짓는데 벌초해 준 그 집 농사는 더 잘 된다 이거야. 그래 정자나무 밑에서 인제 점심밥 먹을 때 밥 한 술이라도 떠 놓고 먹자고. 김제, 한국 서 들이 제일 너르잖아요? 그래 인제 밥을 먼침 거기다 떠 놓고서 먹고 그래.

하여튼 거기 일하러 나오든 밥 먼침 거기 떠 놓는다 이거요. 그러이까 봄서부터 여름 가을까지는 날마다 밥 없는 날이 없잖느냐 이거여. 그리고 거기 밥 떠 놓고 벌초하든 농사가 잘 된다 이거여. 그러이 한국 안에서 그 소문이 금방 퍼질 거 아니요? 그래 먼 데 사람은 밥은 해다 놓을 수 없고, 그래서 들에 가서 밥 먹을 때 밥을 먼저 한 술 떠서 던지면서 ‘고씨네’ 하거든. 그래서 그 ‘고씨네’라는 전설¹¹⁾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¹²⁾

11) 태백산의 중(僧)으로 풍수지리에 능한 성지(性智)에 관한 설화라고 함.

12)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224-226쪽에 수록.

[해운대구 설화 8]

숙종대왕의 목숨을 건져준 신

구 연 자 : 정영시(남, 87)

구 연 일 : 1996. 6. 15.

구연장소 : 해운대구 반송본동 경로당

숙종대왕이 그때 아마 순찰을 많이 도신 모양이야요. 그래 평복을 하고 땡기니까, 누가 왕인 줄 모른다 이거야.

시골을 갔는데, 한 군데 가서 보니까, 참 여자가 이쁜 게 있다 이거야. 그래 그 여자 남편하고 내기 장기를 둔 거야.

“당신이 지른 당신 안헬 날 주고, 내가 지른 나는 죽음으로 대신하겠다.”

그러니까 내기가 큰 내기지.

그런데 그 옆에 장사꾼 하나가 드러눕어 잤다 이거야. 그래 숙종대왕이 한 점 때문에 지게 돼간다 이거야. 한 점 놀 것 잘못 놓으면 진다 이거야.

그런데 장기 상대하는 사람이 잠깐 한테(바깥)를 나갔단 말이야. 자는 척하고 들누워 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가르쳐줬단 말이야. 여기다 한 점 놓으라구. 그래 숙종대왕이 무조건 털다보고만 앓았겠지, 그 사람 들어올 때까지. 상대가 잠깐 나갔다가 들어와서도 게 들어와서두 숙종대왕이 안 놓구 얼마 털다보고 있다가, 거기다 딱 한 점 놔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절에 사람이 숙종대왕을 도와준 거야.

근데 그게 실지는 장사꾼이 아이야. 신이야 신이 왕의 목숨이 빼앗기 인까 그렇게 도와준 거야.

[해운대구 설화 9]

숙종대왕과 풍수

구 연 자 : 정영시(남, 87)

구 연 일 : 1996. 6. 15.

구연장소 : 해운대구 반송본동 경로당

숙종대왕이 그렇게 참 시골을 많이 돌아댁기시는데, 한 군대를 가이까, 산에 장사를 지내는 집이 있다 이거야. 그래 숙종대왕도 지리를 대강 알 았던 모양이지. 그래 장사지내는 텔 구경을 가신거야. 가 보이까, 거거다 묘를 쓰면 망할 자리야. 그래서 숙종대왕이,

“여기다 묘를 쓰면 자리가 좋지 않으이까, 내가 돈 쉼 냥을 줄 테이 다른 데로 자리를 잡아서 묘를 써라.”

했다. 그러이 없는 사람이 돈 쉼 냥이면 큰 돈 아인가? 그래서 인제 장사를 다른 데로 지내게 돼. 그래 숙종대왕이 물었어.

“이 자리를 누가 잡았느냐?”

그러이까,

“저기 산 밑에 저 오막살이 집에 사는 영감님이 잡았다.”

고 그랬단 말이야.

“응 이놈우 영감이 사람을 잡아도 분수가 있지, 그 망할 자리에다가 뽕자리 잡아주는 데가 어디 있나? 그래 뽕자리를 모르든 가만이 있지. 무슨 자리를 안다고서 남의 뽕자리를 잡았는가?”

하고 그 집엘 찾아갔어. 찾으이까, 주인 영감이 떡 나와 영접을 해 드린다 이런 얘기야. 게 들어가 인사를 하고서,

“당신이 저기 아무데 그 장사지내는 산자리 잡아주셨습니까?”

하고 물으이까,

“예. 내가 잡아줬습니다.”

“그 자리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자리가 참 좋습니다.”

“그 자리가 어째서 좋으냐?”

“그 자리가 장사지내기 전에 돈 쉼 냥 생기는 자린데, 그보다 더 좋은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숙종대왕이 깜짝 놀랄 거 아녀? 그런 텔 잡아줘야 숙종대왕이 거기 와서 돈 쉼 냥 주고 다른 데 갖다가 쓰라고 할 줄 알았다 이거야, 이 사람이. 그래,

“그라든 당신이 그렇게 알면서 왜 이렇게 사느냐?”

이러인까네,

“그건 손님이 모르시는 말씀이요. 이 집터가 얼마나 좋은데 그러십니까?”

앉아서 왕 만나보는 자리가 어디 있습니다.

이런 얘기에. 그라믄 숙종대왕이 거기 온 줄 안다 이거야. 그러이 대왕이 평복을 하고 가서, 서민처럼 하고 갔어도 왕인 줄 안다 이거야.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직접 왕이란 소리를 안 했다 이거야. 그러이까 그 사람은 앞 일을 아는 사람이지. 그래 우리나라에 그런 전설이 많이 있어.¹³⁾

[해운대구 설화 10]

죽은 남편을 저승에서 보고 재혼한 이야기

구 연 자 : 김수근(여, 75)

구 연 일 : 1996. 6. 15.

구연장소 : 해운대구 반송2동 운봉마을

옛날에 여자가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래 이 여자가 하도 남편이 보고 싶어서, 애원을 하고 그라이까네, 어느 도사가 한 분 와서가지고,

“뽀뽀쟁이(질경이)를 따가지고 씨를 떨어져 기름을 짜가지고, 지샷날 밤에 기름 불로 딱 써가지고 놔놓고, 짓상(제사상) 밑에 앉아서 보며는 남편이 들을 기다.”

이카거든.

그래서 인자 뽀뽀쟁이를 하인들을 시기가지고 뽀뽀쟁이 씨를 많이 따와가지고 기름을 짜가지고, 딱 소캐(솜)로 심지를 만들어 불로 켜놓고 짓상 밑에 앉아서 보이께네, 신랑이 들어오더라요. 들어오는데, 도복을 입고 오디마는, 짓상에 떡 았디마는, 젓가치를 가지고 떡떡 집어갖고 음숙을 자시고, 추진 것 물기 있는 거는 다 잡숫고, 마린 거는 착착 싸가지고 끓어지고 가더라내요. 끓어지고 가는데, 여자가 그 뒤를 자꾸 졸졸 따라가이까네, 그래 가다가 큰 기와집이 있는데, 기와집에 문을 툭툭 뚫드리이까네, 새과란 각시가 빨간 치마에다 새과란 저고리를 입고 나와서 문을 척 열어주거든. 열어주이까 신랑이 쭈욱 따라가거든.

여자가 따라가서 문을 뚫드리도 안 열어주더라내요. 안 열어줘서 수채

13)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226-228쪽에 수록.

구녕으로 들어가이께네, 신랑이 딱 들어와가지곤,
“저년 잡아 내라.”
카거든. 그리고,
“저그 집에 보내라.”
카거든. 그래가지고 온다고 오이까네, 질도 잊고 한 사람을 따라오이까
네, 지름대하고 강아지를 한 마리 주면서,
“이래 가면 시퍼런 강물이 있을 기니, 요 지름대를 딱 걸쳐가지고는,
강아지를 졸졸 따라가라.”
카거든. 그래 오다가 보이 시퍼런 강이 있거든. 그래 지름대를 걸치고강
아지를 쫓르륵 따라가이까네 고만 폭 빠지뿌는 기라. 그때 여자가 자물
시켰다가 켜어.
그래가지고 남편을 기다리고 살 수 없고, 죽은 귀신이나 만나가지고
살까 했더이마는, 지는 지대로 장개가가지고 살림을 살고 있으이,
“나도 지금부터 시집간다.”
카면서 그 질로 시집을 가뿌더랴요.¹⁴⁾

[해운대구 설화 11]

못난 사람 이야기

구 연 자 : 김수근(여, 75)

구 연 일 : 1996. 6. 15.

구연장소 : 해운대구 반송2동 운봉마을

옛날에 한 사람이 독장사를 했는데, 그래 독짐을 지고서 큰 고개를 넘
어가다가 쉬이까네, 큰 바위 밑에서 하얀 할매가 하나 나오더라. 그래,
“할매 어디 가시냐?”
카이,
“저 아래 동네에 잔치가 있어, 잔치보러 간다.”

14)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173-174쪽에 수록(‘여자 재혼 이야기’).

그러더라.

그래 그 독장사가 설설 따라갔데, 할머니를. 그래 큰 동네에 가이까네 잔치집이 있더라. 그래 잔치집이 있는데, 독장사는 독을 한 쪽에 세워 놓고, 작대기를 끌고 설설 가서 국수를 얻어먹고 그랬대.

“방안에 있는 양반들 이제 하나씩 차례차례 나오시라.”

그랬대. 그랬더니 차례차례 나오더라.

그래 나중에 할매가 나오는 걸 작대기로 두들겨 뺐다거든. 그랬더니 꼬리 아홉 달린 여우가 그냥 빠드러지더라.

그런데, 그 동네에 못난 놈이 하나 있었데. 그래 그 작대기가 좋은 줄 알고서, 돈을 많이 주고 그 작대기를 샀데. 사가지고선 인제 다른 동네에 가서, 잔치집을 찾아가서,

“방에 있는 사람 한분 한분 차례차례 나오시라.”

했대. 그런데 그 집 할매가 나중에 나오이까, 그냥 두들겨 뺐거든. 그래 빠드러져 죽었지 뭐야. 그래 야단났을 것 아이야. 그러니까 그런 못난 사람이 하나 있더라.¹⁵⁾

[해운대구 설화 12]

죽은 남편 물어주고 부부 인연 맺은 이야기

구 연 자 : 김재근(남, 78)

구 연 일 : 1996. 6. 15.

구연장소 : 해운대구 반송2동 운봉마을

옛날 고려때 얘기라구 이거. 옛날 가객이 하나 있는데, 동네가 한 백여 채 되는 동네에서 이 집 저 집 땡기문서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라.

그런데 그 동네를 다 땡기문서 얻어먹고 보인께, 염치가 없다 말이지, 그 동네에서 얻어먹으믄. 그래 저 건너 가믄 큰 동네가 있는데, 그래 한참 넘어가이까 한밤중이 됐는데, 산꼴짜에서 불이 뵈하거든. 그러이 거기를 차츰차츰 찾아 가보인께, 쪼그만한 초가집이 하나 있더라 말이어.

15)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174-175쪽에 수록.

초가집을 가서 보인까, 삼십대 되는 젊은 여자가 울고 앉았던 말이야.
그래 가마이 문틈으로 보이까, 죽은 남자를 앞에 놓고 울고 있는 거라.

그래 참혹지석해서 그 사람이 인제 문을 열고는,
“놀래지 말라.”

카고, 어찌 이렇게 되었는지 사연을 물었던 말이야.

그러이,

“이 산골에서 할 것이 없어서 채약을, 약을 캐서 팔고 먹고 사는데, 우리 남편이 어찌 잘못되어서 죽었다고, 죽었는데, 내가 여기서 혼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한데, 마침 잘 오셨다.”

고, 그러면서 그 남자 보고 하는 말이,

“당신이 여기서 이 우리 남편 시체를 지킬 것이요? 내가 지킬께 저기 넘어가든 어디가든 그 시쟁이 있으인께 가서 관을 하나 사올 것이요?”

그러기에 이 사람이 암만 생각해도, 내가 시체를 혼자 지킬라 하이 따 분하고 여자 보고 지키라 카고 지가 가서 관을 사온다 캐도 잘 모르는 테를 후딱 가서 사올 수도 없고. 그래 있으이, 여자가 하는 말이,

“이렇다든 저렇다든 말을 하라.”

카거든. 그래, 그 여자가 그 남자 답을 보느라고 카는거라. 그래 남자가 하는 말이,

“그러든 내가 이 시체를 지킬 테이께 당신이 시장을 아이께네 가서 사 갖고 오시오.”

그런께 그때는 한단 말이.

“당신이 그렇게 참 이야기를 하이까, 혼자 갈 수도 없고, 혼자 여기서 지킬 수도 없소.”

그건 그렇지. 남우 송장 혼자 지킬 수도 없거든. 또 여자는 인제 자기 혼자 있으든 더 외로워진단 말이야. 그러이까,

“우리가 잠깐 가든 한 시간이든 갔다 올 터이께 둘이 갑시다.”

그래 둘이 가서 관을 샀어. 관을 사다가 관에다 영엿어. 인제 날이 새야 갔다 물을 거 아인가? 날이 새서는 갔다 딱 장례를 치루고, 여자보고.

“나는 사실 이러저러한 사람인데, 내가 저쪽 마을 큰 마을 가서 좀 얻어 먹고 살라고 가는 중인데, 도중에 이렇게 만나서 당신 폐를 많이 끼쳤다.”

카이, 여자가 손을 짹 붙들면서,

“그게 무슨 말썽이나? 당신이 아이였으면 내가 혼자 어떻게 하겠냐?
그리 가실 게 아이라 나하고 부부를 맺읍시다.”

카거든. 남자가 가만 생각해보이, 이걸 뭐 얻은 떡이거든. 그래,

“그 말이 참 좋은데, 나중에 후회를 또 하면 피차 안 되니까 나는 안
살겠소.”

카거든. 그래,

“아이다. 후회 않는다. 내 죽은 남편을 갖다가 그렇게 했는데, 그 보답을
내 몸으로라도 실행을 시켜야지 이것이 되겠냐?”

캐. 그래 둘이 부부가 돼 사는데 그서(그곳에서) 인제 몬 살겠거든. 먼저
사람은 채약이라도 잘 알으니까 살았지만,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그래 집안에 있는 거 췌어지고는 이사를 갔어. 저쪽 큰 동네 가서 방
을 하나 얻어갔고, 두 내외가 거기서 살다가, 자식이 인자 생기고 어찌고
했는데, 그 동네 사람들에게 잘 하고, 내우간에 이 집 일도 보고 저 집
일도 봐주고 한끼, 인심을 얻어 갖고, 동네 사람들이 막 도와준단 말이
야. 그래갖고 아들 샘 형제를 낳고 참 둘이 해로하고, 늙어죽도록 잘 살
더란다.¹⁶⁾

[해운대구 설화 13]

둔갑한 여우

구 연 자 : 김재근(남, 78)

구 연 일 : 1996. 6. 15.

구연장소 : 해운대구 반송2동 운봉마을

옛날 참 부자들만 사는 동네데, 하루는 중노인이나 되는 양반이 동네에
들어와서 집을 한다고 그래.

그런게, 그 동네에서 집을 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여. 개중에 인제

16)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185-186쪽에 수록(‘시체 지켜 주고
부부인연 맺은 이야기’).

점을 본께, 옛날 지낸 것을 딱 들어맞게 말을 하거든. 이 사람 저 사람 인자 점을 하러 인제 들고 나고, 이래 며칠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언제 아프다고 카면 그 사람이 그때 꼭 아퍼. 그러니까 잘 맞춘다고 말이야. 그리 용하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돈도 갖고 오고 쌀도 갖고 오는데, 하여간 거게서 열매를 벌었든지, 인제 벌으른 어디로 갖고 가는지 갖고 가. 그리고 이 사람이 죽는다고 하든 꼭 죽어, 그 사람은.

그래서 인제 이 동네에서 돈도 쌀도 많이 벌었는데, 그래 하루는 인제 저 집에 간다고 해서, 동네사람이 어딘가 궁금할 거 아인가? 아르치 주지도 않으니까. 그래 가만가만 따라가보이까 짚은 산중 골짜기로 들어가 더이 덩불 속으로 들어가버린단 말이야. 가서 진직에 없으졌어.

그래서 참 괴이한 일이다 하고 돌아왔어. 또 온다는 날 또 오거든, 거기서는 못 보았는데 마을에는 나타나버려. 그래 동네사람이 그 점쟁이를 꼭 밝혀야겠거든. 그 점쟁이는 모르게 인자 살피는 기라. 점을 하든 또 여지없이 맞아. 누가 아프든 당신은 아무 때 낫고, 당신은 아무 때 잘못 하든 죽는다, 그리 한단 말이야. 그러이께 죽을까 봐서 점쟁이가 달라는 대로 돈이나 쌀을 주는 기라.

이 점쟁이가 점을 치고 언제 가는고 하이, 해가 넘어갈만 하든 간다고 가는 기라.

그래서 동네사람이 살살 따라가보이까네, 큰 골짜기에 들어가서 해골을 딱딱 딱딱 가는기라. 갈아갖고는 대가리에다 둘러 쓰는 기라. 둘러썼다 벗으르는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리고, 다시 둘러 쓰든 예쁜 아가씨도 되었다 그리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기이한 일이다 하고 혼자 그것을 보기가 거북해서, 동네 사람 몇을 데려다 놓고, 먼데서 살피는 기라. 살펴보이, 그 점쟁이가 해골을 딱딱 갈더이, 딱 둘러쓰이 참 중늬은이가 돼.

한 중늬은이가 인자 되어갖고는 나무땀기를 하나 짚고는 가는 기라. 동네 저 산너머 간께 집이 몇 채 있는데, 거기 가인께 반갑게 맞아들이는 기라, 할머니 오신다고 하 이거 이상하다. 우리가 분명히 본 기 사람은 아닌데, 여기 이 마을에서는 할머니라고 반갑게 한단 말이야.

이 사람이 담대하던 모양이라. 죽으른 죽고 살든 살고 내가 한 번 현장을 본 것인께, 저것은 분명 사람이 아이다. 아인께 내가 실력대로 한 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큰 몽둥이를 인자 짚고서는 실실 돌아댕긴께, 마을에는 잔치가 있어. 잔치가 있으이 할머니 온다고 맞아들이는 기라. 맞아들이는데, 그 늙은이한테 먹을 거 다 주고 한께, 잘 먹고는 춤을 추고 이리 한단 말이야.

그런께 그 남자도 인제 보고는 저건 틀림없이 사람은 아이다. 나도 한번 실력대로 해야겠다 싶어 요청을 했어.

“나도 거기서 노래를 한 번 하른 어찌냐?”

고 말이야. 노래를 인제 작대기를 짚고서는 한다고 하다가는 그 늙은이 아랫도리를 탁 후리쳐버렸단 말이야. 그런께 기양 깨갱 하문서 백여시가 되어 나자빠지는 기라.

그래서 기양 그 백여시를 손으로 잡았지. 동네사람들이 막 치사를 하고 그 마을에서 돈을 걷어 쥐갯고는 그 사람이 큰 부자가 되어서 잘 살았다 캐.¹⁷⁾

[해운대구 설화 14]

개와 고양이의 보은

구 연 자 : 윤차분(여, 83)

구 연 일 : 1996. 6. 8.

구연장소 : 해운대구 반송2동 운봉마을

예전에 한 사람이 모자간에 살았거든. 모자간에 사는데, 그러구로 오래돼가 장개를 갈라고, 날로 받아냈는데, 장개를 갈라꼬 하이 낄바자(게을러) 맨날 놀다가 남기(나무가) 없어가, 골짜에 가 남기를 한 짐 해다가 두면, 내가 장개 갔다가 올 떠나(동안에) 엄마가 안 때겠나 싶어 나무하러 갔거든. 나무하러 가이께네, 큰 구리(구렁이)가 남게(나무에) 올라가는데, 밑에 불이 훨훨 타거든. 불이 타이껴네, 구렁이가 대가리를 내들러췌이껴네, 그걸 적삼을 벗어가지고 불로 툭툭 꺼줬거든. 그러이 그 뱀이가 쉼거리며 내려 오디마는 하는 말이,

17)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187-189쪽에 수록.

“니가 불을 왜 꺼주노? 내가 하늘에 득천해가 가는 불인데 왜 꺾어.”
그라고,

“그래 너를 내가 자(잡아) 무야(먹어야) 하늘에 올라간다.”
이카거든.

“이 짐승아. 내가 장개갈라꼬 날 받아놔는데, 내일 장개를 가야 되는데, 장개 갔다가 내일 저녁(저녁)에 내가 올 모양이니, 내일 저녁에 자 묵지. 이때꺼정 있다가 장개는 가봐야 안 되겠능교?”

카며 뱀이한테 사정을 하이꺼네,

“오냐, 그러면 니 갔다가 오너라.”
이카거든.

그래 그 소리를 듣고 남개를 한 짐 해가 집에 갖다 놓고, 그래도 엄마한테 그 이바구(이야기)도 안 하고 인자 장개를 갔다. 장개를 가 그날 저녁에 상방을 채려 주거든. 그래 상방에 들어가 앉아 있다. 인제 죽으러 가야 되이 색시한테 손을 못 대겠거든. 가만히 앉아 있으이, 죽으러 갈 시간은 닥쳐 오지. 그래 앉아 있으이, ‘어휴’ 카고 한숨이 나올거 아이가. ‘아휴’ 한숨을 하고 앉았으이, 색시가 먼저 말로 해.

“여보세요. 마땅하지 앓거든 마땅하지 앓다고 말로 하고, 무슨 말로 하지. 왜 한숨만 지둥걸이 해요.”

색시가 그런 소리 하거든. 그래 그런 소리 하이꺼네,
“알 거 아입니다.”

이카놓고, 또 ‘어휴, 어휴...’하고 앉았으이,

“여보세요, 무슨 할 말을 다하고 우째 하든지 하지. 밤이 야심한데, 우째 그리 말로 안능교?”

색시가 자꼬 다잡아 물으이, 이왕지사 그카이꺼네, 참 알아야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그래

“어제 내가 나무를 하러 가이, 뱀이가, 불에 타 죽게 돼서, 내가 적삼을 벗어가 불로 꺼주이 뱀이가 불을 타고 득천을 할 낀데, 불을 꺾다고 너를 자(잡아) 무야(먹어야) 득천을 해가 올라간다 캐가, 자 몰라 카는데, 그럼 내가 내일 장개를 갔다 오거든 자무라꼬(잡아 먹어라고) 그래 컷는데, 인자 내가 가야 되는데, 색시는 우야든지 좋은 데 시집 가가 잘 살고 잘 하라.”

고, 그래 말로 하고,

“나는 뱀이한테 자맥히러 가야 된다.”

고 그라거든.

그러면 시간 됐으면 가야 될 것 아이가, 글아이면(그렇게 하지 않으면) 뱀이가 여그(여기) 오면 더 기가 차이껴네, 색시가 가라 캐요.

“가면 난도(나도) 따라갈란다.”

카이.

“그 꼬라지를 못 본다고 따라오지 마라.”

하거든, 색시로. 그래도 못 오구로 하는 것을 색시는 뒤에 살살 따라간다. 신랑이 뱀이자테(뱀곁에) 터억 가가

“내 왔다.”

카거든, 뱀이한테. 뱀이가 자물라꼬 달라드니, 색시가 저그 신랑을 싹 꼬 집어 내뽀고,

“이 짐승아. 날 잡아 무라. 그 사람은 봐두면 썰 데 있고, 여자 일신 봐두면 썰 데가 없다. 이 짐승아 날 잡아 무라.”

카며 막 신랑을 저리로 밀어뽀고. 지가(자기가) 착 달라 들고 달라 들고 이래이, 뱀이가 할 도리가 없어가지고,

“내가 보물로 줄 모양이니, 자기는 가가 보물로가 묵고 살고, 내가 이 이를 잡아 묵어야 하늘로 득천하지, 대신을 잡아 묵고는 득천을 못한다.” 이라거든.

“그러면 보물로 내놔라.”

카거든. ‘책’ 거떠마는(하더니) 보물 하나를 내 놓는기라, 뱀이 입에서로. 그래,

“이거는 뭇이고?”

카이,

“옷 없으면 옷 나오너라. 밥 없으면 밥 나와라 카는 기다.”

또 ‘책’ 거떠마는 또 하나를 내놓으며,

“이건 천지 없는 거 부르면 나오는 기다.”

이래 갈카(가르쳐) 주거든.

구슬로 두 개를 받아 거머쥐고 있으이, 또 ‘책’ 거떠마는 또 까만 구슬로 하나 싹 내 놓거든. 그래

“이거는 뭐라꼬 부리 묵노?”

이카이크네,

“이거는 대기(매우) 밍운 사람 있으면, 앞에 놓고 니 죽거라 카면 죽는다.”
카거든. 그래 그 색시가 뱀이 앞에 톱 놓고,

“니 죽거라. 우리 양반 자아 몰라 카는 니가 제일로 밍다. 니 죽거라.”

그마 휘딱 꺾들어져 뱀이가 죽어뻘어. 그래 그 뱀이 죽어뿌고 난 뒤에
신랑 각시 둘이 와가 암말도 안 하고 방에 들어와가지고 잘 자고 잘 살
으이 없는 거 나오라 카이 나오재, 거부가 돼가지고 산다.

그래 살다가, 인자 친정에 있다가 시집에 갔거든. 시집에 가가, 집을
기와집을 짓고 잘 해가 잘 살게 되었는데, 신랑이 친구라는 놈한테 가가
뭐할라고 이바구를 하노? 신랭이 땡기면서 이바구를 했어. 이바구를 해
놓이, 친구가 하는 말이,

“구슬 귀경을 한 번 하자.”

이카이, 각시가 딱 갈마 Ying 놓고 있는데, 귀경을 하자 카이,

“자기 손에 거머쥐고 귀경을 한번 하자.”

카이, 각시는 안 줄라 카이, 자꾸 지랄하거든. 그래싸이 할 수 없이 좇
다.(주었다) 그 놈이 귀경하다 어느 녀에 탁 감차가지고 그마 구슬 시
(세)개로 가져가뻘다 아이가. 가지고 도망을 가뿌리놓이, 개도 먹이고(키
우고) 피내기도 먹이고 짐승도 먹이고 잘 살다가 이래놓이, 살림이 술술
다 빠져뿌는 기라.

“개야 피내기야 좀 그거한 데 가가 얻어묵고 우리가 돈 벌어가 잘 살
거든 오너라.”

이카미 보내놓이, 개하고 피내기하고 나가다가 한강물로 건네가 갈라하
이, 피내기는 물로 몬 건네고, 개는 물로 잘 건네거든. 개가 피내기로 업
고 한강물로 건네 한 군데 가이, 쥐가 오물오물 하거든. 쥐가 오물오물
한데, 피내기가 쥐한테 물었어.

“쥐야, 쥐야, 여게 보물 왔다 소리 못 들었나? 보물 왔단 소리 들었으
면 보물만 가오면 내가 너를 안 잡아 무꾸마.”

피내기는 쥐를 잘 잡아 먹거든. 그래 쥐가 하는 말이,

“우리 집에 담부락 안에 거기 보물이 있어요.”

이카거든, 쥐가.

“우야든지 니가 그걸로 내가 오면, 보물로 내주면 너그 하나도 안 잡아 먹고 가꾸마.”

카이, 이놈의 쥐 한 마리가 가가지고 돌로 물고 가가 담부락 밑구녕으로 뿔다가 뿔다가 오고, 또 하나가 가가 뿔다가 뿔다가 오고, 마지막에는 쫄만한 새앙쥐가 돌로 물고 가가 툭툭 뚜드리 깨가 들어가, 구슬끈테기를 물고 나와가지고 주거든.

“오냐! 쥐야, 쥐야, 너그는 잘 살아라.”

그단새(그동안에) 괴내기가 배가 고프이, 쥐가 땡기면서 목을 거를 물어다가 주가 목고, 밥이라도 물어다 주는 거 목고 견디고 있으이, 인자 새앙쥐가 입에 피를 차작차작 흘리면서 구슬 시(세)개로 가왔어. 그래 괴내기가 구슬을 물고,

“우리 이만하면 살겠다. 집에 가자.”

이카미(이렇게 말하며) 그래 강 건너 집에 올라 카이, 개가 물에 헤엄질을 하면 숨이 차거든. 괴내기로 보고,

“니 물고 가자.”

그래 잠자코 있을 거 아이가.

“괴내기야 물었나?”

“물었다.”

“괴내기야 물었나?”

“물었다.”

카다가 그마 구슬로 물에 탁 빠자뻘다. 그래 물에 빠자뻘고, 강물을 다 건네가지고 개가,

“구슬 인자 날 도가.”

카이,

“뭇할라꼬 물었나 물었나 카노? 물었다 카다 물에 널짜 뻘다.”

카거든.

그래가지고 물갓에 나와가지고 둘이 있으이, 김침지 영감이 낚수로 가지고 괴기를 낚는데 잉어로 커다란 걸 한 마리 낚아가 휘익 던지께네, 갱변에 툭 떨어지거든. 개가 막 괴기를 물고 천동만동 내뺌거든.

“위리 위리”

암만 카이, 개가 물고 자꾸 내뻘다. 내뻘이 괴내기가 개 따라 자꾸 가뻘다. 그러구로 집에까지 갔어. 괴기를 가지고 갔으이께네,

“아이 너그 잘 살아라고 그 카이께네 그새 와 왔노?”
“이거 피기 해가고 먹고 갈라고 왔다.”
카네. 그래 잉어 배로 따개이 구슬 시 개가 다 들었어.
그 즉시는 인자 주인네한테 개하고 피내기하고가,
“아무데 아무데 가가 쥐한테 가가 보물을 찾아 오다가 강물로 건네오
민서, 물었나 물었다 카다 강물에 널짜뿌리놓이 피기가 구슬을 묵어놓이
이래 댘다.”
카더란다.
그 뒤로는 구슬을 단디 갈무리 해놓고 남이 보자 캐도 안 보이고 참
잘 살더란다.¹⁸⁾

[해운대구 설화 15]

죽은 부친 세워 묘 쓰고 부자된 이야기

구 연 자 : 윤차분(여, 83)

구 연 일 : 1996. 6. 8.

구연장소 : 해운대구 반송2동 운봉마을

이전에 아버지캉 아들캉 부자간에 둘이 살았는데, 그래 남우 집에 사
는데, 일년 선세금을 땡겨주놓이 선세금 땡겨준 거 아버지가 다 묵어뿌
고 빈손 털고 나서고, 또 일년 선세금 땡겨주면 아버지가 다 묵어뿌고
이래가, 장개도 못가고 기가 차거든.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가 이카지 말고 저 남 모르는 데 가가 삼시
다. 이래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구만.”

이카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다 살아가는데, 인자 곧 죽게 댘는데, 고향산에 묻히야지. 고향
산에 안 묻히면 타관 가가 우짖끼고?”

카이,

“아버지 내가 돈 벌어가 아버지 고향산에 갖다 묻으께요”

18)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175-180쪽에 수록(‘개와 고양이 보은’).

그캐놓이,

“오냐. 그래 가자.”

그래 간다고 가이꺼네. 참 대성가 부자집을 찾아갔어. 가서,

“주인 있소.”

카이,

“들어오시요. 누구십니까?”

카이,

“질 가던 행인인데, 날이 저물어가 들어 왔습니더.”

이카며, 드가이꺼네, 그래 보이께네 총각도 참 좋거든. 그래

“우짤 사람인고?”

이카이. 그래

“질 가던 사람이 집도 절도 없고, 이래 땡기며 남우 집이나 살고, 벌어가
아부지캉 둘이 묵고 삽니더.”

그카이꺼네,

“그렇거든 좋다. 우리 집에 여 살으라.”

고 붙잡거든.

저그 농사는 많제, 일할 사람이 없어가 그래 그 총각을 붙들었어. 저그
아부지는 저 산골짜에 가가 돌로 주아가 담집을 지어가 살아가는데, 저
그 아들이 밥을 받아가지고 반은 묵고, 반은 남가가지고, 일하러 가며 저
그 아부지한테 갖다 주고, 그러구로 살아가는데, 돈도 많이 벌지도 못하
고 몇년 살았는데, 한 번 가이 아부지가 아프다 카미 누웠어.

“아부지요 조금만 더 살면 돈 벌어가 아부지 고향산에 갖다 묻을 긴
데. 와 이래능교? 좀 기력을 하소.”

그리고 남우 집을 살다가 한날은 가이께네, 저그 아부지가 죽어뿌렸어.
그캐놓이, 아이고 울 아부지가 죽어 우짜꼬? 돈도 많이 안 벌이노이 고향
산에 갖다 묻을라 캐 놓고 우짜고 싶어가 고향산이라도 뵈는데 갖다
묻어야겠다 싶어가 저 높은 산만데이에 올라가가 넘바다 보이까, 반구
(바위)가 있는데, 지대가(기대어 가지고) 보이께네, 서가 보이 고향산이
뵈고, 앞아가 보이 고향산이 안 뵈거든. 그래가 ‘에라 요 갖다 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인자 그 이튿날 저녁에는 저그 아부지를 짊어지고 올라
가가주고 짝대기를 받혀가지고 세워 놓고 밤새도록 흙을 파가 뵈를 다

췌어. 묻었어.

묻어놓고 날이 희분 할라 카이, 사람이 하나 저 밑에 덜레덜레 올라오 거든. 겁이 나가 반구 뒤에 가가 숨어가 있으이께네, 하는 말이, 거기(그 것이) 풍수라.

“아이고 세상에 어제 여 와가 내가 피터를 잡아 놓고 갔는데, 지난 밤에 와가 여기 피를 다 써왔네.”

이캐놓고,

“애이고 피를 췌기는 췌구마는 세와 묻었으면 삼오 안에 삼천 석 이 판서가 날 긴테, 높히 묻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애이고 애라, 줌(얼마 나) 답답해가 밤에 와가 췌겠나? 저 집에는 탄 데 잡아주자.”

풍수가 내리가더라네. 그 소리 듣고, 마음 속으로 ‘아이고 내가 남우 집 살고 아무것도 없는 기가 삼오 안에 삼천 석 이 판서가 어떻게 나겠 노?’ 그카며 내리왔다.

내리와 그래 주인네 집에는 몬 가고, 저그 아부지 죽고 이래노이, 담집 에 가 있으이, 주인네 집에서 저그 아부지 죽었다고 줌 묵을 거를 갖다 주거든. 그래 줌 묵고, 앓아 있으이꺼네, 밤에 어두부리한데 해침매같은 처녀가 뭐를 하나 이고,

“주인 있소?”

카거든. 그래,

“누구십니까?”

카며, 문을 여이꺼네, 처녀가 들어오더란다. 그래

“밤이 야심한데, 우짤 처녀가 여게 들어옵니까? 저 밑에 가면 큰 동네 가면 부자집도 있고 그런데, 거 가이소. 남녀 유별한데, 총각 혼자 있으 이꺼네, 저 밑에 큰 동네로 가이소.”

이라이꺼네,

“이 밤중에 어둡운데 남녀가 유별해도, 자도 괜찮습니더.”

카며 기어코 부득부득 들어오더란다. 들어오는데, 그래 들어와가 방에 앓 앓는 걸로, 보따리랑 방바닥에 놔 놓고 앓았는데, 그래 총각이 하는 말이,

“여보시오. 당신은 밤중에 무서우이께 방에 문 걸어 놓고 자고, 나는 부엌에 저그 꺼지기(거적) 펴 놓고 잘 기 이 방에 자라.”

고, 그래 부엌에 가 잘라이, 처녀가 하는 말이,

“뭐 내가 여기 들어 와가지고 주인네를 한테로 보내고, 나는 방에 자고
그래가 안 되이 한테 여 마 자자.”

카더란다.

그래 한테 자자 카이 좋지 뭐. 총각은 지 체면대로 다 캐도 그래 카이
좋지 뭐. 그래가 한 방에 자이, 처녀가 먼저 땡기가 잤다 아이가? 그래
자고 난께네, 알라(아기)를 뺏던 모양이라. 인자 낸중에 낳아놓이 삼태지 뭐.
그래가 텃고 사는데, 첫날 보따리 하나 이고 왔는거, 거기 생금덩이라.
그놈을 떼가 주며,

“이거로 가가(가지고 가) 내일은 장에 가 팔아가 오소.”

카거든. 그래 팔아가 오라 카이, 그래 시장 갓에 가가 팔아라 카이, 그래
가가 떡 놔두고 있으이, 친구들이 보더이,

“지랄한다. 저너러 자식이 처녀 하나 왔다 카디, 돌뽕이를 가지고 와서
사라 카이, 돌뽕이 그거 누가 살라꼬 카더노? 지랄도 더럽게 다 한다. 니
그것 때문에 망하겠다.”

친구들이 그캐썬거든. 그래 가마이 가지고 앓았으이께네, 그러구로 해가
혈끗하이 허헌 노인이 하나 오디마는,

“여보, 청년 그거 얼마 돌라요.”

“지값대로 주이소.”

“이천냥 주까요.”

“지값대로 주이소.”

“사천냥 주까요.”

“지값대로 주이소.”

“오천냥 주까요.”

고만 하면 됐다 싶어가,

“예.”

췌거든. 그래 생금덩이를 쥐뿌고 인자 돈 오천냥을 받아가지고 집에 인
자 들어오이꺼네,

“팔았능교?”

“팔아가 이래 가온다.”

카며 돈을 마누래 갖다 주고. 또 그 이튿날 생금덩이를 떠가(떼어) 또 팔
아라 칸다 말이다. 또 장에가 또 그카며 앓아 있으이, 또 해가 혈끗하게

또 노인이 하나 오디마는 어제처럼 사거든. 또 오천냥을 받았다 아인교? 그래 받아가지고, 사흘로 그래 갖다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신랑을 주며,
“동네 가가 집을 한 칸 맞추고, 논을 한두레를 맞추라.”
카거든. 그래 낫선 데라놓이 딴 데 가가 말할 데도 없고 주인네 집에 가가지고 물어보이,
“이 사람아 각중에(갑자기) 자네가 우째 이래 됐노?”
그래,
“우예우예 그래 됐습니다.”
이카이, 주인네가,
“논도 많고 하이 (네가 우리 농사를) 짓도 못한다. 우리 논 사라.”
그래가 얼마 사고, 집도 하나 말해 주는 거 좋은 집을 하나 사고, 그래가 마실에 내려와가지고 살다가 알라로 낳아놓이꺼네, 아들로 삼태로 낳았어요. 아들로 삼태로 낳아놓이, 그거로 키아나놓이, 나중에 삼천 석 이 판서 다 하고 그렇게 잘 살더랍니다.¹⁹⁾

[해운대구 설화 16]

천벌 받은 며느리

구 연 자 : 윤차분(여, 83)

구 연 일 : 1996. 6. 8.

구연장소 : 해운대구 반송2동 운봉마을

이전에 한 놈이 저그 엄마로 사라(태워) 직일라고(죽이려고) 골짜(골짜기)에 가가지고 남그로(나무를) 수북이 해 재놓고,
“엄마, 엄마. 여 올라가 있으면, 하늘에 득천을 해가지고 좋은 데 간다.”
고 그카며 나무 위에다 올라 앉차 놓고, 밑에 불로 지리(지르)거든. 불로 지러이, 하늘에 옥황상제가 내라다 보이꺼네 저런 망할 놈이 어딴노? 저놈이 세상에 부모를 직일라고, 저래(저렇게) 었지 놓고 불로 지른다.

19)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184쪽에 수록(‘죽은 부친 세워 묘 쓴 이야기’).

“애라 이눔아.”

카며 난데없는 소내기 막 내라 가지고 불로 꺼뿔다.

그러구로 밤이 되이꺼네, 할매가 오다가 날이 저물어가 큰 고목나무가 있는데, 근근이 기올라가이 사람 하나 드갈만한 궁기(구멍이) 있거든. 거게 기들어가 궁둥이로 들라 놓고 내다 보고 앉아 있으이꺼네, 토째비라는 놈이 오디마는 나무 밑에 땅을 디기(되게, 몹시) 파디마는, 돈을 항거 갖다 물어놓고 그마 가뿌거든.

조눔 넬 아직(아침)에 내가 가(가지고) 가야겠다 싶어가 있다가, 그러구로 아직에 날이 새서러 파이꺼네 있어. 그눔을 치매에 한 치매 싸고, 집에 인자 아들네한테 드가이꺼네,

“아이고 엄마, 오늘 천상에 갔다 오시능교?”

카이,

“아이고 야야, 내가 하늘에 옥황상제한테 올라가이꺼네, 이거로 날로 가가 묵고 살아라 카며 날로 내라 보내주더라.”

이카며 돈을 내놓이꺼네, 그걸 갖고 묵고 살면 실컨 될 긴데, 며느리 그걸 보이꺼네, 또 욕심이 나가지고,

“애이고 어머님도 그만침 해가 왔는데, 나도 가가 해보면 더 잘 안 살겠능교?”

양반한테 그카거든. 그라이꺼네 남글 더 해가지고, 저그 마누리를 갖다 었어놓고 밑에 불로 질러놓이, 하늘 옥황상제가 딱 내라다보고,

“에이 더럽은 놈, 지(제) 에미 죽일라 하는 걸 보이, 불쌍해가 내가 그래 찼디마는, 그래 조 년눔을 죽여야지 나뵈다 안 된다.”

물로 안 주고, 가마이 놔두이, 막 불에 확 타 죽어뿔거든. 그 이튿날 지녁답에 저그 마누래 올 때가 돼가, 저그 마누래도 가오까 하며 기다리고 기다리고 앉아,

“하마 올 때 됐는데, 와 안 오노? 와 안 오노?”

“야이 더럽은 놈아! 가 봐라. 타 죽어뿔다. 하늘에 옥황상제가 나한테 너그 잘못해가 부모를 죽이는 게 하도 불쌍해가 그래가 돈을 주더라.”

그래 아들눔이 가보이, 저그 마누래가 그만 불에 타 죽어뿔더라.²⁰⁾

20)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184-185쪽에 수록.

[해운대구 설화 17]

꼬리 따기

구 연 자 : 장요순(여, 75세)

구 연 일 : 1996. 6. 8.

구연장소 : 해운대구 반송2동 운봉마을

불 땔라고 나무하러 가세. 등굽어 못 가네. 등 굽으면 절매(질매)가지지. 절매가지는 궁에 넣어야지. 궁에 넣으면 동시리(시루)지. 동시리는 검지. 검으면 까마구지. 까마구는 너푸지(넋 풀지). 너푸면 무당이지. 무당은 뛰지. 뛰면 뚜드리지. 뚜드리면 대장(대장장이)이지. 대장은 찢지. 찢으면 쥐지. 쥐는 궁계(구멍에) 들지. 궁계 들면 배암이지. 배암은 물지. 물면 범이지. 범은 뛰지. 뛰면 비룩이지. 비룩은 불지. 불으면 대추지. 대추는 달지. 달면 엇이지. 엇은 불지. 불으면 내 첩이지.²¹⁾

[해운대구 설화 18]

장수 이야기

구 연 자 : 정진환(남, 64)

구 연 일 : 1996. 6. 8.

구연장소 : 해운대구 반송2동 운봉마을

여(여기) 내려가면 반송여중 앞의 산에, 큰 바위(석유바위) 안 있어요? 그 위에 조금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든 옛날 돌이 사방에 쌓여가지고, 가운데 웅덩이 모양으로 파져가 있었는데, 거기서 옛날 장사가 나왔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도 뭐 확실한가는 모르겠습니다.

그 웅덩이에서 힘센 장사가 나왔는데, 날개가 있고 이래가지고, 하늘로

21) 아이들의 동요 ‘꼬리따기요’의 한 모형을 차용하여 민담화한 형식담.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238-239쪽에 수록.

올라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²²⁾

[해운대구 설화 19]

빈대로 폐사된 운봉사

구 연 자 : 정진환(남, 64)

구 연 일 : 1996. 6. 8.

구연장소 : 해운대구 반송2동 운봉마을

운봉에 큰 산이 삼각산하고 무지개산하고 두 개 있는데, 그 삼각산 바로 정상 가까운 데에 운봉사라는 옛날 절이 있었어.

속설에 의하면 빈대가 많아서 망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어릴 때 소를 몰고 올라간다고 하면, 현재는 나무가 많이 우거져가고 표시가 잘 안납니다마는, 과거에는 주춧돌이라든가 그런기 전부 다 있었어요.

그 당시 사용하던 그릇(그릇)같은 것도 더러 발견이 되었어요. 운봉사가 빈대 때문에 옮겨 가고 현재의 안적사로 옮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²³⁾

[해운대구 설화 20]

파평 윤씨의 시조

구 연 자 : 김우표(남, 79)

구 연 일 : 1996. 6. 22.

구연장소 : 해운대구 반여1동 무정리

파평이라는 데, 지금도 가면, 동쪽에 한 이십 리 거리에 큰 못이 하나

22)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150쪽에 수록(‘장수설화’).

23)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144-145쪽에 수록.

있는데, 그 못 옆에 바우가 높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 바우 우(위)에서 비룻돼가지고 그만 암흑천지가 돼뿐 기라, 그 주위가.

사람이 오고 가는 것도 잘 안 보이고, 하루 이틀 있어 보이께네, 안 답답할 사람 어딴어요? 답답으니까, 그래 그때 당시에 점쟁이라 카는 ‘신들할마이’라고 그랬는데, 그래 그 안노인한테 가서 호소를 했어.

“우리 동네가 이래 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으이, 당신이 좀 정성을 드려다오.”

이래가지고, 그래 신들할마이가 못가에 가가지고 열매를 치성을 하고 비니까, 그래 차차 광명을 되찾게 됐어.

그래 인제 세상이 환하게 되니까, 보이, 그 바우 우에 큰 금궤가 노란색깔 나는 게 있었어. 그래 거계를 올라 갈라 카이, 올라 갈 수가 없어가지고, 남글 서까래 같은 걸 비다가 이어 다리를 매고 신들할마이가 올라가가지고 보이, 금궤 하나 있어. 그래 그 금궤를 가지고 내려와서, 열어보이까, 그 안에 탄 게 없고 아주 귀한 남자 애가 하나 들어 있어. 그래 그 아이의 성을 누구 것을 따를 수도 없고, 그래 신들할마이가 내렸으니까, 그 신들할마이가 성이 윤씨니까 성을 윤씨로 하고 이름을 연달이라고 지었어. ‘연연자’ ‘통할 달자’ 연달이라고 짓고, 그래 해서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게 그 윤씨네 조상 전설이야.²⁴⁾

[해운대구 설화 21]

여동지 전설

구 연 자 : 김우표(남, 79)

구 연 일 : 1996. 6. 22.

구연장소 : 해운대구 반여1동 무정리

여동지는 낙동강 원천지라. 제일 처음부터 거기서 물이 나오는데, 여동지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부자라.

24) 과평 윤씨의 시조는 통합삼한벽상공신(統合三韓壁上功臣) 삼중대광(三重大匡) 태사(太師) 윤신달(尹莘達)임.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207-208쪽에 수록.

부자로 살았는데, 이놈이 얼마나 구두쇠가 되었던지 얻어먹는 사람이고 절에서 온 중들이고 가서 얻으로 가면 일절 안 해 주는 기라. 안 해주고 있으이, 그래 있으인께, 그 며느리가 참말로 마음은 좋지, 시아바이가 그러큼 구두쇠 노릇을 한께 마음이 좀 아팠는데, 하루는 마구를 여는데, 집에 있더라이 어떤 대사가 바랑을 깨끗하게 짚어지고 와서,

“시주 왔습니다.”

이러칸께,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이 가라고. 우리 집에는 줄라 카도 아무것도 없고 하이, 이거나 한 그릇 가져 갈라면 주지.”

“예, 아무거나 좋습니다.”

카고 바랑을 벌리니까, 그 바랑에 물이 출출 흐르는 마굿간의 똥물을 떠서 주는 기라.

며느리가 본께 저래가주고 어떻게 하나 싶어가주고 도장에 가서 쌀을 떠가주 와서 시아바이 모르구로 마당을 빠져나가주고 마당 밖에 섰다가 그 스님이 나오니까,

“아이구, 스님 참 죄송하게 아부지가 그랬으이까 허물치 말고 그 바랑을 벗어 주면 썩거가 쌀을 열어 드릴 게 가져 가십시오.”

“이게나 저게나 다 필요 없고, 당신이 살라 카면 빨리 내 걸음을 따라 내 발자국을 어기면 죽는다. 죽으니까 따라오라. 뒤에 무슨 소리가 나도 걸어보면 안됩니다.”

그래 부탁을 하고 갔는데, 얼마 안 가 무슨 소리가 ‘씩’ 소리가 나니까 뒤를 돌아보았거든. 돌아보인께 자기 집도 소(沼)가 되어뿌고 그 순간에 그만 망부석이 돼뻘어.

지금도 거기 돌이 있어. 낙동강 제일 원류에 망부석이 뻘어.

[해운대구 설화 22]

조월천과 상사뱀

구 연 자 : 김우표(남, 79)

구 연 일 : 1996. 6. 22.

구연장소 : 해운대구 반여1동 무정리

상사뱀이가 별로이 된 게 아이고, 사람이 죽어서 상사가 되는데, 옛날 퇴계 선생 당시 애긴데, 퇴계선생의 제자에, 조목이라고 호가 월천인 제자가 있었어.

그 월천선생이 여덟 살 날 때 공부하러 가서 십년 공부를 하이, 열여덟이 안 됩니까? 그래 하리는 공부를 하다이, 퇴계선생한테 소원 호소가 오는데, 아무 이방의 딸이 월천선생을 사모해가지고 병이 들어 곧 죽게 되었으이 한 번만 와 달라는 호소가 왔어. 그래 퇴계선생이 가보라는 기라. 가보라 카이끼네, 월천이 갈라 카는가? 요망한 계집이 어데 남자를 오라 카고 가라 카고 해. 그러이 안 갈라 카이, 퇴계선생이 가보라고 다시 명령을 해서 할 수 없이 갔다.

가이, 그래 퇴계선생이 시켜가지고 월천선생이 온다 카이, 내(계속해서) 아파서 근 한 달을 들눕어서 밥도 안 묵고 있던 게, 그만 벌떡 일어나가지고 세수를 하고 밥을 묵고 낮에 화장을 하고 앉았다. 그대로 눕어 있었으면, 월천선생이 인정을 갓을는지도 모를 건데, 그래 문을 열어 보이까 머리를 빗고 앉았네. 그만,

“요망한 계집이 어데 그래 사람을 홀리는 법이 어딴냐? 니가 똥인데, 대장부를 오라 가라 했노?”

카면서 큰소리치고 그만 가버렸다.

간 뒤에, 그만 이 처자는 자연적으로 그만치 안 묵지, 기운 없지, 그래 고만 무례를 당코 나이까, 할 수 없어서 죽어버렸거든. 죽은 뒤에, 그래 원혼이 돼가지고 자꾸 월천선생한테 꿈에 나타나는 기라. 꿈에 나타나거나 말거나, 듣지도 안 하고 보지도 안 하고 이래 지냈는데, 월천선생이 돌아가신 뒤에 도산서원의 퇴계선생 배향을 앉았거든.

앉았는데, 나무에 대패질을 해가지고 위패를 다듬어 지방 글씨를 써놓이까. 위패 복판에 벌건 줄이 짜악 놓이거든. 그래 한 번 갈아도 안 되고, 두 번 갈아도 안 되고, 몇 백 번을 갈아도 언제나 그대로 되는 기라. 구리(구렁이)가 나타난 것처럼 그만 나타나는 거야. 그래 이게 뭐냐? 상사다. 그 이방 딸의 죽은 녀이다. 그래 지금도 아직 그대로 있어요. 못 고칩니다. 참 희한하지. 무섭어요.²⁵⁾

25) 조목(趙穆) 1524-1606, 본관은 횡성(橫城), 호는 월천(月川) 또는 동고(東皐)로 퇴계의 문인, 대춘(大椿)의 아들로 문장과 글씨에 뛰어난 대학자이다.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208-209쪽에 수록.

[해운대구 설화 23]

신립(申砬) 장군의 죽음

구 연 자 : 김우표(남, 79)

구 연 일 : 1996. 6. 22.

구연장소 : 해운대구 반여1동 무정리

권을 장군이 택배(擇配)를 하러 가는데, 사우(사위)를 구하러 가는데, 전국을 돌아댁겼어. 그러이 대인들은 딸이 그만치 좋고 인물이 있고 글도 많이 알고 하니까, 사우를 유명한 사우를 하나 불라고 작정을 했어.

결국에 돌아댁기다가 충청도 평산 신씨네가 있는데, 그곳을 넘어오이 장수놀음을 노는데, 쪼매한 어린애가, 본래 신립 장군이 키가 열매 안 되는데, 하나도 장난이 없는 기라. 병졸들이 몇 수십 명이 되는데, 용병을 시키는데, 진퇴를 하고 하는데, 병졸 쓰는 법이 조금도 틀림없이 맞는 기라. 그래,

“니가 어디 있노?”

“나는 이 안 마을 집에 있다.”

그래,

“너 집에 가자.”

그래 장수놀음을 다 논 뒤에 너그 집에 가자고 해서 신립 장군 집이라. 그래 가가주고 그 집에 하룻밤 자고 신립을 사우 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권 대감이 사우 불라 하는데 안 된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노? 그래 승낙했는데, 승낙을 해가주고 사우를 봤는데, 서울에 권을 대장이 대감으로 있을 때인데, 그래 장개를 가가주고 나이 열 대엿 살 되는 게 활을 메고 장군맨치로 꾸며 가는데 길로 안 가고 고만 산을 타더란 기라. 산을 타는데 장수라. 그래 쪼매한 기 산을 타서 가는데, 그래 이 양반이 산을 타고 가다가 고만 노루도 쫓아가 잡고 산돼지도 활로 쏘아 잡고 이래 가는데, 그래 가다가 참 정신이 팔려가주고 길을 잃어뿌렸어. 잃어가주고 해가 그마 저물어서 낭패가 돼가주고 산에서 밤을 새울 수도 없고 길을 찾아 내려오다 한 군데 오이, 집이 아주 큰 기와집이 있는데,

밖에 가서 기침을 하니까 아무도 안 나오고 나이 한 수무 살쯤 가까이 되는 신립과 나이 비슷한 처자가 나오디,

“어디서 오신 손님인동 우리 집에는 집은 있습니다만 못 잡니다.”

“그래 왜 그렇느냐?”

고,

“왜 그러고 말고, 우리 식구가 몇 십 명이 됐는데 다 죽고 지금 오늘 저녁에 내가 죽을 뻔합니다. 오늘 저녁 내가 죽을 뻔인데, 당신이 우리 집에 자다가 변을 당하는 꼴을 보지 말고 째 데로 가라.”

고, 그래 이 신 장군의 생각에는 차라리 참말로 방에 못 잔다 카면 몰라도 그런 뭐가 와가주고 사람을 잡아간다 카이, 거게 호기심이 더 끌렸거든. 뭔가 내가 봐야 되겠다. 뭔가 내가 지켜봐야 된다는 뜻에서,

“그런 염려는 하지 말고, 내가 오늘 저녁에 하룻밤 자고 갈 터이니 그리 알라.”

그래 방을 한 칸 마련해주고, 그래 숟가락을 이만한 거를 가져 나오는데, 여러 백여 개가 넘는데,

“중하고 본식구하고 있던 게 이 숟가락을 들고도 사람이 남고, 지 숟가락이 모지래가주고 손으로도 먹고 접시로도 먹고 했는데, 이런 식구가 다 죽고 오늘 저녁에 내가 죽을 뻔이라.”

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점점 호기심이 더 드는 기라. ‘내가 뭇 때문에 죽는 것은 죽어도 내가 비록 죽을 사람이 아인데, 뭔가 내가 알아 봐야 된다’ 카고, 또 처자도 살리야 되고 이래가주고 거기서 자는데, 옛날 부잣집이지 황춧불 이만한 거를 켜놓고 앉아 육도삼략(六韜三略) 읽고 있다니까 밤중쯤 돼이께네, 문을 잠가놔는데 지절로 문이 툅 열리면서 들어오는데 보이, 행체(형체)가 말도 못하고 어마어마한 행체가 들오디, 앞에 들오디. 고마 깜작 놀래면서,

“큰일 났습니다. 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느냐?”

“안에 신 장군이 여게 계십니다.”

이런 낭패가 있나? 이놈들이 머이(먼저) 알아가주고 어쨌나 싶어가주고 속으로 당황하면서 있다가, 그만 활에다 살을 매가주고 그 대장이라 카는 놈을 정통을 겨눠가주고 쏘버렸다. 쏘버리니까 고만 ‘콵’ 소리가 나디, 나가

자빠지디 그것 역시 딴 기 아이고. 일설은 옛날에 돈 많이 모다 논기 그
기 화해가주고 그래 됐다 카고, 일설에는 독사 구리(구렁이)가 화해가주
고 그리 됐다 카는데, 어느것이 맞는지 모르나, 여하튼 그것이 화해가주
고 그래 됐는데, 그래 그 다음에 처자 있는 방에 들어가 보йка 처자가
죽어버렸네. 그래가주고 할 수 있나. 그래 나가서 물을 더수고 참기름을
넣어 백비탕(白沸湯)을 끓이가주고 입에다 떠영고 코를 빨고 사지를 전
부 주물고 한참 동안 공을 디린게네 깨나거든. 깨나는데, ‘후유’하더니,

“당신이 누구요?”

“내가 오늘 왔던 손이라.”

카이,

“아이고, 당신 덕택에 내가 살기는 살았습니다.”

카면서 일어나가주고, 그 다음에는 자기 방에 안 있고 신림 나오이, 신림
방에 나와서 하소연을 하는 기라.

“당신은 죽어도 당신이 살린 사람이고, 나는 살아도 당신 사람이니까
당신이 내 몸에 별 곳을 다 만졌을 거고 코도 빨고 그리해서 살렸은께,
나는 당신한테 내놓은 몸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

이러이까 처음에는 지성으로 말을 하다가 내중에는 끝까지 반대하니까,
‘그건 나쁘지? 그건 받아조야 사람이 되는데’ 그만 호령을 했는 기라.

“요망한 계집이, 어디 나는 유부남인데, 내한테 솔직히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

그래, 이 여자는 도저히 그 행동하는 것을 봐서는 따라붙을 택은 만무
하고 안 되거든. 절대로 안 돼가주고, 그래 자기 방에 나와가주고 아무짓
도 안 하고 부자 집이지 한께 옛날 서답을 많이 해 놓거든. 그 서답을
나가는 문을 남가 두고 집에 뺑 돌아 감아 놓고 불을 준비를 했어. 불을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날이 새인께 밥을 해줄 요량은 안 하고 지녁은
해주었지마는, 신림이 떠나가이 그래 처자가 지붕 우에 불을 질러놓고
올라가서 불꽃이 양사방에서 터져 올라오니, 사람이 자동적으로 나비처
럼 안 날을 수가 없거든.

“저기 가는 저 양반 한번만 돌아보고 가라.”

고 소리를 지르니까, 산을 빙 둘러 나가다 보이, 동구를 거의 다 돌아나
가다 보인께,

“저기 가는 저 양반 한번만 돌아보고 가라.”

고 또 소리를 지르니까, 그래 휘뚝 돌아다 봤거든.

고만 가슴에 총 맞는 것처럼 피가 날 정도로 마음에 충격이 와. 그것 이상하다 하고 올라갔는데, 올라가가고 권을 대장 집에 처가에 딱 가니까, 그 전에는 신 대장이 올라온다 카든 맨발로 마당까지 쫓아 내려가서 손을 잡고 이러는데, 그날에는 마루에 올라가서 문을 열어보아도 걸어도 안 보는 기라. 권율도 알았지.

사람이 인간이 옳지 않아가고 그 여원(女怨)을 끼쳤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어가고 그래 그 가서 인사를 한 뒤에 질문을 했다고.

“장인께서 어째서 종전에는 지금하고 대우가 다른니까?”

카이,

“대우가 다르지, 너는 옛날에는 참말로 신립이었고,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고 뭐하노?”

“장인,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니 옷을 벗어 보자.”

옷을 딱 벗어 보인께, 이런 점이 하나 찍혔는 기라. 그 욕을 맞은 기라. 욕은 일단 뒤돌아보는 순간에 그 딱 붙어있는 기라. 그래가고,

“너는 지금 아무 필요없는 사람이다. 너는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앞으로 가다가 보아라.”

그래 임진왜란이 나가주고 어데서 싸웠나 하면 충청도 충주 탄금대에 서 전쟁을 했는데, 그래 일본인이 얼마나 조총을 가져와가 디리 썩썩이 갑옷이 닳아가주고 형체를 몰라볼 정도로 돼어 그래 못에 폭 뛰어들어가 주고 한참 식혀가주고 나와서 또 일본놈들이 총 쏘는 어떤 걸 가주고 쏘는가 연구도 하고, 장수는 명장수라 총을 쏘도 안 죽거든.

그래가고 처음에 한 번 가서 지키고 두 번 가서 지키고 세 번째 드 갔다가 그만 그 여신이 나타나는 기라.

“내가 두 번 아까 살려 줬고, 두 번은 뭐냐 하면 당신이 나를 살려 준 때문에 살려준 그 공으로 살려 주었고, 인제는 당신 은혜를 다 갚았으니, 이번마는 당신이 죽어야 된다.”

그래 그만 거기서 죽어똥다.

[해운대구 설화 24]

부자된 선비

구 연 자 : 김우표(남, 79)

구 연 일 : 1996. 6. 22.

구연장소 : 해운대구 반여1동 무정리

옛날에 어떤 사람이 부모 덕택에 재산도 많이 있고 이럴 때 참 한문공부를 많이 했어. 많이 해서 시도 잘 짓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고만허랑방탕하게 돌아댁기다보이, 돈이 십원도 없이 다 털어 써뿌려서, 할 수 없어서, 얻어 묵으면서 서울에 올라갔어.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다 떨어진 의관에다가 옷도 형편없는 걸 입고 한 군데 떡 가이, 큰 기와집이 하나 있는데, 사랑방에 불은 환하게 켜져 있어도 문이 잠겨 있어, 어데로 도저히 드갈 수가 없는 기라. 드갈 수가 없어 원장을 빙 도이까, 행군물 나오는 장소가 한 군데 있거든.

그래 배는 고프지, 불 켜진 걸 보이께, 뭘 묵고 싶기는 묵고 싶지, 배를 떠억 붙이고 기드가가지고 다짜고짜 사랑방에 올라가서 문을 여이, 밥 한 상을 채려다가 보재기를 덮어 놓고 사람은 없는 기라.

환하게 황초불은 켜여 있고. 그래 드가서 밥보재기를 열어보이까, 뜨끈뜨끈하게 저녁 밥을 해냈는 기라. 뭐 배 고풀 놈이 뭘 못 묵노? 고만 앉아서 묵는다. 묵고 있는데, 이 집 종이 사랑방에 나가서 문을 열어 보이까, 다 떨어진 옷을 입은 거지가 들어와서 정신없이 묵고 앉았으이, 겁이 나가지고 말도 못하고 고만 되돌아 갔어. 가가지고 자기 상전한테 얘기를 했어.

“사랑방에 나이 한 사십되는 거지가 와가지고 지금 대감님 밥상을 차지하고 밥을 묵는다.”

고. 낭제(나중에) 알고 보이, 그 집이 정승의 아홉째 첩집이라. 정승이 자식이 없어 첩을 두다가보이, 첩을 아홉을 뒀어. 그게 아홉째 첩인데, 그걸 낭제 가서 보이끼네, 그 사정은 그래 됐는데, 그래 그 상전한테 가 얘기를 하이끼네, 상전이 그럼 내가 가본다 카고, 직접 와서 문을 열어보이

끼네, 그래 고맙다는 소리도 없이 앓아 밥을 묵고 앓았는 기라. 그래,
 “당신이 사람이냐? 귀신이나? 뭇데 집에 들어와서 남의 밥을 묵고 있느냐?”
 카이끼네,

“허 참, 배가 고프이끼네, 밥 보고 안 묵을 사람 어딴냐? 내가 배가 고평 묵는다. 사람이길래 묵지, 뭐 귀신 같으면 당신 눈에 띄도 앓을 게고.”
 카이, 여자가 들어와서 가마이 보이, 모양은 비록 옷은 그래 입었거나 마거나 골격도 그만하고 선비 태세로 생겼고, 그래 고만 나와서 중한테 물을 한 가마 끓이라 그랬어. 물을 끓이가지고, 목욕을 딱 시키가지고, 정승 옷 해 놓은 걸 한 벌 갖다 입혀놓으이, 지 신랑 정승보다 훨씬 낫거든. 참 잘났어.

그래 술 한 상 채려다 묵고 거서 둘이 고만 잤어. 자다이, 뭐가 밖에서 대문 여는 소리가 나는데, 보이, 정승이 오는 기라. 이런 낭패가 있나? 어쩔 수도 있나? 고만 옷 입힐 새도 없고 벗은 채로 벽장에다가 떠밀어 올리뿌고, 이불 뚝뚝 말아 가지고 한 쪽 놓고 정승을 맞이했는데, 그래,

“내 밥상이 없노?”

그래,

“소첩이 나와서 일찍 노다가보이 배가 고평가지고, 대감은 안 오시고 바래다 바래다 안 돼서 그래 묵었습니다.”

카이,

“잘했다. 그럼 술 한 상 왜 안 가지고 오노?”

그래 술은 한 상 시켜 갖다 놓고, 정승이 첩한테 거문고를 툇기면서 한 마디 노래를 하라 카이, 그래 그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이놈이 듣고, 훌쩍 벗은 놈이 기양 가만 있었으면 탈을 안 보는데, 신이 나가지고 무릎을 치면서,

“좋다!”

이래 버렸어. 아 이런 낭패가 있나? 첩이 고만 정신이 하나도 없지 뭐. 얼굴 색깔이 흙 빛깔이 돼가 할 수 없이 사실대로 얘기했는 기라.

“사실은 대감 없는 날 얼마나 외로운 줄 압니까? 여어(여기) 와 지내다보이, 그래 오늘은 마춤 이러이러한 일로서 이래 됐다.”

카이,

“그럼 여 내놔라.”

내놓이, 이놈이 불알을 손으로 가리고 앉아. 그래,

“니 술 한 잔 하나?”

“예, 한 잔 합니다.”

그래 술 한 잔 주이끼네, 묵는데,

“니 글 좀 배았나?”

“예, 대강 배았습니다.”

그래 정승이 앉아 ‘귀(歸) 비(飛) 지(地) 비(非)’이래 운자를 부르니까, 이놈이 뭐라고 짓는 기 아이라, ‘귀’자를 가지고 다는데, 일모장장(日暮長牆) 대취귀(大醉歸), 날은 저무는데 긴 원장을 크게 돌아서 들오이, ‘비’자를 가지고 다는데, 도화일점(桃花一點) 향아비(向我飛)라. 도화 한 떨기가 나를 향해서 날아 왔다, 여자가 왔다 이 말이야. 그러고 또 ‘지’자를 가지고 다는데 차화잡수(此花雜樹) 변화지(繁華地)라. 꽃을 숨구는데 왜 변화한 땅에 숨겼노? 거기에다가 이제 ‘비’자를 다는데 절자비비(切者非非) 종자비(種者非)라. 숨군 사람이 그르지, 꺾는 사람이 그른 게 아이다. 왜 이 화려한 거리에다 갖다 이런 미색을 여자를 갖다 났노? 내가 오늘 저녁에 당신하고 말도 없이 여기서 이래 한 거는 당신이 여기 와 숨겼기 때문에 그랬지. 없었으면 내가 어디 가서 그래 하노?

정승이 가만 생각디이,

“니 그만하면 됐다. 내 니 머리는 안 썩우겠다. 이 기집하고 이 집하고 요 안에 있는 거는 다 니가 맡아 가지고 해라.”

그래 큰 부자가 되었다. 부자가 되고, 낭제 벼슬 한 자리 얻고 그래 잘 되었다는 얘기야.²⁶⁾

[해운대구 설화 25]

권관목과 이무기

구 연 자 : 김우표(남, 79)

구 연 일 : 1996. 6. 22.

구연장소 : 해운대구 반여1동 무정리

26)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200-203쪽에 수록.

권관목이라는 양반이, 이조 때 양반인데 명의라. 명의인데, 하리는 있다이까 환자가 온다고 오는 게(것이), 아주 관골이 보통 생긴 게 아이고, 아주 무시무시하게 생긴 놈이 와가지고, 들어와서,

“니가 권 아무냐?”

“그렇습니다.”

카이, 그래 눈을 떠블떠블거리더니, 탕기(湯器)만큼 한 양쪽 눈알을 뚝 방바닥에 떨어트리더니 좀 있다 주어 넣고,

“이게 뭘 병인둥 곤쳐다고.”

“며칠 말미를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 일 주일 말미를 주고 가버려.

이 사람이 도저히 그걸 곤칠 수도 없고, 그 놈한테 기에 눌려서 아무래도 살 길이 없고 이래 가지고, 고만 단식을 했어요. 단식을 해서 죽을라고 작정을 했는데, 그래 며칠 단식을 하니까, 자식들과 며느리 할마이가 와서 아무리 권해도,

“난 도저히 밥 목을 일도 없고 이대로 간다.”

하고, 이래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현몽하기를 어느날 밤에 어떤 신선같은 양반이 나타나가지고,

“니가 기술이 그만하면 됐는데, 그게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이고, 구리(구렁이)가 화해 가지고 너겔은 명의를 셋을 잡아먹어야 등천을 하는데, 둘은 잡아먹고 셋째 니 잡아 먹으러 왔다. 그래 예방은 탄 게 없고, 경명주사(鏡面朱砂)를 구해가지고, 그걸 깨끗한 베루(벼루)다가 갈아 초필에다가 덤뽕 찍어가지고, 그걸 도포 소매에다 감춰가 있다가 그놈이 먼저와 같이 눈알을 방바닥에 떨어 때 그 눈빠진 자리에다가 초필로 꼭 찢어버려라. 찢어 놓고 보면, 알 것이니 그래 하라.”

그래 갈쳐주서, 황모 초필을 구해가지고, 인제 경명주사는 집에 있는 게고 해서, 그래 갈아 준비를 해가지고 있으니까, 이놈이 와가지고,

“니 생각했나?”

“예, 생각했습니다.”

카이, 그래 눈을 떠블떠블거리더니 툭 늘쭈는 거야. 그래 그 눈 뻥 자리에다가 그만 초필로 꼭 찢어버렸어. 그래 그 놈을 잡았다 카는 그런 명의 전설이 있어.²⁷⁾

27)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212-213쪽에 수록.

[해운대구 설화 26]

의상대사의 출생담

구 연 자 : 김우표(남, 79)

구 연 일 : 1996. 6. 22.

구연장소 : 해운대구 반여1동 무정리

그 지방에서 인물도 좋고 유명한 처녀가 물 이로 가니까 우물에 오이가, 요새 오이는 기다랗지만 옛날 오이는 동글동글한 것이 있어서, 그 오이가 하나 물에 떠 있는데, 그것이 하도 먹구싶어.

그래가주고 물둥이를 우물 옆에 놓고, 그 오이를 물에 건져가 먹었어. 그 자리에서 서서 담박(단박) 깨물어 먹었는데, 먹고나니까 하로 하로 그만 배가 자꾸 불러오는 기라.

이런 낭패가 있나? 처음 한 달 두 달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다섯 달 넘어 서니까 부모네가 보면, 기가 찰 노릇보다도 몸이 그래 되니까 그만 어마이가,

“이 애기의 임자는 누구냐? 니 아무 사람하고 그래도 탓하지 않을 거니까 바른 소리를 해라. 누구냐?”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 카이, 고지(곧이) 듣나. 어마이도 안 듣고, 아바이도 안 듣고 주위 사람도 그만 쑥덕쑥덕 아무것도, 아무 동네 아무 딸이 그 얇전한 게 배가 왜 저래지노(저렇게 되느냐)? 뭐라 말할 수도 없고 할 수 없지, 할 수 없어가주고 백 일이 된께, 나중에 사람한테 임신한 거로 눈에 떨(뜨일) 때는 밀실을 지어놓고는 그다(그곳에다) 가되(가두어) 놓고 굶밥(구멍밥)을 주었어,

하루에 얼마큼 생명을 부지할 만치 갖다 주는데, 그걸 먹고나도 그 속에 위대한 참 대인이 들었으니까, 그걸 우엘(어찌할) 수도 없고 그래 간쳐가주고 밥을 먹고 살았는데, 열 달 딱 되이까 분만이 되는 기라. 분만을 하는데, 아무렇게 분만을 해놓고 나이, 고만 삼 일 삼불(胎火) 태운 뒤에는 그만 아를 버리라는 기라.

“어데다 버리든지 아를 버리라.”

그래가주고 할 수 없어서 그 아를 안고, 자기 몸에 들었던, 솔직한 말로 하면 누구라도 여자하고 남자하고 체질구조가 달라가주고 여자는 아를 낳고 남자는 아를 못 낳고 이래 되는 거지. 사실 어떤 남자하고 관계를 해가주고 낳는 것은 괜찮은데, 참말로 자기는 꿈에도 어떤 남자하고 좋아한 일이 없으니까 하도 애매하지만 부모가 그카인께 결국 할 수 없어서 아를 낳아 통통 부은 얼굴에 수건을 덮어 쓰고 그 아를 안고 산골짜에 가서 버렸다 말이지.

산골짜에 버려놓고 한 걸음 걷고 쳐다보고 두 걸음 걷고 쳐다보고 아무리 그라이 가져 가서 키울 권력이 없는데, 그래가주고 집에서 가서 며칠 있었다. 며칠 있다йка 고만 자꾸 속에서 ‘내가 가서 가(그 아이)를 못 보면 병이 들어 죽을 것 같은 기라’ 그래가주고 그 아를 데리러 갔다고.

가이 ‘어이’ 아는 없고 비들기가 여러 수천 마리가 와서 둘러쌌는 기라. 비들기가 와서 빙 둘러싸가주고, 그래 사람이 가도 날아가도 안 하고 그래 비들기 밑으로 아 있는 데로 손을 들이미니 뜨끈뜨끈한 기라, 방에 있는 것보다 아 몸이 더 뜨신 기라. 야가 내가 애비없이 자식을 낳아도 틀림없이 대인이 된다.

앞으로 큰 대인이 될 것인께 남에게 욕을 얻어먹든 데리고 간다. 그래 안고 와가주고 키운 게 의상대사, 그래가주고 신라 때 큰 대사, 그래 키아가주고 내중에 참말로 그 양반이 착하게 그만치 되었지.

안 그러면 고만 부랑여자가 돼부렀지. 처자가 아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지금도 그런 말이 있지 않는교?²⁸⁾

[해운대구 설화 27]

매구 이야기(17)

구 연 자 : 김우표(남, 79)

구 연 일 : 1996. 6. 22.

구연장소 : 해운대구 반여1동 무정리

28) 범해(梵海) 찬(撰) 『동사열전(東師列傳)』에 겨울에 샘에서 오이를 먹고 낳은 스님으로는 도선 국사(道詵國師)·진각국사(眞覺國師) 뿐이다.

지금은 매구가 없지마는, 옛날에는 참말로 가령 딸을 낳기 위해서, 아들 낳기 위해서 산에 가서 불 쏘고(불 켜고) 빌잖아요? 빌어서 자숙을 낳고, 그 자숙이 제주도 있고, 그런 일이 많지마는, 만일에 내가 여자를 낳기 위해서 산에 가서 불 쏘고 하는 그런 짓은 절대로 하지 마시오.

불 쏘하든 거게 딴 기 생깁니다. 여우가 생겨요.

옛날에 여우가 나는 게, 그래 인자 자숙을, 아들을 낳기 위해서 명산대천에 가서 불 쏘고 하는 것은 아들 낳고, 아들 낳아서 그 집을 잘 되게 하지마는, 그래 못하고 여자를 낳기 위해서 가서 불 쏘는 것은 그중에 딸도 낳지, 낳지마는 옳게는 여우를 점지해준다고, 딸년을. 딸년을 여우를 점지해준다고, 이래가주고 아들 딸 구 남매가 되는데, 이 사람들을 전부 이제 그만 다 잡아 먹은 기라.

다 잡아 먹고 이 여우가 나와가주고 다 잡아 먹고, 내중에 가서는 우엘(어찌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든지 눈에 띄는 것은 다 잡아 먹는데, 그냥 사람을 놔두고설랑 깨물어서 호래이 사람 잡아 먹듯이 뜯어 먹는 것도 아이라 항문으로 손을 넣어가주고 간을 내가주고 간만 먹는 기라. 소도 그라고 개도 그라고 전부 그래 잡아 먹는 기라.

이거 어쩔 수도 없고, 이래 있다йка, 인제 오라바이 하나가 살았다.

오라바이 하나만 살려놓고, 그 여우도 오라바이를 하나만 그 집에 제사지내라고 남가났던지 우에(어찌해)가주고 차례차례 다 잡아 먹고 하나만 안 잡아 먹기 뻤어.

큰 오라바이를 안 잡아 먹었는데, 큰 오라바이가 되는 사람이 어쩔 수도 없고 자기도 죽을 예상하고 잡아 먹힐 예상하고 있었는데, 한분께(한번) 꿈에 어떤 신령이 와가주고 현몽을 하는데 ‘너 집을 도저히 달리 구해드릴 수 없고 망했다. 망했는데, 내가 약을-빨간 약, 새파란 약, 여러 개를 주면서 이걸 가주고 니가 그 여우가 따라와서 밖에서 위급할 때 이 병 하나씩 던지라. 던지면 살 도리가 있다’고, 그래 꿈을 깨서 보이 실제로 병을 가지고 있는 기라.

그래 이기 맞는가 싶어가주고 떠날 날을 작정을 하고 있으인께, 요년 이 밥을 해놓고 지가 미리 밥을 해준다는 것도 여우밥을 해주지, 옳은 밥을 먹지도 못하게 해주고 이래가주고, 이 사람이 집을 나섰는데, 이기(이것이) 따라오면서 깨물라고 대드는데 우엘 수가 있나?

그래 그날 신령이 시기는 대로 그 병을 한 개 던져뿌인가, 새파란 병을 던져까이, 고만에 그 곳이 전부 물이 돼뿌리었어. 강물이 돼가주고 날면 건너올까 사람은 건너올 수 없지. 그런 형태가 됐는데, 그래 우에우에 해가주고 그걸 건네가주고 오라바이를 또 따라오는 기라.

또 병을 하나 던져이까네, 빨간 병을 던져이까네, 막 불이 일어나가주고 고만 전부가 화염이 일어가 사람으로는 도저히 기어나올 수 없는데, 이 여우는 우에우에 숨어서 빠져나와가주고 오라바이를 또 따라오는 기라.

병은 몇 개 있지. 몇 개 있는데, 그 다음에 병을 또 한 개 던져뿌이까 고만에 사람이 들어설 데도 없는 바늘이 보얀 바늘이 짝 들어섰는데, 사람이 디디면 안 죽을 수 없는데, 또 우에우에 뚫고 나오디 또 따라오기에 내중에 몇 번 고초를 겪고 마지막에 병 하나를 던져가주고 그래 남매간의 인연을 끊고 그래 결국 살았다 카는 그런 전설이 있어.²⁹⁾

[해운대구 설화 28]

손천물 나오는 구멍

구 연 자 : 이소계(여, 83)

구 연 일 : 1996. 6. 22.

구연장소 : 해운대구 반여1동 무정리

털애끼 난 손이 쑥 내민다는 카는 그 소리를 들었어.

해운대 목욕탕에 목욕을 가며는 물 나오는 구멍에서 털애끼 난 손을 쑥 내민다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었지.

털애끼 손을 내미는데, 오만(온갖) 거로 다 쥐도 안 가져가디, 불덤비(불덩어리)를 주이, 가져 들어가더라는 그런 말은 있데. 우리 예릴 때 들으이.³⁰⁾

29) 민담에 기자속신(祈子俗信)은 있으나, 기녀속신(祈女俗信)은 없고 그 속신 행위를 하면 불행을 가져 오게 된다는 속신관(俗信觀)에서 나온 민담.

30)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145-146쪽에 수록.

[해운대구 설화 29]

토끼에게 놀림 받은 영감

구 연 자 : 박명순(여, 76)

구 연 일 : 1992. 1. 13.

구연장소 : 해운대구 송정동

조눔우 토끼이가 내리와가지고 녹뒤(녹두) 밭에 녹뒤를 따묵거든. 요래서
요 할배가 요눔우 토끼이를 내가 어찌 잡아 원수를 갚을꼬 하고, 하리는
잡으러 갔단 말이지. 잡으로 가놓이가 이눔우 토끼이를 할배가 탁 잡어
왔다 말이다. 잡아와가 저그 집에 술에 삶을라꼬 술뚜뱅이를 열고 토끼
이를 딱 술에다 넣어놓고 술뚜뱅이를 딱 단아놓고 집 뒤에 나무 불 땔라
꼬 가질로 간 녀에 요눔우 토끼이가 지는 튀이나가고 구들목에 손주 늑
히난 거를 딱 잡아다 술에 넣어놨거든. 이 할배가 그것도 모르고 삶아가
목을라고 보이꺼네 저그 아를 삶어놨거든. 요래가주고,

“요눔우 토끼이를 어찌 잡노?”

카고 떡 하이꺼네, 요눔우 토끼이가 지붕 넘게(너머에) 탁 뛰어올라가,

“용용 할배, 용용용 녹뒤 할배, 용용.”

이라거든. 이라이꺼네, 지붕에 올라가 토끼이 잡을라꼬 딱 불로 질렀
다. 불로 질러이 그 집이 타질 것 아입니꺼? 그래놓이 요눔우 토끼이가
달아나면서,

“속았네 속았네. 녹뒤 영감 속았네. 지 집에 지 불 지리고 지 손주 지가
묵고.”

그라면서 팔딱팔딱 뛰가 달아나뿌더랍니다.³¹⁾

[해운대구 설화 30]

용두각시 텃줄 끊은 자취

31) 해운대구, 『해운대구지』, 대원인쇄문화사, 1994, 459-460쪽과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156-157쪽에 수록.

구 연 자 : 신학수(남, 77)

구 연 일 : 1992. 1. 13.

구연장소 : 해운대구 송정동

거기는 참 절벽입니다. 거 가든 용굴이라 카면서 말이지, 아주 넓은 굴기 제법 깊은 기 있어요. 거어(거기) 파도가 치든 물이 안으로 드가는데 ‘췌에’ 하고 ‘쿵쿵’해쌓아요. 그게 무슨 굴이냐 하든. 용두각시라고요, 용두각시라는, 용궁에서 여자가 나와가주고 거게서 애를 낳았다, 애를 낳아 가주고 텃줄을 끊고 산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거어 기적적으로 표가 있습니다, 거어 가면.

부인이 애를 놓는다고 이렇게 동정끈 풀 자리가 있고, 똑 고대로. 고 우에는 보면 말이죠. 애를 놓으면 텃줄을 끊는 거거든. 가위로 가 끊는다 아이요? 가위 놓은 데, 꼭 가위 고 모양 고대로 있고, 고 위에는 가든 말이지. 옛날에는 가위를 바늘 당시기 안 영나? 바늘 당시기 놓은 자리가 있고. 그래가 그 텃줄을 끊고 산으로 올라 갔다. 그래가 기적적으로, 거어 끊고 올라간 자리가 볼거무리해요, 돌이. 그런 전설이 있어요.³²⁾

[해운대구 설화 31]

홍시를 구한 효자

구 연 자 : 신필영(여, 83)

구 연 일 : 1992. 1. 13.

구연장소 : 해운대구 송정동

옛날에 조깅을 때 우리 종조 할무이한테 들은 이야긴데, 어무이가 병이 나가주고 죽기가 됐는 기라. 뭐 한의원인지, 옛날에사 뭐 의사가 있었나? 그랬는데 홍시 감을 먹어야만 이 할머이가 병을 곤친다 이런 말이 나가주고. 그래 인자 아들이, 동지 선달에 세상에 어디 감이 있나? 요새사 있

32) 해운대구, 『해운대구지』, 대원인쇄문화사, 1994, 446쪽과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138쪽에 수록.

지마는. 기가 차가지고, ‘엄마를 살리자믄, 내가 효자질로 하자믄, 내가 어디 가 구해도 감을 구하겠다’ 카고 밤에 자기 집에서 대문 밖을 나섰어.

나서이까네, 난데없던 호래이가 한 마리 와가 자꾸 지 등드리에 타라 커더란다. 타라 캐서 탔어. 타이까네 마 어데라꼬 휘딱 가거든. 가디마는 그 집 삼쩍걸에 가가 내리는데, 산골 산골에 아주 부잣집 제사라, 그날 저녁에. 그래 내리라 캐. 내리가주고 안에 드가이까네, 제사를 모시고 있던 기라. 그래,

“내가 질을 가다가 질을 잘못 들어서 이래 들왔으이, 내가 여 하릿밤 유(留)해 가면 어떻겠느냐?”

카이,

“들오라.”

카고 한 상 잘 채리주거든.

그래 보이꺼네, 거어 홍시감이 얹혀 있어. 그 감을 보이, ‘내가 이 감을 구해야 우리 어무이 병을 나술킨데, 이 감을 내가 어찌 하겠나?’. 주인이,

“감을 자시라.”

카고 이래쌍거든. 그래 노골적으로 감 구하러 간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

“내가, 우리 어무이가 지금 병이 나가, 이 동지 선달에 어데 가 구하겠느냐고, 홍시감을 구해 디리야 우리 어무이가 병을 낫는다 카는데, 이 감을 몬 구하믄 어찌 내가 효도라 하겠느냐?”

“아이구, 걱정하지 말고, 우리 집에 감 많이 있다. 자시라.”

이래쌍거든. 그래 인자 감을 먹었다. 먹으이, 그 집 주인이 한단 말이,

“참 옛날에는, 그전에는, 아무리 저장을 잘 해 봐도 감이가 썩는데, 올해는 어쩐 일인지 당신이 이래 감 구하로 올라 카이 그런가 감이 하날도 안 썩고 많이 있다.”

카거든.

그래 인자 감을 한 보따리 싸준다. 싸주가, 어텐지 천지 구별로 모르지 뭐. 밤에 호래이 등더리 채이가 갔으니까. 그래 그 호래이가 나와가 또 지키 더란다. 기다리고 있었어. 기다리고 있으이, 또 타라 카거든. 타라 캐가 집어타이 어느녁에 저그 집에 데불어다 주고, 대가리 꺼득거리며 간다 카며 갔부리. 그래가주고 그 어무이가 그 감을 잡숫코 그래가 그 병을 고치. 그래 효도를 하더란다.³³⁾

33) 해운대구, 『해운대구지』, 대원인쇄문화사, 1994, 460-461쪽과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157-158쪽에 수록.

[해운대구 설화 32]

산고동을 구한 효자

구 연 자 : 신필영(여, 83)

구 연 일 : 1992. 1. 13.

구연장소 : 해운대구 송정동

옛날에 엄마가 병이 났던 기라. 병이 나가주고 산고동을 먹어야만 엄마가 병을 고친다 하거든. 이 산고동을 어데 가 구하겠노? 산에 가가 골짜골짜이 땡기며 가йка네, 어디메 산고동이 ‘뛰이이’하며 울거든. 그래 그 산고동 있는 데로 찾아갔어. 찾아가йка네, 스물스물 기이가며 ‘내가 여기 있다’ 카는 그 표시로써 그 산고동이 울었어.

그래 그 산고동을 잡아 와가주고 엄마 병을 곤췌데.³⁴⁾

[해운대구 설화 33]

장산 당산신의 영험

구 연 자 : 김우포(남, 88)

구 연 일 : 1992. 5. 25.

구연장소 : 해운대구 우1동 장지 마을

해방 뒤 얼마 되지 않은 어느 해의 유월에 노인들의 모임인 갑계에서 송아지를 잡고 제물을 장만하여 장산 당산에 가서 제를 올리는데, 너무 무더워서 당산제를 지내는 사람들이 두루마기를 벗어 당산 옆 바위 위에 엎어 놓았는데, 갑자기 두루마기 하나가 하늘로 날아 올라가 장산 가마소 근처에 떨어져 내리므로 사람들이 몰려 가서 간지깅이(장대) 두 개로 휘저어 보았으나 끝내 두루마기를 찾지 못했다.

그런데 두루마기의 임자는 자기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4) 해운대구, 『해운대구지』, 대원인쇄문화사, 1994, 461쪽과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158-159쪽에 수록.

당산제에 참석하여 그런 변을 당했다. 그 사람은 그 뒤 얼마 되지 않아 죽었다.³⁵⁾

[해운대구 설화 34]

김한림의 꿈과 과거금계

구 연 자 : 신학수(남, 77)

구 연 일 : 1992. 1. 13.

구연장소 : 해운대구 송정동

내나 여 기장 고을입니다. 지금은 정관면인데, 해평 김씨가 제일 늦게, 우리 고장에 급제가 서이가 나고 진사가 여덟이 났습니다. 났는데 제일 늦게, 이 어른은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저 집에서, 참 좋은 집들이라고, 자기 삼 형젠데, 자기 백씨가 급제를 했고, 자기 중씨는 진사를 했고, 진사를 해가주고 복을 입었어요, 그 진사가.

옛날에는 벼슬을 살다가도 복을 입으면 모두 시빈(侍殯) 안 내리옵니까? 내리워서 시빈을 이리 떡 사는데, 한번은, 기장에 서씨가 있었어요. 여 기장 이 안에. 이 서씨 이 양반하고 시빈 사는 진사 이 양반하고, 옛날에 과거하러 땡길 적에 같이 땡기는 친구라. 서울까지 늘 과거하러 갈 적에 같이 동무를 해가주고 땡기는데, 한번은 이 친구가 찾아왔어요. 시빈을, 빈상을 모시고 있는데, 그래 반갑기 모두 인사를 하고 말이지,

“니 어쩐 일이냐?”

“이 친구, 아무 때 과거가 있는데 자네 안 갈라나?”

“여보게 자네 알다시피 내가 갈 수가 있나? 내가 갈 수가 없네. 마 자네나 땡기오게.”

이래 카든, 나가면서로, 깜박 생각이 나는 기 있어.

지난 밤에 꿈을 꾸이, 김재사라 카면서, ‘재’자는 있을 ‘재’자, 잠을 ‘사’자. 김재사라 카면서 홍패로 갖다 주는 기라. 홍패를 갖다주는데 그기 문뜩 생각키이.

35)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146쪽에 수록(‘장산 당산’).

“아, 여보게 이리 좀 들어오게. 내 좀 부탁할 일이 있네. 자네가 서울 간다 카이, 내 부탁할 일이 있네.”

이 양반이 밤에 그 꿈을 꾸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해필 과게 말이 나오자, 진사라는 이 어른이 그 때 나이 열 네 살이라. 열 다섯 살이 아니면 과게를 못 봤거든. 연령 미달이라 말이지. 그러나 이런 소리를 안 하고,

“자네 요번에 가거든 내 부탁이 하나 있네.”

“무슨 부탁이나?”

“대단히 미안하지마는 김재사라 카고 글로 하나 열어라.”

그 인자, 대로 영는 기지.

“음, 그러지.”

이래가 인자 노자를 후히 주었어요. 그랬는데 이 양반이 서울 과게로 가가지고 자기는 낙방이 됐는데, 자기가 열어준 이 양반이 걸렸다 말이야. 그 이상하지. 그래 걸리가주고.

옛날도 과게를 본 후에 기일이 있어가주고 아무 때까지 등록을 안 하면 무효가 되는 모양이지. 옛날에는 과게를 지방에서 됐다 카든 큰데, 그 주소를 알아가주고 아부하는 분들도 굉장히 있었던 모양이라. 이분네들이 아무리 찾아도 저 사람 사는 곳을 몰라.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주고 정관까지 찾아왔거든. 와가 보이 아무날까지 서울 가야 되는데 도저히 걸어서는 거어 갈 시일이 안 돼. 밤낮으로 가도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울산을 나와가주고, 이전에 그 화륜선(火輪船), 화륜선은 발동기 이전에 불 열어가주고 말이지, 옛날에 기차도 증기 기관차 안 있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말이지, 화륜선을 대절을 해가주고 겨우 인천에 대어가주고 마쳤어요. 그래가 인자 한림을 하고 있었지. 그래 김한림, 김한림해요.³⁶⁾

[해운대구 설화 35]

송정 지명 유래

36) 해운대구, 『해운대구지』, 대원인쇄문화사, 1994, 447-448쪽과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138-139쪽에 수록.

구 연 자 : 신학수(남, 77)

구 연 일 : 1992. 1. 13.

구연장소 : 해운대구 송정동

송정이란 곳이 옛날 임진왜란 전까지는 가라(加羅)입니다. ‘가’자는 더할 ‘가’자, 벌일 ‘라’자. 그때는 ‘가라’라고 했는데 왜 송정이 됐느냐?

이거는 임진왜란 때 왜놈들이 송정이란 곳에는 발을 못 들이놨답니다. 여게 송정은 하날도 왜놈들이 점령을 못 했어요. 이유는 저놈들이 말이지 ‘너그가 조선에 가거든 송자(松字)를 주의해라’ 이런데, 우리 여게서도 알았어요. 알고 모두 송정이라는 곳이 여게뿐 아이라 곳곳이 많이 있습니다. 김해도 가도 있고, 울산도 가도 있고, 간간이 많이 있어요, 송정이라는데.

그러할 때 그때부터 송정이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촌에 가면 송정이라 하든 몰랐습니다. 모두 가라라고 이랬어요. 한 칠십 년 전만 해도.³⁷⁾

[해운대구 설화 36]

천마산 용굴 전설

구 연 자 : 신학수(남, 77)

구 연 일 : 1992. 1. 13.

구연장소 : 해운대구 송정동

천마산 용굴은 어떻게 됐나 하면, 지금으로부터 팔십 한 사오 년 됐을 꺼예요. 음력 선달 수무 나흘이라고 하는데, 음력 선달 수무 나흘날이라꼬 그때 대수가 젖어요. 비가 많이 왔어요. 많이 오고 난 다음에, 여 뒤에 천마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굴이 뚫이게 됐어요. 그날 저녁에 비가 그래 많이 오는데, 그 굴 옆에 보면 아주 층벽 돌이 쫓아 있어요. 그 돌문 꼭지에 불이 있더라.

37) 해운대구, 『해운대구지』, 대원인쇄문화사, 1994, 445쪽과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137쪽에 수록.

빠얼근 불이 있더라. 불이 있는데, 그 비가 개이고 그 뒷날에 가보이 굴이 있더라.

우리가 에틸 때는 거게 가보른 물소리가 가아(그) 밑에서, 비이지(보이지)는 안하고, 출출출출 내리오는 물소리가 났습니다. 거기서 용이 나왔다 이래 됐죠. 거게 인자 천마산 용굴이다 그깁니다. 그런데 근간에는 지반(거의) 맥혔는가 봐요.³⁸⁾

[해운대구 설화 37]

도둑을 죽이고 살아난 자매

구 연 자 : 이소연(여, 71)

구 연 일 : 1991. 12. 28.

구연장소 : 해운대구 송정동 구덕포마을

딸로 둘을 댓고 아바이하고 살았는데, 살기가 어렵어서 묵밭을 쫓으러 갔어. 쪼으러 간께 하리는 떠억 밭을 쫓아싸이께, 딸 둘이는 집에 놔두고 밭을 쫓아싸이 어디서러 ‘땡’하디마는 사람이 하나 나타나거든. 나타나가 주고 영감자데 한다는 말이가,

“영감님 영감님 뭐를 하느냐?”

이래 묻거든.

“자숙들하고 딸 둘이가 있는데 묵고 살라 하이 밭을 쫓아야 묵고 산다.” 고, 이라인께네,

“내가 묵을 거 줄 터인까네, 딸로 하나 큰 딸로 하나 줄라고, 주른 잘 입히고 잘 먹이겠다.”

아라거든.

그래 집에 와서 그라인께, 딸이 곤란하게 살다가 아바이를 생각해서 갈라 카거든. 그래 댓고 갔어. 밭에 거기 가인까네, 그 사람이 오거든. 와서 댓고 가뵈다. 가가이고 뭐로 주는고 하인께, 첫째 사람의 밭목을 하나

38) 해운대구, 『해운대구지』, 대원인쇄문화사, 1994, 446쪽과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137-138쪽에 수록.

주는 기라. 발을 하나 주는 기라. 주면서,

“내가 갔다 올 동안에 이 발을 다 무야(먹어야) 니캉 내캉 살지, 그라이믄(그렇게 하지 않으면) 니는 몬 산다.”

이래거든.

그래 이 처녀가 앓아 그 밭로 가이고 울다가 울다가 인자 몬 물 수가 있나? 그래 지붕 밑에 옛날에는 초가집이거든. 지붕 밑에 딱 꽂아놓고 가마이 있으йка네 어디서 ‘횡’하고 오디마는,

“다 무엇나?”

이라거든.

“다 무엇다.”

이래카이,

“내가 한분 불러볼까?”

이라거든. 그래,

“불러 보라.”

이라йка네,

“발목딩아!”

이라йка네,

“뭇이가 니 어데 있노?”

카이

“예, 지붕 춘세 있습니다.”

이래카거든. 그래 툇 널찌거든(떨어지거든).

“니가 암 묵고 묵었다”

카이, 그만 여자를 직이뻘어.

또 그 질로 영감이 묵발 쫓는데 가가이고,

“저그 세이(형)가 동생이 보고짚다고 하도 텃고 오라 카는데, 좀 텃고 가구로 오라.”

카는데, 그래 세이가 보고짚다 카는데, 아바이도 보낼 거 이이가, 그래 인제 텃고 갔어. 가가이고 떠억 다리를 하나 주믄서 한다는 말이가,

“니가 이거를 묵어야 내캉 살지 그라이믄 니는 죽는다.”

이카거든.

그래가주고 놔놓고 울다가 울다가 지치가주고 잠이 서얼 들었어. 잠깐

자는 동안에 저그 세이가 오더마는,

“니가 이래 있을 기 아이다. 펄떡 일어나. 일어나주고 그거로 불에 타자라. 타자가이고 갈아가이고 형곶에다 싸 가이고 니 배에다가 딱 붙이 묶어나라.”
이라거든.

그말 듣고 일어나주고 그걸 타자가주고 형곶에다 갈아가주고 배에다가 딱 차여놓은께, 어데서 ‘횡’하고 오거든. 오더마는,

“발목덩이”

이라거든. 그라까네

“예“

이라거든.

“니 어데 있노?”

카이, 배에 있다 카더란다. 배에 있다 카이 묶은 거 아이가.

그래 그 사람과 살았다. 살았는데, 한분은 꽃이 앞에 찬란한 꽃이 두 송이가 나가 있는데, 그래 물었어.

“저 꽃은 무슨 꽃이냐?”

이라이까네,

“그 꽃은 사람 죽었는데, 그따 얹어놓으른 숨 터지는 꽃이라.”

고 이라거든. 또 하나는 뼈가 삭아지더라 캐도 뼈를 징기는 꽃이라고 이라거든. 그래 여자가 하는 말이,

“당신은 뭇이 제일 겁나느냐?”

고 이라이까네,

“버들잎이 겁난다.”

이카거든.

“몸에 닿이른 죽는다.”

카거든. 딱 들어났다. 들어놓고, 이제 어데 갔다 오더마는 코를 기리고 쿨쿨 자거든. 삼작걸에 버드나무가 있던 모양이라. 큰 자리(자루)를 가주가가 잎을 훑고 가지를 부수고 그래 한 자리 해가주고 와가 자는데, 귀에 꽃고 콧구멍에 꽃고 입에 물리고 몸에 꽃고 온 만신에 갖다 뿌리놓이 그만 죽어뻘어. 죽고나서, 그 처녀가 고방을 췌대로 깔랐어. 깔라보이까네, 처녀들도 많이 죽고 그런데 그 꽃으로 저그 세이를 살라가이고, 또 충각들도 살리가이고 그 질로 오가이고 부부를 맺아 잘 살았다 카대.

[해운대구 설화 38]

까치의 보은

구 연 자 : 이소연(여, 71)

구 연 일 : 1991. 12. 28.

구연장소 : 해운대구 송정동 구덕포마을

포수가 꿩 잡으러 간다고 가인께네, 한 군테를 가인까네, 깐채이(까치)가 폴 날으다가 앓고 폴 날으다가 앓고 다시(도무지) 오금이 어리가주고 몬 나는기라. 그래 포수가 돌아보인께 커다란 구리이가 따라오는 기라. 따라온께 구리에게 찌리가 깐채이가 몬 날아가는 기라. 깐채이를 잡아 묵을라 한테, 그래 포수가 구리를 충을 놔가 직이뻘어. 직이뿌가지고 땡기다가 날이 저물었어. 날이 저물어 킁킁하거든. 집을 찾아 하룻밤 자고 갈 긴테, 어데 불이 뵤작뵤작 하더란다. 그래 찾아 드갔어. 찾아 드가서,
“주인 있소?”

카인까네, 여자가 하나 떡 나왔어. 여자가 하나 나오는데,
“내가 주인이다.”

카거든.

“내가 날이 저물어가 가지도 몬하고 하룻밤 날로 새와가 가몬 좋겠다.”
카네,
“들오라.”

이카거든.

들어간께, 여자가 바느질을 한다고 하는데 보이 켜(혀)가 두 날이라. 뱀이 켜가 두 날이거든. 남자가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여자가,
“이야기를 하라.”

카거든. 그래,

“이야기를 할 기 없다.”

고 칸께네,

“오늘 본 것도 이야기고, 지내간 것도 이야기를 한분 해라.”
카거든. 그래 남자가 하는 말이,

“참 내가 쫓 잡으러 나온다고 나오인까네, 깐채이가 자꾸 몬 날으고 몬 날으고 이래싸서 돌아본께네, 커다란 구리가 따라 와가주고 잡아 묵을라 캐서 충을 놔서 직이뿌고 깐채이는 날아가뻘다.”

카이,

“그러믄 그렇지,”

카면서러,

“니가 온 지녁에 잘 만났으이까네, 온 지녁에 밤 열두시 돼서 저 절에 높이 매달아 논 종에서 종소리가 세 번 나야 니가 살아나가지, 그라이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 밥이 된다.”

고 그라거든.

포수는 ‘인제 죽는다’ 카고 있다. 있으인까네, 밤중쯤 어테서 종소리가 ‘탕’ 울리더란다. 또 한참 있다가 종소리가 ‘탕’ 울리디마는 세 번째 울리거든. 세 번째 울리고 나이 날이 희뵈하게 썩어.

그래 포수가 보이 자기가 잠 잘라던 집도 없고, 그 자리에는 뱀이 죽은 뼈만 남았어. 그기 암놈이던 모양이지. 그래 내리온다고 내리오인까네, 중간에 절에 높이 종을 달아 났는데, 깐채이 대가리기 세 날이 떨어졌더란다. 깐채이 자숙 들하고 어미하고 은혜를 갚는다고 종을 때리고 죽었더란다.

‘짐승을 구제하믄 은혜를 하고, 사람을 구제하믄 양물한다’고 옛날에 그래 이야기를 하고.

[해운대구 설화 39]

도둑 죽이고 부자된 고동각시

구 연 자 : 이소연(여, 71)

구 연 일 : 1991. 12. 28.

구연장소 : 해운대구 송정동 구덕포마을

옛날에 어마이강 아들강 살었어. 집도 쪼개 떨어져가 이래 살었는데, 아들은 넘우 논을 갈고 품을 들고, 어마이는 몬사이까네 넘우 방아 쪼어

주고, 빨래 씻겨주고 이래 품을 들고 이라는데, 그래 떡 하리는 논을 갈러갔어. 가(그 사람이)가 지엽(지루하이)으이까네, 말한다 카는 기가,

“소야, 소야, 어떡 가자. 올 엄마 죽으른 누캥 살꼬?”

이라이까네, 어데서,

“니캥 내캥 살지.”

이라거든. 그래 그것 또 듣기 좋아가주고,

“소야 소야, 어떡 가자. 올 엄마 죽으른 누캥 살꼬?”

카이,

“니캥 내캥 살지.”

이라거든. 그래 그때는 인자 흘징이를 놔놓고 차차 차차 올라간다. 올라가며 그라이께네, 큰 못이 하나 있거든. 못 갓에 고딩이가 하나 굶단한기 붙어가 있거든. 그래 못 갓에서 또 어짜는고 불라꼬,

“소야 소야, 어떡 가자. 올 엄마 죽으른 누캥 살꼬?”

카이,

“니캥 내캥 살지.”

이카는데, 고딩이가 그라거든.

그래 고딩이를 떠가왔어. 떠가와가지고, 저거매(자기 어머니) 몰래 농에다 떡 넣어놔어. 넣어놓고, 어마이는 일 가고, 아들은 또 일 가고 없는 데, 그래 갔다 오이까네, 밥으로 요상쿠로(이상하게) 김이 무럭무럭, 어마이가 오이까네, 그래 밥을 해가 넣어놔거든. 괴기도 찌지가 김 무럭무럭 나고 이렇거든. ‘참 이상하다’ 싶어 어마이가,

“야야, 오늘 뜨신 밥이 돼가 있는데, 우째서 그렇노?”

카이까네,

“내가 안 했심더. 어이 그런고?”

이라거든. 그래 아들이가 가만이 생각을 하다가, ‘뭇이 그라는고? 내가 한번 지킬 밖에는 없다.’고. 어마이자데는 절대 고동 농 안에 넣어놔다 말도 안 했어. 그래 쌀 까부리고 나락 까부리고 하는 채이(키)를 딱 덮어 씨고, 정지 구석에 나무 밑에 딱 숨어가 보이까네, 방에서러 처녀가 하나 나오거든. 나오디마는 바가치로 벽 절에다가 어데 대어놓고, 뭐 씨부리이까네 쌀이 줄줄줄 생기더란다. 그래 놓고, 씻겨가주고 밥을 안치놓고, 볼 때는 법도 없고, 그래놓고 뭐 씨부리이까네 밥이 되는 기라. 뒤에 가더마는

돌로 하나 들시더마는 피기 한 마리 켜지오거든. 켜지와가지고 장만해가지고 솔에다 엮어놓이, 불 때는 법도 없고, 그래가 해놓고 드갈라꼬 이라는 걸, 이 총각이 처녀를 떡 잡았어. 잡으이까네,

“아직 내 나을 때도 안 됐는데, 뭘라꼬 붙잡느냐?”

고 이라거든. 그래도 잡았어. 잡으니까 헐 수 없다 카면서 이 여자가 안 드가거든. 그래가주고 저거매가 인자 오이꺼네, 색시가 하나 오가 있거든. 아가씨가 있으이까네, 그래 어마이가 단방이 돼놓이까네,

“나는 큰동네 가서러 자고 올 테이까네, 너거 꺼정 자라.”

고 이라거든. 그래 어마이가 비키 주어서 인자 거어서 잔다. 자고 또 신랑이 논을 갈러 갔는데, 그러차 좀 살기가 안 낫았겠나? 저(자기) 어마이를 밥을 가아 가라 카이까네, 저 어마이가 안 가아가고 자꾸 각시로 가아가라 카거든.

그래 각시가 밥을 이고 떡 가이까네, 한 공굴이 있는데 그쭈 가이까네, 강도 두목이 말로 타고 부하들로 땃고 오는 것 보고, 뚝다리 밑에 드갔는데. 얼마나 잘났는지. 짐승이 화했으이까네 얼마나 잘났을 거고? 그래가주고 ‘뚝다리 밑에 서기 난다’ 이래놓이꺼네, 그래가 지 밑에 부하로 보냈어, 우두머리가. 보내이까네 각시 신을 한 짝이 벗어 주면서러,

“여서 서기 나더라 카고 갖다주라.”

꼬 이란께네, 그래 신을 가아가이꺼네, ‘또 서기 난다’ 이라거든. 그래가 인자 나중에는 또 신을 마자 벗어주이까네 또 가아갔어. 가아가이까네,

“니 눈이 내 발바닥 티눈 카르도(보다) 못 하다.”

카며 마 지가 뛰이내리가거든. 뛰이내리가더이 그 각시를 안고 올라오거든. 올라와 말에 실을 직에, 이 여자가 고름을 하나 띠가주고, 손을 하나 깨물아서 피를 내가주고, 그 옷고름에다 글로 씨기로 ‘이 핏줄 따라 오라’고, 신랑으로 오라꼬, 이 글 보고 따라오라꼬, 손가락 피로 옷고름에다 씨놓고, 피로 가미 내두룩 흘렸어. 사알 몰리 흘리가 가는데, 한 고개 넘어가는데, 편편한 데 도둑놈 사는 곳이라. 그래 갖다 풀어가주고 거어서 산다.

그럼 오래도 안 됐지. 핏줄따라 오라 캐이, 지날 그 질로 소고 뿔이오 내비리빼고 그냥 찾아갔어. 찾아가이꺼네, 편편한 데 큰 기와집이 하나 있는데, 가이까네 샘 위에 큰 바람나무가 하나 서가 있더란다. 거어 가 올라가 떡 앉아 있다. 앉아 있으이 저거 각시가 물 지러 내려오거든. 물

동우에다 바가지하고 가지고 나오더마는 물로 한 동우 긴거든. 그래 일라 칼 적에 바람나무 이파리로 홀 따가지고 동우다가 확 편지뿔어. 편지뿌이까네, 첫때는 바람이 그라는구나 싶어가 암 말도 안 하고 그냥 부아뿌거든. 그래 두번째 또 긴거든. 또 훑어가 또 영어뿌이까네, ‘바람도 안 부는데 와 이런는고?’ 이라면서 이래 한번 쳐다보거든. 쳐다보이께 저거 신랑이 떡 올라앉아 있거든. 그래,

“퍼뜩(빨리) 내리오라.”

고, 내리오라 캐가 그리 텔고 갔어. 그런데 이놈 도둑놈은 도둑질로 하른 석달 열흘로 하고, 잠을 자른 석달 열흘로 자거든. 그래 거어서 신랑을 잘 먹이고, 도둑놈 먹는 기운 나오는 약이 있더라 카네. 그거를 먹이고 이라이까네 칼도 마음대로 막 돌리지고 이렇거든. 그래, 콩깍데기 사룬 재로 처매 앞에다 한거 싸가지고,

“내 따러오라. 칼로 들고 따러오라.”

고, 그래 두목 절에 갔어. 가가지고 그래,

“칼로 가지고 목을 치라.”

고 이라거든. 목을 탁 치이까네, 목이 턱 나가는데, 목 나간 거게 재로 뿌렸거든. 그라이까 목이 툅 떨어졌부거든. 그러차 거어 있는 걸 다 찍었어. 찍이뿌고, 거어 보이, 처녀도 많이 따묵고 그래가 조지가 다 찍이놓고, 고방에 열어보이 비단도 많이 갖다 놓고, 돈도 많이 갖다 놓고 이래놓으이, 그 돈을 말에다 싣고 와가지고, 마을에 내리와가지고, 동네 사람들, 없는 사람강 다 같이 갈라가지고, 그래 부모 거느리고 그래 잘 살더라 카대.³⁹⁾

[해운대구 설화 40]

갓을 쓰면 소로 변하는 사람

구 연 자 : 이소연(여, 71)

구 연 일 : 1991. 12. 28.

구연장소 : 해운대구 송정동 구덕포마을

39) 『지하국제치설화』 유형이나 도둑의 처소가 지하국이 아닌 평지이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해운대구, 『해운대구지』, 대원인쇄문화사, 1994, 465-468쪽과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163-166쪽에 수록.

옛날에 마을에 총각 하내이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 나무를 하러 가이까네, 허연 노인이가 앞아가 갓을 땡글어쌓거든. 이 총각이 한단 말이가,
“아따, 그 갓 참 좋네요.”

이라이까네,

“니 하른 씨봐라.”

이라면서로 턱 덮어씌우거든. 씨우이까네 황소가 됐어. 남자라놓으까네 황소가 됐어. 속으는 사람이 멀겁는데, 말귀도 다 알아듣는데, 남 보기에 는 소라. 그 영감이 물고 내려오거든. 내려오이 장에 가거든. 장에 가는데 어디로 가는고 하이 백정집에 갔어. 백정집에 가가지고 팔면서로,

“이 소는 무시발 건방에 매지 마라.”

이라거든. 그래 잡을라꼬 칼은 갈아쌓제, 귀는 듣긴다 말이다. 그래놓으이 들었다 싶아가, 그 이까리를 열매나 비비고 뛰고 문때났든지 뚝 떨어지거든. 그질로 가가지고 무시발에, 시퍼런 무시 이파리가 우묵히 있거든. 거어 가서 실낱 뽑아묵고 있으이까네, 소 된 기 허물로 훌쩍 벗어뿌거든. 무시발 갓에 떡 서가 있으이까네, 백정이 헐떡헐떡하고 오거든.

“이리 소 한 바리 안 가더냐?”

“못 봤다.”

“하, 이 소가 어디 뛰달아나고 없다.”

고 이라거든. 인자 그 질로 왔다. 와가지고, 또 재차 나무로 하러 갔어. 하로 가이 또 땡글어쌓거든. 그래,

“하, 이것 참 좋네.”

이라면서로, 그거로 영감을 덮어씌아뵈어. 땡그는 사람을 덮어씌우니, 황소가 됐어. 그래 끌고 내려와가지고, 백정집을 갔어. 가가지고는,

“진작 잡아야 된다. 내 있을 적에 잡아야 된다.”

고 그리이, 칼로 잡아 묵는 걸 보고 오가이고, 그래 그 골짜에 갔어. 나무하러 간 그 골 짜에 가이까네, 사람을 소로 땡글어 백정자테 팔았는데 그 돈이 한정 없는 기라. 그래가지고 그 돈 파가 와가지고 잘 살터란다.⁴⁰⁾

40) ‘당나귀로 변한 할미’(김승찬, 『경남의 민담』, 제일문화사, 1986)에서는 할미가 약이 든 떡으로 사람들을 당나귀로 변신시켜 팔아 먹다가 뒤에는 자기가 오히려 약이 든 떡을 먹고 당나귀로 변신 당하였다는 ‘변신담’ 유형에 속한다. 해운대구, 『해운대구지』, 대원인쇄문화사, 1994, 468-469쪽과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166-167쪽에 수록(‘갓 쓰고 소된 사람’).

[해운대구 설화 41]

뱀술로 죽인 뱀

구 연 자 : 이소연(여, 71)

구 연 일 : 1991. 12. 28.

구연장소 : 해운대구 송정동 구덕포마을

옛날에 개로 한 마리 키우는데, 이 개 새끼 놓으믄 팔아묵고, 그 아니믄 잡아묵고 그라거든. 이 개가 가만히 생각하िका, ‘이 영감을 내가 어째야 원수를 갚겠노?’ 이래 싹우거든.

그래 하리는 그 집에서 큰 능구리를 잡아가지고 사주(뱀술)를 해가지고, 문에다가 얹어놔어. 얹어놓고 이래 있는데, 그래 만날 개가 새북에 이슬로 맞고 주루룩 축축하이 해가 오가지고 마당에 앉아가주고, 자꾸 앞장만 쳐다보는 기라.

그래서 주인 영감쟁이가 ‘이기 어디로 가는고?’ 싹어가, 한번 밤에는 나가는 것 보고 따라나갔어. 나가이까네, 어디로 가는고 하이까네, 산골 짝으로 올라가는 기라. 올라가디마는, 숨어가 가마이 들으인께,

“기똥이, 기똥이.”

이래 부르거든. 부르이까네, 저 건니 돌방구 밑에서러,

“와.”

이라거든. 그래,

“내가 참 여차 여차하고 이런데, 내 원수를 좀 갚아줄라.”

고 이라거든.

“내가 건(거의) 십삼 년이 넘도록 오래 오래 늙어가, 내 자식은 잡아묵고 팔고 하고 이러이까, 내가 원수를 갚어야 되겠다. 내 원수를 갚아줄라.” 카이,

“그래, 너그 집에 앞장에 있는 능구리 그것만 없애믄, 내가 원수를 갚지마는, 그것 겁이 나가 몬 간다.”

이라거든. 몬 간다 이라이까네, 그래 그 소리를 듣고, 편애키(빨리) 왔어. 주인은 와가 가만 있으이까네, 또 이슬을 주루룩 맞고 터레기 적시가

주고 오디마는, 그놈을 또 뺏히 쳐다보거든. 쳐다볼 적에, 개가 볼 적에 그걸 뺏어. 띠가(떼어서) 한쪽으로 치았거든. 치와놓이까네, 그날 또 저녁에 나가거든. 나가는 것 보고, 낮에 포수강 전부 다 준비해놓고 삼쭈거리에 불로 켜놓고, 불로 밝히고 이래놓고, 영감은 개 없을 적에 병을 짚에 갖고 앉아가 있으이까네. 이게 인자 가서,

“띠고 없다. 원수를 갚아주러 오라.”

했거든. 그래 내리오이까네, 뚜루루 하더이 천둥치는 소리가 나더란다.

포수도 문 잡았어. 원강 날세게 뒤통으까네, 문 잡고. 그래 문 앞에 와가 아가리 떡 벌키거든. 주인 잡아먹을라꼬 벌킬 적에, 그때 그 병을 집어엿어. 집어엿어뿌이까네, 천둥 치는 소리가 나고 나자빠지는데, 큰 맷방석이 만한데, 아주 오래 묵은 구리라. 구리, 구리가 원수를 갚을라꼬 내리오는데, 그거로 잡아뺏어. 잡아가지고 그걸로 문뒹이도, 풍병 있는 사람도 곤치고, 개도 없애뿌고 그래 인자 잘 살더란다.⁴¹⁾

[해운대구 설화 42]

인신공희(人身供犧) 설화

구 연 자 : 이소연(여, 71)

구 연 일 : 1991. 12. 28.

구연장소 : 해운대구 송정동 구덕포마을

한 마을에 처이가 안 남는 기라. 그래 그 동네에 처이가 없으인까네, 한 해 하나씩 탄 동네 처이를 사다가 제를 지내는 기라.

그래 하리는 처이마자 없으인까네 남자들도 간다말이라. 남자들로 제를 지내는데, 제를 지내고 볼 적에는 신선같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래가거든. 보는 사람들은 ‘신선돼 간다’ 카는데, 그래 하리는 있으이까네, 사람이 하나 갈 차례인데, 가객(過客)이 하나 오거든. 밥 얻어먹고 하는 가객 영감이 오디마는, 그래 이 동네가 짜드라 웅성거리썩거든. 제사 지내로

41) 해운대구, 『해운대구지』, 대원인쇄문화사, 1994, 469-470쪽과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167-168쪽에 수록.

가면 사람이 생전에 안 오고 해썬인꺼네, 그래,

“왜 그렇느냐?”

고 물으니까,

“한 해 한 분씩 사람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된다.”

고 이래거든.

“그래 가면 사람이 없고 변을 당한다”

고 이라거든.

그래 한 사람이 갈 날을 받아냈는데, 가객인 영감이 그래 동네마중 땡기면서 담배대에 진을 끌어 모아가 두 뭉치를 땡글었어. 땡글라가고, 영감이 ‘지가 갈라’ 카거든. 도복 양쪽에다가 한 뭉치씩 열어가주고 갔는데, 그 제당에 가가 앉아 있으니까네, 가마이 있으니까네, 어데서 막 자꾸 안개를 푸우는 기라. 안개를 푸우는데 차차 안개를 푸우디마는 나중에는 뭇이 커다란 기 앞에 왔는데, 보이까네 입을 딱 벌키거든. 벌키는데 안개를 푸아가 묵을라 할 적에 진(담뱃진)을 아가리에다가 주아열어뿔어. 주아열어뿔까네 천둥하는 소리가 나더마는 죽었어. 죽으니까 거기 사람은 만날 천날 제사 모시고 나면 뼈만 치는 기라.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제당에 한분 와보는 기라, 아침에 되면.

거기 와보이 영감이 앉아 있거든. 그리고 그 앞에는 큰 구리가 한 바리(마리) 오래오래 된 기가 죽어 있거든. 그래 그 뒤에는 사람이 하나도 죽는 일이 없어. 그 사람이 동네를 살렸어.⁴²⁾

[해운대구 설화 43]

복 타러 간 총각

구 연 자 : 이소연(여, 71)

구 연 일 : 1991. 12. 28.

구연장소 : 해운대구 송정동 구덕포마을

42) 인신공희담(人身供犧譚)은 주로 처녀나 각시인데, 여기에서는 남자도 포함됨. 『처녀공희』 설화의 또 다른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옛날에 중이가 왔는데. 아주 참 그 집에 묵을 만하고 아들은 외동아들이라. 아들 하나뿐인데, 학생인가 쪼깨는 기, 학교로 갔다 오이까네, 중이와가 동냥을 줄라 카는데 저거 아배가 뭐라 카는고 하이까네,

“동냥 없다. 거름을 주까? 뉘를 주꼬?”

이라거든. 이라이까네, 중이가 마 나가거든. 나가는 것 보고 이 학생이 나가가지고,

“거어 있으라.”

꼬, 쌀로 떼가 가가지고, 그래 부어 주었어. 부어 주이까네, 그 중이가 한 단 말이가,

“니가 아무 때, 니가 몇 살 묵으믄, 너그 집안이가 너그 어매 너그 아부지 다 돌아가시고 나믄, 니가 올테갈테가 없을 거다. 그때는 니가 복타러 오라.”

고 이라거든. ‘서산에 복 타러 오라’고 이라거든. 그래 그 말로 듣고 이 학생이 인자 컸는데, 참 있으이, 그 있던 살림이 낱낱이 다 빠지고 그래가지고, 갈 곳이 없는 기라.

그래 올테갈테 없어가주고, 인자 그 중 말 듣고 복 타러 간다꼬 간다. 그 어테라꼬 어테라꼬 인자 간다. 쪼깨는 개나리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가이까네, 한 군데는 가이까네, 노인들이가,

“총각, 니가 어데 가느냐?”

고 이라거든.

“내가 아무데 복 타러 간다.”

고 이라이까네,

“복을 타러 가가지고, 이 고목나무가 언제 잎이 필란고 그것 한분 물어봐 주고 오라.”

고 이라거든. 그 질로 인자 또 간다. 한 군데는 가이까네, 집이 하나 참 좋은 집이 하나 있는데, 주인을 찾으이까네, 저물어서 찾으이까네, 처녀가 하나 나오거든. 나오디마는 그래,

“어데 가는 질이냐?”

고 이라거든.

“내가 아무데 산에 복 타러 간다.”

고 이라이까네,

“그래 가거들랑 나는 언제 내 배필로 만나가지고 시집을 가겠는고 한분 물어보고 오라.”

그라거든.

“그래 물어보고 오겠다.”

카고 간다. 거어서 하룻밤 자고 인자 간다. 간까네 큰 못이 하나 있는데, 굽따란 이심이가, 용이라도 이심이라, 하늘에 득천도 몬 하고, 그런 구리가 살면서 득천을 몬 하고 아래가 있는데, 그래,

“충각, 충각, 어데 가느냐?”

고 이라거든.

“내가 복 타러 간다.”

고 이란께네,

“그래 내가 건네줄 테이까네, 가거들랑 내가 언제 하늘에 득천하겠는고, 한분 물어보고 오라.”

고 이라거든. 그래 인자 그 말 듣고 간다. 그 용이가, 그 구리가 태와다가, 용궁에다 태와다 좇어. 거어 떡 가이까네,

“그래. 자네 올 줄 알았다.”

고 이라거든. 그래 가가지고 거어서 뗏일 쉬이가주고 있으이까네,

“니가 세계로 나가야 안 되겠나?”

이라거든. 그런께 인자 나온다. 나올 적에 물어봤어.

“첫째는, 오이꺼네 노인들이 바둑을 떠는 데, 거어 앓은 고목나무가 언제 잎이 피겠는고 한분 물어보고 오라 카더라.”

고 이라거든.

“그래. 그거는 첫눈에 보는, 제일 첫번 판 사람을, 앓은방석을 주면 그 고목나무 잎이 핀다 카더라꼬 이래 일러라.”

카거든. 그래,

“또 한 군데는 오이까네 처녀가 시집을 몬 가고 있는데, 언제 부부를 만나가주고 시집을 가겠는고 물어보더라.”

“제일 첫째 본 사람이 부부가 된다꼬, 그래 살면 잘 산다 카라.”

“한 군데는 오이까네 큰 구리가 늙아가이고 있는데, 하늘에 득천을 와 몬 하느고 물어보고 오라 카더라.”

“알감지가 세 날인데, 하나만 첫째 본 사람만 빼주믄, 하늘에 득천한다 카라.”

카거든. 그래 참 나오이까네, 구리가 떡 대어놓고 있거든. 그래 물을 실
어다 주거든. 실어다 줄 때,

“물어 봤냐?”

고 이라거든.

“첫째 본 사람으로 알감지로, 그 구슬이지, 구슬로 하나 내주고 나쁜
하늘로 득천할 기다.”

그 욕심이 많아가주고 세 날을 가주고 하늘에 득천 못 했는 기라. 그
총각을, 지는 생긴 처음 봤는 총각이라. 첫분 봤는 총각이라, 그래 하나
때 주거든.

“그래 니 가지라. 내가 이때까지 있어도 니겔은 사람은 내가 처음 봤다.”
그라며 빼주거든. 그래가 인자 오다가 또 처녀 집에 들렀어. 들리이까네
그라거든.

“그래, 내 물어봤냐?”

고 이라거든.

“그래. 제일 첫번 본 사람이야 부부라 카더라.”

고 이란까네, 그래,

“당신겔은 사람을 내가 처음 봤다.”

고 그라거든. 그럼 거어서 인자 내외간이 됐다. 내외간이 돼가주고 인자
내려온다. 내려오다가 바둑 떠는 데 거어 오이까네, 노인들이가 앞아가이
고 있거든.

“그래, 자네 물어봤냐?”

꼬 이라거든. 그래,

“물어봤다. 앓은 방식 그거로 첫째 본 사람으로 빼주른 나무가 잎이
핀다. 그늘이 된다.”

고 그라거든.

“그래. 자네 겔은 사람 처음 본다.”

커며 그 방식을 빼주거든. 방식이 그기 금이라. 금덩거리라. 보배로 얻어
가 그래 그 내외간에 잘 사더랴요.⁴³⁾

43) 해운대구, 『해운대구지』, 대원인쇄문화사, 1994, 471-473쪽과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
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168-171쪽에 수록.

[해운대구 설화 44]

도둑을 죽인 비단장사

구 연 자 : 이소연(여, 71)

구 연 일 : 1991. 12. 28.

구연장소 : 해운대구 송정동 구덕포마을

옛날에 비단장사가 비단을 팔로 가이까네, 날이 저물어 한 집에 드갔어.
드가가주고,

“자고 가자”

고 그라이, 반갑게,

“들오라.”

카거든. 그래 드갔어. 드가 가주고 눕어 잘라고 눕어 있는데, 그 때는 남
자는 안 뵈더란다. 남자는 안 뵈고 여자가 들오라 캐서 그랬는데, 딴 방
에 눕어 있으이까네, 밤중 되이까네 여자가 대성통곡으로 울거든. 울어쌍
아서 그래 이 남자가 나가서,

“와(왜) 우느냐?”

이랬어.

“지금 우리 남편이가 죽었어. 죽었는데 지금 염을 해가주고 지고 가야
되겠다”

고 이래거든. 묻으로 가야 되겠다 이래거든. 그래 이 사람이가 그 말을
끝이 듣고 염을 했어. 염을 하는데,

“많이 묶우지 마라.”

카거든.

“이냥 가는 사람 많이 묶을 필요가 없다. 손발만 사알 거두고 그냥 대
강 대강 해가주고 묶우라.”

이래거든. 그래 그 사람이가 그래 묶왔다. 묶아가주고 쉼어지고 지 가자
카는 데로 따라 가는데, 여자는 앞에 가는데, 지는 뒤에 지고 가고 이라
는데, 밑에는 비랑이고 우에는 높은데, 거기 가디마는,

“지계를 받치라”

카거든. 그래 지계를 받치고 돌아설 파나(동안에) 그 여자가 남자를 밀어 던지뵈어. 비단은 잔다고 맬기 났는데. 그래 그 사람이가 떨어져 내려가 다가 솔피이에 걸리가 붙잡혔어. 물에 떨어졌으면 죽었을 긴데 솔피이에 달려가 밤을 새우고 해가 돋으니까 일꾼들이가 나무하로 간다고 올로와 썰거든.

그래 밑에서러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지르이, 길가라놓이(길 잣이라) 가 다가 내려다 본다 말이이. 보이, 사람이가 있으이, 지계 끈을 끌러 잇아가주고 내라가 그 사람을 올렸어.

그래 살려 줬어. 그 사람이가 다른 말 안하고 그 질로 갔어. 또 비단을 장에 가서 한 짐 받았어. 받아가주고 그 곳을 찾아 갔어. 그 년놈들은 그 사람이 죽었다 여기고 있는데, 또 주인을 찾았어. 찾으이 또 반갑기 대하거든. 자고 가라고 이라거든. 그래 밥을 채러조서 먹고 또 눕어가 있으이까네, 또 이숙하이까네 대성통곡으로 울거든. 그래,

“와 우느냐?”

고 그란까네,

“남편이 각중에 죽어서러 오늘 밤에 치어야 된다. 그라이 염을 해서 좀 지고 가자.”

고 이라거든. 그래 되기 묶운다.

“죽은 시체는 꼭꼭 묶우야 된다.”

이라고 묶아 샷자리에 싸가주고 지고 그 자리에 가서러 여자가 지계를 받치라 칼 적에 시체를 거(거기)다가 던져뵈었다. 던져뿌이까네 밑에 ‘푸웅’ 칸다. 그 질로 그 여자도,

“야 이년아! 니가 날 그랬는 년 아이가?”

카면서 들고 차 Ying여뵈어. 차 Ying여뵈고 그 질로 와가주고 그 여자 집에 보이,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비단이고 돈이고 뿔이고 그 년놈이 다 빼떨었어. 그러이 고방마중 다 열어 보이까네, 돈이고 뿔이고 한 거 있어.

그래 이 사람이가 그걸 말에 실고 동네에 와서 없는 사람 갈라 주고 지 팔자 곤치가주고 잘 살더란다.⁴⁴⁾

44) 해운대구, 『해운대구지』, 대원인쇄문화사, 1994, 475-477쪽과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171-173쪽에 수록(‘비단장사 이야기’).

[해운대구 설화 45]

호랑이와 남매

구 연 자 : 권계한(여, 61)

구 연 일 : 1996. 6. 22.

구연장소 : 해운대구 재송동 새마을

옛날에 할매가 남매를 키우고 있다가, 그래 살기가 가난하이께네,
“애들아! 너그 집에서 잘 놀아라. 내가 저 등너메 재 넘어가서 베 매주고
팔죽 얻어가지고 오꼬마.”

카이께네, 아이들이 그래 하겠다 카고 집에 있다.

할매가 베 매주고 팔죽을 이고 한 고개를 오다가, 호랑이를 만났거든.
호랑이가,

“할마이 할마이”

카이,

“어이.”

칸께네,

“니 머리에 얹은 거 그기 뭐꼬?”

카이께네,

“아이들 줄라고 베 매주고 팔죽 얻어가지고 간다.”

카이,

“나 한 그릇 주고 가면 안 잡아먹지.”

카거든. 그래 한 그릇 똑 떠내 주뿌고, 또 한 고개 넘어오이, 또 와가지고

“할마이 할마이 니 머리에 얹은 게 뭐꼬?”

카는 기라. 그래 또,

“팔죽이다.”

켰다. 그래 주다 주다 내중에는 다 주뻘는 기라. 다 주고 나이, 또 인제
한 고개를 넘으이까 그만 호랑이가 이 할마이까지 잡아먹어뿌고, 할마이
저그 집까지 왔는 기라. 와서는,

“애들아 문 열어라.”

카이

“우리 엄마 목소리 아인데.”

카이께네,

“내가 오늘 베 매주고 목이 잠겨 그렇다.”

이카이께네,

“그러면 문구영으로 손 열어보소.”

카이께네, 문구영으로 손을 열는데, 호랑이 손이께네 꺼칠꺼칠 하거든.

아이들이,

“우리 엄마 손은 매끌매끌한데, 이거 우리 엄마 손 아인데.”

칸께네,

“오늘 베 매주고 베풀이 묻어가지고 손을 안 씻어 그렇다.”

카이, 아이들이,

“그럼 손 씻고 온나 보자.”

카이, 그래 지는 손 씻고 온다고 토란잎을 손에다가 딱 감아가지고 문구영으로 손을 요래 열으이께네, 손이 좀 매끌매끌하거든.

그래 아이들이,

“우리 엄마 손은 매끌매끌해도 이렇지 않은데.”

카이,

“맞다.”

카거든.

아이들이 화로에 불이 뻗건 걸 담아가지고 이글이글거리는 게 방에 있어.

아이들이,

“그러면 문구영으로 입을 딱 한 번 벌리보라.”

카이 호랑이가 거기서 문구영으로 입을 딱 벌리이, 아이들이 불삽에 불을 한 불삽 떠가지고 입에다 널름 주아영어뿌리이칸 고만 이놈의 호랑이가 뜨겁어가지고 거서 그만 쫄지를 열댓발 뺏치고 죽더라 안 카나. 그래 죽더라 캐.

그래 호랑이를 잡았는 기라. 저그 엄마는 죽어뿌리고.⁴⁵⁾

45)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204-205쪽에 수록.

[해운대구 설화 46]

죽은 초립동이의 해원

구 연 자 : 김상기(남, 71)

구 연 일 : 1996. 6. 22.

구연장소 : 해운대구 재송본동 노인회관

한 선비가 굉장히 가난했어. 가난해가지고, 어느날 서울 장안에 과거 본다 카는 소문이 나서, 과거 보러 갈라 이라이까네, 무슨 노자가 있어야 지. 그래 인자 걸어서 올라 가는데, 저그 마느래가, 인자 말하자면 달비 이놈을 팔아서 그래 노잣돈을 삼아 가지고 그래 올라갔는데, 중간쯤 서울 장안에 다 들어 갈 만한 그 어디에, 일모가 질 판인데, 어느 주막에 떡 들어가서 술을 한 잔 하고 앉았으이,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앉아서 보이까, 예쁜 여자가 소복을 입고 가죽신을 갖다가 들고 버선발로 걸어 간다 말이야.

그래 하도 신기해서러 신발로 애긴다고 저런갑다 싶어서, 그래 그 뒤를 따를라 카이 물어야 따르지. 그래 그 주막집 주모인테 물었다 말이야.

“저 분이 와 어째 돼서 저래 하노?”

카이,

“그분인 갑작시리 결혼을 해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신랑을 잃고 그래 상제가 돼가지고 소복을 입고 가는 질이다.”

“근데 어데 사느냐?”

이라이께네,

“아무데 큰 부자집인데, 외동인데 그래 됐다. 그래 호불 영감님이, 시아버지가 있다.”

이기라.

그래 들고 뒤따라 갔는 기라. 뒤따라 가가지고 여자가 대문채에 들어 가고 난 뒤에, 그래 얘기는 여기서 들었으이까, 인자 일모가 다 졌으이까 네 천상 거서(거기에서) 하루 지녔 유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 들어가서 주인장을 찾으이까네,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그래 여차여차 하고 아무데서 과게 보러 간다고 이래 올라오는데, 일 모는 다 저서 하루 저녁을 유하고 갑시다.”

이라이까,

“들어오라.”

고. 그래 인자 자기방 앞에 방을 치워주면서러,

“여(여기) 유하고 하루 저녁 주무시고 가라.”

고. 그래 며느리는 며느리 방에 들어가뿌이 모르고.

그래 인자 그날 저녁에 거게 자게 되었는데, 자다가 밤중 됐는데, 뒤가 매렵어서러, 화장실이 시방 같으면 안쪽에 있지마는, 화장실이 마당 밖에 한 쪽에 있거든. 그래 거(거기에) 갔는 기라. 가가지고 뒤를 보고 막 허 리띠를 맬라고 이라이까네, 뭇이 달밤에 담 너메 고개가 쑥 올라오거든. 그래 이상하다 싶어서 있으이까네, 뭇이 펄떡 뛰어 넘는다 이거야. 그래 한 남자가 바로 아래채, 인자 신부가 주무시는 그 방인데, 그 방을 고개 숙이고 대반에(단번에) 들어가더라 이거야. ‘아하 저놈이 범인이구나’ 싶었다.

그래 문구녕으로 가만히 보이까네, 저거 찌래(끼리) 이전에 시집오기 전에 알고 지내놓이까네, 뭐 신랑은 없애뿌고 그래놓이까네 안고 구불고 그래쌓거든.

그래 자시(자세히) 남자 얼굴을 봐났다 말이야. 그래가 암말도 안 하고, 어른인데 와가지고 ‘잘 잤다’고 그래 인사를 하고,

“며칠날 과게를 내가 보고 여기 다부 둘릴 기이카네, 술로 쌀 한 가마 이를 해 영으라.”

카거든. 쌀 한 가마이를 해 영라고 이래 부탁을 하고 가거든. 그래,

“술로 뭐 할라고 그러느냐?”

“고때쫘 죽은 아들이 한 일 년 상이 돌아오이, 검사해 이래하지.”

그라고, 그래 과게를 보러 올라간다고 가이까네, 초립동이 하나 부채를 들고 날라 오거든. 그래,

“어째 내려오는가?”

카이까네

“나는 과게 보고 내려온다.”

이거라.

“과게가 내일 날짜로 만드시 내가 듣고 왔는데 어째 과게를 봤느냐?”

그러이,
“과계를 보고 왔는데 인사를 하자.”
이거라. 그래 초립동이가,
“나는 저 수중 단골에 사는 아무것이다.”
그래.
“그러면 운자가 뭇이 났더냐?”
과계를 봤다 이라이까네 물으니까,
“구름 운자가 났더라. 그러이 나는 운자 밑에 요령기 켜다. 그래 보고 내려온다.”
그래 이왕 여꺼정 올라온 김에 가서 서울 구경이나 하고 내려갈 모양이다 싶어서 들어 갔는데, 들어가보니까 붓강 베루강 짜들아 팔아쌍고 이래거든. 그래 물으니까, 과계를 내일 본다 이기라. 내일 본다 카이까네 이상하다 싶었어. ‘내인데(나에게) 그러 카는 사람이 보통이 아인갑다. 무슨 신이다.’ 그때사 이래 생각이 딱 오거든.
그래 들어가이까, 과계보는 운자가, 구름 운자가 딱 났더라 이기라. ‘이게 나를 가르쳐 주는 기다.’ 생각하고 그래 똑 그대로 써 영었다. 고대로 써 영으이까네, 결국은 합격됐다 말이야.
합격돼가지고 그래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할아버지인데 이야기한 기 있어서 그 집을 들렀다. 범인도 잡기 위해서. 그래 떡 들어가이까, 제삿날이 되이까 술하고 음식을 다 했어.
“내일 술을 해반하는데 온 동네 사람을 다 모으되, 전부 다 양철통 바가치 같은 거, 이런 걸 하나씩 가져 오라.”
이거라.
“그래 뭐 할라꼬?”
그러이,
“하여튼 가져오라.”
고 캐. 그래 전부 부탁을 하고 그런데, 그래 전부 갈라 묵는데, 한 놈이 내나 그 죽인 그 놈이 들어오는 기라.
들어오는데, 머느리는 정지에 있는데, 눈짓이 벌써 맞아가지고, 눈짓이 다르고 이렇는데, ‘저놈이다.’ 이래 가지고, 암말도 하지 았고, 그 연못이 있었었는데,

“이장(연장)을 가가지고 연못에 골로 치고 이 못물을 따르라.”
이거라.
그라이까네 죽인 놈이 저거가 아들을 죽이가주고 시체를 거기다가
엮었으니까, 눈치가 다르고 며늘도 눈치가 다르고 또 내뺄 우려가 있거든.
그러이,
“저놈을 잡아가주고 묶으라.”
이거라.
“그 년놈을 다 묶으라.”
캐(말해).
그래 인자 물을 어느 정도 빼이 시체가 어중중하게 들나거든. 들나는
데 그래 인제 다 물을 쪼르이까네 죽이가주고 거게다가 엮었는 기라.
그래 인자 고을 사또인데 이 사람들 범인을 딸기고, 자기는 이제 자기
처를 보기 위해서 과거에 합격이 되이까네, 가마를 타고 고향을 갔는데,
이 할아버지가 또 걱정이 돼. 할아버지를 또 모시야 된다 이거라. 그래가
저그 처인데 가가주고,
“내가 여차여차 하고 아무데 가가주고 이러이러해 가주고 합격이 됐는데,
우리 저 호불 영감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모시자. 나도 부모도 없고.”
달비꺼정 꿰어가주고 신랑을 과거보게 했는데, 저그 처인데 승낙을 받
아야 되거든. 그래 말한께 처도,
“좋다.”
카거든.
그래 올라가가주고 그 할아버지를 갖다 자기 양어른으로 모신다 카이, 그
할아버지가 가산을 처분하고, 그래 이 아들인데 와가 잘 살았답니다.⁴⁶⁾

[해운대구 설화 47]

귀 어두운 사람들의 말들

구 연 자 : 김임주(여, 82)

구 연 일 : 1996. 7. 3.

구연장소 : 해운대구 재송본동 노인회관

46)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216-219쪽에 수록.

옛날 옛날 갓날 갓적에 노인이 하나 살았는데, 보리밭 거를라고 개똥을 주으러 갔거든. 이웃에 청년이 인사한다고,

“할아버지 개똥이 더러 있습니까?”

이러 카йка네, 귀가 어둡어서,

“이놈의 자식아! 너는 어미도 없고 애비도 없나? 갓 팔아라 탕건 팔아라 카나?”

이렇게 군정거리고(중얼거리고) 집에 와서도 자꾸 군정거린다. 할마이가 있다가

“저놈의 영감쟁이가 밤도 안 됐는데, 중우 벗어라 치매 벗어라.”

카고, 정지에 머느리 밥하다가,

“내가 언제 머슴을 붙어 먹던교? 내가 언제 머슴을 붙어 먹던교?”

카고, 머슴은 마당을 치다가,

“이놈의 집구석 몬 살겠네. 내가 마당을 내씨이 디리씨라 카고, 들이씨이 내씨라 카고 이 놈의 집구석 몬 살겠다.”

이래 카이, 담 너메 이웃이 사람은 담 넘어 내리다 보고,

“내가 언제 너그 호매이 가져가 안 주고 너그 팽이 가져가 안 주더노?”

이러 카더란다. 전부 귀가 어둡어서.⁴⁷⁾

[해운대구 설화 48]

재치 있는 아들

구 연 자 : 성차순(여. 76)

구 연 일 : 1996. 7. 3.

구연장소 : 해운대구 재송본동 노인회관

옛날에 한 고을에서 어떤 남자가 죄를 지어, 사또가 벌을 줄라고,

“송아치 놓는 황소로 잡아오라.”

카더란다.

그래 그 남자가 안 잡아가든 목이 떨어질 긴데, 저그 아들이 열 다섯

47)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235쪽에 수록(‘귀머거리 사람들의 말’).

살 묵었거든.

그 말을 듣고도 한 스무 날 남았는데, 저그 아버지가 내 수심을 하고, 밥을 안 자시고 걱정을 하고 있거든. 그래 한 사날 남았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묻는다 말이다.

“아버지, 무슨 걱정을 하고 밥을 안 자시는교?”

“니는 알 기 아이다. 니 할 일이나 해라. 내 할 일은 내가 하꾸마.”

그래,

“아버지 하는 거동이 아무래도 수상한 큰 일인데, 무슨 말이든지 내한테 하소.”

카거든. 그래,

“그러면 니한테따나 할께. 사또가 송아치 놓는 황소를 잡아오라 카는데, 며칠날 안 잡아 가른 내 목이 떨어질 긴데, 내가 참말로 걱정이다.”

“아버지, 그 걱정하지 마이소. 그까진 일로 것처럼 걱정을 하느교? 아버지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오늘부터 마음 폭 놓고 밥 많이 잡숫고 기운 내소. 그 일은 내가 갈미하께요.”

“야야 내가 이래 나이가 많은데, 열 다섯 살 묵은 니가 가서 어짤래?”

“그 일은 내가 합니다.”

그 날이 되께, 저그 아버지가 사또 앞에 갈 긴데 아들이,

“아버지요, 오늘 이불 폭 덮고 방에 꼭 눕어 있으이소. 통(전혀) 나가지 말고, 방에 가만히 눕어 있으이소.”

카고, 열 다섯 살 묵은 아들이 잤다. 사또가,

“이놈의 새끼야! 너그 아버지 오라 켜더이, 니가 와(왜) 오노?”

“우리 아버지요. 방에서 이불 덮고 애기 놓는다고 몬 읍니다.”

“이놈의 새끼가 무슨 말로 이래 하노? 너그 아버지가 무슨 애로 놓노?”

“그러면 사또님! 남자는 애를 몬 놓는다면서, 황소는 어째 새끼를 놓습니까?”

그라이께네, 그만 사또가 말을 못하고, 열 다섯 살 묵은 아(아이)가 저그 아버지 목숨을 살리고 벌을 면하게 하더라.⁴⁸⁾

48)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236-237쪽에 수록.

[해운대구 설화 49]

묵은 빛 갇고 햇빛 놓는다

구 연 자 : 이경룡(남, 82)

구 연 일 : 1996. 6. 22.

구연장소 : 해운대구 재송본동 노인회관

숙종대왕이 어찌 임금에 어질어났든지. 시절도 잘 되고 시절이 잘 되이, 국민들이 농민들이 막 콧노래를 부르는 기라. 농사 지어놓고 그늘 나무 밑에 쿨쿨 자며 술 받아 먹어가며 이랬는데.

숙종대왕이 그렇게 어진 임금이고. 숙종대왕이 우리나라 삼천 리를 축지법을 한 사람이야. 서울서 부산 천 리, 의주 천 리, 목포가 그 천 리, 그래 삼천 리를 하루 저녁에 땡긴 사람이거든. 그래 한 군대를 떠먹 가이께 밤에 불이 환한데,

“때리라 훌쩍, 때리라 훌쩍.”

이래썩는 기라.

그래 거길 떠먹 갔다. 가서,

“낮에 놔두고 밤에 왜 이러갑니까?”

카인께

“어허 묵은 빛 갇고 햇빛 놓습니다.”

조정에 가서 아침 조회에,

“묵은 빛 갇고 햇빛 놓는다는 말이 뭣이고?”

카이, 다 탄 말을 하는데, 한 사람이 있다가,

“예, 부모 먹여 살린 거는 갇고 또 자식을 먹여 살리야 된다.”

그게 맞는 기라. 그래 가지고 숙종대왕이 그렇기 어진 임금이라. 어진 임금이고.

숙종대왕이 그래 땡기다가 하루 저녁 씨겍을 먹었는 기라. 여우를 만나 가지고 죽을 뻔 했는 기라.⁴⁹⁾

49)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220쪽에 수록.

[해운대구 설화 50]

저승왕 심부름한 신대장

구 연 자 : 이경룡(남, 82)

구 연 일 : 1996. 6. 22.

구연장소 : 해운대구 재송본동 노인회관

경북 칠곡군 약목이라 카는 데, 신씨네가 많이 살아. 신대장의 웃대가 아마 거긴지 싶은데, 신대장 이 양반이 우리나라에서 대장질했으이 말할 수도 없는 양반이라.

그런데, 충청도 어데에 이름은 모르겠고, 김씨라 카는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라. 부자로 사는데, ‘내가 오래 살아야 되겠다’싶어서 춘집 뜰 안이 상당히 너르거든. 뜰 가에 담을 안 쌓고 탕주나무를 꼭 둘러 숨가(심어) 났어. 저승차사가 보며는 탕자나무가 말밤쇠(철조망)로 보이는 기라.

그리고 대문 앞에는 청삽사리 개를 두 마리 떠억 갖다 놓고, 닭도 백 닭, 개도 백 개, 말도 백 말을 먹이어(길러). 그래고 닭을 목을 끊어가 피를 뜰 안에 아침 저녁으로 뿌리는 기라.

그래가 저승차사가 가도 들어가질 못해, 김씨를 잡아올 수 없어. 그래서 저승왕이,

“그럴 기 아이라 신대장을 불러 가지고 보내며는 김씨를 잡아 들일 기다.” 캐서 신대장한테 연락을 하이께네, 신대장이 사랑방에서 의관을 정제하고 아들네들, 딸네들, 며늘네들을 다 모다 놓고 하는 말이,

“내가 죽어 있더라도 절대 손 대지 말라.”

카는 기라. 그래가지고 참 손을 안 대고 딱 놔뒀다.

신대장이 저승에 들어가인께, 저승왕이,

“충청도 김 아무개 저 사람이 들을 때가 됐는데, 문 데리고 오이, 신대장이 가서 잡아가지고 오너라.”

저승왕이 그카이, 신대장이 할 도리가 없어 거기를 가보이, 돌아 댕기 보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앞에는 백 개·백 말·백 닭이 전부 이래 있고, 뜰 안을 빙빙 돌아도 들어갈 틈이 없어. 밋(땃) 바꾸를 돌다가 한 군데를

보여 복숭아 나무가 있는데 어떤 여자가 손을 치는 기라.

거겔 떡 가보이, 들어갈 수 있더라 말이지. 그래 넘어 들어가서 자는 영감을 몽둥이로 들고 썰리니, 자는 사람이 안 죽고 몬 견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신대장이 혼만 들고 저승엘 갔는 기라. 저승에 가이 요새 말로, “니는 욱 봤다.”

카면서,

“너는 나가거라.”

캐. 그래, 신대장이 집에 나와가주고 있는데, 신대장 자기는 할 일을 다 한께(하니까) 명대로 사는 기라.

신대장이 죽었을 때 나라에서 국장을 해 줬어요.⁵⁰⁾

[해운대구 설화 51]

청묘(鄭墓) 이야기

구 연 자 : 이경룡(남, 82)

구 연 일 : 1996. 6. 22.

구연장소 : 해운대구 재송본동 노인회관

고을 원이 턱 내려 와가지고 요새 같으면 군수란 말이여. 그때 고을 원은 삼권을 다 쥐었기 때민에 저놈 적이라 카든 다 적있다고.

그래 고을 원이 하마정 거기 가갖고 가만 보이 아주 그 묘자리가 좋단 말이여. 계탈을 두 개를 갖다가 딱 들고 가가꼬, 요새 같으면 소사지. 소사한테,

“아무데 거 갖다 물어라.”

이칸다 말이여. 그래 인자 계탈을 물어가지고 사흘만에 소사한테다가,

“계탈을 파가지고 오너라.”

요 소사가 어찌냐 하든 고것도 아주 머리가 영리한 사람이라. 계탈을 살کم 삶아 갖고, 매(매우) 삶으든 안 되거든. 살کم 삶아 갖고 그 갖다 바꿔치기 해뵈든 기라, 저겔 빼뿌리고. 고을 원이 갖다 묻으라 하는 건 빼뿌

50)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237-238쪽에 수록.

리고 삶은 고놈을 바꿔치기해가지고 고을 원에 갖다 주이, 고을 원이 보이께 계랄이 꼴랑꼴랑 하거든. ‘이상하다. 이런 일이 있나.’ 그래 인자 그라고, 고을 원이 있다가 딴 데로 가뿔는 기라. 요새로 치면 군수 여 갔다저 갔다 갈리듯이 딴 데로 가뿔는데, 그래 딴 데로 가고 난 뒤, 이 소사로 있던 그 사람에 저그 아버지가 죽어뿔 기라. 거기갖다 묻었다.

묻고나이, 하룻밤 자고나면 영장을 파내고, 하룻밤 자고나면 파내고 못할 짓이란 말이라. 그래 풍수한테 물어보이, 관복을 입은 사람이라야 거기 묻히는 기라. 관복 안 입은 사람은 못 묻히는 기라.

아 이눔의꺼 관복을 어디 가 구하겠노, 소사가. 관복을 못 구하거든. 못 구하이 밀짚대를, 달빛에 보든 밀짚대가 번쩍번쩍 하거든. 밀짚대를 갖다가 엮어 툇툇 말아서 쓰이 그만인 기라. 영장이 안 들어나는 기라.

그래가지고 동래 정씨네가 시조가 그 묻히가지고 동래 정씨네가 손이 많고 또 머리 좋은 사람이 낳는 기라.⁵¹⁾

[해운대구 설화 52]

아내 덕에 톱톡해진 제갈공명

구 연 자 : 이경룡(남, 82)

구 연 일 : 1996. 6. 22.

구연장소 : 해운대구 재송본동 노인회관

삼 형제를 땃을라면, 복숭아 나무 밑에다가 삼 형제를 땃거든. 유현덕이하고 관운장, 조조, 요 사람 서이가 결의형제를 해가지고, 유현덕이가 제일로 만이가 되고, 두째가 관운쟁이고, 시째가 조조가 땃는데, 참 조조란다. 금새 잊어 먹어뿔네. 참 장비하고 인자 삼 형제 땃는데, 유현덕이가 가만히 보니까, 요새로 치면 잘 아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뭐 전쟁을 치고 할긴데, 제갈공명을 만나러 갔다. 가니까, 집에 있으면서 밑에 시자가 있다가,

51)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149-150쪽에 수록.

“어데 나가고 없습니다.”

“그래, 언제 새에 오노?”

“모르겠습니다. 언제 새에 올는지”

그래가지고 또 고 이튿날 갔다. 고 이튿날도 집에 있으면서 ‘없다’ 카는 기라. 그래 다부 돌아와 헛걸음을 하고, 그래가지고 사흘째로 가йка네, 장비가 따라 갈라 카는 기라. 장비라 카는 사람이 표독하거든.

“니는 못간다. 니는?”

“아이고, 내 가서 안 말도 안 하고 병어리매이로 앓을게네 갑시다.”

그래 인자 그때는 가йка네,

“공명선생 기시나?”

이래카인께네,

“주무십니다.”

밑에 시자가 그래 말하는 기라. 그래 암만 기다려도 안 만나 주는 기라. 인제 유현덕이 행동을 불라고 그 사람이 사흘이나 집에 있으면서 그런 행동을 했는 기라, 제갈공명이.

장비가 있다가,

“자거든 이놈의 집구석 불을 질러뿌라.”

이러칸다 말이다. 자기 동생인데, 친동생은 아니지만도, 그래 결의형제를 맺은 동생이기 때문에 등더리를 때리면서 꾸중하이까네 그제사,

“인제 일어났습니다.”

이래 시자가 카고, 그래 문을 열어 놓거든. 뭇한 걸으면 방안에 가서 절을 하지만도 배곶에서 절로 하고,

“내가 올 줄 앓았다. 시번 왔제?”

이카거든.

“세번 왔습니다.”

“인제 자니께, 불질러라 칸 사람이 누고?”

“아이고 내 동생이 못되가지고 불측해서, 내가 뛰더리 패고 그랬습니다.”

카인까네 전부 다 알아요.

그래 인제 유현덕이가 제갈공명을 선생을 해가지고, 제갈공명이 하자 카는 대로 하면 고만 전쟁을 치면 전부 이기는 기라. 관운장이 말할 수 없는 장수란 말이야. 눈 한 번 딱 부라키면 조조 군사가 전부 쓰러졌다

했거든. 그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지만도.

공명선생 마느래가 말이야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 공명선생이 장개를 왔는데, 결혼식하고 첫날밤에 마느래가 들어오는데, 이거는 뭐 말할 수 없는 기라. 박박 얹어가지고 주저리 박색인데 두 번 보기가 싫어요. 그래 가지고 갈라고 이러 카이까네, 그래,

“아무리 대장부 남자지마는 밤에 나갈 수 있나?”

카고 두루매기를 땡기니까네, 두루매기가 확 타져버렸는 기라. 못 가구로 두루매기를 땡겨 잡아노으니까, 탁 타져버렸는데, 그래,

“두루매기를 집어가지고 입고 가이소.”

이칸다 말이야. 그래 입고 갈 수가 있나? 그래 벗어줬다. 학생들은 모를 끼다마는 옛날에 돛바늘이라고 있어요. 불펜만해요. 끝덩이는 빼쪽하고 바늘 구멍이 이만한데, 새끼를 가늘게 꼬아가지고 가마니를 집거든. 그걸로 들판 들판 뜨는데 보이, 미운 정이 더 밍다 말이야. 마느래가 집어주는데 이것을 입고서 밤새도록 간다 하는 기 그 집안에만 자꾸 돌아댁기는 기라. 그 집안에만.

마당에만 뽕뽕 밤새도록 돌아댁기이, 이슬로 촉촉히 맞고, 새벽에 떡 보이 자기 장인이 나와서,

“이 사람이 왜 이래 가지고 있나?”

카이께네,

“저는 인자 집에 갈라고 카는 길입니다.”

“집에 가기는 왜 집에 가?”

그래 할 수 없이 집에 가지는 못하고, 자기 장인이 딸 있는 방에다 밀어 넣어놓이께네, 날이 새가지고 보이, 마느질도 그리 잘 할 수가 없는 기라. 틀에 박아 놓은 건 내다 앓으라 카는 기라요. 그 돛바늘로 그리 들판 들판 집어도. 그래가지고 제갈공명이 자기 마느래한테 배워가지고 제갈공명이 그렇곰 잘 아는 기라.

그런데 자기 마느래가 딴 거는 다 가르쳐 주는데 한 가지는 안 가르쳐 주는 기라. 자기 마느래가 잘 때는 다리 두 개, 팔 두 개 딱 띠(떼어) 놓고 몸둥이만 고래 자는 기라.

그래 그걸 가르쳐 달라 카이께네, 그건 안 가르쳐 주는 기라.

“왜 안 가르쳐 주노?”

카이께네,

“대장부 남자로서 이걸 갈차주면 혹 어쩔는지 모르이까, 네 안 가르쳐 준다.”

고 카면서 고거 한 가지만 안 가르쳐 주더래.⁵²⁾

[해운대구 설화 53]

은혜 깊은 삼족구

구 연 자 : 이경룡(남, 82)

구 연 일 : 1996. 6. 22.

구연장소 : 해운대구 재송본동 노인회관

영남 사람이 서울로 가자면 문경 새재를 둘러서 충청도로 해서 서울로 올라 가거든. 서울에 올라 가서 과거를 한분 봐서 떨어졌다. 두 분 봐서 떨어졌다. 시 분만에 또 갈라 카는 기라. 돈이 있어야 가지.

그래 자기 마느래가 달비를 팔았어. 달비라고 알어? 그 놈을 팔아가지고 자기 남편 노잣돈 하라고, 여비하라고 줬어. 시 분째는 떡 이리 가는 데, 충청도 땅에 떡 들어서이께네, 요새는 여관이 있고 이러지만 그 때는 여관이 없어.

그래 여인숙에 들어가서 떠옥 잠을 자는데, 아침에 자고나니 주인 아주머이가 개를 두들겨 패거든. 강아지 쪼만 한거 이거를 두들겨 패는데,

“강아지를 왜 두들겨 뺨니까?”

“개도 다리도 하나 없는 기, 문디 걸은 개, 패 꺾이뿔라고.”

카거든.

그 개 이름이 삼족구(三足狗)라. 삼족구라 카는 개라. 그래 이럴 것 없이 이 개를 달고 가야겠다 싶어서,

“이 개 내버릴 판이면, 내 달고(데리고) 갈까요?”

“아이고 가져 가이소. 가져 가이소.”

막 이러카거든.

52)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209-212쪽에 수록.

그래가지고 나왔다. 과거고 뭐고 다 치와뿌고. 그래 인제 개를 낙을 삼고, 자기 몬 먹을 밥이라도 주고 이래가지고, 이제 개가 수월찮게 컸는데, 개가 이만치 크이께 개가 각중에 없어져똥는 기여. 나가서는 다시 안 들어오는 기라. 안 들어오이 기가 차도 안 하지.

한날은 날이 화창하이 밝고 이런데, 낮 한 두 시쯤 돼가지고 술쟁이패가 들어 오는 기라. 옛날 비(베) 매는데 술이라고 있어요, 풀 칠해가지고. 술쟁이패가 내외간이거든. 내외간이 딱 들어오는데, 그 남자는,

“술 사이소.”

커면서 마루에 걸터 앉았고, 여자는 그 안에 들어가뿐 기라. 주인이 봐도, 여자 들어가는 거는 확실히 봤는데, 술을 걸머지고 들어가는 걸 봤는데.

그 술쟁이패가 이상하다 싶었어. 남자 술쟁이가 이상하다 싶어서, 그래 인제 ‘나올 때도 똥는데 안 나오노’ 카면서 있는데.

아 이놈의 술쟁이, 여자 술쟁이 그기 저 처매(처마) 끝에 목을 매다 죽었는 기라. 아, 이런 놈의 꼬라지가 어디 있노. 남자 술쟁이 이 놈이,

“당신네들, 술을 안 사면 그만이지, 사람을 왜 목을 매달아 찍이놔노?” 이래 인제 달라드는 기라.

그거는 꼭 주인이 덮어 쓰게 돼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인제 주인하고 남자 술쟁이 그놈하고 싸우는 기라. 싸우는데, 그때서야 삼족구라 카는 개가 왔는 기라. 몇해 동안 먹이던 개가 왔는 기라. 오디만 활짝 뛰디마는 남자 술쟁이 모가지를 물어가지고. 개는 물면 말이야 막 혼드는 기라. 안 놓고 자꾸 물고 혼드는 기라. 아 쪽 빠드리지는데 뽀얀 백여우라.

그래 그 안에 들어가서 처매 끝에 매달려 죽은 그것도, 활짝 뛰어가 물고서 흔들어가지고 턱 물고 앓아 있으이, 그래 그것도 죽어똥어. 그래 술쟁이 둘 찍이고, 그래 그 집 가화(家禍)라. 그걸 놔 뒀으면 그 집구석을 조지뿌는 기라.⁵³⁾

[해운대구 설화 54]

해인사 이무기와 청인홍

53)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213-214쪽에 수록.

구 연 자 : 이경룡(남, 82)

구 연 일 : 1996. 6. 22.

구연장소 : 해운대구 재송본동 노인회관

합천 해인사에 옛날에는 쪼맨한 못 걸은 기 있어요. 못이 있었는데, 이 시미가 들어 있어 가지고, 일 년에 딱 설달 그믐날에, 처녀를 하나씩 갖다 Ying어야 그 절이 아무 해가 없이 되는 기라.

그러이, 한 번 두 번 말이지 그것을 어떻게 하노 말이야. 십 년이면 사람이 열이 들어가고, 이십 년이면 스물이 들어가는데 말이야.

그래가지고 옛날인데, 절에 중이 한 번 못 밑에 내려가이 쪼맨한 아(기록자 주: 정인홍)가 가재 잡을라고 크다란 돌을 자꾸 디비시쑤거든.

그래,

“야야 뭐하노?”

카이, 그래 쳐다보는데, 그 중이 걸음을 몬 걸겠어.

가아(그 아이의) 눈 안챙이에 썩여가지고 걸음을 못 걷는데. 그래 가만이 서가 있다. 덩신(바보)맨쿠로 가만이 서가 있으이께, 그 아가 제 돌을 가재 잡는다고 일바실(일으킬) 때는 인자 걸음을 걸겠는 기라.

그래 중이 그 갔다 와가지고, 자기 시님(스님)한테다가 얘기하기를,

“시님! 아무데 아무데 쪼매한 아가 있는데, 그 뭐 딱 쳐다보이께 걸음을 몬 걸겠습디다.”

“야 이놈아! 부세같은 소리 치아라.”

“애이 스님 참말입니다. 언제 스님 한번 가거든, 가가 가재 잡거든, 말한 번 해 보이쇼.”

그래 자기 시님이 한 번 내려가이, 가가 (그 아이가) 가재 잡는다고 그라는데,

“야야 뭐하노?”

카이, 이래 쳐다보는데 꿈썩을 몬 하겠는 기라, 스님도. 야 이상하다 기이한 일이다 싶었어. 저 놈의 눈 안챙이에 썩여가지고 이래인께, 인제는 하나 알아보겠다 싶었어.

그래 가(그 아이의) 집을 찾아 가갖고 보이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데, 시님이,

“니가 눈 안챙이 그러하이께, 우리 절에 못에 용이 들었는지 뭐가 들었는지 몰라도 일 년에 선달 그믐날 처녀 하나씩 잡아 Ying어야 되이, 이걸 니 좀 잡아줄래.”

카이께네,

“가봅시다.”

그래 거기 갔다. 요놈이 못가에서 딱 내려다보이, 물이 부글부글 끓더 이마는 큰 이시미 한 마리가 히떡 나디비저뿌는 기라. 큰 이시미 한 마리가 히떡 나디비지는데, 이거는 나무를 구해가지고 사라뿌리야 된다. 그래 사라뿌렸다.

사라뿌리인께, 그 연기가 동동동 떠가지고 자기 삼촌집에 가가지고, 그 태이가지고 가(그 아이)를 해꼬지 할라꼬 그 태이뿐 기라.

그래가지고 가가 눈 딱 꼬라보이 까짓 그거야 이시미도 죽는데 문제 있나 죽이뻘다. 그래 와뿌렸다. 이놈의 자식이 오더마는 이 아이를 죽였어도 저거 삼촌은 모르지.

그래고 또 한 번은 노란 구름이 동동동 떠서 저그 삼촌집으로 딱 들어가는 기라. 또 가보이 아들을 낳았어. 저기 또 해꼬지하지 싶어서 그걸 죽이고 와뻘다.

그리고 나서 시 번째는 가이께, 또 아가 태있는데, 요기 설마파나 나를 해꼬지하겠나 둘로 죽이뻘어이께. 고기(그것이) 컸는데, 그때 서울서 ‘왕비를 죽여야 옳으나 살려야 옳으나’ 이 해석을 누가 하노 하면 합천 정 아무개(기록자 주: 정인홍) 그 사람이라야 해석을 한다 이래 돼뿐 기라.

그래가지고 조카인 정병사라고 삼도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 대도독으로 있는데, 뭐든 그 병사 손을 안 거치면 서울에 문 가져 가는 기라. 그래 인자 정 아무개가 그걸 써가지고 올리기를 ‘이거는 직이도(죽여도) 무해하고 안 직이도 무해다.’ 요래 썼거든.

그래 정병사가 삼도 대도독으로 있는데, 딱 보이 그렇거든. 그래 ‘죽이라. 왕비를 죽이라.’ 요래 글을 바까치기 해가지고 보내뻘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합천 해인사 이시미를 죽인 아를 나라에서 직이뻘다 말이야. 그래 이시미가 원수를 갚는 기라.⁵⁴⁾

54) 정인홍과 이무기 이야기와 비슷한 허목과 이무기의 이야기를 소개하면, ‘허목(許穆)과 허적(許積)의 아버지가 절에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절에는 매월 보름이면 중이

[해운대구 설화 55]

물명당

구 연 자 : 이경룡(남, 82)

구 연 일 : 1996. 6. 22.

구연장소 : 해운대구 재송본동 노인회관

아들 하나, 영감, 할마이 시(세) 식구가 사는데, 그 동네 우물 샘이가 있는데, 향나무가 큰 기 있는데, 그 샘이가 아주 명산이여.

영감이 죽을 때 남자로 치면 저그 마누래고, 아들로 치면 저그 어마이라 말이야. 그래 저그 아들한테,

“넌(남)이 있어서 이야기 못하겠다.”

내외간이라도 돌아누우면 넌이라고 그래요. 그래 아들이 어마이한테,

“저 바깥에 좀 나가이소.”

그래 저그 어마이가 듣고 나이 얼마 썩썩하노 말이야, 썩썩해서 배곶(바깥)에서 가만히 들으이게,

“내가 죽거들랑 목을 비(배)가지고 샘에 갖다 넣어라.”

딱 이래 카거든.

그래 영감이 죽자, 아들이 목을 비가지고 샘에 갖다 아무도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넣어 놓고, 그래 몇 해 동안 있다가 저그 어마이하고 아들하고 싸움이 붙어뻬는 기라. 싸움이 붙었는데,

“요놈의 씨족이 지애비 성질을 닮아가지고, 요놈의 씨족이니 애비 목을 비가지고 대가리를 그 우물에 갖다 안 넣어냐?”

성을 내면서 고향을 지르거든.

하나씩 없어졌다. 허적의 아버지가 살펴보니 이무기가 나타나서 중을 잡아먹었으므로 그 이무기를 칼로 죽였다. 그러자 이무기의 기운인 파란 빛이 자신의 집으로 뻗치어 갔다. 허목은 그것이 상서롭지 못한 조짐이라고 판단하여 그 집에서 아들을 낳는 족족 없애도록 충고하여, 두 아이를 없앴다. 셋째 아이를 낳자 그마저 허가(許家)의 멸족을 초래한다고 하여 죽이려 드는 허목에게 허적의 아버지는 더 이상은 죽일 수 없노라고 말한다. 그러나 허목은 그 아이로 인한 화가 자신에게 미칠 것을 미리 알고 형제간에 파적(破籍)하였다고 한다. 허적은 아주 뛰어난 신동이었지만 결국 역적으로 가문에 화를 입혔다.’ 정우락, 『남명 설화 뜻풀이』, 남명학연구원출판부, 2001, 187-188면.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233-235쪽에 수록.

동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발딱 일어나서 샘이를 찢는기라. 퍼이 고
때 벌씨로 하늘에 신선이 돼가지고 올라갈라고 카는 차에, 물로 퍼 가지
고 들어 내이까네, 팍삭 사그라져뿌리는 기라.⁵⁵⁾

[해운대구 설화 56]

업을 모셔 부자된 이야기

구 연 자 : 이경룡(남, 82)

구 연 일 : 1996. 6. 22.

구연장소 : 해운대구 재송본동 노인회관

오래 안 된 이야기인데, 우리 마을에 한 사람이 장 노름이나 하고 술
이나 먹고 돌아댕기고 이랬는데, 이 사람이 아주 대가 차고, 싸움이라 하면
물불 기리지 않고 달라드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한분은 밤새도록 노름을
해도 돈도 따도 못하고 이래 가지고 집에 떡 가이까네, 구렁이가, 팔뚝
같은 구렁이가 슬슬 기나오거든. 자기 집에서 대문 밖으로 기나오는 기라.

그 구렁이를 모가지를 끌어안고,

“아이고, 나하고 삼시다. 나하고 삼시다.”

카면서 구렁이를 잡고 따라가는 기라, 구렁이를. 따라가이까네 들 복판에
가가지고 녀의 눈에 가 떡 사리고 눕는 기라.

그래 끌어안고서 자기 아들을 불러 시키가지고 논 임자를 불렀어요.
논 임자를 불러가지고,

“이 논을 팔아라.”

저쪽은 일테면 백 원짜리 같으면 천 원을 둘라(달라) 해도 안 주면 안
되거든. 그것이 나가뿌면 집구석을 조지뿌리거든.

그래 그 땅을 사가지고 거다(거기에다가) 쪼만한 집을 지어가지고 구
렁이를 거따가(거기에다가) 넣어 놓고, 그래 가지고 살다보이 그 사람이
아랫 대가 오늘날까지 잘 살고 있어요.

55)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220쪽에 수록.

지금은 그 구렁이가 나갔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그 사람들 오늘날까지 잘 살고 있어요.

[해운대구 설화 57]

매구 이야기(2)

구 연 자 : 이득명(여, 66)

구 연 일 : 1996. 6. 22.

구연장소 : 해운대구 재송동 새마을

옛날에 한 집안에 아들은 있는데 딸이 없어가 매구같은 딸이라도 하나 낳아달라고 공을 들여가지고 참 딸로 하나를 낳았는 기라. 이 딸이 참 이쁘거든. 너무 이쁘게 생겼는 기라.

그런데 부모들이 아들은 필요가 없고, 딸이 너무 이쁘니까네, 잘 키웠는 기라. 키우이께 하루밤 자고 나면, 소의 간을 빼먹어빼고 없고, 하루밤 자고 나면, 말의 간을 빼먹고 없고 이라는 기라.

그래 오빠가 가만히 숨어가지고 보이께는 여동생이 참기름통에 가더마는 손을 푹 영더마는 손에 기름을 발라 말 간을 쑥 빼가지고 씹어 먹어 뿌리는 기라.

그래 집안에 목을 기 없으이께네, 벽수를 한 번 넘더마는 매구가 돼가지고 산으로 해놓거든. 산으로 해놓더만 갓묻어놓은 애 똬를 파가지고 꺼내먹고, 옷은 어데다 갖다놓노 하면 수풀에다가 갖다놓는 기라. 그런께네 아들이 부모한테 이야기하이께네.

“저놈이 지 동생 하나 있는 거 저리 모함한다.”

카면서,

“집을 나가라. 이놈아 니는 안 키운다.”

캐서 그래 집을 나갔는 기라. 그래 나가서 수월차(오랫동안) 있다가 부모를 찾아왔는 기라.

오이까네 부모도 잡아무빼리고, 그 동네 마실에 사람들도 다 잡아무빼리고, 마실이 쑥대밭이 돼뿌렸는 기라. 그래가.

“아이고 오빠 오느냐?”

고 좋아서 미칠라 쿠거든. 그래 오빠가

“옛날에 우리 저 아무데 밭에 소풀 있제.”

요새 여기서는 정구지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소풀이라 켜다.

“그래 오빠 있다.”

“그거 베다가 밥 좀 해도. 그래 니한테 와서 밥이라도 얻어먹고 가야 안 되겠나?”

쿤께네, 그래,

“오빠 도망갈라꼬?”

“오빠 안 가꾸마. 그러면 실로 달아갖고 니한테 달고 내한테 달고 이래 놓고 있으면 안 되나?”

이란께네, ‘그래 하라’ 카고 가더라네.

가서 소풀을 베다 보이께네, 오빠가 실을 지동에다가 매놓고 갔는 기라. 그래 언덕에 쫓아가 보이께네, 오빠가 가거든.

“아이구 오빠 어데 가노? 오빠 어데 가노? 오빠 한때 말한때, 오빠 한때 말 한때, 오빠 한때 말 한때.”

카면서 따라오거든.

(내가 이야기를 잘못했다. 우짜꼬? 그것을 새로 엮어서 해도 되겠나) 그래 참 오빠가 전에 나가갖고 사는데, 집에 간다고 카이, 여자가 빨간 병 하나, 파란 병 하나, 노란 병 하나 세 개를 주는 기라. 병을 세 개 주면서러 되기 급하거든 씨라 쿠거든.

그래 참 동생이 그래 카면서 따라오는데, 빨간 병을 던지는께네, 불이 나서 불발이 돼뿌리는 기라. 그라이 매구가 그 불발을 넘고 또 따라오거든.

“오빠 한때 말 한때”

카면서 따라와.

그래 파란 것을 던지이께네, 물이 차는데도 물도 넘고 기어오거든. 그래 마지막으로 노란 병을 던지이께네, 바늘인가 까신가 돼서 그만 매구 간이 쭈시기갖고 죽어뻘어. 아들은 여자 때문에 살은 기라. 그리 안 했으면 그 남자도 죽는 기지. 동생한테 잡아 먹힐 긴데.

그래 그만치 부모가 자식이 그래 카면 알아들어야 할 긴데, 자식이 그래 캐도 안 알아들으이께네, 저거도 잡아 먹히고, 동네사람들도 다 잡아 먹히고,

쭉대밭이 되고, 그래가 결국 그 아들만 살았는 기라.⁵⁶⁾

[해운대구 설화 58]

개 무덤

구 연 자 : 이득명(여, 66)

구 연 일 : 1996. 6. 22.

구연장소 : 해운대구 재송동 새마을

옛날에 한 여자가 남편이 죽고 남매를 키우면서, 평생 귀경도 한 번
몬했는기라. 그래 이 여자가 죽어 개로 태어났다 안 하더나?

이 여자가 죽어 저승에 간께네, 염라대왕이 니는 너그 집에 가서 도둑
이나 지키라고 다부 보냈는 기라. 그래서 저그 집에 개로 태어났는데, 잘
크니께네 아들이 개를 자꾸 자아(잡아) 무울라고 카는 기라.

그래 어마인줄 모리고 자아 무울라 하이께네, 이 개가 그 소리를 듣고,
딸네집으로 도망을 가뻘어. 딸네집으로 인자 개가 갔는데, 아들은 개를
잊어뿌리고 고민을 하는데, 하루밤에 꿈을 꾸께네 선몽을 하는 기라.

“내가 너그 남매를 키운다고, 내가 귀경도 몬 땡기서 개로 다부 태어
나가지고 있는데, 니가 날로 자아(잡아) 무울라쌍아서 내가 딸한테 도망을
왔다.”

이래 했는 기라.

그래 아들이 꿈을 깨이까 이상하거든. 그래서 여동생 집에 가이까네,
개가 참 마루 밑에 있거든. 그래 아들이 가가지고 ‘어머이 잘못했다.’고
개한테 자꾸 절을 하이까네, 개가 더 겁을 낼 거 아이가? 개가 방으로
뛰어 들어가는 기라. 아들도 뛰어들어가면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머이를 팔도강산 구경을 시켜들이긴께네 암 말
도 말라.”

고 했어.

56)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206-207쪽에 수록(‘매구’).

그래 이 아들이 집에 데꼬(데리고) 와가지고, 그래 통을 짚는 기라. 통을 짜가지고 개를 열어 췌어지고 팔도강산을 다 돌아댕겼는기라.

그래 댕기다가 어느 동네 뽕등같은 데 찐데(잔디)가 나 있는데 앉아가지고 쉰다. 집에 오는 길인데, 그래 어머이도 쉬고 아들도 쉬고 이런데, 개가 고 자리에 누웠는 기라. 누갓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

그래 죽고나이께네 그 자리에다가 묻어놓으이 그게 개무덤이라. 그래 아들도 잘됐어. 그래 어느 고을에 개무덤이 있어.⁵⁷⁾

[해운대구 설화 59]

병 주둥이가 깨지는 꿈

구 연 자 : 이종해(남, 81)

구 연 일 : 1996. 6. 22.

구연장소 : 해운대구 재송본동 노인회관

다윈 손병사라 카는 사람이 있었거든. 그 사람 저그 모친이 여름에 멍석을 피놓고 한테 누워 자이가 큰 뱀이가 배 위로 썩 지나가거든. 그래도 그 부인이 담이 얼마나 컸던지 다 지날 때까지 꿈쩍 안 하고 그냥 누워가 있는 기라. 누워가 있는데, 뱀이가 다 지나가고 난 뒤에 그러구로 이 부인이 그달부터 태기가 있어가지고, 아를 낳는데, 그 애 이름이 손병사라.

손병산데, 그러구로 그 애가 커가지고, 장가를 가고 나서, 서울 과거하러 갈 입장에 놓여가 있는데, 꿈을 꾸이 꿈에 유리병 그거로 딱 거머지이까 목이 툇 떨어지거든. 유리병 목이 툇 떨어졌는데, 그래 밀양읍에 내일동 카는데 오면 꿈 파자점 하는 용한 사람이 있었는 기라.

그래서 그 이튿날 꿈이 하도 이상해서 그 길로 밀양 내일동 파자점하는 늑은이 집으로 찾아가이까, 그 늑은이는 열라를 엮고 나가고 없고, 그 늑은이의 따님이 한 열칠팔 살 먹은 따님이 하나 있었는데, 그래,

“어데서 왔는교? 어째서 왔는교?”

57)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203-204쪽에 수록.

하도 물어쌓는 기라. 그래,

“밀양 다원서 왔다.”

“어째서 왔습니까?”

이래 묻는데,

“내가 엿저녁에 꿈을, 하도 비상한 꿈을 꺾서, 그래 아가씨 모친이 꿈 파자점을 잘 한다 캐서, 꿈 파자점 하러 왔다.”

그래 꿈얘기를 하면 아가씨가 파자점을 지가 해준다 이거라. 그래 참 그 모친한테 배워서 꿈 파자점을 잘 하는가 싶어서 꿈 얘기를 했다 말이여. 꿈 얘기를 하니까네, 그래 저 아가씨가 카기로,

“아저씨 요번에 과게하러 가지 마소. 꿈에 유리병 모가지가 떨어졌으이, 목이 떨어질 기 아인교? 가지 마소.”

그놈우 소리를 듣고 나이까, 안 듣는 것보다 더 못할 것 아이가?

그래서 삼작거리를 돌아서 나오이까, 저그 모친이 얼라를 업고 다부(다시) 들어오거든. 들어오면서,

“어데서 손이 왔습니까?”

“다원서 왔습니더.”

“와 갑니까?”

그래,

“선은 이렇고 후는 이래서, 따님이 얘기를 한 기, 그 기분이 나빠서 갑니다.”

“아이 들어갑시더.”

그래 떡 들어갔어, 떡 들어가가지고,

“왼손에다가 침을 시(세)번 발아가(뱉어서) 저 기집애 오른뺨을 시 번을 때리라.”

카거든.

“내 꿈 물아(물려) 내라. 내 꿈 물아 내라 이 카면서, 시번을 때리고, 당신은 두루막 자락을 밑을 벌리고 저 기집애 치마 자락을 털라.”

이카거든.

그래가 인자 그 기집애가,

“당신 꿈 다부 가지고 가소.”

이카며 털고, 이 사람은 두루막 자락으로 밑에서 받았어. 받아가 오다쌓거든. 오다쌓이, 그래 그 아가씨 모친이 꿈 파자점을 새로 하는 기라.

“사람도 죽으면 사자가 된다. 병도 깨졌으니까네 사자가 되는 기라. 그 래 당신 요번에 비슬(벼슬)을 하면 병사 비슬을 하요. 가시오.”

그래 참 그분이 올라가서 병사 비슬을 했는 기라. 그래 병사를 해가지 고, 그래 척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은 잘 살았는데.

꿈이라 카는 것은 잘 꾸면은 암만 좋은 꿈이라도 그 해석을 잘못해뿌면 그 꿈이 무효가 돼뿌리는 기라. 암만 나쁜 꿈이라도 꿈 해몽을 잘 하면 좋은 기 되는 기라.⁵⁸⁾

[해운대구 설화 60]

여우에 홀린 숙종대왕

구 연 자 : 이종해(남, 81)

구 연 일 : 1996. 6. 22

구연장소 : 해운대구 재송본동 노인회관

숙종대왕이 그 전에 대궐을 지키고 있을 때, 숙종대왕이 축지법(縮地法)을 했는데, 소축(小縮)은 한 자죽에 오 리를 가고, 대축(大縮)은 한 자 죽에 십 리를 가거든. 이래 가는데, 경성 천 리·의주 천 리·광주 천 리, 삼천 리 우리 조선 땅이 삼천 리 강산이거든. 삼천 리 강산인데, 숙 종대왕이 하리(하루) 지녁에 우리 땅 삼천 리로 언제나 한 바꾸씩 돌고 대궐에 가서 자는 기라.

그래 한날 지녁에는 대궐 밖에 나서이끼네, 구름이 약간 낀 우수 달밤 인데, 대궐 밖에 나갔더이만, 한 열 칠팔 살 먹은 기집애가 숙종대왕 앞 에 질(길)로 딱 끊어서 아장아장 간다 말이다. 그 이상하거든. 숙종대왕 이라 카는 사람이 한 자죽에 오 리씩 소축을 해가 가도 딱 백 보 정도 그냥 떨어져가 가는 기라. 이기 뭇인가 싶어 한 자죽에 대축을 열어가 십 리씩을 가도 내 그 장단으로 백 보 정도 떨어져가 가거든. 그러구로 그러구로 간 것이 그날 지녁에 어테꺼정 갔는고 하이 대국 상해꺼정 가 저뻤는 기라.

58)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231-233쪽에 수록.

그래 대국 상해 어느 한 산만대이 올라갔는데, 기와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불이 환하이 썬 있는데, 거기 가더이 떡 돌아서더이마는 그 기집애가 하는 말이,

“대왕님 여꺼정 오시는데 힘 들었겠습니다.”

카고 인사를 하거든. 그래 방에 숙종대왕을 영접을 해가 앓히 놓고,

“여꺼정 오신다고 시장할 참이니, 지가 지녀를 지어 오겠습니다. 방에 앓아 계시이쇼.”

카면서, 그래 쌀로 내가 나간다 말이야. 쌀로 내가 나와서 쌀로 씻거가 밥을 앓히 놓고 밥을 하는데, 숙종대왕이 문 한지에 춤(침)을 문치가 구멍을 뚫어(뚫어) 놓고 가만이 내다 본께네, 기집애가 앓자가 불로 열는데 밑에 쫑대이 춤을 너불너불 치거든. 그기 뭐냐 하면 구미호라 카는 쫑대이가 아홉 개 달린 둔갑 여시(여우)인기라.

그래서 숙종대왕이 정신이 확 돌아오는데, 인제는 죽었구나 싶은 기라. 그래서 그 능선을 죽을판 살판 한 자죽에 십 리씩 가는데, 얼마만치 가다가 보인께, 그 기집애가 따라온다 말이야. 따라 오는데, 부득불 할 수 없이 바로 가는 거 맨치로 가다가 한쪽 개울로 재빨리 내리가인께네, 아무것도 없고 산에 솟 굽는 솟막이 있는데, 부엌에 보이, 나무를 한 바지 기 부아 놓았는데, 나무 밑에 숨어가 있으인께, 방에서 긴머리 땀은 엄두리 총각이 하나 나오디마는 소변을 하면서 하늘을 베푼미 쳐다보디마는,

“형님요, 형님요.”

카이, 방에서 영감이,

“와(왜)”

카이,

“미구에 국상(國喪)하겠습니더.”

이카거든, 그래 그카이께네, 방에 그 영감이,

“서울 동구 밖에 류서방 집에 가면 한 분 죽음은 면할 긴데.”

그카거든.

그라고 총각은 오줌 누고 방에 드가뵈다 말이야. 드가뵈고 숙종대왕은 그 소릴 듣고 쫓아나와 죽을판 살판 한 자죽 십 리씩 대축으로 얼마만침가이께네, 또 기집애가 백보 밖에서,

“대왕님 같이 갑시더.”

카면서 뒤에 따라오는데, 그래 서울에 류가(柳哥)의 집이 어데 있는지 밤이라 알 수가 있나? 해마다가 서울 동구 밖에 큰 버들남기, 한 아름되는 버들남기, 속은 불로 타고 겉에는 움 가지가 올라와 살아있는 그런 버들남기 한 쪽에 툇 타져 벌통매이로 비어가 있거든. 그래 거기에 쭉 들어갔다 말이다. 거기에 쭉 들어가 서가 있으이께네, 그 기집애가 버들나무 앞에 와가주고,

“류서방 류서방, 숙종대왕이 온 지녁 내 밥인데, 내 다고.”

류서방이 대답을 하는데, 류서방이 댄 기 아이고 나무 목신인 기라.

“온 지녁에 니 밥이라도, 숙종대왕이 대궐에 있을 때는 니가 잡아먹든 동 니 마음대로 하지마는, 내 집에 온 손님은 온 지녁에 내가 내보내지 못한다.”

그러구로 계명성이 나는데, 닭이 운다 말이야. 닭이 꼬꼭 카고 우인께네, 저 기집애가 하는 말이,

“내가 대왕을 아홉을 자아(잡아) 묵었는데, 숙종대왕만 자아 묵으면 내가 인도환생 해가주고 사람이 돼가주고 대국 왕비가 돼가 갈 긴테, 인지(이제) 우에(어찌) 고생을 하노?”

이카면서 낙루를 지우고 그냥 가뵈거든.

이래 가뵈는데, 그래 그 질로 숙종대왕이 대궐에 드가서, 밤새도록 고생한 일로 생각하이 잠이 와야지, 지가 산 일로 생각하이께네,

“류서방이라. 옳지 버들 류자 류서방이구나.”

그래 풀이하고, 그 이튿날 아직(아침)에 신하들을 불러가주고,

“서울 시민들을 다 일바다라(일어나게 하라).”

그러이, 그 버들남기 걸(개울)가에 있는데, 비가 오면 큰 물이 저가 뿌리도 들나가 있고, 속에 불도 타고 이래 놓으이, 냄기(나무가) 죽을까 살까 요런 기라.

그래 서울 시민을 전부 일바다 가주고 흙을 지고 와서 발로 묻고 떠를 떠다 보호를 하고, 숙종대왕이 그 버들나무 밑에다가 제를 지냈는 기라.

그래 숙종대왕이 구미호한테 죽을 경험을 하고, 그래 버들나무 때문에 살았다고 그래 버들나무를 잘 보호해 줬답니다.⁵⁹⁾

59)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228-231쪽에 수록.

[해운대구 설화 61]

두꺼비의 보은

구 연 자 : 이종해(남, 81)

구 연 일 : 1996. 6. 22.

구연장소 : 해운대구 재송본동 노인회관

예전에 참 아주 가난하게 살은 집이 있는데, 아직(아침)밥 저녁(저녁) 죽을 근근히 잇아 먹는 집이 있는데, 그래 그 집에 열댓 살 먹은 딸아가 만날 아직마중 저녁마중 밥을 하는데, 한날은(하루는) 비가 처적처적 오는데, 아직을 하이까네 뚜끼비가 커다란 것이 한 마리 기들어 오거든.

그래 요놈을 붙들어가지고 아직 저녁으로 밥을 조아(주어) 키우는기라. 키우는데, 인자 그 동네에 큰 들이 하나 있는데, 그 동네 당(제당)에다가 일 년에 처녀를 하나씩 사다가 열어야 그 들에 풍년이 지고 이런데, 그래 이 딸아가 뚜끼비를 한 일 년을 떡 먹이(먹여)가지고, 이래 돼놓으이까네, 그래 그 해에 또 처자를 살라 카이 그 동네는 그 집밖에는 처녀 있는 집이 없는 기라.

그래서 이 처녀가 천상 팔리갈 판인데, 저그 부모네들이 안 팔라고 해도 되나, 그 동네에서는 그 처녀 하나뿐인데. 그래서 팔려가기로 날짜가 돼가지고, 그래 갈 때는 참 뚜끼비가 어데 있던동 정지에 있던동 몰랐거든.

그래 당 안에 들어가 앉으이까네, 뚜끼비가 치마자락으로 싸여 와가지고 뚝 널찌는 기라(떨어지는 것이라). 널찌는데, 그래 한참 있으이까네, 그 당 제짝이(기와짝이) 들들들들 하거든. 그래 치다보이까, 지네가 벌근 것이 채(키) 짝만한 것이 한 마리 천장에 떡 붙는 기라.

그래 지네가 피우는 기운은 안개매이로 퍼져가 내려오고, 뚜끼비란 놈은 치다보고 안개를 피우는데 대추씨땀구로 몽땅몽땅 올라가거든. 그래 두 놈이 서로 안개를 피우다보이까, 지네가 독을 많이 먹어 놓으이 먼저 죽어뿌거든. 그래 뚝 떨어지고, 뚜끼비란 놈도 독을 먹어놓으이 죽어뿌제. 그래 두 마리 다 죽어놓으이, 처녀가 문을 열었다.

문을 열어놔야 독이 다 나갈 거 아이가? 독이 다 나갔부고 짐승 두 마

리 잡아놓고 앉아 있으니까네, 익일날 동네 사람들이 영장도 치워야 되제, 다 나올 것 아이가? 저놈이 처녀를 다 빨아먹으려면 빼가지라도 치워야 되거든. 치우러 오이, 처자는 살아가 있고, 큰 채찍만한 지네하고 뚜끼비하고 죽어 있거든. 그래,

“어쨌든 일로 이렇게 되었노?”

그래 동네 사람들이 묻거든.

“일년 전에 우리 집에 뚜끼비 한 마리 온 거를 아직 지녀으로 먹이(먹여) 키웠디마는, 내가 들어올 때는 뚜끼비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뚜끼비가 우연히 치매자락에 싸여와서 지녀를 잡았다.”

고, 그런 말을 하니까네,

“아 그렇냐?”

고.

그라고 나서 그 동네는 해마중 그거 잡아뿌고 나니까네, 시절이 어떠 풍년이 지는지. 그래 가지고 일 년에 들에 처녀 사다 영는 돈 받제, 곡식을 한 마지기 얼마씩 받아가지고 큰 부자가 됐어, 뚜끼비 한 마리 먹여 가지고. 그래 처녀 집도 부자가 되고, 동네도 잘 되고 그래 잘 살게 됐더라.⁶⁰⁾

[해운대구 설화 62]

시신을 매장해 주고 금제한 이야기

구 연 자 : 이태순(남, 75)

구 연 일 : 1996. 6. 22.

구연장소 : 해운대구 재송본동 노인회관

예전에 한 사람이 과거 보러 떡 가는데, 골짜기를 골짜기를 가는데, 그 가는 도중에 객사들 자고 가라고 집이 있어요. 커다랗게 지어놓은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전부 죽어서 나오는 기라, 죽어서.

60)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221-222쪽에 수록(‘뚜끼비 설화’).

자고나면 밑에 동네 사람들이 영장 치러 오는 기라. 죽은 사람 처치하러 오는데, 그래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여기 밤에 뗏이 나오길래 만날 사람이 죽어 나오고 죽어 나오고 그래.’ 카고 밤중이나 되니까네, 자기가 누워 잘 자리 거기에, 한 구석에 앉아 있으니까네, 구들이 들썩들썩하는 기라.

그래 저기 뭔가 싶어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앉아 있으니까네, ‘설마들 나를 잡아먹진 안 하겠지’ 하며 앉아 있으니까, 그래 허연 노인이 떡 나오거든.

“예끼 이 사람! 잘 만났다. 내 말 한 마디 할라니까 전부 기절해 죽고 기절해 죽고 하이, 그러니 본래 이 자리에 내 곱이 묻어가 있는데, 춤다고 내(계속) 불을 때 놓으이 내 이망빠기가 타졌다. 이망빠기가 타졌는데, 날로갓다 좋은 데 갓다 묻어 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나는 니 잘 만났다.”

그래가 그 얘기 끝나자 짹 사그러지고, 본래대로 장판이 그래 뚱가 있거든. 그래 자고나니까 영장 치러 밑에서 사람들이 짹 올라오는 기라.

“여보시오. 뭐하러 오오. 내가 벌거이 살아있는데 뭐하러 와요?”

카이, 그래 다 가뿌는 기라.

사람들이 가고 난 뒤에 자기는 호메이랑 뽕이랑 가지고 방구들을 살살 파이 예전 곱이 있어. 곱이 있는데, 그 곱을 자기 과거 보러 가는데 쓰는 참중우에다가 짹짹 상하로 질서대로 엮을 했는 기라. 엮을 해가지고 날이 새서 깊어지고 가다가 한쪽에 가이 참 따신 데가 있어. 그래 여기 묻어 놓으면 좋겠다 싶어 호메이로 파서 거게다 묻었다.

뽕을 묻고, 그날 밤에 과거 보러 가다가 여관에 가 자는데, 묻어준 할배가, 허연 노인이 꿈에 선물을 하는 기라. 꿈에 선물을 하는데,

“이 사람아, 니 참 잘 만났다. 니 아이였으면 내가 평생 거게서 고생을 할 건데. 이번에 과거에 나오는 걸 가르쳐 줄 테니까 고대로 니가 하면 된다.”

이거라.

그래 자고 나이 꿈이라. 실제적으로 중우가 하나 있어. 있는데 보이, 글로 알구지게 알아보도 못하게 써 났어. 그래 가만히 들봐다 보이 해석하겠는 거라.

그래 과거를 딱 보는데, 전부 다른 사람은 다 가고, 지 이름도 부르도 안 하고, 지우(겨우) 끝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기라. 그래서 글 난 그 대로 답을 했더니만,

“니가 참 재주 천재다.”

카고, 그래 그 사람이 과거에 댔답니더.⁶¹⁾

[해운대구 설화 63]

시집가는 신부를 따라나간 업

구 연 자 : 차동준(남, 73)

구 연 일 : 1996. 6. 22.

구연장소 : 해운대구 재송본동 노인회관

옛날 이 마을에 한 사람이 잘 살았는데, 그 사람이 옥련이라는 딸이 있었어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치았는데(시집을 보냈는데), 저 반여동에 갑동이라 카는 사람한테 딸을 치았는데, 딸이 시집을 가는 그 날이 되어서, 원창 잘 살아놓이 부잣집이 되어놓이까네 창고에 도장이 있는데, 이전에는 도장 안에 큰 수티이, 단지, 거게 곡식을 쫓어가지고 쌀로 쫓어가지고 Ying 이래 났는데, 그 시집가는 날 그날 그 도장에서 구렁이가 그 독 밑에 있다가 그 딸 시집가이까네 따라 기나오는 기라요.

기나오는데, 그래 처녀는 가마 타고 시집간다 아이요? 시집가는데, 구렁이가 따라 나가뿔는 기라. 그래 나갔는데, 그라고부터는 그 집 살림이 차차 차차 다 빠지고 망하는 기라. 망하는데, 그래 이 옥련이가 그 집에 시집을 가고부터는 그 집에서 또 살림이 이는 기라. 부자가 되는 기라.

갑동이 한천공장하고 얼마나 잘 살았노? 옥련이라 카는 그 처녀가 복이 있는 처녀라. 그래 그 처녀 있으이까네, 저그 집에 있을 직(적)에는 그 업이 창고 안에 들어가지고 있었는데, 저그 집에서는 그 구렁이가 창고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거든. 그래 시집가이까네, 시집가는 그날에서야 창고에서 구렁이가 기나오는 기라.⁶²⁾

61)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215-216쪽에 수록.

[해운대구 설화 64]

해운대 온천 개척담

구 연 자 : 김순남(여, 89)

구 연 일 : 1996. 5. 25.

구연장소 : 해운대구 좌동마을

옛날에 땅에 풀이 나 있는 데서 김이 무럭무럭 나고 이랬거든. 뜨뜻한 물이 나오고 이랬거든. 그래도 우리 조선 사람들은 모르인께, 개발도 하지 않고 있었거든. 우리가 대일곱살 묵었을 때 외할머니 따라 중동에 가 이까네, 풀이 짜더라 나 있는데, 나무판으로 오목하게 맥하놓고 밑에는 벌려놓고 온천을 했어.

그런데 일본 사람이 나와가지고 더운 물 나는 데 물끔글 뚫버가지고, 그래가지고 온천을 맨들었다 아이가? 우리 조선 사람은 얼추이맨거로 그런 것도 몰라가지고 더운 물이 나와도 그대로 내빼리났다 아이가? 그래 일본 사람이 나와가지고 점방도 짓고 장사도 하고, 우리 조선 사람은 장사할 줄도 모르고, 이 앞 땅만 갈아 농사나 짓고 살았거든. 그래가 일본 사람이 온천을 개발해 맨들었거든.⁶³⁾

[해운대구 설화 65]

도깨비 배(17)

구 연 자 : 고옥숙(여, 74)

구 연 일 : 1992. 1. 15.

구연장소 : 해운대구 중2동 청사포마을

62)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147-148쪽에 수록.

63) 이 민담은 전설담도 아니고 역사적 사실담이라 할 수 있다. 온천개발을 할 줄 몰랐던 해운대 기층민의 의식을 그대로 구연한 담화이다.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146-147쪽에 수록(‘해운대 온천 유래담’).

옛날 내가 젊었을 때 여름 일인데, 새벽 3시나 되었는데, 바로 우리집 앞 바당(바다)에서 ‘이영청 이영청 이영청, 어 -이영청 이영청’이라고 소리가 나고 있어, 배(船)라. 막 바리(바로).

배가 가다가 파선이 됐거든. 파선이 돼가지고 사람이 거기에서 억수로 죽었어. 바당에 나가 갑자기 파도가 많이 치고 하면 사람이 죽는 수가 있거든.

그래 오늘 이 바당에 참 이상하다 싶어. 그래 새벽 3시나 돼서, 마리(마루)에 오줌 단지가 있는데, 오줌 놀라고 일어나 오줌 누러 나오이, 옷이 전부 구신(귀신) 옷이라놓이 엇딕뼉뼉하이 이래. 그 때는 우리가 아직 젊을 때지.

“보소, 보소. 일어나(일어나) 보소. 저기 배가 파선이 돼가 사람 살리라고 난리가 있습니다. 한 번 일어나 보소. 온 동네로 일바다가(일으켜) 사람 좀 살리구로 좀 그래하소.”

카고 그라이, 우리 영감님이, 그 사람들은 버여(벌써) 여게가 저그 고토(故土)라서 날이 곳으면 바당이 어떻다 카는 거를 알거든. 그래 ‘너는 씨부리라 나는 듣는다’ 카는 식으로 놀어가 있어. 한참 있더이,

“이 소새끼야! 그것도 모르나?, 배가 바당에 나가가주고 갑자기 풍량이 오면 얼마나 무섭고 겁나는 줄 아나? 해지비 배(도깨비 배)가 난데없이 불을 켜져가지고 절에 배가 쿵덕쿵덕하이 와가, 절에 떠억 대가(닿이어) 물 푸는 바가치 좀 주가(달라) 이란단다. 물 푸는 바가치를 쥐 놓으면, 바가치로 물을 푸가지고 자꾸 이 쪽에 바가치를 준 그 사람을 자꾸 덮어 씨운단다. 그래서 짐작이 있고 그 중에도 나이 많은 사람은 바가치를 밀기영(밀 구멍)을 탁 떼고 주면, 지라사(자기가) 여기 욕 뵈라고 물을 푸가 덮어씨우나 물이 다 흘러뵈고 왜나? 그런 수가 있었는데, 다시는 이제 말하지 말아라. 동네 사람이 날 곳은데 누가 나가서 네 마음맨크로 온 동네가 사람 살릴라고 하겠나? 그기 해지비 아이가!”

이라거든.

“아이고 그렇는교? 나는 그걸 참 몰랐습니다.”

캬어.⁶⁴⁾

64) 해운대구, 『해운대구지』, 대원인쇄문화사, 1994, 474-475쪽과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143-144쪽에 수록

[해운대구 설화 66]

청사포계당 할매 전설(17)

구 연 자 : 고옥숙(여, 74)

구 연 일 : 1992. 1. 15.

구연장소 : 해운대구 중2동 청사포 마을

옛날에 김씨 할매가 자숙도 없이 영감님과 살다가, 영감님이 배를 타고 바닷에 나가 고기잡이를 하다가 배가 파선이 돼가 이 영감님이 집으로 못 왔어. 그래 김씨 할매가 하도 원통코 답답고 애달바서 바당 갯에 앉아 영감을 부르고 이래 매일 우는 기라.

주야로 찬물에다가 목욕을 하고 영감 살아 오라고 매일 바닷에 나가서 ‘용왕님요 영감님 보내 줄라’카면서 정신을 드리고 있으이까네, 우연히 하리는 저그 할매라 카면서 왔거든. 그래 자세히 보이 저그 영감이거든. 그래 그 영감과 사는데, 그 할매가 어찌나 정신이 지독하던지 저그 영감은 죽었는데, 물에서 용왕님이 사 램으로 바뀌서 나왔어. 영감이 용왕님이라.

그래 뒷날 할매가 떠나고 나이 용왕님이 어디로 갔는지 간 곳이 없더라.⁶⁵⁾

[해운대구 설화 67]

아들 잃은 과부를 웃게 한 청만씨

구 연 자 : 구옥순(여, 66)

구 연 일 : 1992. 1. 17.

구연장소 : 해운대구 중2동 청사포마을

옛날에 하날도 없는 집 과부가 아들을, 유복자를 낳아가 키아가주고, 마 죽었거든. 죽어가주고 이 과부가 천날만날 뗏등에 가서 우는 기라. 이

65) 해운대구, 『해운대구지』, 대원인쇄문화사, 1994, 449쪽과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141쪽에 수록.

아들이 보고접고 아들 생각이 나가주고 천날만날 뿔등에 가가 아들로 보고 울어쌓이, 그래 그 동네에서, 저 과부 웃길 사람이 있으믄 상을 준다 이랬거든.

벌써 몇 십 년 웃지도 안 하고 아들 묘에만 가서 울어쌓이. 그래 한 아이가, 정만서⁶⁶⁾가,

“내 웃기지.”

“그래 니가 어째 웃길라노?”

이라이,

“내가 웃기면 상을 얼마나 줄란지요?”

하고는, 우는 데에 가서 자꾸 같이 울거든. 과부가 울믄 이거도 같이 울고 마 미칠라 그러이 과부가 울다가,

“당신은 왜 그리 울꼬? 나는 참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래 죽어서러 이래 답답해서 만날천날 너무 보고접고 너무 한이 되어빠서러 운다. 당신은 뭇 때문에 우요?”

과부가 그러카거든.

“나는 밑구녕에 나온 촌챙이가 고물고물하더이 마 죽어뻘다. 당신은 자식이 죽어 울지마는 나는 촌챙이가 죽었다.(웃음) 당신도 속에서 낳았는 자식이 죽어 울지마는 나도 속에서 빠진 촌챙이가 죽어서 운다.”

했다.

그래 그 과부 웃기고 상 많이 탔대요.⁶⁷⁾

[해운대구 설화 68]

청사포 주변의 산명·지명 유래담

구 연 자 : 김명진(남, 64)

구 연 일 : 1992. 1. 15.

구연장소 : 해운대구 중2동 청사포마을

66) 정만서는 19세기경 경주에 살던 사람으로 묘는 경북 월성군에 있다고 전함. 그는 남을 속여 돈 버는 것을 즐기는 인물이다.

67) 해운대구, 『해운대구지』, 대원인쇄문화사, 1994, 465쪽과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162-163쪽에 수록(‘아들 잃은 과부를 웃게 한 사람’).

저기 광아산 몬디(山頂上)가 있어요. 옛날에 천지개벽할 때 바다에 놀던 광어가 그 산까지 뛰어 올라갔다 해서 그래 광아산이라 했어요. 그리고 천지개벽할 때 이 산들이 전부 다 물에 잠겨뒀고, 저 산이 호룡 하나 놓을 자리만 남아 있고 다 물에 잠겨뒀다 말입니다. 그래 광아산의 바위에 굴껍질이 붙어 있었다 합니다.

또 이 노인정 지점에서 서쪽 방향으로 한 300m 옆으로 가게 되면 문디산이라 있어요. 그것이 왜 문디산이냐? 옛날에 한 60-70년 전에 모진 병을 앓아가지고 올데갈데 없어가지고, 자기 집을 뛰쳐나와가지고 그 모있던 곳이 문디가 있었던 곳이 바로 문디산이라.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기거하면서 당시 해운대 온천이 노탕(露湯)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목욕을 하니 자연적으로 피부가 맑아지고 낫아지는 경향이 있었더라입니다. 그래가 그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지 못해도 여기에 집단적으로 살다보이 유래가 문디산이 됐다 카는 말이 있습니다.⁶⁸⁾

[해운대구 설화 69]

청사포의 풍수지리설

구 연 자 : 김명진(남, 64)

구 연 일 : 1992. 1. 15.

구연장소 : 해운대구 중2동 청사포마을

지금 달맞이 산은 소가 누워 있는 형상이라 해서 와우산(臥牛山)이라고, 그 꼬리 부분이 고두말(高頭末)이란 텨니다. 그런데 학식 있고 힘이 센 김두희란 분이 우리 마을에 농로가 없어서 되겠느냐 해서 이 마을에 들어오는 신작로를 내다보이 소잘랭이를 깔고 난 이후로 그 어른도 돌아가시뒀고 없고, 이 마을에 인재가 안 나더라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 소잘랭이를 깔기 전에는 이 마을에 장사가 많이 났습니다.⁶⁹⁾

68)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142-143쪽에 수록

69) 해운대구, 『해운대구지』, 대원인쇄문화사, 1994, 448쪽과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140-141쪽에 수록 (‘청사포에 인재가 없는 이유’).

[해운대구 설화 70]

청사포제당 할매 전설(2)

구 연 자 : 김명진(남, 64)

구 연 일 : 1992. 1. 15.

구연장소 : 해운대구 중2동 청사포마을

대체적으로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이 마을에 김씨 할무니께서, 여게 살았던 모양이죠? 살았더랜데, 그 김씨 할무니의 영감님 되는 분이 졸랑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갔더랜데, 영감님이 돌아올 시기가 돼도 안 돌아오더라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할무니되는 분이 하루 기다리도 이틀 기다리도 안 돼가지고 이 제당이 있는 이 자리에 와가지고 소나무에 올라 타가지고 보아도 영감님이 오는 흔적도 없고, 이래가지고 거게서 결국 지친 끝에 죽었다 말입니다.

할무니가 죽고 나니, 그 뒤에 이 솔나무 이름이 망부송(望夫松)이 되고, 그리고 할무니가 여기서만 영감님을 기다린 것이 아이고, 요 앞에 반석이 있습니다. 그 반석에서 영감님을 기다리서 방부석(望夫石)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을 시조로 모신 것이 제당을 형성하게 된 김해 김씨 할무니 전설입니다.⁷⁰⁾

[해운대구 설화 71]

동상례(東床禮)

구 연 자 : 김명진(남, 64)

구 연 일 : 1992. 1. 15.

구연장소 : 해운대구 중2동 청사포 마을

70) 해운대구, 『해운대구지』, 대원인쇄문화사, 1994, 449쪽.

그래 인자 머심들이 있는 사람 집에 장가를 갈라 칸께네 글로 조금 알아야 돼. 글로 풀어 얘기하는 것을 파자풀이라 해. 이래저래 잡아놓은 날 짜가 되어서 결혼식을 떡 올리는데, 지금도 그런 풍습이 있지.

피로연이 옛날 같으면 동상례인데, 동상례라 카는 것은 뭐냐 하면 지식을 봐야 돼. 즉 말하자면 글로 써가주고 자기 인품을 나타내는 글이 자기 의사를 드러내는 건데 이놈이 글을 못 배웠다 캐놓이, 그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꿈수로 하나 내는 기야.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네, 오늘 기분도 안 좋고 하이까네, 풍월 다시(도무지) 시는 못 짓겠고 파자풀이를 하고 놀자. 그래 짧은 시간에 여러 사람이 웃고 안 좋으냐?”

카이, 그 가마이 보이 이해가 된다 말이다.

“그러면 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 이 사람(신랑)이 첫 문제를 내놓기로,

“처음에 입 구(口)로 아야기를 하자.”

캐가지고, 말이 어느 정도 진척이 돼가주고,

“입 구자에 점 복자를 붙이면 어떻느냐?”

카이까네, 옛날에 ‘천자문’, 그 다음에 ‘대학’을 배우고 나면 ‘맹자’를 읽고 나면 요즘 말로 하자면 차원이 높은 거지. ‘중용’ 카는 것이 있어요. ‘중용’이라는 이 책의 작자⁷¹⁾가 공자의 손자요. 공자의 손자 때 와서 썼는데, 송나라 주자(朱子) 때 와서 이 ‘중용’을 만든 기야. 그걸 다 배완 사람들이 ‘내노라’ 카고 글로 배왔다고 덤비는 사람들이 맥히는 기라. 일꾼 때문에 전부 잘 하니까 있을 때 하고 좀처럼 맥히지를 안 해. 그래서 ‘며칠 전만 하더라 캐도 내가 안만 해도 밀지고 시집가는가 싶으다’ 카는데, 신부가 빙긋이 웃더라고,

“왜 그렇느냐?”

고,

“우리 낭군이 그래 무식한 데가 없는 것갑다. 글을 아는갑다.”

이라거든. 그래가주고 글이라는 것은, 학문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 그래 입 구 변에 점 복자라 카이, 이것이 한글의 ‘마’자여. 그래 선비(신랑)가 골라 주는 기라.

“너희가 알며는 얼마 아느냐?”

71) 子思가 지음. 四書의 하나.

그것을 모르면서,
“뭐 한 수씩 시로 논할 수가 있나?”
카고 그래가주고 동상례에서 이겼다는 말이 있어.

[해운대구 설화 72]

도깨비 불

구 연 자 : 김명진(남, 64)

구 연 일 : 1992. 1. 15.

구연장소 : 해운대구 중2동 청사포마을

청사포 여기에 혹 밤으로 날이 꺾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이럴 때, 아낙네가 자기 집에서 이웃이에 놀로 가다가 보면, 저 바다 한 가운데서 벌건 불이 자기 앞을 보고 달음질치고 온답니다.

어쩌다 보면 불이 자기 앞에 안긴다 하거든. 이럴 때 장심(壯心)이 약하면 냇을 잃는 경우가 되고, 또 장심이 좀 센 아낙네는 불덩어리가 어데 가느냐 하고 살펴 보면, 그 불덩어리가 바로 물질실에, 물하고 물하고 그 사이에서 도깨비들로 변해 ‘이영차 이영차 이영차’하고 배에다가 끈을 매가지고 땡기는 맨치 그렇게 해쑈다가 사람 인적 소리가 나면 온데간데 없이 싸악 사라지는 것을 많이 본 아낙네가 있어요.⁷²⁾

[해운대구 설화 73]

도깨비 배(2)

구 연 자 : 이복수(여, 77)

구 연 일 : 1992. 1. 15.

구연장소 : 해운대구 중2동 청사포 마을

72) 해운대구, 『해운대구지』, 대원인쇄문화사, 1994, 474쪽과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 민속』, 서면문화사, 1996, 141-142쪽에 수록

그 때 여름인데, 사램이 다 갱분에 놀아쌓는데, 아이들이가
“해지비배 들온다. 해지비배 들온다.”

이래서러 그래 집에서 튀어 나왔어. 나와 가지고 여여(여기) 우에서 보
이까네 해지비배가 바당에서 들오는데 땃배라. 메리치(멸치)로 떠는 배
인데, 배가 크다란데, 사램이 많이 땃는데 밀모자를 쓰고, 이룬데, 키가 4
발 장대 같이 큰데. 이쪽에도 노(櫓)를 젓으며 ‘이어차 이어차’하고 저 쪽
에도 노를 젓으며 ‘이어차 이어차’하는데, 앞에는 횃불을 들고 있는데, 저
어서(저기서) 이리 오더마는 여어서(여기서) 땃치를 떠. 사램이 왁작왁작
땃치를 떠 쌓더만, 그래 이리저리 구시돌로 돌더마는 갈 때는 저 오록도
를 보고 가는데, 배가 살살 날아가. 그래 내가 해지비배 한 분 봤다.⁷³⁾

[해운대구 설화 74]

쌀과 낭신(囊腎)

구 연 자 : 이복수(여, 77)

구 연 일 : 1992. 1. 15.

구연장소 : 해운대구 중2동 청사포 마을

이전에 과부가 양반이 돌아가시고 깊은 산중에서 길쌈을 하고 이래 사
는데, 그래 스님이 들어와서,

“하릿밤 유(留)하고 갑시다.”

이래이까네, 소복단장을 하고 이래 길쌈을 하고 있는데,

“방이 누추하고 단방이라서 주무실 데가 없다.”

고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웬체 좋으니까 마음 떠볼라고 그랬지.

“한 옆에 내가 길쌈 삼는데 한 구석(구석)에 쪼개 어거지(억지)하고 자
고 가겠다.”

하고 이라인까네, 그래 ‘군색한갑다’ 이래서 참 나가가지고 없는 반찬에
밥을 지아가주고 그래 스님을 갖다 디리고, 그래 한 옆에서 길쌈을 삼는

73) 해운대구, 『해운대구지』, 대원인쇄문화사, 1994, 475쪽과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
민속』, 서면문화사, 1996, 144쪽에 수록.

다고 삼으이, 중이 자면서 쪽 기지개를 치면서 그 각시 앉아서 길쌈하는데 삼 삼는데 다리를 툭 갖다 얹거든. 그라이까 ‘우리 스님이 땡기다가 억수로 피곤하신갑다.’카면서 다리를 사알 나라(내려)놓고, 또 몇 번 기지개를 치면서 다리를 얹고 몸부림을 치며 손을 얹으이 ‘아이구, 스님이 대단히 피곤한갑다’ 싶어가 손을 내루고 다리를 내루고 이래 그 마음을 꺾어보고, 그 중이 하룻밤을 자고 아침을 정하게 없는 곡식을 지아서 공양을 디리고 먹고 나가는데, 갈 때.

“천장에 요래 무슨 조마이(주머니)를 하나 해가 달아놓아라.”

카더란다.

무슨 뜻으로 했는고 싶어서 조마이를 쪼개이(쪼끄만하게) 해가주고 달아놔어. 달아 놓으인까, 스님이 가고나йка 쌀이 또닥 또닥 주야로 흐르더랍니다.

조마이 안에서 쌀이 또닥 또닥 흐르는 것이 수월찮에. 주야로 흐르니까, 그래가주고 각시가 구차를 면하고 잘 살고. 그 서방 죽고 깊은 산중에서 시묘살이를 오래 했어. 그래 행운이 됐다고 하는데, 한 군데는 그 소리를 해가주고 부자 됐다 카는 것을 듣고, 한 등너메, 이전에는 집이 멀리 안 있는교? 산중으로 가면 한 채 저기 있고 한 채 뚝 떨어져가 있고 이런데, 아무것이가 중을 지아(재워)보내고 그래 쌀이 떨어져가 부자가 되었다고 이란께, 등너메 또 혼차 된 사람이 사는데, 그 심지(心志) 떠볼라고 또 중이 갔어. 글로(그곳으로) 갔어. 가인께네, 이 여자는 차고 갈 데가 없다고 오인까,

“아! 이리 들오시라.”

카고, 그래 지가 바느질을 하고 길쌈을 하고 있는데, 중이 몸부림도 안치고 가마이 죽은 듯이 눕어가 있으인까, 중 다리를 갖다가 끝다가 지한테다 사알 얹거든. 얹고, 팔도 지가 끌어다 이래 대고, 그 중이 심지를 떠볼라고 땡기는 도사라. 이리인까네. 그 사람은 나가면서,

“쪼개난 조마이를 천장에 하나 달아놓아라.”

카더란다.

그래 달아놓고 일하고 들어오이, 이 과부가 음낭(陰囊)에 미쳤다. 지마음이 옳지 안하다 싶어서 낭신(囊腎)이 뚜덕 뚜덕 흐르더랍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⁷⁴⁾

[해운대구 설화 75]

낭신을 찍어 죽은 오래비

구 연 자 : 이복수(여, 77)

구 연 일 : 1992. 1. 15.

구연장소 : 해운대구 중2동 청사포마을

오래비와 누이동생이 사는데, 그래 참 시집을 간다고 간 기 아이고, 어 데 산중에 산꼴에 올라가다가 어찌어찌 동생이 꽃같이 보였어. 정신이 혼미해서 같이 올라가다가 동생이 앞에 가고 오래비는 뒤에 걸어오는데, 동생이 돌아보이 다시(도무지) 오는 데가 없어서러, 그래 참 다시 내려와 보이 앞에 말마따나 낭신을 찍어가 죽어 있더라고.

동생이 참 ‘사랑은 말로 국경도 없다 하는데, 나짚에 말이나 해보고 하지, 말도 해보지 않고 죽었다’고 그래 대성통곡을 하고 울더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⁷⁵⁾

[해운대구 설화 76]

피로 어머니 원수 갚은 아들

구 연 자 : 이진순(여, 58)

구 연 일 : 1992. 1. 17.

구연장소 : 해운대구 중2동 청사포마을

옛날에 한 사람이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너무 너무 바보더래요. 그런 데 영감 죽고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데, 생전 방구석에 들앉아가주고 일을 할 줄 모르고 만날 들앉았는 기라.

74) 방이설화(旁佻說話) 또는 금추설화(金錐說話)의 서사구조를 모방한 신랑설화(腎囊說話)라 할 수 있다. ‘쌀이 나오는 술과 낭신이 나오는 술’(김승찬, 『경남지방의 민담』에도 동류의 민담이 수록되어 있음.)

75) 『달래나 보지』 또는 『달래강』 『달래고개』 유형의 광포설화.

그 할마이가 지금으로 말하면 식모지. 임금집에 그릇이나 씻겨주고 그 래 묵고 사는 기라. 그 래 임금집에 그릇 씻겨주러 가가 설거지하다가 임금 밥그릇을 췌는 기라. 은밥그릇을 췌는 기라. 깨이께네, 임금님이 벌을 주기를, 똥을 한 그릇 자기 그릇에다 놓가지고, 그릇 췌는 죄로 ‘그 똥을 다 묵어라’ 카거든. 묵어라 카는데 어쩔끼고 묵어야지. 그 래 묵고 집에 와서 생각하이 자숙놈은 맨날 구들막 차지해 있으이 천불이 안 나겠어? 그래서,

“네 이놈우 자숙아, 오늘 내 임금님 밥그릇을 췌는데, 임금님이 날 똥을 한 그릇 묵어라 캐가 묵었다. 그런 벌을 받고 이래도 너는 맨날 구들막 차지만 해가 앓았나 어데 가가 죽든지 살든지 나가라.”

고 그란께,

“그러냐고, 그러면, 장에 가서 대나무 좀 하고 문종우 한장 사고, 초 한 자루 사고 그 래 가주고 오라.”

“그 래 그것 뭐 할라꼬 찻느냐?”

“내가 뭘 하든지 사가지고 오라.”

고 그란께, 그 래 인제 어마이가 사다 준께, 그거를 쪼개가주고, 옛날 초 룡을 만들었는 기라. 초 룡을 만들어가지고 초는 복판에 가운데에 꽂고, 임금님 집앞에 큰 버드나무가 하나 있는데, 밤에 거어 올라가가고, 임금님 집앞에 버드나무에 올라가가고, 임금님 딸을 치울라고 날을 받아 났는데, 올라가가고 밤에. 촛불 그거를 임금님은 하늘에서 무슨 불인 줄 알아요. 버드나무 꼭대기에 올라가가고 촛불 걸어놓고 있은께.

“애 이놈, 임금아, 너 이놈 듣거라. 내가 하느님이다. 애 이놈 니가 아무개가 너그 집에 와서 설거지하고 종질을 하는데, 니 밥그릇 췌다고 이 놈 니가 똥을 한 그릇 먹었구나. 그랬은께 니 이놈 니 딸, 아무데로 이울 라꼬(결혼시키려고) 해났는 그 딸을 그 똥 먹있는 그 집에 메느리로 안 주면, 내가 니를 이놈 대번 잡아갈 기다.”

그랬거든.

그란께네 임금님이 벌벌 떠는 기라. 뒷집에 거러지에 그 딸을 줄라 카 이 기도 안 차지. 기도 안 차는데 하느님 명령인께 할 수 없는 기라. 기도 안 찰 것 아니라? 그 집에 딸을 줄라 카이. 아무 직업도 없제. 그런데 그 래가주고는 초 룡에 칸치 한 마리 잡아가주고 묵어가주고, 칸치를 포룽

날린게, 하늘님 날라간 거매이로(것럼) 불을 칸치 밭에다 다니 포롱 날아
갈 거 아이라? 날아간게 진짜로 하느님인 줄 알고, ‘아이구 이거 하느님
명령을 거역은 할 수 없고, 저 거리지한테 딸로 주가주고 어떻게 해야
되겠노’ 싶어 가주고, 혼차 고민 고민을 한거라. 그래 하다가 할마이가
설거지하러 왔는데 그래,

“자네 아들 집에 있느냐?”

고,

“있다.”

고 하이,

“대관절 오라 카더라 해라.”

자기도 똥을 먹었는데, 그룩을 깨서 자숙도 인자 벌 받을란가 싶어가
주고,

“아이구, 임금님 용서해 달라고, 죽을 죄를 지었은께 벌을 저만 돌려”

고 그래싼께,

“그게 아이고, 나를 좀 보이돌라.”

캐. 그래,

“보라.”

캐.

“아무개 너, 우리 딸을 아무데 혼사할라꼬 해냈는데, 하느님 명령이 너
한테 딸을 주라 카니, 그래 니가 우리 딸을 벌어먹일 자신이 있나?”

이카거든. 그러칸께,

“나는 그런 자신이 없다”

카는 기라.

“내가 아무 것도 할 줄 모르고, 돈도 없어 아무것도 못하고, 구들목 신
세만 지고 앉었는 사람이 딸 먹이 살릴 용기가 없다.”

칸 기라.

“그럼, 니가 장개는 올 수가 있나?”

카더래요.

“날같은 사람이 그런 장개를 택할 수가 있느냐? 못 간다.”

카이께,

“그게 아이고, 너 묵고 살, 평생 묵고 살 한 살림 떠이내 주께.”

장개를 와 달라꼬 살살 빌거든. 처음에는 배짱을 내밀었지. 어마이 똥을
먹었으이 원수 갚는다고 그랬어. 그러이 피가 있어야 돼. 사람이 힘보다
피가 있어야 되는 기라. 그런께 그래 인제,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고. 그래 인제 장개를 갈라고 날받아 놓고, 장개를 갔는데, 그래 어마이
한테, 장개갈 때,

“어무이, 저 장개갈 때 가져가구로 생콩가루 빠싸가주고 꼬감매로(꽃
감처럼) 만들어가주고 한 땃 개 맨들어 돌려.”

카거든. 그 총각이 돌려 카이께, 어마이는 영문도 모르고,

“야 이놈아, 생콩가루를 뭐 할라고 장가가는데 가주갈 기고?”

카이께,

“내가 뭐를 하든지, 한 땃 개 맨들어 돌려.”

그란께, 맨들어가주고 빠닥하이 말라가 주머이에 Ying어가면 알 기 뭐야?
Ying어가 가주고, 그래 인제 첫날밤인데, 그 주물상 크게 채리가 오잖아.
채리가 오는데, 각시하고 술을 한 잔 따라 달라 캐가 묵고, 생콩 가루그놈
땃 개 묵어놓이 막 배가 끓어가주고, 막 끓이대던가 한창 이랬어. 그라이
막 똥을 바지 저고리에다가 썼네. 썩께네 신부한테,

“당신 이 똥을 묵어야지, 내가 썩 똥을 묵어야지 당신을 내가 델고
살지 내 똥 이거를 당신이 몬 묵으며는 난 당신하고 안 산다.”

고 그란께네, 각시가 묵을라 카이 묵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

“나는 죽어도 몬 묵겠다.”

칸께는,

“그럼 나하고 몬 산다.”

그러거든.

그란께네 임금님이, 자기 딸 첫날밤을 자고나서, 총각이,

“나는 간다고, 내가 썩는 똥을 당신 딸이 몬 묵겠다고 하는데 내가 어
떻게 사느냐?”

고 이란께, 임금님이 기도 안 차는 기라.

“남우 딸만 베리놓고 니 가나?”

이란께네, 그래,

“애 이놈, 내가 하느님이다. 이놈아 너는, 니 밥그릇 켜다고 울어무이

똥을 한 그릇 안 먹었나? 그러이께 나도 너 원수 갚기 위해서, 너 돈도 싫고, 너 딸도 싫고, 나는 니 원수 갚을라꼬 그러는데, 내가 쏘는 똥을 너그 딸이 몬 묵어이께네 내가 너그 딸 델고 살 수가 없다.”
그래 그 카며 원수를 갚더라 카대.⁷⁶⁾

76) 해운대구, 『해운대구지』, 대원인쇄문화사, 1994, 462-464쪽과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159-162쪽에 수록.

2. 박경수의 현장조사 설화(2010년)

1) 남구 설화

[남구 설화 1]

가난한 강태공의 출세와 복 없는 부인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7. 6(화)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6동 남구보건소 옆 팔각정

제보자 : 김봉란(여, 1929년생)

청 중 : 12명

조사자 : 박경수(@), 정혜란(@1), 황영태(@2)

[구연상황]

조사자가 좌중에게 알고 있는 이야기를 두 편 하면서, 이야기 값으로 누가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며 이야기를 유도했다. 그러자 제보자가 나서서 다음 이야기를 구술했다. 매미 설화와 매우 비슷한 이야기인데, 매미 설화와 달리 선비가 아닌 강태공이 주인공인 점이 크게 다르다.

[줄거리]

옛날 강태공이 부인을 얻어 살았다. 집이 가난하여 부인이 매일 진주 의암뜰에 가서 강피를 훔었다. 강태공은 낚시대 삼천 개를 강물에 띄워야 벼슬을 할 수 있었다. 강태공이 부인을 시험하기 위해 조화를 부려 소나기가 오게 했다. 소나기가 와서 늘어놓은 강피가 모두 떠내려가고, 남편은 고기도 못 잡은 낚시대만 던지고 있었다. 부인이 이를 참지 못하고 도망을 갔다. 그 후 강태공은 낚시대 삼천 개를 띄워 경상감사가 되어 내려왔다. 진주 의암뜰을 지나가는데 옛 부인이 여전히 강피를 훔고 있었다. 옛 부인이 강태공을 보고 말죽을 끓여주는 일을 하더라도 같이 살고 싶다고 했다. 강태공은 엽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다고 하며 거절했다.

[본문]

옛날에 강태공이, 저 저 마느래를 하나 얻었는데, 강태공이, 강태공이 낚시로, 강태공이 낚시로 삼천 개를 띄우야 저 그기 베슬을{벼슬을} 할 낀데,

이 안사람이 복이 작아가이고 맨날 진주맹기{진주 명기(名妓)} 의앰이 뜰에{의암(義菴)의 뜰에} 피만 훑고 있는 기라.

그기 뭐꼬 같으몬, 이 강태공이 인자 낚시로 그때 낚시로 한다꼬, 지임 매{+부인이} 지랄로 해가 부로{일부러} 지가 조화를 부리가이고, 우찌하도록 소내기가 대기 오도록 맨들고,

그래 인자 강태공 부인은 인자 진주맹기 의앰이 뜰에 가서 피로 훑터가 만날 널어가 그거로 때로{+끼니로} 살고 있는데,

이 강태공은 만날 낚시대로 삼천 개를 띄어야지, 저 강태공 낚시는 저 울이 후아져야{+바늘이 휘어져야} 고기로 낚을 낀데, 딱 뺏어가 부로 *0000*{+심한 바람소리로 녹음이 되지 않았다.}

그래 한 분은, 여자가 하도 그래싸서 인자, 아까 말대로 인자 그 우지 자체 비가 오구려 해가지고, 인자 비가 오닌께네, 이 여자가 하도 몬 살아서 인자 갔는 기라. 도망을 갔는 기라.

그래 하자 강태공이 때가 되가이고 인자, 그 낚시대 삼천 개를 띄우고 인자 정상감사를{경상감사를} 해가 말로 타고 가는데, 그래 진주맹기 의앰이뜰로 또 지내가니께레, 여자가 그 들어가 내나 피로 훑고 있는 기라. 그래 인자 강태공이 하는 말이,

“진주맹기 의앰이뜰에 장피{장피} 훑는 저 여자야. 무슨 팔자가 그리 좋아 니는 간 데마다 피로 훑노?”

그런께네. 그래 다부 돌아오가지고, 그 질에서 인자,

“내가 안자 따라가서 소로, 아 말죽을 끓이줘도 같이 살겠다.”

쿤께네, 그래 그 강태공이,

“물로 한 그릇 떠 오라.”

카는 기라. 그래 물로 한 그릇 떠 와서,

“땅에다 부우보라.”

카거든. 그래 땅에 부우면 땅에 다 흘러가뻔다 아이가.

“그럼 니가 이런데 지금 올 수가 있나꼬.”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남구 설화 2]

첫날밤 일을 말하게 한 눈깔사탕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7. 6(화)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6동 부연경로당

제 보 자 : 김석칠(남, 1945년생)

청 중 : 6명

조 사 자 : 박경수(@), 정혜란(@1), 황영태(@2)

[구연상황]

조사자가 할머니방에서 나와 할아버지방으로 자리를 옮긴 후 노인을 대상으로 설화를 채록하려고 했다. 이때 마침 경로당에 들린 제보자에게 이야기를 청하자, 음담패설도 되면 내가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다고 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했다.

[줄거리]

70년대 말쯤에 있었던 일이다. 나이가 어려서 장가를 간 친구가 있었다. 짓궂은 친구들이 비바람이 치는 신혼 첫날밤에 문구멍으로 부부가 하는 일을 훑쳐보았다. 신랑이,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라고 말하자, 신부가 “비가 와도 좋고, 바람이 불어도 좋고”라고 응답했다. 몇 년 세월이 흘러 품앗이를 하는 날이었다. 신혼부부의 아이가 엄마품을 떠나 말을 조금 할 때, 한 친구가 아이에게 눈깔사탕을 주며 시키는 대로 말을 하라고 했다. 아이가 눈깔사탕이 먹고 싶어 “비가 와도 좋고, 눈이 와도 좋고.”하는 말을 이리 저리 외고 다녔다. 신부가 이 말을 듣고 얼굴이 빨개졌다.

[본문]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친구들이 인자 열매 정도 아이고, [생각하며] 한 70년대 말인가 그래됐는데, 우리 백씨 쪽에 그 혼사가 인제, 글때 어지간

하면 중신이 되고 이래가 혼사가 됐는데.

그 당시에 어떤 게 나왔나 카마 눈깔사탕이라고, 왕사탕이라고 요새 눈깔사탕이 왕사탕인데, 참말로 거짓말 보태가지고 주먹떠{주먹 덩어리} 만한 기라. 아들 입에 고마 넣을라 카모 욱을 좀 보는 기라.

그런 그 왕사탕이 이래 나와가지고 할 적에 그거 하나 사먹을라 카마 참 힘듭니다. 그걸 인자 자아{장에} 가가지골랑 그걸 사가 와도, 그기 물건 좋으이끼네 사가 와도, 요새같이 비니루가 있으몬 비니루에 싸오고 이라는데.

글때는 신문지 조오에{종이에} 이래 싸가지고 고마 삼십리 길, 재{+산 고개} 한 두 넘어, 두어 재 넘어가가지고 집에 가몬 녹아뿌고 없는 기라. 예, 입에도 안 댔는데.

아, 글때는 아이스께끼로 지게 작대기 인제, 이래 자아서{장에서} 사가 지골랑 좋다고, 먹으몬 맛이 좋거든. 이거 아 주겠다고 사가지고, 지게 작대기 떡 걸어가주 드갈 때 보이 젓가락 하나뿐이라.

이래가지고 우리 백씨 쪽에 그 그런 식으로 장개를 가가지골랑 인제 이래 됐는 기라. 이래 인제 장개 가가지고 인자,

옛날에는 참 만이는 열 여덟에도 장개 가고, 스물 안쪽에 혼사가 이래 돼 가모, 요만한 집에는 스무살 할로{아래로} 인제 저 아들이 생산이 된다고.

생산이 되가, 늦게 장개 가는 거 이거, 스물 네 살이나 스물 한 대여섯 짜리 이런 것들은 전부 이거 하거든. 이거 품앗이라 카는 거 하거든요. 농촌에 품앗이를 한다 말입니다.

농촌 품앗이로 인자, 오늘 너거 모 숭가{심어} 주문, 내일 모 숭가 주고, 이런 모 숭가 주고 이래 하는데, 우리 그 백씨 친구들이 인제 장개 가가지고 인제 그, 신혼 이래 참말로 옛날 초가집에, 창 구이로{구멍으로} 요만한 거 내놓고 이래 하는 기라. 한 분씩 정탐을 했던 말이오.

글때는 막 수박도 따 먹고, 여 감자 서리도 하고, 오만 걸 다 그래 하고, 그러이 돼지도 자먹{잡아먹고}, 소는 안 잡아몐지만은, 마 소도, 소는 안 잡아몐지만은, 마 닭서리도 하고 돼지도 자묵고 이래 되거든.

이래 되가 인제 그, 첫눈은 안 오고 인제 그, 집을 인자 시월 가을을 다하고, 인제 영기를 엮어가지골랑 이 용마름 문턱을 해가지고, 보통 담에도 보몬 용마람을 틀어가지고 담을 이래 덮는다고.

그래가 마 새끼재이로 하몬 글타고{그렇다고} 해가, 실기로 해가지고 마 쫘쫘 묶아갖고 그래 영졌다{엮었다} 말이오. 양쪽 꺾테기 갖다 대가지꼴랑.

그 인자 십일월쫘 되가 바람이 인자 어땡할노 하만 사라락 불만 이 갈 대가 인자 이기 몸에 자기한테 스치가 소름끼치는 그런 큰 그 바람이 불어 제끼거든.

이라모 사르르르 글고 이라모, 그러이까 보통 이제 촌에 그 당시에만 해도 새마을사업 하고 이래가지고 전기는 안 들어오고, 이 저저 석유를, 석유를 인제 호롱불은 없어지고 남포불이 있었다고. 남포불.

남포불이라 카모, 우리 군대에서도 남포불이라고 이리 있지만은, 그 기름 자아먹는 기 남포불이구만. 남포불이라고 집집매중{집집마다} 하나씩 막 새마을사업이라고 하나씩 나오다시피 했는 기라.

그러면서 호롱불 쓰고 이랬는데, 근데 석유를 무담보로 오늘 한 말 받았을 걸으로 무조건 남포불 하나 써놔야 돼. 그 안에 초갓집 안에서야 호롱불 쓰든 말든.

그래 인자 그 몇 시까지 쓰라 이래 돼 있었던, 그래 강제적으로 쓰게 돼 있어. 그래야 동네가 밝고 그 모 그렇게.

그래 인제 그 사랑방에 인자, 그라모 큰방 있고, 사랑방 있고, 초갓집 이래 있을 거 걸으로 신혼이 인제 늙어잔단 말이라.

그래 인제 이 친구들을 인제 창문으로 대가 보니까, 바람이 사라락 부이 그래 인자 신랑인데,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카디, 밑에서 색시가,

“바람이 불어도 좋고 비가 와도 좋고.”

이기 이래 났는 기라. [웃음]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좋고.”

이래 났거든. 원래 그 좋으면 비가 와도 좋고 바람이 불어도 좋지 뭐.

이래 돼가 인자 해가 인자 착 넘어가가지고, 그 인자 모심기 할 때쫘 났는 기라. 모심기 하면 인제 서로 품앗이를 이해 하이께네, 먼저 장개 간 그 사람이, 아들이 인제 엄마품은 벗어나가지고, 엄마품은 벗어나가지고 인자,

“점심 이고 오마.”

참 이고 오고, 이고 오게 되몬, 저거 어마이 따라 오기 될, 이래 됐는
기라. 그래 참을 이래 먹고 이라도 인자, 아를한테 어예 이 짓곳은 그 친
구가 그걸 눈깔사탕을 이만한 걸 구해가지고,

“이 눈깔사탕 주이께네 시키는 대로 해라.”

눈깔사탕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이께 이래,

“바람이 불어도 좋고, 비가 와도 좋고,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바람 불어도 좋고, 비 와도 좋고.”

그래 임마는 이 눈깔사탕 하나 얻어먹은 죄로, 자꾸 참하는 데서 이카
고 땡긴께네, ‘임마가 무슨 말이고? 무슨 말이고?’ 이기 이래 되는 기라.

그라이 이 색시가 메느리가 가마이 생각해보이, 자기 했는 짓이 있어
가이고 [웃음] 얼굴이고 뭐고 빨개지는 기라. 아들은,

“비가 와도 좋고, 눈이 와도 좋고.”

그기 개발할 적에, 한창 농촌 새마을운동하고, 자고 나몬 새똥보자 니도
나도 어서 일어나자, 그 저저저저 새마을운동할 당시에, 인자 거기 먹는
것도 신식이 따라가지고 눈깔사탕이 이런 기 튀어나오고 동동구루미도
나오고 이래 됐거든.

그래 그 동, 요새는 왕사탕, 왕사탕, 왕사탕이지. 왕사탕. 왕사탕 이런 거,
클때는 그랬다고. 요새는 그런 거 없어. 그런 사탕이 없다. 그런 거 한 개
넣으몬 석달 열흘 먹거든.

거기 우리 동네 그 빌호라{일화라}. ‘비가 와도 좋고, 바람 불어도 좋고’
이카는 거, 좋으이카네 어짜노. 이기 다 그기 근간에 개발 때 생긴 그 일
화라. 그럴 듯 하잖아요.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
(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남구 설화 3]

무엇이든 도와준 아치섬 도깨비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25(월)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1동 새마을경로당

제 보 자 : 왕차옥(여, 1923년생)

청 중 : 4명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1), 정혜란(@2), 오소현(@3)

[구연상황]

조사자가 이제 노래 말고 이야기도 하나 해달라고 하면서 도깨비 이야기 들은 것이 없느냐고 물어보자, 제보자가 간단하게 다음 이야기를 했다.

[줄거리]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가 아치섬에 살았다. 그 섬에서 도깨비가 나와서 해달라고 하는 것을 모두 해주었다. 도깨비 방망이로 밥 나오라고 하면 밥 나오고 쌀 나오라 하면 쌀이 나오게 했다.

[본문]

그 할배가 들어가이고 아치섬에 살았다 하는데, 그래가 그때는 아무도 없고, 또깨비가 밭에 나와가이고, 해줄라 카모 밭에 나와가 밭도 쪼사주고{+매주고}, 아 뭐다 일로 해주고 같이 하고 그랬다 하대.

또깨비가 나와가 그래 했다.

@2 조사자 : 아, 도깨비가 일을 해줬네.

어. [명령하듯이] 밥 나오라 하몬 밥 나오고, 쌀 나오라 카몬 쌀 나오고, 그래 하더라 하대 옛날에. 그랬다 하더라.

@1 조사자 : 또깨비가 뭐 달라 카모.

또깨비가 나와가 응. 밭도 쪼사주고, 밭도 갈아주고, 그래 마 무을{먹을} 게 없이몬 밥 나오라 카모 밥 나오고, 옷 나오라 카모 옷 나오고 옛날에 그랬더라 카대.

@2 조사자 : 도깨비 방망이로?

응, 또깨비 방마이로 그라모. 또깨비와 나와 그래.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남구 설화 4]

신이 나고 혼이 나는 신혼여행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25(월)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1동 영시노인정

제 보 자 : 이월순(여, 1930년생)

청 중 : 10명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1), 정혜란(@2), 오소현(@3)

[구연상황]

조사자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하자, 제보자가 우스개 이야기도 되느냐고 물어보았다. 조사자가 그런 이야기가 좋다고 말하자, 그럼 이야기를 하나 해 보겠다고 한 후에 다음 이야기를 했다.

[줄거리]

딸이 결혼을 하여 신혼여행을 갔다. 신혼여행 첫날밤에 딸이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가 놀래서 왜 왔느냐고 묻자, 신랑이 무엇을 꺼내서 손에 쥐게 했는데, 그것이 무서워서 왔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한 명은 신이 나고 한 명은 혼이 난다 해서 신혼여행이라고 한다.

[본문]

딸로 집에 키와가지고 신혼여행을 보내논께, 이놈의 딸이가 밤에 왔는 기라.

엄마이가 기가 차서,

“아이구, 야야 와 왔노?”

칸께,

“엄마 말도 하지 마라. 그 사람이 뭐로 꺼내가 손에 지와주는데 어찌 크는지, 시방 한방 돼가 있을 끼다.” [일동 웃음]

그래서 하나는 신이 나고, 하나는 혼이 나는 기 신혼여행이라.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 (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남구 설화 5]

코 풀 때 질식사망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25(월)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1동 영시노인정

제 보 자 : 이월순(여, 1930년생)

청 중 : 10명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1), 정혜란(@2), 오소현(@3)

[구연상황]

제보자가 앞의 우스개 이야기를 구술하고 나니 조사자와 청중 모두 웃으며 재미있어 했다. 이에 신이 났는지 제보자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해주겠다고 하며 다음 이야기를 했다.

[줄거리]

옛날에 과부가 해가 질 무렵 시장을 가는데 박상장수를 만났다. 박상장수가 약간 바보같이 보였으나 코가 커서 쓸만 했다. 일을 조금 도와주고는 젊은 박상장수를 데리고 집에 왔다. 집에서 몸을 씻기고 밥을 해주어도 밤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화가 난 과부가 박상장수의 코에 대고 자신의 성기를 문질렀다. 그런데 박상장수가 질식사하여 죽고 말았다. 사망사유는 ‘코 풀 때 질식사망’이다.

[본문]

옛날에 과부가 해가 슬슬 다 저가는데, 시장 간다고 슬슬 간께네, 박상쟁이가 박상을 푹푹 태아썬거든. 그래 보이카네, 아가 마 꺼주리해도{바보같아도} 코가 크다란 기 썰만한{쓸만한} 기라. 그래서 대강 이래 거들아가이고, 과부가 마 흘치가이고 저녁밥에 저그집으로 데꼬 왔는 기라.

덕고{데리고} 와가 아무리 씻거가 해먹이도 이놈의 자식 밤에 꿈작도 안 하는 기라. 밍아서{미워서} 과부가 마 옷을 벗고 마 그놈 마 코에다가 썰리 문뻐는 기라. 코에다 문때고나이 마 죽어뻐어, 숨을 못 쉰{쉬어}

죽었는 기라.

@1 조사자 : 박상 장수가?

아, 아. 죽어뵈어. 그래서 인자 초상을 칠라 카이께네, 인자 출장소나
어데 동에 가서 어째 죽었다, 가서 떡 사망신고 내라 카이께네,

“우째 죽었습니까?”

칸께,

“예, 마 코 풀 때 죽, 질식사망.”

그래가. [일동 웃음]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
(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남구 설화 6]

방귀쟁이 딸의 호각소리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25(월)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1동 영시노인정

제 보 자 : 이월순(여, 1939년생)

청 중 : 10명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1), 정혜란(@2), 오소현(@3)

[구연상황]

조사자가 이 제보자에게 이야기를 잘 한다며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해달
라고 요구하자 이 제보자가 그럼 하나 더 해주겠다며 이 이야기를 했다.

[줄거리]

어느 집에 방귀쟁이 딸이 있었다. 딸을 시집을 보내면서 밤을 깎아 궁
둥이에 끼워 보냈다. 그런데 그 딸은 하필 교통순경과 결혼을 했다. 남편
이 출장을 간 사이에 밤을 빼고 방귀를 시원하게 끼고 있었다. 그런데
출장을 갔던 남편이 일이 빨리 끝나서 집에 들어왔다. 급한 김에 남편의

호각을 엉덩이에 끼웠다. 신랑이 밤에 자는데, 신부가 방귀를 끼니 호각 소리가 났다. 신랑이 잠결에 손을 저으며 교통정리를 하는 시늉을 했다.

[본문]

인자 전에 인자 딸로 키아가, 딸이 방구를 끼서 시집 올라카이 방구로 못, 방구쟁이가 돼가이고, 요새는 밤이 사시사철 나매, 옛날에 밤이 가을에 뻥에 없단 말이야.

그래 인자 시집을 보낼라 카이케네, 시집을 보낼라 카이, 인자 밤이 인자 낮으로 밤을 인자 살살 깎아가이고 인자, 궁디다 똥구역에다 살 끼아가, 이래 인자 시집을 보내는데, 그래 인자 시집을 갔는데, 해필 교통순경한테 시집을 갔어. 그래 시집을 가서 사는데 신랑이 출장을 가뿌고 없었어.

떡 자는데, ‘에이 씨바’ 밤도 빼나놓고 방구로 통통 끼고 자이케네, 아 신랑이 마 출장 갔다 뭐시 일이 잘 풀리 돌아왔어.

그러니까 이기 보니까, 신랑이 늙어가 잠질에 엉겁결에 신랑 호각을 빼가 똥구녕에 끼가 이래가 인자 자이까네, 방구로 통 끼이게 호각이 호르르륵, 통 끼니까 호르르륵 이란께 이놈의 신랑은 교통정리한다고 손을 가 [웃으며] 이래 짓고.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남구 설화 7]

조치원의 유래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25(월)

조사장소 : 부산시 남구 용호1동 영시노인정

제 보 자 : 이월순(여, 1930년생)

청 중 : 10명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1), 정혜란(@2), 오소현(@3)

[구연상황]

제보자는 계속 우스개 이야기를 했다. 앞의 방구쟁이 딸 이야기를 한 다음, 변강쇠와 옥녀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느냐고 조사자에게 묻고는 다음 이야기를 했다.

[줄거리]

변강쇠와 옥녀가 만나 사흘밤낮을 그질을 했다. 사흘이 지나고 변강쇠가 성기를 꺼내자 성기가 부풀어 올라 있었다. 그것을 꺼내 철길에 넣어 말리고 있었다. 기차 운전수가 멀리서 오면서 그것을 보고, ‘쫓치워- 쫓치워-’라고 말했다. 그곳이 조치원이 됐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청중들이 박장대소를 했다.

[본문]

변강쇠하고 옥녀하고는 책에 봐도 너거는 한 쌍이제. 와, 책에 봐도 나온다.

변강쇠하고 인자 옥녀하고 탁 둘이 만내가이고 얼마나 좋은지 사흘 밤 사흘 낮으로 붙어가 떨어지도 안하고 마, 얼마나 담가 있었던지, 사흘 밤 삼일만에 슬슬 꺼내어 자지가 마 빨어가{부풀어서} 마 이마한{이만한} 기라. [웃음]

그래가 인자 슬슬 빼가이고 인자 그 여름에 오뉴월에 물물라꼬{말리려고} 철도길에다가 넣어놓고 넣어놓는 기라. 그래노이 기차가 저 오면서 보이 쫓을 내놔거든. 그래서 [일도 웃음] 기차 운전수가,

“쫓치워- 쫓치워-”

그래 조치원이 됐쑤어.

@1 조사자 : 아- 아.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 (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남구 설화 8]

부인이 준 담치 가지고 과거 보러간 사람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25(월)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1동 영시노인정

제 보 자 : 이월순(여, 1930년생)

청 중 : 10명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1), 정혜란(@2), 오소현(@3)

[구연상황]

제보자가 이야기를 하나 더 해주겠다고 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했다.

[줄거리]

옛날에 한 양반이 부인과의 그것에 마음을 잡지 못하고 과거를 보지 못하고 망설였다. 부인이 이를 알고, 담치를 한 마리 구해 자기 것을 뺏 것이니 가지고 가서 과거를 잘 보라고 했다. 과거를 보러 가다 문경새재에 들렀는데, 그것이 보고 싶어 부인이 준 것을 꺼내어 보고 있는데, 개가 그것을 뺏어 먹고 말았다. 과거도 못 보고 집으로 돌아오니, 부인이 자신의 것을 보고 과거를 보고 왔느냐고 절을 하고 있었다.

[본문]

저 서울 과거 보러 갈땐데, 서울 과거를{과거를} 볼라 한께, 저거 마누라가 그 저거 밑에 그거 때민에 다시 마음을 못 잡고 못 가는 기라. 못 가서 옛날에 양반은 과거를 해야 묵고 살지, 그람 못 먹고 사는 기라. 그래서 여자가 어디 가 담치를 한 마리 딱 띠가 싸다 주민서,

“옛소, 이거 내 거를 뺏인카네{빼었으니} 단디 가이고 가서 과거를 해가 오라.”

이래노이, 옛날에 문경새재를 안 도리몬{들르면} 못 가거든. 문경새재 가서 그기 어찌 보고짚아서{보고싶어서} 드다본께, 아 개가 달랑 주우 묵어뺏는 거라.

이래서 이기 마 과거도 못 보고 마 맥이 풀어 저거 집에 돌아왔는 기라.

돌아오이 해가 꾸꾸름정한데 각시가 부뚜막에다, 옛날에 중간에 안 내리나, 엇이 놔놓고 불로 때놓고 수제비 뜯는다고 이래 쌓이, 보이 벌거이{발깁게} 해가 있는 기라, 불 밑에 보이카네.

“와이고 그 철합, 아이구 문경새재로 돌아왔습니까? 아이구 서울 과계로 갔다 오십니까?”

[일동 웃음] 그거로 디다보고 절로 하더란다.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 (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남구 설화 9]

동냥 귀는 어두워도 좇 귀는 밝은 부인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25(월)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1동 영시노인정

제 보 자 : 이월순(여, 1930년생)

청 중 : 10명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1), 정혜란(@2), 오소현(@3)

[구연상황]

이 제보자가 이제 중 이야기를 해주겠다며 바로 이 이야기를 했다.

[줄거리]

옛날에 중이 동냥을 하러 왔다. 그 집 마님이 방구를 낀다고 스님이 온 줄 몰랐다. 마님은 스님이 동냥을 좀 달라고 했지만 잘 듣지 못하고 거절했다. 스님이 마당에 있는 황소를 보고 좇이 크다고 말하자, 스님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타박을 했다. 그러자 스님은 “동냥 귀는 어두워도 좇 귀는 밝다”고 한 마디 했다.

[본문]

또 인자 중이 떡 동냥을 얻으러 왔는 기라. 가йка네, 그놈 마님이 마 방구를 떨떨떨 낀다고 스님 오는 줄을 몰랐어. 그래,

“아이구 이놈의 중아.”

스님 아 저,
“마님 동냥 왔습니더.”
카이께,
“이놈의 중이 언제 왔노.”
카이,
“마님 보지 볼 올릴 적 왔습니다{왔습시다}.”
그래 놓고,
“마님 동냥 좀 주이소.”
칸께,
“동냥 없다.”
카거든. 그래가 나오카네, 마당에 옛날에는 큰 소 그런 기 자랑이라, 소
로 매 났는데,
“아따 그놈의 황소 거 참 좇 참 크다.”
이러칸께,
“저놈의 저 중이 뭐라 카노.”
이래카이,
“아따 동냥 귀는 어둡아도 좇귀는 앵가이 밝네.”
이래더란다고. [웃음]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
(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남구 설화 10]

길이만 좀 더 길게 해주소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25(월)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1동 영시노인정

제 보 자 : 이월순(여, 1930년생)

청 중 : 10명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1), 정혜란(@2), 오소현(@3)

[구연상황]

제보자가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고는 다음 이야기를 했다.

[즐거리]

어떤 사람이 강원도에 관광을 가서 오즘이 마려웠다. 오즘을 누는데 마침 땅벌 집에 누었다. 땅벌이 와서 그 사람의 성기를 쏘았다. 성기가 부어올라 집으로 오니, 부인이 땅벌 집을 찾아가 “몸뚱이는 그만 하면 됐고, 길이만 좀 더 길게 해 달라”고 빌었다.

[본문]

강원도 산이 그냥 있을 적에, 옛날에 어느 놈이 관광을 가가고, 쫘 날만치 짓곳은 놈이 있던 모양이라.

오즘이 누륵운데{마려운데}, 땡뻘{땅벌} 굴에다 대놓고 오즘을 철철철 썬케, 땡뻘이 나아가{나와서} 좇을 탁 썩뻘는 기라. 그러이 얼마나 알리 켜노. 알리가 한개는 열고 마 아척에 눕어있으이카 마누라가 와가,

“와 그라노, 와 그라노?”

칸께, 자꾸 이불밑에 이래 손을 갈치매 여 디다 보라{들여다 보라} 칸다. 디다 보이 자지가 부아가{부어서} 이래가 있거든. 그래 각시가 인자 오곡 잡곡밥을 해가 이고 인자 그 땡뻘 굴에 갓는 기라.

“굴 사자님네요, 땡뻘 혼신임네요. 몸뚱이는 그만하면 됐고, 길이만 쪼금 더 질구로 해주소.” [일동 웃음]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 (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2) 수영구 설화

[수영구 설화 1]

도깨비와 씨름한 영감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21(목)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4동 광안4동노인정

제 보 자 : 이창우(남, 1931년생)

청 중 : 1명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1), 정혜란(@2), 정다혜(@3)

[구연상황]

조사자가 여러 옛날이야기를 간추려 물어보면서 제보자에게 아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구하자 제보자가 이 이야기를 했다.

[줄거리]

옛날 한 영감이 오일장을 가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골짜기를 넘는 중에 갑자기 도깨비가 나타나서 싸움을 하게 되었다. 영감이 술을 마셔 정신은 없었지만 기골이 장대하고 용감하여 결국 도깨비에게 이겼다. 도깨비를 나무에 매어놓고 이틀 후 다시 가보니 도깨비가 아닌 빗자루가 묶여 있었다.

[본문]

영감님이 술을 묵고, 시장 갔다가 오일장인데, 오다가 보몬, 아직 농촌에 살았는데, 요만한 산골재를 넘어서 자기 집으로 오는데, 자기 정신이 흔들리서 그렇던 모양이제.

토깨비가 나타났어. 그게 인자 토깨비인지 그것도 모르지.

우얀(어떤) 사람이 귀신매로{귀신처럼} 이래 나타나가지고, 이 영감이 정신이, 그래도 기골이 장대해가지고 용감했던 모양이라. 같이 토깨비하

고 씨름을 하고 싸움을 했는 기라.

싸움을 했는데, 그래가 인자 옛날에는 한복을 입으마, 한복에 바지를 입으로 허리끈을 있거든. 허리끈 이놈을 가지고 마 이겼어{이겼어}, 영감이. 이겨가 토깨비를 마 낭개에다가{나무에다가} 쉿쉿 자맷다{잡아매었다} 카는 기라.

그래 자매놓고 왔는데, 영감이 용감해가 이겼는데, 2일날 인자 그 산에 나무하러 떡 가니까 토깨비가 아이고 모, 빗자리, 빗자리가 퐁퐁 매이가 있더라.

그러이 눈에 인자, 이기 보이, 옛날에 그 토깨비가 아이고 2일날 가니까 빗자리로 퐁퐁 나무에 자맷더라.

그런 이야기도 우리 들은 이야기가 있어. 우리는 직접 본 거는 아이고.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 (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수영구 설화 2]

고려장하려다 되돌아온 부자(父子)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21(목)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4동 광안4동노인정

제 보 자 : 이창우(남, 1931년생)

청 중 : 1명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1), 정혜란(@2), 정다혜(@3)

[구연상황]

조사자가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가 없느냐고 물어보자, 제보자가 그럼 이야기를 하나 더 해주겠다고 하며 이 이야기를 했다.

[줄거리]

옛날에는 나이가 70이 되면 고려장을 시켰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할아버지를 지게에 싣고 냄비와 쌀, 연장을 들고 산으로 갔다. 산에 가서 굴을 파서 할아버지를 내려놓고, 연장을 다시 챙겨 내려오려고 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연장을 그냥 두고 가자고 하니,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가 칠십이 되면 고래장을 또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했다.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아무리 법으로 고래장을 해야 하지만 안 되겠다는 생각에 할아버지를 도로 모시고 내려오게 했다.

[본문]

옛날에 그 저 이런 이야기도 있어. 인간칠십고래해(人間七十古來稀)라,⁷⁷⁾ 인간칠십고래해라.

칠십이 되면은 자기 부모를 고래장을 인자 시키는 기라, 그때는 법으로써. 칠십이 넘으면은 고래장을 시키는데, 인자 아무리 효도자식이라도 칠십이 되면은 자기 아버지를 지게에다, 바지개{+‘발채’의 방언}에다 짊어지고, 산에다 굴로 파가지고, 굴로 파가 거가지{거기까지} 짊어지고 가서, 자기 아버지 짊어지고 단지하고 뭐 장단지하고 냄비 쪼 하고 쌀 쪼 하고 요것만 짊어잡숯고{끓여 잡수시고} 아버지 그 자리에서 죽어라 카는 그기라. 그래가 인자 부자간에 인자 짊어지고, 아들은 본인은,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바지개다가 짊어지고, 인자 아들은 인자 깽이{깽이}, 삼 이래 며 연구, 연장을 짊어지고, 이래 둘이 갔는 기라.

산에 가서 인자 땅을 파가, 굴로 파가지고, 비 안 새도록 굴로 파가지고, “아버지 요 기시라.”

카민서는, 그래 인자 짊어지고 자기 아버지를 거 모시놓고, 그래 인자 쌀 하고 냄비하고 장단지하고 니라놓고{내려놓고},

“요 끼리잡숯고, 요 있으라.”

카민서, 그래가 인자 저거 아버지가 돌아온, 돌아온다 아이가.

돌아오는데 아들이 하는 말이, 저거 아버지가 인자 돌아 그냥 오이끼네, 오면서 그 인자 아들이 지게하고 바지개하고 짊어지고 가이,

“야야 그거 내비리뿌라.”

77) 인간칠십고래희(人間七十古來稀)와 고래장(高麗葬)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그러나 ‘고래희’와 ‘고래장’이 발음이 비슷한 데다 과거에 칠십까지 생존하는 것이 매우 드물었다는 관념이 결합되어 고래장 설화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와전된 것이다.

이래 됐는 기라. 그래 아들이 저거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아버지요. 이거 바지개하고 연장하고 짚어지고 가야, 이거로 도로 가
{가지고} 가야, 뒤에 또 아버지 칠십이 되몬, 아버지 이 지게에다가 담아
실어, 짚어지고 와야지요.”

인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거 아버지가 감동을 해서, ‘아- 나도 이
래 되겠구나. 아- 아 그러모,’ 참 자기 한 생각에,

“우리 아버지 아무리 범으로써 고래장이지만은 이래가 안 되겠다. 할
아버지 도로 짚어지고 가자.”

고래장은 안 시키고 도로 짚어지고 왔더라 카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1 조사자 : 감동적이네요.

아, 그럼. 안 글겠어{그러겠어}.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
(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수영구 설화 3]

자식 죽여 부모 봉양하려다 부자된 효자 광씨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21(목)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4동 광안4동노인정

제 보 자 : 이창우(남, 1931년생)

청 중 : 1명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1), 정혜란(@2), 정다혜(@3)

[구연상황]

제보자가 이야기를 하나 더 해주겠다고 한 후에 다음 이야기를 했다.
중국에 전해지는 광거의 효행담인 광거매자(郭巨埋子) 이야기인데, 제보
자는 현풍에 사는 광거매자의 효행담으로 이야기했다.

[줄거리]

옛날에 현풍에 곽거매자가 노모, 부인, 그리고 세 살 먹은 아이와 함께 매우 가난하게 살았다. 항상 먹을 것이 부족하였는데, 어느 날 어린 자식이 노모의 밥을 뺏어 먹는 것을 보게 되었다. 곽씨는 아이 때문에 어머니가 배를 굶게 해서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부인에게 아이는 다시 낳으면 되니깐 아이를 생매장하자고 이야기했다. 부인도 그 말에 동의하여 밤에 산에 가서 아이 묻을 곳을 찾다. 그런데 땅 속에서 큰 가마솥이 있었다. 가마솥의 뚜껑을 열어보니 금은보화가 가득 들어 있었다. 곽씨 부부는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와서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살았다.

[본문]

옛날에 그 저 그 효행록에 보몬, 현풍에, 현풍 가면 곽씨가 마이 살거든. 소리 곽씨에. 그 인자 곽거매자(郭巨埋子)라 카는 사람이 효행록에 보면 그 이름이 있어.⁷⁸⁾

곽거매자라 카는 사람이 애 인자 참 있었는데, 자기 노모가 계시고 또 지 아들이 인자 세 살 묵은 아가 있고 이런데, 그때는 너무나 초근목피(草根木皮)하고 몬 살았는 기라.

못 살아가 때꺼리(+끼니)는 없고, 이래가지고 큰 밥을 쪄매 짓고 인자 반찬을 이래 하면은 이놈의 손자가 만날 할매 밥을 뺏아묵는 기라.

뺏아묵는 기 아이고, 지 밥 다 묵고 끽끽거리싸이 할매는 배가 고파도 자기 묵, 털 먹고 손자를 남가주는 기라. 그것도 때마중 남가주거든.

손자는 저거 할매 밥 남가주는 그걸 바래가지고 때마중 할매 밥상에 가서 앉았는 기라. 할매 밥 남가주도록, 그 배가 고폰 시절이 되노이.

그래 그걸 한 분 두 분 보고, 아들이 보고 ‘하 이래가 내 저놈’, 자기 자식 이름을 대매, ‘저놈 때문에 어무이 배 골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 처한테 켜는 기라.

“이 사람아, 영 땀 기 아이고 우리가 자식은 또 놓으만 자식이니까, 우리 저 아 저놈을 어디 갖다가 우리 생매장, 묻어뿌자. 묻어뿌고 자식은 또 놓으몬 안 되나. 부모는 다시 얻을 수 없으이끼네.”

78) 곽거매자(郭巨埋子)는 중국 후한 때의 사람인 곽거(郭巨)가 자식을 땅에 묻었다는 뜻이다. 이 이야기는 명심보감 효행 편에 손순매아(孫順埋兒) 이야기와 함께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헐 거야. 하니까, 그 인자 자기 처가 하는 말이, 그거를 반응 안 하고,

“그래요. 우리는 자식은 또 놓으만 자식이고, 어무이 배 끓는 기 너무 한, 안시럽다{안스럽다} 이기라. 아이구 내가 진작 당신한테 그 말 할라 했디, 당신이 어떻게 생각할란가 몰라서 묻 냈는데, 우리 아 저놈을, 아무거시 저놈을 마 온{오늘} 지역에{저녁에} 우리 가에 물어뿌모, 저놈이 없이모 어무이 배가 안 고평 거 아이요.”

그말이제. 만날 때마중 밥을, 할매밥을 반틈 깎아무이께네, 그러이 그 기 효자의 심리라.

“아, 그래요.”

두 부부가 합의가 됐어. 합의가 되가 지역을 묵고, 저거 아를 바지개 췌어지고, 남자는 췌어지고 응, 이래 연장하고 가가지고 인자 곡괭이하고 {곡괭이하고} 이래가 뒤 산에 가서 땅을 팠는 기라.

땅을, ‘이미 하는 거, 불쌍하기 할매를 위해서 죽어가는 내 새끼지만 깊이 물어주자’ 이런 마음으로 말이지. 그 인자 깊이 파니까, 각 파니까 곡괭이로 찍으니까, 밑에 뿔이 머 찍으니까 돌매로 췌소리가 나는 기라. 췌소리가 나서 그거 인자 자꾸 파니 이상하다 싶어가, 또 큰 솔뚜껑이라. 응, 가마솔 뚜껑이 떡 있는 기라. 그래 그 뚜껑 그놈 딱 들시니까{드니까} 거게 아주 금은보화가 들었더라.

금은보화데, 그 인자 그 보화에 거 금괴에 보몬, ‘이 물건은 인부도 탈 이요 친부도 탈이라. 아무 나라에서도 뺏어가지 묻 하고, 남도 묻 가가가고, 꼭거매자의 그 사람의 보배’라고 써 있더라.

그 효심이 지극하니까, 그래가 그 보화를 가지고 자기 자식도 안 묻고 췌어지고 와서 잘 살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 (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수영구 설화 4]

친정아버지 챙기다 손해 본 며느리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21(목)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1동 뉴삼익비치아파트노인정

제 보 자 : 장복이(여, 1927년생)

청 중 : 6인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1), 정혜란(@2), 정다혜(@3)

[구연상황]

다른 제보자가 이야기를 시작하려다가 이야기를 정확히 모르겠다며 이 제보자에게 이야기를 해보라고 권했다. 그러자 제보자가 다음 이야기를 했다.

[줄거리]

친정아버지가 못 살아서 딸이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다. 딸이 닭을 삶아서 친정아버지와 시아버지에게 드렸는데, 친정아버지에게 더 많은 양을 드렸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상을 살짝 돌려 그릇을 바꿔 더 많은 양의 그릇을 차지했다. 그렇게 먹고나서 시아버지가 친정아버지에게 잘 먹었냐고 물어보니 친정아버지가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딸이 친정아버지를 챙기려다 오히려 손해를 본 것이다.

[본문]

친정아버지가 못 살아서 딸네 집을 갔는 거라.

딸네 집을 갔는데, 딸이 닭을 한 마리 삶아가이고 친정아부지하고 시아부지하고 무우라고 갖다드렸는데, 상에 채리가지고 갖다드렸는데, 친정아부지는 마이 담고 시아부지는 작게 담았는 기라.

그런데 시아부지가 가만 보이 자기 앞에 기 작거든. 옛날에 겸상이라고 있다 두 분서 요래 묵는 거.

@1 조사자: 예, 마주보고.

요 상이 있거든. 마주보고 앉아 묵는데, 그래 살짝 바랐는{바꾸었는} 기라.

살짝 바까가 많은 거를 자기 앞에 갖다놓고, 작은 거를 친정아부지 앞에 갖다뒀거든.

그래 친정아부지가 또 자심은{잡수시면} 가만히 있으면 될 긴데, 나오면서,
“응 어데 저거 해가지고.”
그래 시아부지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잘 묵었다. 사돈 잘 묵았느냐?”
이라거든. 이라이카네,
“잘 묵기는 뭐를 잘 묵아. 개 콧구녕을 잘 묵었나. 배고파 죽겠다.”
카고 그래가 나가더란다.
그래이 그거를 메느리가 잘 못 했는 기라. 똑같이 해가 쫓으면 될 긴데,
친정아부지 생각할라 카다가 다부 손해 봤는 거라.
그런 일도 옛날에는 있었다 한다. 그게 얼마나 친정 이야기가 못 살아
서 그랬겠노.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
(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수영구 설화 5]

배 고파 과식한 남동생의 노래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21(목)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 1동 뉴삼익비치아파트노인정

제 보 자 : 장복이(여, 1927년생)

청 중 : 6인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1), 정혜란(@2), 정다혜(@3)

[구연상황]

조사자와 청중이 대화를 하는 도중에 제보자가 갑자기 다음 이야기를
시작했다. 먼저 한 이야기로부터 생각난 이야기인 듯하다.

[줄거리]

옛날에 못 사는 동생이 잘 사는 누나 집에 갔다. 동생은 너무 배가 고파

과 많이 먹었다. 배가 너무 불러 너삼대로 배를 감고 노래를 부르면서
고개를 넘었다.

[본문]

누나 집에 또 왔는데, 너무 너무 못 살아 가가, 누나는 잘 살아서 너무
마이 묵았는 기라.

그래가 옛날에는 너삼대라(+‘너삼’은 한약명으로 고삼, 너삼대는 고삼
의 줄기. 고삼 뿌리는 약재로 쓰이며 매우 맛이 쓰다.) 카는 기 있다.

그걸 가이고 감고, 막 배가 마 너무 불러가지고 문전에서 문등에 올라
가는데, 너무 배가 부르이 그거를 감아가 올라가는데 답답하거든. 그래,

[노래로 읊조리면서]

듣는터라 듣는터라 누구밥이 듣는터라

찢기더라 찢기더라 너삼대가 찢기더라

그런 노래로 하고 산을 넘어갔단다. 그런 일도 다 있었단다. 옛날에
너무 몬 살아가지고.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
(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수영구 설화 6]

호랑이를 속여 호식을 면한 아이들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21(목)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1동 뉴삼익비치아파트노인정

제 보 자 : 구경희(여, 1930년생)

청 중 : 6인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1), 정혜란(@2), 정다혜(@3)

[구연상황]

다른 제보자가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제보자가 갑자기 다음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보자는 이야기의 끝부분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지 급하게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본래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인데, 아이들이 줄을 타고 올라가 해와 달이 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호랑이가 우물에 빠져죽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줄거리]

옛날에 목을 짜는 할머니가 목을 팔러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다. 호랑이는 목을 한 덩어리씩 뺏어먹고 나중에는 할머니와 할머니 옷까지 먹었다. 호랑이는 할머니로 변장을 해서 할머니의 집으로 찾아갔다. 할머니 집에는 아이들이 둘 있었다. 호랑이는 아이들에게 할머니라 했지만, 호랑이에게 속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뒷문으로 도망을 갔다. 우물가 큰 나무 위로 도망을 친 아이들은 호랑이가 다가와 올라가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하자 부엌에서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오면 된다고 했다. 호랑이는 나무에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오다 떨어져 우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본문]

그게 호랑이던가 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목을 팔러 가가 한 도가리{덩어리} 한 도가리다 비주고 목디가{목 덩어리가} 없으이께네, 인제 또 옷벗어 돌려 캐서, 옷을 한 가지 두 가지 다 벗어주고,

그래 저 저그 집에 가가, 인자 할마이, 할매로. 그 목장시 할매로 변장을 해가, 집에 아들 둘이를 놔두고 왔는데, 그 저,

“뭐시야 문 열으라.”

고 카이커네, 말 음성을 들어보이 엄마 말소리가 아이더라 카네.

그래 안에서 애들이 그래 그러면 엄마,

“내가 엄마 맞다.”

이러카는데,

“엄마 저 손 한번보자.”

이러카이께네, 그래 문구녕 창호지, 그 문에 손을 푹 여이꺼네{넣으니까},

그 이래 손이 사람손이 아니고 호랑이로 되가이꺼네, 그 털이 뵈이 꺼네 {보이니까} 이래가,

“울 엄마 손은 안 이렇는데 왜 이렇노?”

이러카이꺼네,

“너검마{너의 엄마} 손 맞다.”

이러캐가지고 인자, 머 어찌 해가지고 문을 열어, 아 뒷문을 그 애들이 나가가 우에 저게 우물가 뒤에 큰, 큰 저 거기 나무가 있었는데, 그리 인자 타고 그 아들이 피해가 올라갔어.

올라가가지고 있으이꺼네, 그서러{그곳에서} 인자 눈물을 뚜둑뚜둑 흘리이꺼네,

“너그 저 왜 할머니, 저 너그가 와 눈물을 흘리노?”

이러카이, 니도 여기 올라올라 카거든, 인자 그때선 애들이 거기, 저거 엄마가 아이고 변장한 호랑인 줄 알았어.

“그래 뭐 우리 부엌게 가면, 저 참지름 병이가 있는데 그 기름을 참지름을 요래 나무에 발라가지고 올라오면은 저게 우리로 우리 따라 올라온다.”

이러겠는데, 그 저 기지로, 애들이 인자 그래 오몬 못 올라오고 미끄러져서 우물에 빠질 기라고 그리 시켰더만은,

그래 그 참지름을 타고 올라오다가 미끄러바서러{미끄러워서} 그 호랑이가 빠져 죽었다고 하는 그런 기 조금 생각는데.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수영구 설화 7]

배가 고파 죽어 풀국새가 된 사연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21(목)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1동 뉴삼익비치아파트노인정

제 보 자 : 구경희(여, 1930년생)

청 중 : 6인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1), 정혜란(@2), 정다혜(@3)

[구연상황]

다른 제보자가 구연을 하는 동안 이 제보자가 조사자에게 빼꾸기 이야기를 하나 알고 있다고 말을 했다. 그래서 앞선 제보자가 구연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 이야기를 해주었다.

[줄거리]

옛날에 동서지간에 살았다. 아랫동서가 배가 너무 고파서 무엇을 얻어먹을 수 있을까 싶어 형님 집으로 갔다. 형님이 밀가루 풀을 쑤고 있었다. 아랫동서가 그거라도 먹으면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겠다 싶었지만 형님은 그것을 버리고 주지 않았다. 아랫동서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 한이 맺혀 죽은 아랫동서는 풀국 풀국 하고 우는 빼꾸기가 되었다.

[본문]

빼꾸기가 그게 왜 그러냐 하몬,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러 인자, 동시 이래 형님이 있고, 인자 저 동시간에 이래 있는데, 그 밑에 동시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동시집에, 우 형님 집에, 저게 뭇이 무울{먹을} 게 있는가 싶어 가이께네.

그 형님이 풀로 해가지고, 옛날에는 밀가루 풀 이런 거 해가지고, 어그래 해가지고, 이래 짜가지고 노른 짜가지고 나른 그 풀국 안 있나?

그게 그기라도 남으몬 ‘저거 날로 좀 줄란가.’ 싶어서 이래 해도 마 안주고 팍 부어 내빼리더란다.

그기라도 마셨시몬 허기진 배가 낫을란다 이랬디, 그 부우 내빼래서 그래 그 배가고파 죽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 한이 되가지고 그리 풀국 풀국, 이래 없어가.

@1 조사자: 아, 풀국 풀국.

어 그래 운을 하고 그래 운다 카대, 그 전설로. 풀국 풀국 배가고파 죽겠네.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수영구 설화 8]

도깨비와 씨름한 장사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21(목)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 1동 뉴삼익비치아파트노인정

제 보 자 : 조호순(여, 1926년생)

청 중 : 6인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1), 정혜란(@2), 정다혜(@3)

[구연상황]

조사자가 옛날에 도깨비 이야기가 많지 않았느냐고 하며 도깨비 이야기를 유도했다. 조사자가 도깨비에 관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보자가 도깨비 이야기가 생각났다고 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했다.

[줄거리]

옛날에 장사로 불리는 어떤 사람이 소를 팔고 돌아오는 길에 도깨비와 마주쳤다. 장사가 길을 비키라고 했는데, 도깨비들이 앞에서 놀렸다. 화가 난 장사가 도깨비와 씨름을 해서 겨루었다. 장사가 이겨서 자기 옷고름을 풀어 도깨비를 나무에 묶어 두었다. 다음날 아침에 찾아가니 나무에 빗자루가 묶여 있었다.

[본문]

산 고개를 넘어서러 밤 늦가, 옛날에는 소 팔러도 땡기고 뭐, 소를 팔고 떡 오이께네, 허실이가 막 앞에서 팔딱팔딱 도깨비놀이 해쌍거든.

이 사람이 별명이 장산데,

“네, 이놈! 나가거라.”

카이카네, 카- 앞서서러 막 막 이래가 놀리거든.

“이놈! 붙어보까, 붙어보자.”

카이, 산에 가서 막 둘이서 붙어가지고, 마 이 할아버지가 막 이놈을 잡

고, 막 자기 옷구름{옷고름}, 두루막 옷구름 툇 떠가지고 마 나무다 싱싱
감아놓기는,

“넌 아침에 보자.”

카고, 와가지고 가는 기라. 빗자루 몽뎡이가 있더라.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
(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수영구 설화 9]

용왕의 아들을 살려 부자된 어사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21(목)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1동 우성보라아파트노인정

제 보 자 : 최천숙(여, 1931년생)

청 중 : 6명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1), 정혜란(@2), 정다혜(@3)

[구연상황]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알고 있으면 해달라고 부탁하
자, 제보자가 다음 이야기를 했다.

[줄거리]

옛날 용왕이 아들 삼형제를 두었다. 세 아들은 욕지로 놀러가고 싶어
했다. 세 아들의 간청에 용왕은 세 아들을 잉어로 변신시켜 주었다. 잉어
로 변한 세 아들은 낚시꾼의 낚시에 걸려 모두 잡혔다. 어느 날 어사의
꿈에 용왕이 선물하여 잉어로 변한 자신의 아들 셋을 살도록 해주면 은
공을 갚겠다고 말했다. 어사가 잠을 깨고 일어나 잉어를 낚은 어부를 찾
아 달라는 대로 돈을 주고 잉어들을 샀다. 어사는 세 마리의 잉어를 바
다로 보냈다. 어사는 용왕이 은공으로 준 보물로 큰 부자가 되었다.

[본문]

용왕님이 참 아들로 삼형제를 뒀는데, 그래 이 아들이 자꾸 육지에 놀러 갈라 카는 기라. 육지에, 용왕님 아들이. 놀러 갈라 카이꺼네, 그러면 놀러를 안 보내줄 수도 없고, 그 사람 아버지가 내나 용왕님이, 안 보내줄 수도 없고, 인자 변동을 시기야 보내줄 수 있는 기라, 육지에.

그래 인자 임금님, 저저 뭐꼬 용왕님 아들이지만은, 인자 그 바까야{바꾸어야} 안 내보내겠나. 이러놓이{이러니} 인자 고기를 맨들었는 기라. 잉어로. 잉어를 삼형제를 서이 다 맨들었어.

그래가 인자 떡 참 나오다가 이놈 또 고기로 변해놓은께노, 이놈의 낚싯밥, 거 뭐 안 먹고 짚은가배, 고 나가가주고.

그래가 떡 나가노이, 기경하러{구경하러} 온다고 나와노께네, 참 고기로 인자 낚고 있거든.

고기로 낚고 있으이께네, 마 그 한 놈이 물렀다.

@1 조사자 : 한 놈이.

응. 서인데, 하나 물리노이, 아 또 두째 또 물렀는 기라. 그래가 또 시째도 보냈는 기라, 삼형지다 보이께.

그래 물리가 떡 인제 원칸{원체}, 원칸 크노이께네 크단한 다라이다{다라에다} 이래 꼬추는 거 있거든.

있으이꺼네, 그라고 있으이꺼네, 저 옛날에 어사가 낮잠을 자는데, 낮잠을 자이께, 그래 저 물밑에 용왕님이라 카매 와가지고, 꿈은 선몽을 대거든.

“내 자석 서이가 다 뿔들렀으이카네{불들렀으니} 인지 저 어떡{+빨리} 안 설문{살리면} 죽을 모양이니 내가 좀 빼내돌라.”

하거든. 빼내주면 자기가 은공할라고.

그라 꿈도 이상하다 싶어, 낮에 뭐 이런 꿈을 꾸겠나 싶어서 참말로 똑 나왔는 기라. 나와가지고 고기 낚시 낚고 하는데, 그래 또 있이이 가 보이께네, 창을 막 이리 뭐 이막금 시 마리로 다라이다 담가놔는 기라. 그래가,

“이 잉어가 누긴공{누구 것인고}? 내가 사자.”

이카니까네, 그 모두,

“선생이 팔아가 살란가 말란가.”

어사다 보이까 안 알겠나.
“그거 사가 뭐할란교?”
“뭘 하긴 내가 필요있다. 내가 사자,”
카이,
“그래 얼마 둘라 카노.”
카이카네,
“몰라예. 뭘 주고짚은 대로, 너거 부르는 대로 불러라. 부르는 대로 주꾸마.”
그래 인자 떡 샀다. 사가지고, 참 안다 모른다, 그놈의 다라이 척 가져
가가지고 큰 바다 속 여쭙는{넣어주었는} 기라. 안 살렸나 인자. 그래 떡
살리.
“그래 참 친구로 만내가 내 자식을 살린데 내가 우예 그저 있겠노. 내
그 은공을 하꾸마.” 카더란다. 그래 참 그 사람 살아가 나갔어.
그라고 그 어사가 사람들 고기 못 낚구로 한단다. 무슨 변동이 되가
또 뭐시 되가 나온지 모르이까{모르니까}.
그래 저거 삼형제 다 살렸어. 살리고 이 집에는 베탉부자{벼락부자}
됐지 뭐. 거서 용왕님이 자꾸 도와줬으이까. 그래거러 부자 됐단다. [제
보자 웃음]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
(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수영구 설화 10]

스님에게 풍수, 의학, 약학을 배워 부자 된 고아 삼형제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21(목)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1동 우정보라아파트노인정

제 보 자 : 최천숙(여, 1931년생)

청 중 : 6명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1), 정혜란(@2), 정다혜(@3)

[구연상황]

제보자가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다며 하며 다음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를 하던 중에 청중이 이야기가 너무 길다고 하며 그만 하라고 재촉하자 제보자는 한두 번 괜찮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했으나, 계속된 청중의 종용에 이야기를 급하게 마무리를 했다.

[줄거리]

옛날 큰길가 오두막집에 부모와 삼형제가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죽고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도 죽으면서 삼형제는 부모를 잃었다. 큰 아들이 남의 집 머슴을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서 동생 둘까지 같이 먹여주지는 못하여 결국 그 집을 나왔다. 삼형제가 밥을 빌어먹으며 살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절에 들어갔다. 절에서 일을 도와주며 스님에게 글을 배웠다. 큰아들은 산서, 즉 풍수 보는 법을 배우고, 작은아들은 의술을 배우고, 막내아들은 약학을 배웠다. 삼형제는 의논하여 절을 떠나 1년 후에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헤어졌다. 큰아들은 초상난 집을 찾아갔는데, 그 집에서 줄초상을 맞자 풍수를 잘 보아 죽었던 사람도 살려낸다. 그리고 풍수를 잘 본다는 소문이 퍼져 큰 부자가 된다. 작은아들은 어느 부자 집에 가서 딸의 병을 고쳐주고 딸과 혼인했다. 막내아들도 약을 잘 써서 부자가 되었다. 1년 후, 삼형제가 모두 부자가 되어 만나서 한 동네에 집을 짓고 같이 살았다. 그리고 부모님 묘를 찾아갔는데, 명산에 묻혀 있는 것을 알았다.

[본문]

큰 질가{길가} 집인데 오두막집이라. 오두막집인데, 아들을 서이를 낳는 기라. 서이를 낳는데, 살림이 너무너무 없어가지고, 이래 사는데, 한날은 저거 아부지가 죽었뵈는 기라.

아들 삼형제, 부모 다섯 식구 사는데, 죽어버려가지고 우엘{어쩔} 도리도 없고, 인자 이래 있으이, 저거 아부지 삼웃날 저거 엄마가 또 죽었뵈는 기라. 얼마나 가득하겠노{+기가막히겠는가} 그제.

그래 죽었부고 난께네, 그 집에 아들이 열네 살 묵은 기 제일 큰 기라.

@1 조사자 : 큰아들이?

그래. 어, 옛날에는 없이 사는 사람은, 와 열 몇 살 되면은 넘우{남의} 점섬걸은 거, 소 꼴도 비주고, 그런 거 하거든.

그라이까 인자 하나 큰아는{큰아이는} 머슴을 사는데, 그래 적엄마 적아부지 죽었부고 난께, 동상{동생} 둘로 그 주인집에서 누가 백여주나? 그래 못 백여주니까, 먹여줄 수도 없고 그래가 할 수 없이 야가 나왔는 기라.

나와가 밥을 얻어 묵었어. 옛날 밥 바가치 들고, 얻어 무우께네, 하도 개가 옛날에 똥개를 많이 먹었거든, 농촌에는. 이기 막 개가 광광 짓고 물라고 달라들고 하йка 겁도 나잖아.

그래가 이리 얻어먹고 한 사람씩 얻어가지고는 언덕 밑에 가가지고, 그래 따신 데 앉아가 먹고 이랬는데.

그래 큰아가 가마이{가만히} 생각하이 그 아들이 잘 될라 카이, 아가 그리 머리가 그리 돌렸어{돌아갔어}. 그래 우리 동상아, 논동제{논둑에} 앉아 밥을 무매,

“저 우리가 이래가 안 되겠다. 쪼매는 집 저게 팔아가지고 아무 데 거절이 있으니까, 절에 가서 우리 나무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나무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설거지도 하고 그래 마 스님 저 혼차 계시는데, 가몬 애기하모 안 되겠나,”

이카이께네, 동생들이 글카거든.

“형아 얘기해 보라몬{보면}, 그 딴 데 가는 것보다 아무 안 낫겠나. 개한테 물릴 듯이 가거나카마{가는 것보다} 안 낫겠나,”

카거든. 그래 떡 갔다 안자. 가가 그래,

“스님예, 우리 여기 일도 해주고 밥도 해 먹고 설거지도 하고 다 할 모양이니께, 우리 여 줌 사임이다.”

카이,

“좋다.”

카거든.

“그라고 스님어는 우리한테 글만 배아주면 됩니더. 글은 배아주겠지요?”

카이,

“글은 배아주꾸마.”

카거든. 그래 인자 거서 참 그걸 했다. 글로, 지녔에는 글 배우고 낮으로

는 청소하고 밥 해먹고 전부 이랬거든.

이래고, 이놈으는 그루그루 크이께네, 이념 산에 나무를 하러 가이, 나무 하루 석 짐이라. 이놈 재도 켜도 안 재이겠나 그제.

그래 그렇도록 재놓고 때고, 그 스님은 나무도 안 하고, 때는데, 그래 참 잘 입는데, 그래 큰 사람은 뒤로 배았나 하모, 산서를 배았거든. 산서 카면 너거 아나? 모르제.

@1 조사자 : 산서요?

#제보자 : 산서. 산서는 인자 산에 공부를 배운다 말이, 산에서.

@2 조사자 : 산서?

#제보자 : 산서. 모티곶은{묘터같은} 거 보는 사람.

@1 조사자 : 아- 풍수 보는 거. 예.

#제보자 : 음음. 그래 그거로 배우고, 한 사람은 의술로 배우고, 하난 사람은 의학을 배우고, 서이가 한, 거서 다 배았거든. 다 배아가 그럭저럭 생각하이 나이가 스물 남 살, 열아홉 이래 되거든. 이래 되이께네,

“이래가지고 이래가 안 되겠다. 우리가 예 시님{스님} 은대만{은혜만} 입을 수도 없고, 그래 인자 우리가 우리로 인자 앞을, 장래로 살아야 안 되겠나. 가자.”

“그래 행임{형님} 마음대로 해라.”

그래 나뭇짐을 띄 해가 내려와보이께네, 이러다 쉬는 거라 디가{대가(+힘들어서)}. 쉬이께네, 산서 배운 사람이 산에 두리두리 살피이꺼네, 마저거는 묵미고, 저거는 맹산이고, 저거는 뿔이고, 환하이 다 눈에 드러나거든.

첫날은 띄 보이께네 그카고 잔주고{전주고(+‘겨누고’의 방언. 어림잡아 생각하고.)} 왔다. 또 이튿날 또 나무를 해가 내리오민서, 또 가마 앓아쉬매 이래 보이께네 또 그렇거든.

그래놓으께네, ‘이럴 게 아이라 동상한테 얘기 해보고 우리가 나가야되겠다.’ 그래 그 앓아가 얘기를 했는 기라.

“동상아, 사실 이렇고 이런데 그래 저 너거는 다 어떠노?”

이카이카네,

“그래 형아, 형은 너 그렇지만은 우리도.”

의술 배운 사람도, 의술은 침주는 거 이거를 의술이라 하거든, 의학 배

안{배운} 사람은 나무 이파리 따가지고 약 맨드는 거. 우리가 몰라 그렇지 전부 산에 나무이파리 약이라. 음. 그 사람, 그 사람도,

“아이고 저 형아 나는, 나도 그거 따가지고 무슨 이파리 무슨 이파리 따가 말라가 빠자 놓으며는, 고기 어떤 빙에{빙에} 쓰고 어떤 빙에 쓴다.”
이카고, 그래 인자 또 의술 배안 사람은, 카거든 또,

“형아, 나는 또 침을 누자 어느 맥에 치고, 어느 맥에 혈에 주충축 하모 된다.”

이카거든.

“그럼 다 되나? 너거 그래 나가모 할로 하겠나?”

카이,

“하겠다,”

카거든. 그래가 인자 하루 떡 나셨다. 그날 저녁,

“우리가 이렇게 있을 기 아이고, 저 시님인테 얘기해가지고 우리 앞길을 찾자.”

그래 앞길로 찾아 나갔는데, 저녁에 인자 와가 저녁을 먹고, 마캉{모두} 목욕을 하고 와가 스님 앞에 절을 떡 하거든.

“스님예, 인자 인제까징{이제까지} 스님 은혜를 입고 이리 잘 되, 커 나왔는데, 우리 우째야 되겠는공. 그래 시님을 떠나야 안 되겠습니까?”

이카거든. 그카이까,

“그래, 너 그칼{그렇게 할} 줄 알았다.”

이카더란다. 고기 아를 공부를 시키보이 너무너무 잘 했는 기라.

“그칼 줄 알았다. 그렇거들랑 너거 요령해서{요량대로} 알아가 해라.”

이카더란다. 그리고 저거가 간다 해서 스님을 반대하고 그렇지 않은 모양이라. 내중꺼징 모실 모양이꺼네.

“그래, 걱정하지 말고 사라.”

이카거든. 그래 인자 떡 참 갔다. 인자 삼거리 곁은 이런 집에 가가지고,
“요 삼거린데, 너는 요 질로 가고, 너는 요 질로 가고, 나는 요 질로 가고.”

@1 조사자 : 삼형제가?

삼형제가 삼 갈래 길로 가는 기라. 가가,

“오늘 날짜로 쳐 가지고 1년 만에 요서 만나자. 니가 맹했거나 흥했거나 고때 만나자.”

이랬거든. 그래, 만내자 카이까, 그래 참, 1년 동안 말이는 인자 산서를 떡 배웠거네, 그 질로, 그카로 인자 한 질로 떡 간다.

한 질로 가이, 어데 부자집에서 막 초상이 나가지고, 초상 나가지고 초상난데 가만히 치다보이,

“참 저 산 명산 잡기는 잘 잡았는데, 저거 아는, 살은{산} 짐승을 빼내야 되는데, 할은{혈은} 집구석 할은 되는데, 살은 짐승을 못 빼내면 집구석 할은 안 된다.”

이카거든.

“그래 동상아 봐라 나는 보니 그렇다, 그런데 저 일로 우애야 되겠노.”

“아 그라고, 가마이 거 마 있어보자.”

그래 떡 있으йка네, 부잣집이다 보이 뭐 얻어먹고 이래 있으йка네, 초상집에. 그래 만상주가 이래 봉거로{봉분을} 모오머는{모으며는} 저 달구노래하면은{달구 노래하면은} 상주들이 니러오거든. 니러오고 인자, 거 봉은독 하는{+봉분을 다져 만드는} 사람들, 일꾼들 다 도아놓고 그리 오거든.

그래 상주들이 떡 오디만은 만상주가 대문 탁 발 디디카네 또루루 구부러지고 죽어뿌거든. 또 두째 들어오이 또 그렇거든. 시째 들어오이 또 죽었봤다.

‘아, 이래가 안 되겠구나.’ 인자 그 사람 살렸는 기라. 풍수가. 그래가,

“이래가 안 되겠심더. 그런 참에 집안사람 다 있겠나. 저 논 작단해가지고 우리 일하는데, 일하는데 저 올라가보자.”

고 이카이께네 그러 카거든. 그래 인자 풍수가 올라갔다. 올라가이께네,

“마 이 미친놈들이 말이지. 다리 일만던디 이 풍수가 어떤 풍수가 저 잡은 줄 알고, 이래 이따구로 했나, 막 두드려패라.”

하거든. 수군포로{+수군포는 ‘삼’의 방언. 삼으로.} 마 찢리 죽일라 카거든.

“그런 기 아이라, 당신네들 보는 눈에 비이{보여} 줄 모양이니 잔주고 있으라.”

카거든.

“안 그라몬 이 집 망한다.”

이카거든. 그래 우야노 집에 집안사람도 그라라{그렇게 하라} 그라고, 내

이 사람들도 인자 살려줄라 카이께네 상주 다 일받았고{+일어나게 했고} 그래가 올라갔다.

올라가이께네, 그래가 참 그 풍수가 가가 측량을 딱 내루매{내리며},

“요서 뗏 치, 뗏 자 뗏 치나 파내루라{파서 내려라}.”

카거든. 파내리오면 산 짐승이 튀올거라 카는 기라. 그래 딱 파내리꺼네, 마 저게, 하얀 백야시 한 마리 툭 튀어나오더란다. 그거로 잡아내뿌리야 집이 붙는데, 안 잡아내고 먹이끼네 다 절단나뿌는 기라.

그래가 인자 그 사람들 다 봉내 다 파내고, 튀어나오고 이라이께네, 그란까네 저 사람들도 마 선생님 카매 빌거든.

“잘못했다고. 때리죽일라 켜는 거 잘못했다고.”

빌고 이라이카네, 그 질로 인자 그 집을 내려가이 마 아무데도 가지 마라 카거든. 행여 또 무슨 화가 날까 싶어가. 그 집에서 그걸 풍수가 빼 낸 줄 알고.

[청중 중 한명이 기다리는 손님이 있으니, 어서 조사를 끝내라고 말했다. 제보자가 잠시 쉬면서 금방 이야기가 끝난다고 말하고 다시 하던 이야기를 했다.]

그래 빌고 있는데, 그 초상난 집에서 어데 갈라 카이께네, 몬 가구로 하는 기라. 해나 무슨 성질 나까 싶어가.

#청중 : 간단하이 하고 끝내소.

#제보자 : 그래 간단하이 다 했다 카이 자꾸 그카노. 쫘 있어도 괴안타 {괜찮다} 카는데.

@1 조사자 : [웃으며]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가 인자 그 집에 마 묵고 잔다. 묵고 자고 있으이, 옛날에 돈 전부 엽전아인가배, 엽전을 이만한 오장치에다{오쟁이에다(+‘오쟁이’는 짚으로 만든 작은 주머니.)} 한 웅치{뭉치} 넣어가지고 가가라{가져 가라} 카매 주거든. 주고, 조랑말 한 마리하고 이래 주거든.

“나는 집도 절도 없는 사람 주객인데, 이거 가져가도 놔둘 데도 없고 하니 땅을 파고 단지 안에 묻어돌라.”

카거든. 그래 그 돈을 인자 땅 파고 묻어놓고, 그래놓고 인자 그기 되가지고 나갔는 기라. 풍수가 되가 나갔는 기라.

마 가만이 앉아도 여도 돈 주제, 저 돈 주제, 돈 자꾸 묻치는{모아지

는} 기라, 용한{용하게} 알아노이. 그래 부자 됐어.

그런데 삼형제가 다 한날한시에 다 됐겠는 기라.

한 사람은 우에 되나 하몬 의술을 배안 이 사람은 우에 되나, 한날 어 데 가가, 옛날에는 부잣집이라고 후자손님 카거든.

“행수님, 밥좀 주이소. 요구즘{요기즘} 하계,”

밥을 떡 채리주는데, 이놈의 영감할매가 앉아가지고 내 담배만 쫓고 {피우고} 앉아 눈물을 툭툭 흘리거든.

“참 이런 댁에 무슨, 무슨 그거 해가지고 이래 눈물을 흘리냐고? 제가 좀 배운 게 있는데, 해나 서로 연대나{+인연이나} 될란가, 그래 좀 잘차 주소.”

카거든. 그래 사실 얘기했다.

“우리 딸이 무남독녀 외동인데, 딸이 지금 3년째 앓고 있다.”

칸단다. 앓고 있고, 노라이 꼬쟁이처럼 말라가주 요래 있는데, 그래 인자 침 주는 그 사람이 가마 보이께네, 그래 글타{그렇다} 이러카이께네,

“그래요. 그 처자 진맥을 한번 해봅시다.”

카이, 옛날엔 처자 손목같은 거 몬 만치거든. 그래노이카네 몬 만치고.

#청중 : 이야기도 참 질다.

#제보자 : 질지. 유명한 것은 진 기라.

그래 몬 만치고,

“그렇거들랑 만지기가 어렵거들랑 그거로 실패로 가 갖다 돌려.”

카거든. 손으로 진맥 안 하고, 실로 감아 실패로 진맥을.

“뭘 또 이런 걸 가오노.”

진맥으로 해야 되이께네, 침에는 저기 아는가 모르는가 싶어가지고 철사를 딱 내쫓는 기라.

그래노이 딱 진맥을 하더이마는, 이 철이라 카거든. [조사자에게] 얼마나 용하노 그제.

그래가 이 참, 이 사람 뭐즘 알라고 인연이 될란가 싶어가, 그래 인자 사정 닿아가지고 철사를 풀어보고 실패로 실로 맺어. 실로 매가 진맥을 딱 하이께네, 맞다 카거든.

“맞는데, 이쯤은 걱정하지 마이소. 내가 낮아 드리지.”

카거든. 아이고 노란 약 하나, 새파란 약 하나, 빨간 약 하나 세 첩을 닮

여 맨들은 것 딱 주거든.

주고 요래 처먼{처음엔} 빨간약을 먹이고, 고거는 혈 돌리는 약이라.
고 다음 노란약은 인자 빠{빠} 여물게{단단하게} 하는 거, 고런 약이고,
시 번째는 인자 얼굴에 화색 나는 약, 그런 약이라.

그래 시 첩을 딱 먹이꺼네, 아침에 먹이고 낮에 먹이고, 저녁에 먹이니
까 마 지색이 돌아오더란다. 그래,

“요 시 첩을 이래 먹고나면은, ‘아이고, 내가 와 이렇게 엄마를 애를
먹있는고.’ 카매 일날 겁니다.”

이러카거든. 그래가 그 지집애를 일반쳤어. 그래가 인자 성공 둘이 안 했
나. 그래 막내 그것도 그러고 헨 기라. 다 할라 카모 좀 질다, 그래.

@2 조사자1 : 팬찮아요.

#제보자 : 막내 그거는 또 참 아파가지고 일도 못하고 이랬는데.

#청중 : 널 아척꺼정 할 기가.

#제보자 : 뭐. 안자 다 했어.

@1 조사자 : 막내 얘기만 해주시면 되요. 마지막 막내 얘기는 해줘야
조 할머니. 막내 얘기까지 합시다.

#제보자 : 안 바뿌다 카는데, 안 바뿌다고.

@1 조사자 : 예. 막내 얘기.

그래 막내 애는, 내가 뭐라 카다 잊어뻘노.

@1 조사자 : 막내는 약초.

그래 그것도 내 아파가지고 이래 있었는데, 참 이래 보이께네. 참 내나
약국을 해가지고 참 먹있어. 하루 시 첩을 먹이고 나이께네,

“하이고 내가 와 이래 눕엇던고, 엄마, 내 밥 하꾸마.”

그라이 일어나더란다.

하나는 저런 사람 내 딸 주모 안 죽을 긴데 하매 주고, 또 풍수는 풍
수대로 부자 뻘뻘고, 하루에 서이가 다 부자 뻘뻘어.

@1 조사자 : 하루밤만에.

하루밤만에, 하루만에. 서이가 다 잘 걸렸어.

그래 참 부자가 뻘뻘고, 인자 동네를 한 동네를 사가지고 삼형제가 집
을 한테{함께} 지이가지고 그래 같이 사더래. 같이 살민서,

“우리가 인자 이만치 사니까네 인자 엄마 모를{묘를} 한번 찾아봐야

안 되겠다.”

묘로 떡, 그래가 모를 떡 찾으러 가가 저거도 나 어리 갈 때 고무산 밑에 아무데나 묻어두고 묻어놨거든, 죽은 사람을. 이래 놓으께네,

@1 조사자 : 묘를 찾으러 갔더니. 엄마 묘를 찾으러 갔더니.

#제보자 : 그래 모를 떡 찾으러 갔지만은 참 가본, 산수 배운 사람이 떡 보이께네 아주 대명산이더라, 아무데나 묻었는데.

그래 물명산이라. 물 치르한 공산 묻었는데, 물명산인데 아주 잘 됐더라. 그래가 마 아주 참 삼형제가 봉분 모르고 날 받고 해가, 그래 잘 해가 잘 살더라.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 (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수영구 설화 11]

구렁이를 죽여서 어렵게 된 집산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22(금)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1동 수미마을 수미경로회

제 보 자 : 임구례(여, 1930년생)

청 중 : 5명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1), 박지희(@2), 오소현(@3)
정다혜(@4), 최수정(@5)

[구연상황]

손짓을 하면서 구렁이 모양을 그려가며 이야기를 했다.

[줄거리]

매우 큰 구렁이가 방에 들어와서 잡아 죽였다. 그 후에 근처 구렁이들이 몰려와서 야단을 부렸다. 굶을 했더니 구렁이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본문]

구리가{구렁이가} 엄청시리 큰기라.

@1 조사자 : 우리 동네에서 그러니까?, 덕진골에서?

구리가{구렁이가} 난데없이 나와갖고, 이 그 마누래 혼치{혼자} 있는데. 여름인게 문을 이리 휘떡 열어 놓을 거다 아이가. 열어논게, 큰 구렁이가 방에 들어와갖고, 이리이리 스름스름 기대 있더라. 그 기대있는 건 놔둬야 될 것 아이가, 지 어매한테{자기 엄마에게} 가거로. 그거를 고마 때려잡았어. 잡아나 놓은게, 꺾이나 놓은게 말도 못하게 마 오는 기라.

작은 거, 큰 거, 마 모이갖고 오는 기라. 그래갖고 마 그 집이 난리가 났어. 그 될 기가 집안이 안 되지, 그래. 그래, 막 굿을 하고 마 그래 한 다쿠대. 참, 별 희안한. 그 꺾이가 될 기가 시사아{세상에}.

@1 조사자 : 그라몬 구렁이 죽이몬 안 되겠네. 집에 들어오몬.

마 놔둬야하지. 지 맴대로 가거로. 놔뒀으면 될 긴데, 고마 꺾이나는게 {죽여버렸으니까}. 마마, 큰 구렁이 엄청시리 큰 기라. 큰 기 와갖고 마, 소리를 함서 이래 오는데. 큰 거 작은거 마마 탁 물어오더라. 아이고 얼마나 송시할 기고{송사를 할 것인가}.

“그래, 이래 안되겠다.”

‘굿을 해야되겠다’ 싶어가, 그래 굿을 하고,

@1 조사 : 굿 하나까 뱀이 없어지던가요? 그래한게 좋은 데 가라고 그래 전설을 하고, 그랑게 괴안더라고{괜찮더라고}.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 (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수영구 설화 12]

두꺼비로 변신하여 부인을 구한 죽은 신랑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22(금)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1동 수미마을 수미경로회

제 보 자 : 윤정화(여, 1927년생)

청 중 : 5명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1), 박지희(@2), 오소현(@3),
정다혜(@4), 최수정(@5)

[구연상황]

손짓을 해가면서 천천히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구술을 실감나게 잘 해서 청중들도 귀를 기울여 이야기를 경청하였다.

[줄거리]

혼자 사는 과부가 늦은 저녁에 잠을 자려고 누우니, 갑자기 천정에서 지네가 내려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였다. 그때 갑자기 큰 두꺼비가 들어와서 지네하고 싸움이 벌어졌다. 다행히 두꺼비가 이겨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감사의 마음에 부인은 두꺼비를 방에다 모셨는데, 그날 밤 꿈에 죽은 신랑이 나타나 두꺼비가 바로 자신이었다며, 이제 걱정하지 말고 잘 살라고 얘기하고는 사라졌다.

[본문]

옛날에, 옛날에 아주 그거, 그 전설의 고향인데, 전설의 고향인데, 어떤 인자 과수댁이 살았는데, 혼자서.

@1 조사자 : 과수가?

응, 과수, 과수댁이 항상 소복을 입고 이래 혼자 사는데, 한 문은 집안에 이래 들어 갈라 카이 천장에서러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거든.

천장에서러, 인제 그 옛날에 집은 전부다 짚을 가지고 지은 집 아이가? 짚을 가지고 지은 집인데, 그 천장에서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서러, 소복 입은 과수댁이 가만히 생각해보이 좀 무서운 기가 있어서 가마히 앉아 있으이께네, 큰 지네가 나오거든. 지네가 거 인자 천장에서. 지네가 슬슬 기어 나오이,

“아이구 이, 내가 혼자 사는데 저 지네로 내가 죽일 수도 없고, 내가 저 지네한테 물려 죽이몬 내가 어짜노.”

싫어서 벌벌 떨고 인자 이래 있었는데, 이 지네가 스르륵 스르륵 나오더만은, 그래 한 바꾸{바퀴}, 방안을 한 바꾸 빙 도니까네, 두꺼비가, 두꺼비가, 또 방문에서 두꺼비가, 큰 두꺼비가 들어오더란다, 배결에서러{바깥에서}. 큰 두꺼비가 들어오더만은, 두꺼비하고 지네하고 붙었어 싸움을 붙었어.

싸움을 붙었는데, 지네는 막 인자 기어서 발이 많거든. 지네는 이래 발이

많으니 발로 가지고 인자 막 움직이서니. 두꺼비는 입으로 마, 그 입으로 연기를 팍팍 품는 거라. 입으로 짐을 팍팍 품으이께네, 고마 이 지네가 뒤비따가(뒤집었다가), 눕었다 하다가, 슬슬슬슬 하더만은 마 지네가 죽 더란다.

지네가 죽은께, 그 মানুষ라가, 아주머이가 얼마나 좋겠노. 하, 두꺼비가 나와서 지네를 쳤다. 그래 그 두꺼비로 상전 삼으몬 싶고, 저거 방에다가 인자 두꺼비로 모셨어, 지 살려준 은인이라고. 모시노니께, 하루 밤 자고 나이끼네, 꿈에 저거 신랑이 나타나가지고.

그 두꺼비가 신랑이라. 두꺼비가 신랑이라, 두꺼비가 되어서 왔는 거라, মানুষ라 지키러. 그래 인자 신랑인데,

“내가 죽을까 싶어서러 먼 데서 기오는{기어오는} 소리를 듣고 왔는데, 자기가, 인제 두꺼비가 왔는데. 두꺼비가 죽었으니까네, 마음 놓고 살아라.” 카면서 고마 사라지더란다.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 (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수영구 설화 13]

해골 모습의 죽은 남편 보고 그리움을 접은 부인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22(금)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1동 수미마을 수미경로회

제 보 자 : 윤정화(여, 1927년생)

청 중 : 5명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1), 박지희(@2), 오소현(@3),
정다혜(@4), 최수정(@5)

[구연상황]

천천히 이야기를 재미있게 구술해 주었다. 입담이 좋아서 청중들도 즐겁게 경청하였다.

[줄거리]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을 보고 싶어 점을 보러 갔다. 무당을 만나 시키는 대로 했더니, 정말 남편이 왔다. 그런데, 사람의 형상이 아닌 해골 모습으로 와서 제사 음식을 모두 먹었다. 그 모습을 본 부인은 너무 무서워서 남편을 만나보고 싶어 한 것을 후회했다.

[본문]

인자 어느 마을 어느 집에서러 남편이 세상을 베렸거든(버렸거든). 남편이, 둘이 살다가, 세상을 베리고 나이 마누라가 어쩍이{어찌나} 남편이 보고 싶어서, 하 꿈에라도 하문{한 번} 만나보고 싶어서, 이래가지고 인자 어디 가서러 점을 치니까는,

“배포쟁이{+질경아} 기름을 제삿날에 배포쟁이 기름을 탁 서놓고, 깨끗이 몸을 하고 소복을 입고 앉았으몬 남편이 올끼니 만내 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인자 그대로 했어. 남편 만내 볼끼라고, 정성껏 음식을 해가 마이{많이} 채려놓고. 이래가 인자, 그 시간이 되어서러 인자 배포쟁이 기름을 피워놓고 싹 소복을 입고 앉았이께네, 시간이 되이께네,

‘와라락 와라락, 부시럭 부시럭’ 소리가 나더란다. 그래가 소리가 방에 턱 들오는데, 이래 소리가 나서 보이께네, 해골 빠가, 사람이 아니고, 완전히 빠가 이래, ‘바스삭 바스삭 바스삭’ 걸어오더만은, 그래 제사상 앞에 앉아가지고, 언자 앉아가지고 제사 음식을 먹는데, 전부 다 제사 음식을 그 빠, 해골 손을 가지고 다 집어먹더래.

그래서 마누라가, 마 하, ‘내가 백지{+괜히} 보고 싶어 했다’ 싶어서, 정이 마 뚝 떨어지더란다. 무섭기도 하고 마 ‘다시는 내가 보고싶어 안하지’ 싶어가지고, 그래 마 제사 지내고 나서 그 음식을 다 부가지고{부어서} 여 개천에 갖다 버렸대.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 (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수영구 설화 14]

사주 책을 사서 부인을 살린 남편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22(금)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1동 수미마을 수미경로회

제 보 자 : 정봉점(여, 1923년생)

청 중 : 5명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1), 박지희(@2), 오소현(@3),
정다혜(@4), 최수정(@5)

[구연상황]

이야기를 섰듯 자신이 해주겠다고 하며 나서서 구술했다.

[줄거리]

가난한 부부가 살았다. 신랑이 돈을 벌어서 오다가 점 보는 사주 책을 샀다. 그 책에는 참을 인자(구슬에서는 화자)가 적혀 있었다. 그런데 집에 왔더니, 부인의 신 옆에 남자 신이 있었다. 누군지 죽이려고 하다가, 참을 인자를 생각하며 참았다. 알고 보니 남자 신은 이웃집 처녀의 신이어서, 그 책으로 인하여 각시가 살았다.

[본문]

옛날에 부부끼리 사는데, 신랭이{신랑이} 못 묵고 살아서, 벌이러 나갔어.

벌이러 나가서러 우째우째 하다가 인제 벌이갖고, 정월 초하룻날 설을 실라 카몬{쇠려고 하면}, 돈을 조금 가와 쌀이라도 팔아야 될 꺼 아이가.

그래가 인자 못 팔고, 인자 돈을 조깸{조금} 벌어갖고 가 오는데, 오다 보께네 책을 패놓고 말이지, 어떤 사람이 사주 본다고 있거든. 떡 이래 디다보고 있으께네,

“저저 이 책을 한 권 사가 가몬 묵고 살 일이 생긴다.”

이라거든. 돈 조금 벌은 거 갖고 책 그거를 고마 사뻬단 말이다.

쌀은 안 팔고, 가만 있어보라모, 그래서 책 그거로 샀단 말이다. 사가지고 무슨 ‘참을 화’자가{+참을 인(忍)자}라고 말해야 할 것을 이렇게 말했다.) 써 있는 기라. ‘참아라’ 카는 ‘참을 화’자가. 그래서 이 움서 보이까네 클 한 자 이기{이것이} 돈을 얼마로 주고 아까베{아까워} 죽겠거든.

쌀은 팔아야 가서 묵을 낀데, 각시는 돈 벌어 오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우짚 수가 없어서, 그래 인자 갖고 그놈의 책을 하나 들고 오께나{오니까}, 신이 나란히 두 켄레가 남자 하고 여자 신하고 있거든. 그래께네는 남자가 의심을 산다 아이가.

“씨바, 니 내도 없는데.”

‘어느 놈을 데꼬 자나?’ 싶어서, 그래서 인자 도치를{도끼를} 갖고 쏘사 꺾일 꺼라고, 구석에 헛간에 가서 도치를 갖고 쏘사뻘라고. 각시가.,

“아이고, 여보 언자 오요.”

돈 벌어 온다고 이런데, 여보고 저보고 마 마 쏘사 꺾일 꺼라고 이러이께네, 처녀가, 이웃집 처녀가 하나 쏘 나오거든.

“처녀는 웬 처이고 여게?”

“아. 저거 집에 손이 와서로 잘 데가 없어서, 그래서 내한테 와서로 자러왔다.”

쿠던다.

“그래 신은 남자 신은, 왜인 남자 신인고?”

이러니까네, 총왕조{+경황없이, 급하게} 움서러, 지그 아부지 신을 끌고 왔는 기라, 처녀가. 그러니까 남자 신이 있고, 저거 각시 신이 있으니까네 의심을 살 거 아이가. 의심을 샀는데,

“아, 이기 살렸구나.”

하모, 이기, ‘참을 화’자가 이기. 인자 참말로 인자, 그래 안했으몬, 쏘아 꺾었을 거 아이가, 지그 마누래로. 그거 때밀에 참을 화자 그거 때밀에 각시가 살아난 기라.

이웃집 처녀네, 남자라고, 남자 신은 또 나란히 각시 신하고 놔논께네, 의심을 안 사겠나 하모? 남자라꼬. 그래갖고 참 안 맞아 죽고 잘 살터란다 고마.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수영구 설화 15]

벋어리와 봉사 부부가 살아가는 방법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22(금)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2동 망미노인정

제 보 자 : 김복순(여, 1923년생)

청 중 : 5명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1), 박지희(@2), 최수정(@3),
정다혜(@4), 오소현(@5)

[구연상황]

조사자가 아무 이야기라도 좋으니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으면 한 편 해 달라고 부탁하자, 제보자가 병어리와 봉사 이야기를 해 주겠다고 하며 다음 이야기를 했다. 제보자는 여러 가지 시늉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으며,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자주 웃었다.

[줄거리]

옛날에 병어리와 봉사가 부부로 살았다. 병어리는 말을 할 줄 몰라서 항상 손으로 두드려서 말을 대신했다. 어느 날 동네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난 것을 보고 온 병어리 할멈이 봉사 영감에게 전하려고 등을 툭툭 쳤다. 그러자 영감이 “등 넘어서?”라고 말을 하자 맞다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병어리 할멈이 다시 영감의 불알을 만지자, 무엇을 하다가 불이 났는지 알았다. 이렇게 병어리와 봉사가 부부로 살아도 서로 해득을 잘 해야 잘 산다.

[본문]

버버리하고{병어리하고} 봉사하고 둘이가 살았거든. 둘이가 사는데, 버버리 이거는 말로 할 줄 모른다 아이가. 말로 할 줄 몰라. 손을 가, 항상 손을 가 그걸 하거든.

동네 가카네 불이 났거든. 불이 나이 영감한테 와가지고 이래 등더리를 두드린다고,

“등 너매?”

이러 카거든{이렇게 하거든}. 그 고구{고개} 끄떡끄떡 하거든. 그래,

“와?”

이래 카이카네, 손을 갖다 이라거든. 그래,

“불 냈더나?”

이라거든, 봉사가. 불 냈더나 카이까, 그래 또 고구 끄덕끄덕 하거든.

그래가 또 쪼개{조금} 있디마는 영감 불알을 이래 막 문치는{만지는} 기라.

[조사자 웃음] 인자 말로 문 하고, 부랄도 문치이까 보이,

“와? 와?”

이기 인자, 봉사 저기 인자 자꾸, 얘기는 봉사 저기 해득을 다 하는 기라. 저거는 말로 할지 모르니{모르니} 자꾸 이런데 문치고 이런데 문치고 이러케만 하거든. 그래,

“와? 와? 불알 와그라노?”

이라거든. 그러카네,

“그래 뭐 하다가 불 냈는가?” [일동 웃음]

영감이 또 이력{이렇게} 카거든. 그러카이까 [웃으며] 또 고개를 끄덕끄덕. [제보자 웃음]

“그래.”

그러케 하이, “아, 큰일났구나.”

영감이 또,

“아, 큰일났구나. 그래, 그래도 어짜노. 동네 사람들이 오고 다 꺼주겠지.” 영감이 또 이라거든. 그라이까 또 고개 끄덕끄덕. [제보자 웃음] 그래, 그래가 영감 저, 영감이 한단 말이, 봉사가 한단 말이,

“그래 또 가봐라.”

이러 카거든. 그러카이카네 이기 마 쫓아간다. 가디만 또 쪼개 있으이 또 탁탁탁탁 하고 오거든. 오니까,

“왜 불 다 켜더나?”

카이까, 또 고개 끄덕끄덕 하거든. [웃음]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 ‘하이 고’, 또 오디마는 궁디이를 또 툭툭툭툭, 영감 궁디이를 또 툭툭툭툭 두드리거든. 두드리,

“와? 내 궁디이는 와 두드리노? 와?”

이러카이, 그래 저 인자 영감이 해득을 다 해야 되는데, 해득 안 하몬 저 버버리 저거는 말로 할 줄 모르이카네, 모른다 아이가. 그래 두드리다 가

마히{가만히}, 영감이 가마히 이래 생각한다. 생각쿠이 ‘어째 이리 와 뚜드리는고?’ 싶어서 아라이,

“와? 와?”

자꾸, 영감이 자꾸 이라거든. 그라이카 또 [손으로 두드리는 시늉을 하며] 이라거든. [제보자 웃음] 이 영감이 다시 해득을 못 하겠는 기라. 궁디이를 뚜디리카이. 또 가마이 생각한다. 생각허서,

“와? 궁디이 요 뭐 불 났더나?”

이러카йка, 그러카이 또 고개를 찡찡 흔드는 거야. 그서 아이라고 [웃으며] 찡찡 흔들고 있어.

또 영감이, 저 봉사지. 또 인자 ‘어째서 궁둥이를 뚜드리노?’ 싶어가지고 생각한다 인자. ‘똥을 어쩔길래 궁디이를 뚜드리노?’ 싶어가주 가마이 이래 생각코 있으йка,

“그래 언놈이 궁디이 뚜드리더나?”

이러카이, 꼭 [일동 웃음] 그래, 그랐더라네. 그래 버버리한테는 자꾸 인자 봉사가 머리를 써야 되는 기라.

그레가지고 또 가, 고개 끄덕끄덕해서, ‘아아 그런 녀이{놈이} 있던 갑다.’ 싶어가지고 봉사가 지가, 봉사 지가 마 그런 녀이 있든가 저런 녀이 있든가 가서 말 한 모디{마디} 할 수가 있나, 갈 줄을 아나 몬 간다 아가. 그러카네 버버리 저거만 쫓아댕기는 기라 자꾸. 그래 인자 혈떡혈떡 하고 또 오더란다. 또 오디만은,

“그래, 인자 불도 다 끄고, 다 사람들도 다 헤어졌나?”

이러 카йка, 또 막 [가슴을 치는 시늉을 하며] 가슴을 또 뚜디리더라 카대.

“와? 와?”

또 와와 이러 카йка, 봉사 저거 눈도 어둡제, 뭐 어째 아노?. 그래 와 와 카йка네, 또 [답답한 듯이] 와그그그그 와그그그그 또 짹박 이래 찌더라 카는 기라, 버버리라 노이케네.

“참 기가 찬다. 참 기가 찬다.”

이러카이, 이러카거든 영감이. 그러카йка, 맞다 기가 찬다 카이 맞다쿠던다. [웃음]

@조사자 : 기가 찬다고.

#제보자 : 아아, 기가 찬다 카йка, 맞다고 또 툭툭 뚜디리더라 카는 기라.

그래, 이놈의 씨발 해득을 할 줄 알아야 뭐 그걸 하제. 그래 자꾸 인자 영감이 인자 머리를 쓰가지고 말로 해야 저기 인자 알아듣는 기라. 알아듣는 기라.

그래가지고 버버리하고 저 봉사하고 살아도 해득을 잘 해야 잘 산다 카는 기라. 그 애기라.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수영구 설화 16]

시어머니를 내쫓고 벌 받은 며느리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22(금)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2동 망미노인정

제 보 자 : 김호선(여, 1919년생)

청 중 : 5명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1), 박지희(@2), 최수정(@3),
정다혜(@4), 오소현(@5)

[구연상황]

조사자가 노인정에 모인 노인들에게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난 후 재미있는 야기를 해 달라고 부탁하자 제보자가 나서서 “내가 하나 해보겠다.”고 하며 다음 이야기를 했다. 남성 청중 한 분이 먼저 좋은 이야기를 하라고 했다. 차분하게 이야기를 했다.

[줄거리]

옛날에 할머니가 자식을 다 키워 며느리를 뵈었다.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자 시어머니는 손자 본다고 좋아서 출산 준비를 다 했다. 그런데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팔자가 나쁘다고 하며 자기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 시어머니는 그 말에 충격을 받고 이웃사람에게 그 이야기

를 했다. 그러자 실, 골무, 바늘을 짚어지고 팔러 다니라고 했다. 시어머니는 그 길로 집을 나섰다. 날이 어두워지자 어느 집에 가자 젊은 여자가 반가워하며 같이 살자고 했다. 마침 그 집 시아버지도 홀로 있어 둘이 인연을 맺고 아들까지 낳아 잘 살고 있었다. 한편, 시어머니를 내쫓은 며느리는 아이만 낳으면 아이가 죽게 되어, 어디 가서 물어보았다. 그러자 산 조상이 돌아왔었다는 말을 듣고, 아들이 옛장사를 하면서 어머니를 찾으러 돌아다녔다. 어느 골목에서 어머니를 만나 잘못을 뵈었으나 어머니가 너같은 자식을 두지 않았다고 하며 가버렸다. 친구의 도움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돌려 두 집안이 아들을 낳고 모두 잘 살았다.

[본문]

옛날에 저거 홀어머니가 혼자 메느리를 봐가 키우거든. 아이까 메느리를 봤거든. 메느릴 봤는데, 그 메느리가 마 애, 애를 낳는다고 자꾸 애 낳는다고, 아 아를 틀고 그래요.

배가 아프다 하고 그러니까, 이 저거 시어머니가 그거 저기 마 좋아서 아들 하나 키워 손자 본다고 좋아서 막 그거 물을 데피고 마 방으로 들락날락하고 이러니까네, 그 저거 메느리 하는 말이,

“어머이는 팔자가 나빠서 자기 방에 들오지도 못하락(못 하도록) 해요.”

#청중 : 손자를?

아를 트는데, 예, 안주{아직} 아 낳지도 안 하고, 손자를 트는데 시어머니가 물을 데피고 막 좋아서 이라노이까네, 그 메느리가 시어머니 팔자 더럽다고 홀어머니 댔다고 방에 들어오지도 못하락 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만 분해서 이웃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 얘기를 하니까,

“저 그냥, 옛날에 실 바늘 골무, 그런 걸 가지고 장사나 돌아다니라.” 해요. 장사나 돌아다니라고 해서 그 분이 그 말 듣고 고만 실을 받아갖고 나갔어요. 마 이 집은 내버리고 나가서,

#청중 : 그런 소리 듣고 가만히 있겠나?

예, 나가가지고 인자 밤이 어두워져서 어느 집으로 들어가니까 젊은 아줌마가 반가하면서{반가워하면서} 그 자기 집이 있으면서 명도{미영도} 이렇게 물레로, 명도 잴어주고 자기 집에 있자 하거든.

그래서 인자 그래 그러고로 있는데, 하루는 그 때, 그 사람 들어간 그

집 마누라가 옷을 하고 금반지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아랫방으로 내려가
라 하더래요. 아랫방으로. 그래 내려가니까, 아 그래 시아부니가 계셨어.
시아부니하고 그래가 재미나게 살아요. 그분이 가서 인자 또 거게 가서
아들도 두 개 낳고.

@1 조사자 : 홀어머니가 시아버지하고?

오 오. [웃으며] 그래 가, 그 메느리 있는 집에를 가서 인자 그 메느리가
시아부지한테 붙여줬어 거. 에에.

#청중 : 메느리가 중신을 했구만?

아 그래.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인자 사는데,

#청중 : 재미나게 산다.

야. 그래가 사는데, 이 먼저 메느리가 팔자 나쁘다고 그 방에 못 들오락
한 그 분이 애를 낳으몬 죽고, 애를 낳으몬 죽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저거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그 뭐 산 조상이 돌아왔었다고. 산 조상이 돌아왔아서 아를 못 키우
겠다.”

고 하니까, 그 실레이{실제로} 그말 듣고 엇판을 짚어지고 어머니를 찾
으러 막 나섰어. 막- 어머니를 찾아 나서니까,

#청중 : 자식을 못 키운.

예, 예. 자식 키울라고 머 그래 마 나가니까, 어느 꼴목에{골목에} 머
시마 둘 데리고 이래 나오더래요. 나오다이 엇을 사가, 사거든. 그래,

“어머니.”

그러니까,

“나는 니같은 아들 없다.”

아, 그리고 마 돌아서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우리 어무이가 나는 그렇
게 박대를 하니까 자기 친굴 보고,

“어디 어디 있으니까 가봐라.”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가서,

“어머니, 그렇게 아무거시가 아를 못 키우고, 산 조상이 돌아왔었다 하
니까 어무이가 좀, 마음을 좀 돌려갖고 그래 하라고.”

그러니까 인자 부모 마음으로써 그만 그 아들을 만났어요. 만내가지고
인자 먼저 그 영감 얻어 온 그 집에도 아들이 있고 하는데, 그리 잘 살

왔대요, 아 키우고.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
(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수영구 설화 17]

머슴과 사는 과부의 말 둘러대기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22(금)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2동 망미노인정

제 보 자 : 김호선(여, 1919년생)

청 중 : 5명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1), 박지희(@2), 최수정(@3),
정다혜(@4), 오소현(@5)

[구연상황]

조사자가 이야기를 참 잘한다고 하면서 제보자에게 하나 더 해달라고
부탁하자, 제보자가 바로 다음 이야기를 했다.

[줄거리]

과부가 남편이 죽고 머슴과 같이 살았다. 과부가 비손을 하면서 머슴을
위한 말을 하니까, 자식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고 물었다. 과부가 무안하여
둘러대는 말을 했다.

[본문]

머슴을, 머슴을 데리고 사는데, 머슴을 데리고 사는데, 이래 옛날에 비손을
하는데, 저게 머슴이 인자 남편이 죽고 머슴하고 같이 살았던가 봐요.

@1 조사자 : 과부가?

과부가. 아, 그래. 마 이래 빌면서 하는 말이,

“머슴도 대주요, 명감도 과일이라.” [조사자 웃음]

그러니까 저 그 자식들이 아가 옆에서 보고,
“엄마, 뭐라 했노?”
이러니까, 저게,
“아, 머슴 떡 주게 아 대접이{대접을} 가져오게 했다.”
그러더래요. [조사자 웃음]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
(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수영구 설화 18]

가난한 집 머슴과 몰래 결혼한 부잣집 처녀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22(금)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2동 망미노인정

제 보 자 : 김호선(여, 1919년생)

청 중 : 5명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1), 박지희(@2), 최수정(@3),
정다혜(@4), 오소현(@5)

[구연상황]

제보자가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다고 하면서 자진하여 다음 이야기를 했다.

[줄거리]

옛날에 유기 장사를 하던 가난한 총각이 돌아다니다가 부잣집에서 머슴을 살았다. 그 부잣집 처녀가 머슴에게 몰래 편지를 주고 만나자고 했다. 편지에 말한 대로 가니 처녀가 돈을 많이 가지고 왔다. 총각은 이 처녀를 데리고 시골집으로 내려왔다. 부잣집 딸은 어려운 일도 잘 하면서 자식들을 낳고 부자로 잘 살았다. 한편 부잣집에서는 딸이 호식을 당했다고 믿고 산에 가서 제를 지내기도 했다. 한참 후에 친정에 딸이 찾아

오자 모두 반가워했다. 친정에서 돈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되고, 자식들도 벼슬을 하고 잘 살았다.

[본문]

총각이 유구장사를, 있죠? 그릇.

@1 조사자: 유기장사.

응, 유기. 유기장사를 만날 총각이 다니거든. 다니다가 그 부잣집에 가서 소죽도 끓이고 불도 때고 그러고로 인자 있는데.

그 집에 주인처녀가, 부잣집 그 딸이 뭘 편지를 앞에다 훌쩍 던지고 가요. 그 총각. 유구장수 총각 앞에다 불 때는 앞에다가. 편지를 보니까, ‘오늘 저녁에 주위에 저 큰 나무 밑으로 오라.’고 이려고 써놨어요.

그래 참 저녁에 그 총각이, 아이가 저녁에 그 총각이 인자 갔어. 그 나무 밑으로 가니까 처녀가 돈을 많이 갖고 왔어요. 그래 마 자기 집이 없어, 시골에. 없으니까네 그래, 그래가지고 인자 처녀하고 갈라고 막 이러는데, 옛날에 결혼할 때 와 가마 있죠? 가마. 가마에다가 탄 사람 태워다 주고 인자 빈 가마가 가는 거라요.

그래 그 처녀를 빈 가마에다 태워가지고 마 자기 집으로 시골에 갔어. 가갖고, 가가지고 그래 자기 어머니가 홀로, 혼자 계시는데, 그거 어머니도 좋다 카지요. 그래 색시가 와은께.

그래가 사는데, 이 부잣집 딸인데도 막 시골에 오만 일을 다 하고 사는 거라마. 별별 일, 나무 일도 하고 나무도 하고 마 별별 일을 다 하고 사는데, 난중에 부자가 되고 아들 딸 낳고 잘 사는 거라 그래가.

사는데, 그래 이 친정집이는 그 처녀가 꺾혼할라고 날 받아놨거든. 날을 받아놨는데, 처녀가 없으니까 어떡해?

그래 인자 마 저 범이 호식해 갔다고, 그러고 개를 잡아서 산에다가 뿌려놓고, 그래놓고 인자 사는데, 난중에 그 잘 살면서 친정에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와갖고는 친정에서 돈도 마이 쥐서 그렇게 잘 살고 자식들도 마 벼슬하고 그러고 잘 살았대요.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수영구 설화 19]

자신을 골리는 부인을 혼낸 봉사 남편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22(금)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2동 망미노인정

제 보 자 : 김호선(여, 1919년생)

청 중 : 5명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1), 박지희(@2), 최수정(@3),
정다혜(@4), 오소현(@5)

[구연상황]

이 제보자가 이제 마지막 이야기라고 말을 한 다음 이 이야기를 했다.

[줄거리]

옛날에 봉사가 건강한 부인과 함께 사는데, 부인이 자꾸 자기를 골렸다. 화가 난 봉사 남편이 부인을 혼내려고 생각을 했다. 쌀자루를 집으라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 보라고 했다. 영문도 모르고 들어간 부인에게 봉사 남편이 쌀자루를 잡고 때리며 앙갚음을 했다.

[본문]

그건 건강한 사람하고 그래 사는데, 저게 그 봉사, 그 마누라가 자꾸 봉사를 애 먹이거든(먹이거든). 자꾸 애를 먹여. 그러니까,

“하 저거 어째가 저 여자를 좀 그거 하꼬?”

마 있으이, 어 그래.

“자리를 하나 길게 저 집으라.”

했거든. 자리를 그 와 뭐 영는 쌀 자리. 그래 집으라 해갖곤 자리 다 집었다고 인자 내놓으니까,

“그 좀 들어가 봐라. 저게 내 키만 한가 한 번 들어가 봐라.”

어데 [웃으면서] 들어가니까 아가리를 잡고 좀 그래 때렸다 카대. [제

보자 웃음]

@1 조사자 : 봉사가?

어, 봉사가. 때릴 길이 없는 거라 그냥. 응, 그러까네,

@1 조사자 : 자루 안에?

응, 자루를 집으라 해가가지고 딱 좀 들어가 봐라 그러이까, 들어가니까 우예를 잡고 마 그러더라.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 (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수영구 설화 20]

계모 구박에 죽은 아들 원수 갚은 부인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22(금)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2동 망미노인정

제 보 자 : 박제임(여, 1921년생)

청 중 : 5명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1), 박지희(@2), 최수정(@3),
정다혜(@4), 오소현(@5)

[구연상황]

제보자가 이야기를 하나 하겠다고 말을 한 다음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가 길어지자 길어도 괜찮겠느냐고 중간중간 물어보면서 구술했다. 이야기를 하다가 끝에 가서 제보자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자, 청중이 끼어들어 이야기를 잇기도 했다. 그후 제보자와 청중이 번갈아 이야기를 하면서 경쟁적으로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맞다고 하면서, 서로 자신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

[줄거리]

옛날에 조씨란 사람이 아들을 하나 두고 배씨와 재취 장가를 갔다. 아

들이 계모 배씨의 구박에 몸이 야위어 갔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위는 이유를 물으니, 절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렇다고 거짓말을 했다. 아버지는 아들을 절에 보내고 오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전처 아들을 두고 재취 장가는 가서 안 된다고 했다. 그후 꿈에 전처가 선물을 하여 아들 장가를 보내려고 비단을 준비했는데 계모 배씨가 다 빼갔다고 했다. 아버지가 절을 찾아 아들을 데려 오려고 하니, 중이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면 좋지 않다고 했다. 아버지는 이를 무시하고 어린 나이에 아들 장가를 보냈다. 그런데 계모 배씨가 종을 시켜 장가를 가는 새서방을 몰래 죽이게 했다. 이를 모르는 동네 사람들과 아버지는 신부가 잘못 들어 자식이 죽었다고 오해했다. 신부가 울면서 상여를 따르고, 빈소를 지켰다. 빈소에서 신부가 자는데 꿈에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꾸었다. 첫날밤에 임신한 것이다. 그후 다시 꿈에 남편의 목이 치마에 떨어지는 꿈을 꾸고 도장에 가니 남편 목이 밀가루 통에 들어 있었다. 부인이 시아버지에게 말하니, 처음에는 말을 믿지 않으려 했다가 신부가 가자는 데로 가니 죽은 아들의 목이 들어 있었다. 초상을 치고 아버지가 집을 떠나려 하다, 머슴의 행동이 이상한 것을 알고 자초지종을 물으니 모든 것을 실토했다. 계모 배씨와 그 자식들을 죽이고 부인이 남편의 원한을 갚았다. 후에 신부가 낳은 아들이 금강산 절을 찾아서 할아버지를 모셔와 함께 잘 살았다.

[본문]

옛날에 한 사람이 성은, 성이 조썸데, 조씨가 아들로 하나 낳아놓고 말에 죽어뵈는 기라.

그래가 죽어서 배씨, 배씨 어마니로 재추 장개를{재취 장가를} 갔어. 재취 장가를 가갔고, 그래 조 부자가 사는데, 그 아들로 갖다가 어찌 구박을 하고 괘시를 하던지,

@1 조사자 : 새엄마가?

계모가. 하도하도 괘시를 해서, 그래 저거 아부지가 그 아들로 불렀다. 괘시를 하고 그래서 아가 자꾸 철볼을 지는 기라{+철골처럼 말라가게 되는 것이라.}. 철볼이 저가지고 형편없이 말라 들어가는 기라. 그래서 아부지가 아들을 불렀다. 불러갖고,

“니, 와 요새 이렇노? 배가 고파 그렇나? 무슨 근심이 있어 그렇나? 니 와 이렇노?”

물은께네,

“그래 아버지, 옛날에 어무이가 ‘나는 저 금강산 절에 가서 공부 하몬 좋겠다’ 소릴 들었는데, 어마이한데.”

“거짓말이다 그거.”

아바이가. 들었는데,

“그런데 절로 가고 쫓아서 내가 마른다.”

카거든. 절로, 절에 가고 쫓아서 내가 마른다 한께네, 그래 아바이가,

“거짓말이다. 니 말이 거짓말이다. 니가 어마이가 있으몬 가라 캐도 안 갈진데, 그래 갈라 카는 거 보이께네, 니가 구박을 받고 팔시를 너무 마 이 받는 갑다.”

그래 해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아버지가 절로 텔로{데리고} 갔어. 그래 텔로 가가 하룻밤을 자고 나온께네, 그라고 아들이 뭐라 쿠는 게 아이라,

“저게 아버지, 몇 밤 자고 날 찾아 올 기냐?”

하고 묻거든.

“일찍 오모 한 사흘밤 자고 니 찾으러 올 기고, 늦게 오면 삼년 후에 오꺼마.”

이라거든. 그러쿠면서 돌아왔다 아이가. 돌아와갖고, 하도 슬퍼서 동네가 들통, 동네마장 들어오매,

“동네 사람들아, 전처 몸에 자식 두고 후처 장개 조심해라.”

카거든. 노래를 부르고 오는 기라. 동네마다 들몬, 전처 몸에 자식 두고, 후처 장개 조심하라고. 그래 와갖고 살았거든. 사는데, 그 줌 사단께 그 줌, 그 아 아바이 저 본 마누래 꿈에 선몽을 하는 기라. 꿈에 선몽을 하면서,

“그래 내가 우리, 이름이 영안데, 우리 영아 줄라고 참 좋은 비단, 비단 같은 거 마이 장만해 났는데, 저 배가라, 계모는 배간데, 배가년이 다 빼낸다.”

카는 기라. 다 빼낸다 칸께네, 그래 그 소릴 듣고, 그래 인자 저거 아버지가 절에 갔다. 절에 가가지고, 들고{데리고} 올라고 깥혼식을, 열 세살 뫼는, 깥혼 시킬라고.

@1 조사자 : 아들을?

응. 갓 혼 시킬라고 덜러 간께네, 절에 중이,

“야는 나이 차가 장개를 보내야 되지, 어릴 때 장개 보내면 안 좋다.”
카더란다. 그래,

“지가 뭘 알아. 지가 뭘 알아.”

이러 쿠면서 그래 들고 왔어. 들고 와가지고, [조사자를 보고] 이차 얘기가 질어도 되겠나?

@1 조사자 : 팬썰아요. 재미있어요.

그래 덜고 와가지고, 그 참 옛날에는 열세 살, 열두 살 묵어 장개가거든. 그래 인자 장개를 보냈는 기라.

그래 장개를 보냈는데, 장씨 집으로 장개를 보냈는 기라. 보내놓고, 참 잘 해가 보냈는데, 그래 이 계모가 말이야, 종을 갖다가 가지 마라 켜는 기라, 종을 갖다가.

“그래 니는 내 말 듣고 가지 마라.”

이란께네, 그래 참 그 종이 말을 듣고서 배 아프다 쿠고, 아프다고 안 갓는 기라. 안 가고 장개를 갓거든. 가난께네, 그래 첫날밤에 신랑 각시 뉘 누워가고, 온갖 얘기를 다 하고, 마 참 부모 없이 큰 얘기, 오만 얘길 다 하고 누워서{누워서} 얘길 하고 잠을 갓어. 잠을 자고 난께네, 한 정 자고 난테 와이령노 그 저저저 그서기 말이야. 종놈. 그거를 갖다가, 그거로 갖다가 우째 시긴 게 아이라,

“니 배 아프다고 장개 갈 때 따라가지 말고, 배 아프다고 있다가 그 뒤로 따라가갓고 그 새서방 목을 비가 오몬 한 살림 주겠다.”
켜는 거라.

#청중1 : 아이고 무시라.

그래 이이 그 소리를 들었어. 그래 그 소리를 듣고 한 살림 줄라 소리 듣고, 그래 종놈이 따라갓어. 종놈이 따라가가지고 참 목을 비어갓췄다고.

#청중2 : 아이고 우짜고.

#청중1 : 아이고 무시라.

목을 비어 가고난께네, 그래 참 그때 꿈을 꿔다 카네, 그기 신부가. 꿈을 꾸게, 꿈에 용이 한 마리 와가지고 지 몸에 참 갸기더란다. 그래 꿈을 꾸고 꿈을 깨고 본께네 물만 거득, 물이 거득 방바닥에 피가.

#청중 : 아, 그렇지, 그렇지.

피가 흥덩하이{흥건하계}, 피가 그득해가 있는데, 그래 통곡을 하민서
문을 차고 나갔다 아이가. 나가이,

“이기 웬 일고?”

나가노이, 동네 사람들이 모다 쑥덕쑥덕 한 기라 고마. 처녀가 무슨 감
보가 있어갖고 그랬을 기라고.

#청중1 : 아이고 우짜고.

#청중2 : 모함을 덮어썬다.

모함을 덮어썬는 기라 인자. 부모도 의심을 하제, 마 참 조부자, 아버지,
신랑 아버지도 마 의심을 하제, 전부 의심을 하고 마 그렇는 기라.

그러이 열 받았는 기라.

그래갖고 참 행상을, 인자 죽은 행상을 해가고, 인자 생이를{상여를}
메고 오는데. 오는데 그 새각시가 머리 풀고, 옛날에 머리 풀고 신 벗고
그래가 따라가거든. 그래 하고 나서니까 시아바이가 오지 마래.

“니는 우리 집에 올 자격이 없다.”

고 오지 마래.

#청중1 : 말도 못하고.

응. 그래도 울민성 따라가거든.

#청중2 : 자기가 죄가 없으니까.

으잉.

#청중2 : 자기가 죄가 없으니까.

응. 그래 죄 없어 울민 울민 따라간계네, 시아바가 하는 말이, 그래 동
네 들어서면서,

“동네 사람 먼 사람아, 전처 몸에 자식 두고 조심하라. 이런 일이 어딴
겠노.”

커모 시이바이 우는 기라. 자기 자신은 내 따라가고 시아바이 안고 따라
가는 기라. 시아버지가 따라가매 하도 구불고, 구불러싸서. 그래 울민 따
라가고, 둘이서 울민 따라가는 기라. 그래 따라가가고 동네 바퀴 떡 들어
선계네 서모가 막 따러 골믹에{골목에} 나서민서,

“불쌍한 내 자식아, 허다 처녀 다 두고 원수 집에 니 갔더나. 원수년
집에 니 갔더나.”

하고 막 울면서 나서거든. 그래 그래도 인자, 이것도 시어마이가 그랜 줄 모르거든.

“그래 어무니 참어라.”

카거든, 각시가. 그래 울고 들어가가지고 초상 치고. 촌에 변수방이라{빈소 방이라} 있거든. [조사자를 보고] 알제? 변수 방에다가 초상을 얹히고, 곱을 여놔는 기라.

부잣집이 되어 논께, 원체 부잣집이다 보니 곱을 딱 얹어논께네, 얹어놓고 인자 아들 머리 찾을라고. 머리 찾을라 기다리는 기라.

#청중2 : 신체를 여놓고.

응. 머리 찾아가 기다리고 있던께네, 그래 그거 각시가, 참 각시가 거게, 변수방 거 자고 있는 기라.

인자 각시가, 신부가. 그 자고 있으믄 종년들이 밥이라고 주는 거마당 누룽지, 개밥 주듯이 그리 주는 기라. 개밥주득기, 개밥걸이 얻어묵고, 그 신랑 원수 갚을라고 사는 기라 거서. 원수 갚을라고 산께네, 그래 그리 살고, 눈물로 살고, 울미 울미 살고 있던께네, 하룻밤에 꿈을 꾸더란다. 꿈에 선물을 하더란다.

꿈에 선물을 하는데, 그 신랑 머리가 오더란다. 신랑 머리가 와가 각시 치마에다가 앵기가고 치마에 피를 묻히놓고가. 그래 따라갔어.

따라간께네, 내 저거 저거 도장에.

#청중1 : 사당.

사당에. 사당에, 사당에, 사당에, 그기 옛날 나는 도장이다. 도장에 밀가루 통이 밀가루 통에 머리를 여놔더란다.

#청중1 : 머리로?

머리로. 그래가 갓다 여놔는데, 그 질로 꿈을 꾸 데서 나와가 시아바이한테 갔어.

#청중2 : 머리 치마에다가 안고.

응, 안고. 시아바이한테 가가고 그 얘기를 했는 기라. 얘기를 하이 거짓말이라 쿠고, 아 처음에는 그 소릴 안 하고, 그래 [청중에게] 뭐라 했노? 뭐라 쿠더노? 처음에 그 소리 안 하고 뭐 얘길 한께네, 시아바가 안 들을라 카더란다.

#청중1 : 그렇지, 거짓말이라고.

거짓말이라고.

#청중2 : 그리 안 하고, 저게 꿈을 꾸니까 그렇고 그렇고 그러니까,
“아부님, 사당으로 한 가보입시다.”

이래가 참 가니까 핏자국이 조로로니 있어요.

#제보자 : 그래 핏자국이 있어.

#청중2 : 응 핏자국이 있어. 그 피를 따라 사당을 보니까 머리가 커가
들어 있어. 그래 인자 시아부지가 마 ‘이놈의 이기 우리 집안에서 이런
것이니까, 우리 집안 그거라.’ 하면서 마 초상을 쳤다 아요.

#제보자 : 초상을 쳐놓고.

#청중2 : 초상을 치고.

#제보자 : 그래. 초상을 쳐놓고 난께네, 이이 시아바가 고마 집을 떠날라
쿠는 기라.

#청중2 : 아이 인자 또. 그거 저거 그 자식이 자꾸 인자, 저거 영감쟁
이가 인자 자식 죽고 마 살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어디로 떠날라고 그
사람보고, 그 머슴, 머리 떠온 그놈보고,

“그래 같이 내하고 가자.”

그러이까 안 갈라 캐. 그러이까 인자,

“니가 무슨 먼저 그때도 그렇고, 배 아프다고 쳐지더이 또 그러는 기
니가 무슨 일이 있다.”

이러니까 그 사람이 다 붙었다 아이요. 머리 떠 왔다 하고.

그래갖고는 인자 그 아들, 배가년, 배가인 년 아 둘, 아들 둘 있는 것
도 마 그 자석보고,

#제보자 : 그기 아고. 그래 가고, 그래 가고. 시아버이가 떠날라 쿠거
든. 그래 떠날라 컨께네, 그래 못 가구로 하는 기라, 시아바이로. 못 가구
로 해도 그냥 갈라 쿠거든.

갈라칸께네, 그래 뭐라 쿠는기 안자, 자기 몸에 애기 들어가 있는 거,
첫날밤에 애기 들었어.

#청중 : 아이고 야.

#제보자 : 애기 들어가 그 애길 했는 기라. 시아바이보고 하나 안 갈란가
싫어서. 애기 가진 걸 애길 한게, 그것도 실없다 카민서 떠날라 카거든.

그래 떠날라 쿠고 또 그거는 인자 조사 받는 거는, [말을 바꾸어서] 아

조사 받고 나서 그래 떠날라고 했다. 그래 가고 저게 그 첩산이 몸에 난 아들 둘 있거든. 둘이 하고,

#청중2 : 그 뭐 첩산이한테 난 아들 둘을 그 종놈보고 그 앞에서 막 찍이라 캐요.

#제보자 : 목을 쳐 찍이라 했거든.

#청중2 : 그래, 목을 쳐 죽이라 하니까 마 목을 쳐 죽이고, 막 그러니까, 이 장씨 그 부인이?

#제보자 : 오데? 이러쿠더라. 목을 치이, 치라 켜게네, 그래 치라 켜게네, “저기 도련님이 무슨 죄가 있노? 내가 죄가 있제. 내 목꺼정 쳐 달라.” 카거든. 처란게,

“장개 간 새서방은 무슨 죄가 있어 첫날밤 죽었노? 그만 말고 당장 내 앞에 쳐 찍이라.”

그래가 아들 둘 목을 안 쳤나. 아들 목을 치고, 지 목 지 쳐 찍이라 캐고.

#청중1 : 아, 영감댁이로.

#제보자 : 영감이. 종놈 목은,

“니 목 니가 쳐 죽어져.”

지 목 지 쳐 죽고, 그래 인자 그거 배가년 그거 말이야 서모로 갖다가 뭐 마즈 낭개{나무}, 무슨 낭개에 매까시로 달아주는 기라. 그래 달아놓고, 낭기 달아놓고, 그래 저저 메느리, 장씨 부인, 메느리로 칼로 주는 기라.

“이 칼로 가 니 마음대로 하라.”

고. 그래가 그 칼로 가고 막 살키{살을} 떼어. 어데 계모를 갖다가 살로 완전히 마 떼어. 떠가지고 판에 채리와가지고,

#청중1 : 알곶어라.

그래 저거 신랑 앞에 갖다놓고 우는 기라. 울민서,

#청중3 : 신랑이 죽었잖아.

#제보자 : 어? 그래. 그걸 판에 채리다 놓고 울민서,

“그래 참 배가년한테 당신 원수 갚았다고. 인자 마음 놓고 후세상에 잘 살아라고.”

그래 마 했거든. 그라고, [웃으며] 너무 지다 아가.

@1 조사자 : 아이고 재미있어요, 할머니. [일동 웃음]

#청중2 : 그래갖고 인자 이렇게 다 자식들 죽고 나이, 그 영감이 마 경

황이 없어서 뜬다 아요. 떠나. 그런카네 떠나뿐 뒤에 난중에 그 애를 낳아가지고.

@1 조사자 : 자식 며느리가.

#청중2 : 응. 장씨 부인이. 그 애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아갖고.

#제보자 : 이름은 천란이라고 지었어.

#청중2 : 얼마 만큼 크는데, 그 엄마가.

#제보자 : 열 살. 열 살 때.

#청중2 : 으이. 할아버지를 찾아 가라고, 마 얻어묵든지 어찌든지 그래면서 옷을 몇 벌 해주면서 찾으라고 보냈거든. 보냈는데, 어느 절에 가있더라요 그 할아버지가.

#제보자 : 금강산 절에 갔어.

@1 조사자 : 금강산 절에.

#제보자 : 10년을 찾았다, 10년을. 10년을 돌아댕기매 찾은게네, 하무어데 그래 인자 그랑을{넷물을(+조그만 하천을)} 건네케네, 금강산 절에서 스님이 내려오면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들은께 이상하더라 그래. 그래 스님한테 물었는 기라. 물은께네 맞더라 캐.

그래서 그 절로 올라갔다 아가. 그 절에 올라가가 참 저거 할배를 만났다 아가. 저거 할배를 만내가지고, 참 막 대성통곡, 마 끌어안고 통곡을 하고, 절로 하고, 절로 하고, 안자 모시고 왔다 아가. 모시가 온께네 저거 엄마한테 모시고 왔다 아가. 모시고 와서 살았다 어야.

#청중1 : 옛날에 조용전, 조용전이라 거기.

#청중2 : 아이 조용전이 아니라 그거다. 그 뭐꼬. 그 아 이름은 영이다 영.

#제보자 : 천내이. 천낭이다 카더라. 천낭이고. 아가 그래 난, 첫날밤에 저그 엄매 껌기서 난 그 아 이름이 천낭이라.

#청중2 : 그 인제 부인이 밤에 얘기하고 잠, 잠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까 비몽사몽간에 그래, 용의 새끼 한 마리가 자기 몸에 감기고, 눈을 떠보이 마 피가 마 난설, 그래갖고 있었어.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수영구 설화 21]

선생을 장가 보낸 어린 학동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22(금)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2동 망미노인정

제 보 자 : 양모여(여, 1913년생)

청 중 : 5명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1), 박지희(@2), 최수정(@3)
정다혜(@4), 오소현(@5)

[구연상황]

제보자가 다른 제보자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자신도 이야기를 하나 해 주겠다고 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했다.

[줄거리]

옛날에 동네에서 이집 저집을 다니며 글을 가르쳤던 홀아비 선생님이 있었다. 하루는 열 다섯 살 먹은 학동이 선생님께 장가가고 싶은지 묻고는, 자기 시키는 대로 하면 장가갈 수 있다고 했다. 선생님이 한 번 해보라고 하자, 과부가 대문 쪽으로 나오면, 빨리 과부가 자는 방에 들어가서 있으라고 했다. 다음날부터 동네의 부자 과부인 도과부 집에 가서 계속 선생님을 찾는 소리를 질렀다. 도과부가 선생님이 오지 않았다고 해도 학동은 계속 와서 선생님을 찾았다. 하루는 도과부가 그 학동이 또 와서 선생님을 찾자 혼을 내줘야 하겠다고 하며 대문 밖으로 나왔다. 대문 밖으로 나온 과부가 학동을 혼내는 사이 선생님이 몰래 과부 자는 방에 들어가 누워있었다. 뺨을 세 대 맞은 학동이 선생님이 있는지 한 번 보자고 하여, 방문을 여니 선생님이 방에 있었다. 도과부는 어찌지 못하고 그 선생님과 인연을 맺어 살았다. 학동은 논 서 마지기를 뺨 세 대 맞은 댓가로 받았다.

[본문]

옛날에 한 사람이, 저 이 나이 많으면 요새는 선생이라 쿠는데, 그전에는 접쟁이라 켜어. 나이 많은께로 접쟁이, 인자 한 동네에 간 기라. 요호불애비가, 호불애비가 인자 한문은 알았던 모양이제.

한문을 알고 한 동네 드가서 아들로 글로 갈추는데{가르치는데}, 한여나문씩{+열 명 남짓.} 갈추는데, 열 닷 살 묵는 아가,

“선상님, 선상님, 장개 안 가고 쥔소?”

이라거든. 그 돌라, 전부 이리 돌라서, 인자 한 달은 이 집에 해주고, 아들 공부 갈출라고. 이 집에 밥 해 주고, 일년에 모다가이고 옷을 한 벌 해주고, 이리 인자 선상질로{선생질을(+선생 노릇을.)} 하는데, 선상질을 한께, 열 다섯 살 묵는 아가,

“선상님, 선상님, 장개 안 가고 쥔소?”

이러쿠거든. 아들이 안그러 쿠니라. 선생이 머라 쿠거든{야단을 치거든}. 머라 쿤께네,

“내 말 들으면 장개 가요. 좋은데.”

이라거든.

“그러모 해봐라.”

말이 인자, 여나문, 열 닷 살 묵는 기 중신을 할라 쿠는데, 그기 귀엽거든.

그래서 인자 해봐라 쿤께, 저 성은 도가고, 도과부가 있는데, 그 동네, 그 동네 도과부가 참 잘 산대, 머슴 텍고{데리고} 살고, 남자는 없고 자석도 없는 기라.

그래가 사는데, 그래서 인자 그 집에 가가이{가서}, 대문 밖에 가가이고,

“선상님! 선상님!”

부르거든. 부른께,

“너거 선상님 여 안 왔다.”

이러쿠거든. 그래 또 왔다. 고 이튿날 저녁{저녁} 대문 안에 디가가이고{들어가서},

“선상님, 선상님.”

부른께네,

“너거 선상님이 어{어디} 있노. 저 어는 자식이 만날 선상님 부르노.

너거 선상님 안 왔다.”

이라거든. 그래 인자 왔다.

“오늘 저녁은 가서 내 시키는 대로 하소. 청{+마루} 밑에 가 었디리
있시모 문턱 밑에, 저 축담 밑에 가서 선상님 부르몬 쫓아나오걸랑, 내가
대문 밖에 나오다가 그럼 잡히걸랑 바아{방에} 가서 도과부 누웠는 거시
게 베개를 비고 누우까?”

이라거든. 그 그럴 득 싶어. 그 저 선상도. 그래 인자 때그 와 대문은 안
잠갔든동 모르제. 청 밑에 가서 었디리라 쿠고. 또 또 축담 밑에 가서 선
상님 부른께,

“사흘 저녁 우편 자식이 나와가이고 너거 선상님 여 안 왔는데, 부르노.”

“우리 선상님 바아 없는가 보까요?”

이라거든.

“그래 돌아{들어와} 보라. 마 요놈의 자식을 오늘 좀 때리줘야 되겠다.”
고 쫓아나온다. 그래 빠거정 빠거정 나오다가, 대문이 있는데 고마 가는
잡혔다. 뺨을 탁 세리주거든.

“참, 날 뺨 때리오. 우리 선상님 없는가 가보까요?”

“가자.”

마 떡살을 들고 뺨을 세 번을 세리고 왔다. 온께 도과부 누웠던 자리
에 딱 요래 누웠는 기라. 마 띠고 넘을 수가 없는 기라.

그래서, 하도 기가 차서, 고마 이거는 고마 뺨을 맞고 고마 해청을 하고
{+청하거나 부탁한 것을 해결하고.}, 해청을 하고.

“도과부가 이적지{이때가지} 수절하고 사더만은, 야 우리 선상님을 뺨고
쫓다, 사흘 저녁을.”

이라거든. 그랑께네 고마 그래 해청을 하고 간께네 마 기가 차는 기라.
저서{저 곳에서} 훌쩍훌쩍 운께, 머스마는 마 감을{고함을} 지르고 나오고,
그래서 동네 사람도 다 알았제. 저 머스마가 전부 불히제, 그래서 저 서서
운다, 도과부가. 도과부가 운께네,

“이적지 수절하고 살았더이 이기 우짖 꼴고.”

카면서 운께네,

“인자 뛰고 빠질 수가 없으니 여 들오시오. 그 연연인{인연인} 갑소.”

함서 디가가이고 누워잔께네 좋거든. 그래가이고 인자 쇠 한 마리 잡고,

술로 한 도가지 해 영어놓고, 온 동네 사람은 청해서,

#청중 : 잔치를 했네.

#제보자: 잔치를 하고. 그래가 잘 사더라요.

그 아는 논 서 마지기 주고. 논을 서 마지기. 뽕 시 번 때리는 머리{뽕을 세 번 때리는 바람에} 논을 서 마지거나 탔어. 그래가 머스마도 좋고.

#청중 : 부자든 갑네.

#제보자 : 참 부자라, 도과분데.

@1 조사자: 중신 잘 섰네요. 아가 열 다섯 묵은 아가.

#제보자 : 그라. 그 아가 참 논 서마지기. 뽕 시 번 맞고 논 서 마지기 타고.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 (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수영구 설화 22]

결혼하자 신랑 죽은 신부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22(금)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2동 망미노인정

제 보 자 : 전남옥(여, 1921년생)

청 중 : 5명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1), 박지희(@2), 최수정(@3)

정다혜(@4), 오소현(@5)

[구연상황]

조사자가 제보자에게도 이야기를 하나 해 달라고 부탁하자 다음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를 하다 상여 나가는 대목에서 감정에 북받쳐 울먹이는 듯이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야기가 완성되지 못하고, 중간에 끊어진 듯이 마무리했다.

[줄거리]

옛날에 양양춘이란 사람이 장가를 가자마자 병이 들었다. 신부가 약을 지어 와서 백년언약을 두고 자식도 없이 어찌 죽느냐고 통곡을 했다. 그러나 병이 든 신랑을 결국 죽고 말았다. 신부가 행상을 나갈 모든 준비를 했다. 하루는 시어머니와 같이 살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 가시에 온몸에 찔렸다. 시어머니가 머슴 두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본문]

성은 양가요 이름은 양춘인데, 인제 장개가가지고 이제 각시 들여다 놓고 마 뱅이{병이} 들었어. 백년을 사자고 언약을 해놔두고 마 뱅이 들어 죽어. 죽으이,

“여보 당신, 그래 죽으몬 어째냐.”

고, 그래 상, 약 지러 가가지고, 약 지어 가서, 약 지어 하는 말이,

“일어나 약 자시소. 뱅이 들몬 다 죽나.”

고 그래 각시가 그러거든. 그런께네 이 각시가,

“뱅이 들면 다 죽나.”

고 그런께네, 이 각시가 하는, 그래 남자가 하는 말이,

“그래 어린 자식 바이 없고.”

[말을 바꾸어] 으응, 여자가 하는 말이,

“어린 자식 바이 없고, 상주 없어 어예 가요.”

어 인자 각시가 그랜다. 그래 마 죽었어 남자가. 죽어버려놓으니까, 그래 여자가 그래 참 통곡을 하고, 울고,

“그래 술한 사람 다 모였는데, 당신은 일어날 줄 모르시오. 일어날 줄 모르시오.”

그래 인제 서른 둘 상여꾼, 신발 행진 두건까지 다 지놓고{지어놓고}, 그래 인제 행상이 갔는 길에 가고,

“신체는 어디 가고 혼백만 돌아오요.”

그래 [감정에 북받쳐 약간 울먹거리는 소리로] 우더란다. 그래 안 됐잖아. 그래 그러다가, 그래 인제 그래 시어마이 같이 사다가, 하루는 일기가 잔잔하여 등지산천(登之山川), 낮을 갈아 손에 들고 지계를 등에 걸고 등피산천 올라가 낭가{나무를} 할라하이, 이놈의 가시가 온 일신을 찔러가

피가 나йка네, 시어마이가 백에, 대문 백에 벗겨놔워서 바랏다가,

“에구 애야, 머슴 두고 이래 먹지, 그일 부대{부디} 하지 마라.”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
(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수영구 설화 23]

바지 벗고 물구나무 서서 범을 물리친 노인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22(금)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민락경로당

제 보 자 : 김복동(여, 1929년생)

청 중 : 9명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1), 박지희(@2), 오소현(@3),
정다혜(@4), 최수정(@5)

[구연상황]

이 제보자가 이야기도 하나 하겠다고 말을 한 다음 이야기를 구술했다.

[줄거리]

옛날에는 범이 많아서 산 고개를 넘기 힘들었다. 한 노인이 고개를 넘기 위해 머리를 썼다. 바지를 내리고 물구나무를 서서 기어서 가니 호랑이가 도리어 무섭다고 하며 도망을 갔다. 노인은 무사히 산 고개를 넘을 수 있었다.

[본문]

옛날에 고개 인자 넘어몬, 안 넘으면 길이 없거든.

산 고개로 넘어가는데, 인자 하도 호랑이가 많애가지고 사람들이 가기가 인자 힘이 들어서러, 한 노인이 중구체나{+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없다. “중년 정도나”의 뜻으로 보인다.} 되는 사람이 그 고개 넘는 구로{넘는

것을} 머리로 썼는 기라.

범이 마마 잡아무싸서러 마 몬 땡기는데, 그 논에 가기는 가야 되제, 그래 머리를 써가지고 말이지, 주우로{+바지를} [강조하여 길게 말하며] 딱- [두 손으로 무릎 주위로 바지를 내리는 시늉을 하며] 요만치 내려가지고 거꼴로 요래 딱 이래가 기이는{기는} 기라. 범이 와글거리는 거서로{그곳에서}.

기니까 말이지 밑에 있으니까 마 덜렁덜렁 하니까, [일동 웃음] 범이 보이 마 참 지카마{자기보다} 더 무섭거든. 그래가 뭐 범이 다 달라내부뿌가{달아나버려서}. [일동 웃음]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수영구 설화 24]

아버지가 어머니 배 위에서 자요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22(금)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민락경로당

제 보 자 : 백남순(여, 1930년생)

청 중 : 9명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1), 박지희(@2), 오소현(@3),
정다혜(@4), 최수정(@5)

[구연상황]

조사자가 이야기를 유도하기 위해 이야기를 한 편을 하고 난 후, 제보자에게도 이야기를 하나 해달라고 부탁하자, 제보자가 다음 이야기를 시작했다.

[줄거리]

옛날에 고구마를 캐서 좁은 방에 모아놓았다. 하루는 손자가 할아버지

에게 방에 고구마를 담을 가마니를 치워 달라고 했다. 왜 그러냐고 하니, 손자는 고구마 때문에 방이 좁아서 아버지가 어머니 배 위에서 잔다고 했다.

[본문]

옛날에 고구마를 캐갖고, 작은방에 요래 막 따시게{따뜻하게} 마 요래 우다갖고{+오목하게 가운데로 모아서.} 이리 고구마를 태산같이 해놓거든, 작은방에다가.

그래 손주가 저 아, 아들이 봤어. 그래,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 작은방에 고구마 좀 치우소. 방이 좁아서{좁아서} 방이 쫓아서 어무니 배 우에서 자요.”

그러더래. [일동 웃음]

“고구마 차, 가마이를 좀 치아주소. 할아버지, 할아버지. 요 고구마 자리 좀 치아주소. 방이 좁아갖고 어무이가, [말을 바꾸어] 아부지가 어무이 배 우에서 자요.”

@1 조사자 : 아, 아버지가 어머니 배 우에서 자요. 아들이 뭘 몰라가지고 그쵸?

#제보자 : 응, 아들이 몰라가.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 (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수영구 설화 25]

꼬끼소 하면 삐악삐악 하고 소너라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22(금)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민락경로당

제 보 자 : 백남순(여, 1930년생)

청 중 : 9명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1), 박지희(@2), 오소현(@3)

정다혜(@4), 최수정(@5)

[구연상황]

조사자가 앞의 이야기가 참 재미있다고 하면서 한 가지 더 해달라고 부탁하자, 제보자가 다음 이야기를 했다. 제보자가 이야기를 마친 후, 한 청중이 “그게 뭐 이야기라.”하면서 음담이 멧쩍은 듯이 말했다.

[줄거리]

옛날에 한 집에서 자식을 많이 낳았다. 노부부가 한 방에서 자려니 부부관계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노부부가 부부관계를 가지기 위해 약속을 정했다. 밤에 아랫방으로 간 남편이 ‘꼬끼오-’ 하면 부인이 ‘빼악빼악’하고 신호를 해서 만나기로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빼악빼악’하며 일어나서 나가는데, 자식들이 모두 일어나 ‘빼악빼악’하며 뒤따라갔다.

[본문]

아들 많이 낳았고{놓아서}, 아들 막 우르르 생긴대로 낳다야, 아들을. 옛날에 하모.

아를 그래 낳논게, 한 방에서 잘라 카이까노, 한 방에서 잘라 카이까노, 도저히 영감 할멈 잠을, 인자 하리{하루} 저녁 붙어 잘 수가 없는 기라. 그래 인자 저 아랫방으로 내려가서 할마이보러{할머니에게} 인자 약속을 했어.

“[조용히 속삭이듯이] 할마이 할마이, 밤중에 내가 꼬끼오- 하면 빼악빼악하고 나오라고.”

그렇게로 ‘꼬끼오-’ 한께, ‘빼악빼악’ 하고 나간께, 아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빼악빼악’ 하고 [웃으며] 뒤를 따라 가더래. [웃음]

#청중 : 그게 뭐 이야기라.

#조사자 : 재미있는데예.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 (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수영구 설화 26]

호랑이를 물리치기 위해 돌로 쏜 서낭당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22(금)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민락경로당

제 보 자 : 홍영대(남, 1933년생)

청 중 : 9명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1), 박지희(@2), 오소현(@3)
정다혜(@4), 최수정(@5)

[구연상황]

제보자가 조사자에게 서낭당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해주겠다고 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했다.

[줄거리]

옛날에 원님들이 정치를 하려면 고개를 넘어 다른 고을을 가야 했다. 그런데 산 고개를 넘으려 하니 호랑이때가 있어서 넘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산을 넘을 때 돌멩이를 하나씩 주워 고개 꼭대기에 두고 넘어가게 했다. 호랑이가 덩벼들면 그 돌을 던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산 고개에 쌓아진 돌이 서낭당이 되었다.

[본문]

원님들이 가마{가마히} 보니까, ‘이래가지곤 안 되겠다. 우리가 넘을, 이 고을을 넘어가지고 저짜도{저쪽에도}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정치를 할라 카이 힘이 들거든.

산골을 넘을라 카이까, 호랑이 때민에{때문에} 당체에{도대체} 넘을 수가 없는 거라. 그래 인제 정승들이 머리를 썼는 거라.

“반다시 여게 넘어갈 지는 서낭당을 하나 지어나노, 돌메로{돌멩이를} 한 개를 산 꼭지에 놔놓고 넘어가라.”

이래놔거든.

“그래{그래야} 산다.”

이래 되거든. 그래 그게 맞는 거라. 뭐로 대들면은 산우에 올라가 대들면은 고 돌가 떼져가지고 그거 때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산봉우리 매쪽에(+“그쪽에”의 뜻인 듯함.) 서낭당이
생겼는 거라. 그 돌을 가지고 방어할라고.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
(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수영구 설화 27]

사자 모양의 백산과 사자 먹이의 담비[담비탈의 유래]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22(금)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수영사적공원 내 수영사적원

제 보 자 : 김순옥(여, 1943년생)

청 중 : 1인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1), 정다혜(@2), 최수정(@3)

오소현(@4), 박지희(@5)

[구연상황]

조사자가 수영야류에는 담비가 나오는데, 어떻게 담비탈이 있게 되었는
지 제보자에게 물어보자, 제보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시작했다.

[줄거리]

수영의 백산이 앉아있는 사자가 마치 뒤로 돌아 도망가는 형태를 하고 있
다. 이 사자를 잡기 위해 담비를 먹이로 가져다 주면 사자무 과정이 일어난다.

[본문]

수영에 인자 주산이 백산인데, 그 백산이 앉아있는 모습이 사자가 모
양을 하고, 인자 그게 마치 뒤를 돌아가 도망가는 형태를 하고 있대요.
그래 인자 그 형태, 사자를 잡기 위해서 그 먹이로써 이 담비를 갖다가
{가져다가} 인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자무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공연하게 되는 거지요.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 (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수영구 설화 28]

동래에 귀향 온 정씨와 정과정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22(금)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수영사적공원 내 수영사적원

제 보 자 : 김순옥(여, 1943년생)

청 중 : 1인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1), 정다혜(@2), 최수정(@3), 오소현(@4), 박지희(@5)

[구연상황]

조사자 일행이 수영사적원 안에 전시된 액자 안에 정과정이 씌어져 있는 것을 보고 있으니, 제보자가 와서 정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고 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줄거리]

정서는 고려가요 정과정을 지은 사람이다. 그는 동래 정씨로 고려 인종 임금의 부인인 공예태후의 여동생과 결혼했다. 정서는 인종 임금과 동서지간으로 인종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인종의 동생을 임금으로 추대하려 했다는 모함을 받고 동래로 귀향을 오게 되었다. 인종이 죽고 조카인 의종이 임금이 되어, 이모부인 자신을 불러주겠다고 했지만 7년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다. 이에 정서는 의종 임금을 그리워하며 정과정을 지었다.

[본론]

이기 정과정(鄭瓜亭)인데, 이 이 고려가요예요. 고려가요는 보통 구전으로 전해져오는데, 이거는 정서(鄭敍(+고려 인종 때의 문인))라는 작자가 있다는 데에서 이거는 역사적인 가치를 두는 겁니다. 내님을 그리사와 우니다니 산접동새 난이숫하요이다 아니시면 거칠어지신달 아흐 잔월효성에 아르시이다.

내 님이라 하는 거는 저 의종 임금의 그리는 거예요.

정서가, 인자 정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정서는 저 동래 정씨 아시지요? 동래 정씨, 정문도공의 증손자예요. 증손잔데, 인자 그 이 증손자가 누구하고 결혼을 하게 되나 하면 그 당시 인종 임금의 [잠시 생각하며] 응 부인 공예태후, 그 인종 임금의 부인하고, 부인의 여동생하고 결혼을 하게 되요. 그러께네 인종 임금하고는 동서지간이 되요. 그래가 인종 임금의 귀여움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정서가 공, 인종 임금의 동생을 추대해가, 대연구경을 갖다가 추대해가{+환관세력과 내료세력간의 권력 다툼에 의한 대령후 사건을 말한다.} 임금이 되게 한다는 참소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동래에 귀향 오게 됩니다.

그래 귀향 오게 되가지고, 그래 인자 이 의종이, 인종이 돌아가시고 나서 의종이 임금이 됐을 때에, 자기 조카지요, 조카니까 인자 의종이 됐을 때에,

“인자 가 계시면은, 이모부 가 계시면은 내가 얼마 있다가 부를테니까.”

그렇게 언질을 줘요. 그랬는데 칠년이 되도 돌아, 인자 부르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임금을 그리워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음 적은 글이 이 정과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동래에 와가지고 인자 그 참외밭을 가꾸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인자 임금이 부르기를 기다리는 게, 기다리면서 적은 글이 이 정과정이에요.

그러께네 오이 과(瓜)자에, 그래 정자를 심어가지고, 정자를 지어가지고 임금을 기다리는데, 내 님이다 하는 게 의종 임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 그리워하는 게 내가 마치 산접동새 같다 하는 거예요.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3) 해운대구 설화

[해운대구 설화 1]

자식 죽여 부모 봉양하려다 쇠북 얻은 효자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2. 3(수)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1동 송원경로당

제 보 자 : 홍제분(여, 1931년생)

청 중 : 4인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1), 정혜란(@2), 정다혜(@3)

[구연상황]

조사자가 옛날 우스개 이야기도 좋으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자, 제보자가 다음 이야기를 해주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손순매아(孫順埋兒) 설화인데, 이 이야기에서는 효자가 조선 후기의 인물인 ‘홍기섭’이란 사람으로 제보자의 선대 인물로 변형되어 있다.

[줄거리]

옛날에 홍기섭이란 훌륭한 사람이 있었다.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자꾸 할머니 밥을 뺏어 먹었다. 그래서 아이는 또 낳으면 되니 아이를 땅에 묻자고 부부가 의논했다. 아이를 묻으려고 땅을 파니 큰 쇠북이 나왔다. 그 쇠북을 들보에 걸어두고 치니, 쇠북의 종소리가 임금의 귀에까지 들렸다. 임금이 쇠북을 치는 사연을 듣고, 나라에서 쌀을 주어서 가족 모두 잘 살게 되었다.

[본문]

옛날에 뭐 저기 뭐꼬, 홍기섭이라는, 옛날에 그 좀 훌륭한 사람이, 저기 뭐꼬 애를 낳는다, 밥은 빌어다가 어머니를 공경을 하는데, 애가 밥을 자꾸 뺏어먹거든 그자.

그랑께,

“자식은 또 나몬(낳으면) 자식이고, 엄마는 인제 한 번 평생에 한 번이니까, 이 애를 갖다가 땅에다가 갖다 묻자.”

이랬는 기라. 그래갖고 인자 자기 마누라하고 인자 신랑하고 둘이 애를 데리고 인자 껴이를(꿍이를) 큰 걸 가지고 산 위를 갔는 기라.

가가지고 땅을, 땅을 그냥 파가지고 애를 묻을라고, 엄마 밥을 뺏어 먹으니까, 그래가 땅을 파가 묻을라 하니까, 그 속에서 큰 돌 쇠북이 나왔는 기라.

쇠북이 나와갖고 ‘아 이거는 애가 북이 있어서 그러니깐, 애를 묻으면 안 된다.’ 이래갖고 그 애를 다시 인자 데리고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큰 돌, 쇠북을 가지고 저 들보에다가 매달아놓고 쳤는 기라.

치니깐 마 그때 나랏님이,

“이 이, 이게 무슨 소린고?”

하니까,

“이 어떤 그 효자가 그래 자식을 묻을라고, 엄마 밥을 뺏어먹어서 묻을라 카니까, 그거를 저기 서에, 땅에 땅을 파니깐 쇠, 돌북이 나왔다. 이래가지고 그걸 인자 애 북인가 보다 싶어서 애를 안 묻고, 이걸 갖다가 어디 알리야 되겠다 싶어서 들보에 매달아놓고 종을 쳤다.”

이러거든. 그랑께 그 사람, 나랏님이, 그 애는 저 효자고, 북이 많은 사람이니께, 이 애는 죽이지 안 하고, 나라에서 쌀 50석씩 매일 쥐갖고 어른도 잘 살고 애도 잘 살더라고요.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 (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해운대구 설화 2]

여름에 어머니께 홍시를 구해준 효자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2. 3(수)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1동 송원경로당

제 보 자 : 홍제분(여, 1931년생)

청 중 : 4인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1), 정혜란(@2), 정다혜(@3)

[구연상황]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정말 이야기를 재미있게 한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제보자가 마지막이라면서 하나를 더 이야기해 주었다. 앞의 이야기에 이은 효행담이었다. 그런데 이야기 앞부분에서는 어머니가 홍시를 찾은 때가 6월달이라고 했는데, 이야기 중간에 갑자기 추운 겨울로 바뀌었다.

[줄거리]

홍기섭이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평소에 홍시를 참 좋아했다. 6월 달 밤중에 어머니가 홍시를 너무 먹고 싶어 했다. 홍시를 어떻게 구할지 걱정하면서 밖에 나가보니, 호랑이 한 마리가 앞을 가리며 타라고 했다. 호랑이를 타고 가보니 산속의 어떤 움막집에 가게 되었다. 그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는데, 제사상에 홍시가 많이 놓아져 있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이 집까지 오게 된 사정을 말하자, 그 집에서 홍시를 많이 싸서 주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홍시를 드렸다.

[본문]

홍기섭이라고 하는 사람은, 엄마가 평소에 홍시를 참 좋아했는 기라. 그래갖고 6월달이니까, 6월달에는 홍시가 없잖아요 그자. 옛날에야, 지금이야 냉장고 있고, 막 어디 전장에 내놔도 있지만, 옛날에는 없거든. 그래갖고서러는 인자, 만날 땅을 파갖고 드리넣으니, 홍시를 자기 어무이를 줄라고, 땅속에 묻어놓고, 그걸 제사에 쓸라고 인저, 제사에 쓸라고 묻어놨는디, 그 애는 그냥 저기 뭐고 저기 한 몇 개가 없는 기라.

인자 다 많이 묻어 놔도, 그때 되면 다 썩고 몇 개 없는 기라. 자기 어머니를 줄라고, 그래 인자 제사에 쓸라고 그러는데.

그래 어떤 사람이 효잔데, 저기 뭐고 밤에 저 어머니가 밤중에 막 그냥 홍시를 먹고 싶다고 막 이라는 기라.

그라니께 저기 뭐꼬, 아들이 저 방에 가갖고, ‘이 추분데 어디 가서 홍시를 구할까’ 싶어가지고, 딱 나와가지고 저 배깁에서{바깥에서} 방황하고 있으니까, 그래 호랭이가 하나 큰 놈이 앞에 딱 가래{가려} 있거든.

그래가이고 인자 그 사람이 그걸 타라는 거 같아갖고 그걸 탔는 기라. 타니깐 마 어디 어디 가가지고 살골짜기를 가더니, 우막집이 있는디 불이 뵈하드라네.

그래 그 집이를 딱 들어간께, 그 집에 제사를 지내더라네. 제사를 지내는데 보니까, 제삿밥을 내놔는디 보니까, 홍시가 그냥 막 놔 있더라네.

그라니께 인저 그 얘기를 했는 기라. 그 인저 객이,

“그래 우리 어머니가 그래 홍시를 잡숫고 싶다 캐서 홍시를 구할라고 그래 인자 이랬는디, 그래 호랭이가 앞을 가려서 타고 오니께 여기를 왔다.” 이러께,

“그 네 효성이 지극해가지고, 마 마 천지 여 하느님이 도와서 호랭이를 보내가지고 이곳에 왔는가비라.”

홍시를 그걸 그냥 마이 싸주더라요. 싸쥐갖고 자기 어무니를 갖다드리더라고.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해운대구 설화 3]

도깨비불이 올라온 구청 자리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2. 4(목)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7통경로당

제 보 자 : 구금자(여, 1928년생)

청 중 : 7명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1), 정혜란(@2), 정다혜(@3)

[구연상황]

제보자가 자기가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다고 한 후에 바로 다음 이야기를

시작했다.

[줄거리]

옛날 구청이 있던 자리에 날이 좋지 않으면 불이 올라왔다. 그 불이 멀리 솔밭까지 갔다가 다시 오고 했다. 그것은 도깨비불이었다.

[본문]

우리 여게도, 여 옛날에 구청 안 있나, 여, 지금 그라몬 어데고? 여여, 여, 아파토 제일교회 이 앞에, 제일교회 이 앞에, 그 옛날에 거 구청 안 있나, 옛날에 그 구청.

그 아파트 지아난 그다{그곳이다}. 거가 구청이 있었다. 있었는데, 그 런데 거기서로 불이 올라오는 기라.

날이 꾸름하고 이라몬 인자, 우리 집 인데{있는데} 거서로 인자, 이래가 나와가이고 이래가 보몬, 불이 이래 불덩거리가 하나 쭈욱 올라오던 기라.

올라오이케노 그 불덩거리가 어디로 가노 카몬, 저 우동 올라가는데 그 솔밭 안 있었나, 이리 지금은 지리, 대치 말고, 요 요래 요래가 있는데, 요고{여기고} 북판에 도론데, 요쪽에 산이고 요쪽에 산이고, 요래 있었거든.

그래 여서 불이 올라오몬, 구청 요 전에 했던데 여서 불이 올라오면, 이 불이가 어데꺼지 읽히나 하몬, 우동 그 저저 뒤편 솔나무 있제. 그꺼정 가는 기라.

갔다가, 또 주르르룩 왔다가,

#청중: 그 도깨비불이라 칸다이.

어. 그래가 주르르룩 갔다가.

#청중: 그 도깨비불이라 캐.

갔다가 날이 꾸지리하몬{곳으면} 인자, 그래 나와가이고 그놈이, 어 그 놈이 거서 또 이리 올라와가이고, 또 일로 쭈 오고, 또 이쪽에서 또 그놈 이 오가이고, 또 여기서 또 주르르룩 가고.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 (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해운대구 설화 4]

도깨비와 씨름한 사람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2. 4(목)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7통경로당

제 보 자 : 구금자(여, 1928년생)

청 중 : 7명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1), 정혜란(@2), 정다혜(@3)

[구연상황]

조사자가 도깨비와 씨름을 하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았냐고 물어보자, 제보자가 다음 이야기를 했다.

[줄거리]

밀양 사람이 밀양 5일장을 다녀왔다 오는 길에 친구가 자기를 부르더니 씨름을 하자고 해서 씨름을 했다. 아무리 힘을 줘도 안 되자, 들고 다니던 칼로 찌르고 겨우겨우 집으로 왔다. 그 다음날 그 자리에 가보니 칼이 빗자루에 꽂혀 있었다. 그 칼이 얼마나 세게 꽂혔던지 장정 둘이서 겨우 칼을 뽑다.

[본문]

우리 아랫방에 있는 사람이, 저 밀양사람 아니가, 밀양사람인데, 거도 5일장이라 하대.

5일장을 이래가 보는데, 그래 인자 가을인데, 인자 가을에 가가 보리쌀로 한 가마이 팔아가이고, 인자 시골서러 자아{장에} 가몬 모두 친구들 만나가이고 술 묵고 막 이래 그거하고 이야기하고, 이러다가 오래만에 안 오나.

그래 시간이 늦까되가 올라왔어. 올라오이, 짚어지고 올라오이꺼네 저 중간에 나오이께네, 그 사람이 이름이가, 금 머신데 인제 잊이뻘다.

“아무거시 아니가?”

카더란다. 그래 보이께노 친한 친구더래.

“어, 그래 어데 갔다오나?”

이카이께,

“아 나는 자아 갔다 온다.”

“그래. 내강 씨름 함분 붙어볼래.”

카더란다. 그래 가가이고요, 그놈을 지고 가는 보리 그거로 갖다가, 지게로 갖다가 놔왔는 기가 얼마나 씨게{세게} 그걸 해놔던동 이 지게가 논에 그 빠져가이고, 아침에 지로 인자 가는데, 그거로 몬 빼서 둘이가 빼냈단다.

그래 씨름하자 캐서, 그 인자 씨름을 해보자 카며 둘이가 씨름을 했는데, 죽을판 살판 했는데 이길라고 얼마나 용을 쓰고.

그래가이고 칼로 이래 할배들, 칼 짝게칼 이런 거 안 징기고 안 땡기나. 그놈을 빼가이고 마 기운이 부치가 나중에는 안 되겠더란다, 그래가 그놈을 마 찢러뺐어.

찢러빼고, 그래가 마 참 사람이 물에 빠진걸이 이래가이 인자 올라왔는데, 근근이 그래가 집에를 어찌웁는지 웅더래. 오가이고,

“그래 와 이렇느냐?”

고 카이께네,

“그래 아무것이가 나타나가 내카{나하고} 씨름을 하자 캐가 내가 한판 붙어가이고 내가 그놈을 직이뿌고 왔다.”

이러카더래. 그날 아침에 일나가이고 인자 식구들캥 모도 이우지{이웃} 사람하고 인자 그 자리로 갔어. 가이께네 빗자리 몽디더라요. 빗자리, 요만한 빗자린데, 빗자리 복판에 그래 칼이 꼽히기 있더래요.

그래가 그 보리쌀 가마이로 빼내는데, 장꿀이가 둘이서 얼마나 용을 쓰고 빼, 그거로 갖다 얼마나 갖다 힘이 좋았건데, 그렇기 갖다 처박았노 카는 기라.

그래가이고 그래가 죽을, 내가 고비를 넘겼다 카매 그리 얘기를 하더라.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해운대구 설화 5]

바보 형님을 골탕 먹인 똑똑한 동생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2. 4(목)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7통경로당

제 보 자 : 성귀자(여, 1940년생)

청 중 : 7명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1), 정혜란(@2), 정다혜(@3)

[구연상황]

청중들이 제보자에게 이야기를 하나 해보라고 권유하자, 제보자가 다음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를 하던 중에 바보 형님이 바지를 벗는 대목에서 제보자와 청중, 조사자가 모두 웃음을 참지 못했다.

[줄거리]

옛날에 바보 형님과 똑똑한 동생이 있었는데, 형님이 장가를 간다고 하니 동생이 샘이 났다. 동생이 사돈집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나중에 형님이 오면 노래하라고 시키지 말고, 내 놓으라고 하면 형님이 노래를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형님이 장가를 가자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내 놓으라고 했다. 바보 형님이 어쩔 수 없이 내 놓으라고 하면 내놓겠다고 하면서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내 놓았다. 그러자 모두 웃었다. 집에 돌아온 형에게 동생이 잘 지내느냐고 묻자, 그것을 한번 내놓았더니 모두 웃더라고 했다.

[본문]

옛날에 형님은 바보고 동생은 좀 똑똑했는데, 형님이 장개간다고 카이끼레, 이 동생이 샘이 나가주고.

그때는 인자 장개간다 카몬 이쪽 집에서러 뭐를 해가 쉼어지고 가가 그 사돈하는 집에 머 갖다 주는 예물이 있어가 가지고 가가지골랑,

“그래 우리 형님도 장개 오거들랑 노래하라 카지 마고{말고}.”
형님 우사시켜뵈라고, 샘이나가지고.
“형님이 만약에 장개 오거들랑 노래시길 때, 노래하라, 노래하라, 소리
하지 마고 내놓으라 카라.”
캬거든.
“내 놓으라 커몬 노래를 한다.”
이카이께네, 마 새신랑 다루는다꼬 마 저녁에 마 장개 가가지고 마 둘러
앉아가 있으매,
“이 사람아 내놓게.” [청중 웃음]
돌아가매,
“이 사람아 내놓게.”
카이, 이진 노래로 안 내놓고, 이진 마 훌쩍 벗어나,
“내 놓라카몬 내놓지.”
카매 이거로 훌쩍 내놔뵈나네. [일동 웃음] 한 *○○* 사람이 얼마나 웃
고, ‘아이고, 저거 내 놓으라 카몬 노래 내놓는다 카디 와 저거로 내놓
노.’ 싶어가. [일동 웃음]
그래가 한 방아치{바가지} 웃고 그래 지나고, 집에 와가지고,
“어 저게 그래, 형님아 가가지고 노래 잘 하고 그래 잘 장개 가가 잘
지냈나?”
이카이께네,
“어. 지내기는 잘 지내는데 마이 웃었다 아이가.”
“머 때문에 마이 웃었노?”
카이께네,
“그래 자꾸 내놔라 캐가 그거로 한문{한번} 내놔니 모두 다 잘 웃더라.”
그래가 끝이 났대요.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
(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해운대구 설화 6]

부인의 기를 꺾고 순종하게 한 남편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2. 4(목)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7통경로당

제 보 자 : 성귀자(여, 1940년생)

청 중 : 7명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1), 정혜란(@2), 정다혜(@3)

[구연상황]

제보자는 다른 제보자의 이야기가 끝나자, 다음 이야기가 생각났는지 갑자기 이야기를 시작했다.

[줄거리]

옛날 어느 집에 기가 센 처녀가 있었다. 너무 기가 세서 아무도 장가를 오려고 하지 않자 여자 집에서 논 서마지기를 줄 테니 누구든 장가를 오라고 했다. 어떤 총각이 ‘내가 기를 죽여서 데리고 살겠다.’고 하고 그 집에 장가를 갔다. 장가 간 첫날 부인의 기를 죽이기 위해 궁리를 하던 남편이 부인의 옷을 다 벗겨 놓은 다음 장모를 찾았다. 그리고 생콩을 갈아 찬물에 탄 ‘냉탱탱이’를 한 그릇 달라고 하여 먹었다. 밤에 속이 안 좋아진 남자가 설사를 부인의 가랑이 사이에 볼일을 보고, 뒤처리를 하기 위해 장모에게 ‘요요개’ 한 마리를 넣어 달라고 했다. 남편이 부인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씌우자 부인이 기가 죽어 남편 말에 잘 순종하며 시집을 잘 살았다.

[본문]

옛날에 여자가, 여자가 바보겉고 하면서러 어찌 이기 기같이{기꼴이} 시가{세어서} 아무도 장개 올 놈이 없는 거라.

어떤 놈이 하나 인자 마,

“내 자신하고 가가 그 기 꺾고 살겠다. 인자 내가 가겠다.”

이라고, 인자 뭐든지 너무 기가 시고, 여자가 그거 하이,

“논 서 마지기 주꾸마. 우리 집에 딸 데꼬 갈 사람 있으모 오라.”

카이, 너무 기가 시나놓이 아무도 안 갈라 카는데, 동네 어떤 총각이,

“내가 가가지고 기 꺾고 인자 테꼬 와가 살겠다.”

이래가 장개로 떡 가나놓이께네, ‘저걸 우예 기를 꺾으꼬.’ 싶어가 첫날
저녀{저녁} 인자 딱 들라줬는데 옷 다 벗기놓고 인자 저게,

[큰소리로 부르듯] “장모요, 장모요.”

사우라 카는 기,

“요 냉탱탱이 한 그륵{그릇} 주소.”

이이카거든. 장모도 냉탱탱이를 모르는 거라, 잔칫꾼이 아무도 냉탱탱이
를 모르는 거라.

그래가 장모가 문악에{문 앞에} 가가,

“이 사람아, 냉탱탱이가 뭐고?”

카이께테,

“저게 장모님, 저게 생콩가리 찬물에 후리가 주는 거, 그기 냉탱탱인
데, 그것만 한 그륵 주이소.”

이카거든. 아이고, 생콩가리로 한 그륵 찬물에 태아 주는 거로 마시고 나
이, 자다가 나이께 마 배가 우글우글 해가, 마 글때는{그때는} 이거 고랭
이, 고쟁이 그거 뒤에 벌어진는 거 입었는데,

#청중1 : 꼬장주.

꼬장주 그거 입었는데 마,

#청중1 : 남가가 그런 거로 입었나?

아이 여자가 입었는데 마, 이거 마 냉탱탱이 그거 생콩가리 그거로 마
참은 물에 한 그륵 무놓난{먹어 놓으니} 마 배가 우글우글걸디 마, ‘이걸
우예 기를 꺾으꼬’ 싶어가, 그래가 마 주우{+바지} 가래이{가랑이} 대고
마 설사 똥을 싸똥는 기라. [일동 웃음]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놓고는 인자,

“쫓매 있다 갈라.”

지가 싸놓고,

“쫓매 있다 갈라.”

[큰소리로 부르듯] “장모님! 장모님!”

부르이께레,

“아이고, 이 사람아. 왜 부르는가?”

이라이께테,

“장모님, 장모님. 요 오요개를 한 마리 불러 주소.”
 이카이께네, 이 장모가 인자 마,
 “그래 와 오요개를 부르는가?”
 카이께네,
 #청중2 : 오요개가 뭐꼬?
 #청중3 : 개, 개.
 “오요개를 한 마리 불러주소.”
 이카이께네,
 “아이고, 이 사람아. 와 오요개를 부르는가?”
 이카이께네,
 “머 어제 머 잘못 묵우가 과식을{과식을} 했는가 똥을 싸가지고 요, 오
 요개가 있어야 처리를 하겠습니까.”
 이러카йка, 이놈의 장모가 [큰소리로] 온통 집에 돌아댕기매,
 [강아지를 부르는 소리로] “오요요요요요 오요요요요 오요요요 오
 요개야, [웃음] 오요요요 오요개야.”
 카이께네, 개가 한 마리 와가지고 방에 들라주나 놓이 그걸 다 훑어 묵
 고는, 마 인자 색시한테 덮어씌웠는 거라.
 “어제 뭘 어찌 먹었길래 당신이 이래 어 똥을 싸가지고 내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
 카이께네, 그거로 인해서 야꼬가{+콧대가} 죽어가지고 마, 그 기가 다 죽
 어뿌고, 신랑 있는데 마, ‘예예, 예예’ 하민서러 시집을 잘 살았대요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
 (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해운대구 설화 7]

꼭소리도 못하는 바보 사위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2. 4(목)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7통경로당

제 보 자 : 신계선(여, 1938년생)

청 중 : 7명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1), 정혜란(@2), 정다혜(@3)

[구연상황]

바보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다. 제보자도 바보 이야기 하나를 생각했는지, 웃으면서 다음 이야기를 해주었다.

[줄거리]

옛날에 바보가 장가를 갔는데, 장인이 죽었다. 그런데 장인상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이어이” 하면 된다고 했는데, 냇물을 건너다 빠지는 바람에 그만 어머니가 말해준 것을 잊고 말았다. 냇가에 빠져 미꾸라지를 잡으니 미꾸라지가 삐악삐악하며 울었다. 장인상에 간 바보가 미꾸라지가 울던 대로 계속 삐악삐악하며 울었다.

[본문]

그래 어느 놈이 장개로 가야 되는데, 바보라.

그래 저 엄마가 장개로 가는 기 아이라, 쟁인이 죽었는데, 가는데,

“어찌 혈꼬, 엄마.”

카이께네,

“어이어이 해라.”

개가 보냈거든. 꼬랑, 내 가다가 이래 마, 어이어이 하고 갔는데, 오이 중간쭝 간께, 둘다리가 이리 있어가 물로 건너야 되는 기라. [웃으며] 그 건니디고 마 어이가 잃어뿌진 기라.

그래 인자 물에서 잊어뻘은께, 물에 들어가 낚지야{건져야} 가져{갈 것} 아이가, 처갓집에. 쟁인 죽어가.

물에 들어가서러 영어 뗏을 주물께네{주물럭거리니} 미꾸래이가{미꾸라지가} 한 마리 잡히가, [괴성을 지르며] 삐아악.

그래 고마 쟁인 죽은 데 가서 내{계속} 삐악-

@ 조사자 : 어이어이야 해야 되는데, 어이어이야 못하고.

어이어이야 몬 하고, 인자 잊어뻘은께, 거서 건진께네 미꾸래이 그놈이

삐약 삐약, 미꾸래이 잡으몬 삐삐 한다. 그래가 내 그리 울더란다.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
(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해운대구 설화 8]

죽은 여치를 자기 아이로 알고 통곡한 바보 남편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2. 4(목)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7통경로당

제 보 자 : 오명선(여, 1934년생)

청 중 : 7명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1), 정혜란(@2), 정다혜(@3)

[구연상황]

앞에서 신계선, 조분이 제보자가 계속 바보가 장가 간 이야기를 했다. 제보자도 앞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다음 이야기가 생각났는지 바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줄거리]

옛날에 남편은 바보고 아내는 똑똑한 부부가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이를 놓지 못했다. 남편이 나무를 하러 산에 간 사이 부인이 여치를 잡아 날개와 다리를 떼고 생리하는 피를 묻혀 놓았다. 남편이 나무를 해서 집에 오니 오뉴월 더운 날임에도 부인이 이불을 덮고 있었다. 남편이 이유를 묻자 부인이 유산을 했다고 대답하며 죽은 여치가 있는 것을 보라고 했다. 남편은 죽은 여치를 죽은 자기 아이라고 생각하고 매우 슬퍼했다.

[본문]

옛날에 바보가, 이기 좀 남자가 바보든가 봐. 그래나노까네 안자 여자는

쪼깨 똑똑했는데 암만{아무리} 있어도 아로 안 놓거든.

한 날은 남자가 떡 나무하러 가고 난 뒤에 오뉴월 염천, 대기{매우} 덥었는 기라. 그래가 여치 안 있나, 여치, 여치. 메떼기{메뚜기} 여치 크 다란 거, 그걸 한 바리 잡아가지고, 인자 맨수{+menses, 생리}가 있었는 기라.

있어. 옛날에는 이 들통심기를 거다가 떡 인자 피를 좀 묻히가지고 그 저 날개카 다 떠뿌고, 다리도 다 떠뿌고 딱 내놓고, 지는 인자 한 이불 떡 덮어써고 오뉴월 염천 눕우 있으이, 남자가 나무를 해가 오이 떡 눕어 있거든.

“와 이리 눕었노?”

“유산됐다.”

카거든.

“그래, 어딴노?”

이라이,

“저 가봐라.”

카이, 거 떡 있거든. 그래 가오디만{가지고 오더니},

“아이구, 눈대 흘렁 까진 거는 등 너매{등 너머} 삼촌 닳고, 아랫두리 밋죽한 건 내 닳고, 가슴이 히떡 디비진{뒤집어진} 거는 니 닳았네.”

카매, 그래 엉엉 울더라. [웃음]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 (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해운대구 설화 9]

첫날밤 이불에 절하는 바보 남편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2. 4(목)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7통경로당

제 보 자 : 오명선(여, 1934년생)

청 중 : 7명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1), 정혜란(@2), 정다혜(@3)

[구연상황]

잠시 조사를 멈춘 사이 제보자가 “첫날밤에 이불보고 절한다.”는 말이 있다고 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했다.

[줄거리]

옛날에 바보가 장가를 갔다. 첫날밤에 바보가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이 궁금해서 방문의 창호지를 손으로 뚫어 보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불보고 절하라”고 하니, 바보 신랑은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이불보고 절을 했다.

[본문]

옛날에는 와 자꾸 와 첫날밤에 뭐 이불보고 절하라 카는거로, 이불보고 절하라 카이께네, 바보는 이불보고 절 한다 카네요. 그기로 모르고 이불보고 절하는 줄 알고.

그래 인자 저거 처음에 인제 웃고름도 풀고 이래 뭐 하나씩 하나씩 빗긴다{벗긴다} 하대.

#청중: 첫날밤에.

첫날밤에. 쪽두리도 먼저 빗기고 이라는데, 아 밖에서 문을 이래 뜯버가{뚫어서} 그때는 창호지 문 뚫고, 뒤에 봉창 있으면 봉창문 다 열어가. 그거하고 이리이까네, 내 머머 언니들 하고 마마, 우리 형부들 하고 머머, 전부 자고 나이까네, 마 그냥 다 뜯버놓고, 봉창도 없고 그랬대. 그래,

“이불보고 절하라고. 이불보고 절하라.”

카이,

“진짜 이불보고 절해야 됩니까? 절해야 됩니까?”

이라더라고, 우리 아저씨가.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 (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해운대구 설화 10]

가족 외투를 물고 간 호랑이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2. 4(목)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7통경로당

제 보 자 : 조분이(여, 1940년 생)

청 중 : 7명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1), 정혜란(@2), 정다혜(@3)

[구연상황]

조사자가 호랑이 이야기나 도깨비 이야기 같은 옛날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자, 제보자가 가장 먼저 나서서 이야기를 하나 해 보겠다고 하고는 다음 이야기를 했다. 제보자의 아버지가 겪은 체험적인 이야기이다.

[줄거리]

늦여름 어느 날 밤에 대밭이 있는 집에서 가족들이 명식을 깔고 자고 있었다. 아버지가 이불이 모자라 만주에서 사온 가족 외투를 덮고 잤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 가족 외투가 없어졌다. 한참을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 아버지가 누룩을 숨기기 위해 산을 갔는데, 그곳에 가족 외투가 땅에 펼쳐져 있었다. 호랑이가 사람인 줄 알고 가족 외투를 물고 간 것이라고 생각했다.

[본문]

대밭이 있어가, 내가 골때가{그때가} 한 한 아홉 한 여덟 살인가? 예, 학교 안 들어갈 때, 나는 아홉 살 무가{먹어서} 학교 갔거든. 그래가지고는 주민등록 나이가 적어가지고 내가 아홉 살, 열 살 다 되가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인자 저 우 뒤에 대밭이 있는데, 대밭이 와 짹 있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인자 그때 대게 텃을 때 걸으론 우리 아버지가 그거 저거 오 바로 빠이루 오바, 옛날에 빠이루 오바라 카제.

우리 아버지가 만주 가가지고 그걸 입고 왔더라고. 입고 왔는데, 이래 명시길{명석을} 피아놉{피 놓아} 놓고 이래 쪽 안 잡니까? 자는데 인자, 우리 엄마도 요 자고, 인자 우리 아버지는 거 안 자고, 그저 사랑방에 자다가 일나가 보이까네, 이슬이 오잖아.

이제 여름, 여름이라도 좀 늦게, 인자 늦게 여름인데, 그래 눕어자는데 우리 동생들하고 내가 딸이라고 보이까네 쪽 이래 눕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인자 그 삼베 이불 하나까{하나로} 덮으카네 모지래가 지고{모자라서}, 인자 아 자기 아 인자 그 오바 그거를 빼기가지고{벗겨서} 덮았어. 덮었는데, 아이고, 자고 나이까네 오바가 없는 기라

그래가 마 우리는 마 오바 덮았는데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라더라고.

“너저 그 어째 오바를 요그 만날 여 걸어놓는데 와 오바가 없노, 오바가 없노” 이래쌍더라. 그래 그 자기가 덮았다고 그거 한데, 그래 대나무밭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그와 막 누룩 추러{+숨겨둔 것을 찾으러} 땡기고, 옛날에는 뭐 추러 땡기고. 와글노 카모{왜 그랬는가 하면} 술도가에 안 하고 집에서 술 한다고.

그래가지고 인자 우리 아버지가 인자 누룩 그거 인자 숨쿠러{숨기러} 간다고 가이께네, 오바가 그 인자 이래 껍 이래 놀파가{놓혀서} 있더라. 있는데, 범이 물어 가가.

#청중: 그기 사람이라고 물고 갔다.

그기 사람이라고 물어 가가지고 그 버들쳐{펼쳐} 났는 기라. 그래 밤에 오밤중에 그 녀, 도둑놈은 안 올끼고. 그 틀림없이 오바를 갖다 범이 물어 가가지고 그 놉냥다고{놓아 두었다고}. 자고 일나가이 아버지.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해운대구 설화 11]

아이를 함께 낳은 며느리와 시어머니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2. 4(목)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중1동7통경로당

제 보 자 : 조분이(여, 1940년생)

청 중 : 7명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1), 정혜란(@2), 정다혜(@3)

[구연상황]

청중이 제보자에게 이야기 하나 더 해보라고 하자, 제보자가 바로 다음 이야기를 했다.

[줄거리]

옛날에 며느리를 일찍 보니까, 며느리도 아이를 낳고 시어머니도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랑방에서 개를 부르니까, 개가 며느리 쪽으로 가는 바람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움을 하기도 했다.

[본문]

저거 메느리 일찍 봐놔놓으까네, 메늘도 아 놓고, 시어마이도 아들 놓고 그래.

그래 사랑채에서 시어마이로 워리워리 카고, 또 메느리는 이쪽 사랑채에서 또 워리워리 카고, 마 메늘 방에 마마마마,

#청중: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카는 사람도 있고.

저놈의 개가 저거 내가 먼침 불렀는데, 여기 안 오고 마 메늘방에 갔다고, 둘이 난중에는 마 싸움을 하고 난리더라 카대. [웃음]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 (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Ⅲ. 문헌 소재 설화

1. 남구 설화

2. 해운대구 설화

1. 남구 설화

[남구 설화 1]

각시당(아씨당) (1)

옛날에 한 처녀가 나물을 캐러 가서 지금의 각시당이 있는 자리에서 떨어져 죽었다. 한 나무꾼이 장자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죽은 처녀를 발견하여 지금의 각시당 동굴에서 모신 후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는데 깨어나 보니 시신은 엉뚱하게도 산이 아닌 바닷가에 내려와 있었다. 그 때부터 죽은 그 각시의 영험을 잊지 않고 다시 그런 영험을 입기 위해 각시당을 마련하고 그 영령을 모시기 시작했다. [전금순(여, 1921년생, 용호동 쉼자리 거주) 구술. 1997년 채록.]

* 부산남구민속회, 『남구의 민속과 문화』, 젊은그들, 2001, 236쪽.

[남구 설화 2]

각시당(아씨당) (2)

옥황상제의 딸이 하늘에서 죄를 지어 지금의 용화사라는 곳에 내려와 살다가 죄를 사하고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 용을 타고 올라가는데 용이 여의주를 2개나 물고 올라가다가 옥황상제의 노여움을 사서 다시 이곳 산에 떨어져 죽었다. [오미주(여, 1924년생, 용호동 쉼자리 근처 거주) 구술. 1997년 채록.]

* 부산남구민속회, 『남구의 민속과 문화』, 젊은그들, 2001, 236쪽.

[남구 설화 3]

계석골 산신제

김녕 김씨 김윤만 씨의 선조께서는 다대포 첨사 윤홍신 장군과 같이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신 분으로 1549년 당시 가옥이 세 채밖에 없는 분포(지금의 용호동)에 이주하여 살게 되었다. 그런데 이 집에 과객이 너무 많이 들어와 부인네들의 고생이 말이 아니었다(이 대목에서 어떤 할아버지는 그 당시 파평 윤씨가 세도를 부리며 살았고 이 일은 윤씨 집안에서 일어났다고 이야기했다). 그 당시는 세 끼 끼니를 준비할 때마다 방아를 찧어 준비를 해야 했던 시절이었다. 부인네들이 방아를 찧으며,

“이 방아를 언제나 면하겠노?”

라고 탄식을 하고 있었을 때,

“그거 간단하다.”

라고 뒤에서 대답하는 스님이 있었다는 것이다.

“올라 오셔서 의논해 봅시다.”

하고 불러들였는데, 그 스님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다.

“요 앞 장자산에 올라가 보면 머리는 대마도를 바라보고 꼬리는 용호동 쪽으로 내리고 있는 호랑바위(소같이 생긴 바위라고도 함)라는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만 깨뜨리면 되오.”

이 말을 들은 아낙은 아들 삼형제를 불러 바위를 깨뜨리도록 시켰다. 세 아들은 정과 망치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 대마도 쪽을 보고 있는 머리 부분의 바위를 깨뜨렸다고 한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이유도 없이 세 아들이 죽었다. 크게 잘못된 것을 깨달은 김씨는 깨어진 바윗돌을 세 개 주워와 모셔놓고 일 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윤경윤(남, 1927년생, 용호동 거주), 김윤만(남, 1916년생, 용호동 거주) 구술. 1997년 채록.]

* 부산남구민속회, 『남구의 민속과 문화』, 젊은그들, 2001, 238-239쪽.

2. 해운대구 설화

[해운대구 설화 1]

운봉산(雲峯山)의 효녀(孝女) 김씨(金氏) 설화(說話)

이 설화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앞부분만 실려 있는데, 『동래부지(東萊府誌)』에는 앞뒤 부분이 다 실려 있다.

동래부지 효자 효녀 편에는

金氏 萬戶金寶之女 天性至孝 父病 呼天翌日 如取不天吾 當自盡 及父沒 誤其弟日 汝生事母 我死事父 自縊 成宗二十二年亭聞旌閭

만호(萬戶) 김보운⁷⁹⁾의 딸인 김씨(金氏)는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그 부친이 병들었을 때, 하늘을 우러러 “만약 하늘이 돕지 않으면 나는 응당 죽으리라”고 맹세하였다. 그의 부친이 병으로 죽자, 그의 동생에게, “너는 어머니를 섬기고 살아라. 나는 죽어 아버지를 섬기겠다.”라 말하고 목을 매어 죽었다. 조선 성종 22년에 나라에서 정려를 세워주었다.“고 되어 있다.

한편 동래부지 이문(異聞) 편에는,

孝女金氏 墓在於府東二十里許 雲峰山下 壬辰兵燹 倭賊掘之 及平亂後 一日夜 夢見於水使曰 我是本府孝女金氏也 墓在府東而不師爲倭寇所掘 暴骸已久 無人拾埋 願乞藁裡之土 以掩暴露之骸 水使遽然而寤 心中恢疑 翌朝 詢問左右 果有孝女金氏 而聞其墓在雲峰山麓 令人往視則 果爲賊所掘出矣 收斂骸骨 安厝舊壙 成墳致祭而去 是日夜 金氏復入夢謝之云 墓尚在俗傳

효녀(孝女) 김씨(金氏) 묘는 운봉산 밑에 있었는데, 임진왜란 때 왜적

⁷⁹⁾ 원문에는 김보(金寶)라고 되어 있다.

이 그 무덤을 파헤쳐 놓았다. 난이 평정된 후 어느날 밤 수사(水使)의 꿈에 김씨(金氏)가 나타나 “저는 동래부(東萊府) 효녀(孝女) 김씨(金氏)로 불행(不幸)히 저의 묘가 왜구(倭寇)의 파헤침을 입어 뼈가 드러난 지 오래인데도 뼈를 수습하여 묻어주는 (이가)⁸⁰⁾ 없으니 원컨대 뼈를 거두어 묻어주시길 바랍니다.”라 하였다.

수사(水使)가 놀라 깨어 이상히 여기고 다음날 좌우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과연 효녀(孝女) 김씨(金氏)가 있고, 그 묘가 운봉산록에 있다는 것을 듣고는 사람을 시켜 가보게 하였더니 묘가 파헤쳐져 있었으므로 해골(骸骨)을 거두어 옛 무덤에 잘 묻고 제사를 지내주고는 돌아왔다. 그날 밤 김씨(金氏)가 다시 수사의 꿈에 나타나 고맙다고 사례하였다는 내용(內容)이다.

이 설화는 풍속교화(風俗教化)를 위한 설화로 조선시대(朝鮮時代)에는 유교적 인간상을 정립하고자 부녀(婦女)와 어린이들에게 삼강행실(三綱行實)을 교육시켰을 뿐만 아니라 삼강오륜(三綱五倫)을 잘 받들고 실천(實踐)한 사람에게 나라에서 시상을 하였다.

임란 뒤 유교적 윤리(倫理)가 허물어지고 인심이 각박해지자 파괴된 삼강오륜(三綱五倫)의 윤리(倫理)를 재건(再建)하고 유교적 질서(秩序)를 회복(回復)하기 위한 풍속교화(風俗教化)의 전설(傳說)인 것이다.⁸¹⁾

* 해운대구, 『해운대구지』, 대원인쇄문화사, 1994, 455-456쪽.

[해운대구 설화 2]

운봉산 효녀 전설

효녀 김 씨의 묘가 부의 동쪽 20리 가량 떨어진 운봉산(雲峰山) 밑에 있었는데, 임진왜란때 왜적이 발굴하였다. 난이 평정된 후 어느 날 밤, 한 여인이 수사(水使)의 꿈에 나타나서 말하기를 “나는 본 부(府)의 효녀 김씨

80) 원문에는 없는 부분이다. ‘이가’를 넣어야 자연스럽다. 인쇄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

81) 이상은 『新增東國輿地勝覽』, 『東萊縣』人物 孝子條와 『東萊府誌』(朴師昌, 1740), 『異聞』條에 기록된 내용을 풀어서 쓴 것임. 원문의 한자어는 모두 () 안에 처리했다.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154쪽에는 위에서 “만호 김보운의”부터 “사례하였다”까지의 내용 중 한문 원문을 제외하고 수록함.

입니다. 묘가 부의 동쪽에 있었는데, 갑자기 왜구가 와서 발굴하여 해골이 드러난 지 이미 오래되었으나, 아무도 거두어 묻어 주지 않으니 원컨대 수사께서는 한 줌 흙으로 드러난 해골을 덮어주소서”라고 하였다.

수사가 꿈을 이상히 여겨 다음날 아침 사람들에게 물으니 과연 효녀 김 씨라는 여인이 있었다 하여, 그 묘에 대해 묻자 운봉산 기슭에 있다고 하였다. 사람을 보내 살피도록 하니 과연 적이 묘를 파헤쳐 놓았다. 수사는 해골을 수습하여 본 자리에 안장하고 분묘를 만들어 제사를 지내는 돌아갔는데, 이 날 밤에 김 씨가 다시 꿈에 나타나 감사하다고 말하였다 한다. 묘는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⁸²⁾

*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천년의 향기 해운대 이야기』, (주)디알, 2011, 260쪽.
반송향토지 편찬위원회, 『반송향토지』, (주)국제신문, 2011, 394쪽.

[해운대구 설화 3]

운봉산의 효녀 김씨 설화

이 설화는 「동래부지」에 실려 있는데, 동래부지 효자 효녀 편에는 김보운의 딸인 김씨는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그 부친이 병들었을 때 하늘을 우러러 만약 하늘이 도우지 않으면 나는 응당 죽으리라고 맹세하였다. 부친이 병으로 죽자 그의 동생에게 “너는 어머니를 섬기고 살아가는 죽어 아버지를 섬기겠다”라 말하고 목을 매어 죽었다.

조선 성종22년에 나라에서 동래부지 이문 편에는 효녀 김씨 묘는 운봉산 밑에 있었는데 임진왜란 때 왜적이 그 무덤을 파헤쳐 놓았다. 난이 평정된 후 어느 날 밤 수사의 꿈에 김씨가 나타나 저는 동래부 효녀 김씨로 불행히 저의 묘가 왜구의 파해침을 입어 뼈가 드러난 지 오래인데도 뼈를 수습하여 묻어주는 이가 없으니 원컨대 뼈를 거두어 묻어주시길 바랍니다.”라 하였다. 수사가 놀라 깨어 이상히 여기고 다음날 좌우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과연 효녀김씨가 있고 그 묘가 운봉산록에 있다는 것을 듣고는 사람을 시켜보게 하였더니 묘가 파헤쳐져 있었으므로 유골을 거두어 옛 무덤에 잘 묻고 제사를 지내 주고는 돌아왔다. 그날 밤 김씨가

82) 『동래부지(東萊府誌)』 이문(異聞)의 기록에 의한 것임.

다시 수사의 꿈에 나타나 고맙다고 사례하였다고 전해온다.

이 설화는 풍속 교화를 위한 설화로 조선시대에는 유교적 인간상을 정립하고자 부녀와 어린이들에게 삼강행실을 교육시켰을 뿐만 아니라 삼강오륜을 잘 받들고 실천한 사람에게 나라에서 시상을 하였다. 임란 뒤 유교적 윤리가 허물어지고 인심이 각박해지자 파괴된 삼강오륜의 윤리를 재건하고 유교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풍속교화의 전설인 것이다.

* 해운대구청 홈페이지(<http://www.haeundae.go.kr>).

[해운대구 설화 4]

무지개산의 연못

해운대구 반송2동 개좌산 중턱 419번지에 72년도부터 개운사가 창건되어 자리하고 있는데, 이 절이 창건되기 전에는 연못이 있었다. 지금은 연못 대신 가장자리에 우물을 형성하여 약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반송 동민은 물론이고 인근 동래구 주민을 비롯 부산 시내 일원에서도 약수를 가지러 오고 있다.

개운사가 위치한 이 골짜기를 주민들은 ‘참은골’이라고 통칭하였으며, 이곳 개좌산을 무지개산이라고 불러왔다. 구전에 의하면 ‘참은골’이라 함은 다 같은 반송지역에서도 이 골짜기만큼은 유독 기온이 낮아 차가워 ‘참은골’인데, 지금도 골짜기는 타 지역보다 이른 봄의 개나리·목련화·진달래꽃 등이 20일에서 한 달 가량 늦게 피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개운사 약수는 다른 우물에 비하면 5도에서 10도 가량 낮아 냉장고의 생수라고 한다. 또 특이한 것은 땅 속의 바위 반석에 있는 구멍에서 물이 솟고 있다. 그래서 이 우물과 무지개산의 연못에 얽힌 구전을 소개한다.

지금은 빌라·아파트·일반아파트 등이 개운사 절 앞에 세워져 있어 환경으로 보아 꿈같은 이야기가 될지 모르나, 반송동의 옛 노인네들의 말에 의하면 나라에 크고 작은 경사나 반송동의 크고 작은 경사가 있을 때마다 이곳 연못에서 무지개가 아침저녁 하루에 두 번씩 꼭 뻗었다고 한다. 하늘의 옥황상제에게 일곱 딸이 있었는데, 한번에 3~4명씩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고 한다. 아침에는 용의 무지개를 의지하여 내려오며 용의

등에는 옥황상제의 딸 선녀들이 3~4명씩 타고 내려와 이 연못에서 목욕을 하고 등성이 하나 넘어 운봉마을까지 가서 놀았다고 한다.

운봉마을은 지금도 산수가 수려하여 비단결을 연상하게 한다. 이곳에서 선녀들이 하루 종일 노는데, 춤도 추고 노래도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이 하강하여 놀 때는 세속의 눈을 가리고자 구름이 항시 끼어 있었다고 하여 구름 운(雲)자와 산봉우리 봉(峯)자를 합쳐 운봉(雲峰)이라 하게 되었고, 하루 종일 놀다 등천할 때는 연못으로 다시 돌아와 무지개를 따라 용을 타고 등천하였다고 한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기 3일 전에도 무지개가 아침저녁 두 번 뻗어 선녀들이 목욕하고 놀다 갔으며, 이승만 초대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던 대한민국 출범 때도, 부산시가 직할시로 승격될 때도 2,3일 전에 무지개가 뻗었다고 전해오고 있다.

* 해운대구, 『해운대구지』, 대원인쇄문화사, 1994, 451-452쪽.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150-151쪽.

* 해운대구청 홈페이지(<http://www.haeundae.go.kr>).

[해운대구 설화 5]

와우산(臥牛山) 대보름달 전설(傳說)

옛날 연대는 알 수 없으나, 해운대 어느 양반집 도령이 사냥을 매우 좋아하여 매일 사냥을 나갔다. 어느 날 도령은 와우산 계곡에서 나물을 캐던 미모의 처녀를 만나게 되었다.

도령은 처녀에게,

“무슨 짐승을 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으니, 처녀는 못 보았다고 대답하자, 도령은 그냥 아쉬운 듯 지나갔다.

한참 후 어디서인지 송아지 한 마리가 처녀 앞에 다가와서, ‘음매 음매’ 울며 갈 줄을 모르더니, 날이 저물어 처녀가 귀가하게 되었는데, 송아지도 처녀의 집까지 따라왔다.

그날 송아지는 처녀의 보호를 받으며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처녀는

송아지를 데리고 어제 갔던 계곡으로 나물을 캐러 갔는데, 이제까지 따라오던 송아지는 간 곳이 없고, 어제 만났던 도령이 나타나 처녀와 인사를 나눈 후 헤어지면서, 내년 정월 대보름날 달이 뜰 때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다 한다. 그 후 도령과 처녀는 서로 연모하게 되었고, 이듬해 정월 대보름날 달이 뜰 때 다시 만나 달을 보고 서로가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소원하여 그 뜻을 이루었다 한다.

이 소문이 나자 그때부터 선남선녀들은 정월 대보름날 와우산에 올라 달에게 그들의 소원을 빌었다고 한다.

* 해운대구, 『해운대구지』, 대원인쇄문화사, 1994, 452-453쪽.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152쪽.

[해운대구 설화 6]

와우산 대보름 전설

어느 옛날 해운대 양반집도령이 사냥을 매우 좋아하여 매일 사냥을 나갔다. 어느 날 도령은 와우산 계곡에서 나물을 캐던 미모의 처녀를 만나게 되었다. 도령은 처녀에게 “무슨 동물을 보지 못했습니까?” 하고 물으니 처녀는 못 보았다고 대답하자 도령은 그냥 아쉬운 듯 지나갔다.

한참 후 어디서 인지 송아지 한 마리가 다가와 처녀 앞에서 음매, 음매 울며 갈 줄 모르더니 날이 저물어 처녀는 귀가하게 되었는데 송아지도 처녀의 집까지 따라왔다. 그날 송아지는 처녀의 보호를 받으며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처녀는 송아지를 데리고 어제 갔던 계곡으로 나물 캐러 갔는데 이제까지 따라오던 송아지는 간 곳이 없고 어제 만났던 도령이 나타나 처녀와 인사를 나눈 후 헤어지면서 내년 정월 대보름날 달이 뜰 때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다 한다.

그후 도령과 처녀는 서로 연모하게 되었고 이듬해 정월대보름 달이 뜰 때 다시 만나 달을 보고 서로가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소원하여 그 뜻을 이루었다 한다.

* 해운대구청 홈페이지(<http://www.haeundae.go.kr>).

[해운대구 설화 7]

개좌골(開佐山)에 얹힌 전설(傳説)

해운대구 반송2동 운동부락과 양산 철마면 경계지점인 계곡을 예로부터 개좌골(開佐山)이라 불러 지금까지 전해내려 오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지명을 갖게 된 전설의 유래를 보면,

임진왜란이 일어난 후부터 철마면 장정들은 모두 부산에 있는 각 진영에 입방군으로 복무하게 되었다. 이곳 연구리라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던 서홍(徐弘)⁸³⁾도 부산성의 입방군으로 복무하게 되었다. 자기 집에서 부산성까지는 60리가 넘는 먼 거리였다. 그는 이런 먼 길을 걸어서 낮에는 입번(入番)을 하고 밤에는 부모님이 계시는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극진한 효도를 하였다. 혹독한 추위와 폭설로 산길이 막히고 폭우로 길이 없어져도 한 번도 빠짐없이 60리 길을 내왕하였는데 그는 혼자 다니기가 외로워서 누렁개 한 마리를 길동무로 삼아 언제나 데리고 다녔다.

어느 해 이른 봄철이었는데, 이날따라 무척 피곤한 서홍은 어느 때와 같이 입번을 마치고는 부랴부랴 걸음을 재촉하여 60리 길을 걸어서 이곳 개좌산 고갯길까지 왔던 것이다. 이제 집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는지라 피곤한 몸을 잠깐 쉬어 가려고 들고 있던 횃불을 돌 위에 놓고는 깜박 잠이 들고 말았다. 그 사이에 횃불이 풀섶에 번져 곤히 잠든 서홍은 불길이 휩싸이게 되었다.

이를 본 누렁개는 멍멍 짖으면서 주인의 옷자락을 물고 흔들며 깨웠지만 깊은 잠에 빠진 주인은 깨어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누렁개는 산 밑에 있는 개울까지 달려가서는 온몸에 물을 묻혀 달려와서 주인이 잠든 주위의 풀섶에 물을 적셔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았다. 이 누렁개는 주인을 살리고자 필사적으로 있는 힘을 다하다가 그만 지쳐 끝내 연기에 질식사하여 죽고 말았다.

이 일이 알려지자 그 효자에 그 충견이라 하여 모두가 칭송하였고 부산첨사는 서홍의 군역을 면하게 하여 주었고, 연구리에 효자비를 세웠는

83) 『기장현읍지』 인물조에는 서홍(徐弘), 광무 3년에 편찬한 『기장군』 인물조에는 서홍인(徐弘仁)으로 되어 있다.

데, 그 비각이 아직도 보존되어 있으며, 그 일이 있는 후부터는 그 산고개를 개좌산이라 불렀다고 전하여 오고 있다. 기장현 읍지에 서흥의 효행록이 이와 비슷한데, 충견의 전설은 빠져 있다. 우리나라의 전설집에 주인의 생명을 구한 충견의 전설은 몇 가지 있지만은 이처럼 실감나게 하는 전설은 찾아볼 수 없다.

* 해운대구, 『해운대구지』, 대원인쇄문화사, 1994, 454-455쪽.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153-154쪽.

* 해운대구청 홈페이지(<http://www.haeundae.go.kr>).

[해운대구 설화 8]

범바위 전설

현재 반송 1동 장산 산 밑 보경사 경내에 있는 바위를 범바위 혹은 용바위, 거북바위라 부른다.

옛날 옛적 그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한 여인이 자식이 없어 백일기도를 올리던 중, 마지막 날 밤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내일이 산에 상여가 올라오는데 묘소를 쓰려고 할 때 이 바위가 장애가 된다고 하여 상주들이 인부를 데리고 와서 이 바위를 깨뜨리려고 할 것이다. 그때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이 바위를 깨지 못하게 말려야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할 때 좋지 못한 일이 생길 것이다’라 하였다.

그런데 뒷날 꿈대로 상여가 올라오고 상주들이 몰려와 이 바위를 깨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바위를 깨면 안 된다고 여인이 극구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상주들은 인부들을 시켜 바위를 깨고 말았다고 한다.

그 바위가 깨지면서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그 자리에서 백일기도 드리던 여인과 상주, 그리고 인부들 모두가 죽고 말았다 한다. 그런 뒤부터는 비만 오면 바위가 붉은 빛이 나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검은 빛이 된다고 한다.

* 해운대구, 『해운대구지』, 대원인쇄문화사, 1994, 458쪽.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154-155쪽.

* 해운대구청 홈페이지(<http://www.haeundae.go.kr>).

[해운대구 설화 9]

한 자루의 금침(金針)

오산마을은 중동의 본거지였다. 그 옛날 이곳 주택은 토담으로 된 초가집뿐이었다. “이곳에 기와집을 지으면 망한다”는 말이 전해오고 있는데, 아마 그것은 머귀나무가 많아 이 나무로 집을 지으면 기와에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생긴 말이 아닌가 생각된다.

옛날부터 오산마을 사람들은 구남들과 장자들에 농사를 지어 가면서 용기종기 잘 살고 있었다. 지금부터 1백 50여 년 전 조선 말 때 어느 과객이 오산마을을 지나던 중 날이 저물어 하룻밤을 묵어가야만 했다. 그러나 흥년 타인지 인심이 좋지 못해 그런지, 여러 개의 대문을 두드렸으나 대문 앞에서 내쫓김을 당하였다. 갈 곳이 없어 이리저리 헤매다가 마지막으로 배(裴)씨 집을 찾으니 허락을 해 겨우 풍찬노숙을 면하게 되었다.

배씨의 후덕한 인심에 대한 보답으로 그 과객은 하룻밤을 잘 자고 식사대접을 받은 후 가면서, 커다란 금침과 함께 독특한 약초의 처방으로 독사에 물린 사람을 살려 내는 비방을 가르쳐 주고 떠났다.

당시 오산마을에는 말이 많아 독사가 우글거려 독사에 물리는 사람이 많았다. 독사에 물린 사람에게 금침을 백회혈(百會穴, 머리 숨구멍 자리)에 꽂아 독혈을 뽑아내게 한 뒤, 개구리를 먹이고, 약초로써 다스리는 이 가전 비방은 지금도 전수되어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리하여 뱀 독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과객의 당부가 있어 일절 치료비를 받지 않았고 쌀이나 보리쌀 몇 되를 받는 게 고작이며, 남에게 비방을 가르쳐 주지는 않았다. 독사에 물린 지 48시간 이내면 모두 살려 냈다고 한다.

어느 날 병원에서 배씨 집으로 전화가 왔다. 어디에서 소문을 들었는지, 독사에 물린 위독한 사람이 있으니 치료를 좀 해달라는 것이었다, 병원에서 치료를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기적같이 말끔히 고쳐버리니, 의사들이 야단법석이었다. 돈을 얼마든지 낼 테니 비방을 가르쳐 달라는 부탁이 쇄도하여 친척 세 사람에게 비법을 가르쳤으나 별 효험을 보지 못했다.

독사에 물려 장님이 되거나, 정신 이상자가 되거나, 또 죽어가는 사람

을 여름 한철에 15명 정도만 치료하고 있다. 이 비법은 그 옛날 적선의 뱃가인 집안 내력의 특별한 처방이라 오늘도 독사에 물린 사람을 거뜬히 완치시켜 새 생명을 탄생시키고 있다고 한다.

* 해운대구, 『해운대구지』, 대원인쇄문화사, 1994, 458-459쪽.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155-156쪽.

* 해운대구청 홈페이지(<http://www.haeundae.go.kr>).

[해운대구 설화 10]

해운대 신어상에 얹힌 전설

하늘이 열린 지 얼마 되지 않으며 땅이 굳은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지금의 우리 해운대 고장에는 ‘무궁(無窮)’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이 나라는 본래 나라를 다스릴 임금이 없었으나 하늘이 특별히 보내준 금상자 속에 황금알을 깨고 나온 어린 아이가 십여 일만에 성인으로 자라나서 왕위에 오르니 나라의 이름을 ‘무궁’이라 지었다.

하늘의 은혜로 임금이 되었다 하여 ‘은혜왕’이라 불리우면서 날이 갈수록 번창하는 나라로 발전해 가던 중 임금에겐 마땅한 왕비가 없어 모든 신하들이 왕비감을 찾으며 결혼할 것을 원하였으나 은혜왕은 굳이 이를 사양하고 하늘이 보내줄 왕비만을 기다렸다고 한다.

이 때에 멀리 바다 건너 ‘나란다’라는 나라가 있었다. 이 나라는 본래 바다 속에 있었던 ‘수정국(水晶國)’ 나라와는 부모와 같은 나라였고 그들의 몸 끝에는 고기지느러미가 옷 속에 감추어져 있었다고 한다.

‘나란다’의 임금과 왕비가 첫 여자아이를 낳으며 선례(先例)에 따라 공주의 이름을 부모의 나라인 수정국에 가서 지어와야 하므로 특사로서 거북이를 보내었는데, 이 거북이가 그 옛날 용왕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토끼를 잡아 갔다가 놓쳐버려 수정국으로부터 쫓겨난 그 거북이었다.

수정국의 늙은 대왕대비께서 이 공주의 이름을 황옥(黃玉)공주라 지어왔으며, 이 거북이는 아직도 살아남아 황옥공주를 그리며 동백섬을 맴돈다는 전설이 있다고 한다.

이 황옥공주는 선녀처럼 아름답게 자라매 나란다 임금과 왕비가 시집

보낼 신랑감을 찾고 찾았으나 어느 날 꿈속에서 신령이 나타나, 바다 건너 무궁국의 은혜왕에게 시집을 보내라는 현몽을 하게 되어 마침내 무궁국의 은혜왕과 나란다국의 인어공주 황옥이 짝을 맺으니 그 홍옥왕비가 머문 곳(궁궐)이 지금의 동백섬(거북산)이라,

황옥왕비가 처음으로 무궁국의 땅인 동백섬에 내려서 수정국의 대왕대비인 외할머니가 일러준 말씀대로 겹겹이 걸쳐 입은 옷 중에서 제일 깊은 속치마를 벗어 산신령에게 바치니 저녁노을 빛에 반짝이는 속치마는 바람에 나부끼며 높푸른 하늘 멀리 날아가고 갑자기 발이 갇쳐어진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

세월이 흐르고 달이 흐르매 황옥왕비는 외할머니의 나라인 ‘수정국’을 매우 그리워하였다.

옆에서 항상 모시고 있던 거북이가 안타깝게 여겨 수정국 외할머니가 선물한 황옥을 왕비에게 주면서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이 황옥을 꺼내어 달을 비쳐보라고 일러주었다.

황옥왕비는 그 황옥을 달에 비쳐보니 어느덧 눈앞에는 꿈속에도 그리던 수정국과 나란다국의 아름다운 달밤이 나타났다고 한다.

물론 황옥왕비도 그때는 황옥공주로 변신되어 바닷속을 마음대로 헤엄칠 수가 있었다고 하며 이것을 가끔 목격한 사람들이 동백섬 앞바다에는 인어가 있다는 풍문과 함께 오늘날까지도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이다.⁸⁴⁾

* 해운대구, 『해운대구지』, 대원인쇄문화사, 1994, 612-614쪽.

[해운대구 설화 11]

재송동의 고당신(高堂神)

지금으로부터 약 2천년 전 재송동의 장자별이라는 농경지에 고씨(高氏)들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레와 함께 하늘에서 선인(仙人)이 내려와 마을의 예쁜 처녀 고선옥(高仙玉)과 부부의 인연을 맺고 슬하에 10남 10녀를 두고 살았다.

84) 『삼국유사』 「가락국기」를 보고 지은 이야기다.

그 뒤 회혼일(回婚日)에 선인은 부인과 자식들을 두고 옥황상제의 부름을 받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부인은 그 때부터 자녀를 낳던 제왕반 바위 아래 호롱불을 켜고 외가리 사원에서 불공을 드리며, 부부암 위에 올라가 남편인 선인이 돌아오기를 기원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마침내 자리에 눕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부인의 꿈속에 선인이 나타나 ‘나를 찾을 생각은 말고 나의 형제나마 보고 싶거든 장산 정상으로 오시오’라는 말을 남겼다.

부인은 잠에서 깨어나자 곧바로 장산 정상으로 오르다 정상 가까이에 서 그만 미끄러져 숨을 거두었다.

그 뒤 신라 초기에 이곳 주민들이 고씨 할머니의 고귀한 망부심과 유덕을 길이 기리기 위해 장산에 제당을 지어 당산 할머니로 모시고 매년 정월 보름날 해가 질 무렵 동태민안(洞泰民安)과 재앙이 없기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 김승찬·황경숙 편저, 『부산의 당제』,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5, 224-225쪽.

[해운대구 설화 12]

장산 춘천의 애기소

『동래부지』 산천조에 ‘여기담(女妓潭)은 동래부의 동쪽 15리에 있다’고 기록돼 있는데, 여기담은 ‘애기소’를 지칭한 것이다. 애기소는 구시폭포에서 계곡을 따라 500m쯤 내려가면 ‘애기소’가 있다. 이 애기소를 일명 ‘감태소’라고도 칭하는데, 이 소에는 아이를 뱀 처녀가 투신하여 죽었다는 말이 전해 오고 있다.

처녀가 투신 자살한 이후, 이 소에서 놀던 처녀들이 실족(失足)하여 익사하는 일이 종종 생겨 나는 일이 있었는데, 이는 처녀의 원귀(冤鬼)가 처녀들을 유인하여 죽게 만든다는 속신이 전해오고 있다.

애기소에 내려가면 개울가에 석태암이라는 암자가 있다. 이 암자는 처녀의 원혼을 달래어 극락세계로 천도하기 위해 불사한 암자라 한다.

* 『동래부지』. 주영택, 『해운대 역사와 문화를 만나다』, 해운대지구 향인회, 2010, 15쪽.

[해운대구 설화 13]

동백섬에 솟아난 여인 님의 동백나무

동백섬은 먼 옛날에는 섬이었다, 인근 마을에서는 다리미산이라 불렀고 또한 앞섬이라고도 불렀다.

어느날 운촌 마을 사람들이 앞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갯가에서 조개를 캐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풍에 거센 파도가 일어났다. 고기를 잡던 어부나 조개를 줍던 아낙네들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으나 한 어부만이 행방불명이 되었다.

실종된 어부의 아내는 다리미산 꼭대기에 올라가 밤낮 울면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끝내 죽고 말았다.

이 슬픈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그 다음날 산꼭대기에 올라가 여인이 죽은 자리에 시신을 수습하여 묻었다.

몇 년 뒤 여인이 죽어 묻힌 묘등에 동백나무가 솟아나와 동백꽃 한 송이가 붉디붉은 꽃을 피웠다. 그후 이 섬에는 동백나무가 숲을 이루게 되어 동백섬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또 다른 전설은 옛날 이 섬에 귀양을 온 한 쌍의 부부가 땅을 개간하고 고기잡이를 하며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남편이 고기잡이를 나간 사이에 도둑이 들어 아내의 몸까지 요구하였다. 아내는 달아나다가 벼랑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다.

고기잡이에서 돌아오던 남편은 물 위로 떠오른 아내의 시신을 거두어서 이 섬 정상에 묻었다. 그 뒤 아내의 무덤에서 절개를 상징하듯 눈보라 속에서도 붉은 꽃이 피어났는데, 그 꽃이 바로 동백꽃이고 세월이 흐르면서 온 섬으로 번졌다. 그래서 동백꽃을 여심화(女心花)라고 하고, 이 섬을 동백섬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주영택, 『해운대 역사와 문화를 만나다』, 해운대지구 향인회, 2010, 266-267쪽.

[해운대구 설화 14]

범골 호랑이와 바구니

못안마을 뒷산, 장산 유격장 입구를 지나 약수암에 오르면 바위가 마치 호랑이가 입을 벌린 형상으로 된 굴이 서쪽으로 백 미터쯤 길게 뻗어 있다. 이 굴에 호랑이가 살았기 때문에 범바위 또는 범굴이라 하고, 이 골짜기를 범골이라 불렀다.

마을 할머니들은 ‘정가아네(정씨 집안 아낙네) 요강 들고 간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은 ‘호랑이를 피해서 저녁 일찍 방안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뒷산 범골에 호랑이가 살았기에 밤에 여인들이 소변을 바깥 변소에서 하기가 무서워 요강을 방안으로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이다.

어느 날, 마을 아낙네 다섯이 봄나물을 뜯으러 범골에 갔다. 나물을 뜯다가 한 아낙네가

“보이소, 여기 와 보이소, 강아지 같은 것이 여섯 마리가 있소.”
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말을 듣자마자 아낙네들이 그 곳으로 와 보니 동물새끼가 있어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워 쓰다듬고 안고 서로 즐기고 있었다. 그 동물 새끼는 틀림없이 호랑이 새끼였는데, 그들은 호랑이라는 말만 들었지 실제 호랑이를 본 적은 처음이었다.

멀리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어미 호랑이가 자기 새끼들을 좋아하는 것이 즐거웠던지 ‘으르렁’ 산이 진동하는 소리를 질렀다.

이 소리를 들은 아낙네들은 기절할 정도로 놀라서 ‘다리야 날 살려라.’면서 나물바구니를 그냥 버리고 도망을 쳤다. 어떻게 집에 왔는지 무사히 돌아왔으나 버리고 온 바구니가 아까웠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대문에 나가보니 바구니가 각자의 대문 앞에 놓여 있었다.

이는 자기 새끼를 좋아하는 것을 보고 고맙다는 회답으로 ‘으르렁’하였는데, 아낙네들은 호랑이가 자기들을 해칠까 놀라 도망친 것이었다.

못안마을 뒷산 범골에는 범바위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

* 주영택, 『해운대 역사와 문화를 만나다』, 해운대지구 향인회, 2010, 267쪽.

[해운대구 설화 15]

몰리못 너럭바위의 새기장수

구 연 자 : 김만년(여, 89)

구 연 일 : 2005. 10. 20.

구연장소 : 해운대구 장지마을

장지(叢旨)마을의 물리못 부근에 너럭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에는 어린이 머리 모양과 엉덩이 모양이 새겨져 있다.

옛날 이곳 부근에 한 정승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정승의 며느리가 임신을 하였다.

어느 날 바람결을 타고 들려오는 말이,

“아이를 집안에서 낳으면 나라 관리가 들이닥쳐 아이를 죽일 것이니, 멀리 가서 낳고는 버리고 오라.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고 날개가 달린 장수인 고로 나라에서 잡아 죽이려 하니 버리면 아이가 그냥 자라서 나라를 구할 것이다.”

라 하였다.

정승 며느리는 순산 날에 멀리 떨어진 너럭바위에서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아이가 얼마나 힘이 세었던지 머리 부위와 엉덩이 부위가 그 모양대로 파져서 바위 위에 새겨졌다. 아이를 낳을 때 탯줄을 끊으려고 하니 아무 것도 없어 어미가 칙닝쿨로 탯줄을 끊어 아이를 내버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소식을 들은 나라 관리가 며느리를 찾아와 목에다가 칼을 겨누며,

“아이를 어떻게 했느냐? 바른 말을 하라.”

고 하여, 하는 수 없이

“아이를 바위 위에 놓아두고 집으로 왔다.”

고 말하였다.

나라 관리가

“탯줄은 무엇으로 끊었느냐?”

고 물어,

“옆에 있는 칙닝쿨로 끊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니 나라 관리가 바위 옆의 칙닝쿨을 끌어올리니 아이가 그 줄에 딸려 나왔다.

아이는 온 몸이 비늘로 감싸여 있었고, 양 어깨에는 날개가 나 있었는

데, 하루만 더 있었으면 그 날개가 완전히 나와 하늘로 날아 나라를 바꿀 수 있었는데, 하루 앞날에 발견되어 장수가 되지 못하고 평범한 아이가 되어버렸다.

지금도 머리 부위와 엉덩이 부위의 모양이 새겨져 있는 너럭바위가 물리못 근처에 있다.

* 주영택, 『해운대 역사와 문화를 만나다』, 해운대지구 향인회, 2010, 270쪽.

[해운대구 설화 16]

도채비 영감과 솔리방

도채비 영감이 부산진장에 갔다 오다 남천동의 두운고개에 쉬다가 잠이 들었다. 난데없이 도깨비들이 나타나 ‘도채비 영감 호강시켜 주자’하면서 어깨에 짊어지고 바다를 건너 솔리방에 내려놓고 사라졌다. 깨어보니 미투리 한 짝 없이 집으로 왔다.

“아들아 미투리 한 짝을 내일 새벽에 두운고개로 가 찾아 오너라.”

아들은 거기 가 보니 미투리 한 짝이 있어 가지고 와서 아버지께 드렸다.

* 주영택, 『해운대 역사와 문화를 만나다』, 해운대지구 향인회, 2010, 279쪽.

[해운대구 설화 17]

좌동의 등바우

등바우산 입구에 있는 바위인데, 좌동에 장자가 살았다. 그런데, 과객이 너무 많이 찾아와서 한날 도사가 오기에 장자가 ‘과객이 오지 않는 방법이 없느냐?’ 물어본즉, ‘저 앞에 보이는 등바우를 없애면 과객이 오지 않을 것이다.’라 말했다. 장자는 이 말을 듣고 등바우 세 개 중 한 개를 산 아래로 굴러 떨어뜨려 버렸다. 그 뒤부터는 과객도 오지 않고 장자도 망해 버렸다.

* 주영택, 『해운대 역사와 문화를 만나다』, 해운대지구 향인회, 2010, 300쪽.

[해운대구 설화 18]

장산 선바위

재송동 뒤의 장산 8부 능선(장산의 영감할매바위에서 재송동쪽으로 내려오면 장산 8부 능선 중턱)에 거대한 바위가 서 있는데, 이 바위를 선바위(立岩) 또는 장군바위라 일컫는다. 가뭄이 심하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기우제를 지내기도 한 바위라 한다.

이 바위에 얹힌 전설을 보면, 먼 옛날 마을의 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가 이 바위 옆에 이르니 바위 위에 한 미녀가 앉아 있었다. 나무꾼은 이 산중의 선바위에 남자도 올라가지 못하는 바위 위에 여자가 올라가 앉아 있는 것이 신기하였다.

그래서 나무꾼은 이 바위 위에 앉아 있는 여자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 집으로 돌아와 긴 사다리를 가지고 올라가자 그 여자는 하늘로 올라갔는지 종적이 없고 바위만 우뚝 서 있었다는 것이다.

* 주영택, 『해운대 역사와 문화를 만나다』, 해운대지구 향인회, 2010, 309쪽.

[해운대구 설화 19]

도둑골 전설

현재 반송2동에 있는 자연부락인 본동 마을은 오래전부터 취락이 형성되어 있었다.

현재 반송에서 기장방면의 국도가 생기기 전에는 동래지방 주민들이 기장 방면 쪽으로 내왕할 때 걸어서 본동마을 뒷산 기슭의 오솔길을 따라 안평과 고촌을 경유하여 기장으로 갔었다.

이곳 반송 본동마을 뒤쪽으로 1km정도 가다 보면 현재 광하아파트 뒷산 계곡의 인가가 없는 으스스한 길목에 도적이 숨어 있다가 길가는 행인을 급습하여 금품을 강탈하는 사건이 자주 일어났으므로 당시 주민들은 본동마을 뒷산 계곡을 도둑골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해운대구, 『해운대구지』, 대원인쇄문화사, 1994, 453쪽.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민속』, 서면문화사, 1996, 152-153쪽.

* 해운대구청 홈페이지(<http://www.haeundae.go.kr>).

[해운대구 설화 20]

석대동(石垈洞)의 느티나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 136번지, 마을 뒤 언덕배기 양지바른 곳에 그늘을 짙게 드리운 채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 수령 5백여 년의 느티나무가 있다. 높이는 20m이고, 밑둥치(6.4m)는 네 아름이 넘는 이 느티나무가 시 나무 12호인 이 마을 당산목이다.

이 나무의 잎이 한꺼번에 피면 풍년이 들고 띄엄띄엄 피면 흉년이 든다고 전하여, 이 마을 사람들은 나뭇잎이 피는 모습을 보고, 그해의 살림 규모를 미리 조절해 늘 풍요로운 마을로 가꾸어 왔으며, 이 나무에 신령이 있어 마을의 안녕을 지켜준다고 믿고 사람들의 접근을 철저히 금하고 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의 말에 의하면 옛날 어느 관찰사가 한양으로 가던중 길목이었던 이곳에 들러 쉬어간 것을 기념하기 위해 나무를 심은 것이 지금의 느티나무라고 한다.

주민들은 음력 설달 그믐날 당산나무에 제사를 지낸다. 제주는 집안에 임신부가 없고 상을 당하지 않은 정결한 사람이 된다.

제주가 제물을 보러 갈 때는 반드시 샷갯을 쓴다.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며 다른 주민 모두는 당일 제사가 끝날 때까지 소등하고 마음속으로 함께 치성을 드린다. 몇 년 전까지만 하여도 사람들은 송아지를 잡아 포를 떼서 제수를 마련했으나 지금은 푸줏간에서 고기를 사온다. 이 같은 정성 때문인지 이 마을은 큰 재앙이 없이 지내고 있다.

주민들은 당산나무가 몇 차례 죽을 위기를 맞았으나, 주민들의 정성으로 고비를 넘겼다고 말한다.

일제 때에 일본인 관리가 가구를 만들기 위해 이 느티나무를 베려고 할 적에 전 주민이 이 나무에는 목신이 있으니 두렵지 않는 사람은 베어 보라고 하며 대들자 일본인 관리와 벌목인부들은 슬그머니 뺑소니를 치고 말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 나무도 최근 들어 고령으로 수세가 쇠약하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느티나무는 느릅나무과의 낙엽, 활엽교목으로 수피가 두껍고 수명

이 길어 당산목 또는 정자목으로 많이 가꾸오고 있다. 연한 느티잎은 느티떡을 해먹는데 소용되며, 열매는 10월에 익는다.

* 해운대구, 『해운대구지』, 대원인쇄문화사, 1994, 457쪽.

* 해운대구청 홈페이지(<http://www.haeundae.go.kr>).

[해운대구 설화 21]

청사포 망부송 전설

부산시 해운대구 중2동 594번지의 청사포마을에는 15m 높이에 수령이 300여년 된 소나무가 마을의 수호신처럼 있다.

옛날 이곳 청사포마을에는 정씨와 임씨가 고기잡이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남자들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간 후 마을에 남은 아낙네와 가족들은 고기잡이배들이 혹시나 돌아오지 못하나 걱정하면서 마을 어귀에 있는 바위 위에 걸터앉아 고기잡이 나간 남자들을 기다렸다고 전한다. 그 당시 같은 동래에 살다가 혼인한 정씨 부부는 남달리 금실이 좋아 마을 주민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으며, 평생을 어업으로 생활하는 이들 부부는 지아비가 고기를 잡으러 가면 그 부인은 바위 위에 앉아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곤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고기잡이 나간 지아비(정씨)가 돌아오지를 않았다. 기다리다 지친 정씨 부인이 소나무 2그루를 심고 그 나무에 의지하여 바다를 바라보았으나 수년을 기다려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다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닷물을 가르고 푸른 구렁이(용왕)가 이 여인 앞에 나타나 물길을 인도하여 남편과 상면케 되었으나 남편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나간 사람이 돼 있었다는 전설에서 청사포(靑沙浦)의 원래 지명은 청사포(靑蛇浦)로 모래 사(沙)자가 아닌 뱀 사(蛇)자였다고 전한다.

또 다른 이야기는 정씨부인이 바위 위에 앉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다리다가 더 멀리 먼 바다를 보기 위하여 소나무 위에 올라가서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며 혹시나 돌아오나 애절하게 기다렸으나 끝내 돌아오지 않는 지아비를 기다리면서 죽어간 전설이 전해 내려오며, 앉아 기다렸던 바위를 망부석이라 하며 올라가서 저 멀리 바라보던 그 소나무를 망부송

이라 부른다.

이후 마을사람들은 이곳에 사당을 지어 외롭게 죽어간 부부의 혼을 위로하며 이 나무를 어촌의 수호신으로 모시고 해마다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기 위하여 마을에서 칭송받는 부부를 지정하여 일 년에 2번씩 춘추로 제사를 지내고 있다.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고생하는 가정에서는 이곳에서 정성을 다하여 기도를 드리기도 한다.

* 해운대구, 『해운대구지』, 대원인쇄문화사, 1994, 450-451쪽.

* 해운대구청 홈페이지(<http://www.haeundae.go.kr>).

[해운대구 설화 22]

안적사(安寂寺) 창건 설화

안적사는 신라 30대 문무왕 원년(661)에 원효대사가 창건한 사찰이다. 사기(寺記)에 전하는 창건 유래에 따르면 신라당대 고승으로 화엄일진법계설(華嚴一塵法界說)을 후학에게 설파하고 지도하며 화엄사상을 역설, 구국정신을 고취시켰던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형제의를 맺고 함께 구도의 길을 찾아 명산을 두루 순방하며 정진에 열중하던 젊은 시절의 일화를 남기고 있다.

두 스님은 함께 정진하여 성불할 것을 약속하고 명산을 찾아다니던 중 장산기슭을 지나게 되었다. 장산은 금정산과 마주보고 있는 산으로 산수가 화려하고 멀리 오륙도 앞바다가 한 눈에 들어오는 절경을 갖춘 산이었다. 그런데 이 숲속에서 난데없이 찌꼬리떼들이 모여들어 길을 지나는 두 스님의 앞을 가로 막았다. 이를 이상히 여긴 두 스님은 잠깐 쉬면서 수많은 찌꼬리들이 평화롭게 두 스님의 어깨와 팔에 안기는 것은 필경 상서로운 기운이 이 산에 깃들어 있기 때문이니 이곳에 주석(住錫)을 정하여 정진기로 하고 그곳에 토굴을 지어 의상스님을 살게 하고 원효스님은 지금의 안적사가 있는 자리에 토굴을 지어 수도기로 했다.

각자 피나는 정진으로 세월을 보내던 중 의상스님은 어느 날 부터 날마다 선녀가 울리는 천공(天供)으로 공양을 받게 돼 이를 원효스님에게 자랑하고자 하루는 스님을 청했다. 오랜만에 사형사제(師兄師弟)가 자리

를 같이하며 그간의 도화(道話)를 나누었지만 정작 나타나야 할 선녀는 시간이 지나도 모습을 보이지 않아 의상스님은 애를 태웠다. 이미 그 속을 짐작한 원효스님이 시간이 지나 자신의 토굴로 돌아간 후에서야 선녀가 천공을 갖고 나타나자 의상스님은 몹시 화를 내며 늦은 연유를 물었다. 그러자 선녀는 천공을 가져 오느라니 스님의 토굴 주위에 화광(火光)이 가득 차올라 무서워서 이제야 들어 왔노라고 말했다.

의상스님은 그제서야 원효스님이 신통으로 금강삼매화(金剛三昧火)를 놓으심을 알고 이후 절대 교만심을 버리고 원효스님을 사형(師兄)뿐만 아니라 조사임(祖師任)으로 존경하고 정중히 모시게 되었다 한다. 이후 의상스님은 서로의 정진력 수양이 성불의 길임을 알고 후학 지도를 위해 이곳에 수선실(修禪室)을 넓혀 큰 가람을 신축하여 금강삼매론경등일심법계(金剛三昧論經等一心法界)의 진리를 후학에게 설파, 지도하셨으며 신라의 온 국민에게 화엄사상을 역설하시어 구국정신을 고취시켜 삼국통일에 근간을 이루었다. 그리하여 산중에 들어올 때 찢꼬리 떼들이 모여들어 길을 막았다 해서 이 산을 앵림산(鶯林山)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이곳에서 정진하여 안심입명(安心立命)의 경지를 요달(了達)하여 적멸상(寂滅相)을 통관했다하여 사명(寺名)을 안적사(安寂寺)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로부터 원효스님께서 창건하신 뒤 전국에서 수선납자(修禪衲子)들이 구름 모이듯 하여 남방수선제일도량(南方修禪第一道場)으로 그 이름이 사해(四海)에 높아 온 것이다.

* 반송향토지 편찬위원회, 『반송향토지』, (주)국제신문, 2011, 326-377쪽.

[해운대구 설화 23]

석대 장사

옛날 어느 해 홍수가 나서 석대천 독이 무너져 주변 농토가 휩쓸렸단다. 하천 주변에 농토를 가진 어느 농가에서 자기 집 아들을 시켜 일꾼들을 모집하여 제방을 막기로 하였는데, 아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제방공사를 하는 그날이 되자 부모가 오늘 일꾼이 몇 명이나고 묻자, 여나흔 명(열명)이라고 대답하고 일하러 갔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참 때가 되어 열 명분의 참을 이고 제방공사를 하는 현장에 가보니 일꾼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고 아들놈은 자고 있더라. 어머니가 “일꾼들은 다 어디 갔느냐”고 묻자 “제방을 메우기 위하여 돌과 흙을 지러 갔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참은 거기 두고 가시라고 하더라. 그래서 참을 내려놓고 집을 돌아왔단다. 점심때가 되어 점심준비를 해서 가보니까 아직도 일꾼들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참을 가져온 술통은 이내 깨끗이 비워 있더라. 또 “점심은 거기 두고 가십시오”라고 하고 여전히 누워 있더라.

돌아오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괴이하여 마을 가까이 오다 뒤돌아보니 흙먼지가 자욱하여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더라.

저녁때가 되어 가보니 독은 이미 다 메워져있고 일꾼들은 역시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아들 말은 “일꾼들은 일 다 하고 씻으러 갔으니, 씻고 다들 제 집에 갈 것이니 걱정말라”고 하더라.

그날 밤에 아들 몰래 애 아버지에게 오늘 있었던 사실을 말하니 남편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고 조용히 지켜보기로 하였단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이 아기가 장사라는 소문이 점점 퍼지게 되니 부모심정이 죽을 지경이었다. 당시 조정에서는 ‘장사’가 나면 역모할까 두려워 죄 없이 죽였다고 한다. 드디어 관가에서 알고 잡으러 와서 말꼬리에 머리카락을 매고 달리니 그대로 끌려서 한양까지 갔다나, 그래도 한 번도 반항하지 않고 끌려왔다는 보고를 받고 관가에서 목숨만은 살려 보냈더라. 이미 병신이 다 된 몸이었으나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고 있었다 한다. <자료 제공 : 윤산문화 저자 박석현>

* 반송향토지 편찬위원회, 『반송향토지』, (주)국제신문, 2011, 400쪽.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천년의 향기 해운대 이야기』, (주)디알, 2011, 273쪽.

[해운대구 설화 24]

여우 이야기

여우는 매구 또는 야시, 구미호라고도 부른다. 특히 여우는 피 냄새를 잘 맡아 마을에 사람이 죽는 것을 제일 먼저 안다고 한다. 옛날에 사람

이 죽으면 그날 밤에는 반드시 여우가 마을로 내려오는데 지역주민들은 여우를 잡으려고 내려오는 길목 야산의 밭에 죽은 쥐를 넣은 똥물을 밭 주변에 뿌리고 족쇄를 놓아 잡는데, 여우털로 목도리를 만들면 털이 부드럽고 따뜻해서 최고의 효과가 있다고 했다. 해운대 산간지역, 석대, 반송의 공동묘지 운봉마을 채봉골 주변에 여우굴이 있는데, 사람이 겁을 내면 카카 소리를 내며 사람을 쫓아온다. 영물인 여우에게 혼을 뺏기면 사람이 죽는다는 말이 구전으로 전해온다. 반송본동마을 양두홍 어른은 새벽에 나무하러 가면 여우가 사람키를 뛰어넘어서 빙빙 돌며 정신을 빼놓았다고 했다.

또, 황소 주위를 돌면서 정신을 잃게 만들어 잡아먹는다고 한다. 송정동 공동묘지가 있는 분골에도 날씨가 흐린 어느 날, 이 마을 김봉화 할머니가 가을철 논에 벼를 베고 오는데 어둑어둑해서 뭐가 나올 것처럼 등이 오싹하여 뒤를 돌아보니 여우가 킁킁 거리며 따라왔다. 여우는 애장터(아기들 무덤)에 발로 무덤을 파내어 시체를 먹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큰 돌을 애장터에 놓아 여우의 피해를 예방하였다.

* 반송향토지 편찬위원회, 『반송향토지』, (주)국제신문, 2011, 402-403쪽.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천년의 향기 해운대 이야기』, (주)디알, 2011, 344쪽.

[해운대구 설화 25]

의적 청봉서와 마누라

옛날 동래부에 구차한 집안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정봉서란 사람은 효성이 지극했던 힘센 사나이였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병석에 누게 되어 의원에게 물었더니 개 천 마리를 잡아먹어야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난한 집안에서 개를 천 마리나 구할 길이 없었던 정봉서는 갖은 힘을 다하여 어머니의 병 고치기를 마음속에 다짐했다. 그리하여 길을 걸어가다가도 살찐 개가 눈에 보이기만 하면 냉큼 뒷다리를 잡아 들고 와서 병든 어머니에게 고아 드리곤 했다.

이것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버릇이 되었으니 어머니가 죽고 난 뒤에도

도적으로 생계를 이어 오다가 바늘 도둑이 소도적 된다는 격으로 나중에는 대적이 되었다.

어느 날 동래 성내의 사람들이 기장 철마의 쌍다리 험한 고개에서 험상궂게 생긴 8~9명의 도적패들을 만났다. 도적들은,

“이놈들아 꿈작 말고 제자리에 서거라.”

하며 사납게 호령을 하고는 아무 소리 말고 따라오라고 말했다. 혼이 나간 행인들은 공포에 떨면서 도둑의 무리를 따라 깊은 산중으로 10여리나 되는 먼 길을 끌려 들어갔다. 얼마 후 산중턱에 자리 잡은 그들의 소굴까지 끌려온 행인들은 괴수 앞에 꿇어앉게 되었다.

이때 이리에 쫓긴 어린양 마냥 떨고 있던 행인 중의 한 사람이,

“저희들은 모두 동래 성내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괴수는 무엇을 생각했는지 갑자기 안색이 달라지며 조금 너그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부하들을 시켜 깨끗한 방으로 안내시키고 맛난 음식을 차려 이들을 후하게 대접했다. 이튿날 행인들이 떠날 때는 노자까지 주었다. 이 도적의 괴수가 바로 정봉서였다.

이미 골수에 배인 도적질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 많은 부하를 거느린 그는 깊은 산중에 본거를 두고 도적질을 하여 생계를 세웠으나, 의적의 이름을 들을 만큼 부자집에서 재물을 뺏어다가 남의 구차한 집을 도와주곤 하였다.

하루는 정봉서가 가난한 어느 집 앞을 지나갔는데 집안에서 방금 해산하는 소리가 들렸다. 인기척이 없는 그 집 부엌을 들여다보니 밥을 지을 쌀은 물론 국을 끓일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남편 되는 주인이 산모 구호를 해줄 길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얼굴만 쳐다보고 한숨만 쉬고 있는 딱한 형편임을 알아채고, 쌀과 쇠고기를 집주인 몰래 사서 부엌에 두고 안을 향하여,

“이 댁 바깥주인 계십니까?”

하고 소리쳤다. 그 소리에 놀라 주인이 쫓아 나오니 정봉서는,

“부엌에 들어가 보시오.”

라고 말하고는 그 집에서 사라져 버렸다. 주인이 의아해하면서 부엌으로 나가 보니 쌀과 고기와 산모에게 끓여 먹일 미역 등이 준비되어 있더라고 한다.

이와 같이 의적으로 백성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정봉서도 말년에 포졸에게 잡히고 말았다. 옥에 가두어 둔 정봉서에게 옥리는 먹을 것이라고 아무것도 주지 않아서 25일째 되는 날 굶어 죽었다. 정봉서의 마누라도 기운이 장사였는데 이 소식을 듣고 통한으로 쫓아가 그 앞에 있던 하마석을 번쩍 들고 삼대문을 때려 쳐서 판자가 날아갔다.

지금 금강공원 입구에는 그때 정봉서의 마누라가 부순 대문 기둥으로 지은 건물이 남아 있다고 고노들은 말하고 있다.

*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천년의 향기 해운대 이야기』, (주)디알, 2011, 310-311쪽.
반송향토지 편찬위원회, 『반송향토지』, (주)국제신문, 2011, 404-405쪽.

[해운대구 설화 26]

박권농의 아들

임진란이 일어나기 직전 박권농이란 사람이 동래에 살았다.

그는 아무 집을 가리지 아니하고 일을 거들어 주고 살아가는 하루살이의 비천한 몸이었다. 내일을 위한 꿈이라곤 손톱만치도 없는 권농에겐 술만이 약이 될 수 있는 벗이었다.

어느 날 만취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 미남리(온천2동)앞을 지나 지금의(온천천) 서천교에 다다랐을 땐 술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었다. 그는 결국 강변의 모래밭에 쓰러져 깊은 잠이 들었다. 얼마 뒤 권농이 깊은 잠속에서 자기를 흔들어 깨우는 사람이 있어 눈을 떠보니 검정 옷을 입은 사나이가 자기의 옷을 벗기고 있었다. 도둑은 남루한 권농의 바지저고리까지 모두 벗겨갈 작정이었던 것이다.

이때 역마차를 타고 이곳을 순찰하던 순라군이 이 광경을 보고,

“그곳에 있는 자는 누구냐? 박권농이 아니냐?”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권농은,

“이분은 우리 마을에 사는 사람이옵니다. 소인이 술에 취했기에 저를 집까지 업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순라군은,

“응,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하고 지나갔다.

도둑은 감사한 어조로,

“감사하오, 당신이 만약에 나를 도둑이라고 말했으면 내손에 맞아 죽었을 것이오.”

라고 말하면서 쥐고 있던 돌을 던졌다. 그리고는,

“제 등에 업히시오. 제가 집까지 모셔드리죠.”

하며 권농을 업었다. 집에 도착한 권농은 도둑을 방으로 안내하고 식사라도 같이 할 것을 권했으나 그는 응하지 아니하였다. 권농이,

“내 슬하엔 어린 것이 하나뿐이니 내 아들이 되어줄 수 없을까?”

하고 묻자 도둑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아버지로 모시겠사옵니다”라고 말을 남긴 채 사라졌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늦게 권농을 찾아온 양아들은,

“아버지 그간 별로 없으셨습니까? 제가 돈 2백량을 구포 만덕고개에 묻어 두었으니 오늘 밤 중으로 집에 옮겨 가용에 쓰십시오.”

라고 말했다. 권농은 처음에 사양했으나 간곡한 양아들의 말에 못 이겨 돈을 가져온 후부터 생계가 유복하게 되었다고 한다.

임진란이 일어나자 권농의 외아들은 속리산으로 피난 갔다가 전쟁 후 동래로 돌아왔다. 이때 동래 명문의 서동(현재의 금정구 서동) 김씨 댁에는 출생 때부터 얼굴에 보자기를 쓴 듯 껍질로 덮여 입만 내어 놓고 숨을 쉬던 괴물같은 딸 하나가 있었다.

사람의 형용을 갖추지 못한 딸 때문에 그 부모들의 근심을 말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 혼기를 놓친 노처녀에게 박권농의 아들이 청혼을 했으니, 그녀는 물론 부모님들도 반가운 마음으로 허혼을 했다. 결혼식 날 신랑은 대(竹)를 칼 모양으로 예리하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신부의 전신을 덮고 있던 껍질을 벗기니 놀랍게도 천하절색의 미인이 탄생했다고 한다.

그 후 이 부부사이의 금슬 좋게 살았으며, 서동 김씨의 세력으로 박씨의 후계들은 모두 잘 살았다고 한다.

*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천년의 향기 해운대 이야기』, (주)디알, 2011, 316-317쪽.

반송향토지 편찬위원회, 『반송향토지』, (주)국제신문, 2011, 405-406쪽.

[해운대구 설화 27]

동백꽃 사연

옛날 동백섬이 진짜 섬이었을 때의 이야기이다.

마을 사람들은 섬이 다리미 같이 생겼다 해서 다리미산으로 불렀고, 간혹 운촌마을에서는 앞섬이라고 불리어졌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바다에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갑자기 거센 파도가 일어나, 다른 어부들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지만 한 어부만이 돌아오지 못했다. 어부의 아내는 다리미산 꼭대기에 올라 날마다 바다를 보며 남편을 기다리며 울다 지쳐 스러지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이 불쌍한 아내의 부덤을 다리미산 꼭대기에 만들어 주었고, 몇 년 후 아내의 무덤가에 동백나무가 솟아 나와 동백꽃 한 송이가 붉디붉은 꽃을 피웠다. 이 사연을 토대로 가수 이미자의 노래 가사에는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강게 명이 들었소.’라고 표현하였다. 그 후 이곳에는 동백나무가 숲을 이루게 되어 동백꽃 섬이라 불리어졌고 세월이 흐르면서 동백섬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천년의 향기 해운대 이야기』, (주)디알, 2011, 272쪽.

참 고 문 헌

『동래부지』

김승찬·황경숙, 『부산의 당제』, 부산광역시사편찬회, 2005.

반송향토지 편찬위원회, 『반송향토지』, (주)국제신문, 2011.

부산남구민속회, 『남구의 민속과 문화』, 젊은 그들, 2001

주영택, 『해운대 역사와 문화를 만나다』, 해운대지구 향인회, 2010.

해운대구, 『해운대 민속』, 서면문화사, 1996.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해운대구지』, 대원인쇄문화사, 1994.

해운대구 관광문화과, 『천년의 향기 해운대 이야기』, (주)디알, 2011.

해운대구청 홈페이지(<http://www.haeundae.go.kr>).

제 보 자

-현장조사 설화 대상-

■ 남구

강신이(여, 1925년생, 용호1동)
권기숙(여, 1930년생, 대연1동)
김경순(여, 1923년생, 용호2동)
김경화(남, 1943년생, 대연1동)
김남이(여, 1946년생, 용호1동)
김순금(여, 1934년생, 용당동)
김순이(여, 1930년생, 대연1동)
김술화(여, 1925년생, 우암1동)
김옥환(여, 1930년생, 대연6동)
김양자(여, 1940년생, 용호1동)
김정옥(여, 1935년생, 용호1동)
김태연(여, 1931년생, 대연1동)
문수연(여, 1935년생, 문현4동)
박정희(여, 1935년생, 문현3동)
박순봉(여, 1933년생, 용호1동)
박판시(여, 1929년생, 용호2동)
백대남(여, 1937년생, 용호1동)
백복도(여, 1920년생, 우암1동)
손명금(여, 1935년생, 용호1동)
송명식(여, 1928년생, 용호1동)
심동석(남, 1945년생, 우암2동)
안두임(여, 1935년생, 문현3동)
엄남선(여, 1937년생, 용당동)
원선희(여, 1925년생, 감만1동)
이문순(여, 1934년생, 용당동)
이석임(여, 1931년생, 문현4동)

이석임(여, 1931년 생, 문현4동)
이준연(여, 1925년 생, 용호1동)
전봉식(여, 1933년 생, 용호1동)
최정숙(여, 1933년 생, 용호1동)

■ 수영구

강도윤(여, 1934년 생, 수영구)
김삼례(여, 1945년 생, 망미2동)
김순년(여, 1931년 생, 망미2동)
김판윤(여, 1931년 생, 남천1동)
노태순(여, 1944년 생, 망미동)
박상진(남, 1935년 생, 광안4동)
박은수(여, 1933년 생, 망미1동)
배옥순(여, 1928년 생, 민락동)
백남순(여, 1930년 생, 민락동)
염정순(여, 1931년 생, 망미2동)
오동주(여, 1934년 생, 민락동)
유동순(여, 1934년 생, 수영동)
윤재희(여, 1933년 생, 망미1동)
이두임(여, 1934년 생, 망미1동)
이복순(여, 1936년 생, 수영동)
이선희(여, 1934년 생, 광안1동)
이정례(여, 1930년 생, 수영동)
이창우(남, 1931년 생, 광안4동)
장정순(여, 1939년 생, 남천1동)
조계향(여, 1933년 생, 민락동)
주한조(여, 1934년 생, 수영동)
지석순(여, 1931년 생, 망미동)
최석규(여, 1940년 생, 망미1동)

■ 해운대구

강말선(여, 1930년생, 우1동)
강선이(여, 1926년생, 재송1동)
구금자(여, 1928년생, 중1동)
김 가(남, 반송2동)
김금순(여, 1936년생, 반여1동)
김복선(여, 1930년생, 석대동)
김복례(여, 1938년생, 재송1동)
김복림(여, 1938년생, 우2동)
김봉화(여, 1930년생, 송정동)
김분필(여, 1940년생, 우1동)
김상기(남, 1926년생, 재송동)
김상복(여, 1936년생, 반여1동)
김상옥(여, 1939년생, 중2동)
김소학(여, 1933년생, 중1동)
김옥순(여, 1928년생, 중2동)
김인학(여, 1926년생, 송정동)
김정금(여, 1931년생, 우1동)
김차금(여, 1935년생, 송정동)
김추자(여, 1940년생, 재송1동)
노차숙(여, 1929년생, 송정동)
모규일(남, 1931년생, 반여동)
문명수(여, 1940년생, 우1동)
박명순(여, 1933년생, 석대동)
박문자(여, 1934년생, 재송1동)
박이순(여, 1940년생, 반송2동)
송정숙(여, 1927년생, 반여1동)
신계선(여, 1938년생, 중1동)
양복자(여, 1940년생, 우1동)
우연자(여, 1926년생, 우2동)
이말임(여, 1946년생, 우1동)

이말순(여, 1930년 생, 중2동)
이상배(남, 1934년 생, 재송동)
이원룡(여, 1925년 생, 재송1동)
임만용(여, 1921년 생, 반여4동)
정재금(여, 1935년 생, 반송1동)
정점열(여, 1936년 생, 반송1동)
정춘자(여, 1931년 생, 석대동)
조남순(여, 1920년 생, 재송1동)
조분수(여, 1934년 생, 반여1동)
주삼순(여, 1935년 생, 우1동)
최호영(남, 1938년 생, 반송2동)
홍제분(여, 1930년 생, 반송1동)
황연자(여, 1931년 생, 우1동)

찾아보기

(ㄱ)

가결이 253
 가난 267, 459, 513
 가족 83
 가족 554
 각시 60, 71
 각시당 60, 71, 559
 간 134
 갈등 24, 221
 감동 122, 284
 갓 143, 402
 강도윤 165, 167
 강말선 271, 272
 강선이 289, 290
 강신이 70
 강아지 60
 강태공 459
 강피 30, 53, 56, 72, 78, 86, 88, 102
 개 116, 208, 360, 434
 개구리 고기 221
 개똥 12
 개좌골 567
 개좌산 332
 개척 444
 객귀 77
 거짓 276
 걱정 157

계 장사 162
 결연 340
 결혼 241, 305, 319, 513, 528
 계모 89, 516
 고당신 571
 고동각시 399
 고려장 20, 32, 97, 106, 107, 122, 135
 142, 156, 157, 158, 263, 476
 고부 24, 221
 고시네 349
 고아 490
 고양이 360
 고옥숙 444, 446
 고지산 217
 곡소리 128, 304, 549
 골탕 545
 곰보 241
 꽃감 56, 70, 94, 281
 과거 283, 392, 470
 과거시험 20
 과부 6, 7, 286, 289, 446, 512
 과식 482
 광거매자 103
 광씨 478
 관 212
 광아산 310
 광어 310

광주 김씨	333	김경순	81, 83
구걸	59	김경화	5
구경희	483, 485	김금순	220
구금자	301, 303, 541, 543	김금전	331
구두쇠	127, 207	김남이	72
구렁덩덩	227	김만년	575
구렁이	37, 38, 97, 127, 153, 167, 176, 197, 259, 260, 263, 292, 499	김명진	447, 448, 449, 451
구멍	387	김복동	530
구박	89, 516	김복례	291, 292, 294
구식	275	김복리	163
구옥순	446	김복림	282, 284
구청	301, 541	김복선	259
권계한	412	김복순	506
권관목	382	김봉란	459
권기숙	6	김봉화	264, 265
귀	417, 472	김삼례	143, 144, 145, 146, 147, 148, 149
귀신	305, 310	김삿갓	139
귀향	536	김상기	286, 414
그리움	502	김상복	221
그림	164	김상옥	306, 307, 308, 309, 310, 311, 313, 314, 316, 317
글	279	김상욱	333
금덩어리	185	김석칠	461
금침	569	김성복	332
급제	441	김소학	305, 306
기	546	김수근	354, 355
기름	47	김순금	53
기우제	217	김순남	444
길경이	47	김순년	149
길이	473	김순옥	535, 536
김가	215		

김순이 7, 8, 10, 11
 김술화 87, 88
 김씨 561, 563
 김양자 77, 78
 김옥순 319, 323, 324, 325
 김옥환 14, 17, 20
 김우포 391
 김우표 372, 373, 374, 376, 380,
 382, 384, 385
 김유신 136
 김윤만 560
 김인학 266, 267
 김인환 334, 340, 345
 김임주 417
 김재근 356, 358
 김정금 277
 김정옥 59, 60, 61
 김차금 269
 김추자 295
 김춘추 136
 김태연 12, 13
 김판윤 107, 109, 110, 111, 112
 김한림 392
 김호선 509, 512, 513, 515
 까치 52, 398
 꼬끼오 532
 꼬리 따기 371
 꼬부랑 69, 71
 꿩 25, 33, 253, 454
 꿈 136, 392, 435
 끝났다 113

(ㄴ)

나라 258
 나무꾼 8, 28, 84
 날씨 325
 남근 146, 273
 남동생 482
 남매 412
 남자 180
 남편 47, 71, 95, 124, 209, 354, 356,
 502, 503, 515, 546, 551, 552
 낭신 452, 454
 낭패 162
 내력 20, 32, 97, 107, 122, 135,
 142, 156, 158, 263
 내외 149
 너럭바위 574
 녀 573
 노래 482
 노모 32
 노인 103, 154, 313, 530
 노차숙 270
 노태순 119, 121
 녹두영감 209
 논 103
 놀림 388
 누나 165
 눈갈사탕 461
 눈치 11
 느티나무 578

(ㄷ)

다리	65, 125
단칸방	98, 100, 101, 117, 147
달래고개	288
닭	72
닭소리	154
담비	535
담비탈	535
담치	470
당산나무	40, 306
당산신	391
대구	151
대답	129
대보름	566
대보름달	565
대화	220
덕	423
도깨비	41, 99, 100, 103, 105, 163, 169, 219, 270, 294, 301, 308, 323, 444, 451, 464, 475, 487, 543
도깨비불	5, 275, 301, 541
도둑	91, 395, 399, 410
도둑 머느리	10
도둑골	577
도둑질	80
도망	157, 279
도선	349
도채비	576
독촉	197
돈	11

돌	57, 74, 533
동냥	472
동래	536
동백꽃	587
동백나무	573
동백섬	573
동상례	449
동생	110, 165, 224, 288, 545
동서	59
동티	40
돼지	234
두꺼비	3, 114, 185, 222, 297, 305, 334, 440, 500
둔갑	182, 358
등바우	576
딸	13, 49, 58, 83, 89, 180, 265, 276, 282, 331, 340, 345, 468
떡	87
똥	156

(ㄹ)

마누라	583
마당	169
마일너	97
만포장	65
말	74, 151, 283, 417, 461, 512
말대꾸	132
망부송	579
매구	385, 432
매미	209
매장	441

머리카락	97, 153, 292	바구니	573
머슴	101, 512, 513	바깥사돈	115, 143
메밀나무	272	바리데기	265
며느	87	바보	110, 128, 129, 149, 164, 215, 304, 314, 545, 549, 551, 552
며느리	23, 41, 46, 54, 55, 62, 63, 70, 79, 80, 87, 109, 132, 153, 156, 160, 216, 249, 264, 277, 278, 291, 295, 299, 300, 324, 325, 369, 480, 509, 555	바위	215, 296, 308
명당	138	바지	530
명당자리	170	박권농	585
명풍수	349	박명순	261, 388
모규일	217, 218	박문수	33
목숨	311, 352	박문자	296, 297, 298
몰리못	574	박상진	103
묘	217, 365	박순봉	62
묘터	331, 333	박은수	133, 134, 135, 136, 137, 139, 140, 141, 142
무	46	박이순	212
무덤	50, 434	박정쇠	21, 23, 25, 26,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40
무지개산	564	박제임	516
문둥병	124	박관시	84, 85
문명수	278, 279	반찬	160
문수연	46, 47, 48, 49, 50	밤길	121
문제	32	밥	57, 59, 156
물	298	방	149, 162
물구나무	530	방귀	3, 79, 87, 109, 153, 277, 295, 300
물명당	430	방귀쟁이	468
		방법	505
		배	141, 155, 162, 164, 308, 444, 451, 482, 485, 531
(부)		배옥순	153
바가지	308		

백남순	154, 155, 156, 531, 532	211, 216, 264, 278, 291, 299,
백대남	73, 74, 77	316, 324, 325, 478, 538
백복도	88	봉양한 54, 62
백산	535	부동양반 289
백성	112	부모 35, 43, 85, 316, 325, 478, 538
뱀	207, 404	부모다리 212
뱀술	404	부부 101, 117, 126, 147, 154, 171,
뱀신랑	227	220, 356, 505
뱃사공	273, 313	부인 95, 102, 149, 459, 470, 472,
벌	509	500, 503, 515, 516, 546
범	530	부자 111, 286, 365, 380, 399, 431,
범골	573	476, 478, 488, 490
범바위	568	부자집 267
병어리	220, 505	부잣집 513
변	169	부처 243
변명	142	부친 331, 365
변신	83, 500	불 451
별	155	비 129
병 65, 224, 265, 273, 286, 435		비단장사 410
보	218	빈대 372
보답	222	빗자루 5, 275, 305
보동댁	289	빗 197, 420
보리타작	316	뺨 123
보은	360, 398, 440	뺨악뺨악 532
보이더라	113	
복 8, 65, 82, 199, 459		(^)
복바위	251	사돈 5
본처	89, 204	사람 355, 402, 470
봉변	274	사명대사 17
봉사	505, 515	사신 32
봉양 23, 46, 55, 70, 79, 156, 160,		사연 106, 485, 587

사위	115, 128, 304, 334, 549	성	164
사윗	51	성귀자	545, 547
사자	535	성주대왕	265
사주	503	성차순	418
사촌	286	섰자리	61
산	310	소	402
산고동	391	소금장수	6
산꼭대기	298	소리	77, 316
산명	447	손각시	269
산삼동자	85, 284, 325	손님	98, 273
산신령	284	손명금	71
산신제	559	손자	77, 273
삼정승	282	손주	146
삼죽구	426	손해	480
삼형제	490	솔리방	576
상객	5, 271	송명식	71
상사뱀	374	송장	123
상여바위	298	송정	393
상좌	167	송정숙	219
새끼	119, 222	쇠북	210, 261, 538
생쥐	48	수난	98, 100, 145, 148, 149
서낭당	533	수탉	251
서울	151	숙종대왕	352, 437
서인수	99, 100, 101	순종	546
석대	581	술	285
석대동	578	술값	176
선무당	11	술바위	285
선바위	577	술이	65
선비	380	스님	38, 167, 218, 277, 490
선생	525	승천	269
섬	304	시랑대	269

시신	441	썩나발	117, 129, 150
시아버지	87, 142, 149		
시어머니	10, 12, 23, 46, 54, 55, 62, 70, 79, 156, 160, 207, 216, 249, 259, 264, 278, 291, 299, 324, 509, 555	(°)	
시조	372	아기	50, 269
시집	13, 80	아기장수	34, 258
시집가	443	아내	47, 423
신	292, 352, 466	아들	24, 26, 37, 43, 118, 125, 132, 149, 197, 243, 273, 283, 285, 296, 418, 446, 454, 488, 516, 585
신계선	304, 550	아랑	21
신대장	421	아버지	25, 37, 43, 100, 126, 197, 276, 285, 531
신랑	110, 241, 500, 528	아빠	155, 162
신랑각시	151	아씨당	559
신립	376	아이	36, 44, 136, 141, 169, 260, 308, 551, 555
신부	241, 443, 528	아이들	483
신선비	227	아이와	311
신식	148, 275	아치섬	464
신필영	389, 391	안두임	41, 42, 43, 44
신학수	389, 392, 394	안사돈	143
신혼여행	466	안적사	580
실수	271	양갓음	253
심동석	91, 94, 95	애교	149
심부름	421	애기소	572
십층	274	애기장수	574
쌀	57, 452	약학	490
쌀독	207	양모여	525
쌀바위	262	양보	286
씨름	294, 323, 475, 487, 543	양복자	273, 274, 275
씨름한	301		
썩	116		

양아들	126	오빠	224, 234
어머니	57, 125, 127, 211, 454, 531, 539	온천	387, 444
어사	488	옹기장사	7, 289
언니	136	와우산	565, 566
엄남선	54	왕	319
엄마	121, 155, 162, 180, 283	왕차옥	465
엄	431, 443	왜군	34
에밀레종	36, 44, 136, 260	외투	554
여동생	136, 234	욕심	59, 84, 138, 262
여동지	373	욕쟁이	115
여름	539	용굴	394
여순이	20	용궁사	308
여우	83, 134, 224, 317, 358, 437, 582	용두각시	388
여인	30, 56, 72, 78, 86, 88, 319, 573	용왕	488
여자	209, 215, 304	우렁각시	28
여치	551	우물	317
연못	564	우연자	284, 285
열녀	123	운명	31
열부	124	운봉사	372
염라대왕	8	운봉산	333, 561, 562, 563
염불	63, 249, 277	원선회	3, 4
염정순	150, 151	원수	454, 516
영감	91, 303, 388, 475, 576	원한	265
영협	391	원혼	21
오누이	288	유동순	169, 170
오동주	157	유래	393, 469
오래비	454	유래담	447
오명선	551, 552	유봉화	97, 98
오미주	559	유서	140
		유언	212
		유종선	162

윤경윤	560	이월순	466, 467, 468, 469, 471, 472, 473
윤옥순	115, 116, 117, 118	이유	272
윤재희	143	이율곡	106
윤정화	500, 502	이장	50
윤차분	360, 365, 369	이정례	200, 204
은혜	3, 52, 114, 185, 222, 297, 426	이종해	435, 437, 440
음부	145	이준연	63, 65, 66, 69, 70
의령읍	212	이진순	454
의상대사	384	이창우	103, 105, 106, 475, 476, 478,
의적	583	이태순	441
의학	490	이퇴계	106, 140
이	111, 145	인가죽	292
이경룡	420, 421, 422, 423, 426, 428, 430, 431	인신공회	405
이두임	128, 129	인어상	570
이득명	432, 434	인연	356
이말순	325, 327	인재	309
이말임	280	일	129
이무기	382, 427	임구례	499
이문순	55, 56, 57, 58	임금	112
이복수	451, 452, 454	임만용	224, 234, 241, 243, 246, 249, 251, 253
이복순	171, 176, 180, 182, 185, 197	임씨	306
이불	552	입	157, 279
이상배	288	입방정	215, 304
이석임	51		
이선희	102		
이소계	387		
이소연	395, 398, 399, 402, 404, 405, 410	(ㅈ)	
이야기	41, 69, 71, 91	자리	541
이원룡	299	자매	395
		자식	17, 28, 85, 157, 204, 208, 212, 316, 325, 478, 538

자취	388	정영시	349, 352
장가	171, 525	정인홍	427
장거리	99	정재금	209
장군	296, 376	정진환	371, 372
장님	220	정춘자	262, 263
장복이	481, 482	제갈공명	423
장사	105, 162, 308, 487, 581	제사	165, 267
장산	296, 391, 572, 577	제삿날	313
장수	371	제삿밥	35, 97, 153, 292
장요순	371	제석골	559
장정순	113, 114, 119	제왕관	296
장화	14	조계향	158, 160
재생	319	조난	307
재송동	571	조남순	300
재치	141, 418	조동양반	289
재혼	354	조분수	222, 223
저승	246, 280, 327, 354, 421	조분이	554, 556
전금순	559	조월천	374
전남옥	528	조치원	469
전봉식	79	조호순	487
전우	28	좃	472
전처	58, 265	좃충	144
절	552	좌동	576
정과정	536	주둥이	435
정만서	446	주삼순	280, 281
정묘	422	주인	253, 277, 297
정봉서	583	주한조	207, 208
정봉점	504	죽음	276, 376
정상	310	중	13
정서	536	중국	32
정승	334, 340	쥐	51

지네	72, 118
지네장터	222
지렁이	26, 160
지렁이 반찬	79
지렁이국	23, 46, 54, 55, 62, 70, 216, 264, 278, 291, 299, 324
지명	393, 447
지석순	123, 124, 125, 126, 127
지킴이	260, 263
진심	4
질식사망	467
질투	209
집	50, 141, 263, 267, 289, 513
집안	170, 260, 499
징계	17

(ㄱ)

차동준	443
창건	580
창녕 성씨	138
책	503
처갓집	110, 215, 314
처녀	61, 273, 305, 310, 513
천마산	394
천벌	369
첫날밤	461, 552
청사	306
청사포	309, 447, 448, 579
청사포제당	446, 449
초립동이	414
총각	305, 340

최낙규	165
최석규	129, 132
최정숙	80
최천숙	488, 490
최호영	212
춘천	572
출생	384
출세	459
충견	297
충신	20
치매	77
친정	331
친정아버지	271, 480
칠성	155

(ㅋ)

코	467

(ㅌ)

태	296
택시 기사	310
탯줄	269, 388
토끼	209, 388
통곡	551

(ㅍ)

파선	308
파자시	139
파평 윤씨의	372
팔자	30, 31, 53, 56, 72, 78, 86, 88, 102, 243

편지	279	형님	545
폐사	372	형제	57, 110
폴국	265	호각소리	468
폴국새	58, 101, 265, 485	호랑이	56, 70, 94, 119, 121, 122, 144, 157, 182, 222, 279, 281, 311, 412, 483, 533, 554, 573
풍수	212, 352, 490	호식	243, 282, 340, 483
풍수지리	448	혼	48, 176, 209, 270, 466
(ㅎ)		혼인	136
하느님	246	홀아버지	171
하늘	4, 180	홀어머니	25
하인	253	홍련	14
학동	525	홍시	211, 389, 539
한	37	홍영대	534
할매	446, 449	홍제분	211, 538, 540
할머니	41, 77, 182, 274, 311	환생	26, 28, 37, 38, 167, 204
할멈	303	황연자	275, 276
할아버지	146, 273	회개	246
합방	101, 117, 147, 148	횡재	6
해골	502	효녀	561, 562, 563
해운대	444, 570	효도	132, 208
해원	414	효부	12, 85, 122
해인사	427	효심	125, 284
햇빛	420	효자	20, 43, 57, 103, 171, 210, 211, 212, 261, 316, 389, 391, 478, 538, 539
행실	95	후손	140
허깨비	61	후처	17
허물	204		
헛배	307		
혀	316		
현풍	103		
혈	309		

■ 현장조사자

• 현장조사 1팀

책임자 : 박경수(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조사자 : 김민지, 박소연, 박소영, 오소현(이상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학부)

• 현장조사 2팀

책임자 : 황경숙(부경대학교 외래교수)

조사자 : 정혜란(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신주성, 최지은(이상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학부)

■ 편집위원

위원장 : 강대민(경성대학교 교수)

위 원 : 김동철(부산대학교 교수)

위 원 : 박은경(동아대학교 교수)

위 원 : 김강식(동서대학교 교수)

위 원 : 황경숙(부경대학교 외래교수)

위 원 : 홍연진(부산광역시 시사편찬실)

부산구술문화총서②

동부산 문화권 설화(Ⅱ) 남구·수영구·해운대구 편

발행인	강창석
편저자	박경수 · 황경숙
편집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교열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연구위원 표용수
발행일	2013년 10월 31일
인쇄	성진종합인쇄사
발간등록번호	52-6260000-000301-10
ISBN	979-11-85308-01-2
	978-89-964975-9-5

(비매품)

연락처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시사편찬실
전화 : 051) 888-4121~3 / FAX : 051) 888-4129

자료검색 부산시(www.busan.go.kr) > 해양수도부산 > 부산의 역사 > 향토사도서관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www.bssisa.com)

